

국제고려학 제19호

ISSN 1347-7307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2023

국제고려학회

국제고려학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제19호

국제고려학회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국제고려학

제19호

차례

일반논문

| | | |
|---|----------------|-----|
| 최근 공화국에서 새로 채택 및 수정보충된 주요 경제관계법들의 내용에 대하여 | 김신호 | 5 |
| 1950년대 조선 농민소설의 비적대적 갈등 구조와 그 의미 —천세봉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중심으로— | 金英姬 · 李善 | 23 |
|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고있는데 대하여 | 김웅호 | 53 |
| 개성시 해선리에서 새로 발굴된 명릉동벽화무덤에 대하여 | 김인철 | 63 |
| 조선봉건왕조시기 김치에 대한 문헌적연구 | 김지원 | 75 |
| 17세기이후 중세단편소설에서 새로운 성격형상의 탐구 | 김진국 | 95 |
| The Influence of the Non-Church Movement Found in Japanese Citizens' Support for Korean A-bomb Victims | Yuko Takahashi | 119 |
|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수업의 효과 연구 —일본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 柳美善 | 139 |
|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있어 조선어 사전 편찬의 역사적 변천을 수반한 타이포그래피의 변화(1945-2007) | 劉賢国 | 159 |
| 지명 「비서갑」을 통하여 본 고조선과 고구려, 고려의 역사적호상관계에 대하여 | 리성호 | 185 |
| 조선글자의 형태음운론적처리에 대하여 | 리승길 | 199 |

| | | |
|--|---------------|-----|
| 「검무」(1934)로 보는 최승희 무용의 '전통성' | 朴景蘭 | 221 |
| 그룹 워크를 이용한 발음 학습효과에 대한 고찰 —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 | 朴恩珠 | 249 |
| The Succession of Ethnic Dance Education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Joseon School | Suh Hee Young | 267 |
| 민족의 성지 백두산을 노래한 해방전시문학에 대하여 | 심경섭 | 291 |
| 원효사상의 거시적 접근과 현대적 의미 | 이병욱 | 311 |
| 하브루타 기법을 활용한 소설 텍스트 읽기 교육 지도안 | 易超 · 裴允卿 | 325 |
| 한국어 조사의 품사성에 대한 고찰 | 全永根 · 黃文偉 | 349 |
| 최근 평양시 대성구역에서 새로 발굴된 림흥동 1호우물유적에 대하여 | 정봉찬 | 373 |
| 일본 범류사에 전해오는 옥충주자의 국적에 대하여 | 조희승 | 389 |
| 18세기의 책판목록 『루판고』 | 탁용범 | 407 |
|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와 제한성 | 허명철 | 419 |
| 중국 연변조선어 어간말 비음 'ŋ'의 탈락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고찰 | 許秦 | 433 |
| 제15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심포지엄 「재일코리안 표상의 변천」 | 姜民護 | 457 |
| ‘총련계’ 재일조선인표상의 정치학 | 金泰植 | 459 |
| 심포지엄 「재일코리안 표상의 변천」에 대한 토론문 | 岡崎享子 | 473 |

최근 공화국에서 새로 채택 및 수정보충된 주요 경제관계법들의 내용에 대하여

Contents of Major Economy-related Laws Newly Adopted
and Amended in the Republic

김신호*

조선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경제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며 경제 기관, 기업체들이 국가의 리익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시하고 정해진 법과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합니다.》

현시기 우리 국가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는것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세계적인 대재앙인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이 발생하여 일정한 난관을 가져왔지만 경제를 하루빨리 추켜세우고 인민생활향상에서 획기적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국가의 정책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최근년간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간공업부문을 비롯하여 경제와 관련한 법들을 새로 채택하거나 수정보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Kim Sin Ho(Section Chief of Institute of Laws,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1. 기간공업부문을 추켜세우기 위하여 새로 채택 및 수정보충한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철도운수, 기계공업부문에 대한 법

1.1. 금속공업부문법

최근 금속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채택된 법들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속법”[주체110(2021)년 7월 1일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색금속법”[주체109(2020)년 1월 10일 수정보충]이다.

금속공업법은 금속공업부문의 기본법이다. 금속공업법은 총 5개장 49개조문으로 되어있다.

금속공업법은 금속의 생산과 공급 및 판매, 금속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세워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발전시키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첫째로, 금속공업에 대한 정의와 금속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원칙들을 규제하고있다.

금속공업은 선철, 삼화철, 강철, 합금강, 압연강재 같은 흑색금속 및 가공품과 동, 니켈, 연, 아연 같은 유색금속 및 가공품을 생산하는 공업이다.

국가는 금속공업발전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고 선진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금속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도록 하는것을 금속공업발전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하고있다.

국가는 금속공업부문에서 에네르기소비기준을 낮추기 위한 과학기술적대책을 바로세워 에네르기를 효율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도록 하는것도 기본원칙의 하나로 내세우고있다.

둘째로, 금속생산에서 나서는 기본요구를 밝히고있다.

제철공업부문에서는 산소열법에 의한 주체철생산공정에서 원가를 낮추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적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우리 식의 철생산방법들을 더욱 완성하며 에네르기절약형의 현대적인 제철기지들을 건설

하여야 한다.

제강공업부문에서는 정련기술을 비롯한 앞선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제강 시간을 단축하고 강질을 높이며 중량레루, 불수강 등 여러가지 압연강재와 인발강관, 쇠바줄을 비롯한 2차, 3차가공제품생산을 늘여야 한다.

합금철공업부문에서는 합금철생산기지들을 완비하고 회토류원소를 비롯한 합금원소광물을 개발리용하여 여러가지 합금철과 개량제들을 생산하여야 한다.

제련공업부문에서는 생산토대를 보강확대하고 제련능력과 제련실수율을 높여 전기동, 연, 전기아연 같은 유색금속생산을 늘여야 한다.

셋째로, 금속의 공급 및 판매와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국가계획기관은 금속생산량과 수요, 경제발전방향 같은것을 타산하여 금속공급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시달하여야 한다.

금속생산기업소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금속공급 및 판매계약을 맺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금속공급계약은 금속공급계획에 따라 맺는다.

금속생산기업소는 생산한 금속을 해당 법규에 따라 다른 나라에 수출할수 있다.

금속공업법을 위반한 경우 민사적 및 행정적, 형사적책임을 규제하고있다.

1.2. 화학공업부문법

화학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채택된 법들가운데서 중요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학공업법”[주체110(2021)년 7월 1일 채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소금법”[주체110(2021)년 5월 20일 수정보충]이다.

화학공업법은 화학공업부문의 기본법이다. 화학공업법은 총 6개장 53개조문으로 되어있다.

화학공업은 자립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의 명줄과도 같은 나라의 핵심공업이다.

화학공업법은 화학공정의 건설과 화학제품의 생산, 공급 및 판매, 화학공

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적극 추동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이 법은 화학공장건설, 화학제품의 생산, 화학제품의 공급 및 판매, 화학공업부문에 대한 조건보장, 화학공업부문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와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정하고있다.

첫째로, 화학공장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화학공정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총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으며 환경영향평가, 건설위치지정, 토지리용허가, 건설명시를 받아야 한다.

새로 건설하려는 화학공정에 대하여서는 부문과학기술심의를 받은 다음 중간시험공정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심의를 받아야 한다.

화학공장설계는 전문설계기관이 한다. 화학공정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기술과제서를 설계기관에 넘겨주며 설계에 필요한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화학공장건설은 전문화학건설기업소가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건설기업소도 할수 있다.

건설된 화학공정에 대한 준공검사는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이 경우 중앙화학 공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기관의 필요한 성원들을 참가시킨다.

둘째로, 화학제품의 생산과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국가적조치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기구조직기관이 조직한다.

국가계획기관은 화학제품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생산능력, 원료, 자재, 동력 보장대책가능성, 축적과 소비의 균형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한데 따라 과학적이며 현실성있는 생산계획을 세워 제때에 시달하여야 한다.

생산된 화학제품은 해당 법규에 따라 품질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제품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화학제품은 생산실적으로 평가하지 않으면 출하할수 없다.

셋째로, 화학제품의 공급 및 판매, 리용과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

제하고있다.

화학제품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생산지표와 능력, 인민경제적수요, 경제발전방향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화학제품공급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 시달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와 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화학제품공급 및 판매계약을 맺고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받은 화학제품을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며 기술경제적타산을 바로하고 현대과학기술을 받아들여 화학제품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폭발성물질, 인화성물질, 독성물질 같은 특수한 화학제품은 특별히 정해진 질서에 따라 엄격히 취급, 리용하여야 한다.

화학제품생산기업소는 생산한 화학제품을 해당 법규에 따라 다른 나라에 수출할수 있다.

화학공업법을 위반한 경우 민사적 및 행정적, 형사적책임을 규제하고있다.

1.3. 전력공업부문법

전력공업은 경제강국건설의 전초선이며 전력은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이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전력공업을 경제강국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내세우시고 전력생산의 정상화와 생산된 전력의 효과적리용, 전력공업의 현대화와 새로운 동력기지의 창설 등을 비롯하여 전력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제시하는것과 함께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고 나라의 전반적전력계통을 통합하며 생산된 전력을 전반적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새로 수정보충된 경제관계법들 가운데서 중요한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주체110(2021)년 10월 26일 수정보충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형발전소법”[주체105(2016)년 11월 23일 수정보충이다.

공화국전력법은 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전력리용, 급전지휘,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첫째로, 공화국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 통합전력관리체계구성,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 전력리용 및 급전지휘원칙 등을 규제하고있다.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전력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은 전력공업발전의 기본요구이다.

수력발전소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풍력, 지열, 조수력, 생물질, 태양열을 비롯한 다른 여러가지 에너기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건설을 배합하고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키며 여기에 송배전시설건설을 따라세우는것을 전력시설건설의 기본원칙으로 하고있다.

전력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고 전망성있게 확대하며 발전설비의 효율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전력생산의 기본원칙으로 하고있다.

둘째로, 전력시설건설계획의 작성, 전력시설건설설계, 전력시설건설기관, 전력시설건설물의 질, 조업기일보장, 중소형발전소건설 등 전력시설건설과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전력시설건설을 잘하는것은 전력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전력시설건설계획을 국가계획기관이 전력에 대한 전망적수요와 전력자원 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전력시설건설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야 한다.

전력 및 동력설계기관과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과 규모가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고 승인된 기술과제에 따라 전력시설을 설계하며 수력발전소설계는 필요한 대상에 일간부하조절에 리용할수 있는 조정지와 발전설비의 예비능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소건설은 전문발전소건설기업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하며 주전력계통의 송배전시설건설은 전력공업부문의 기관, 기업소가, 그밖의 송배전시설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전력생산계획의 작성 및 실행, 수력발전소에서의 전력생산과 화력발전소에서의 전력생산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전력생산계획을 세우며 그에 따라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수력발전소에서의 전력생산에서는 수력발전소의 운영효율, 물확보문제, 물길굴, 저수지의 보호구역 및 관리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화력발전소에서의 전력생산에서는 전력생산증가의 리용, 화력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 보일러, 공업로에서의 전력생산에 대하여 규제하고있다.

셋째로, 교차생산조직표의 작성 및 제출, 교차계약체결, 교차계약의 준수 등 교차생산과 관련한 문제들을 규제하고있다.

교차계약을 맺으려는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급계약을 맺는데 따라 월마다 날자별, 시간별, 기대별전력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교차생산조직표를 작성한 다음 정해진 기일안에 해당 지역 송배전기관에 내야 한다.

교차생산조직표를 접수한 지역송배전기관은 전원관계에 따라 자기의 관할대상들에게 직접 합의해주며, 상급기관의 관할대상은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합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차생산조직표에 대한 합의를 받은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 송배전기관과 교차계약을 맺어야 하며, 정해진 기간안에 교차계약을 맺지 않은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전력공급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해당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차계약을 맺는데 따라 직장 및 작업반별, 공정별, 기대별교차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교차계약은 어길수 없다.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감독통제와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민사적 및 행정적,

형사적책임을 규제하고있다.

1.4. 석탄공업부문법.

공화국에서는 탄광들을 경제발전의 척후전구로, 석탄을 공업의 식량으로 내세우고 탄광들에서 탐사와 굴진을 앞세우고 채굴과 운반을 기계화하며 새로운 탄광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 석탄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향과 방도와 함께 석탄공업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최근 석탄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하여 채택된 법들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주체110(2021)년 9월 14일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소탄광법”[주체110(2021)년 9월 14일 수정보충]이다.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자립경제발전의 전초기지이다.

석탄법은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는것을 법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석탄법은 총 5개장 80개조문으로 되어있다.

첫째로, 석탄공업발전, 석탄탐사, 탄광개발, 석탄생산, 석탄공급 및 리용원칙을 규제하고있다.

국가는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어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석탄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석탄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키는것을 석탄공업발전원칙으로 하고있다.

국가는 석탄탐사의 과학화, 현대화, 정보화를 실현하며 석탄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내도록 하는것을 석탄탐사의 기본원칙으로 하고있다.

국가는 석탄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대규모탄광개발을 다그치는 한편 중소규모탄광을 많이 개발하도록 하는것을 탄광개발원칙으로 하고있다.

국가는 석탄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유리한 탄광들에 투자를 집중하고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갱내작업의 종합적기계화, 운반의 다양화를 실현하여 인민경제적수요에 맞게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을 석탄생산의 기본원칙으로 하고있다.

둘째로, 석탄탐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석탄탐사는 전망탐사와 현행탐사, 작업탐사로 나누어 한다.

전망탐사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현행 탐사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업탐사는 해당 탄광이 한다.

전망탐사에서는 10~20년이상 앞질러가면서 석탄자원의 분포상태를 립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밝히며 유망한 석탄매장지를 더 많이 찾아낸다.

현행탐사에서는 운영중에 있거나 개발중에 있는 탄광의 심부와 주변구역에서 10년이상 켄수 있는 석탄매장량을 넉넉히 확보한다.

탄광에서의 작업탐사는 예견된 채굴구역에서 합리적인 채굴을 보장할수 있는 과학기술적담보를 마련하는데 중심을 두고 1년이상 앞세워 조직 진행한다.

석탄탐사설계는 석탄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지질조사, 예비탐사, 세부탐사단계별로 탐사설계를 작성하여 대상에 따라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또는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탐사설계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여야 한다.

셋째로, 탄광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승인없이 탄광개발을 할수 없다.

탄광개발승인을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만들

어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지하자원개발지도기관은 탄광개발과 관련한 문제를 통일적으로 검토하고 비상설 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규모탄광개발을 신청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구석탄탐사기관,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 지하자원보호감독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으며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하려는 구역이 이미 승인된 탄광개발구역인 경우에는 해당 탄광 및 그 상급기관과도 합의하여야 한다.

비상설자원개발심의위원회는 탄광개발신청문건을 접수한 경우 탄광개발 목적과 규모, 석탄매장량, 품위 같은것을 정확히 심의하고 탄광개발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탄광개발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탄광개발승인문건을 발급한다. 이 경우 탄광개발승인문건에는 탄광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석탄매장량, 탄광개발구역, 탄광개발기간, 채굴좌표경계선, 탄광개발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탄광개발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이유를 밝혀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돌려보낸다.

탄광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날부터 1개월안으로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에 탄광개발승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탄광을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준비가 끝나면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탄광은 석탄생산을 할수 없다.

넷째로, 석탄의 공급 및 판매, 리용과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생산량과 수요, 설비 및 자재보장대책가능성, 석탄소비기준, 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석탄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석탄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공급 및 판매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계획외의 석탄은 공급할수 없다.

석탄을 공급, 판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석탄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용도에 따르는 석탄품위와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석탄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한데 따라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단위만이 수출할수 있다. 석탄수출단위는 비상설수출입심의위원회에서 석탄수출할당량을 받는데 따라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수출계획을 받고 석탄을 수출하여야 한다. 석탄수출할당량 및 계획을 석탄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시달하거나 다른 탄광으로부터 석탄을 사들여 수출하는 행위는 할수 없다.

석탄법을 위반한 경우 민사적 및 행정적, 형사적책임을 규제하고있다.

이외에 철도운수부문에서는 철도법(주체110(2021)년 3월 24일 수정보충과 기계공업부문에서 기계공업법(주체110(2021)년 7월 1일 채택)이 있다.

2. 나라의 모든 시, 군들을 나라의 전반적발전을 떠받드는 강력한 보루, 시, 군을 문명부강한 사회주의강국의 전략적거점으로,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 당의 총적목표로 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시, 군발전법”

주체110(2021)년 9월29일 채택된 시, 군발전법은 총 5개장 98개조문으로 되어있으며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여 우리의 혁명진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첫째로, 지방공업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가는것이다.

우선 지역적특성에 맞는 지방공업공장과 기업소를 건설하며 현대화수준을 높여 생산을 정상화해나가는것이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공업공장, 기업소를 잘 꾸리고 생산을 활성화하며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고 자기 군을 상징할수 있는 명상품, 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기초식품공장, 식료공장과 같은 인민생활과 직결된 공장부터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식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정상적으로 생산공급하여야 하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방공업공장을 최첨단수준에서 현대화하기 위한 전망계획과 단계별계획을 세우고 그 집행을 적극 추진하여 자기 지역안의 모든 지방공업공장을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원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꾸리고 생산공정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또한 전력생산을 늘이는것이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과학적인 조사자료와 설계에 기초하여 지역안의 강하천들에 중소형발전소를 실용성있게 건설하고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 지방공업공장의 생산과 학교, 병원, 타아소, 유치원, 주민조명 등 인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하며 풍력과 조수력, 지열, 태양열 등 자연에네르기원천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전력생산을 늘이고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인민소비품의 질보장과 품종을 적극 확대해나가는것이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생산제품의 질등급관계를 분기에 한번씩 전면적으로 료해분석하고 선질후량의 원칙에서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기술적대책을 세워야 하며 인민소비품전시회, 품평회, 경험발표회 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이룩된 좋은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인민들의 문화정서적요구와 지향에 맞게 206가지의 일용잡화, 102가지 건재상품을 비롯하여 지방공업공장에서 생산하는 인민소비품의 가지수를 분기에 한번씩 종합분석하고 개선대책을 세워 인민들이 선호하고 즐겨찾는 상품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인민소비품품종을 적극 늘여야 한다.

또한 원료기지의 구성과 자재, 설비의 국산화, 재자원화사업을 잘하는것이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재배원료기지를 200정보이상 조성하고 기름작물과 섬유작물, 향료작물, 당작물을 비롯한 지방공업공장생산정상화에 필요한 원료

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하며 수유나무림 500정보, 종이원료림 200정보를 조성하는것을 비롯하여 지방공업공장의 원료수요에 맞게 여러가지 자연원료 기지를 적극 조성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현실적조건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국산화목표를 바로세우고 국제적인 품질기준에 맞게 원료, 자재,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하며 생산 및 건설, 경영활동과 사람들의 생활과정에 나오는 폐기폐설물, 오물 등 재자원화할수 있는 원천을 남김없이 찾아내여 최대한 동원리용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수매사업체제와 방법을 개선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수매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며 8월 3일인민소비품생산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릴수 있게 가내작업반과 부업반을 여러가지 형태로 조직하고 인민소비품생산에 필요한 조건을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또한 자연부원과 로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며 특산물과 특산품보호를 장려하는것이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산을 낀 곳에서는 산을, 바다를 낀 곳에서는 바다를 리용하며 관광을 할수 있는 곳에서는 관광을 하는것을 비롯하여 자기 지방의 자연지리적유리성과 자연부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하며 지역안의 로력자원과 로력원천을 정확히 조사장악한데 기초하여 로력배치와 조절을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시, 군에 소속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로력을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와의 합의없이 자의대로 동원, 리용할수 없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지방의 특산물, 특산품을 보호, 장려하여 지방경제발전에 적극 리용하여야 하며 시, 군인민위원회는 지방예산제모범군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 지방살림살이에 필요한 화폐자금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켜야 한다.

둘째로, 상업류통과 지방무역의 발전을 적극 추진해나가는것이다.

우선 상업봉사와 사회급양 및 편의봉사사업을 잘 하는것이다.

시, 군인민위원회와 상업기관, 기업소는 상품을 충분히 확보하고 상업봉

사활동을 끊임없이 개선하여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위생편의, 가공편의, 수리수선편의, 리용편의 등 편의 봉사망을 꾸리고 봉사업종을 다양하게 늘이며 편의봉사사업을 개선하여 인민들에 대한 봉사를 잘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무역을 활성화하는것이다.

시, 군인민위원회는 모든 무역활동을 도무역관리기관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도무역관리기관은 시, 군이 번 외화를 시, 군발전에 리용할수 있게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이밖에도 시, 군발전법은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경제사업에서 기본건설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인민들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키기 위하여 새로 채택 및 수정보충한 건설부문법

최근 건설부문에서 새로 채택 및 수정보충된 법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법”[주체110(2021)년 4월 30일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감독법”[주체109(2020)년 10월 8일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설설계법”[주체110(2021)년 12월 14일 채택]이다.

건설법은 건설부문의 기본법으로서 6개장 54개조문으로 되어있다.

건설법은 건설총계획작성과 실현, 건설설계와 시공, 건설물의 준공검사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적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보장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다.

첫째로, 건설총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있다.

우선 건설총계획의 작성원칙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 ①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를 영원히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② 력사유적, 유물과 천연기념물을 잘 보존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늘어나는 인민들의 물질문화적수요와 경제발전의 요구를 고려하여 건설방향과 규모를 정하여야 한다.
- ④ 공장, 기업소를 원료, 연료원천지와 제품소비지에 가까이 배치하여야 한다.
- ⑤ 도시규모를 알맞춤하게 정하며 수도를 비롯한 큰 도시주변에는 위성도시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⑥ 지금 있는 건물과 시설물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며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
- ⑦ 자연부원을 보호하며 유용광물매장지구에 도시와 마을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 ⑧ 산경사지와 지하를 최대한으로 리용하여 부침땅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⑨ 주체성과 민족성, 현대성을 결합하며 립체성과 비반복성,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⑩ 조선식건물보존계획에는 다른 형식의 건물을 배치하지 말아야 한다.
- ⑪ 우수망, 상하수도망, 난방망, 가스공급망, 송배전망, 통신망 같은 하부구조건설을 앞세우며 현대적인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⑫ 살림집을 비롯한 건물의 형식을 대상별, 지방별로 자기의 특색이 살아날수 있도록 다양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야지대에 건설하는 건물의 지붕은 평지붕으로 하는것을 장려한다.
- ⑬ 건물배치를 울타리식으로 하지 말며 거리쪽에서 건물과 건물사이로 건물뒤쪽이 환히 들여다보일수 있게 하여 도시형성상 립체감이 나도록 하여야 한다.
- ⑭ 건물사이에 록지구획을 합리적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조성하며 공해를 막을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⑮ 건축물을 다기능화하여 리용률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⑯ 건물의 면적과 건물사이의 격리거리를 그 사명과 건설목적에 맞으면서도 지역과 건물의 특성에 따르는 위생학적조건, 방화안전조건, 재해방지조건, 경영조건 같은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설부지의 리용률을 최대한 높일수 있게 과학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 ⑰ 자연지리적조건과 기후풍토를 고려하며 태풍, 큰물, 사태, 해일, 지진 같은 자연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총계획은 규모와 중요성에 따라 내각 또는 중앙설계지도기관이 승인하며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건설총계획을 변경할수 없다.

또한 국가계획기관과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산업건설총계획과 도시 및 마을건설총계획, 부문별건설총계획에 따라 건설순위를 정하고 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위치지정서 또는 건설명시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명시서발급신청을 하기 전에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과 건설과 관련한 문제를 합의하며 대상에 따라 건설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방사선안전검사, 수질검사, 지진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건설위치지정서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이, 건설명시서는 건설감독기관이 발급한다. 특별히 중요한 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국가건설감독기관이 발급한다.

둘째로, 건설설계와 건설시공, 준공검사와 관련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고있다.

건설설계를 잘하는것은 건설물의 안전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설계와 시공, 운영단위의 3자합의에 기초하여 설계를 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우고 설계의 과학화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설계력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설계를 건설에 확고히 앞세우도록 한다.

우선 건설설계는 전문건설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설계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한 건설허가는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특별히 중요한 대상에 대한 건설허가는 내각이 한다.

건설허가기관은 대토복구정형과 건설계획맞물림정형, 건설대상의 하부구조능력,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의 시공능력과 시공조건, 건축물의 리용률, 건설로 인하여 환경에 주는 영향 같은것을 정확히 검토, 확인하고 그것이 기준대로 보장된 조건에서 건설허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주와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계획에 근거하여 시공계

약을 맺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설시공과 설비의 무부하시운전을 끝내고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에 건설물의 완공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는 설비의 부하시운전과 준공검사준비정형을 확인하고 건설감독기관에 준공검사신청서를 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건설하거나 개건현대화하는 공장에 대하여서는 부하시운전단계에서 기술과제서의 요구대로 시공되었는가에 대한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의 검토, 확인을 받은 조건에서 준공검사신청서를 내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위원회는 준공검사결과를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시공주와 건설주기관, 기업소, 단체, 대상설비생산기관, 기업소는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정해진 기간안에 의무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건설법을 위반한 경우 민사적 및 행정적, 형사적책임을 규정하고있다.

이밖에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하여 농업부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업법”[주체109(2020)년 9월 25일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약법”[주체109(2020)년 7월 7일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작물종자관리법”[주체109(2020)년 9월 25일 수정보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농장법”[주체110(2021)년 11월 15일 수정보충]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내용을 풍부히 하였다.

우리 공화국에서는 앞으로도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에 들어선 오늘 인민경제선행부문과 기간공업부문, 기타 부문의 경제관계법들을 제정 및 수정보충하여 중요경제부문들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고 인민경제전반이 활성화되고 인민생활을 더욱 안정향상시키도록 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할 것이다.

1950년대 조선 농민소설의 비적대적 갈등 구조와 그 의미

—천세봉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Significance of Non-hostile Conflict
in Korean Peasant Novels in the 1950s

—Focus on Cheon Seborg's Novel A New Spring in Suckgaeul—

金英姬*

广东外语外贸大学

李善**

广东外语外贸大学

1. 들어가면서

소설은 갈등이 엮혔다가 풀어지는 과정이라고 볼릴 정도로 소설에서 갈등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소설에 나타나는 다양한 갈등은 작가의 세계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작품의 주제 의식도 주로 갈등을 통해 드러나게 된다. 조선의 문학이론서들은 갈등 문제를 ‘사회모순론’, 즉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에 입각하여 적대적 갈등과 비적대적 갈등, 그리고 무갈등

* Jin Ying Ji(The first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jinyingji72@126.com

** Lee Sun(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freshwaterlsh@126.com

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 1985: 231). 그중 비적대적 갈등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근로자들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갈등으로서 사상적 지향의 공통성,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사상잔재와 낙후한 생활인습은 매우 집요하며 그것은 오직 장기적으로 꾸준한 투쟁을 거쳐야만 완전히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비적대적 갈등은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의 생활을 그리는 문학작품에서 예술적 갈등의 기본형태로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비적대적 갈등 관계에서의 부정인물은 주로 긍정인물을 기본으로 내세우는 원칙에서 설정되며 갈등 또한 긍정인물의 모범 및 사상 교양에 의하여 부정인물이 감화되고 교양 개조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본고는 조선문학에서의 이러한 갈등 이론을 바탕으로 1950년대 조선 농민소설의 비적대적 갈등 구조와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1950년대 조선은 사회주의적 개조의 일환으로 농촌에서 농업협동화를 추진하였다. 조선의 농업협동화는 3개 단계 즉 경험적 단계(1953년-1954년), 대중화단계(1955년-1956년), 완성단계(1957-1958년)를 거쳐 완성되었다. 농업협동조합의 형태로 협동화가 완료되자 바로 협동조합의 통합 운동이 추진되어 195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협동조합을 리(里) 단위로 통합하였고, 1962년에는 농업협동조합을 협동 농장으로 개칭하였다(임상철 외 1994: 48).

당시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조합 결성을 통한 협동경리로의 전환은 사회주의 사회의 기준이 될 만한 역사적 사변이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문단에도 이를 반영한 문학작품들이 모든 장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량 속출되었는데 여기서는 일단 1950년대 조선의 농업협동화를 가장 잘 반영하여 전범적인 작품으로 꼽히고 있는 천세봉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의 비적대적 갈등 구조와 그 의미를 밝힘으로써 농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농민들이 농업협동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면화했는지, 그리고 농업협동화 과정에 존재했던 구체 갈등과 모순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천세봉의 농민소설의 특성과 주제의식을 도출하는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전반 1950년대 농민소설의 특징과 의의를 규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적 개조를 동시에 실행했던 1950년대 조선의 시대적 배경과 농촌 사회의 변화 및 실상을 고찰하는 데도 유조하며, 나아가 농업협동화와 같은 정치적 사변을 다룬 소설작품들을 보다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도 일정한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사 검토

천세봉과 『석개울의 새봄』에 대한 연구는 조선과 한국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다. 우선 조선문학계에서는 문학사 기술의 과정으로 1950년대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 기초 건설 시기의 핵심 사건’으로서 농업협동화가 형상화된 작품들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몇 차례 출판된 문학사 관련 서적과 문학잡지의 비평문 등을 통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를테면 ‘농촌에서의 사회주의적 개조를 위한 투쟁을 폭넓게 형상한 이 시기 소설문학의 대표작의 하나’이고(박종원·류만 1986: 212), ‘농촌에서의 우리 인민의 투쟁을 폭넓게 형상화’하였으며(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1978: 309), ‘농업협동조합의 결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조직된 후의 협동조합 내부의 경제적, 조직적 공고화를 위한 복잡한 투쟁, 이에서 벌어지는 새것과 낡은 것과의 간고하고 치열한 계급투쟁에 대한 서사시적 화폭을 사실주의적으로 묘사’하였고(사회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문학연구실 1959.11: 293), ‘극적인 정황과 첨예한 갈등, 풍부한 생활화폭, 각이한 계층과 계급을 대표하는 여러 인물들의 전형적 형상을 통하여 협동농장 건설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일반화’한(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1981: 308) 작품이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연장열(1962: 109-114), 박용학(2000: 42-51) 등에서는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사회주의적개조의 전변과정을 잘 반영’하고, ‘부동한 계층과 계급의 복잡한 모순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하였으며, ‘농촌에서 새롭게 성장되어가는 긍정인물의 전형을 창조’하였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특히 김헌순(1959: 127-128)에서는 ‘전

후 시기 당의 령도 하에 우리 나라 농촌에서 일어난 위대한 사회주의적 변혁의 력사에 바쳐진 첫 장편소설이다.'라고 높이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듬해에 발표한 논문(1960: 121)에서는 '당 농업정책의 정당성과 사회주의적 개조에 바쳐진 웅대한 화폭'이라고 평가한 동시에 작품의 예술성에 대해서도 높이 인정하였다.

이와 같이 『석개울의 새봄』은 조선의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적 개조 시기 농촌사회의 전형을 잘 형상화하고 갈등을 잘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또한 한설야, 조중곤, 김영석 등에 의하여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한설야(1956: 8)에서는 "에피소드와 디테일이 사상성의 본질을 빈약하게 했다."고 평가하였고, 조중곤(1956: 2)에서는 "도식주의의 단적인 실례를 『석개울의 새봄』에서 찾을 수 있는바 『석개울의 새봄』에서 어떤 인물의 전형성을 일반화해야 하며 어떤 사건이 주인공성격 발전을 위하여 준비되었는가를 명확히 알길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김영석(1957: 139)에서는 "사회주의 사실주의는 현실의 이모저모를 차별없이 사진찍기를 요망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가 천세봉의 이 소설에서 적지 않은 경우에 사진사의 역할을 놓고 있다. 일단 그의 '렌즈'에 반영되기만 하면 그것이 우리 현실의 진실이건 아니건, 또는 아름다운 사물이건 오물이건 말끔히 찍어 내려고 노력했다."고 비판하였다.

한국에서도 천세봉과 『석개울의 새봄』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아 이에 대한 논의도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오창은(1998: 292)이 한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을 연구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는 작가 천세봉이 느끼는 '이념'과 '실제'의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특히 '마영감'으로 대표되는 중농들의 방황을 통해 비판적인 사회적 발언을 대신하고 있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갈등하는 중농'들의 너무도 인간적인 모습을 훌륭히 묘사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주미(2000: 105-106)에서는 당적 인간 형상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면서 삶의 현장성과 역사적 진실성을 획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김은정(2005)은 박사논문 「천세봉 장편소설 연구」에서 시기별로 천세봉의

장편소설을 선정하여 작가의 생애와 조선문단의 변화에 따라 작품들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고찰하면서 결과적으로 천세봉 장편소설의 문학적 특징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중 『석개울의 새봄』에서는 공산주의적 인간형과 구분되는 대중적 영웅을 통한 공산주의적 전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또 다른 논문(2003)에서는 농업협동화를 실행하게 된 시대적 상황을 살펴 보면서 당시 조선 농촌의 일면을 검토한 동시에 작품의 인물형상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전후 시기 조선문학의 특징을 도출해 내고 있다. 그리고 이대철(2003)에서는 갈등구조와 인물유형, 전후 시기 조선의 사회적 배경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장미성(2007)에서는 농업협동화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농민들의 일상과 내면세계에 대하여 비교적 세밀하게 논의하였으며, 조정덕(2005)에서는 주로 연재본과 단행본의 판본 차이점을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사회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조선문단의 움직임을 비교적 세밀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보다시피 천세봉과 그의 문학작품에 대한 논의는 천세봉이 작품활동을 시작한 1950년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특히 『석개울의 새봄』은 조선 농업협동화의 전반 과정을 예술적으로 재현한 대표적인 소설로서 주로 농업협동화와와 관련 속에서 여러 측면으로부터 연구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을 보면 주로 천세봉의 생애나 작품에 대한 소개, 인물형상 특징 그리고 작품이 가지는 사상성, 예술성에 대한 평가가 많다. 소설에서 줄거리를 이끌어가고 인물형상을 부각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갈등에 대한 논의는 극히 적다. 따라서 본고는 조선의 갈등이론을 바탕으로 『석개울의 새봄』의 비적대적 갈등 구조와 그 의미를 밝힘으로써 농업협동화 시기 농민들의 삶의 변화와 내면을 보다 깊이 고찰함과 동시에 작가의 주제의식과 태도, 그리고 전후 복구시기 1950년대 조선 사회의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3. 조선문학에서의 비적대적 갈등과 그 특징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편찬한 『철학사전』(1985: 231)에서는 모순을 ‘내적모순과 외적모순, 기본모순과 비기본모순, 주요모순과 비주요모순, 적대적모순과 비적대적모순’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중 ‘비적대적 모순은 착취 없는 사회의 특징이며 지배적인 모순’으로 ‘비적대적 모순은 충돌에까지 첨예화되지 않으며 모순 발전의 이른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조선문학 이론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비적대적 갈등은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근로자들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갈등으로서 사상적 지향의 공통성, 목적과 이해관계의 공통성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며 또한 예술적 갈등은 ‘相容的’이고 비적대적 성격을 띠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면서 착취사회가 남겨놓은 낡은 사상 잔재와 낙후한 생활인습은 매우 집요하며 그것은 오직 장기적이고 꾸준한 투쟁을 통하여서만 완전히 극복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현실과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근로자들의 생활을 그리는 문예작품에서는 비적대적 갈등이 갈등의 기본형태로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정웅 1992: 242-244).

한편 조유철(1998: 147-152)에서는 비적대적 갈등의 특징을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귀납하여 비적대적 갈등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첫째, 비적대적 갈등은 사회주의 현실을 그리는 문예작품 창작 전면에 나타나며 사회주의 현실 주제 작품에서 노동자들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갈등으로서 상용적인 성격을 띤다.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 사이의 동지적 협조와 단결이 사회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적 미풍이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의 생활’을 그리는 문학작품 창작에서도 갈등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데 그것은 새것과 낡은 것, 진보와 보수 사이의 투쟁이 계속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비적대적 갈등이다.

둘째, 비적대적인 모순과 계급관계를 반영하는 비적대적 갈등은 사회주의적 근로자들의 생활을 그리는 예술적 갈등의 기본 형태이자 기본 구성으로

되고 있다. 사회주의 현실 주제 작품에서 갈등을 옹계 설정하고 해결하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의 계급관계를 정당하게 반영하여 사회주의 근로자들의 생활과 투쟁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셋째, 예술적 갈등의 설정과 해결 방식은 그 갈등이 기초하고 있는 사회적 모순과 계급관계의 성격에 의하여 규정되어야 한다.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 근로자들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갈등은 극단적으로 조성되어서는 안 되며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들이 서로 결렬되는 것으로 해결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사회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있는 모순과 대립은 비적대적, 상용적 성격을 띤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낡은 사상 잔재와 낙후한 생활 인습을 반대하는 사상투쟁'은 사람들을 타도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양하고 개조하며 사회의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 데 있다. 때문에 사회주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정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갈등은 적대적 갈등처럼 첨예하게 설정되거나 극단적으로 조성되어서는 안 되며, 긍부정인물이 나중에 결렬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갈등이 비적대적인 모순과 계급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주의적 근로자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갈등은 사상의 방법으로 부정이 극복되고 동지적 단결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러한 갈등은 긍정인물을 기본으로 내세우는 원칙에서 설정되며 긍정인물의 모범에 의하여 부정인물이 감화되고 교양 개조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갈등에서 긍정인물이 우위를 차지하게 하고 그들의 역할을 두드러지게 보여줄 때만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진행되는 사상투쟁의 본질적 내용과 특징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으며 '사회주의 사회 발전의 합법칙적 과정'을 진실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이다.

다섯째, 사회주의 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갈등은 현실

생활에서 벌어지는 새것과 낡은 것,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 혁명적인 것과 반혁명적인 것 사이의 대립과 투쟁의 반영이다. 이러한 대립과 투쟁을 반영하는 예술적 갈등은 웅당 심각하게 설정되고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해결되는 것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비적대적 갈등이 극단적으로 조성되거나 긍정 인물과 부정 인물이 서로 결렬되는 방식으로 해결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갈등을 온화하게 끌고 가거나 무난하게 처리하여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갈등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심각하게 설정되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조선문학에서의 이러한 갈등 이론을 바탕으로 농업협동화를 가장 전면적으로 잘 반영하여 전범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에 설정된 비적대적 갈등 구조와 양상을 살펴봄과 동시에 이에 담겨있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4. 협동조합을 둘러싼 비적대적 갈등 구조

농업협동화를 반영한 문학작품들에는 협동조합을 둘러싼 많은 비적대적 갈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갈등과 모순은 소설의 기본적 구조를 구성한다. 따라서 본절에서는 주로 『석개울의 새봄』에 나타난 조합원과 개인농사이의 갈등, 소유의 문제를 둘러싼 조합 내부의 갈등,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조합 간의 갈등, 그리고 조합을 지원하는 공업진영과의 갈등 등을 통해 당시 협동조합을 둘러싼 비적대적 갈등 구조와 구체 갈등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4.1. 조합원과 개인농 사이의 대립적 구조

『석개울의 새봄』은 주로 조합을 둘러싸고 농민들 사이의 갈등 구조가 형성되는데 그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바로 조합원과 개인농 사이의 갈등이다. 이는 소위 말하는 계층 간의 갈등으로 볼 수 있다. 전쟁으로 조선은 농사를 위한 기반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이를테면 집안 농사의 핵심 노동력으로 존

재하던 젊은 남성의 상당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축력과 농기구도 많이 부족하였고 농사에 필요한 수리시설도 완전히 파괴되었다. 특히 전쟁으로 상당수의 중농이 빈농으로 전락되는 바람에 빈농의 수도 급증하였다. 다시 말하면 토지 개혁 후 조선 농민의 성분구조는 부농이 2~3%, 중농이 72~73%, 빈농이 25%를 차지하였지만 전쟁 직후에는 부농이 0.6%, 중농이 60%, 빈농이 40%로 중농층의 상당수가 빈농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중농이라고 하더라도 그들 중 대다수는 ‘겨우 먹고 지낼 만한 농민’에 불과하였고 경제적으로 약간이나마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농민은 10% 정도였다. 하지만 전쟁의 와중에도 축력과 농기구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개인영농을 견지하더라도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농민층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당시 조선 농촌은 노동력과 농사의 기반을 모두 잃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빈농층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보존한 부유중농·부농층으로 양분화되었다. 조합의 결성도 개인영농을 할 수 없었던 빈농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농사에 필요한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개인영농을 견지하더라도 충분히 자급자족이 가능한 중농과 부농은 자신보다 여건이 좋지 않은 형편의 빈농들과 조합을 결성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는 조합원과 개인농 사이를 멀어지게 하였고, 형편이 좋은 사람들끼리 연합하려는 움직임과 조합에 대한 비방 세력이 형성되는 등의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 『석개울의 새봄』도 이러한 당시 농촌 현실과 상황을 기반으로 빈농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과 부농 및 부유중농을 중심으로 한 개인농 사이의 대립과 갈등을 다양하게 담아내고 있다.

우선 이인수, 권치도, 서기표와 같은 부농들은 농업협동화 초기 자신들이 소유한 충족한 생산수단으로 하여 조합에 참가할 경우 빈농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조합을 외면하거나 적대시하면서 조합 가입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과도 치열한 갈등을 겪는다.

“성님 그 소릴 못 들었소?”

이인수는 음성을 낮추며 마령감을 본다.

“무슨 소리요?”

“듣자니까 창수 형 창혁이도 관리 위원장을 합네 하구 조합 돈을 약차하게 먹었답디다.”

“응? 그게 무슨 소리구? 그럴 리가 없어…”

마 령감은 눈이 휘둥그래서 리 인수의 말을 부인했다.

“이 성님 모르는군…그게 적실하대요.”

“누가 그런 말 합데까?”

“조합원들 새에 그런 말들이 난 게 아니겠소.”

(중략)

“성님 부기원하구 관리 위원장이 수만원 착실히 먹었답데다.”

“원 그건 모를 소리야… 창혁이나 병일이가 어데 그럴 사람들이요?”

“성님두 황금은 흑사심(黑土心)이란 글구가 있지 않소? 재물 보구 욕심 안 내는 사람이 어데 있소. 훔쳐 먹자구 해서 먹는게 아니라 돈이 주머니에 있으면 자연 쓰게 되는 것이구 한푼 두푼 쓰다가 마루턱이 높아지면 별수 없이 떼먹을 흑심이 나는 거지요.”

마 령감은 말을 듣고 보면 그림직도 하였다.(천세봉 1956,7: 48-49)

위에서 보다시피 이인수는 조합의 재정 문제를 두고 조합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김창혁을 비방, 중상하면서 조합 간부와 개인농 사이에 모순을 조성한다. 이 외에도 그들은 조합에서 추진하는 저수지공사나 공동 축사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여론을 조성하여 조합 내에, 그리고 조합원과 개인농 사이에 모순과 갈등을 격화시키며 조합의 경영과 발전을 극구 방해한다. 또한 소가 있는 부유한 사람들끼리 따로 조합을 조직하자고 서두르면서 조합의 결성을 극구 반대하는가 하면 조합원들을 조합에서 탈퇴하도록 꾀신다. 심지어 서기표는 정미소와 제분소를 포함하여 조합을 능가하는 기업체를 세우려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부농들을 모으기까지 한다. 이러한 모순과 갈등으로 조합원과 개인농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불편하게 되었고, 또한 개인농들은 조합의 향방을 주시하게 된다. 따라서 간혹 조합에 말썽이 생기거나 혹은 조합 간부들이 작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이는 큰 비방거리로 번지게 되었다. 그 일례로 조합 간부인 역삼이가 조합의 결성은 물론 조합의 운영까지 방해하고 해치는 병천이를 폭행한 사건도 개인농들 사이에서는 조합의 부적합성을

드러내는 한 사례가 된다. 이러한 조합원과 개인농 사이의 갈등은 결국 ‘조합 형태’의 결정 문제로 불거지기도 하였다. 조선의 농업협동화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를테면 제1형태는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은 사적으로 소유하되 축력이나 농기구만 공동으로 이용하여 작업을 공동으로 하며 토지소유자가 개개인의 생산물을 각각 소유하는 가장 낮은 형태의 고정적인 노력협조반이다. 그리고 제2형태는 토지와 기타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되 그것을 협동조합에 통합하여 공동으로 경영하며 생산물을 노동일과 출자한 토지에 따라 분배하는 과도적인 반사회주의 형태이다. 제3형태는 토지와 기타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공동경영을 한 뒤 노동에 의해서만 분배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적 형태이다. 조선은 이 세 가지 형태 중에서 농민들이 각자 자신의 경제 상태나 의식수준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농민들의 의지를 무시하고 단번에 높은 형태의 조합을 조직하지 않았다. 실제로 당시 빈농들은 노동력만 가지고 분배하는 제3형태를 선호하였지만, 부유중농이나 부농은 제2형태를 선호하면서 토지공유화를 반대하고 생산수단에 대한 대가도 원하였다. 심지어 일부 지방에서는 조합 가입을 거부하고 부농 중심의 조합을 따로 결성하려 한 움직임까지 포착되었다. 예를 들면 평안남도 순안군 ‘상양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부농과 부유중농 10호가 모여 제2형태의 조합 결성을 위해 자신들의 말을 잘 따라줄 일꾼들을 포섭하려는 시도가 있었다(한병근 1958: 163-169). 또한 황해남도 신천군 석봉리 간성 부락에서도 초기 조합 결성 논의에서 착실한 밀천이나 가진 중농민들이 관리부에서 한 자리 하려고 서두르면서 ‘빈농들은 안 받느니’, ‘게으름뱅이들(빈농민)과 근농가(중농민)들은 조합도 따로따로 조직해야 하느니’하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조근원 1958: 91). 이러한 당시 사회적 상황들로부터 작품의 역사적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농토와 축력, 인력, 농기구 등을 소유한 마 영감, 탁수일과 같은 중농들은 개인영농에 대한 집착 때문에 조합 가입을 거부하면서 조합과 내적 갈등을 겪는다.

창혁이는 얼른 화제를 돌리며 마 령감을 보았다.

“아주버인 협동 조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허 글썄...”

마 령감은 쭈한 기색으로 마당을 내려다본다.

“그래도 아주버이 같은 분이 조합에 들어서 주동적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창혁이는 마 령감의 심중을 떠보려고 슬쩍 앞을 질러서 말했다.

“내야 뭐 아는 게 있어야지...”

마 령감은 확실히 당황해서 얼굴을 붉혔다.

“그래서 동네에선 아주버이 같이 근실한 분이 선참으로 조합에 들어와야 한다고
그럼

니다.”

“허허허 그거 참...”

마 령감은 난처한 표정으로 담배를 뽁뽁 뺀다. 이럴 지음에 마 령감의 마누라가
밤을

한대접 들고 나왔다.

“들어야지요. 계집애들두 조합이 조직되면 들어야겠다고 밤낮 그 소리만 한다
우.....”

마 령감의 마누라가 말 참견을 했다. 마 령감은 잠자코 다 피고 난 대통을 마룻전
에 두드리며 괜히 기침을 했다. 아마 마누라의 참견하는 소리가 매우 역한 모양이
다.

“물론 협동 경리가 개인 경리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아주버이께서도 잘 알구 계시
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령감이야 알구말구요. 애들이 여북 설명을 한다구 그리우?”

“잘은 놀구 있다...임자는 참견이 없어.”

마 령감은 듣다못해 눈을 흘기며 소리친다. 결김에 담배를 또 한 대 쭈서 담는
모양인데 손이 가늘게 떨리었다. 마누라는 령감이 껍 소리치자 그 다음엔 자기 말이
그릇된줄 깨닫고 입을 꼭 다물었다. 그는 얼굴이 붉어서 밤만 잤다.

“헌데 이 사람! 조합을 조직하는 것두 물론 좋은 일이지만 좀 심중히 생각을 해야
될거네...”

마령감은 곳곳이 마당을 내려다보고 앉아 이렇게 말했다.

“아니 그것보다 조그만 품앗이반이나 소겨리반도 말썽이 많단 말이야...흥. 금년
에도 바루 우리 작업반에서 장마통에 밭김을 못 매고 있다가 말썽이 났네. 날이 들

자 저마끔 제발 김부터 매겠다구 야단이니 이게 딱하지 않은가? 그러니 누구네 밭을 먼저 매고 누구네 밭을 뒤에 매겠다. 모두 호미를 들군 제 밭으로 달아나네. 하마트면 품앗이반이구 머구 깨져 버릴뻔 했지… (중략)

“그런 조그만 품앗이반두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동네가 거의 합쳐서 하는 일이 그래 수월함측 한가? 댓씩 사는 한 가정에서도 가끔 씬이 나네… 이 동네에서두 자네 부친이나 나만치 일을 극성히 하는 사람이 있나? 조합은 해서 뭘하나? 이 좋은 세상에서 일만 부즈런히 해두 살아…”

뜰에 내려선 마령감은 담뱃대를 쭉 뽑아들며 새대질을 할만큼 흥분해서 떠든다.

창혁는 이러한 농민들을 강권해서 조합에 가입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마령감네 집을 나왔다.

(중략)

“등신 같은 것이 무에 뭇지두 모르구 무슨 참견인가? 조합이 밥을 먹여 주나?”

마령감은 아까 마누라가 새없이 말 참견을 해서 자기 립장이 딱하던 일이 아직도 패섬해서 견딜 수가 없는 모양이다. 조합 문제가 남편의 감정을 이렇게 상치는 것은 모를 일이다.(천세봉 1955, 7: 24-26)

위에서 보다시피 마영감은 정직하고 평생을 근실하게 살아온 성실한 농민으로서 집단적인 농사보다도 자기만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며 조합에 가입하라는 김창혁의 권고를 거부하는 동시에 조합에 가입하려는 다른 가족들과도 대립하게 된다.

마령감은 아들의 편지를 심중히 생각하였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역축에 대하여 생각하고 또 생각하였다. 아무래도 이 모든 것을 선뜻 내놓고 나설 수가 없다. 마령감네가 지금 부리는 큰 소는 암소이긴 하지만 황소 못지 않게 틀이 크고 석개울에서도 그중 상작이다. 아직 여덟살 밖에 안되었고 새끼를 해마다 무 뽕뽕 잘 낳는다…그다음 토지는 매년 퇴비를 내고 (금년 봄에도 정당 60여 달구지를 실어냈다.) 비옥하게 만들었다. 마을 앞 닷마지기 동굴배미 같은 것은 해방 전 그 곤난한 세월에 전가술이 도토리를 삶아먹으며 아니 절반 굶어가면서 작답을 한 땅이었다. 여기서 해마다 수확이 나는 것은 보통 논외의 감절이다. 참으로 이런 토지는 마인렬에게 있어서 땅이라기보다 찍으면 땃방울이 나올 육체의 한 부분이라고도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을 가는 호리나 쇠시랑, 호미 같은 것도 자기 손때가 먹은

것이면 그걸 연장으로 알지 않고 그 이상의 소중한 것으로 아는 마령감이다.(천세봉 1955.7: 56-57)

이러한 마령감이 땅과 역축을 포기하고 조합에 든다는 것은 그야말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심한 내심의 고통을 겪는다.

마령감은 잠을 못 들고 닭알 난가리를 가렸다 허물었다 하였다. 마음 가운데서 낡은 생각과 아들의 편지로 하여 생긴 새 생각이 집요한 투쟁을 계속했다. 그는 몸이 화끈 달아 일어나서 담배를 피웠다. 이젠 헛바닥에서 땃진이 배어 입이 곰의 열처럼 쓰다.(천세봉 1955.7: 57)

땅에 대한 마령감의 이러한 고민은 자기 땅을 가진 농민이라면 당연히 지녔을 생각이기도 하다. 땅에 대한 마령감의 애착이 깊어질수록 조합과의 갈등과 대립도 더욱 깊어진다. 이렇게 순수하게 자신의 노력으로 조합보다 더 월등한 결과를 얻겠다고 애쓰는 마령감과 같은 개인농들은 자작농으로서의 삶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또한 조합을 경쟁의 상대로서 주시하기도 한다.

4.2. 소유의 문제를 둘러싼 조합 내부의 갈등

농업협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갈등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체제의 어떤 모임에서도 갈등이 없을 수 없겠지만, 농업협동화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조합은 무엇보다도 소유자적 근성과 이기주의를 둘러싼 갈등과 모순이 가장 크다. 특히 함께 공유하고 함께 일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농토, 축력, 농기구 등 사유재산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을 결코 쉽게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일부 생활이 비교적 부유한 중농들, 특히 탁수일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져 적극적으로 조합에 가입은 했지만 조합의 조직 과정에서 토지와 역축, 농기계를 이용하는 문제, 그리고 노력의 분배문제에 부딪

쳐서는 손해를 볼까봐 조합과 충돌하며 심지어 탈퇴하려고 한다. 그의 이러한 소유자적 근성은 조합의 작업반에서 농기구를 모아들일 때 가대기와 호리의 새 보습날을 뽑아내고 낡은 보습날들을 맞춰서 조합에 내놓는 장면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난다.

소유의 문제를 둘러싼 조합 내부의 모순과 갈등은 ‘소’를 둘러싸고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조합원들은 이미 조합에 축력을 출자하고 분납으로 소값을 받기로 했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소가 자신의 소유라는 인식이 남아있다. 따라서 탁수일, 조형모와 같은 농민들은 조합의 공동 우사에 가서 자신의 소에게만 먹이를 더 먹이고 정성스럽게 거두면서 소에 대한 강한 애착을 드러낸다. 반면에 다른 소들은 먹이도 제대로 안 먹이고 소홀히 대하는 태도까지 보인다. 탁수일의 “이게 무슨 사람 사는 본편가! 토지도 한평 없구 소두 한 마리 없구 무슨 재미로 산단 말인가! 사람이 재산 늘여가는 재미도 없이 어떻게 산단 말인가”(천세봉 1956.7: 30)라는 푸념을 통해서도 당시 농민들이 소유에 대한 애착이 조합 생활을 해 나가는데 얼마나 큰 고민거리였는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조형모가 병천이의 꼬임에 넘어가서 조합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했던 소를 팔아먹는 장면에서 조합원들의 소 소유자적 근성과 이기주의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가 소를 팔게 된 경위는 조합에 내놓은 소를 여전히 자신의 소유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조합에 넣느니 차라리 팔아버리는 것이 낫다는 당시 농민들의 사고방식을 노정하고 있다. 이렇게 조형모는 소의 공동관리 문제로 협동조합과 충돌한 후 심지어 조합을 탈퇴까지 함으로써 조합 내의 모순과 갈등도 절정에 달한다.

이와 같이 소설은 협동조합의 결성과 경영 과정에서 소유제문제와 이기주의로 인한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들은 생활적 진실성에 기초한 『석개울의 새봄』의 문학적 성취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 농촌사회가 직면했던 문제들을 리얼하게 드러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조합 내에서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는 바로 재정 문제인데 그중 가

장 심각한 것은 바로 분배의 문제이다.

곡물을 전분한 후 조합원들 사이에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 곡물을 수득 노력일에 의해서 전분했는데 그 수득 노력일에 대한 말시비가 부분적 조합원들 속에서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제일 시비가 많은 것은 야장 일을 하는 강명수의 수득 노력일이었다.

사실 수득 노력일 통계를 보면 강 명수가 조합 내에서 제일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이번 전분에서 감자와 밀을 제일 많이 받았다. 그의 수득 노력일은 보통 조합원들보다 30여 일이나 더 많다. 물론 그가 조합내에서 목수 일과 야장간 일을 하는 기능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홍 그러다간 조합원들이 벌어서 강 명수 한 사람 백만장자를 만들겠네.”

이렇게 불평하는 조합원들도 있었다.(천세봉 1956.7: 30)

위에서 보다시피 일부 조합원들은 밭일과 기술일에 대한 노력 점수와 분배가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를테면 야장간 일이나 목수 일은 밭일에 비해 힘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밭일과 동일하게 노력 점수를 받는다는 것은 심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조합관리위원회가 비록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해 회의를 통해 전달하기는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여전히 조합의 재정 문제를 의심하면서 공개적으로 일부 조합간부와 조합원들을 비판하였다. 이를테면 일부 조합간부와 조합원들이 다른 사람보다 일을 적게 하고도 같은 노력 점수를 받는다고 의심하면서 조합 내에는 점차 이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쌓이게 되었고, 이는 결국 더욱 크게 부풀려져 관리위원회와 관리원을 의심하는 사태에까지 발전하게 되었다. 그 일례로 김정근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비록 조합일에 적극적이지만 조합관리위원회의 일원으로 조합 일 때문에 자주 작업장을 이탈하거나 작업 시간이 적어 다른 분조들처럼 정량을 채우지 못하게 되자 조합원들은 이를 비판하게 된 것이다. 농업협동화의 초기 단계에서 조합 운영에 관한 구체 방안이나 규정 같은 것이 세밀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특히 노력 점수나 분배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과 갈등은 불가피하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물론 그 사이에는 기회주의자이며 조합을 통해 한 밀천을 잡아보려는 험잡꾼인 병천이의 개입이 있었지만, 그 당시 충분히 있음직한 일이라고 추측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조합 내에는 노력 임무와 공수만 따지면서 노동의 질을 보장하지 않거나 혹은 노력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 공공재산을 함부로 대하거나 파괴하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역시 조합 내의 모순과 갈등을 초래하게 된다.

작업 정량 투쟁이 나서니까 억삼이네 작업반의 부분적 조합원들이 작업 실적만 높이려고 하며 작업을 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 요새 그런 경향이 부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병일이는 매일 저녁 로력 임금 대장을 정리할 때마다 억삼이와 옥신각신 다투었다.

(중략)

부분적인 조합원들이 논두렁 가래질을 하는데 두렁 안목의 풀을 깎아 던지지 않고 그냥 흙을 두렁 안목에다 쳐올리는 조합원이 있다. 물론 두렁 안목을 깎아 던지는 일을 빼니까 그만큼 일은 빨랐다. 해놓은 뒤에 보면 두렁 안목을 깎아 던진 것이나 깎지 않은 것이나 구별할 수 없고 진흙을 쪽 발라 놓은 두렁은 다 미끈하다. 그러나 속에 마른 풀둥지가 있는 논두렁은 쳐올린 흙이 두렁에 앙글어붙지 못하고 속이 궁군다. 그래서 흙이 마르면 빠개지고 이런 곳으로 자연 물이 새게 마련이다. 몇몇 조합원들이 작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반장이 없는 새면 슬쩍슬쩍 이런 짓을 했다.

(중략)

바로 택근이가 갈아 놓은 논에서 그는 여러 군데 갈리지 않은 생석이 흙에 파묻혀 있는 것을 보았다. 더구나 이게 재카리인만큼 호리를 찬찬히 끌어 나가지 않고 슬쩍슬쩍 해치운 데가 많다. 두렁 밑이나 귀퉁이 같은 데 갈지 않은 데도 있다.

병일이는 즉석에서 작업반장들한테 이야길 해주어도 좋은 일이었지만 어제밤 억삼이의 말에 노여워진 그는 단단히 문제를 세우자고 그냥 돌아왔다.

지금 병일이와 억삼이 사이엔 한바탕 론쟁이 벌어졌다.

“여보, 난 이것으로 봐서 억삼이가 로력일을 평가하는 데 작업의 질은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량만 보아서 평가한다고 생각하우다. 아니 질을 안 보구 한달 것 같은 논 가는 건 한발 건너 호리를 한번씩 끌고 다녀두 될거 아니겠소? 그까짓 나중에 곡식이야 되던 말던...”

병일이는 얼굴이 붉어서 단단히 면박을 줄 잡도리였다.

“여보, 부기원 동무, 말하는건 이상하우. 그럼 내가 전혀 작업의 질에 관심이 없이 작업에서 그런 결함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고의로 눈을 감아 준단 말ियो. 어쩐단 말ियो? 똑똑히 말하우.”

“글쎄 어쨌던 동무가 철저히 못한거란 말ियो. 이렇게 작업의 질을 보장하지 않구 자꾸 로력 부수만 올려 준다면 마지막에 망하는건 누가 망하겠소.”

“그럼 작업 반장인 내가 조합을 망하게 한단 말ियो?”

“글쎄 누가 망하게 하던, 그런 식으로 일을 한다면 조합이 안 망할 줄 아우?”

억삼이와 부기원은 불그락푸르락 성이 났다.

“여보, 그렇다면 어서 잘하는 부기원이 작업반장까지 맡아 가지고 해보우, 나는 작업반을 그 이상 더 잘할만한 힘은 없소.”

억삼이는 볼이 부어서 황소처럼 씩씩거렸다. …억삼이가 발끈해서 책상위에 있는 주판을 부기원 앞으로 밀어던졌다.(천세봉 1956.7: 53-56)

위의 예문을 통해서도 노력 임무와 공수만 따지면서 노동의 질을 보장하지 않은 것 때문에 조합 내에 심각한 모순과 갈등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논을 가는 데선 로력 보수가 버쩍버쩍 올라갔다. 택근이는 자신도 뼈가 휘게 해 내지만 소도 단단히 욕을 보았다. 소는 목덜미, 등때기, 할것 없이 털이 온통 땀에 젖었다. 그러면서도 걸음이 느리다고 자꾸 채찍으로 얻어 맞았다. 혹사를 당하는 소는 날마다 달라갔다. 눈구석에 진곱이 내끼고 나비등 옆으로 가죽이 들어가고 몸때기가 후주근해졌다. 탁 수일네 소는 새끼까지 만착했는데 영 볼풀이 없게 되었다.

“이게 뉘 소냐? 조합 소는 막 부러 먹다가 죽어두 좋냐?”

조희모는 코뚜레가 부러진 소를 앞에 세워 놓고 택근이를 한바탕 나무란다.

택근이는 오늘 소를 너무 다구치다가 코뚜레까지 부러뜨린 것이다.

(중략)

“임자가 정신있는 사람인가! 소를 부러두 짐작이 있지…소를 저렇게 여위도록 혹사했은즉 누가 책임을 질테야.” 조희모는 대뜸 목에 피대를 세우고 얼굴이 빨개서 주먹질을 한다. 황치복이는 소를 끌고 일터에서 들어오다가 단단히 걸렸다.

“게다가 소꼬랭일 잘랐어? 꼬랭인 왜 잘라!” 조희모가 가로말아 가지고 덤벼 들었다.

“짜르던 안짜르던 책임 내가 지겠소. 이걸 머 소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한편을 하는셈인가!

걱정들 마우.”

(중략)

“안됐다. 문제를 단단히 세워야지. 이러다간 소 두마리가 뺄만 남겠다. 공동 관리 구 뭐구 저마끔 노나주어서 개별적으로 책임을 지워 먹이게 하던지 해야겠다.” 조희모는 이렇게 되는 원인이 공동 관리에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까지 하였다.(천세봉 1956,7: 50-52)

위의 예문은 노력 임무와 공수만 추구하면서 소를 혹사할 정도로 부리는 조합원들과 이를 꾸짖고 비판하는 조희모와 조형모의 모습이다. 축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공 재산에 대한 애정이 없이 개인의 이득만 추구하는 것을 보면서 조희모는 결국 축력의 공동 관리의 허점을 비판하기에 이른다.

4.3.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조합 간의 갈등

농업협동화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작은 단위로 형성되었던 여러 조합을 통합하는 새로운 건설 계획이 추진되었다. 석개울 조합도 주변의 맥여울과 장산동 마을의 조합과 통합하게 되었으며 이 세 조합의 일정 수준의 공축을 새로운 조합으로 넘기기로 하였다. 이러한 통합 과정에 맥여울 마을 사람들의 집단 이기주의가 나타났는데 이를테면 새로운 조합에 가축 사료로 바치기로 했던 양곡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서류까지 조작하여 공축을 내기로 되어있던 곡식과 현금을 나누어 가진다. 물론 간부들을 중심으로 일이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맥여울 사람들은 사실을 알고도 공출 분량을 내놓느니 못 내놓느니 말들이 많았다.

“글쎄, 매개 조합에서 사료 뽐드란 다 자기 조합의 축산업 발전 정도에 의해서 그에 해당하는 만큼 축적을 해 가지구 통합을 한 것인데 동무가 인제 와서 사료 뽐드가 많으니까 사료 뽐드에서 옥수수 15톤 빼서 조합원들이 노나 먹게 해 달라 그런 제기

를 할 수가 있소? 통합을 다 해놓고 이제 외선 알곡을 도루 내달라? 아니 그럼 맥여울 조합이 가지구 들어오는 돼지나 소들은 석개울이나 장산동 조합 사료를 가지구 먹여 낸단 말이요? 그게 무슨 수작이요? 응?”

억삼이는 불편이 푸들푸들 떨었다. 그는 책상을 두드리며 말을 계속했다.

“조합에서 불분할 뿐드란 무언가? 불분할 뿐드란 자기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인가? 꼭 분배를 해 가지구 자기 목구멍으로 넘겨야 자기를 위한 것인가? 불분할 뿐드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구 있는 거야 응? 자기 목구멍으로 금방 들어가질 않아도 자기 뱃으로 돌아 가는 거란 말야. 그런데 자기 조합 돼지먹이를 떼냈는데 인젠 그 돼지들이 새 조합으로 넘어 가니까 돼지먹이를 노나 먹겠단구? 만약 통합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테야? 그래두 노나 먹을 테야 응?”

“글쎄 너무 욱욕하지 마우. 나두 조합원들의 제기가 있기에 와서 그러는거요. 사실 세 조합의 금년도 분배 량곡을 본다면 맥여울 조합 분배 뿐드가 제일 적소. 그래서 사료 뿐드를 좀 노나 먹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인데 그렇게 될거야 있소?”

“뭐? 저희가 농사를 잘못 지어서 분배가 적은데 분배가 적다구 사료 뿐드를 노나 먹여? 저 조합원이 누가 그런 제기를 하는 거야? 이름을 대우.”

억삼이는 양복 옷주머니에 찢렸던 수첩을 꺼내고 만년필을 뽑아 들었다.

“조합원들이 다 그러우.”

“뭐 조합원들이 다 그래? 동무 자기 발언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 알겠는가?”

김 두철이는 머리뺨을 후들후들하며 말이 없다.

“이게 뭐가? 통합을 파괴하지는 수작이야. 응! 반혁명이란 말야. 반혁명 엉?”

(천세봉 1962,5: 9)

(중략)

“새 조합에 넘어 올 량곡을 2백 가마니 노나 먹었다? 야 그거 참 양판들 좋다. 그거 그리구두 여지껏 짹 소리 없이 가만히들 있었던 말인가?”

엄대근이가 대머리에 시뻘정게 피땀이 오르며 소리를 질렀다.

“짹 소리가 있게 됐소? 짹 소리를 어떻게 해요?”

억삼이가 량어깨가 솟았다 내렸다 하며 대꾸를 했다.

“아니 거 그럼 저 자들이 석개울 사람들이나 장산동 사람들을 어떻게 알았던 말인가? 사실 말이지 석개울 조합과 맥여울 조합이 같은 수준이 되는가? 허지만 우리는 통합을 위해서 이러니 저러니 소리를 안 하구 더 많은 걸 내놓구 통합을 했어. 헌데 이진 산지기가 놀구 중이 추념을 낸다구 제편에서 또 공축을 잘라 가지고 노나 먹여? 어찌 이 놈 이도적놈 그런 짓을 해 놓고두 뭐 연구를 해? 량곡 노나 먹구 연구

는 무슨 연구냐? 이 더러운 놈 이 놈!”(천세봉 1962, 8: 54)

위에서 보다시피 맥여울 사람들이 공축하기로 했던 양곡과 현금을 나누어 가진 것은 바로 다른 마을과의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게다가 관리위원장 창혁이가 없는 사이 억삼이가 젊은이들을 거느리고 맥여울 창고에 가서 식량을 석개울로 옮기려고 하면서 맥여울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진다. 협동화 초기에는 조합 결성에 있어서 개인의 이해 타산을 따지는 농민들과의 갈등이 주를 이루고 조합 내부에서도 서로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개인이기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했었다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조합에 가입하고 마을마다 조합이 결성된 후에는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조합 간의 갈등과 모순이 심각해졌다.

4.4. 조합을 지원하는 공업진영과의 갈등

농업협동화를 둘러싼 갈등은 조합 간의 문제를 넘어서 조합을 지원하는 공업진영과의 갈등으로 확대되었다. 『석개울의 새봄』 3부에서는 주로 세 개의 협동조합이 통합되어 경영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예를 들면 모내기 시기에 모가 부족하여 모를 다른 조합에서 꾸어오거나 거름용 니탄을 채취해 놓고도 운송하지 못해 거름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조합에서는 논을 갈기 위해 파견되어 내려온 군 농업임경소 운전수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 지배인 윤병국이 이를 반대하면서 심각한 갈등과 모순을 초래하게 된다. 윤병국은 결코 반혁명세력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석개울의 농업 경영에 대하여 사사건건 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원을 회피하는가 하면 심지어 임경소의 논갈이 계획만 강조하면서 트랙터 운전수들을 사주하여 밭을 대충 갈아버리게 만든다.

“뭐라구요? 트랙토르를 딴 작업에 돌리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윤병국이는 대뜸 소리를 질렀다.

“글쎄 석개울조합에 내려 와 보니 일이 어방없이 처졌군요. 논에 거름이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거름 안 낸 논을 갈아엎을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조합 관리위원장의 요구도 있고 해서 기대를 운반 작업에 돌렸습니다. 런결차는 조합 기계화 작업반에서 만들었습니다.”

“여보, 동무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그 기대의 작업 일보가 아직 한장두 올라오지 않소? 그래 논은 갈 작정이요? 기경을 하라고 내려 보냈지 누가 운반 작업을 하라고 기대를 내려 보냈소? 응?”

“그렇지만 지배인 동무, 우리야 어떻게 하든지 조합 농사가 잘 되도록 방조를 주어야 할 것 아니요?”

“무엇이 어찌구 어째요? 그러게 논을 갈아 주러 나갔단 말야. 논을...”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렇지만 거름 안 낸 논을 그냥 갈아넘길 수야 없지 않습니까?”

“글쎄 그건 조합이 할 일이란 말이요. 조합이... 동무 임경소 작업반장으로서 치마폭이 너무 넓소. 조합의 처진 일까지 가로말아 가지구 너무 주제가 넘단 말이요. 당장 운반 작업을 거두오. 알겠소?”

“허허 글쎄 조합 조합 사정두 딱합니다.”

“글쎄 남의 할 걱정을 말란 말이요. 운반 작업을 중지하겠소? 어찌겠소?”

“그 그럼 중지를 하지요. 래일부터는 작업반장 동무가 별소리를 다 해도 논을 갈겠습니다. 저도 퇴비 운반은 못 하겠다고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하라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요.”

“아니, 그 놈의 조합은 임경소만 믿구 있는 조합이야? 왜 조합이 퇴비 운반을 못 했어? 그 그 일 잘 한다는 고수머리가 왜 퇴비 운반을 왜 못 했어?”

“당장 운반 작업은 걷어 치우고 기경을 다그치란 말야. 닷새 동안 못 간 봉창을 해야지. 알겠는가?”

“그런데 지배인 동지, 이거 금년엔 야단 났어요. 3십 센치 이상으로 갈아 내자면 예정 기간 내에 해낼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거름 운반을 해? 그런 조합은 심경을 안 주어도 좋아. 응?”

“심경이라는 것이 그저 심경인가? 심경을 하면 다량 시비를 해야 된단 말야. 그런데 논에다 퇴비도 안 낸 땅을 심경해 준단 말이야? 그 따위 심경 타령을 말구 종전처럼 18센치도 좋으니 번개치듯 갈아 제끼란 말야.”(천세봉 1962,12: 40-41)

(중략)

“동무들 누가 이렇게 논을 알게 갈라구 했소?”

“이게 몇 센치요?”

“우린 센치를 잘 모르우.”

김 기도의 대답이었다.

“그럼 뭘 아우?”

“그저 논을 갈지요.”

“논을 갈되 국가 지표가 얼마라는 걸 몰라?”

창혁이는 자막대기에 손바닥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목에 우글우글 피대가 돌아 올랐다.

“동무는 퇴비 운반을 하면서도 불평한다는 소리를 들었소. 그래 퇴비를 운반시켰다구 해서 그 양심으로 이렇게 가는가?”

김 기도는 얼굴이 붉어 말을 못 했다.

(중략)

“난 동무들이 왜 이렇게 갈았는지 알겠소. 자기의 논갈이 계획을 자기의 논갈이 계획을 150프로, 200프로 해내자구 이렇게 가는 모양인데 글쎄 그렇게 해서 동무네 계획은 빨리 된다 쳐두 이게 농사가 되겠소? 집약화 농법이 되겠나 말ियो? 어땡소? 운전수 동무 의견은?...내 생각엔 동무네가 계획 초과를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농민들 농사를 좀 더 잘 방조해 주겠는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보우.”(천세봉 1962.12: 101-102)

위에서 보다시피 김창혁은 임경소 논갈이 계획만 따지는 지배인 윤병국의 사주를 받고 표준대로 논을 갈지 않는 트랙터 운전수를 크게 질책하면서 논갈이 계획보다 실제 농민들 농사가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부터 당시 조선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관료주의와 집단적 이기주의로 인한 농업과 공업 간의 모순과 갈등이 비교적 심각했음을窺어볼 수 있다. 윤병국의 이러한 모습은 “중앙이 도를 도와주고 도가 군을 도와주고 군이 리를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똑똑히 세워 당면한 애로를 뚫고 나가야할 것입니다.”라고 한 당 중앙의 교시에도 위배되는 것이었다. 이렇게 천세봉은 윤병국의 관료주의적 폐단을 통하여 농업협동화시기 농업진영과 농업을 지원하는 공업진영의 갈등을 직접적으로 꼬집고 있다.

또한 결말 부분에서 평양에 올라간 김창혁이 평양의 거리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 장면을 통해 농업과 공업, 농촌과 도시 간의 차이와 갈등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큰 거리로 나온 창혁이는 그 길로 대동강가로 나왔다. 나오면서 보니 거리 옆에 또 건설장이 있다. 거기서도 기중기가 돌고 용접공들의 푸른 불꽃이 높은 옥상에서 번뜩인다. 대동강의 대안에도 불야성을 이루었다.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돌을 쫓는 것 같은 소리도 들린다. 뽕뽕뽕뽕 화물 자동차가 달리는 소리, 여기저기서 기중기를 지휘하는 호각 소리, 이 위대한 민주 수도는 밤에도 근기 찬 맥박을 가지고 건설을 촉진시키고 있다.

(중략)

세상에 이런 일이 어데 있을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어느 도시를 건설하는 데 이런 기적이 있었는가!

창혁이는 가슴이 몹시 뜨겁게 설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조국의 건설 속도가 이처럼 상상할 수도 없게 빠를 이 때에 자기는 그 어떤 것으로 조국의 건설에 도움을 주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아프게 때렸다. 그런 생각을 말자 해도 그의 눈 앞엔 또 석개울이 떠올랐다. 아득히 먼 어느 한 귀퉁이 땅, 지금 그 땅 우에 벌어지는 일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너무도 작고 너무도 뒤떨어진 것 같았다.(천세봉 1962,8: 48)

위의 예문에서 보면 창혁이는 거대하게 올라가는 평양의 아파트와 그 건설 현장의 기계화 체계를 보면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의 현실을 떠올리면서 마음 아파한다. 비록 직접적으로 공업과 농업, 도시와 농촌 간의 차이나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낙후하고 뒤쳐진 농촌의 현실을 떠올리면서 농촌도 도시처럼 하루 빨리 기계화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농촌과 도시, 농업과 공업 간의 차이와 갈등을 통해 농촌의 수리화, 기계화에 대한 작자의 희망이나 염원을 완곡적으로 피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5. 협동조합을 둘러싼 비적대적 갈등 구조의 의미

문학작품에서 갈등은 키포인트이다. 복잡한 갈등 설정은 작품의 폭과 깊이를 확보해 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석개울의 새봄』은 조합원과 개인농사이의 심각한 대립은 물론 소유의 문제를 둘러싼 조합 내부의 다양한 갈등,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조합 간의 갈등, 그리고 조합을 지원하는 공업진영과의 갈등 등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서 스토리를 전개시킴으로써 작품의 서사성을 다채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작품세계도 보다 풍부하게 펼쳐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아쉬운 것은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비적대적 갈등의 설정이나 해결에 있어서 인물의 성격 발전 논리에 따랐다기보다는 작가의 주관적 의지에 의해 처리된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비적대적 갈등은 결코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특히 토지와 기타 기본적인 생산수단을 협동조합이 소유하고 공동 경영하는 방식은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개인영농에 기초한 소 소유자적 관념과 이기주의에 대한 한차례 전대미문의 혁명으로 결코 일거에 쉽사리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자유전(耕者有其田)’은 수천 년간 농민들의 세기적 숙망이었다. 토지개혁은 이러한 농민들의 숙망을 이루어주었고 그런 만큼 치부하려는 욕망이나 이기주의가 팽배하게 된다. 사실 농민들은 보편적 논리보다는 이런 개인적 소유 및 욕망이나 이기주의에 많이 안주하게 된다. 따라서 협동조합에 들어가기 전에 가대와 호리의 새 보습날을 뽑아내고 낡은 보습날들을 맞춰서 조합에 내놓는다거나 자기 소를 사전에 팔거나 혹은 잡아치우는 등 자기 소유의 재산이나 농기구를 처분하는 현상도 쉽사리 일어났을 것이다. 『석개울의 새봄』을 비롯한 농업협동화를 반영한 소설들은 이러한 농민들의 저축 정서나 반발, 당내의 논쟁, 지도간부들 사이의 모순과 갈등, 조합을 지원하는 공업진영과의 갈등 등을 얼마간 보여주어 역사적 진실을 확보했으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류적 담론에 서서 비주류적인 빙산의 일각을 보여 주는데 그침으로써 문제점도 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와 ‘좌적 경향’으로 인

한 일부 갈등도 보여주었지만 그 심각성에 대한 해부와 해결 방도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석개울의 새봄』은 비적대적 갈등과 모순을 여러 갈래로 비중있게 다루어 당시 농업협동화의 복잡한 상황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듯 하지만 그 갈등과 모순의 해결에 있어서는 주로 조합 회의나 조합 간부들의 사상 교양과 설득, 그리고 에피소드의 활용과 같은 방법으로 너무 쉽게, 안이하게 교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를 계기로 조합원들은 더욱 단합되고 협동조합도 더욱 공고화된다. 이는 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농민들은 결코 대립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고 교양하여 조합에 흡수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설정은 위에서 언급했던 갈등 이론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빈농에 튼튼히 의거하면서 중농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부농을 제한하며 점차적으로 개조한다.”는 당시 계급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안이한 갈등 처리 방법은 작품의 긴장감과 극적 효과를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작품의 문학성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이는 위에서도 언급했던 “갈등을 온화하게 끌고 가거나 무난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문예원칙에도 위배됨으로써 결국 사실주의원칙에서 벗어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실제 사회현실보다도 당의 주류의식에 입각하여 당의 농업협동화 정책의 정당성을 선전, 해명하려는 작자의 주관적 창작태도와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6. 나오면서

본고는 천세봉의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중심으로 1950년대 조선 농민소설의 비적대적 갈등 구조와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석개울의 새봄』은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농업협동화라는 정치적 사변을 다룬만큼 비적대적 갈등 구조도 주로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개인농 사이의 갈등, 소유의 문제를 둘러싼 조합 내부의 갈등,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조합 간의 갈등, 조합을 지원하는 공업진영과의 갈등으로 설정되어 다양한 갈등 양상을 펼쳐냈다. 특히 자기의 입장이나 이익에 따라 부동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각이한 계층의 농민들의 내면세계와 일상을 리얼하게 펼쳐내어 역사, 문헌적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 하지만 “갈등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심각하게 설정되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갈등 이론에 따라 다양한 비적대적 갈등이나 모순이 심각하게 설정되고 전개되는 것 같지만 그 해결에 있어서는 주로 설복과 교양의 방법으로 너무 쉽게, 안이하게 처리되는 아쉬움도 남기고 있다. 특히 농업협동화 과정에서 갈등하면서 동요하는 농민들을 설득과 교양이라는 방법으로 너무 쉽게 교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현실생활 논리보다도 당시 계급정책과 문학적 과제에 따라 작자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일종의 소설적 장치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광범한 농민들의 진실한 염원과 보편적인 욕구를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진실과 발전 추세를 보다 객관적으로 그려내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게 되었다. 이는 농업협동화라는 당시 주류적 담론과 문예정책에 편승하여 당의 계급정책을 도해하면서 농민들을 교양하여 전후 복구와 사회주의적 개조에 꺾기시키려 한 작자의 창작의식과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한 작가가 시대적 주류의식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창작활동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농업협동화라는 이 전례없는 사회변혁에 대하여 별로 시간적인 거리를 두지 않고 현장르포처럼 창작하였기 때문에 사색의 미숙성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하지만 1950년대 농업협동화라는 조선 농촌의 대변혁을 서사화한 작품으로서 당시 시대적 배경과 사회현실을 보다 생생하게 이해하는 역사문헌자료가 되기에는 손색이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영석(1957.5) 「우리 산문문학에 반영된 농촌생활의 진실」, 『조선문학』,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139부).
- 김영희(2010)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을 통해 본 조선 농업협동화운동과 그 서사적 대

- 웅」, 연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32-148.
- 金閔英(2003) 「北韩小说의 葛藤様相 研究」, 수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4-27.
- 김은정(2003) 「농촌의 사회주의적 개조와 『석개울의 새봄』」, 『한국어문학 연구』 18집, 204-220.
- 김은정(2005) 「천세봉 장편소설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박사학위논문, 131-138.
- 김일성(1981) 『김일성 저작집』 13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3.
- 김정웅(1992)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 2, 평양: 문예출판사, 235.
- 김정웅(1992) 『주체적문예리론의 기본』 2, 평양: 문예출판사, 242-244
- 김현순(1959) 「공산주의 교양과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조선문학』,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28-136.
- 김현순(1960) 「천세봉과 농촌」, 『조선문학』,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21-125.
- 김혜자(2006) 「전사회주의권에서의 농업집단화 제재 소설 비교 연구」,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19.
- 박용학(2000) 「천세봉의 인간상과 소설세계를 더듬어」, 『조선문학』,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42-51.
- 박종원·류만(1986) 『조선문학개관』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12.
-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1985)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31.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1978) 『조선문학사』,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309.
-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1981) 『조선전사』 29),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308.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실(1959) 『조선문학통사』 (하), 평양: 과학원출판사, 272-293.
- 손전후 외(1988) 『해방후 혁명과 건설 경험』 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
- 연장열(1962) 「전변되는 사회주의농촌의 진실한 화폭」, 『조선문학』,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09-114.
- 오창은(1998)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론」, 『북한문학의 이념과 실체』, 서울: 국학자료원, 269-292.
- 우상렬(2002) 「광복 후 조선현대문학에서의 토지개혁, 농업협동화의 문학적 대응 양상」, 『배달學散步』, 서울: 도서출판 영.
- 이대철(2003) 「천세봉 소설 연구-『석개울의 새봄』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3-7.
- 이주미(2002) 「북한 소설의 서사적 특성」, 『한민족문화연구』 제11집, 132.
- 이주미(2000) 「북한의 농민소설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5-106.
- 임상철(1994) 「북한 협동농장의 형성과정과 운영체제」, 『韩国协同组合研究』 12, 48.
- 장미성(2007) 「농업협동화 시기 농민의 일상과 내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경덕(2005) 「천세봉의 『석개울의 새봄』 연구-판본 차이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7, 319-336.
- 조근원(1958) 「새날을 위한 애국 련사 가족들의 첫 봉화-황해남도 신천군 새날 농업 협동조

- 합], 『농업협동화 운동의 승리』 1, 조선로동당출판사, 91.
- 조남현(2004) 『소설신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사.
- 조유철(1998) 「문학예술작품의 구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 문예학』 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47-152.
- 조중곤(1956.12.27) 「빛나는 창조적 로력 속에서」, 『문학신문』, 2.
- 천세봉(1956.7) 「석개울의 새봄」(1부), 『조선문학』, 평양: 조선문학예술종합출판사, 48-49.
- 천세봉(1955.7) 「석개울의 새봄」(1부), 『조선문학』, 평양: 조선문학예술종합출판사, 24-26, 56-57.
- 천세봉(1956.7) 「석개울의 새봄」(1부), 『조선문학』, 평양: 조선문학예술종합출판사, 30, 50-56.
- 천세봉(1957.9) 「석개울의 새봄」(2부), 『조선문학』, 평양: 조선문학예술종합출판사, 12.
- 천세봉(1962.5) 「석개울의 새봄」(3부), 『조선문학』, 평양: 조선문학예술종합출판사, 9.
- 천세봉(1962.8) 「석개울의 새봄」(3부), 『조선문학』, 평양: 조선문학예술종합출판사, 48, 54.
- 천세봉(1962.12) 「석개울의 새봄」(3부), 『조선문학』, 평양: 조선문학예술종합출판사, 40-41, 101-102.
- 한병근(1958) 「12호의 빈농민들이 앞장에 서서 모범 농업 협동 조합을 창조하기 까지」, 『농업협동화의 승리』 1, 조선로동당출판사, 163-169.
- 한설야(1956) 「계급적교양과 사회주의 레알리즘의 제문제」, 『조선문학』, 조선문학예술종합출판사, 8.
- 홍혜미(2002) 「『석개울의 새봄』의 문학사적 규명」, 『檀山学志』, 135-157.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고있는데 대하여

The Great Efforts into Solving the Rural Problems in Our Country

김웅호*

조선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지난해 12월에 진행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 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문제의 옳바른 해결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심도있게 토의되었으며 이에 따라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의 새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농촌혁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농촌진흥을 강력히 다그침으로써 나라의 농업을 확고한 상승단계에 올려세우고 우리식 사회주의농촌의 비약적발전을 이룩하는 위대한 새시대를 열어나 가야 합니다.»

농촌문제는 농민문제, 농업문제이며 농촌문제를 옳바로 해결하는것은 그 어느 나라에서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사회경제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사람들의 생활에서 식량문제, 먹는 문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며 때문에 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지역으로서의 농촌문제를 바로 해결하지 못하고서는 사람들의 안정한 생활을 보장할수 없고 사회경제발전도 이룩할수 없다.

* Kim Ung Ho(Associate Professor, Section Chief of Institute of Economics,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1.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게 된 사회경제적배경

사회주의건설을 지향하는 우리 나라에서 농촌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전략적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농촌문제는 농민문제, 농업문제이다. 농민은 노동계급과 함께 우리 혁명의 기본부대의 하나이며 농업은 공업과 함께 인민경제 2대부분의 하나이다. 농촌문제를 잘 풀어나가야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건설의 물질경제적토대를 튼튼히 다질수 있으며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킬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새조국건설의 첫시기부터 농촌문제해결을 전면에 내세우고 시대와 혁명이 전진하는데 맞게 부단히 심화시켜왔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1964년 2월 《우리 나라 사회주의농촌 문제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신것은 사회주의하에서 농촌문제를 가장 정확히 해결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은 획기적사변이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위대한 농촌테제의 기치높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농촌건설을 힘있게 추진하여 농촌문제해결의 세계적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사회주의나라들은 물론 세계 진보적나라들의 각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우리 혁명앞에 조성된 주객관적조건과 여러가지 요인들로 하여 농촌발전은 일련의 제약을 받게 되었다.

농촌혁명, 농촌진흥은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발전으로 이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오늘날 절박한 과제로 제기되고있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은 전면적발전으로 이행하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당이 밝힌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역,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동시적이며 균형적인 발전을 이룩하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으며 이 사상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현실적요구, 사회주의건설의 당면투쟁방향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되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국가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징표를 갖추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실현되게 된다. 특정한 분야나 부문에서의 성과에 국한되고 다른 모든 분야, 부문을 다같이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실현할수 없으며 인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수 없다.

모든 분야, 모든 부문을 다같이 발전시켜 국가의 부강발전을 당겨와야 하며 인민들이 사는 곳은 달라도 생활에서는 지역적차이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는것이 우리 당의 뜻이다. 오늘 우리 당은 수도뿐만아니라 모든 도, 시, 군을 정치와 경제, 문화의 각 방면에서 다같이 발전시키며 지방특색위주의 균형적동시발전을 보장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오늘의 투쟁은 농촌문제해결에 큰 힘을 넣어 로동계급과 농민간의 차이, 공업과 농업간의 차이,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없앨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다.

2.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와 당면한 중심과업

2.1.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

우리 당의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는 온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만드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전체 농업근로자들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농업생산과 농촌건설에서 근본적인 개조변혁을 이룩하여 농촌문제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것이다.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의식수준제고, 농업생산력의 비약적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인 개변, 이것이 우리의 농촌발전에서 어느 하나도 놓침이 없이 점령하여야 할 목표들이다.

2.2. 당면한 농촌발전전략의 중심과업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우리 로동당시대에 어울리는 혁명적인 농업근로자로 개조하고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농촌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농촌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는것이다.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만드는것은 사회주의농촌 건설에서 나서는 가장 주되는 과업이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의 주동적역할이 결정적이라는것은 근 한세기에 달하는 조선혁명사가 가르쳐주는 철의 진리이다.

객관적조건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 해도 주체적력량이 튼튼히 준비되어있으면 모든 간고함을 극복하고 혁명투쟁을 새로운 양상으로 계속 고조시킬수 있다.

그러므로 당면한 농촌발전전략수행에서 농업근로자들의 사상을 개조하고 정치의식을 높여주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어 그들모두를 당의 사회주의농촌 건설구상을 충직하게 받드는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켜나가게 된다.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것은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당면한 농촌발전전략수행기간 농업생산에 큰 힘을 넣어 인민들의 식량을 백미와 밀가루를 위주로 보장하면서 국가적인 알곡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와 함께 축산과 과수, 남새, 공예작물과 잠업생산에도 힘을 넣어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향상시켜나가게 된다.

전국의 농촌마을들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당면한 농촌발전전략에서 특별히 중시하는 과업이다.

나라의 모든 농촌마을들을 우리식 사회주의의 맛이 나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뚜렷이 살아나게 건설하는것은 농촌주민들에게 세상에 부럽없는 훌륭한 생활환경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그리고 국가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

하여 제일 중시하며 반드시 실현하자고 하는 전략적인 중대계획이다.

이 계획의 성과적실행을 위하여 시, 군들에 일정한 량의 세멘트가 의무적으로 공급되고 강력한 국가적지도체계가 가동하는 등 국가의 힘있는 지도방조가 진행되게 된다. 이와 함께 시, 군들에서도 자체의 건설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건재생산기지들을 강화하여 삼지연시의 농촌살림집들과 같은 현대적이며 리상적인 농촌문화주택들을 대대적으로 일떠세우게 된다.

농촌지역들에 현대적이면서도 독특한 건축미를 자랑하는 마을들이 해가 다르게 일떠서게 되면 농업근로자들의 생활환경은 물론 사상의식수준과 문명수준에서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것이며 나라의 면모가 크게 일신되게 될 것이다.

3. 농촌문제해결에서 견지하고있는 중요원칙

첫째로,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농촌문제를 해결해나가는원칙을 견지하고있다.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서 사회주의농촌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있다.

그런것만큼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발전을 이룩하는데서 그 누구를 모방하거나 남의 뒤를 따라가는 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조선식농촌발전을 지향하고있다.

농촌에서 생산력일면만을 중시하거나 생활환경은 무시하는것과 같은 편향을 다같이 배격하고 사상과 기술, 문화의 모든 면에서 농촌을 우리식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전면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게 된다.

둘째로,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투쟁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사회주의농촌건설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은 그 과업의 방대함과 심도에 있어서나 그 변혁적의의에 있어서 거창하고도 심각한 혁명이다.

더우기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의 요구에 맞게 시대적락후성을 시급

히 털어버려야 하는 농촌의 긴박한 사정은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농촌진흥을 위한 사업에서 완만성과 소극성을 철저히 배격하고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투쟁을 전개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투쟁을 전개하는 여기에 빠른 시일내에 농촌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농촌발전을 이룩할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셋째로, 과학적인 단계와 목표를 설정하고 년차별계획에 따라 목적지향성 있게 진행하는 원칙을 견지하고있다.

은 나라 농촌을 주체사상화하고 부유하게 만들기 위한 사업은 결코 단기일에 실현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농촌문제는 장기성과 다면성을 띠는것만큼 그것을 성과적으로 해결하려면 과학적인 단계와 목표를 세우고 년차별계획에 따라 목적지향적인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당면한 농촌발전전략은 농촌문제해결의 한 단계에 따르는 전략으로서 그 실현을 통하여 농촌문제해결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게 될것이다.

4. 농촌문제해결을 위한 중요과업과 방도

첫째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농업근로자들을 농촌혁명가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것을 농촌문제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농촌에서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농업근로자들을 정치사상적면에서나 기술지식과 문화생활면에서 근본적으로 개명시켜 농촌혁명의 담당자, 주인으로, 현대문명의 창조자, 향유자로 만들수 있다.

농촌의 3대혁명수행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리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그 목적은 농업근로자들의 머리속에 남아있는 낡은 사상을 뿌리빼고 그들을 혁명화, 주체사상화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우리 혁명력량을 정치

사상적으로 튼튼히 다져 사회주의건설을 강력히 추진하자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농업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정책, 혁명의 년대들에 배출된 농민영웅, 애국농민들의 투쟁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속에 당과 국가, 제도의 위대성과 고마움을 체득시키며 집단주의가 사상의식과 생활을 지배하는것과 함께 로동에 성실하고 높은 계급의식을 지니도록 하는데 주목을 돌리게 된다.

농촌에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농업근로자들을 지식형의 근로자로 만드는것은 농촌의 3대혁명수행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농업근로자들이 높은 과학기술을 소유할 때 사회주의농촌의 주인으로서의 구실을 다할수 있으며 새시대의 농촌진흥을 가속화할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요구에 맞게 농업근로자들의 건문을 넓혀주고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농업과학기술학습과 선진영농기술 보급사업을 활발히 전개하며 농촌에 대학졸업생들을 많이 배치하고 그들의 핵심적역할에 의거하여 농장의 기술력을 더욱 증대시키며 농촌에서 과학기술을 멀리하고 낡은 경험에 매달리는 현상들을 철저히 극복하는데 주목을 돌리게 된다.

농촌의 3대혁명수행에서 문화혁명도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

농촌문화혁명에서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하여 농업근로자들의 문화의식수준을 높이고 농촌에 혁명적이고 건전하고 문명한 생활기풍을 확립하는 사업에 힘을 넣게 된다.

국가적으로 농촌의 교육과 의료봉사수준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 수도의 문화, 로동계급의 문화, 시대의 본보기문화를 지방과 농촌에 끊임없이 전파, 확대하여 농촌문화혁명을 적극 추동해나가게 된다.

둘째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장성시키는것을 농촌문제해결에서 현시기 절박하게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 문제는 국가의 존망과 사회의 안정, 혁명의 전진을 좌우하는 심각한 정치적문제, 인민들이 제일 해결을 기다리는 절실한 문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을 부단히 장성시켜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긴장한 식량문제를 푸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 이 력사적과제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과학농사제일주의를 일관한 원칙으로 견지하고있다.

과학기술을 농업발전의 주되는 동력으로 하여 나라의 농업을 선진적인 농업으로 전환시키고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장성을 이룩하자는데가 우리 당의 전략적인 발전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종자혁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재해성이상기후에 대처할수 있는 과학적인 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하며 농업기상예보의 신속성과 과학성, 정확성을 보장하는데 힘을 넣게 된다.

현시기 농업생산을 발전시키는데서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는 사업을 중시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식생활문화를 백미밥과 밀가루음식위주로 바꾸는데로 나라의 농업생산을 지향시키기 위하여 농업부문에서 국가적인 벼와 밀소요량을 충족시킬수 있게 필요한 재배면적을 확보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내밀고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도입하며 영농작업에 기계수단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건조시설을 꾸리는것과 함께 밀가루가공능력을 대폭 늘여나가게 된다.

당면하여 농장들에서 밀농사경험을 쌓기 위한 사업을 세밀하게 작전하고 국가적으로 다수확종자와 필요한 영농물자들을 보장하는 체계를 세워나가게 된다.

전국적으로 콩농사, 감자농사열풍을 고조시키며 저수확지들을 개량하여 전반적인 농장들에서 정보당수확고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게 된다.

이와 함께 축산과 과수, 남새와 공예작물생산을 늘이는데도 힘을 넣게 된다.

농업부문의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진행되게 된다.

세계농업발전추세에 맞게 농업생산의 과학화, 정보화, 집약화를 실현하는데서 농업과학연구기관들과 농업부문 대학들의 역할을 높이며 기계화를 실현하는데 유리한 영농기술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는 사업도 힘있게 벌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모든 농업과학연구기지들을 첨단화하고 쟁쟁한 농업과학기술인재들을 대대적으로 양성하며 농장, 작업반, 농장원들에 이르기

까지 선진적인 농업과학기술과 영농방법이 제때에 보급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농업생산의 지속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농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더욱 개선해나가게 된다.

나라의 농업생산전반에 대한 통일적이며 계획적이며 과학기술적인 지도를 강화하며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를 위주로 하는 우리식 농업지도체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데 힘을 넣게 된다. 그리고 농업지도일군들과 농촌초급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높이는 사업도 적극 추진하게 된다.

셋째로, 농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여 농촌정리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을 농촌문제해결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농업의 발전은 국가적투자를 전제로 하고있으며 국가적투자를 떠난 농업의 그 어떤 발전에 대해서도 기대할수 없다.

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과 련관단위들에서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몹을 계통적으로 늘이고 설비와 자재, 자금을 계획대로 무조건 보장하는 강한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는데 큰 힘을 넣게 된다.

농촌정리의 수리화, 기계화, 화학화, 전기화실현을 적극 다그쳐나가게 된다.

그 어떤 가물과 큰물에도 끄떡없이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수 있게 나라의 관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보강하고 더욱 완성하며 농촌에 질소비료와 린비료, 카리비료를 비롯한 농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료들과 효능 높은 농약들을 충분히 공급하며 현대적인 전력설비와 전기기계들을 더 많이 보내주어 농촌의 생산활동과 문화생활조건을 개선향상시키는데 힘을 넣게 된다.

농촌정리의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금성뜨락또르공장을 마력수가 높은 뜨락또르와 함께 여러가지 능률높은 농기계들을 생산할수 있는 종합적인 공장으로 발전시키면서 주요농기계공장들과 농기계연구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여 나라의 농기계공업을 완전히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이 적극 벌어지게 된다.

새땅찾기와 간척지개간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부침땅면적을 계속 늘

여가는데 힘을 넣게 된다.

나라의 제일 큰 농업도인 황해남도를 중시하고 힘을 집중하여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기치를 들고나가도록 한다.

국가적으로 주요영농시기에 역량과 수단을 기동성있게 동원하는것을 정례화, 의무화해나가게 된다.

넷째로, 농촌의 면모와 환경을 결정적으로 개선시키는것을 사회주의농촌건설과 농촌문제해결의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농촌의 면모를 일신시키는것을 사회의 진보와 부흥을 위한 사업으로, 시, 군발전의 새시대를 창조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반적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업으로 내세우고있다.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부유하고 문화적인 사회주의리상촌으로 만들자는것이 우리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시, 군들에 농촌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우선적으로 전진공급해주게 되며 설계역량과 건설역량을 강화하고 필요한 건설장비를 갖추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게 된다.

주요자재들과 마감건재들을 국가적으로 보장하면서 지방들에도 건재생산기지들을 꾸리는 사업이 적극 추진되게 된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강령을 받들고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촌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진행되고있는 농촌혁명은 매우 어렵고 방대한 사업이지만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전체 인민들의 애국적열의가 있는 한 나라의 농업을 지속적인 발전궤도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농촌의 천지개벽을 안아오기 위한 역사적인 사업에서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개성시 해선리에서 새로 발굴된 명릉동벽화무덤에 대하여

Myongrungdong Mural Tomb
Newly Unearthed in Haeson-ri, Kaesong City

김인철*

조선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 서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똑똑히 밝혀지지 못하였거나 잘못 규정해놓은것들을 우리 시대에 다바로잡아 후세에 정확히 전해지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첫 통일국가로 자랑 높았던 고려시기의 왕릉들가운데는 아직까지 그 위치와 주인공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왕릉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왕릉들을 모두 찾아 발굴고증하는것은당시의 력사와 문화, 왕릉제도연구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말할수 있다.

이번 토론에서는 개성시 해선리의 명릉동에서 주체110(2021)년 10월에 새로 발굴된 명릉동벽화무덤의 구조와 축조년대 및 주인공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한다.

명릉동벽화무덤은 개성시 해선리에 솟아있는 만수산줄기에서 남쪽으로 갈라져나온 산릉선의 중턱에 위치하고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다른 룡선들에

* Kim In Chol(Section Chief of Institute of Archaeology,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의해 둘러막혀있어 아늑한 감을 주고있으며 무덤앞으로는 명릉천이라고 불리우는 자그마한 개울이 흐르고있어 중세시기에 널리 통용되던 “지리풍수설”에 부합되는 곳이라고 할수 있다.

이 무덤에서 서쪽으로 200m정도 떨어진 곳에 고려 29대 현효(충목)왕의 무덤인 명릉과 다른 2개의 고려왕릉급무덤으로 이루어진 명릉떼가 있으며 반경 3~4km범위에는 고려태조 왕건왕릉, 8대왕 현종의 무덤인 선릉, 9대왕 덕종의 무덤인 숙릉, 10대왕 정종의 무덤인 주릉, 31대 경효(공민)왕의 무덤을 비롯하여 고려시기의 왕릉들이 많이 분포되어있다.

2. 본론

2.1. 새로 발굴된 명릉동벽화무덤의 구조

명릉동벽화무덤의 무덤구역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뺏어내려온 룡선의 경사면에 남북길이 40m, 동서너비 18m정도되게 형성되어있으며 동서방향으로 길게 쌓아놓은 3개의 화강석축대들에 의하여 네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져있다.



〈사진 1〉 명릉동일대 고려왕릉들의분포상태

무덤구역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는 제1구획의 중심에는 무덤무지와 돌란간시설이 설치되어있으며 그 앞에 망주석이 세워져있다. 현재 무덤무지 앞의 좌우에 놓여있던 망주석가운데서 동쪽의것은 없어지고 서쪽의것만이 남아있다.

무덤무지는 밑부분에 설치된 12각형의 병풍돌시설과 그우에 쌓아 올린 흙무지로 이루어졌는데 크기는 직경6.5m, 높이 3m정도이다.

돌란간시설은 란간가름돌과 란간기둥돌로 구성되어있는데 병풍돌시설에서 밖으로 50cm의 사이를 두고 설치되어있다.

무덤무지의 서쪽에 설치되어있던 망주석은 밑에서부터 위로 3/4 정도되는 부분까지는 가로자름면이 바른4각형이며 그 윗부분은 점차 좁아져 전체적으로는 포탄모양을 이루고있다.

제2구획의 북쪽부분 중심에는 상돌이 있고 그 좌우에 돌사람상이 한쌍씩 세워져있다.

상돌은 화강석을 직4각형모양으로 정교하게 다듬어 만든것으로서 윗면과 옆면은 모서리각들을 죽여 그 미적가치를 높이였으며 밑면은 가운데부분의 일부를 우묵하게 파주어 랑쪽의 남은 부분이 다리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돌사람상은 문관복을 차려입고 두손에 홀을 들고 서있는 모습으로서 눈과 코, 입은 풍화되어 명백하지 않으나 모자와 귀, 옷주름과 허리띠, 손가짐새를 비롯하여 앞뒤면의 여러 세부들은 비교적 명백하게 표현되어있다.

제3구획의 좌우에도 돌사람상이 한쌍씩 세워져있었으나 발굴당시 동쪽에 놓였던 돌사람상만이 머리와 다리부분이 깨여진채로 땅에 묻혀있었는데 그 형상수법과 크기는 제2구획의 서쪽돌사람상과 거의 같다고 볼수 있다.

제4구획에는 원래 제당이 설치되어있었으나 현재 후세에 만든 여러기의 무덤들이 자리잡고있다. 제당의 중심부분에서 약간 북쪽으로 치우친 곳에 주춧돌 한개가 놓여있고 그 주변에는 반구형무늬기와 막새, 전나무잎무늬기와, 룡형무늬기와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고려시기 기와들이 쌓여있었다.

명릉동벽화무덤은 지하에 만들어진 외칸으로 된 돌칸흙무덤으로서 방향은 남향이며 무덤칸의 크기는 남북길이 365cm, 동서너비 300cm, 높이 235cm이다.

무덤칸의 동벽과 서벽, 북벽은 잘 가공된 화강석판들을 5단으로 쌓아 만들었다.

동벽에는 매 돌기마다 3장 또는 4장의 판돌들을 써서 돌들사이의 이음짜이 일직선에 놓이지 않도록 서로 어긋물리게 쌓았다. 동벽에서 주목되는것은 네번째 단의 중간부분에 너비 40cm, 높이 48cm, 깊이 25cm 되는 구멍이 뚫어져있는데 이 구멍은 고려 31대 경효(공민)왕의 무덤인 현릉의 동벽에 나있는 구멍과 같은 의미를 담고있는것으로서 안해의 “혼”과 통하는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2〉 무덤칸동벽의 축조상태

서벽과 북벽의 축조상태는 동벽과 거의 비슷한데 동벽의 가운데부분에 있는것과 같은 구멍은 없다.

발굴과정에 검은색의 선무늬들이 그려진 회벽조각들이 발견되어 이 무덤이 벽화무덤이었다는것을 명백히 알수 있게 되었다.

무덤칸의 바닥중심에는 관대가 남북으로 길게 놓여있으며 관대가 놓인 부분을 제외한 바닥의 나머지부분에는 납작한 돌들을 한벌 깔고 그우에 회미장을 하여 전반적인 수평을 맞추었다.

명릉동벽화무덤에서는 도자기, 옥책, 금도금한 철제품, 기와, 벽화조각을 비롯한 유물들이 알려졌다.

2.2. 명릉동벽화무덤의 축조년대

명릉동벽화무덤의 축조년대는 무덤의 외부 및 내부구조와 무덤에서 나온 유물들을 통하여 밝힐수 있다.

명릉동벽화무덤은 무덤구역이 네개의 구획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이와 같은 무덤구역형식은 고려 24대왕 원종의 무덤인 소릉(1274년), 29대 현효(충목)왕의 무덤인 명릉(1348년), 30대 저(충정)왕의 무덤인 총릉(1352년), 25대 경효(충렬)왕의 안해 안평공주의 무덤인 고릉(1297년)을 비롯하여 13세기말~14세기에 축조된 고려시기의 왕릉급무덤들에서 일반적으로 볼수 있다.

명릉동벽화무덤의 내부구조에서 축조년대를 반영하고있는것은 바닥중심에 설치된 관대와 동벽의 중간부분에 만들어진 구멍이다.

관대는 테두리에 길다란 돌을 두르고 그안에 흙을 채워놓은것인데 이와 같은것은 원종의 무덤인 소릉, 안평공주의 무덤인 고릉, 7릉때 2~5릉과 같이 13세기말~14세기에 만들어진 무덤들에서만 볼수 있다.

그리고 동벽의 중간부분에 만들어진 구멍은 1372년에 축조된 고려 31대 경효(공민)왕의 무덤인 현릉의 동벽에 있는 구멍과 같은 의미 즉 안해의 “혼”과 통하는 문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할수 있다.

무덤의 외부 및 내부구조로 보아 명릉동벽화무덤은 13세기말~14세기경에 축조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명릉동벽화무덤에서 나온 유물들가운데서 이 무덤의 축조년대를 반영하고있는 유물로는 국화무늬박이청자조각을 들수 있다.

이 무덤에서 나온 국화무늬박이청자조각의 안쪽과 바깥면에는 어두운 기운이 도는 회청색의 유약이 두텁게 입혀져있는데 그 색깔은 고려 말기 청자 유약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있으며 직접적으로는 14세기에 만들어진 청자기 사명 버들, 물새, 국화무늬박이바리의 유약색갈과 거의 같다고 할수 있다.¹

이처럼 무덤의 외부 및 내부구조와 유물로 보아 명릉동벽화무덤은 고려 말기인 14세기에 만들어진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2.3. 명릉동벽화무덤의 등급과 주인공문제

2.3.1. 명릉동벽화무덤의 등급

이 무덤은 여러차례에 걸쳐 도굴당하였으므로 무덤에서는 등급을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무덤의 등급은 구조가 비슷하면서도 이미 발굴되어 그 등급과 피장자가 밝혀진 고려시기 다른 무덤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밝힐 수밖에 없다.

명릉동벽화무덤의 구조와 크기, 유물들을 분석해보면 이 무덤은 명백히 고려시기의 왕릉급무덤으로 볼 수 있다.

그 근거는 첫째로, 무덤의 구조가 지금까지 알려진 고려시기의 왕릉급무덤들과 같기 때문이다.

이 무덤은 무덤구역이 네개의 계단모양구획으로 구분되어있는데 제1구획에는 중심부에 무덤무지가 놓여있고 그 둘레로 돌란간시설과 망주석이 설치되어있었으며 제2구획과 제3구획에는 돌사람상이, 제4구획에는 제당이 배치되어있다.

이것은 고려 24대왕 원종의 무덤인 소릉, 29대 현효(충목)왕의 무덤인 명릉, 30대 저(충정)왕의 무덤인 총릉, 31대 경효(공민)왕의 무덤 등 13세기 말~14세기에 만들어진 왕릉들의 무덤구조와 같은것으로서 이 무덤이 왕릉급에 속한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무덤의 내부구조에서도 고려시기의 왕릉급무덤들과 비슷한 점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이 무덤의 무덤칸은 다른 왕릉급무덤들의 무덤칸과 마찬가지로 매우 정교하고 치밀하게 축조되어있다.

1 『조선유적유물도감』 편찬위원회(1996) 『조선유적유물도감』 제12권, 평양, 137.

무덤칸의 벽면축조에 리용된 돌들은 많은 품을 들여 가공한것들로서 그 가공수준이 매우 높으며 벽면에는 1cm정도의 두께로 회미장을 하여 미적가치를 높였을뿐아니라 화려한 벽화를 그려놓았다.

천정에 덮어놓은 돌들과 무덤문앞에 세워놓은 돌들도 보통 5~15t정도로서 이러한 돌들을 날라다 가공하여 무덤축조에 리용하려면 수많은 로력과 운반수단들이 동원되어야 하는것만큼 보통의 권력으로는 엄두도 낼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이 무덤이 당시의 최고권력자의 무덤이라는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그 근거는 둘째로 무덤의 크기가 이미 알려진 고려시기 왕릉들의 크기와 비슷하기때문이다.

무덤구역의 규모와 무덤칸의 크기를 고려시기의 다른 왕릉들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명릉동벽화무덤과 고려왕릉급무덤들의 크기종합표 (단위: m)

| 번호 | 무덤이름 | 무덤구역크기 | | 무덤무지 직경 | 무덤칸크기 | | | 피장자 |
|----|---------------|-------------|------|------------|----------|----------|----------|----------------|
| | | 길이 | 너비 | | 길이 | 너비 | 높이 | |
| 1 | 명릉동 벽화무덤 | 40 | 18 | 7 | 3.65 | 3 | 2.35 | |
| 2 | 왕건왕릉 (개건진) | ? | ? | 12.4 | 3.48 | 3.2~3.32 | 2.2 | 고려태조 왕건 |
| 3 | 안릉 | 40 | 20 | 12 | 3.5 | 3.44 | 1.75 | 3대왕 정종 |
| 4 | 현릉 | 40 | 20 | 7.2 | | | | 4대왕 광종 |
| 5 | 영릉 | 40 | 22 | 10.8 | 3.55 | 2.9 | 2.25 | 5대왕 경종 |
| 6 | 숙릉 | 40 | 18 | 9 | 3.6~3.75 | 3 | 1.65~1.7 | 9대왕 덕종 |
| 7 | 주릉 | 40 | 18 | 8 | 3.56 | 3.38 | 2.2 | 10대왕 정종 |
| 8 | 회릉 | 35.8 | 15.5 | 6 | 3.7 | 2.97 | 2.4~2.6 | 18대왕 의종 |
| 9 | 총릉 | 남은 길이 31 | 20 | 10.5 | 3.88 | 2.2 | 1.98 | 30대 저(충정)왕 |
| 10 | 경효(공민) 왕릉 | 60 | 40 | 13.7 | 3 | 2.97 | 2.29 | 31대 경효(공민)왕 |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명릉동벽화무덤은 무덤구역의 규모나 무덤칸의 크기에서 고려 9대왕 덕종의 무덤인 숙릉, 10대왕 정종의 무덤인 주릉, 18대왕 의종의 무덤인 회릉을 비롯하여 고려시기의 다른 왕릉들과 거의 같다고 말할수 있다.

그 근거는 셋째로, 발굴과정에 왕릉급무덤으로 볼수 있는 유물들이 나왔기때문이다.

그러한 유물로는 벽화조각과 옥책조각, 금도금한 철제품 등을 들수 있다.

이 무덤의 벽면과 천정에는 원래 회미장이 되어있었으나 발굴당시 회벽이 모두 떨어져 벽면에 벽화가 그려져있었는지 명백히 알수 없었다. 그러나 발굴과정에 바닥에 퇴적된 흙층속에서 벽화가 그려져있는 회벽조각들이 발견됨으로써 이 무덤이 벽화무덤이었다는것을 확증할수 있게 되었다.

고려시기의 왕릉들가운데서 무덤벽화는 태조의 무덤인 왕건왕릉, 3대왕 정종의 무덤인 안릉, 24대왕 원종의 무덤인 소릉, 31대 경효(공민)왕의 무덤을 비롯하여 여러 왕릉들에 그려져있다.

이것은 명릉동벽화무덤이 벽화가 그려져있던 무덤으로서 고려왕릉으로 볼수 있는 가능성을 주고있다.

명릉동벽화무덤에서는 옥책이 나왔는데 백색대리석을 길죽하게 가공하고 옷부분에 구멍을 뚫어놓아 책처럼 묶을수 있게 만들었다. 발굴된 옥책의 길이는 32.7cm이고 너비는 3cm이며 두께는 1.8cm로서 앞면에 《壬辰二十一日壬子孤(임진 이십일 임자 고)》라는 글이 음각으로 새겨졌고 글자홈들에는 금박이 입혀져있다.

이러한 옥책이 고려 제17대왕 인종의 무덤인 장릉에서도 나왔다.²

2 조선총독부(1920) 『조선고적도보』(일문) 제7권, 950.



〈사진 3〉 고려 제17대왕 인종의 무덤에서 나온 옥책

명릉동벽화무덤에서 나온 금도금한 철제품도 이 무덤이 왕릉이라는것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이 유물은 겉면에 금도금이 두텁게 입혀져있었는데 한쪽 끝부분은 끈같은 것을 꿰수 있도록 고리모양으로 되었으며 다른쪽 끝은 점차 뾰족하게 생겼다.

고려시기 특히 고려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금은 매우 귀한 물건으로 취급 되었으며 봉건정부에서도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였다. 『고려사』에는 “고종 33년(1247년) 11월에 처음으로 관곽에 금박으로 치레하는것을 금지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³

이 기록을 보면 고려 후반기에 일반사람들뿐아니라 봉건관리들도 무덤에 금제품을 사용할수 없도록 법적으로 통제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발굴당시 여러차례의 도굴로 대부분의 유물들이 류실되었지만 금도금한 철제품이 알려진 사실은 이곳에 많은 금제품들이 부장품으로 묻혀있었다는 것을 추측할수 있게 한다.

이것은 이 무덤이 보통의 무덤이 아니라 봉건정부의 제한조치에도 구속되지 않는최고위급의 인물이 묻힌 무덤이었다는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왕릉급의 무덤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3 김중서, 정린지(1451) 『고려사』 권85, 지제39 형법2 금령.

2.3.2. 명릉동벽화무덤의 주인공문제

명릉동벽화무덤이 14세기에 만들어진 왕릉급무덤이라고 본 조건에서 주인공은 그의 생존년대와 무덤의 위치 및 구조 그리고 당시의 문헌기록들을 분석해보면 추정할수 있다.

명릉동벽화무덤은 고려의 왕궁이었던 만월대에서 서쪽으로 5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으며 이 거리를 리수로 환산하면 12리정도에 해당된다.

14세기에 생존한 왕들의 무덤들가운데서 옛 문헌에 기록된 위치가 명릉동벽화무덤의 위치와 일치되는것은 25대 경효(충렬)왕의 무덤인 경릉과 26대 선효(충선)왕의 무덤인 덕릉, 29대 현효(충목)왕의 무덤인 명릉이다.

그가운데서 현효(충목)왕의 무덤인 명릉은 현재 명릉때 1릉으로 비정되어 있으므로 남은것은 경효(충렬)왕의 무덤인 경릉과 선효(충선)왕의 무덤인 덕릉뿐이다.

『고려사』, 『신증동국여지승람』, 『중경지』를 비롯한 옛 문헌들의 기록과 현재 해선리일대에 있는 고려왕릉들의 위치와 상태를 분석해보면 명릉동벽화무덤은 고려 25대 경효(충렬)왕의 무덤인 경릉이라고 할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이 무덤의 위치가 『고려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옛 문헌들의 기록과 비교적 일치하기때문이다.

명릉동벽화무덤은 당시 왕궁이었던 만월대에서 서쪽으로 약 5km 즉 12리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있어 경효(충렬)왕의 무덤인 경릉이 개성부에서 서쪽으로 12리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고 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과도 일치된다.⁴

『고려사』는 경효(충렬)왕의 맏아들인 선효(충선)왕이 자기 어머니의 무덤인 고릉을 돌아보고 불길한 장소에 무덤자리를 잡았다고 하여 당시 지관이었던 강헌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처벌한 다음 즉시 새로 건설된 아버지의 무덤인 경릉을 돌아보고는 만족하여 공사에 참가하였던 관리들과 역군들에게 상을 내리였다고 기록되어있다.⁵

4 리행(1530) 『신증동국여지승람』 권5, 개성부 하; 김육(1649) 『중경지』 권4; 박용대(1908) 『증보문헌비고』 권70, 레고17.

현재 경효(충렬)왕의 안해의 무덤인 고릉은 명릉동벽화무덤이 있는 룡선의 동북쪽경사면기슭의 낮은 곳에 위치하고있어 전망도 좋지 않고 지형지세나 향좌도 당시 유행되던 “지리풍수설”의 요구에 잘 맞지 않는다고 볼수 있다.

그렇지만 명릉동벽화무덤이 자리잡고있는 곳의 지형을 보면 “좌청룡, 우백호, 배산림수”의 모든 조건을 갖춘 당시로서는 “명당자리”라고 불리울수 있는 지형조건을 갖추고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명릉동벽화무덤을 고려 25대 경효(충렬)왕의 무덤인 경릉으로 볼수 있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로 된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둘째로, 무덤칸의 동벽중심에 설치된 “혼”구멍이 이 무덤과 그 동쪽에 위치하고있는 고릉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는것으로 하여 명릉동벽화무덤의 주인공이 고릉에 묻힌 안평공주의 남편인 고려 25대 경효(충렬)왕이라고 말할수있기때문이다.

이 무덤에서 동쪽으로 250m 떨어진 동북쪽골짜기에는 경효(충렬)왕의 안해 안평공주의 무덤인 고릉이 자리잡고있는데 고릉은 경효(충렬)왕의 무덤보다 11년 먼저 건설되었다.

따라서 경효(충렬)왕의 무덤을 건설할 당시 무덤설계가들이 그의 안해의 무덤인 고릉이 가까운 동북쪽골짜기에 있는것을 고려하여 그들의 “혼”이 서로 통할수 있도록 무덤칸동쪽벽의 중심에 작은 구멍을 내주었다고 볼수 있다.

당시 이와 같은 미신적관념이 사람들의 머리속에 존재하고있었다는것은 고려 31대 경효(공민)왕의 무덤인 현릉의 무덤칸 동벽중심에 너비 38cm, 높이 43cm 되는 구멍을 만들어놓아 동쪽에 있는 그의 안해 로국공주의 무덤속에 있는 “혼”과 서로 통할수 있도록 한 사실⁶을 통하여서도 잘 알수 있다.

이것은 명릉동벽화무덤을 고려 25대 경효(충렬)왕의 무덤인 경릉으로 볼수 있는 다른 하나의 근거로 된다.

그것은 셋째로, 명릉동벽화무덤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왕릉급무덤들보다

5 김중서, 정린지(1451) 『고려사』 권33, 세가33.

6 전주농(1963) 「공민광현릉에대하여」, 《고고학자료집》 제3집, 평양: 과학원출판사, 222~230.

지형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있기때문이다.

이 무덤이 자리잡고있는 명릉동에는 명릉떼1릉과 2릉, 3릉이 분포되어있는데 그가운데서 현재까지 무덤의 주인공이 밝혀져있는 무덤은 고려 29대 현효(충목)왕의 무덤인 명릉으로 비정되어있는 명릉떼1릉이다.

옛 문헌자료들을 분석해보면 명릉과 같이 개성부에서 서쪽으로 12리 되는 곳에 있다고 기록되어있는 무덤은 고려 25대 경효(충렬)왕의 무덤인 경릉, 26대 선훈(충선)왕의 무덤인 덕릉이며 이와 함께 27대 의효(충숙)왕의 무덤인 의릉도 이 무덤들과 함께 있다고 볼수 있다.

이 네명의 고려왕들의 가족관계를 따져보면 경효(충렬)왕이 제일 높은 항렬로서 의효(충숙)왕의 할아버지이고 선훈(충선)왕은 경효왕의 맏아들로서 의효왕의 아버지이며 현효(충목)왕은 의효(충숙)왕의 맏아들인 현효(충혜)왕의 맏아들로서 의효왕의 손자이므로 모두 친혈육의 관계를 이루고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가문의 선산에 무덤을 쓰는 경우 항렬이 우인 사람의 무덤보다 높은 곳에 항렬이 아래인 사람의 무덤을 쓰지 않는 미덕을 가지고있었던것만큼 이러한 원칙은 고려왕릉에서도 적용되었다고 볼수 있다.

명릉동벽화무덤은 명릉떼가 있는 곳에서 동쪽으로 계속 뻗어나간 룡선의 중턱에 자리잡고있으며 명릉떼의 룡들보다 높은 곳에 놓여있고 지형지세와 전망이 매우 좋으므로 명릉동에 있는 4개의 고려왕릉들가운데서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이로부터 명릉동벽화무덤은 의효왕의 할아버지벌이 되는 25대 경효(충효)왕의 무덤인 경릉으로 추정할수 있다.

이번에 발굴된 명릉동벽화무덤은 고려 후반기 왕릉제도연구와 고려도자기 및 금속가공기술발전사연구를 심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의의있는 유적이라고 볼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김치에 대한 문헌적연구

Documentary Study on Kimchi in the Period of Feudal Joson Dynasty

김지원*

조선사회과학원 민속학연구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치는 우리 나라 부식물가운데서 가장 특색있는 음식의 하나입니다.»

김치는 오늘 우리 인민들뿐만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건강식품의 하나로 널리 이름난 우리 나라 부식물가운데서 가장 특색있는 음식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에서 김치는 오랜 발전력사를 가지고있으나 그 구체적인 종류와 담그는 방법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야 보이기 시작한다.

이로부터 김치의 종류와 담그는 방법의 계승성에 대한 연구는 조선봉건왕조시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의 문헌기록자료들이 방대한것으로 하여 깊이있게는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편찬된 여러 문헌기록자료들에 기초하여 당시 식생활에 널리 리용된 김치의 종류와 담그는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조선봉건왕조시기 김치에 대한 기록은 『세종실록』에서 처음 보인다.

『세종실록』 5례 찬실도에는 궁중제사음식의 하나로서 「참대순김치」(筍菹) · 「미나리김치」(芹菹) · 「무우김치」(菁菹) · 「푸초김치」(萐菹) 등 4종의 김치류¹를 들고있는데 『고려사』의 원구제사음식에 나타난 김치류와 똑 같다.

* Kim Ji Won(Associate Professor, Section Chief of Institute of Folklore,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이것은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도 궁중제사음식차림새는 고려왕조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고있었으며 따라서 이 4종의 김치류는 조선봉건왕조 전 기간 궁중제례음식으로 고정되어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찬실도에는 김치의 명칭만이 올라있고 그 담그는 방법은 밝혀져있지 않다.

담그는 방법이 밝혀지지 않은 김치류는 다른 기록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는데 조선봉건왕조시기 문관이며 작가였던 허균(1569-1618년)이 쓴 『성소부부고』(1611년)에는 「참대순젓김치」(竹筍醃)·「산갓김치」(山芥菹)²가, 16세기 사람인 오희문(1539-1613년)이 1591년 11월부터 1601년 2월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쓴 일기책인 『쇄미록』에는 「무우젓김치」(沈醃菁根)³가 실려있다.

여기서 흥미있는것은 『성소부부고』에 씌여진 산갓김치와 참대순김치에 대한 자료이다.

허균은 자기의 저서에서 “산갓김치는 함경남도(여기서는 당시 함경도의 남부지방을 말함－역자주)와 회양, 평강 등지에 다 있는데 맛이 강렬하고 상쾌하다.”, “참대순젓김치는 호남 로령이하(전라도 남부지방－역자주)에서 잘 담그는데 맛이 제일 좋다.”라고 쓰고있다. 기록에 함경도의 남부지방과 강원도의 회양, 평강지방에서는 산갓김치를, 전라도 남부지방에서는 참대순젓김치를 특별히 잘 담근다고 한것은 17세기초에 이미 산갓김치와 참대순젓김치의 특산지가 생겨날 정도로 지방마다 독특한 김치담그는 방법이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문헌기록에는 김치의 명칭만이 올라있으므로 당시에 지방마다 또 가정마다 류다른 김치담그는 방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서는 잘 알수 없다.

구체적인 김치담그는 방법은 17세기 중엽이후부터 밝혀지고있다. 이것을 매 문헌별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세종실록』 제128권, 5례, 찬실도.

2 『성소부부고』 26권, 설부5, 「도문대작」, 소채지류, 산개저.

3 『쇄미록』, 을해(1595)년 11월 15일.

1. 『음식지미방』

『음식지미방』은 17세기 경상북도 안동과 영양일대에서 최하층량반관리의 안해로 살았던 장씨(1598-1680년)라는 여성이 자기가 가정에서 만들어먹던 여러가지 음식들과 그 제법을 우리 글로 쓴 책으로서 일명 『규곤시의방』이라고도 한다.

『음식지미방』에는 「생치침채법」(뽕고기김치법), 「생치잔지히」(뽕고기잔김치), 「생치지히」(뽕고기김치), 「산갓침채」(산갓김치), 「마늘담는법」(마늘김치 담그는 방법)이라고 하여 5종의 김치류와 그 담그는 방법이 수록되어있다.⁴

「생치침채법」은 뽕고기김치만드는 방법으로서 껍질벗기고 속을 파낸 오이잔지를 한치길이로 썰어 물에 우려낸것에 가늘게 썬 삶은 뽕고기를 함께 따듯한 물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나박김치처럼 담가 삭혀서 쓴다고 하였다. 여기서 오이잔지와 뽕고기를 썬것에 물과 소금을 넣어 나박김치처럼 담근다고 하였는데 이것을 통하여 나박김치가 무우를 알파하게 썰어서 소금물에 삼삼하게 담그는 김치라는것을 확증할수 있으며 아울러 당시에 나박김치가 널리 만들어져 식생활에 리용되고있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생치침채」는 오이뽕고기나박김치라고 할수 있다.

「생치잔지히」는 껍질벗겨 가늘고 짧게 썬 오이잔지에 간장, 기름에 볶아서 썬 뽕고기를 곁들이고 조피나무열매와 후추로 양념하여 담그는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생치지히」는 「생치잔지히」의 방법과 같은데 다만 오이를 껍질을 벗기지 않고 좀 두텁게 썰어 더운물에 씻으며 또한 마지막에 양념을 두는 공정이 없는것이 다르다. 따라서 이 김치들은 가공방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오이잔지에 볶은 뽕고기를 넣어 맛을 들이는 방법으로 담그는 오이뽕고기잔지라고 하여야 할것이다.

이들 3종의 김치류는 담그는 방법상 주재료로 오이잔지와 함께 뽕고기도 함께 쓰이고있는데 이렇게 놓고 볼 때 기록에 표기된 명칭과는 달리 오이뽕

4 『음식지미방』, 어육류.

고기김치류라고 하는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생치팀채법」에서 나박김치처럼 담근다고 하였고 「생치지히」에서 여러날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한것으로 보아 여름철에 담그어먹는 김치임을 알수 있다.

또한 담그는 방법에서 보면 모두 오이짠지를 썰어서 쓰고있는데 이것은 오이짠지가 통오이로 담근 김치임을 말하여준다.

평고기를 넣어 담그는 이 김치류는 『음식지미방』의 기록에 처음 나오며 이후 시기의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는 김치류이다. 따라서 『음식지미방』에 소개된 평고기김치류는 민간에서 흔히 만들어먹던 김치류가 아니라 당시 장 씨녀성이 살던 지방의 량반가정들에서 별식으로 만들어먹던 김치류라고 볼수 있다.

「산갓침채」 즉 산갓김치는 산갓을 깨끗이 다듬어 찬물에 씻고 더운 물에 행구어 작은 단지에 넣은 다음 물을 따뜻하게 데워서 붓고 뜨거운 구들에 옷가지로 싸서 익히거나 혹은 술에 단지를 넣고 중탕하여 익혀서 만드는 일명 소금을 쓰지 않고 담그는 산갓무염김치라고 할수 있다. 여기서 특이한것은 소금을 두지 않고 김치를 담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산갓김치의 담그는 방법을 밝힌 『증보산림경제』(18세기말)의것을 보면 마지막에 간장을 쳐서 먹는것으로 되어있고 또 『림원십록지』(1825년)에서는 뜨겁게 하여 익힌 산갓을 나박김치속에 버무려 넣거나 또는 맛이 단 간장을 두어 먹는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당시의 산갓김치가 소금을 두지 않고 먼저 더운물속에서 초벌 익힌 다음 마지막에 간장과 같은것으로 간을 맞추어 먹거나 혹은 무우김치와 같은 다른 김치의 부재료로 쓰이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음식지미방』에서만 처음 보이는 「마늘담는법」은 초가을에 캔 마늘을 김치담그듯이 소금을 섞어 담그되 여기에 햇조피나무열매 3알을 넣어 맛을 돋구는 마늘김치담그는 방법이다. 여기서 마늘을 김치를 담그듯이 소금을 섞어 담근다고 하여 소금을 섞는것을 강조한것으로 보아 월동용통마늘짠지로 보아진다.

이상 『음식지미방』에 수록된 김치류를 보면 주재료가 오이 · 평고기 · 산

갯·마늘 등 재배남새는 물론 짐승고기 지어 양념남새에까지 이르고있다. 그러나 꿩고기김치는 후시기의 기록에 보이지 않는것으로 보아 개별적가정의 별식김치에 불과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생치잔지히」에서 조피나무열매가 양념감의 하나로 쓰이고있는 반면에 「마늘담는법」에서는 조피나무열매와 마늘이 김치의 주재료로 쓰이고있는 사실을 통하여 당시에 양념감이 양념으로 쓰이기도 하고 직접 주재료로도 되기도 하는 등 김치담그기에서 주요재료의 하나로 적극 쓰이고있었던 사실을 알수 있다.

다음으로 김치담그는 방법들을 통하여 볼 때 이 시기 나박김치, 찐지형의 김치류와 함께 무염김치 등의 새로운 김치류가 있었던 사실과 함께 오이꿩고기김치류에서 간장에 볶은 꿩고기를 넣어 맛을 들이고있고 또한 산갯김치담금법에서 마지막에 간장을 쳐서 먹는것으로 되어있었던것으로 추정할 때 당시에 장김치담금법이 아직 개발단계에 머무르고있었음을 알수 있다.

2. 『산림경제』

『산림경제』(18세기초)는 17세기말 18세기초 유학자의 한사람이었던 홍만선(1643-1715년)이 원예, 집짐승기르기, 위생, 방역 등에 대하여 편람식으로 쓴 책이다.

『산림경제』에는 「산개침채」(산갯김치)·「향포저」(부들김치)⁵·「석화침채」(굴김치)⁶ 이렇게 3종의 김치류와 그 담그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있다.

3종의 김치류가운데서 담그는 방법이 섞여진것은 부들김치를 제외한 2종이다.

우선 「산개침채」를 보면 『음식지미방』의 산갯김치와 비슷한데 다른 점은 마지막에 단 장을 타서 먹는것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산갯김치가 전통적으로 더운 물속에 산갯을 두고 더운곳에서 일정하게 익힌 다음 먹을 때에 간장

5 『산림경제』 치선, 채소.

6 『산림경제』 치선, 어육자포부.

을 타서 먹는 속성김치라는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기록마감에 무우를 가늘게 썰은것과 움파밀등을 함께 담그면 매운 맛이 조금 덜해져 먹는데 더욱 좋다고 하여 산갓의 매운 맛을 조절하는 방법도 전하고있다. 이것은 당시에 김치를 담그는데 있어서 그 맛을 각자의 구미에 맞게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담그는 방법을 리용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음 「향포저」를 보면 구체적인 담금법은 밝히지 않고 봄에 처음 돋는 부들의 연한 싹이 달고 보드러와 김치를 담글만 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들김치는 봄철에 입맛을 돋구기 위하여 담그는 김치류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석화침채」는 굴, 가늘게 썬 무우와 파밀등을 소금에 절여서 나온 국물을 끓인 다음 미지근하게 식혀 여기에 초벌 절인 굴, 무우, 파밀등을 함께 넣어 마스한 곳에 두고 옷이나 이불같은것을 덮어 밤채워 익혀서 먹는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 석화침채는 굴과 무우, 파밀등으로 담근 무우굴젓김치라고 할수 있다.

이것을 통하여 『쇄미록』에서 명칭상으로만 보이었던 무우젓김치의 담금법을 일정하게나마 표상을 가질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젓김치의 역사가 매우 오래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무우굴젓김치의 담그는 방법에서 특징적인것은 주재료를 먼저 초절임을 한 후에 김치를 담그는 새로운 초절임법이 활용되고있는것이다. 또한 따로 소금국물을 만들어 붓지 않고 무우와 파밀등을 초절임하여 나온 국물을 끓여서 쓰고있는것도 새롭다고 볼수 있다. 이것은 이 김치에 굴이 쓰이는것으로 하여 굴조개의 원맛을 그대로 살리는것과 함께 연한 굴조개살이 쉽게 물크러지지 않게 보다 짜게 담그려는 의도에서였다고 보아진다.

3. 『증보산림경제』

『증보산림경제』(18세기말)는 18세기 봉건학자였던 류중립(생존년대 미상)이 편찬한 농업 및 농촌생활에 관한 책이다.

『증보산림경제』는 말그대로 『산림경제』에 빠져있던 부분을 보충하여 편

찬한것으로서 여기에는 수십종에 달하는 김치류와 그 담그는 방법이 기록되어있다.

우선 『증보산림경제』 치선편에 수록된 김치류를 보면 가지김치가 4종, 동과김치 · 배추김치 · 부들순김치 · 미나리김치 · 참대순김치가 각각 1종, 오이김치가 6종, 무우김치가 4종, 생강김치가 2종, 산갓김치가 2종, 갓김치가 2종⁷, 굴젓김치⁸ 이렇게 총 12종의 26가지의 담그는 방법이 소개되어있다. 또한 『증보산림경제』 치포조⁹에는 김치를 만들수 있다고 지정한 16종의 남새류들이 수록되어있는데 그것을 보면 오이 · 생강 · 가지 · 미나리 · 무우 · 갓 · 속썩은풀 · 양하 · 근대 · 박하 · 말냉이 · 산갓 · 달래 · 돌나물 · 고들빼기 · 자개(갓의 일종)이다.

결국 『증보산림경제』에 나타난 김치류는 주재료에 따라서 총 28종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서 담그는 방법이 밝혀진 김치류는 11종뿐이다. 이것을 주재료에 따라 갈라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지김치류에는 「침동월가저」(겨울에 담그는 가지김치) · 「하월작가저」(여름에 담그는 가지김치)가 소개되어있다.

「침동월가저」는 겨울에 담그어먹는 가지김치라는 말로서 여기에는 2가지 담그는 방법이 소개되어있다.

첫번째의것을 보면 첫서리를 맞은 가지를 꼭지를 따버리고 작은 독에 넣은 다음 간을 맞춘 소금물을 두고 아구리를 꼭 봉한 다음 얹어서 땅에 묻었다가 랍일에 꺼내어 찢어 꿀에 발라 먹는데 붉은 빛갈을 내려면 맨드라미꽃을 함께 넣는다고 하였다.

보는바와 같이 이 김치는 겨울철에 먹는 가지통김치라고 볼수 있는데 기록상으로는 여기서 처음으로 담금법이 소개된 김치이다. 이 가지통김치는 담그는 방법상 소금물을 국물로 쓰고있고 또한 먹을 때 찢지와는 달리 소금기를 빼지 않고 그대로 먹는것으로 보아 싱건김치류에 속하는 김치라고 볼

7 『증보산림경제』 권8, 치선 상, 채소제품.

8 『증보산림경제』 권9, 치선 하, 보유.

9 『증보산림경제』 권6, 치포조.

수 있다.

두번째의것은 3치길이로 잘라 극히 여러번 짜게 절인 고은대(토란줄기)를 통가지우에 얹고 다시 그 우에 맨드라미꽃을 덮어두었다가 겨울철에 꺼내어 찢어 꿀을 발라 먹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김치는 겨울철가지통짠지라고 할수 있으며 이 담그는 방법도 여기서 처음으로 소개된것이다. 이 방법은 앞의 방법과 비슷한데 다만 소금을 쓰지 않고 짜게 절인 고은대를 얹어 그 소금기를 리용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라고 할수 있다.

이 겨울철가지통김치류의 담금법에서 새롭다고 볼수 있는것은 김치의 숙성 및 저장관리이다. 기록에 보면 첫번째방법에서는 물을 끓여서 식힌 다음에 소금을 풀어 국물을 만들고있으며 또한 독에 가지를 넣고 돌로 누른 다음 풀잎으로 덮어 독아구리를 봉하고 땅속에 묻는다고 하였다. 또한 두번째방법에서는 김치독을 그늘진 곳에 두되 추울 때에는 찬곳에 두지 말라고 강조하고있다.

이것은 오늘날 개별적가정들에서의 김치담그는 방법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서 당시에 전시기에 비하여 한단계 발전한 숙성 및 저장관리기술을 소유하고 매우 능란하게 리용하고있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러한 방법은 『증보산림경제』에 기록된 많은 김치류의 담그는 방법에서 찾아볼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새로운 숙성 및 저장관리기술이 널리 보편화되어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하월작가지」는 여름철에 만드는 가지김치라는 뜻으로서 겨울가지김치류와 마찬가지로 2가지 담그는 방법이 소개되어있다.

첫번째의것은 먼저 끓인 물에 소금을 타서 식힌 다음 여기에 마늘즙을 탄 다음 꼭지를 떼버린 통가지를 넣어 소금물이 가지에 배면 며칠만에 꺼내어 먹는다고 하였고 두번째의것은 가지를 세쪽으로 쪼개여 여기에 마늘쫑각을 박아 김치를 담그는것으로 되어있다.

위의 방법으로 보아 첫번째의것은 속성으로 만들어먹는 가지통김치이고 두번째의것은 가지소박이김치라고 할수 있는데 모두 소금물에 담그므로 싱건김치류에 속한다고 할수 있다.

여기서 가지소박이김치는 『증보산림경제』의 필자가 민간방법이라고 소개한것에 비추어 볼 때 민간에서는 주로 가지소박이김치를 많이 담그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 여름철가지김치류의 담그는 방법에서 새로운것은 소금물에 마늘즙을 섞어 사용한것으로서 당시에 김치의 맛과 숙성을 보다 좋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4종의 가지김치류의 담그는 방법에서는 일부 모순되는 점들도 있다. 그것은 겨울철가지통김치의 첫번째담금법에서 처음에 소금물을 준비한다고 하고서는 마지막에 가지에는 물을 반드시 쓰지 않는다고 하였고 두번째 담그는 방법에서는 비록 전혀 물을 두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런것같지 않으니 마땅히 시험해봐야 할것이라는 필자의 견해를 밝히고있는것이다. 또한 여름철가지소박이김치담금법에서 마지막에 만약 이렇게 하면 가지물이 다 나와 좋지 않다고 한것이다.

이것은 저자 자신이 남성인것으로 하여 자기가 직접 해보지 못하고 다른 책이나 언어들은 소리에 기초하여 적어놓은데 그 원인이 있다고 보아지며 따라서 당시까지도 이 가지김치류담금법이 완성단계에 이르지 못한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 배추를 주재료로 한것은 「송침저」(배추김치) 하나이다.

이 배추김치도 여기서 처음으로 그 담그는 방법이 소개된것으로서 첫서리가 내린 후 인차 배추를 수확하여 상법과 같이 싱건김치를 담그어 독속에 넣은 다음 다음해 봄에 먹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김치는 배추통싱건김치로 볼수 있다.

전시기까지 보이지 않던 배추김치가 여기서 겨울김치의 하나로 소개된 사실은 18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배추가 월동용김장김치재료의 하나로 등장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다른 김치류에 비해 그 담그는 방법이 단 하나만 소개되어있고 구체적인 담그는 방법도 자세하게 밝혀져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면 특히는 가지나 오이와 같이 배추를 통채로 담그는데서 당시까지도 결구형의 배추가 재배되지 못하고있으며 따라서 그 수확량이 작아 김치

류에서 그 비중이 높지 못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중보산림경제』에서 가장 많이 소개된것은 오이김치류로서 「황과담저」(늙은 오이로 담근 싱건김치)·「룡인담과저」1,2(경기도 룡인지방에서 담그는 오이싱건김치)·「황과함저」1,2(늙은 오이짠김치)·「황과숙저」(삶은 늙은 오이김치) 등 6가지의 김치담그는 방법이 나와있다.

「황과담저」는 여기서 처음으로 소개된 오이싱건김치로서 끓인 물에 소금을 타서 극히 뜨겁게 하여 독속에 넣은 다음 여기에 세쪽으로 갈라 고추가루 조금, 마늘 4~5개를 넣은 오이를 넣고 아구리를 봉하였다가 다음날 먹는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 김치는 속성으로 담그어먹는 오이소박이김치라고 할수 있다.

이 오이소박이김치담금법에서 새로운것은 고추가루를 양념으로 쓰고있는 것이다. 이것은 18세기 후반기에 와서 고추가 김치의 양념에 적극 쓰이기 시작하였던 사실을 반영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룡인담과저」는 경기도 룡인지방에서 담그어먹던 오이김치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2가지 담금법이 소개되어있다. 첫번째의것은 오이 100개를 소금물에 담그어 6~7번 뒤집기를 하는 방법으로 김치를 담그는것이고 두번째의것은 보리를 수확한 다음 심은 오이를 따서 극히 짜게 하였다가 정월달에 꺼내여 소금기를 빼버리고 먹는것으로 되어있다. 보는바와 같이 첫번째의것은 여름철에 속성으로 담그어먹는 오이통싱건김치이고 두번째의것은 겨울철에 먹는 오이통짠지라고 할수 있다.

다른 김치류에서와는 달리 한개 지방의 명칭을 따서 그 담그는 방법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는것은 당시에 이 룡인지방에서 오이재배가 잘 되었으며 그에 따라 오이로 김치담그는 방법도 소문나게 된데 있다고 보아진다.

「황과함저」는 오이짠지를 말하는데 2가지담금법이 수록되어있다. 첫번째의것은 통오이와 가늘게 썬 생강·마늘·고추·푸초잎·파말등을 항아리에 켜켜로 놓고 극히 짜게 탄 소금물을 뜨겁게 하여 부어 속성으로 익혀 다음날에 먹는 여름철오이통짠지이다. 두번째의것은 장기숙성시켜 겨울에 먹는 겨울철오이통짠지로서 기본적인 방법은 첫번째의것과 같고 다만 오이는 가을

에 탄 늦오이를 쓰며 소금물은 식혀서 쓰는것이 다르다.

이 오이짬지에서 특히 지적할것은 생강·마늘·고추·푸초잎, 파밑등등 여러가지 양념이 많이 쓰인것이다.

18세기말에 이르러 김치류에서 양념류가 대량적으로 쓰일뿐아니라 그 비중이 전시기에 비해 비할바없이 높아진 사실은 이 시기 김치의 재료에서 양념류가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였다는것을 말하여준다.

『황과숙저』는 말그대로 오이숙김치로서 늦오이를 따서 물에 삶아 극히 짜게 절였다가 10월말에 무우겨울김치를 담글 때 꺼내여 소금기를 뺀 다음 무우겨울김치속에 넣어 맛이 들면 먹는것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이 김치는 겨울철에 먹는 오이통숙짬지라고 할수는 있지만 독자적으로 담근것이 아니라 무우와 함께 김치를 담그므로 더 정확히는 무우오이숙김치라고 하여야 옳을 것이다. 이 김치도 여기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기록가운데 이발이 없는 늙은이가 먹기에 좋다고 한바와 같이 당시에 연령에 따라 각이하게 먹을수 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담그는 김치류가 개발되어 식생활에 리용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증보산림경제』에서 오이김치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만청저」(순무우김치)·「라복황아저」(무우순김치)·「침라복함저」(무우짬지)·「강수저」(생강잔뿌리김치)·「석화침채」(굴김치) 등의 무우김치류이다.

「만청저」는 순무우를 채쳐서 싱건김치를 만드는 여름철무우나박김치이며 「라복황아저」는 봄에 정월에 움에 저장했던 무우의 순과 뿌리를 채쳐서 싱건김치를 담그는 봄철무우나박김치이다.

「라복동침저」는 명칭그대로 겨울에 담그어먹는 무우통김치로서 늦가을과 초겨울에 날씨가 차지면 칼자루같은 연한 무우를 골라 껍질을 없애고 오이·가지·속썩은풀뿌리·송이버섯을 짜게 절였다가 물에 담그어 소금기를 빼버린것과 생강·파밑등·청각·씨를 뺀 조피나무열매 등과 함께 독속에 넣고 소금물을 부어 땅속에 묻은 다음 익으면 먹는것으로 되어있다.

이 김치는 무우를 썰지 않고 통으로 담그는것으로 보아 겨울철무우통김치로도 볼수 있지만 여러가지 부재료가 많이 쓰이므로 썩레기김치로 보아야

더 정확할것이다. 무우를 썰지 않고 담근것은 당시까지도 오늘날의 큰 통무우가 아니라 기록에서 칼자루와 같은 무우라고 표현한바와 같이 채래종의 작은 무우가 재배된데로부터 썰 필요가 없는데 있다고 보아진다.

이 김치에서 특이한것은 앞에서 본 겨울철오이통판지에서보다 더 많은 여러가지 부재료가 쓰이고있는것이다. 이렇게 한가지 김치에 양념류만이 아닌 많은 량의 부재료가 쓰이고있는것은 전시기의 문헌들에서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김치에 양념류만이 아닌 다양한 부재료를 섞어 그 맛을 돋구는 방법이 일반화되는 등 전시기에 비해 김치담그는 방법이 더욱 발전완성되어가고있었던 사실을 반영한것이라고 할수 있다.

「침라복합저」의 담금법을 보면 첫서리가 내린 후 잎줄기채로 깨끗이 씻고 짜게 절인 고추의 열매·줄기·잎 그리고 청각·오이·아이주먹만한 호박잎 아래의 애줄기·가을갯의 줄기와 잎·동과·조피나무열매·푸초 등과 함께 독속에 넣어 사이사이에 마늘즙을 넣어 땅속에 묻었다가 선달에 먹는데 이듬해 봄까지 간다고 하였다. 이 김치는 무우뿌리만이 아니라 무우의 잎줄기까지 통채로 담그는것으로 보아 총각김치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찐지로 만들고있다. 따라서 이것은 겨울철총각무우찐지라고 할수 있다.

「석화침채」의 담그는 방법을 보면 『산림경제』의것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다. 이것은 무우굴것김치가 전시기에 비해 별다른 발전이 없이 전승되어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강수저」의 담금법은 생강잔뿌리를 무우나박김치나 10월의 겨울철무우김치속에 넣는것으로 되어있는데 보는바와 같이 생강이 김치의 주재료로 쓰이는것이 아니라 무우김치의 맛을 돋구는 양념감으로 쓰이고있다. 저자가 무우김치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김치의 명칭을 생강김치라고 한것은 생강의 특이한 맛을 더 강조하려는데 있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증보산림경제』에서는 갓김치류로서 「산개저」(산갓김치)·「개저」(갓김치) 이렇게 2종의 갓김치를 소개하고있다.

「산개저」는 앞에서 보았던 『산림경제』의것과는 달리 마지막에 이미 담그

었던 무우나박김치속에 버무려 넣고 졸인 단 간장을 두어 먹거나 혹은 그냥 갓김치에 장을 두어 먹는것으로 되어있다.

「개저」 즉 갓김치는 봄부터 가을까지 차례로 심어 수시로 찐지와 싱건김치를 만든다고 하였을뿐 구체적인 담그는 방법은 밝히지 않고있다.

이밖에 『중보산림경제』에서 소개한 김치류로서는 「향포저」(부들김치) · 「근합저」(미나리짠지) · 「동과저」(동과김치)이다.

「향포저」는 『산림경제』의것과 같은 부들순싱건김치이며 「근합저」는 봄철에 어린 배추, 무우와 함께 담그는 씨레기형의 미나리짠지라고 볼수 있다. 이 두 김치는 담그는 방법이 자세하게 밝혀져있지 않다.

「동과저」는 동과김치로서 그 명칭은 이미 『음식지미방』에서 소개된것이지만 김치담그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 『음식지미방』에서는 동과가 쉽게 썩기때문에 소금을 많이 두어 짜게 절구는 식의 동과짠지담그는 방법을 소개하고있는 반면에 여기서는 동과를 얇게 썰어 싱건김치를 만든다고 하여 동과나박김치담그는 방법을 소개하고있다. 이것은 이 시기에 동과로 담그는 김치담그는 방법이 찐지형으로부터 싱건김치로 변화되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이상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18세기 말에도 김치류의 기본제조원리는 전시기와 마찬가지로 순 소금으로 담그는 방법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주재료에 따르는 김치의 종류는 전시기보다 늘어났으며 또한 제조법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지고있다.

주재료에 따르는 김치류를 보면 무우김치류가 6종, 오이김치류가 6종, 가지김치류가 4종 기타 나머지 참대순 · 동과 · 배추 · 생강 · 부들 · 산갓 · 미나리 · 갓으로 만든 김치류가 각각 1종으로서 전시기와 같이 무우 · 오이 등의 김치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며 가지김치류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있다. 또한 치포조에 밝혀진 16종의 김치재료를 보면 그 범위가 재배남새보다도 산나물이 위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재배남새만이 아니라 산과들에서 자라는 여러가지 나물도 김치의 주재료로 많이 리용되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나 담그는 방법을 밝힌것이 주로 재배남새로 만든 김치류라는 사실은

당시에 김치류 가운데서 재배남새류김치가 주되는 자리를 차지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무우·오이, 가지류가 기본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담그는 방법에서는 전시기 부분적으로만 나타났던 초절임법과 주재료와 부재료, 양념류의 분리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다양한 담그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것은 18세기 말에 이르러 우리 나라에서 김치담그는 방법이 보다 발전 완성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규합총서』

『규합총서』는 19세기초에 당시 실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서유구의 형수인 빙허각 전주 리씨(1759~1824년)가 우리 글로 쓴 책이다.

『규합총서』에 수록된 김치류를 보면 「석박지」·「동과석박지」·「동치미」¹⁰로서 담그는 방법이 우리 글로 서술되어 있다. 여기서 담그는 방법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동과석박지이다.

『규합총서』에서는 모두 겨울김치류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무우를 주재료로 한 썩레기김치(석박지)와 동치미가 김장김치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썩레기김치와 동치미의 담그는 방법은 『증보산림경제』에 소개된 것과 비슷한데 일련의 차이도 있다.

그것은 우선 김치류에 젓갈류와 수산물이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썩레기김치를 보면 조기젓, 준치젓, 뱀뎡이젓, 굴젓 등이 쓰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낙지, 생복, 소라 등의 수산물도 리용되고 있다.

이렇게 한가지 김치에 많은 량의 젓갈류와 수산물이 쓰인 레는 이전시기의 기록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젓갈류를 리용한 김치류는 16세기 말엽의 『쇄미록』에서 「무우젓김치」가

10 『규합총서』, 주식의.

명칭상으로 처음 밝혀진 이후 『산림경제』와 『증보산림경제』에서 「무우굴것김치」가, 수산물을 곁들이는 김치류도 『증보산림경제』의 배추김치담그는 방법에서만 나타나고있다. 그나마도 구체적인 종류가 밝혀진것은 굴것 하나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젓갈류와 수산물을 넣은 김치류가 조선봉건왕조 초기부터 만들어졌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18세기 중엽이후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하여 19세기에는 일반화되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규합총서』의 김치류를 보면 『증보산림경제』에 비해 정도이상의 많은 젓갈류와 수산물을 쓰고있는데 이것은 이 책에 소개된 김치류가 주로는 특권 계층들속에서 만들어먹던 김치류를 위주로 하여 소개된데 있다고 본다.

또한 3종의 김치류중 썰레기김치와 동치미의 담그는 방법에서 전시기의 초절임법 즉 남새를 먼저 초절임한 후에 김치를 담그는것이 이때에 와서도 그대로 답습되고있는데 이것은 초절임법이 18세기 이후 우리 나라 김치담그는 방법에서 하나의 관습으로 고착되어왔다는것을 말하여준다.

5. 『춘향전』

『춘향전』은 18세기경에 창작된것으로 추정되는 고전소설로서 작가는 알려저있지 않다. 여기에는 새로운 김치의 한 종류로서 깍두기가 등장하고있다.

고전소설 『춘향전』에 보면 암행어사가 된 리몽룡이 남원고을원의 생일잔치에 가서 받은 음식상가운데 「깍대기」(깍두기)라는 김치가 올라있다. 이것은 깍두기가 당시 전라도지방에서 보편화되었던 김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하여 『도문대작』에 보면 라주에서 나온 무우가 극히 맛이 있는데 배처럼 즙이 많다고 하였으며 『증보산림경제』에서도 라주의 무우가 뿌리가 크고 연하며 물이 많아 김치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예로부터 라주를 비롯한 전라도지방이 무우명산지의 하나였으며 따라서 18세기이전부터 이미 깍두기와 같은 김치를 만들어먹었다고 볼수 있다.

6. 『림원십륙지』

『림원십륙지』(1825년)는 19세기 실학자의 한사람이었던 서유구(1764~1845)가 농업과 문화·풍속 등에 대하여 쓴 책이다.

『림원십륙지』 정조지 4권 교여지류에 14종의 김치류와 18가지 담그는 방법이 소개되어있다.

『림원십륙지』에 올라있는 김치류를 보면 모두 전시기의 책들에 나오는것을 그대로 인용하고있다. 그가운데서도 『증보산림경제』의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다만 여기서 『규합총서』의 썩레기김치를 「해저」 즉 젓김치라고 명명한것을 통하여 당시에 젓류를 리용한 김치담그는 방법이 보편화되고 있던 사실을 알수 있을뿐이다.

앞서 본 『규합총서』나 『춘향전』에서 새로운 김치종류와 담그는 방법이 밝혀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림원십륙지』에서는 18세기까지의 기록자료들에 나오는 김치류를 거의 그대로 옮겨 정리하다싶이 하고있다. 이것은 당시까지도 김치류의 담그는 방법이 18세기와 크게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이어져왔다고 보기보다는 저자가 이 도서를 18세기까지의 기록자료들에 근거하여 편찬하였다고밖에 달리 볼수는 없다고 여겨진다.

7. 『동국세시기』

『동국세시기』는 홍석모가 19세기 전반기에 편찬한 책으로서 여기에는 배추무우통김치·무우김치·배추김치·동치미·무우배추젓국지·무우배추장김치 등 6종의 김치류가 소개되어있다.

기록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치의 주재료에서 배추가 주류를 이루고있다. 즉 6종의 김치류가운데서 4종이 주재료로서 배추를 쓰고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이전시기 기록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것이다.

이것은 당시에 배추가 김치의 주재료에서 무우와 함께 주류를 이루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국세시기』기록에서도 통배추, 통배추김치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후세와 같은 통배추가 당시까지 재배되지 못하고있었기 때문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배추는 잎이 작고 통도 제대로 앉지 못한 배추였다.

1800년대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새 배추종자를 수입하기도 하고 다른편으로 배추의 개량사업을 계속하면서 19세기 중엽경에야 통이 앉고 잎도 큰 배추재배가 성공하게 되었다. 이 배추는 처음에 개성, 한성지방에서 많이 심었는데 특히 개성배추가 크고 좋은데 대하여서는 일본인이 1906년에 쓴 「한국에서의 과수소채재배조사」에서 개성배추가 당시의 일본것은 물론 중국의 것보다 좋다고 하면서 장차 일본도 이 배추를 재배하게 될것이라고 자기 정부에 보고한데서도 알수 있다. 개성, 한성배추는 그후 전국에 보급되어 통배추를 먹을수 있게 되었고 통배추김치도 다양하게 담그게 되었다.¹¹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통배추김치류는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새로 개발되어 보편화된 김치류임을 알수 있다. 이와 함께 김치류에서 특히는 겨울김장김치류에서 김치의 주재료가 배추·무우로 한정되어가고있는것을 발견할수 있다.

통배추김치류를 제외한 나머지 김치류는 재료와 담그는 방법에서 차이는 있지만 전시기부터 계속 만들어오던 김치류들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편찬된 여러 문헌기록들을 통하여 당시 김치류의 발전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18세기에 이르러 김치의 재료에서 주재료와 부재료, 양념감이 명백히 구분된것이다.

18세기 전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남새작물인 무우·오이·가지, 등과 함께 마늘·생강 등도 김치의 주원료로 되어있었다. 그리하여 일부 김치류에서는 주재료와 부재료, 양념류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다. 그러나 18세기 후반기에 와서는 주재료로는 무우·오이·가지 등이 기본을 이루고 기타 작물은 김치의 부재료 또는 양념류로 전환되면서 주재료와 부재료가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또한 양념이 없으면 김치라고 말할수 없을 정도로 김치에서

11 조대일, 주체101(2012)년, 『조선식생활사』 1, 사회과학출판사, 333-334.

양념이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특히 고추재배가 널리 보급되는데 따라 양념류가운데서 고추가 무시할수 없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18세기 이후시기 기록들에 보면 거의 대부분의 김치에 고추가 기본양념감의 하나로 쓰이였으며 이에 따라 깍두기와 같이 고추를 리용한 새로운 김치류가 개발되어 등장하고 또한 김치의 색과 맛이 보다 새롭게 개변되었다.

당시에 고추가 대대적으로 쓰이게 된것은 고추의 생산량이 늘어나 식생활에 널리 쓰인데도 있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김치류에 젓갈류와 물고기가 대량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그로 인한 김치의 부패변질을 막자는데 있다고 보아진다.

다음 김치담그는 기술이 전시기에 비하여 한 단계 발전하면서 다양한 김치류가 개발된것이다.

김치담그기에서 초절임법이 18세기에 들어와 개발도입되어 18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거의 모든 김치류에 확대되어 보편화되었으며 또한 김치에 들어가는 매 재료의 특성과 먹는 사람의 연령상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담그기 방법이 활용되었다. 그리고 김치류의 담그기 방법이 18세기 후반기에 발전 완성단계에 놓이였다고 할 정도로 김치의 숙성 및 저장관리가 보다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다.

김치담그기 방법이 발전함에 따라 김치의 종류가 더욱 늘어났다.

18세기 전반기까지만 하여도 각종 남새류가 거의 단독으로 김치의 주재료로 리용됨으로써 그 종류가 다양한데 비해 담그는 방법에서는 매우 단순한 찐지류와 싱건김치류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18세기 후반기에 와서는 찐지·통김치·나박김치·소박이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류가 만들어졌다. 무우를 주재료로 한 김치류의 경우만 놓고보더라도 총각김치·무우김치·동치미 등의 김치류와 여러가지 남새류를 섞어서 만든 썬레기김치 등 여러가지 김치류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그 담그는 방법에서도 전시기보다 발전한 측면이라고 할수 있다.

다음 19세기에 들어와 김치 그 가운데서도 김장김치의 주재료로 배추가

널리 쓰인것이다.

『동국세시기』에 소개된 겨울철김장김치가운데서 동치미와 무우김치를 제외한 나머지 김치류에는 다 배추가 주원료로 쓰이고있다. 그러나 결구형의 통이 진 배추 또 그것으로 만든 통배추김치는 아직 보이지 않고있다. 다만 여러 기록자료들 특히는 20세기 전반기에 편찬된 『조선료리제법』(1917년)과 『조선무쌍료리제법』(1924년)의 기록들에 통배추김치가 등장하고 이와 함께 오늘날의 개성보쌈김치가 쌈김치라는 명칭으로 보이는것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19세기초이후에 새 품종의 결구형배추가 재배되기 시작하여 점차 다량생산되면서 19세기 후반기에 통배추김치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되었다고 추정할뿐이다.

또한 김치류에 젓갈류와 수산물이 많이 쓰이고있는것이다.

『규합총서』의 씨레기김치에서 조기젓·준치젓·반돗이젓·굴젓 등의 젓갈류와 함께 낙지·생복·소라 등의 수산물이 대량적으로 쓰이고있으며 『동국세시기』의 무우배추젓국지에서도 새우젓국·전복·소라·굴·조기 등이 많이 리용되고있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서 젓국지류가 이 시기를 전후하여 본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젓갈류와 함께 김치류의 부재료로서 수산물이 대대적으로 쓰이였음을 알수 있다.

17세기이후 중세단편소설에서 새로운 성격형상의 탐구

Inquiry into the New Depiction of Character
in Short Stories in the Middle Ages after the 17th Century

김진국*

조선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반만년의 장구한 역사적기간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세상에 널리 자랑할만 한 문화유산을 수많은 창조하였다.

그가운데는 우리 인민의 창작적재능을 보여주는 중세단편소설유산도 있다.

중세단편소설유산에 대한 연구는 우리 나라 중세소설발전사를 과학적으로 체계화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특히 중세말기 단편소설에서 근대적지향을 반영한 새로운 성격형상이 탐구되고 그것이 근대소설문학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데 대하여 깊이있게 밝히는것은 우리 나라 근대문학이 서유럽문화의 영향에 의하여 형성발전하였다고 보는 민족허무주의적견해에 타격을 주고 조선문학사를 그 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과학적으로 서술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볼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단편소설양식은 소설의 발생과 더불어 끊임없이 발전하여 왔다.

「온달전」, 「도미와 그 안해」, 「토끼와 거북기」 등 우리 나라에서 소설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보여주는 초기작품들은 삼국시기에 벌써 우리 나라에서 단편소설들이 창작되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중세단편소설문학은 15세기~16세기 김시습, 립제에 의하여 새로운 발전

* Kim Jin Guk(Section Chief of Institute of Juche literature,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단계에 들어섰다.

단편소설은 특히 17세기이후 소설창작이 보다 본격화되면서 주제영역이 훨씬 확대되고 예술적형상수준도 비교적 원숙한 경지에 올라섰을뿐 아니라 량적으로도 이전시기와는 대비도 할수 없을만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왕성하게 창작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과 예술은 시대의 산물이며 시대가 발전하는데 따라 끊임없이 변화 발전합니다. 이것은 문학예술발전의 합법칙적과정입니다.》

해당 시기의 문학예술에는 당대의 시대상이 그대로 반영되게 된다.

당대의 시대상을 얼마나 생동하게 재현하고 시대가 제기하는 절실한 문제들을 어떤 예술적형상으로 밝혀내는가 하는데 따라 문학예술작품의 가치가 규정되게 된다.

17세기이후부터 19세기중엽에 이르는 기간 인민들의 계급적 및 민족적각성은 더욱 높아져 반봉건투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상품화폐경제와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으로 사회경제적변동이 일어나 사람들의 사상의식과 생활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결과 봉건적신분제도, 경제제도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봉건사회의 분해가 더욱 촉진되고 봉건적테내에서 근대적요소가 싹터 장성하기 시작하였다.

당대의 이러한 현실은 17세기이후 중세단편소설들에서 시대가 낳은 새로운 인간성격들을 창조할수 있게 한 생활적바탕으로 되었다.

17세기이후 중세단편소설들은 새로운 상품화폐관계와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전에 따르는 각이한 인간상과 온갖 봉건적구속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생활지향, 날을 따라 변화되어가는 사회경제현실 등 당대의 시대상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이 시기 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뚜렷이 나타내고있다.

이 시기 문학의 이와 같은 특성은 이전시기 소설들에서는 찾아볼수 없었던 새로운 인간성격들을 탐구형상하고있는 단편소설들에서 집중적으로 찾아

볼수 있다.

이 시기 단편소설창작자들은 새롭게 변천되어가는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사람들의 미학적요구에 맞게 새로운 인간성격을 탐구형상함으로써 봉건통치체도가 점차 와해되어가고 사회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근대적기운이 태동하던 17세기이후의 시대상을 여러 각도에서 폭넓게 보여줄수 있었다.

현재 남아전하는 17세기이후 대표적인 단편소설집인 『동야회집』(리원명), 『청구야담』에 실려있는 소설들과 김려의 『담정유고』, 조수삼의 『추재집』, 리상적의 『은송당집』등에 실려있는 단편소설들에는 당대의 새로운 인간성격들이 형상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이 시기 단편소설의 창작경향을 엿볼수 있게 한다.

여기서는 17세기이후 중세단편소설들에서 탐구된 새로운 성격형상에 대하여 세 측면에서 론하려고 한다.

1. 봉건적신분제도의 와해상을 반영한 성격형상 탐구

17세기이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봉건적제관계가 문란해지면서 19세기에 와서는 봉건말기의 시대적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시기 봉건사회의 붕괴상은 특히 신분제도의 와해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났으며 그것은 소설의 성격형상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7세기이후 봉건적신분제도는 인민대중의 계급적각성이 점차 높아지고 사회경제관계에서 일련의 변화들이 일어나면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상품화폐관계가 발전하고 자본주의적관계가 발생장성함에 따라 량반신분과 벼슬이 돈에 의하여 매매되는 현상이 급증하고 계급분화의 촉진에 의하여 오랜 세월 사람들을 얹어매놓고있던 봉건적신분제도는 급격히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제조건하에서 많은 물질적부를 축적한 새로운 계층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들은 봉건적신분제도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분방한 생활을 지향하였다.

이 시기 중세단편소설들에서는 이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지향을 체현한 서민부자들을 등장시키고 그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봉건적신분관계의 와해상을 보여주었다.

박연암이 창작한 소설「량반전」이 봉건적신분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있던 18세기의 시대상을 보여주고있는 작품이라는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있다.

「량반전」에서 정선고을의 몰락한 량반과 그로부터 량반칭호를 사려고하는 상사람부자와 같은 형상은 17세기이후 중세단편소설들에서 적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고전단편소설「김령」에서 나오는 채로인의 형상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소설은 『청구야담(靑邱野談)』 8권과 『파수편(破睡篇)』에 실려있는데 원제목은 「결방연이팔랑자(結芳緣二八娘子)」이다.

소설에 등장하는 역관 김령과 몰락량반 채로인은 서로 대조되는 인물들이다.

김령은 역관출신으로 벼슬이 지추에 이르렀기때문에 김령이라 불렀다.

비록 량반은 아니지만 역관출신의 신흥부자인 김령은 자기의 재력을 등대고 청상과부가 된 외동딸을 처녀로 둔갑시켜 몰락량반인 채로인의 아들 채생과 인연을 맺게 한다.

채로인은 영조말년에 몰락된 량반으로서 살림이 구차하여 달팽이같은 집에서 끼니를 건느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채로인은 량반의 전통과 지체를 고수해나가려고 애쓰며 주립과 추위도 량반의 《지조》와 바꾸려 하지 않는다.

김령은 18살난 채로인의 아들 채생을 붙잡아다가 강제로 과부가 된 자기의 딸과 결혼시킨다. 그후 채생은 집으로 돌아와 부모들에게 말을 못하고있었는데 채로인이 그의 주머니에서 첫날밤 받은 패물을 발견하고 그를 몽둥이로 엄하게 다스린다. 아들로부터 전후사연을 다 들었으나 채로인은 부자인 김령에게 한마디 항거도 하지 못한다.

김령은 채로인의 가정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마다 쌀과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직접 찾아와서 상담하기도 하면서 그의 마음을 돌려세우려고 했으나 채로인은 량반의 체면을 생각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다가 김령이 덩실한 새집을 지어놓고 채로인내외가 함께 살도록 했을 때 채로인은 안해의 말에 못이기는척하며 새집으로 옮겨앉는다.

채생도 김령의 딸과 살며 후에 과거에도 급제한다.

이 소설에서 량반출신인 채로인이 서민출신인 김령의 무례한 행위에 한마디의 항변도 못하는것은 당시 봉건적신분제도의 와해상을 뚜렷이 보여준것이라고 할수 있다.

소설에서 채로인의 형상은 량반의 신분적지위가 여지없이 허물어져가고 있던 당대의 시대상을 그대로 체현한 새로운 성격형상이다. 그는 권력과 재물보다도 량반의 체면을 더 귀중히 여기는 인물이지만 서민부자인 김령의 재력앞에서는 그 체면을 유지하지 못한다.

소설에서는 또한 량반의 아들과 서민부자의 딸 그것도 과부와 결혼하여 사는것으로 그리고있는데 이것도 전시기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인간관계이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몰락량반들이 자기의 옛 지체를 고수하려 헛되이 애쓰는 과정과 신흥부자들의 몰락량반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대비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전시대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인간성격을 창조하고있다.

이 시기의 고전단편소설들에서는 하층출신의 신흥부자들이 돈이나 재물로 량반신분이나 벼슬을 얻는 이야기를 제재로 한 작품들이 적지 않은데 여기에 나오는 신흥부자들은 낡은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자기들의 재력으로 량반들을 골려주는 인물로 그려지고있다.

『눌은집(訥隱集)』20권과 『간양록(看羊錄)』에 실려있는 고전단편소설 「도학선생」의 주인공인 시골부자의 형상이 그러한 실례의 하나이다.

소설은 무식한 한 시골부자가 출세를 목적으로 한양에서 도학자로 위장하고 살다가 량반상층부의 《인정》을 받아 높은 벼슬까지 천거받았으나 후일이 두려워 몰래 한양에서 도주하는 이야기와 그것을 《애석》히 여기는 봉건상층관료의 풍자적형상을 보여주고있다.

시골부자는 가산이 넉넉했으나 관복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하루는 그의 처가 도학선생으로 자칭하고 관복을 입어보라고 한다. 안해

의 청을 받아들인 그는 한양으로 가서 새집을 장만한 다음 서가일식을 차려 놓고 밤낮 손님이 찾아와도 본체도 하지 않고 책만 읽는다. 이것이 어느 한 재상의 귀에 들어가자 재상은 그에게 9품벼슬을 하사한다. 재상은 가짜 도학자인 부자가 그것을 사양하자 벼슬을 점점 더 올려주다가 나중에는 청현 직에 천거하며 그것도 사양하자 《참으로 어지신 분이로다》라고 감탄까지 한다.

소설에 등장하는 시골부자와 재상의 형상은 당시 과거제도의 문란상을 보여주는 동시에 새롭게 물질적부를 축적한 비특권신흥세력에 의해 봉건적신분제도가 와해되던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하고있다. 작품에서 가짜 도학선생인 시골부자는 돈과 재물은 있어도 벼슬길에 나서지 못한 인간이며 도학선생으로 위장하고 높은 벼슬까지 받았으나 무식하고 재능도 없어 벼슬자리를 감당하기 어렵고 또 꼬리가 났힐것이 겁나서 귀향하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형상되고있다. 한편 한양의 재상과 그 아들은 가짜 도학선생과 진짜 도학선생도 가려볼줄 모르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형상되고있다.

단편소설「도학선생」에서는 시골부자가 한양의 한다하는 재상을 업어넘긴 이야기를 통하여 량반통치배들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풍자하는 반면에 신흥세력의 《위세》를 긍정하고있으며 특권적지위를 차지하고있던 량반신분제도가 와해되어가고있던 현실을 예술적으로 재현하고있다.

박지원의 단편소설「량반전」에 나오는 상사람부자의 형상은「도학선생」의 형상과 비슷하다. 여기서도 돈으로 량반신분을 사는 상사람부자가 마지막에 까다로운 량반의 법도를 수락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량반신분사기를 그만두는것으로 이야기를 끝맺고있는데 이것 역시 량반계급의 지위를 무시하기 시작한 이 시대 신흥세력의 《새로운 관점》을 반영한것이다.

이처럼 소설들에서는 17세기이후 물질적부를 축적하여 새롭게 등장한 신흥세력들의 량반신분에 대한 관점과 함께 봉건적신분제도의 와해상이 등장인물들의 성격형상에 의하여 밝혀지고있다.

『삼교별집(雲橋別集)』 5권과 『만록(漫錄)』 6권에 실려있는 고전단편소설「해방」의 주인공의 성격형상은 위의 작품들과 차이를 보이고있지만 그의 성

격형상을 통해서도 17세기이후 봉건적신분제도의 와해상을 엿볼수 있다.

소설에서 합천해인사의 중 지성은 가난한 량반에게 끌려가는 어린 노비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경상도 울진으로 가던중에 절간의 주지가 미역을 사라고 준 돈으로 노비를 사서 그를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조선봉건왕조후반기에 봉건국가는 노비제도를 반대하는 인민들과 진보적 세력의 진출이 강화되는데다가 노비들을 장악하기 어렵고 병력의무자 확보 등 수많은 난문제에 부닥쳐 공노비를 면천시키는데 이르렀고 사노비들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면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작품은 당시의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하였다고 볼수 있다. 소설에서 자기자신이 가난하여 노비를 부릴만 한 능력이 없으면서도 량반이랍시고 집에서 도망한 자기집 노비를 붙잡아 끌고가는 량반의 형상에는 자기의 가공한 처지와 발전하는 시대의 추이를 감감하지 못하고 량반행세를 하는 몰락량반의 낡고 어리석은 성격이 체현되어있으며 노비를 구원해주는 중의 형상에는 낡은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사람들사이의 평등한 생활을 지향하는 이 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지향이 구현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바로 여기에 이 작품의 새로운 성격형상의 탐구가 있다고 할수 있다.

단편소설 「김령」이나 「도학선생」이 물질적부를 축적한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당시의 봉건적신분관계의 와해상을 보여주었다면 소설「해방」에서는 주인공의 성격형상을 통하여 부자가 아닌 사람들도 돈만있으면 노비와 같은 천한 신분에서 해방시킬수 있다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이것은 중세전기간 것처럼 엄격하던 신분제도가 어떻게 와해되어가고있었는가 하는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것과 동시에 당시 소설창작자들이 시대적지향을 등장인물들의 성격에 체현시킨것이라고 할수 있다.

『동야회집』에 있는 단편소설「어리석은 원을 통략하고 아전이 재물을 앗아내다」는 량반들의 무능력과 함께 량반의 지위가 어느 정도로 저락되었는가를 잘 보여줌으로써 봉건적신분제도의 와해상의 한 측면을 보여주고있다고 할수 있다. 『청구야담』에는 이 소설이「속임수 잘 쓰는 교활한 아전이 어리석은 원을 조롱하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있다.

민가성을 가진 한 고을원은 정사를 청백하게 하여 털끝만큼도 부당하게 취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됨이 어리무던한데다가 지방실정에도 눈이 어둡고 일처리도 허술하고 간지게 하지 못하였다. 임기가 다 끝나 당장 떠나게 되었는데도 로자로 쓸 돈이 없어서 길을 떠나기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이때 아전 한명이 나서서 고을 좌수의 집창고에 재물이 무진장하니 함께 밤중에 가서 도적질을 하자고 부추긴다. 밤중에 아전과 함께 개구멍으로 담을 통과하고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니 보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아전은 좌수집의 술맛이 좋으니 술부터 마시자고 하면서 가족신을 벗어 술을 퍼마신다.

창고에서 술에 취한 아전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놀라 달려나온 좌수집 사람들에게 의해 원은 가족부대에 갇히우게 되는데 아전의 도움으로 벗어난다. 대신 좌수의 늙은 아버지를 가족부대에 잡아가두며 아전의 꾀로 원은 좌수를 불효자식으로 엄하게 처벌하는척하면서 좌수의 돈을 큼직하게 훔아낸다. 원은 자기의 행태가 드러날것이 두려워 새로 부임해오는 원에게 그 아전놈을 죽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옥에 갇힌 아전은 신임사또에게 구관사또가 한쪽눈이 먼것을 자기가 고쳐주었다고 거짓말한다.

애꾸눈인 신관사또는 아전의 꾀에 넘어가 술집에 들어가서 밤새껏 술을 마시다가 암송아지와 관계까지 하는 해괴망측한 짓을 하게 된다.

다음날 아전은 소에게 색실코투레를 씌우고 붉은 비단옷을 입혀가지고 관문으로 빼젓이 들어서면서 이렇게 소리친다.

《얼른 대문을 열어라. 사또나리 실내마님 행차시다!》

고을원은 이 광경을 보고 도망치고 백성들과 관원들은 허리가 끊어지게 웃으며 신관사또를 야유조소한다. 이리하여 신관사또는 정사도 보지 못하고 며칠후 슬그머니 달아나고만다.

소설은 권모술수에 능한 아전에게 속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비난과 조소를 받는 부패무능한 두 고을원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량반들의 몰락상을 보여주었다. 관아에 속해있는 한갓 아전이 고을원을 속이고 욕보이는것은 전혀 상상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는 아전과 그에 놀아나는 고을원들의 무능한 형상속에서 특권적지위에 있는 량반신분이 저락될대로 저락되

여가던 19세기의 봉건적신분관계의 와해상을 보여주었다.

바로 여기에 다른 소설들과 구별되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새로운 성격형상이 있다고 할수 있다.

이 작품에서 고을원들과 아전의 형상은 각기 새롭게 탐구된 성격형상의 몫이 있다. 아무리 높은 벼슬에 있는 량반이라 해도 무능하면 사람들의 웃음거리밖에 될수 없다는것, 반대로 피만 잘 쓰면 비록 낮은 신분의 사람도 자기의 리속을 차릴수 있다는것 바로 이것이 등장인물들의 형상에 의하여 밝혀지고있다.

작품은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새로운 각도에서 탐구형상함으로써 당시 봉건적신분관계의 와해상, 량반의 지위가 어느 정도로 저락되었는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17세기이후 단편소설들에서는 신흥세력으로 등장한 부자와 몰락한 량반, 중, 아전 등 각계각층의 인물형상을 통하여 봉건적 신분제도의 와해상을 보여주는 인간들의 성격을 새롭게 특색있게 창조하고 있다.

2. 새로운 시대상과 경제관계의 변천을 보여준 다양한 인물들의 성격형상 탐구

17세기 이후 고전단편소설의 성격형상에서 나타난 새로운 특징의 하나는 변천되어가는 사회경제생활에 의하여 산생된 다양한 인물들의 형상이 새롭게 창조된것이다. 이전시기의 진보적인 문학작품들에서는 자연경제가 지배하는 조건에서 억압당하는 농민들의 형상이 주로 창조되었다면 이 시기 문학에서는 점차 장성하는 자본주의적생산관계를 보여주면서 지난시기 문학에서는 없었던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중인출신이나 농촌에서 새로운 부를 축적하는 서민부자의 형상 등 다양한 인물형상이 창조되었다.

인민들의 미학적요구, 정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한다. 새로운 경제관계가 발생발전하던 17세기 이후에 와서 사람들의 정서에서도 변화가 일어났

다. 그리하여 고전단편소설에서는 이 시기 새롭게 등장한 다양한 인물들의 형상이 창조되게 되었다.

이 시기 단편소설의 인물형상창조에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자기의 근면한 노동으로 물질적부를 축적하는 인간들을 등장시키고있는것이다.

대표적으로 고전단편소설 「부농」의 주인공을 들수 있다.

이 소설은 『청구야담(靑邱野談)』(4권)에 실려있는데 한자로 된 제목은 「김공생 취자 수공업(金工生驟子收工業)」이다.

소설은 전라도에서 아전으로 있던 주인공이 벼슬을 그만둔 후 많은 아들들을 거느리고 고향에 내려가 어영청소유의 황무지를 개간하여 농사를 크게 지어 부자로 되는것을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김공은 이 시기 우리 나라 농촌에 새롭게 나타난 부농으로서 종래 농촌의 량반지주나 부농들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적 특질을 체현하고있다.

주인공 김공은 처음에 아전살이를 그만두자 장돌뱅이로 린근 장터를 돌아다니는 풍류남자였다. 나이는 젊고 풍류남자로 녀색을 좋아한 그는 장가를 들어 20년후에는 80여명의 자식들이 생겨났다. 그러던중 린이은 흉년으로 살림이 어려워지자 그는 생계가 어려워진 70명의 자식들을 거느리고 김제와 만경 두 고을사이로 이사하며 어영청의 둔전을 개간하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된다.

17세기에 들어와 봉건국가의 무력기구인 군영과 중앙 각 관청들 및 일부 지방관청들은 중앙정부로부터 받고있던 몫이 많지 못하거나 없다는것을 구실로 경비를 자체로 해결한다고 하면서 여러 지방에 많은 둔전을 설치하여 농민들을 착취하였다. 17세기초, 중엽에 이미 이러한 둔전은 계속 늘어났으며 둔전의 확장은 훈련도감이나 군량을 맡아보는 관청인 량향청의 벼슬아치들을 비롯하여 둔전경영에 관계하는 모든 벼슬아치들의 착취를 더욱 증가시켰으며 반대로 농민들은 더욱더 령락되었다.

소설에 나오는 어영청은 봉건관리기구로서 둔전경영에 관계하였으며 이것으로 하여 아전으로 있다가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던 주인공 공생도 이곳의

벼슬아치들과 공모하여 많은 땅을 얻게 되고 부자로 되는것이다.

김공은 어영청대장을 만나 둔전을 개간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 땅에 메밀을 심어 6~7백석, 보리, 팥, 콩을 심어 수천석을 수확하였으며 다음해에는 논을 풀어 전해의 곱질의 수확을 얻어 3년동안에 대부자가 되며 나중에는 마름으로 들어가 수많은 토지를 경작하여 잘 사는 인물로 형상되었다.

소설에서 김공의 이러한 형상은 이 시기 봉건국가가 전쟁과 기근으로 토지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회를 통해 개별적사람들이 둔전을 경작하여 부를 축적하던 사회적현상을 배경으로 창조된 인물형상으로서 그 성격에서 역시 근면성과 경제실용사상이 강조되고있다.

고전단편소설 「순홍만석군」의 주인공형상도 역시 김공의 형상과 비슷한 성격의 소유자로 그려지고있다. 이 소설은 『동괘락송(東樞洛誦)』(상권)에 있는데 이와 줄거리가 비슷한 작품이 『동야휘집(東野彙輯)』(4권)에도 있다. 『동야휘집』에 있는 원제목은「부옹달리 구진과유(富翁達理 貝盡科儒)」이다.

소설은 경상도 순홍의 황부자가 젊은 서생에게 자기의 부처가 어떻게 만석군이 되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해주는 형식으로 되어있다.

옛날 순홍만석군 황부자가 있었다. 이웃에 사는 선비의 사위 최씨는 문벌이 좋고 글도 잘하여 과거보러 떠나려는데 돈이 없어 장인에게 찾아가서 황부자에게서 로자를 변통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러자 장인은 ≪황부자는 천하에 없는 구두쇠이며 매번 제사지낼 때에는 쌀 세되박, 물고기 세마리를 놓고 지내는 위인인데 돈 한푼을 어떻게 내여 곤난을 도우려 하겠는가≫고 하면서 거절한다. 할수없이 사위는 직접 황부자를 찾아간다.

잠시후 사냥갔던 황부자가 돌아와 그가 찾아온 사연을 듣고는 장인의 말이 옳다고 하면서 장가는 후 안해와 함께 고생하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선비의 사위에게 ≪… 우리 내외가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약속했지요. 집앞한길가 돌무데기 목정밭을 개간하고 구덩이를 십여군데 파고 주막손님들의 대소변을 받아 구덩이에 부었소. 그뒤 안해는 강냉이씨를 뿌리고 흙을 덮고 가꾸어 수십석을 추수했다고요. 쌀 한톨도 아낌을 가법으로 삼아서… 기어이

만석을 채운 후에 재물을 쓰기로 작정했는데 9천석을 받은 후 10년에 1천석을 더 내야 애초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나 흉년과 가물, 화재 등으로 소기의 수를 채우지 못했소. 어제 우리 내외가 서로 의논하기를 <조물주가 만석을 채워주실 의향이 없고 나이 70살에 시원스럽게 재물을 써보지 못함이 어찌 슬프지 않으리오> 라고 하였다오.

«그대가 반드시 귀하게 되실분이니 도움을 아끼겠소?» 하면서 돈 50냥과 타고갈 말 1필을 내어주고 집을 떠난 후에 가정에서 량식이 떨어질것까지 생각하여 벼 30석을 대주어 그의 과거급제를 도와준다.

황부자의 이러한 성격은 당시 우리 민족이 지닌 상호부조의 미풍광속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시기 실학자들이 주장하던 경제실용사상도 체현되어있다고 할수 있다.

이 시기 고전단편소설의 인물형상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한것으로 여기던 상업활동에 뛰어들어 물질적부를 축적하는 광반들의 형상을 창조한것이다.

이것은 이 시기 상업발전의 추세를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과 『청구야담』, 『동야회집』, 『아동기문』, 『청야담수』등에 실려있는 작자불명의 「허생별전」(「식보기허생취동로(識寶氣許生取銅 爐)」) 등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은 널리 알려진것처럼 1780년대 초에 창작된 작품으로서 실학자들의 경제실용사상과 침체하고 불합리한 봉건말기의 사회적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지향을 보여준 작품이며 「허생별전」은 그 내용이 「허생전」과 비슷한것으로서 같은 계열의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허생별전」은 이야기줄거리가 「허생전」과 거의 비슷하다. 다만 「허생전」에서는 주인공이 변부자에게서 돈 만냥을 꾸어 장사하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는 박부자에게서 돈을 받아다 기생집에 처넣고 돈이 떨어지자 기생 초운에게서 오금화로를 달래가지고 회령으로 길을 떠나 그곳에서 청나라 장사군에게 10만냥을 받고 파는것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허생전」의 무인도이야기가 「허생별전」에는 없다. 이런것으로 하여 작품은 박지원의 「허생전」을

토대로 하여 재창조된 작품으로 인정할수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허생이 재부를 축적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자본의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있었는가를 예술적으로 일반화하고있다.

허생은 가깝게 지내던 기생 초운의 집에서 별치 않게 여기던 오금화로(烏金火爐)가 귀중한 물건임을 알아보고 그것을 달래서 산산쪼각을 낸다. 그리고 그것을 전대에 넣어가지고 상업의 길에 나선다.

그는 회령에 가서 장날에 중국상인을 만나 그것을 흥정하여 10만냥을 받고 판다. 중국상인은 그것이 《무가보(無價寶)》(값이 끝없는 보배)라는것을 알았던것이다. 허생은 돈 10만냥을 가지고와서 백부자에게 내놓으니 그가 사양하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찌 나를 작게 보시오. 내 집이 비록 서발막대 거칠것 없지만 독서를 즐기다가 이번 일은 특별히 한번 시험해본데 지나지 않소.》

그후 허생은 임금으로부터 북벌령(北伐令)을 받고 인재를 찾아다니는 정승 리완대장을 만나 북벌과 관련한 3가지 안을 내놓으나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리완대장을 호되게 꾸짖은 다음 어디로인가 자취를 감추고 만다.

리완대장을 꾸짖으며 허생이 하는 말은 허례허식을 일삼으며 실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보수적인 량반상층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다. 이 비판은 실학자들이 주장하던 실사구시적인 견해가 담겨져있다고 할수 있다.

「허생전」과 「허생별전」에서 아무 일도 안하고 글만 읽던 선비로부터 장사하는 실천적행동을 하는 선비의 형상을 창조한것은 시대발전의 변화과정을 반영한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활의 결말은 다시 지난날로 돌아가고만다. 즉 허생은 10만냥의 돈을 벌어서 박부자에게 물어주고 다시 가난한 생활로 돌아와서 매일 그에게서 쌀자루와 돈궤미를 받으며 선비의 모양으로 나날을 보내는것으로 만족하고있는것으로 그린것은 당시의 시대적문제에 대한 옳은 대답을 주지 못한 작가자신의 제한성으로부터 생겨난것이라고 볼수 있다.

고전단편소설 「려생」(라만금부처치부, 裸萬金父妻致富)(『동야회집(東野叢輯)』 7권)도 박연암의 「허생전」과 비슷한 작품인데 이 소설에서는 한양의

갑부 김동지가 상업자본형태인 수표를 가지고 돈을 버는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 상업발전의 면모를 보여주고있다.

이 시기 단편소설의 인물형상에서 주목되는것은 또한 상업의 해외진출과 대외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상업활동을 활발히 벌리는 대상인들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는것이다.

18세기에 들어와서 우리 나라에서는 국내상업과 동시에 대외무역도 상당한 정도로 발전하였는데 대외상업에서 기본을 이룬것은 청나라와의 무역이었다. 송상(개성의 상인)들과 만상(조선봉건왕조때에 평북 의주의 룡만을 근거지로 하여 주로 중국과의 무역에 종사하는 개인상인)들은 청나라에 가는 사신들을 따라가 장사하거나 밀무역으로 대외무역을 독차지하다싶이 하였다.

송상을 중심으로 하는 서북지방의 대청무역상인들은 해마다 수십만냥의 은을 청나라에 수출하였으며 여러가지 고급비단과 백미, 모직 등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력사적현실은 이 시기 고전단편소설에서 상업의 해외적진출에 나선 대상인들의 형상을 창조하게 하였다.

고전단편소설 「남경행화」(원제목-왕남경 정상행화, 往南京鄭商行貨)의 주인공 정씨의 형상은 베이징까지 다니면서 상업에 종사한 인물이다.

이 소설은 『청구야담』 3권, 신독복의 『학산한언(鶴山閑言)』(문집)에도 같은 내용으로 수록되어있다.

소설에서는 상업자본이 활발하게 해외에 진출하고있을 때에 북경래왕무역을 하던 정씨상인이 신용을 얻어 끈돈을 상환하고 자기를 도와준 모든 사람들에게 성의를 표시하는 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하고있다.

정씨는 당시 대상인이었다. 그는 베이징래왕무역을 하던 중 손실을 크게 입어 관서감영에 7만냥의 빚을 지게 된다. 그 빚을 물기 위하여 집까지 팔았으나 2만냥을 물지 못하여 감옥에 갇히운다. 그는 옥중에서 감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졸라서 감사를 만나 돈 2만냥만 주면 3년후에는 4만냥을 갚겠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 돈으로 은채취거래를 하여 6~7만냥을 벌여 인삼, 초피를 구입한 다음 말을 사서 베이징장사를 떠난다. 베이징장사에서 성공한

후 그는 베이징사람들과 거래하던중 양주, 강서 지방에 내려가 약초거래를 하여 몇달사이에 수만금을 벌며 감영에 진 빚 4만냥을 전부 갚고 자기가 신세진 사람들의 은혜를 갚으며 감사에게는 다섯바리의 진귀한 물건을 선물한다.

정씨는 그후 감사의 추천으로 벼슬까지 한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정씨의 형상을 통하여 당시 활발하게 벌어지던 개인사업활동과 청나라와의 상업물산의 주요지표가 무엇인가를 보여준다.

소설은 감사가 정씨를 벼슬에 천거하는것을 통하여 당시 상업을 천시하던 량반들속에서 일어나고있던 의식변화과정을 보여주고있으며 동시에 활발한 상업활동에 의하여 대상인들의 사회적처지도 점차 달라져가고있었음을 잘 보여주고있다.

17세기이후의 중세단편소설들에서는 이처럼 허생이나 김공, 순흥의 만석군 황부자와 정씨 등과 같이 자기의 실천적행동으로 대상인, 부자로 등장하는 인간성격들을 탐구형상하고있다.

이것은 시대의 발전과 함께 달라져가는 인간성격에 대한 단편소설작가들의 깊이있는 예술적탐구의 결실이었다.

이와 같이 17~19세기 고전단편소설에서는 도시와 농촌에서 봉건적경제관계가 점차 허물어지고 자본주의적경제관계가 장성하는 당대현실에서 새로운 역량으로 자라나는 인물들의 성격을 여러 측면에서 형상함으로써 근대사회를 지향해나가던 시대상을 생동하게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중세단편소설들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을 거치고있던 우리 나라의 현실을 예술적으로 재현한것으로 하여 력사연구와 소설문학연구에 일정한 도움을 주고있다.

3. 시대의 발전과 함께 변모되어가는 녀성들의 새로운 성격형상 탐구

17~19세기 고전단편소설에서는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변모되어가는 녀성들의 새로운 성격을 형상하고있다.

이것은 이 시기 문학의 일반적특성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조선녀성들은 남존녀비의 낡은 봉건사상으로 하여 오랜 세월을 두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천대를 받아왔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사회활동이란 꿈에도 생각할수 없는 일로 되어있었습니다. 녀성들에 대한 인신적 속박은 참으로 가혹하였습니다. 우리 녀성들은 결혼의 자유도 없었고 문밖 출입도 마음대로 할수 없었으며 심지어 물건처럼 팔려다니기까지 하였습니다.》

봉건시대에서 우리 녀성들은 불우한 처지에서 2중, 3중의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며 인간이하의 천대를 받아왔다.

가부장적인 봉건가족제도에 얽매여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날수 없었던 녀성들에게 차례지는것은 고된 부엌일과 바느질이였고 교육은 고사하고 일체 사회활동에 참가할수 없었으며 아이낳는 도구로만 취급되였다.

17세기 이후 시대의 발전은 오래동안 봉건적압박과 인륜적 예측밑에서 온갖 구속과 멸시를 받으며 살아오던 녀성들을 더욱 각성하게 하였다.

이 시기 단편소설들에서 녀성들의 새로운 형상은 우선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적극적으로 량반통치배들에게 항거해나서는 인간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고있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봉건군주와 봉건통치배들에게 항거하는 녀성의 형상은 이미 중세초기에 부화방탕한 백제 개루왕의 횡포에 항거하여 왕의 위협과 유혹앞에서도 절개를 지키고 지혜를 짜내여 마침내 왕궁에서 빠져나오는것을 이야기줄거리로 한 고전단편소설 「도미와 그의 안해」에서 창조되였다.

또한 17세기에 들어와서 고전소설 「춘향전」에서 봉건통치배들의 횡포한 악행에도 굴하지 않고 절개를 지켜가는 춘향의 형상을 통하여 봉건통치배들에게 항거해나서는 녀성들의 형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형상들은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항의가 적극화되지 못하고 자기의 절개를 지키고 착취배들의 마수에서 벗어나는것에서 더 전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7세기이후의 고전단편소설에서는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봉건통치배들을 복수하며 적극적이고 대담한 용단으로 그 자들을 처단해버리는데

까지 이르는 여성반항아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이것은 새로운 여성형상을 창조한 이 시기 단편소설의 특성이라고 할수 있다.

고전단편소설 「길녀」에서 주인공녀성의 형상은 봉건관리의 서녀로 태어난 불우한 여인으로서 당대사회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나가며 자기 할바를 해나가는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성격형상이다.

량반 신생의 소실로 된 그가 운산원이 강압적으로 자기 첩으로 만들려고 하자 처음에는 이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다가 그놈의 권력앞에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다는것을 깨닫고 칼을 뽑아들고 적극적으로 대항하게 된다.

이 소설은 『청구야담』권2에 「횡포를 막아낸 규중렬녀(거강포 규중정렬拒強暴閨中貞烈)」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으며 『동야휘집』에는 「칼을 휘두르며 원을 꾸짖고 혼서를 물리다」라는 제목으로 되어있다.

소설에서 보는 길녀의 형상은 소설 「도미의 안해」에서의 여주인공이나 소설 「춘향전」에서 춘향이의 형상과는 대비할수도 없는 반항적성격의 소유자로서 당시 각성된 여성들의 지향을 보여주는 인간형상이다.

길녀의 칼날은 당시 봉건사회에서 악질관료들과 그 추종자들에게 주는 커다란 타격이었고 운산고를 인민들의 눈을 띄워주고 정신적으로 각성시키는 절절한 호소로 되었다. 특히 길녀가 운산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그놈의 죄행을 단죄하면서 호되게 꾸짖는 말은 압박받는 여인들의 저항의 부르짖음이었다.

길녀는 칼날같이 서리발서린 말로 준렬히 단죄한다.

《네가 나라에 두터운 은혜를 입어 이 고을을 다스리는터에 웅당 인민을 사랑하고 임금님께 힘껏 보답해야 하겠거늘 도리어 인민에게 잔악하며 녀색을 탐낸 나머지 흉악한 읍민과 결탁하여 량반의 소실을 겁탈하려 하니 개, 돼지도 않는것이요 천지에 용납 못함이다. 나는 어차피 너의 손아귀에 죽은 몸, 내가 먼저 네놈을 죽이고 죽으련다.》

물론 길녀의 이 말속에는 임금에게 《충성》해야 한다는 《충군》사상이 내포된 제한성이 있기는 하지만 소설 「춘향전」의 춘향이처럼 사또 변화도에 게 말로 항거하다가 어사도 리도령의 도움으로 구원되는 소극적 반항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라 직접 손에 무기를 들고 운산원의 무릎을 꿇리고 항복을 받아내는 보다 적극적으로 봉건통치배들에게 항거하는 반항아의 인간형상이다.

또한 작가는 길녀의 말에 호응하는 운산고를 인민들의 형상을 통하여 진리를 옹호하고 정의의 편에 선 각성되어가는 인민들의 의로운 행동도 은유적으로 찬양함으로써 불의에 맞서 적극적으로 싸워온 우리 인민의 기개를 새롭게 형상하였다.

『삼교별집』 5권 『만록』 6권에 실려있는 고전단편소설 「검녀」에서도 남에게 예측되기를 거부하여 검술을 배워가지고 가문의 원썬을 갚는 칼을 든 녀성의 반항정신을 보여주었다.

이 이야기는 영조때 학식과 문장으로 삼남지방에 이름 떨친 춘암 소옹천(1704~1760)과 결부되어있는것으로서 당과싸움과 모략중상이 심했던 당시의 상황속에서 지방선비로 명성을 가진 선비 단옹(민습지-저자 안석경의 친우)이 호남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이야기형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진사 소옹천이 삼남지방에서 명성이 높아 모두 존경하고 기이한 선비로 지목되어있었다. 하루는 웬 녀인이 찾아와 수청을 요구하기에 그는 수락하여 3년간 동거생활을 하였는데 어느날 그 녀인이 자기의 과거사를 고백한다. 여기서 검녀가 어떤 녀성인가 하는것이 밝혀진다. 검녀는 녀종이었다. 자기의 주인집 딸과 같은 나이였는데 주인집은 당쟁에 말려들어 패가하였으나 주인집 딸과 검녀만은 야밤도주하여 방랑하던중 어느 한 검객을 만나 그에게서 검술을 배워가지고 부모들의 원썬을 갚았다는것, 그 후 주인집 딸은 남복을 하고 살인한것으로 하여 인륜을 어겼다고 자결하였다는것, 녀종인 자기는 삼남지방의 이름있는 량반을 모실생각으로 그에게 왔다고 자기가 살아온 경력을 이야기한다.

검녀는 자기가 것처럼 숭배했던 선비와 같이 생활하면서 보니 그곳 량반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위인》이 아니며 속물이라는것을 깨닫게 되자 깊은 밤 자기의 검술을 량반앞에서 보여주고 유유히 사라진다.

소설에서는 한 녀종에 불과했던 검녀가 주인집처녀와 함께 검술을 익혀 원썬을 갚은 이야기를 통하여 당시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적극적인 반항

의 길로 나가는 여성들의 형상을 보여주었다.

소설에서 검녀의 형상은 고루한 봉건통치배들의 허례허식과 사회를 위해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는 학문을 닦으며 무위도식하는 이 자들에게 타격을 주는 여성성격으로써 매혹적이다.

그는 당시 문장과 학문에 능하다고 지목되는 소옹천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선생의 능하는바를 엿보니 문장의 잔재주와 학문, 천문, 역술 등 잡술뿐이요, 마음을 닦고 뜻을 지키는 큰 방법과 세상을 다스려 속세에 모범을 보이는 높은 도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십니다. 기이한 선비라는 이름을 듣고계신다니 너무 지나치십니다. 실속없는 이름은 태평시에도 화를 면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난세를 당해야...》

검녀의 이 말은 기이한 선비라고 지목되어있지만 실상은 무능한 소옹천에 대한 비판이면서도 당시 쓸모없는 학문으로 큰 지체를 뽐내며 허장성세하나 내용적으로는 무너져가기 시작한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심각한 비판이다.

검녀가 그동안의 살아온 정으로 검술을 보여주고 떠나가는 장면은 변천된 환경에서 시대적의무를 자각하고 불합리한 사회에서 자기의 할바를 깨닫고 봉건제도에 항거해나가는 여성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이 시기 단편소설들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형상은 또한 여성들이 사회적의무를 깨닫고 남자들을 계몽시키는 선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여성들을 그려내고있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대체로 재상가의 딸이거나 지체높은 양반계급들의 딸이며 이들이 깨우쳐서 내세우려는것은 봉건양반이기때문에 긍정적이라고도 볼수 없다. 그러나 여성들의 이러한 성격이 사회적풍조로 된것은 변천된 환경에서 여성들의 새로운 성격이 아닐수 없다.

고전단편소설 「안동사내」, 「소금」 등 소설들에서 형성된 여성들의 성격이 그 대표적인 실례라고 할수 있다.

고전단편소설 「안동사내」는 문집 『동상기찬(東廂紀纂)』 2권에 실려있으며 원제목은 「김안국(金安國)」이다.

김안국은 판서 대제학의 아들로써 14살까지 글을 깨치지 못하여 자기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안동좌수는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딸과 결혼시킨다. 좌수의 딸은 《글》이라는 말만 들어도 두통을 일으키는 그의 심리적 장애를 없애기 위해 이야기를 통한 학습방법을 택하여 10년간 공부를 시켜 과거급제시킨다.

소설에서는 글공부가 부귀와 영달을 누리기 위한 치부수단으로 되고 특히량반들이 문벌과 출세를 위해 자기의 자제들을 강압적으로 글공부시키던 시대적풍조를 풍자하면서도 이 시기 변천되어가는 현실에서 발전하는 여성들의 새로운 성격형상을 보여주었다.

해학소설들을 수록한 문집 『명엽지해』(홍만중)에 실린 고전단편소설 「류기장집의 딸」에서는 남의 어려움을 자기의 어려움으로 여기고 적극 도와나서는 아름다운 성격의 소유자로 여성을 그려내고있다.

연산군 때 체포령이 내려 피신해다니던 교리벼슬의 리장곤이 함흥처녀 류기장집(버들고리를 엮어 파는 집)의 딸을 우연히 우물터에서 만나게 되는데 처녀는 로상에서 굶주림과 더위에 시달린 그가 물에 채할가봐 바가지에 물을 떠서는 버들잎을 그우에 띄워준다.

그것을 계기로 리장곤은 류기장집의 사위로 되며 몇해후 중조반정이 일어나자 다시 벼슬길에 나서게 된다.

소설에서 주인공녀성의 형상은 아무것도 할줄 몰라 장인, 장모에게서 수모를 받는 남편이지만 현숙한 안해의 너그러움으로 부모를 리해시켜 유일하게 그를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지닌 여성으로 례절있고 사리정연한 언변과 인정을 지니고 의리있는 행동으로 제 남편을 도와나서는 착실한 안해의 형상으로서 18세기 홍만중이 창작한 단편소설들중에서 의의있는 여성형상창조 작품으로 보아진다.

고전단편소설 「소금」(『동괘락송(東稗洛誦)』 상권)에서는 우의 소설들과 비슷한 류형의 여성들의 형상을 창조하고있다.

소설은 가난한 광반의 아들이 가난한 풍헌의 딸과 결혼하여 안해의 슬기로운 지혜와 남편의 부지런한 노력으로 부자가 된 이야기를 기본줄거리로

하고있으나 가난한 녀인의 슬기에 형상초점을 돌리고있다.

한양에 김가성을 가진 가난하고 몰락한 량반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은 집이 너무 가난하여 나이 30살이 되여도 장가를 못들고 동생과 함께 매일 량식을 빌려 다니었고 겨우 패식을 끓이였다.

그들이 사는 아래마을에 장풍헌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도 역시 찢어지게 가난하였는데 당혼한 딸이 있었다.

어느날 김씨아들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일손을 도울 안사람을 구하겠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우리같은 가난뱅이에게 누가 딸을 주겠는가하고 하면서 펄쩍 뿜다. 그러나 아들은 장풍헌의 집에 가서 청혼을 구한다.

장풍헌은 김씨아들에게 «너희 집에 가면 우리 딸이 굶어죽는다»고 하면서 거절한다.

그때 장풍헌의 딸은 아버지에게 «우리가 안방에 맞아들일 사위래야 기껏 하층명정밖에 더 있겠어요. 김도령은 그래도 량반이라는 명색을 띠고 있으니 아무렴 저들보다 낫지 않겠어요. 빈부와 사생은 저마다 정해진 복에 달렸는데 그의 청혼이 무어 해괴할것이 있겠어요. 저는 그가 꼭 허락받게 뉘를 소원하옵니까.»라고 말한다.

딸의 이 말에 장풍헌은 결혼을 승낙하며 딸은 품속에 큰빛 작은빛을 간수하고 버들고리를 머리에 이고 김씨아들을 따라가 오두막에서 살림을 편다.

소설은 그 다음부분에서 이 녀성의 성격을 더욱 발전시켜 변천되여가는 당대의 현실에서 가정과 인간들을 바로잡아보려는 녀성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장풍헌의 딸은 시집에 올 때 가지고온 세목 두필을 40냥 받고 10냥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30냥으로 남편에게 소금장사를 하라고 한다.

남편에게 소금장사의 묘리를 터득시키는 녀성의 형상은 당대 변천되여가는 현실에서 상업류통의 발전과 여기에서 녀성들이 차지한 역할을 보여주면서 한편으로는 몰락한 량반들의 무능성을 폭로하고있다.

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

«염장에 가서 소금군과 약정하되 이 돈을 염장에 들여놓고 3년동안 소금을 받아다 장사하다가 만 3년이 되면 본전만 찾겠다고 하면 소금군은 틀림

없이 응할거예요. 그럼 소금집을 지고 10여리안을 두루 돌아다니되 값은 당장 받지 말고 외상으로 남겨두어 인정을 맺어 단골을 삼으면 반드시 리득이 많으리다.》

녀인의 이 말은 이 시기 상업류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반사람들은 물론 여성들도 장사물계에 점차 눈이 트고 상업류통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커가고 있었음을 십분 가늠케 하고있다.

그후 처는 남편에게 다시 3천냥을 주며 이렇게 말한다.

《이걸 가지고 다시 염장에 가서 전과 같이 약속하되 이번에는 형제 두분의 소금을 대여해달라해도 필시 거절하지 않을거예요》

이렇게 안해는 장사리속을 남편에게 알려주어 장사를 하게 하여 리득을 얻게 하며 자기는 부지런히 길쌈을 하여 천냥의 돈을 번다.

소설은 마지막에 돈이 만냥에 이르자 이들이 말과 묵은 밭을 바꾸어 그자리에 큰 집을 짓고 행복하게 산것으로 끝난다.

소설에서는 변천되여가는 사회현실에 민감한 여성의 모습과 가정의 구속에서 벗어나 사회생활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시대적성격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이처럼 여성들의 반항적성격과 상업활동을 비롯한 사회생활에 진출하는 여성들의 시대적성격을 보여주는 17세기이후의 중세단편소설들은 변천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탐구된 여성들의 형상이라고 할수 있다.

이 시기 단편소설에서의 새로운 성격형상탐구는 봉건유교적관점에서 인물들이 리상화되었던 장편소설들의 성격형상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있다. 그것은 패설형식으로 창작된 단편소설들이 대부분 작가가 실지 체험했거나 보고들은 건문을 소재로 하여 창조되었던것과 중요하게 관련된다. 따라서 단편소설들에서의 새로운 성격창조는 우리 나라 중세말기 소설문학의 사실주의적성격을 강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으며 바로 여기에 이 시기 단편소설들에서의 성격형상이 가지는 문학사적의의가 있다고 말할수 있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17세기이후 단편소설들은 새로운 인물성격들을 탐구형상함으로써 점차 변모되여가는 봉건말기의 사회력사현실을 보다 생동하게 반영하면서도 이 시기 문학에 고유한 특성을 뚜렷이 살리었다.

물론 우의 작품들에서 취급한 인간성격들은 자본주의적관계의 발생발전 과정에 산생된 형상으로서 제한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근대적발전을 지향하던 당대 사회현실의 제조건하에서 일어나고있던 사람들의 사상의식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특히 문학의 근대적요소를 다분히 내포하고있는 새로운 성격형상탐구의 집중적인 표현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전시기에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인물들의 성격형상을 창조함으로써 17세기이후 단편소설들은 봉건사회제도의 와해상과 새로운 발전을 지향하던 당대의 시대상, 변모되어가는 인간생활의 여러 측면을 예술적으로 생동하게 재현하였다고 할수 있다.

바로 여기에 17세기이후 중세단편소설들에서의 새로운 성격형상탐구가 가지는 문학사적의의가 있으며 동시에 이 시기 문학의 사실주의적특성과 근대적성격이 있다고 할수 있다.

The Influence of the Non-Church Movement Found in Japanese Citizens' Support for Korean A-bomb Victims

Yuko Takahashi*

Osaka Korean Studies Platform,
Research Center for Human Rights,
Osaka Metropolitan University

1. Introduction

In April 2022, a public gathering was held in Hiroshima to commemorate the 50th anniversary of the activities of a Japanese citizens group — the Association of Citizens for the Support of South Korean Atomic Bomb Victims (韓国の原爆被害者を救援する市民の会; hereafter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which was established in Osaka, Japan, in December 1971. For the past half century,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has been committed to support for Korean atomic-bomb victims, or Korean *hibakusha*.

Korean *hibakusha* are those people who were compelled or forced to immigrate to Jap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endured the atomic bombings in Hiroshima and Nagasaki in August 1945, returned to Korea following Korea's liberation, and were left abandoned for several decades in poverty and with radiation-induced illnesses. Since its establishment,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has been committed to the

* 高橋優子(大阪公立大学人権問題研究センター付設大阪コリアン研究プラットフォーム 特別研究員)
E-mail: y.takahashi06@members.leeds.ac.uk

support of these former colonised nuclear victims by, among other means, lobbying and negotiating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to demand relief and compensation; and supporting Korean *hibakusha*'s application for an Atomic-Bomb Survivor's Certificate¹ and lawsuits in Japan.

The members of the association have various profiles from lawyers and school teachers to university students and housewives. At the same time, the association had a number of Christians in its early period, particularly of the Non-Church Movement (hereafter NCM), an "indigenous Christian movement in Japan" (Mullins 2003) that was founded by Kanzō Uchimura at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NCM Christians played central roles in establishing the association, recruiting its members, organising various actions and events, and thus laying a foundation for the group to develop into a nationwide movement that has lasted for over a half century.

There have been some scholars who published their research on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Duró 2017; Duró 2020; Ito 2017; Sin 2014). However, they largely discuss the association's specific activities for Korean *hibakusha*, and do not particularly elaborate on the involvement of NCM Christians. One exception may be Duró's work which discusses several Japanese Christians (both NCM and non-NCM Christians) who were committed to the support for Korean *hibakusha* (Duró 2020). Her work focuses on NCM Christian Yoshiko Matsui along with other non-NCM Christians. Nevertheless, Duró largely focuses on Matsui's personal life. Consequently, she discusses the influence of NCM mostly in direct relation to Matsui, and does not detail the influence of the NCM teachings by tracing back the NCM history from its birth.

The existing literature does not sufficiently discuss the influence of NCM within the history of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Nor does it thoroughly elucidate the involvement of NCM Christians in the activities

1 First introduced in 1957. A person may apply for the Atomic-Bomb Survivor's Certificate with which one could receive allowances and various social services. In order to be issued the Certificate, one needs to satisfy various conditions to prove that one indeed experienced and was affected by the bombing.

of the association, despite their significant contribution particularly in the early years of the history of the association. Consequently, it may lead to questions: how did NCM Christians become committed to the work for Korean *hibakusha*?; why was it NCM Christians, rather than any other Christian organisations and its members, who became committed to the issue of Korean *hibakusha*?; and why was it the issue of none other than Korean *hibakusha*? Answers to these questions can be found in two key elements of the NCM teachings: pacifism and compassion towards Koreans. Moreover, these elements were developed by NCM founder Kanzō Uchimura, and passed on to his followers, specifically Jin Masaike and Yoshiko Matsui, the latter of whom was involved in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from its establishment and served as its chairperson from 1978 until 1998 when she passed away. Hence, applying these elements to the situation of Korean *hibakusha* was well within the NCM teachings and traditions.

This article explores the history of NCM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genealogy of the NCM teachings that were developed by and passed on from Uchimura, through Masaike, then to Matsui. Throughout the course of the spread of NCM, Uchimura's followers translated the NCM teachings, and especially the abovementioned two key elements, into various commitments to Korean people — most notably, the support of Korean *hibakusha*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2. Korean Atomic-bomb Victims and the Association of Citizens for the Support of South Korean Atomic Bomb Victims

In August 1945, two Japanese cities of Hiroshima and Nagasaki were attacked with atomic bombs by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Hiroshima City, at the time of the bombing, the population of the city was approximately 350,000, out of which approximately 140,000 lost their lives by the end of 1945 (Hiroshima City 2019). In the case of Nagasaki City, the number of deaths by the end of 1945 is approximately 74,000 among the

population of approximately 240,000 (Nagasaki City 2021). However, it is not clarified whether these numbers include non-Japanese *hibakusha*² or, if so, how many they are.

While there is no official estimate of the number of non-Japanese *hibakusha*, the only *hibakusha* organisation in South Korea called the Association of A-bomb Victims in South Korea (한국원폭피해자협회; hereafter the Korean Victims Association) estimated in 1979 that approximately 100,000 Koreans experienced the atomic bombings in the two cities (70,000 in Hiroshima and 30,000 in Nagasaki). They further estimated that those Korean *hibakusha* who survived were 50,000, out of which 43,000 returned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e post-1945 period (한국원폭피해자협회 2011: 428). The association has another estimate that was announced in 1972, according to which the total number of Korean *hibakusha* was estimated to be approximately 70,000 (50,000 in Hiroshima and 20,000 in Nagasaki), out of which 30,000 survived and 23,000 returned to the Korean Peninsula (Ichiba 2005: 27). Korean *hibakusha* are the largest group of non-Japanese *hibakusha*, and they account as much as 10 percent of all *hibakusha* including Japanese victims (Ichiba 2005: 29).

Those Korean *hibakusha* who returned to South Korea endured their radiation-induced illnesses amidst poverty for decades. They were left abandoned without any support and care in South Korean society which itself was also struggling to recover from the aftermath of the 1950-53 Korean War (Ichiba 2005: 31). In 1967, Korean *hibakusha* established the Korean Victims Association. However, during its early years, the association was financially and socially vulnerable, and its members could not afford to take any effective actions (Ichiba 2005: 45).

In addition to radiation-induced illnesses and poverty, prejudice against Korean *hibakusha* was another reason why they were too vulnerable to raise their voices in South Korean society at that time. In the post-1945

2 Non-Japanese *hibakusha* include those from Korea, Taiwan, China, Southeast Asia, Australia, America, and European countries such as Britain and the Netherlands.

Korea, returnees from the Japanese mainland, both *hibakusha* and non-*hibakusha*, had to conceal the fact that they had lived in Japan because otherwise they would be mocked as “pig trotters,” “Japs,” “traitors,” or “collaborators” (Oh 2022: 59). Additionally, the lack of knowledge about the atomic bombing in South Korean society also kept them away from revealing that they were *hibakusha* out of fear of possibl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Ichiba 2005: 43).

Some turning points came in the 1970s. One is when, in August 1971, Korean *hibakusha* Sin Yeong-su visited Japan and delivered a public talk in Osaka. His testimony on the miserable circumstances of Korean *hibakusha* in South Korea, and desperate plea for support,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audience of Japanese citizens who had had no knowledge that there were *hibakusha* in Korea. Consequently, in December 1971 these Japanese citizens formed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Ichiba 2005: 51).³

As discussed in the previous section, throughout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s activities for over a half century, and especially during its early years, a significant number of NCM Christians were involved. Their aspiration came from the teachings of NCM which was founded by Kanzō Uchimura in the early 20th century.

3 Another turning point was the unprecedented win that Korean *hibakusha* Son Jin-doo achieved at the Japanese Supreme Court in 1978. Son, who had experienced the atomic bombing in Hiroshima and later returned to Busan, South Korea, attempted to illegally enter Japan in 1970, as he was desperate to receive special medical treatments for his radiation-induced illnesses. While detained and hospitalised in Fukuoka, Japan, in 1971 he applied for the *hibakusha* Certificate to be is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he application was declined on the ground that his place of residence was not in Japan, a condition which was not stipulated in any *hibakusha*-related laws. Consequently, he brought a lawsuit in 1972 to demand cancellation of the decision, and after six years, he won at the Supreme Court and was issued the Certificate.

3. The Non-Church Movement and its founder Kanzō Uchimura

3.1. Uchimura's Encounter with Christianity in Sapporo

Uchimura was born to a feudal warrior (*samurai*) father and a mother in 1861. He became deeply involved in Christianity after he entered the Sapporo Agricultural College in 1877. The college was founded in 1876, a year before Uchimura's admission, as an institution to train technicians who could work for pioneering Hokkaidō which is the island north of the main Japanese island Honshū. The first Vice President William S. Clark⁴ and other foreign faculty members had guided the students who entered the college in its opening year to convert to Christianity. When Uchimura entered the college in the following year, he and some fellow students signed a document entitled "Covenant of Believers in Jesus" to declare their belief in Jesus Christ, as his senior students had done a year earlier. In 1878, they were baptised by an American Methodist missionary (Masaike 1977: 40-42; Sekine 1967: 22).

Uchimura and his fellow students — a group that later came to be known as the Sapporo Band⁵ — had a gathering on Sundays to deepen their faith. After graduating from the Sapporo Agricultural College, they established the Sapporo Independent Christian Church in 1882. The es-

4 The Japanese government first intended to invite Clark to become Assistant Director, a position second to President, of the Sapporo Agricultural College since it was assumed that a national school should be headed by a Japanese person. However, Clark himself insisted that he should be President. When the contract was signed between Clark and envoy Kiyonari Yoshida, the English version said "Assistant Director" with the term "President" later inserted, and the Japanese version said "Vice President (namely, Assistant Director)" (教頭(即副校長)) (Maki 1975=1978: 158-160; Masaike 1977: 33).

5 The Sapporo Band is a group of Christian male youths. The members of the Sapporo Band, and also those of the Yokohama Band and the Kumamoto Band, had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spread and development of Protestantism as well as Christianity-based education across Japan from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onwards.

tablishment of their own church and their mission there, independent from any institution or foreign missionaries, represents their determination to organise their own Christian community independent from the Methodist Church and other denominations, foreshadowing the later foundation of NCM by Uchimura (Mullins 1998=2005: 80; Sekine 1967: 28-30).

3.2. Experiences in the United States as the Seed of NCM

Uchimura went to the United States in 1884, and in the following year he entered Amherst College. Heavily influenced by President Julius H. Seelye whom Uchimura regarded as his “father of faith” (Mullins 1998=2005: 81), he further deepened his faith, experienced conversion, and determined to become a missionary himself. Upon graduating from Amherst in 1887, he entered Hartford Seminary which Seelye had recommended. However, after only four months he left the seminary and returned to Japan due to his deteriorating health conditions and, more decisively, his disappointment with Western Christianity (Masaike 1977: 141; Sekine 1967: 22).

Uchimura criticised Protestant denominations for their traditions such as overly institutionalised churches, vocational and authoritative clergypersons, and ritualistic sacraments. Instead of accepting these traditions, he insisted that Christians should follow only God’s words that constitute the core teachings of Christianity (Uchimura 1906=1981: 231-234). He clearly received significant and lasting influences from Clark, Seelye, and also Puritanism and Quakerism (Mullins 1998=2005: 80-82). Nevertheless, he could not accept some of the traditions of Western (American) Christian culture that he saw as excessively institutionalised. This led him to develop his own style of mission — what would later become NCM.

3.3. Return to Japan and the Birth of NCM

Uchimura returned to Japan in 1888, and began teaching at school,

while also continuing mission at schools and public lectures at weekends. In 1891, when he was serving at the First Higher School (第一高等中学校), his salute for the imperial script at a school gathering was criticised as being “not respectful enough,” and caused a serious debate involving the public (Masaike 1977: 183-188; Sekine 1967: 61). Severe criticism compelled Uchimura to resign, and he began concentrating on mission.

His missionary work involved publishing journals such as *Seisho no Kenkyū* (聖書之研究 / Bible Studies, 1900-1930) and *Mukyōkai* (無教会 / Non-Church⁶, 1901-1902); and organising gatherings and study groups⁷ where he delivered lectures on the Bible. This missionary style became the most notable feature of NCM. As indicated by its name, NCM did not have ‘churches’ of institutionalised, religious facilities; instead, missionary work was carried out mainly through periodicals issued by Uchimura and, later, his pupils — the reason why Uchimura described NCM as “ecclesia on paper” (*Shijō no kyōkai* / 紙上の教会) (Uchimura 1901=1981: 316). NCM did not have systematically trained clergypersons either; instead, missionary work was carried out first by Uchimura, then later by individuals who had studied the Bible under Uchimura.

Without churches as limited spaces for mission, and without clergypersons who were authorised to do missionary work, NCM and its teachings effectively spread across the country. Uchimura continued his mission until he passed away in 1930, but the tradition of NCM that he founded was preserved and inherited by his pupils who are often described as second- or third-generation NCM Christians, depending on the ‘genealogy tree’ of NCM mentor-pupil relationships, that is, how many generation(s) to count back to reach Uchimura. NCM spread to the outside of Japan, too, mainly Korea, Taiwan, the United States, and Brazil.

6 In its seventh issue, Uchimura wrote that this journal was expected to function as a medium through which NCM fellows would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nd therefore the journal could be described as “ecclesia on paper” (Uchimura 1901=1981: 316).

7 Some prominent groups are *Seisho Kenkyūjo*, *Tsunohazu Seisho Kenkyūkai*, *Kyōyūkai*, *Kashiwakai*, and *Kashiwagi Kyōdaidan*.

These places are either Japan's former colonies or popular destinations for Japanese emigrants in the 20th century.

3.4. Uchimura's Pacifism and Compassion towards Koreans

As discussed earlier,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the NCM teachings from Uchimura's time is pacifism. Japan fought the Sino-Japanese War in 1894-95 over control of Korea. At that time, Uchimura rather supported Japan's actions which he believed as a means to protect Korea from China. However, he came to regret his previous support a decade later. In 1904-05, Japan fought the Russo-Japanese War, again over control of Korea. This time, Uchimura was strongly opposed to Japan's actions.

In 1904, he stated that his thorough study of the Bible convinced him that there was no war that could be justified (Uchimura 1904=1981a: 424). His opposition to war also came from his witness of the consequences of the Sino-Japanese War: he criticised the war as having only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moral degradation among the Japanese people and less prospect of Korea's independence (Uchimura 1904=1981a: 425). It was from this point that he became a strong pacifist.

Uchimura's pacifism led to the other important element of the NCM teachings: compassion towards Koreans who had been torn between their neighbouring countries' competition for hegemony. Now being a strong pacifist, Uchimura argued that faith was the only way to truly save Korea. After Korea was made Japan's protectorate in 1905, he stated that, although Korea had lost its political freedom and independence, it would receive God's justice, and that it would be able to become the centre of gospel and radiate light in all directions in Asia (Uchimura 1907=1981: 209-210; 1909=1982: 68-71).

His sympathy and compassion towards Korean people, and belief in the future of Korea, came from his absolute pacifism which he developed around the time of the Russo-Japanese War. Simultaneously, his personal encounter with Korean NCM pupils such as Kim Gyo-sin, Ham Seok-

heon, and Song Du-yong,⁸ also had significant influence (Akae 2014: 159). It should be added that the mentor-pupil relationships that Uchimura developed with Korean NCM Christians later contributed to the spread of NCM to Korea.

His compassion towards Koreans may seem contradictory to the fact that Uchimura is often associated with nationalism because of his own words in his 1926 essay entitled “Two J’s”: “I love two J’s and no third; one is Jesus, and the other is Japan” (Uchimura 1926=1982). For example, Mullins points out the influence of *bushidō*, a moral code for feudal warriors, and Confucianism, on Uchimura’s philosophy (Mullins 1998=2005: 87-88). Some Korean NCM Christians showed reservation to admit the ‘Japaneseness’ of Uchimura’s teachings (Yu 1993: 239-242), or re-interpreted it to establish an NCM for Koreans (Yu 1993: 243-245). However, Uchimura’s nationalism should not be understood as a belief in the ‘superiority’ of Japan; it should rather be understood as his aspiration for establishing a Christianity that would suit Japanese history, society, and people (Mullins 1998=2005: 85), instead of simply transplanting Western Christianity.

Founder Uchimura’s teachings were passed on to second-generation NCM Christians. One of them was Jin Masaïke. Like his predecessor, Masaïke was an absolute pacifist and also had strong connections with Korean NCM Christians.

4. Jin Masaïke, a Second-generation NCM Christian

4.1. Masaïke’s Encounter with the Non-Church Movement

Born in 1900, Masaïke first encountered NCM when he joined one of Uchimura’s study groups *Seisho Kenkyūkai*, while he was a student at

8 These former students who studied in Japan later returned to Korea and spread NCM in their homeland through publishing periodicals (e.g. 『성서조선』 by Kim Gyo-sin, 『성서연구』 by No Pyeong-gu), holding gatherings, and even opening a school 풀무농업기술학교 (NCM 1993: 246-252; 1995: 297-309; Tao and Yabe 2019: 126-127).

Tokyo Imperial University. Following Uchimura, Masaike was actively committed in mission across the country; publishing his own periodicals *Seisho no Nōson* (聖書の農村 / Rural Villages in the Bible)⁹ and *Seisho no Nihon* (聖書の日本 / Japan in the Bible)¹⁰; giving public lectures and talks across the country; and holding study sessions, one of them, *Amanuma Seisho Kenkyūkai* held at his home (Fujio 2011; NCM 1995: 85).

He placed a particular importance on mission in rural villages which he continued for decades (Fujio 2011; NCM 1993: 99). He believed that a country would be ruined without rural villages, and the people living there should be provided with not knowledge or money, but living souls, faith, and the teachings of the Bible with which they could satisfy their mind (NCM 1993: 98-99).

He was also concerned with and cared for vulnerable and abandoned people, especially patients of tuberculosis and leprosy. Therefore, he visited sanatoriums and individual homes to do mission for patients of these diseases (Fujio 2011). As will be discussed later, it is through his commitment to patients of tuberculosis and leprosy that Yoshiko Matsui encountered Masaike and NCM.

4.2. Pacifism and the Issue of Japan's war Responsibility

One of the important elements of the NCM teachings, pacifism, was passed on from Uchimura and shared by second-generation NCM Christians including Masaike. Nevertheless, Masaike's pacifism was thorough and rigorous compared to that of others. He held absolute pacifism and non-

9 First published in October 1934, and lasted until January 1938 when it was renamed as *Seisho no Nihon* (NCM 1993: 100).

10 Renamed from *Seisho no Nōson* in January 1938. The publication was suspended after Issue 118 was published in June 1944 as the Japanese authorities blamed its severe criticism of Nazi Germany and Japan's war aggression (NCM 1993: 103). It was revived in November 1945 (Issue 119), and lasted until November 1982. The total of 545 issues were published (NCM 1995: 335).

resistance, advocating conscientious objection (NCM 1993: 101-102). Considering the fact that Uchimura was opposed to war but not necessarily conscription which he regarded as an act similar to Jesus's martyrdom for humans (Uchimura 1904=1981b; Yamamoto 1966: 158-159), it can be argued that Masaïke's pacifism was far stricter than even that of Uchimura.

When Japan lost the Second World War, a majority of NCM Christians described the war as a total injustice. But Masaïke went further, mentioning the responsibility of Showa Emperor Hirohito who signed the Declaration of War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British Empire in December 1941 (NCM 1995: 16-17). He even suggested his own responsibility as a pacifist for not being able to stop the war (NCM 1995: 17).

In fact, he believed the war responsibility was borne by the entire Japanese nation. When the "*ichioku sō zange*" campaign ("collective repentance by 100 million of the Japanese nation" campaign) emerged, Masaïke, together with other prominent NCM figures, supported the idea, and advocated that the whole Japanese nation should apologise to the world for Japan's war aggression. It should be noted that he included the Emperor in the Japanese nation who ought to apologise (NCM 1995: 20).

4.3. Masaïke's Commitment to JFOR and Korea

Masaïke's absolute pacifism was put into practice through the activities of an organisation called JFOR. JFOR is a Japanese chapter of the 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conciliation, or IFOR, which is an international organisation established in 1914 when the First World War broke out. The founders of IFOR included Quaker Henry Hodgkin from Britain and Lutheran minister Friedrich Siegmund-Schultze from Germany, who advocated the anti-war movement worldwide. IFOR's Japanese chapter, JFOR, was established in 1926, mainly by the initiative of Christians. It was forced to dissolve by the Japanese authorities in 1943, and then re-established in 1949 (JFOR 2003: 1, 8-10).

JFOR in the post-1945 period was largely led by NCM Christians who

assumed a number of leading posts,¹¹ published its periodicals, communicated with IFOR, organised international seminars, and initiated various projects and movements for opposition to war and peace-building. Masaike joined the organisation in March 1951, as he was alarmed by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in the previous year, and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JFOR's activities (NCM 1995: 89).

Masaike's absolute pacifism was reflected in his activities at JFOR, and particularly through his commitment to reconciliation with Korean people. His concern with Korea came from his personal brotherhood with Korean NCM Christians. When he studied the Bible under Uchimura with Korean students such as Kim Gyo-sin, Ham Seok-heon, and Song Du-yong, he developed interest in the Japanese-Korean relations. Consequently, his attitude towards Korea and the Korean people was invariably sympathetic and apologetic (Fujio 2011).

One example of Masaike's commitment to the improvement of Japanese-Korean relations is his visit to Korea representing JFOR in September 1964, a year before the diplomatic normalis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e made his three-week visit to Korea amidst the uproar of anti-normalisation movement. However, with support of Korean NCM Christians such as Song Du-yong, No Pyeong-gu, and Ham Seok-heon, Masaike visited major cities and expressed apology for Japan's colonisation (JFOR 2003: 11-12; NCM 1995: 286-287).

Another, more important project initiated by Masaike is the reconstruction of Jeamri Church in today's Hwaseong City, Korea. Jeamri Church is a Methodist church where, in 1919, 29 local residents were slaughtered by the Japanese imperial authorities and was burnt afterwards. Some NCM Christians, including Masaike, formed an inter-denominational group to initiate fund-raising and rebuilt the church as an expression of their apology (Fujio 2011; NCM 2002: 272).

11 Many NCM Christians served as president, secretary-general, or accounting director. Masaike served as the third president from 1976 until 1980 (NCM 2002: 272).

His other commitments to issues and projects related to Korea include lawsuits filed in Japan to repatriate Koreans who had migrated to Sakhalin during the colonial era; exchanges between NCM schools in both countries¹²; and Korean *hibakusha*—the issue to which his pupil Yoshiko Matsui later became deeply committed (Fujio 2011; NCM 1995: 286).

5. Yoshiko Matsui, a Third-generation NCM Christian

5.1. Matsui's Encounter with the Non-Church Movement

Yoshiko Matsui was born in Dalian, China, in 1928. Having lived in the city which was then under the control of the Japanese Kwantung Army, she grew up as a “military girl” (軍国少女), believing in Japanese militarism (Matsui 1993: 60, 204).

After Japan lost in the Second World War, Matsui moved to her homeland Japan in 1947. She then developed tuberculosis, and entered a sanatorium. There, in 1953, she met Shimiko Kashiba¹³ who soon became Matsui's “first friend of faith” (Matsui 1993: 7, 202). Kashiba was an NCM Christian, and it was through the friendship with Kashiba that Matsui learned about NCM and, more importantly, met Masaike (Matsui 1993: 147).

The encounter with Masaike became a life-changing event for Matsui as it changed her from a “military girl” to a pacifist Christian who later spent the last 30 years of her 70-year life for the “commitment to reconciliation with the neighbours (neighbouring country)” (Matsui 1993: 217).

12 Between *Kirisutokyō Dokuritsu Gakuen* (基督教独立学園) in Japan and 풀무농업기술학교 in Korea.

13 Kashiba was already in a serious condition when Matsui first met her, and she passed away in October 1954.

5.2. The Encounter with Korea and Korean Atomic-bomb Victims

Masaike's influence mainly came through JFOR activities. Upon his recommendation, Matsui joined the organisation (Matsui 1993: 60), and for the following 30 years, she became involved in JFOR's various projects for peace-building, and especially those for reconciliation with Korean people — the philosophy of JFOR by which Matsui was significantly influenced (Matsui 1993: 61).

In 1967, Matsui participated in the Korea-Japan Christian Fellowship Seminar (韓日キリスト者友和セミナー).¹⁴ This event led to Matsui's first visit to Korea in the following year, 1968. During her visit, she met and communed with local Christians, both NCM and non-NCM Christians (Matsui 1976: 87; 1993: 39). It should be added that this visit was part of her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to reconstruct Jeamri Church that, as discussed earlier, Masaike and his fellows initiated.

She had another important experience while she was in Korea: she visited the Seoul office of the Korean Victims Association (Matsui 1976: 217). Prior to the visit, she had a chance to read the pictorial magazine *Asahi Graph* in which she saw photos of Korean *hibakusha* living in miserable conditions (Matsui 1993: 134; Tateno 2005: 204). This magazine prompted her to visit the association's Seoul office.

When she visited, she could not meet a Korean *hibakusha* whom she had wanted to see. It was Sin Yeong-su whose contribution appeared in the issue of *Asahi Graph* that Matsui read. She instead began exchanging letters with Sin, and this correspondence led to the public talk by Sin in Osaka in August 1971 (Tateno 2005: 204-205).

¹⁴ Organised by Mennonite missionary Carl C. Beck who was a member of JFOR, this seminar was held ten times in Japan and Korea alternatively, between 1966 and 1980. This event functioned as a platform on which Japanese and Korean Christians spent time together, exchanged ideas and opinions on Christianity and issues related to Koreans, and deepened mutual understanding. Masaik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organising this seminar (JFOR 2003: 14-15; NCM 2002: 91-92, 97).

As already discussed, Sin's talk led Japanese citizens to form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At the same time, it was made possible with support by Masaïke and JFOR in recruiting members (Matsui 1993: 62, 128).

5.3. The Influence of JFOR and Masaïke

The influence that JFOR exerted on Matsui's commitment to the issue of Korean *hibakusha* cannot be underestimated. It not only contributed in recruiting members of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but also in sustaining her determination to work for Korean *hibakusha*.

Her commitment to the issue of Korean *hibakusha* meant an expression of her apology for and reconciliation with Korean people, and this attitude reflected the philosophy of JFOR as well as the NCM teachings. In fact, at a national gathering of NCM in 1990, Matsui delivered a talk and emphasised how much she was inspired and encouraged by the members of FOR (both JFOR and IFOR) who practised FOR's philosophy to pursue reconciliation instead of taking guns (Matsui 1993: 204). In the same talk, she also appreciated the guidance of Masaïke which, based on the NCM teachings, inspired and drove her to the work for reconciliation with Koreans (Matsui 1993: 202-203).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in which Matsui was involved from its beginning was a consequence of Sin Yeong-su's public talk in Osaka in August 1971. However, it was only an event that directly inspired and drove Matsui and other Japanese citizens to take action. Matsui's concern with the Japanese-Korean relations both in the past and the future had already developed and inspired her for years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Her determination to work for Korean *hibakusha* was a materialisation of her sense of apology for and aspiration for reconciliation with Koreans that she had already developed. It should also be added that behind her concern, de-

termination, and commitment to work for Korean *hibakusha* was, more than anything,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Masaike and the teachings of NCM that lasted until her final day.

6. Conclusion

This article examined why a significant number of NCM Christians were involved in the Association of Citizens for the Support of South Korean Atomic Bomb Victims, a Japanese citizens' group that has been working for the support of Korean *hibakusha* living in South Korea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71. In the background of NCM Christians' commitment to the activities of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there was a strong influence of the 'NCM genealogy' that was passed on from founder Kanzō Uchimura, through second-generation NCM Christian Jin Masaike, then to third-generation NCM Christian Yoshiko Matsui. In particular, two key elements of the NCM teachings — pacifism and compassion towards Koreans — as well as the philosophy of JFOR in which many NCM Christians were involved, laid a foundation on which Matsui gradually developed interests in the issues of the colonial past between Japan and Korea. Thus, when Matsui learned about Korean *hibakusha*, she had enough reason to work for the nuclear victims in her neighbouring country.

NCM spread nationwide through its unique missionary style — mission carried out mainly through periodicals, instead of at churches. Through their 'non-institutionalised' missionary work, Uchimura's pupils and later generations of NCM Christians also played indispensable roles during the course of the nationwide spread of NCM. Matsui's encounter with NCM as well as Masaike represents this uniqueness of NCM's missionary style. Furthermore, it was through this unique style of mission of NCM that NCM Christians were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became involved in the support activities for Korean *hibakusha* through joining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developed and expanded, and today

it has three chapters in Osaka, Hiroshima, and Nagasaki,¹⁵ along with its headquarters in Toyonaka. As it expanded nationwide, the association utilised its rich networks, and was joined and supported by organisations and individuals of other Christian organisations and denominations. They include, among others, Osaka YWCA and the Japan Christian Women's Organization (矯風会) that have been committed to other initiatives that address issues related to the Japanese-Korean relations, most notably the so-called 'comfort women.' The association was also joined by supporters from various religions and vocations. These developments can be attributed to the 'non-institutionalised' organisation of NCM that influenced the association in its early years, as well as the Japanese citizens' concern with unresolved legacies of the colonial past between Japan and Korea. The history of the Japanese Citizens Association and its link with NCM Christians represents a grassroot social movement that took advantage of the organisational strength and the flexible networks of NCM.

References

[Japanese]

- Akai, Tatsuya (赤江達也) (2014) 「帝国日本の植民地における無教会キリスト教の展開」, 『社会システム研究』 29, 157-167.
- Fujio, Masahito (藤尾正人) “酒枝義旗先生、政池仁先生とわたし”
(<http://www.t3.rim.or.jp/~fjio/YUZURIHA/sakaeda.masaike.html>, 2011.2.18)
- Ichiba, Junko (市場淳子) (2005) 『ヒロシマを持ちかえた人々—「韓国の広島」はなぜ生まれたのか』, 凱風社.
- Ito, Sonomi (イトウソノミ) (2017) 「権利を勝ち取るまで—日本で在韓被爆者を支えた人々」, 『部落解放研究』 23, 101-128.
- JFOR “国際友和会・日本友和会の歴史” (<http://jfor.a.la9.jp/HistryofIFORandJFOR.pdf>, 2003)
- Maki, John M. (translated by Shin'ichi Takaku) (1975=1978) 『W・S・クラーク——その栄光と挫折』, 北海道大学図書刊行会 [John M. Maki (1975), *William Smith Clark: A*

15 There was a chapter in Tokyo between 1975 and 1980.

Yankee in Hokkaido, Hokkaido University Press.]

Masaïke, Jin (政池仁) (1977) 『内村鑑三伝』, 教文館.

Matsui, Yoshiko (松井義子) (1976) 『台所の聖書』, 聖燈社.

Matsui, Yoshiko (松井義子) (1993) 『平和のパン種』, 東方出版.

Mullins, Mark R. (translated by Megumi Takasaki) (1998=2005) 『メイド・イン・ジャパ
ンのキリスト教』, トランスビュー [Mark R. Mullins (1998), *Christianity Made in
Japan: A Study of Indigenous Movements*, University of Hawaii Press.]

NCM (無教会史研究会) (ed.) (1993) 『無教会史II』, 新教出版社.

NCM (無教会史研究会) (ed.) (1995) 『無教会史III』, 新教出版社.

NCM (無教会史研究会) (ed.) (2002) 『無教会史IV』, 新教出版社.

Sekine, Masao (関根正雄) (1967) 『内村鑑三』, 清水書院.

Sin, Hyeong-geun (辛亨根) (2014) 「韓国原爆被害者問題の実態と意義についての研究—特
に韓日間草の根協力に注目して」, 広島大学大学院国際協力研究科提出博士論文.

Tao, Ye, and Shingo Yabe (陶冶, 谷部真吾) (2019) 「宗教文化の可能性と東アジア人類学
の課題—韓国における「無教会主義」の活動を中心として」, 『東アジア研究』 17, 125-135.

Tateno, Akira (館野哲) (ed.) (2005) 『36人の日本人—韓国・朝鮮へのまなざし』, 明石書店.

Uchimura, Kanzō (内村鑑三) (1901=1981) 「『無教会』雑誌」, Kanzō Uchimura 『内村鑑三全
集9』, 岩波書店, 316-317.

Uchimura, Kanzō (内村鑑三) (1904=1981a) 「余が非戦論者となりし由來」, Kanzō Uchi-
mura 『内村鑑三全集12』, 岩波書店, 423-426.

Uchimura, Kanzō (内村鑑三) (1904=1981b) 「非戦主義者の戦死」, Kanzō Uchimura 『内村
鑑三全集12』, 岩波書店, 447-449.

Uchimura, Kanzō (内村鑑三) (1906=1981) 「米国人の伝道法 附 余輩の伝道法」, Kanzō
Uchimura 『内村鑑三全集14』, 岩波書店, 231-234.

Uchimura, Kanzō (内村鑑三) (1907=1981) 「幸福なる朝鮮国」, Kanzō Uchimura 『内村鑑三
全集15』, 岩波書店, 209-210.

Uchimura, Kanzō (内村鑑三) (1909=1982) 「朝鮮国と日本国 東洋平和の夢」, Kanzō Uchi-
mura 『内村鑑三全集17』, 岩波書店, 68-71.

Uchimura, Kanzō (内村鑑三) (1926=1982) 「Two J's」, Kanzō Uchimura 『内村鑑三全集30』,
岩波書店, 53-54.

Yamamoto, Taijirō (山本泰次郎) (1966) 『内村鑑三—信仰・生涯・友情』, 東海大学出版会.

Yu, Hee-se (유희세/劉熙世) (1993) 「韓国無教会」, NCM (ed.) 『無教会史II』, 新教出版社,
239-253.

[Korean]

한국원폭피해자협회(2011) 『한국원폭피해자65년사』, 한국원폭피해자협회.

[English]

Duró, Ágota (2017) “Confronting colonial legacies: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Japanese grassroots cooperation for the support of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PhD thesis submitted to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iroshima City University.

Duró, Ágota (2020) “Historical counter-narratives: Japanese Christians’ advocacy for South Korean atomic bomb victims”,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47.2, 279-303.

Hiroshima City, “How many people died because of the atomic bombing?”
(<https://www.city.hiroshima.lg.jp/site/english/9803.html>, 2019.10.21)

Mullins, Mark R. (2003) “Indigenous Christian movements”, in Mark R. Mullins (ed.), *Handbook of Christianity in Japan*, Leiden and Boston: Brill, 143-162.

Nagasaki City, “Damage caused by the atomic bombing”
(<https://nagasakipeace.jp/en/reference/materials/kids/higai.html>, 2021)

Oh, Eunjeong (2022) “Victims twice over: Return narratives of ethnic Korean atomic bomb survivors”, *Korean Anthropology Review* 6, 39-69.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수업의 효과 연구

—일본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The Study of Station Study Method in Korean Grammar Class

—Regarding the Beginners of Japanese Language—

柳美善*

ECC国際外語専門学校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법 교수 학습 방안의 하나로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해 학습자에게 적합한 교수 학습 모형을 설계하여 그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10대들의 한국어 학습자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학습자의 연령과 더불어 학습자의 환경에 맞는 다양한 교수법이 요구되고 있다. 국외 한국어 학습자의 대부분은 제한적인 학습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문법 중심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충분한 한국어 연습과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일본의 고등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스테이션학습법이 한국어

* Ryu Mi Sun(Lecturer, ECC Kokusai College Of Foreign Languages Korean Course)

E-mail: misonr@ecc.ac.jp

문법 수업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한다. 실험 방법으로 스테이션학습법을 통해 문법 형태의 정확성과 문법사용 능력의 향상을 위한 수업모형을 설계하여, 스테이션학습법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기존의 수업을 받는 통제집단, 두 집단의 각 학습자들의 문법 이해와 활용에 상이점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비교 분석한다.

2. 선행연구

2.1. 스테이션 학습법의 개념

스테이션학습법에 대해 최영진(2008)은 학습 내용을 여러 개의 부분 영역으로 즉, 스테이션들로 나누어 배치하고 학습자들이(조별로) 각 스테이션을 옮겨다니면서 해당 과제를 푸는 학습방법이라고 정의했다. 또한 이원경(2009)은 미리 준비된 필수과제와 선택과제가 배치된 몇 개의 학습 스테이션을 돌아가며 학습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새로운 학습요소를 배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맥락에서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신의 다양한 능력과 전략을 학습에 활용하는 원리, 자율적 책임과 자주성을 배우는 수업형태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스테이션학습법이란 기차역이나 지하철역과 같이 어떤 한 곳에 도착하기 위해 여러 역을 거치는 것처럼 학습자들이 학습 자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복수의 장소를 마련하여 학생들이 개인 또는 몇 개의 팀을 이루어 각 스테이션(장소)을 돌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법이라고 할 수 있다.

2.2. 스테이션학습법에 관한 연구

스테이션학습법에 대한 연구로는 이소현(2015), 이원경(2009), 최영진(2008), 김정은(2011)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미

비한 상태이다.

이소현(2015)은 학습자 활동 중심의 학습법으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여 학습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학습법의 하나로 스테이션 학습법을 제안하였고, 학습자들 간의 상호 작용이 적은 한국어 자모 교육 일부에 적용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원경(2009)은 스테이션 학습을 활용한 자기주도 학습으로 직업과 일을 주제로 일본인 독일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독일어 수업의 사례를 통해 스테이션 학습법이 학습자들의 상호 간의 협력과 학습 참여로 학습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집중력을 높이기 때문에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최영진(2008)은 독일어 교육에서 스테이션 학습을 중심으로 구성주의적 학습이론과 구성주의적 외국어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스테이션 학습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서술하였다. 김정은(2011)은 영어 수업에서 협력 교수를 통한 효과적인 스테이션 교수 방안 연구로 원어민 보조 교사와의 협력 교수에서 스테이션 교수를 적용하여 그 효과와 언어의 4가지 능력 향상에 대해 비교 분석했다.

2.3. 본고의 스테이션 구성의 특징

선행연구들을 통한 스테이션학습법의 특징 및 장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¹. 개인이 아닌 그룹별로 이루어지는 학습 형태로 학습자의 심적 부담을 덜어주며, 활동의 순서에 구애를 받지 않고 관심과 자신이 있는 활동부터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 자신의 능력에 맞게 학습량을 조절할 수 있어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특징과 장점이 있다. 또한 학습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주입식 학습과는 다른 자유로운 형태의 학습법은 학습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 형태는 학습자 간의 상호 협력을 끌어올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여

1 스테이션학습법의 특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원경(2009), 이소현(2015) 참조.

높은 학습 참여도를 기대할 수 있으며, 학습 참여도가 높아지면 학습자 중심의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

본고에서 스테이션학습법을 초급 한국어 수업에 적용하려는 이유는 일본인 학습자의 특성과 성향을 살펴 본 결과, 스테이션학습법의 특징 및 장점이 학습자들의 특성²과 성향에 부합하는 유익한 학습법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일본인 학습자들의 특성을 파악한 후 스테이션학습법을 적용했다. 특히 선행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스테이션 활동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스테이션 활동의 구성 과정에서 과제들의 상호 관련성과 난이도를 보완하여 설계하여 관찰한다.

3. 스테이션 학습법을 활용한 문법 수업 구성

3.1. 수업 모형 설계

스테이션학습법을 도입한 수업은 교재의 두 단원이 끝난 후 1차시의 정규 수업을 복습 수업으로 구성하며 수업 내용은 학습한 문법을 활용할 수 있는 복습 활동으로 설계한다.

스테이션의 활동 내용 및 구성은 교육 기관에서 정한 교재³를 바탕으로,

2 2013년 베네스 교육연구 개발센터가 발표한 고등학생 지도 조사 참조. 2015년 8월 28일, 국립 청소년 교육 진흥 지구 ‘고등학생의 생활과 의식에 관한 조사보고서-일본, 미국, 중국, 한국의 비교’를 참조. 2018년 4월 16일 실시한 교사들의 인터뷰 조사 결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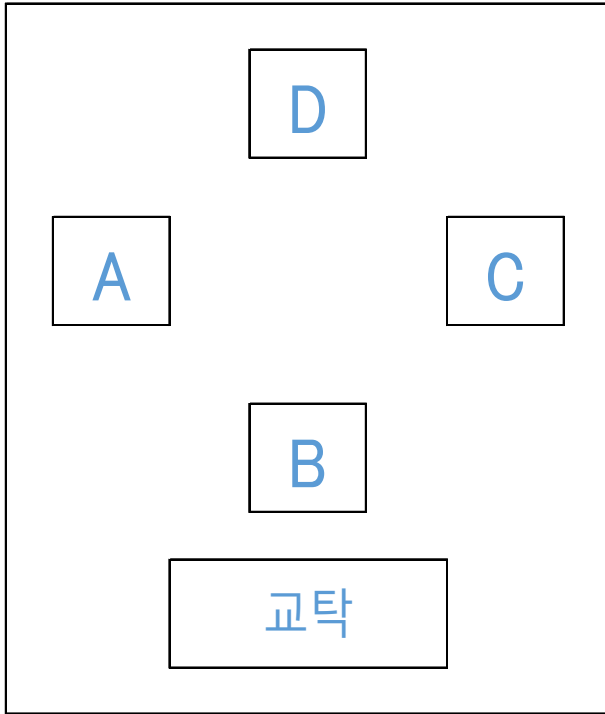
〈일본인 고등학생 학습자들의 특성〉

- 내향적인 성향이 강하다.
-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은 수동적인 수업형태에 익숙하며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의식이 부족하다.
- 학습자의 대부분이 질문이나 의견을 나서서 발언하기를 꺼린다.
- 아주 작은 실수에도 학습 의욕의 저하 현상을 보인다.
- 쉽게 포기하는 성향이 있다.
- 교실에서는 눈에 띄는 것을 싫어한다.
- 실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며 실패를 극복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3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는 ‘고등학생을 위한 한국조선어 신 스키야넵 한글 1(高校生のための韓

학습한 문법 항목 및 표현을 중심으로 단어, 조사⁴와 어미⁵ 및 표현 그리고 예문⁶을 사용하여 구성한다. 수업 자료는 활동 카드, 글자 카드와 스테이션 활동지, 기록 용지, 질문지 등이 있다. 또한 교실의 스테이션 배치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1> 스테이션 배치도



国朝鮮語新 好きやねんハングル I)이다.

4 수업 교재에서 학습한 조사 ‘~는/은, ~가/이, ~에, ~도, ~를/을, ~에서’만을 사용하였다.

5 수업 교재에서 학습한 어미와 표현 ‘~입니다, ~예요/이에요, ~있어요/없어요, ~고 싶어요’만을 사용하였다.

6 교재에 나오는 예문들을 말함.

3.1.1. 수업 단계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수업 단계는 기초적인 문법 지식을 반복 학습을 통해 내재화하고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여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도입 - 활용 - 마무리’ 순서로 진행된다.

1) 도입

도입에서는 학습한 문법의 형태를 확인하는 단계로 전체 학습자를 대상으로 간단하게 전시 학습⁷ 내용에 대해 환기시키고 본 수업의 핵심인 스테이션 학습법과 스테이션의 각 활동들에 대해 전체적인 틀을 그려놓고 각 스테이션에서 수행할 활동 내용을 요약한 활동 카드를 칠판에 붙여가며 설명한다.

2) 활용

활용 단계에서는 각 스테이션을 실질적으로 학습자가 그룹별로 수행하는 단계이다. 그룹별로 스테이션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스테이션의 내용은 쉬운 것에서부터 어려운 것으로 심화하고 확대되며, 난이도와 연계성을 가지도록 구성한다. 방성원(2003: 153)에서는 문법 제시와 내용 구성은 문법 형태의 생산성을 고려하여 단순한 제시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문법 형식이 확장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므로 스테이션 구성에서 활동 내용은 학습에 대한 이해와 학습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 본 활용 단계에서 사용될 스테이션 활동 내용과 구성은 김정우(2005), 김재욱(2009)에서 언급한 나선형 방식을 토대로 하였고, 각 스테이션은 난이도와 연계성을 가지도록 스테이션 A부터 D까지 4개로 구성된다. 또한 1차시 50분으로 정해진 수업 시간 안에 끝낼 수 있는 분량으로 제작하고 각 스테이션 활동 소요 시간은 각 5분씩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량이 적은 관계로 활동 내용은 교재 두 개 단원을 1차시의 실험 범위로 정하고 선정된 문법을 중심으로 설계하였다.

7 여기서의 앞 시간에 학습한 학습 내용들을 포함한 것을 전시 학습으로 표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될 스테이션 활동의 내용과 구성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스테이션 활동 내용과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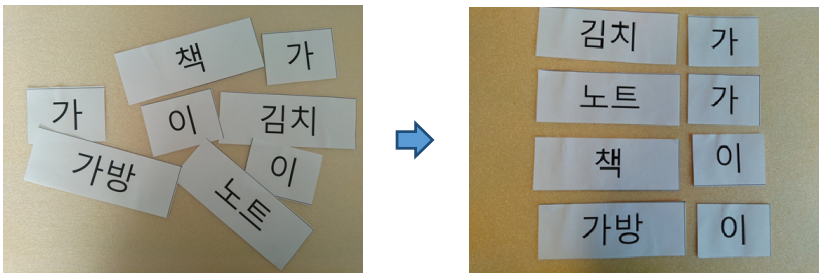
| 활동 | 활동 내용 |
|----|--------|
| A | 조사 선택 |
| B | 어미 선택 |
| C | 어순 배열 |
| D | 대화문 완성 |

스테이션 A에서는 조사의 쓰임을 구별하는 스테이션으로 구성한다.

(1) 조사 선택의 예

가: 노트가

나: 가방이



〈스테이션 A〉

한국어는 받침의 유무에 따라 조사의 쓰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 개념을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션B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항목⁸ 중의 하나인 어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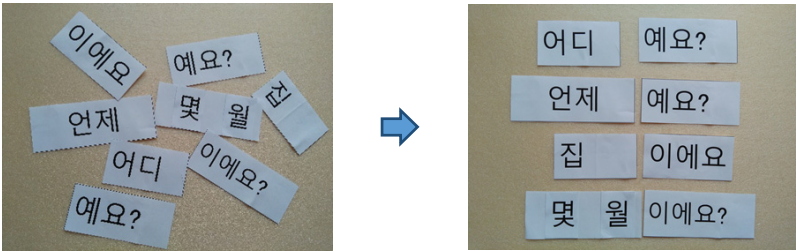
8 한국어의 어미 항목에 대해 성지연(2006)은 한국어 학습자가 학습의 초기 단계부터 고급 단계에 이르러서도 한국어 모어 화자와 같이 구사하기 어려운 항목 중의 하나로 어미를 지적

를 정확히 구별하여 쓸 수 있도록 단어와 어미의 대응 연습으로 만든다.

(2) 어미 선택의 예

가: 어디예요?

나: 집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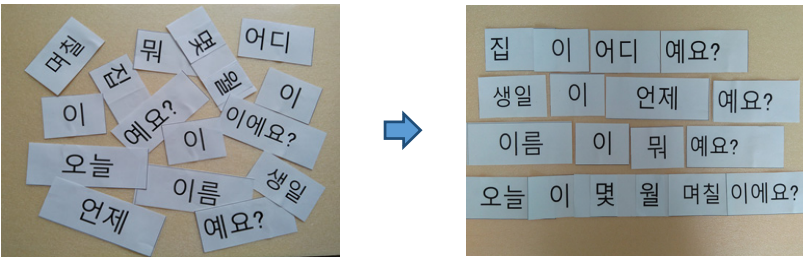
〈스테이션 B〉

스테이션 C는 스테이션 A와 B에서 반복 학습한 단어들과 조사, 어미 및 표현을 사용하여 어순에 맞게 정확한 문장을 만들어 보는 스테이션으로 구성한다. 이때 문장은 교재에서 다룬 예문들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3) 어순 배열의 예

가: 집이 어디예요?

나: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스테이션 C〉

하였다.

스테이션 D에서는 앞에서 내재화시킨 단어와 조사 그리고 어미 및 표현을 사용하여 각자 개별적으로 단문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하여 새로운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대화문 완성하기로 구성한다.

(4) 대화문 완성하기를 위한 질문의 예

| |
|--------------------|
| 以下は自分のことを書いてください。 |
| 어떤 음식을 좋아해요? |
| 주말에 약속이 있어요? |
| K-POP 아이돌 누구 좋아해요? |
| 언니가 있어요? |

〈스테이션 D〉

스테이션 D에서는 실제적인 의사소통 상황에서 학습자 간 활동을 구현하도록 한다.

3) 마무리

마무리에서는 기록 용지 작성을 끝내고 오늘의 수업에 대한 자기 평가와 소감을 기록한다.

3.2. 실험대상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실험 대상자는 오사카시 소재 고등학교의 초급 한국어 학습자 33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동질성 검사를 통해 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15으로 나누어 실험했다. 분석 방법은 문법 평가지⁹와 설문지 조사¹⁰로 실시하였다.

4. 실험 실제 및 결과

본 연구의 실험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 소재 S고등학교에서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수강하는 일본어 모어 학습자 33명이다. S고등학교 한국어 초급반은 2반이 개설되어 있고, 한국어 수업은 1주당 2회 수업으로 구성되며 1회당 50분 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험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로, 실험 집단 18명과 통제집단 15명이다.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 기간은 약 7개월 정도이며, 학습자의 한국어 수준은 한글 자모 학습을 끝내고 교재의 단원 수업을 시작한지 약 3개월 정도 되었고, 한글을 완전히 습득하지 못한 학습자도 있다. 학습자 연령은 16~17세이다. 학습자 전원이 사전 평가와 3회의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문법 수업, 그리고 사후 평가까지 참여하였다.

본 실험에 앞서 설계한 실험 자료와 실험 방법의 적절성을 위해 2018년 11월 27일에 예비 실험을 실시하여 수정·보완 사항을 확인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해 도출된 문제들을 개선하고 사전 평가를 통해 동질성 검사를 실시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선정하였으며 실험 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한 후 본 실험을 진행하였고, 본 실험은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실험 수업 후 두 집단을 대상으로 평가지로 문법 평가를 실시하여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의 학업 성취도 및 학업 만족도를 조사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실험을 실시한 모습은 〈그림 2〉와 같으며, 학습자가 그룹별로 수행한 활동의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9 문법 평가지는 문법 사용 능력과 학업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 도구로 우연희(2017)를 참조하여 본 실험의 학습자의 학습 범위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10 학습자의 문법 학습에 대한 인식과 학업에 대한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 조사는 우연희(2017), 편정금(2016)과 노보리카와 에리(2015)의 설문지를 참고로 작성하였다.

〈그림 2〉 실험의 실제

활동 순서 의논



활동 수행1



활동 수행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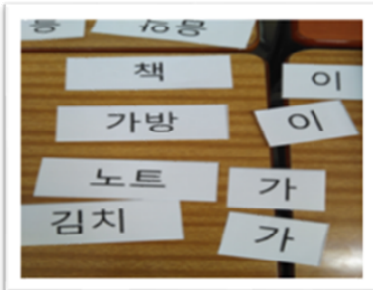


활동 수행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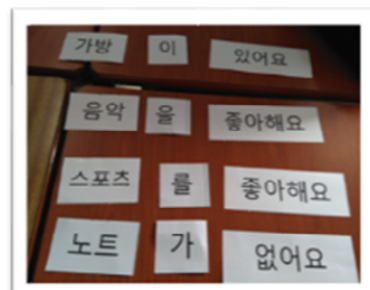


〈그림 3〉 학습자 과제 수행 결과

스테이션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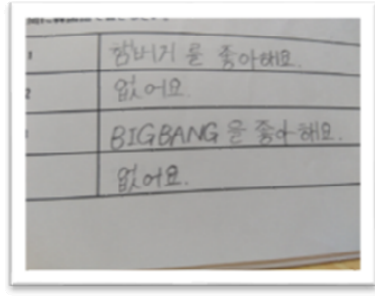
스테이션 B



스테이션 C



스테이션 D



4.1. 본 실험

본 실험의 학습 내용은 교재 1과에서 6과까지의 범위 내에서 도출된 초급 문법 항목 조사 6개, 어미와 표현 5개로 총 문법 11가지이다.

본 연구에서 스테이션학습법을 도입하는 시기는 교재의 두 단원이 끝난 후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실험은 2학기말과 3학기에 걸쳐 3회 실시하며, 실험 실시일은 2018년 12월 11일, 2019년 1월 15일, 2월 12일이며 단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실험 전 실험집단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문법 학습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알아보았고, 실험 집단은 5명씩 2팀, 4명씩 2팀으로 총 4개의 팀으로 구성되었다.

실험은 1차시 50분 수업으로 구성되며 실험 집단에서는 수업 모형의 지도 안에 따라 도입 - 활용 - 마무리의 3단계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한편 통제집단에서는 기존의 수업 모형(도입 - 제시 - 연습 - 활용 - 마무리)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 내용의 범위는 교재 1과부터 6과까지 2단원씩 묶어서 구성하였고 해당 단원 안에서 나온 문법들을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1회 실험에서는 조사 ‘~는/은, ~가/이’와 어미 ‘~입니다, ~예요/이에요’를 중심으로 스테이션의 활동을 구성하였고, 2회에서는 조사 ‘~에, ~도, ~를/을’과 숫자, 의문사 그리고 어미와 표현 ‘~있어요/없어요, ~를/을 좋아

해요'를 중심으로 수업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마지막 3회에서는 조사 '∼에서'와 함께 '∼고 싶어요'의 표현을 중심으로 스테이션의 활동을 구성하여 수업 지도안을 설계하였다.

4.2. 실험 결과

앞 절에서 제시한 문법 항목을 중심으로 만든 문법 평가지를 사용하여 마지막 실험이 끝난 2019년 2월 12일에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33명 전원을 대상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측정된 자료는 통계 처리 프로그램 IBM SPSS Statistics 19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하였다.

아래는 스테이션학습법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통제집단의 활동 전과 후의 평가 결과를 통해 학업 성취도와 수업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표 2〉 사전·사후 평가 결과 비교

| 출제유형 | 집단 | 평가 | 평균 |
|----------|------|------|-------|
| 1. 조사 선택 | 실험집단 | 사전평가 | 15,55 |
| | | 사후평가 | 18,61 |
| | 통제집단 | 사전평가 | 18,00 |
| | | 사후평가 | 21,00 |
| 2. 어미 선택 | 실험집단 | 사전평가 | 13,33 |
| | | 사후평가 | 22,77 |
| | 통제집단 | 사전평가 | 17,33 |
| | | 사후평가 | 15,67 |
| 3. 어순 배열 | 실험집단 | 사전평가 | 11,94 |
| | | 사후평가 | 20,00 |
| | 통제집단 | 사전평가 | 13,00 |
| | | 사후평가 | 13,00 |

| | | | |
|-----------|------|------|-------|
| 4. 대화문 완성 | 실험집단 | 사전평가 | 10.28 |
| | | 사후평가 | 23.33 |
| | 통제집단 | 사전평가 | 11.00 |
| | | 사후평가 | 11.33 |
| 총점 | 실험집단 | 사전평가 | 51.11 |
| | | 사후평가 | 84.72 |
| | 통제집단 | 사전평가 | 59.33 |
| | | 사후평가 | 61.00 |

전체적인 총점에서 실험집단의 사후평가 평균은 84.72점이고 통제집단의 평균은 61점으로,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해서 문법 수업을 한 집단이 문법 시험에서 더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4.2.1. 문법 형태의 정확한 사용 능력

학습자들의 문법 사용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 유형¹¹의 ‘조사 선택’, ‘어미 선택’, ‘어순 배열’을 살펴본 결과 ‘조사 선택’을 제외한 두 유형 모두 실험집단의 평균 성적이 통제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선택

〈유형 1〉에서 학습자는 조사 ‘~는/은, ~가/이, ~에, ~도, ~를/을, ~에서’의 쓰임을 이해하고 구별해야 한다. 사후평가의 평균 결과만으로 살펴보면 실험집단이 18.61점이고 통제집단이 21.00점으로 통제집단의 점수가 2.39점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사전평가 때보다 점수가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반복 학습을 통해 형태에 다소 익숙해진 것으로 추측된다.

11 여기서 말하는 유형은 문법 평가지의 출제 유형을 말한다.

2) 어미 선택

〈유형 2〉는 어미와 표현 ‘~입니다, ~예요/이에요, ~있어요/없어요, ~고 싶어요’의 적절한 형태를 학습자가 직접 찾아서 써야 한다. 사후평가의 평균 결과를 보면 실험집단은 22.77점이고 통제집단은 15.67점으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7.1점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실험집단은 사전과 사후의 평가 차이가 9.44점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계성 있는 활동들로 구성된 스테이션학습법을 적용한 수업이 학습자들에게 문법의 형태를 정확히 익히고 내재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3) 어순 배열

〈유형 3〉은 문장의 구조를 학습자가 이해하고 정확한 문장의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영역이다. 한 문장을 순서 없이 배치하였고 학습자는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의미를 이해하여 어순에 맞게 배열해야 한다.

한국어는 일본어와 동일한 어순 체계를 가지고 있어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문장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유형 3〉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의 사후평가의 평균 점수는 20.00점이며, 통제집단은 13.00점이다. 실험집단의 점수가 7점 높게 나타났다. 실험집단에서는 스테이션의 활동들을 학습자가 상호 협력하여 함께 문장의 구조를 발견하고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통제집단의 학습자보다 정확하게 문장의 구조를 이해한 것으로 추측된다.

4.2.2. 맥락에 따른 문법 사용 능력

〈유형 4〉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맥락에 따른 문법 사용 능력을 비교한 결과이다. ‘대화문 완성’으로 주어진 질문에 적절한 답을 적어야 한다.

4) 대화문 완성

사후평가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실험집단이 23.33점, 통제집단이 11.33

점으로 두 집단 간의 평균 점수 차이가 12점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 실험 집단과 통제집단 간의 문법 사용 능력에서 적지 않은 격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실험집단의 경우 사후평가에서 13.05점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실험집단의 학습자들이 스테이션학습법을 통해 문법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배우고 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 수업에서는 반복 연습을 위주로 한 반면,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본 수업에서는 내용에 대한 이해와 개념 학습을 전제로 해당 문법 항목이 전형적으로 쓰이는 상황을 기본으로 연습하였으며 학습자 간에 서로 문제를 읽고 답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문법 항목에 대한 형태와 의미를 상황 및 맥락과 결합시키는 연습을 통해 학습자의 이해 폭이 넓어졌고 문법을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는 활용도도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4.2.3. 문법 학습에 대한 인식 변화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이 한국어 문법 학습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실험집단의 학습자 18명을 대상으로 아래 <표 3>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사후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3> 한국어 학습 및 문법 수업 관련 사전·사후 결과 비교

| 번호 | 질문 사항 | | ⑤ 매우 그렇다 | ④ 그렇다 | ③ 보통 이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평균 |
|----|--------------------|----|----------------|----------|---------------|----------------|----------------------|------|
| 1 | 한국어에 관심과 흥미가 많다. | 사전 | 8 | 3 | 5 | 2 | 0 | 3.94 |
| | | 사후 | 10 | 5 | 3 | 0 | 0 | 4.39 |
| 2 | 한국어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 사전 | 2 | 8 | 3 | 5 | 0 | 3.39 |
| | | 사후 | 11 | 3 | 4 | 0 | 0 | 4.39 |
| 3 | 한국어를 유창하게 잘하고 싶다. | 사전 | 1 | 3 | 8 | 5 | 1 | 2.89 |
| | | 사후 | 6 | 5 | 7 | 0 | 0 | 3.94 |
| 4 | 한국어 문법 학습에 관심이 많다. | 사전 | 1 | 3 | 5 | 4 | 5 | 2.5 |
| | | 사후 | 4 | 5 | 8 | 1 | 0 | 3.67 |

| | | | | | | | | |
|---|---------------------------|----|---|---|---|---|---|------|
| 5 | 수업 시간 외에 따로 한국어 문법을 공부한다. | 사전 | 0 | 1 | 2 | 9 | 6 | 1.89 |
| | | 사후 | 0 | 5 | 6 | 2 | 5 | 2.61 |
| 6 | 한국어를 배울 때 문법은 중요하다. | 사전 | 1 | 7 | 2 | 7 | 1 | 3 |
| | | 사후 | 6 | 7 | 3 | 2 | 0 | 3.94 |
| 7 |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 사전 | 0 | 3 | 5 | 8 | 2 | 2.5 |
| | | 사후 | 3 | 7 | 5 | 3 | 0 | 3.56 |

사전 설문 조사 결과에서, 학습자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흥미는 있으나 문법 수업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립적인 학습 여부를 묻는 ‘수업 시간 외에 따로 한국어 문법을 공부한다’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습자가 한 명도 없었으며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의 학습자가 문법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는 여전히 학습자들에게 있어 문법 학습은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문법 학습에 대한 더 쉽고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자발적인 학습 및 학습 흥미도를 조사하는 2번 문항과 5번 문항에서의 변화 폭이 나타났다. 그 원인은 준비된 활동들을 학습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스테이션의 과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 참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수업의 중심이 교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되면서 학습자의 주도적인 학습이 시행된 결과로 분석된다. 즉,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수업 모형에서 설계한 수업의 활용 단계가 잘 실현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4.2.4. 스테이션학습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수업의 만족도를 조사하는 문항에서 <표 4>와 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 4>를 보면, 스테이션학습법을 도입한 수업이 기존의 문법 수업보다

12 기준은 기존 수업을 의미하며 SL은 Station Learning의 약자로 스테이션학습법(Station Learning)을 활용한 수업을 의미한다.

〈표 4〉 수업 방식에 따른 학습자 만족도 비교

| 번호 | 질문 사항 | | ⑤ 매우 그렇다 | ④ 그렇다 | ③ 보통 이다 | ② 그렇지 않다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평균 |
|----|----------------------------------|------------------|----------------|----------|---------------|----------------|----------------------|------|
| 15 | 수업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수업 순서, 활동 등) | 기존 | 0 | 0 | 6 | 4 | 8 | 1.89 |
| | | SL ¹² | 8 | 4 | 6 | 0 | 0 | 4.11 |
| 16 |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수업 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 SL | 7 | 9 | 2 | 0 | 0 | 4.28 |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수업 방식 간의 학습자 수업 만족도의 차이는 2.22점으로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수업이 기존 수업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테이션학습법을 적용한 수업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학습자들은 대체적으로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문법 수업에 만족하고 있으며, 동료 학습자들과 함께 배운 문법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응용했기 때문에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또한 학습자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학업 성취감 및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고, 스테이션학습법을 적용한 문법 수업이 학습에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는 앞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스테이션학습법의 특징인 ‘수준별 학습’, ‘상호작용(활동 수행)’, ‘수업 참여도’, ‘학습 효율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¹³ 따라서 스테이션학습법은 학습자의 학습 수준과 학습 형태 및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변형이 가능한 수업 모형으로써 수업에 적용한다면 학습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의 고등학생 학습자를 대상으로 스테이션학습법이 한국어

13 이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이와 같은 수업을 하고 싶다’, ‘활동을 통해 수업을 이해할 수 있었다’는 스테이션학습법에 대한 학습자의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다.

문법 수업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고찰했다. 고찰 방법으로 스테이션학습법을 도입했다. 구체적으로 문법의 정확성과 사용 능력의 향상을 위한 수업 모형을 설계하여, 학습자들의 문법 이해와 활용에 상이점이 나타나는지를 관찰했다.

〈표 2〉가 시사하듯이 조사 선택을 제외한 어미 선택과 어순 배열, 대화문 완성에서는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수업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본 실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수업이 학습자의 수업태도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스테이션학습법을 이용한 난이도와 단계성이 내재된 학습 활동은, 문법 학습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한국어의 사용 능력 향상에도 유익한 역할을 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실험 결과로 유추하자면 스테이션학습법을 활용한 문법 수업은 문법 학습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수업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표본의 크기가 작으며 문법 학습 단계를 세분화하기에는 그 기간이 짧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본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여 학습자의 용이한 문법 학습을 위해 학습자 수준에 부합하는 문법 단계를 세분화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재욱(2006) 「수업구성 원리에 따른 한국어 문법 교수 방법」, 『언어와 문화』 2권1호, 한국: 언어문화교육학회, 19-36.
- 김재욱(2009)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내용 설정 연구-교육 문법 내용의 영역, 등급과 순서제시」, 『문법교육』 10권 0호, 한국문법교육학회, 65-91.
- 김정숙(2002) 「한국어 문법 교육의 체계와 방법론」 토론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2년도 추계, 제18차 학술대회,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7-20.
- 김정우(2005) 「한국어 교재 개발을 위한 중국 교수·학습자들의 요구 분석 연구」, 『한국어

- 교육』 16-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99-129.
- 김정은(2011) 「협력교수(Co-Teaching)를 통한 효과적인 스테이션교수(Station Teaching) 방안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중섭 외(2017)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 연구」, 국립국어원.
- 나영자(2007)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수업: 중학교 의사소통 중심 영어 수업의 효과」,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노보리카와 에리(2015)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수업에서의 협동학습 활용 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현(2015) 「학습자 활동 중심의 스테이션 학습법-한글 자모 학습을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26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67-297.
- 이원경(2009) 「스테이션학습을 활용한 자기주도학습: “직업/일”을 주제로 한 독일어 수업의 예」,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25집, 한국독일어교육학회, 69-91.
- 정희진(2018) 「초등 영어 수업에서 스테이션을 활용한 협력적 자기주도학습의 효과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형(2015) 「자기주도 영어 학습계약 활동지 적용이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 및 토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 최영진(2008) 「구성주의와 독일어 교육-스테이션학습(Stationenlernen)을 중심으로」, 『독일어교육』 41집, 한국어독어독문교육학회, 43-65.
- 편정금(2016), 「블렌디드 러닝 기반 한국어 말하기 수업의 효과 연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인터넷 자료〉

- TJF(2005)国際文化フォーラム(TJF)とアジア言語:
<http://www.tjf.or.jp/ringo/archive/hokoku.php>, 2018. 5. 3)
- ベネッセグループ: (<https://www.benesse.co.jp>, 2018. 5. 3)
- 大阪府立高校における英語以外の外国語開設状況:
http://www.pref.osaka.lg.jp/kotogakko/kakusyu/english_international.html, 2018. 6.22)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수학습센터: (<https://kcenter.korean.go.kr/>, 2018. 6. 10)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에 있어 조선어 사전 편찬의 역사적 변천을 수반한 타이포그래피의 변화(1945-2007)

Change of Typography in the North Korea with Historical
Transitions of Korean Dictionary Compilation (1945-2007)

劉賢國*

筑波技術大学

1. 머리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측’으로 기입한다)의 국어사전 편찬은 우리 국어사와 활자인쇄사에서 특필할 만한 큰 사업이다. 남북분단 이후 북측의 국어 사전에서 언어는 사회상을 반영하는 거울로 비유되고 있다. 즉 언어는 그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 시대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 문법과 철자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학술용어와 각 전문용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일제강점기의 시대가 남긴 일본식 용어 수정 문제와 새로운 표기환경의 가로쓰기, 가로조합에 맞춘 본문용 소형활자 제작 등 간행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광복 직후 북측은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잔재 청산의 국책에 따라 국한문 혼용 세로쓰기 문화에서 새로운 조선어 전용 가로쓰기 문화로 단기간에 이행을 추진하였다. 그와 같은 시기에 조선어의 혁명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한자를 철폐하고 새로운 문자까지 만들어 언어와 문자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국어 사전 편찬사업에 전력을 기울인 것은 민족공통어가 확립되어 있지

* Ryu Hyun Guk(Professor, Tsukuba University of Technology)

E-mail: h-ryu@a.tsukuba-tech.ac.jp

않았기 때문이었으므로 무엇보다도 이를 서두를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 사업은 1954년 6·25전쟁이 끝날 무렵까지 이어진 반제 반봉건혁명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언어정책으로도 이어지는 중요한 사업이 되었다.

당시 북측에서 국어사전 편찬사업을 주도한 기관은 조선어문연구회(1946년 7월 북조선인민위원회 교육국의 후원으로 조선어문 연구자들이 조직한 단체)였다. 이곳에는 일제강점기에 조직된 조선어학회(1921 - 현 한글학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극로(1893-1978)를 비롯해 남측에서 북측으로 간 국어학자 중 상당수가 참여하고 있었다. 이들의 노력은 일제강점기부터 진행된 조선말대사전 편찬사업의 내용을 이어받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후 1949년 말 사전 원고 집필이 완성돼 출판의 결실을 맺을 전망이었으나 뜻밖에도 1950년 6·25전쟁 발발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휴전 직후 전쟁복구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에서 그 노동력 확보를 위해 읽고 쓰기가 서툰 대중을 설득하여 동원을 할 필요가 있었으며, 대중에게 노동의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알기 쉬운 말을 어휘규범으로 사전에 편입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언어정화사업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시작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사회주의 건설에 필수적인 정치 경제 용어 등도 사전에 수록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백과사전을 비롯한 각 분야별 사전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전 편찬에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다.

따라서 북측의 국어사전 편찬 사업의 시작은 1954년 『조선어철자법』의 정비에 이어서 1956년 『조선어소사전』이 간행된 것이 시초가 된다. 그러나 이들 사전은 본격적인 사전 편찬 과정에서 얻은 일종의 중간 수확이어서 사전다운 사전은 1960년부터 1962년 사이에 편찬된 『조선말사전』의 출간을 기다려야 했다. 최종적으로는 이 사전이 북측의 어휘 규범을 일원적으로 완성한 것으로 출판에 이르고 있다. 이후 국어 사전의 역사적 편찬에 따라 보기 쉽고, 읽기 쉬운 조선어 소형활자의 개발과 개량을 거듭해오면서 발전되어 왔다.

현재 북측에 있어 본문용 디지털 전자 서체의 씨 글자로서 출발점이자 동

시에 타이포그래피 연구의 학술적인 기초자료가 여기에 축적되어 있기에 연구가치가 크다.

2. 대표선행연구의 고찰

2.1. 대표 선전화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발전 요소와 표현 방법의 변화

류현국[2019] “공화국의 정치 선전 포스터 디자인의 역사적 변천으로 형성된 공화국의 스타일(1945-2019): 시대 구분으로 본 선전 포스터의 창작과 그 특징”

이 연구는 선전화의 각 시대의 흐름 속에서 북측사회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 산업 발전의 기술 수준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 살펴보고 있다. 북측 미술은 6·25전쟁 이후 선전화에 있어 국가 경제 복구기부터 60여 년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재편성하여 6단계의 시대구분으로 나누어서 논하고 있다. 각시대의 대표 선전화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피 디자인의 발전 요소와 표현 방법의 변화와 그 배경에 관해서 실증자료의 검증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정치 선전화 표현상에서 타이포그래피의 영역인 정치적 혁명 구호 내용과 정치 선전 포스터 구호의 레터링(도안글자)에 나타난 고딕체(천리마체)의 레터링 표현형식을 통하여 북측의 상징체제에 나타난 ‘공화국 스타일’의 생성 과정과 그 특징적 요소에 관해서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서 기초 자료로서 그 가치가 크다(류현국 2019: 26-39).

2.2. 국어교육의 변천과 인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사용된 타이포그래픽의 발전 동향

류현국[2019] “북한 ‘국어’ 인민학교 교과서에 제시된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우리글』 유치원용 및 『국어』인민학교 1학년부터 4학년 교과서 분석”

이 연구는 남북이 분단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 남측에서 처음으로 북측 국어교육의 변천과 국어 교과서에 사용된 타이포그래피의 발전과 그 동향에 관해 최신 자료를 분석해 소개했다. 해방 후 북측에서 새롭게 등장한 『국어』 인민학교 교과서에 표시된 내용의 정밀조사는 학습요소, 문자지도와 그 특성, 그리고 교육정책의 변화에 따른 새 교과서 출판을 위한 활자 서체 개발과 그 동향을 정리하였다. 또한 서체의 특징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고 이를 정리했다.

이 연구는 해방 후 북측에서 새롭게 등장한 한글 규범과 조선어의 실상을 파악하고 5종의 국어 교과서를 소재로 교과 내용과 편집 시스템을 분석하였다. 특히 조판과 타이포그래피의 특징을 명확히 한 것은 학술적 가치가 크다. 이 연구는 우리 민족의 타이포그래픽 디자인 발전과 남북 학술교류의 징검다리가 될 연구로 기대된다(류현국 2019: 30-42)].

2.3. 조선어 서체의 원형과 원류

류현국[2020] “조선어 서체의 원형과 원류(1909-2019): 청봉체, 천리마체, 명조체, 메힘체의 기본서체를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측의 조선어 서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연구대상에 따라 크게 ‘서예와 서체’, ‘디지털 전자서체’, ‘서체담화’의 세 가지 연구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조선어의 기본서체가 갖는 의미와 시각문화적 특성을 역사적 문맥으로 읽고 6단계 시대 구분에 따른 서체 디자인 분석을 통해 근대활자사에서 현대서체사까지의 원형과 원류에 대해 밝히고 있다. 또한 각 서체 자형의 영향관계 유무 등에 대해 처음으로 밝히고 북측의 근 현대 활자인쇄사에서 미해명으로 남겨진 부분을 실증적인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서 관련 사항을 밝혔다.

이 연구는 국내외에서 북측의 문헌조사를 충실히 실시하여 현대활자인쇄사의 역사적 변천을 정리하여 보다 실증적이고 정확한 활자문화를 이해하고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조선어 타이포그래피 학술연구의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류현국 2020: 349-380).

3. 연구의 목적과 방법

3.1.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1945년 8월 『조선말사전』 편찬계획부터 1992년 『조선말대사전』 출간까지의 시대구분을 통해 개관하면서 국어사전 간행에 따른 서체 변천사와 그것이 갖는 의미를 검토한다. 이 시기의 북측에서 서체개발에 대해 검토하려는 것은 당시 공화국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진 그 운영이 현대활자인쇄사의 기반을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북측의 현대활자인쇄사 관점에서 조선어사전편찬, 언어정책, 문자정책을 국어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킨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북측의 국어 사전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편집 체제에서 어떤 서체를 개발하면서 추진되었는지를 명확히 밝힌다. 특히 국어사전의 역사적편찬에 따라 개발된 본문용 소형 서체에 대한 문헌자료분석을 통해 우리 현대활자인쇄사에서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여 올바른 기록을 남긴다.

3.1. 연구의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 범위를 설정하고 사전 간행에 따른 서체 개발에 관한 내용을 다룬다.

연구대상은 북측에서 출판된 각종 사전류와 연구서 및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소형활자 형태의 특징에 관한 내용이다. 북측에서는 사전 분기가 커 백과전서적 사전이나 언어학적 사전으로 나누고 있다. 김수경(1965)에 의한 분류는 해방 후 북측의 사전 분류에도 영향을 준다. 주석사전은 규범주석사전이나 주석사전으로 나뉘는데 전자에서는 어휘규범을, 후자에서는 어휘주석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국어 사전의 간행에 사용된 소형 활자가 읽기 편리함과 편안함을 해결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범위는 순수 언어의 사전 중에서도 주석사전을 중심으로 한다. 더불어 사전 편찬은 언어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응용언어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북측의 문화어 운동 등 언어와 문자정책의 국어사 관련 사항도 간단히 살펴본다. 특히 사전 출판에 사용된 소형활자의 본문용 서체에 있어 자형 연구의 진행과 분석은 각 시기의 구분에 따른 주석사전을 중심으로 하며, 기타 특수사전 등은 간략하게 살펴본다.

4. 북측의 역대 국어사전의 분류와 간행의 개괄

4.1. 국어사전의 분류

박금자(1989: 173-196)에 따르면 북측의 국어사전은 언어가 사회 발전의 무기로 파악하고 있는 언어관이 사회를 지배하기 때문에 사전의 성격은 규범적일 뿐만 아니라 교조적이며 사상적이라고 결론 내린 듯한 성격이 바로 그 사전 편찬의 기본 이론이기도 하다.

북측 국어사전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불러온 국어사전이라는 부류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서 넓은 의미에서 ‘국어’로 쓴 것은 ‘한민족의 언어’처럼 확대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북측의 국어사전은 계급적 편향성을 크게 띠고 있다. 따라서 국어사전이 포괄하는 말의 부류, 즉 이들이 말하는 사전의 어휘 구성이 한국의 국어사전과 미묘하게 많은 부분이 이질적이어서 북측의 국어사전을 한국사전과 동질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북측 국어사전이 갖는 어휘나 의미 해석에 있어서 정치 사상적 편향성은 말의 이질성을 제외하면 한국어사전의 성격적 특성과 유사하다(최호철 1989: 195-223).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어휘의 양이나 사전 크기를 중심으로 하는 대사전, 중사전, 소사전과 같은 분류 방법 외에 어떤 입장, 어떤 원칙 아래 사전을 편찬할 것인가 하는 편찬상의 전제 문제를 추종하여 이루어진다.

4.2. 국어사전 간행의 개괄

북측의 국어사전 간행 역사를 개괄해 본다. 1949년 10만 개 정도의 어휘를 담은 조선말사전 원고가 완성됐다. 그러나 1950년 6·25전쟁 발발로 간행하지 못하였다.

최초의 국어사전은 1954년 『조선어 철자법』이 공포되어 1956년 『조선어 소사전』 간행에 반영한 41,927개의 어휘를 싣고 있다. 1962년 『조선말사전』은 1961년 7월 첫 번째 책이 발간되었으며 1962년 11월 6권 발간으로 완간된 187,000개의 어휘를 올림말로 하였다. 『현대조선말사전(1판)』(1968)은 1,350쪽에 총 어휘 수는 50,000개이다. 여기에는 1966년 개정된 조선말 규범집 내용이 반영돼 있다. 1973년 『조선문화말 사전』에 67,000개의 어휘를 실었는데, 이는 1964년 김일성 주석의 제1차 교시 발표 10주년을 기념한 것이다. 1981년 사전은 김일성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충성 선물로 마련된 것으로 136,000개의 어휘가 포함되어 있다. 1992년 사전은 김일성 주석의 80세 생일과 김정일 총서기의 50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기재돼 있는데 이는 1987년 신규법집을 반영한 사전으로 1962년 조선말사전 간행 이후 북측의 첫 번째 대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5. 시대구분에 따른 국어사전 편찬과 그 특징

5.1. 제1기(1945-1954): 『조선어 소사전』의 편찬

북측 정부 수립 이후 언어정책을 주도해 온 조선어문연구회는 해방 후부터 출현한 각 지방인민위원회들의 정치발전의 결과에 기반하여 식민잔재청산과 민주개혁의 주도를 위해서 1946년 2월에 설립된 북한 최초의 실질적 중앙주권기관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1947년 2월 3일, 결정 제175호)에 따라 김일성대학교(1946년 10월 1일 설립)에 본부를 두고 출범했다. 조선어문연구회의 당면 과업은 조선어표준문법 제정, 조선어사전 편찬, 잡지 발행과 출

판사업 등이었다. 우선 조선어표준문법 제정사업은 남북한을 통틀어 아직 표준문법 제정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표준문법 제정이 어문통일의 기본이 되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1952년 12월 사회과학원이 설립되고 그 산하에 ‘조선어와 조선문학연구소’로 개편된다. 또한 1956년 3월에 ‘언어문학연구소’로 개칭하게 된다(조선어문3호 1956: 110).

북측은 사전 편찬을 서둘렀다. 그 결과 『조선어소사전』은 1955년 8월에 완성되었고 1956년 2월에 초판이 출판되었다. 당시 북측에서는 『조선어소사전』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조선어 소사전은 현대 조선사회의 현실적인 요구에 부응하면서 단어의 의미주석을 마스 레닌주의적 철학에 입각해 정당한 과학적이고 전 인민적인 이해관계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어휘 수록에서도 현대 조선어의 표준어 상태를 가능한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면서 특히 광복절 이후 전 인민에게 널리 쓰이게 된 단어나 표현을 널리 수록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서 어휘 구성에서 벗어나 소극적인 오래된 단어, 예를 들어 사용 빈도가 매우 낮은 고유어와 부정적인 어휘가 많은 한자 어휘와 고어를 비롯한 지역적으로 방언적인 성격을 지닌 단어, 각종 통용어, 특별용어, 개인 또는 지역적 색채가 짙은 의성어 의태어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 사전은 현대 북측 표준어의 정확한 사용, 그 형태의 정확한 조성, 정확한 발음, 또 정확한 표기 문제에도 큰 힘을 쏟았다(조선어소사전 1956: 3-14).

5.2. 제2시기(1956-1966): 『조선말사전』의 편찬

『조선말사전』(1960-62)을 간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문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학술용어 및 각 전문용어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다. 일제강점기가 남긴 일본식 용어 수정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당시 전혀 놀랍게도 철자법의 규범조차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1954년 『조선어 철자법』은 1966년 『조선말 규범집』이 제정될 때까지 사용되었다(조선어 철자법사전 1956: 1-10). 북측 문화사에서 특필할 만한 이 큰 사업의

로 19세기 말부터 1960년대 초까지 다양한 출판물에 사용된 어휘를 폭넓게 수록하고 고어와 방언도 수록하였다. 이 사전은 1936년부터 1947까지의 『조선어대사전』 편찬에 참여한 월북언어학자들의 주도로 편찬된 점과 이후 공화국 사전 편찬의 바탕이 된 것으로 사전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높은 사상성과 과학성 체계성, 규범성이 확고히 보장되었음을 의미 해석 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조선사전 편찬론 연구 2005: 59).

6·25 전쟁 후 회복기의 국가 주도적 언어 정책은 1964년과 1966년 두 차례에 걸쳐 제시된 김일성 주석 교시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그것은 절대적 통치자인 지도자의 한마디에 따라 국가의 언어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되고 있는 좋은 예이다. 그 두 번의 교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는 문자개혁 문제, 두 번째는 한자어 문제, 세 번째는 외래어 문제, 네 번째는 한자 사용 문제, 다섯 번째는 단어 형태의 표시 문제, 여섯 번째는 어휘 정리 문제, 일곱 번째는 언어생활 문제, 여덟 번째는 조선어 교육 문제 등이다. 이들은 북측의 언어생활에 관한 다양한 항목을 통해 언급된 것으로 북측의 주체적인 언어이론과 언어정책으로 발전해 나가는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다.

5.3. 제3시기(1966-1987): 『현대조선말사전』의 편찬

김일성 주석 「제2차 교시」(1966)의 발표 후부터 『조선어문』과 『문화어학습』이 간행되어 문화어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조선말규범집』(1966)이 공포되어 평양말을 기준한 문화어의 개념을 제시한 뒤, 현실에 맞게 인민들의 언어생활에서 문화성을 더욱더 높일 것을 요구하고 우리들이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데서 지켜야 할 온갖 규범들을 과학적으로 더욱 정밀화 한 통제사전이 출현하기 시작했다(최호철 2012: 251-256). 1966년 이후 내각 직속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국어사정지도처 및 언어학연구소 산하 전문용어분과위원회의 작업으로 말다듬기 사업이 추진되었다. 김일성 주석 교시를 기반으로 하여 국어순화를 강력히 추진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후 『현대조선말사전』(1968)에는 문화어 기본 단어 약 만 개의 표제어를

선정하여 게재하였다. 『조선문화어사전』(1973), 『현대조선말사전』(제2판)(1981)이 출간되었으나, 이 사전에는 한자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수사전으로는 학생용 『우리말사전』(1978), 『우리말어휘및 표현』(1979), 『방언사전』(1980), 『조선속담』(1984), 정순기·리기원(1984)의 『사전편찬리론연구』 등이 간행되었다(이상익 1992: 611).

특히 『사전편찬리론연구』(1984)는 원칙과 실례를 다루되 주로 사전편찬 과정에서 경험한 실제 문제들에 관해 일정한 기준을 밝히려 했다. 머리말에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가 교시 내용을 사전의 기본원칙으로 ①주체성의 원칙, ②당성·노동계급성·인민성의 원칙, ③현대성의 원칙, ④과학성과 규범성의 원칙 등 4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5.4. 제4시기(1987-): 『조선말대사전』(1992)과 증보판(2006-2007)의 편찬

한자어를 쓰는 경향은 여전히 다듬은 말 보급에 주력하여 지금까지의 어휘정리에 대해 반성하고 새 기준을 마련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언어리론 연구’(1990)를 보면 제2기의 ‘말과 글의 문화성’(1963)을 시작으로, 제3기 문화어운동 시기를 거쳐, 제4기에는 문화어에 대한 검토와 정리를 하고 있다. 굳어진 한자어와 외래어(방, 학교, 잉크, 샤쓰)들은 어휘정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식으로 다듬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하는 과업이 제기에 놓인 중요한 목표인 셈이다. 다듬은 말을 민중에게 보급하는 일이 우리 하였다는 점을 반성하고, 그 내용을 더 세련되게 정리하여 시간을 더 주어 소화·수용시키려 하는 것이다.

『조선말대사전』(1992)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언어학을 연구하는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1992년에 편찬하여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간된 문화어 사전이다. 1980년까지 평안도, 함경도, 강원도의 방언 중 3100여개를 선별하고 그것을 ‘문화어’로 사용하는 것이 포함 되어있다. 이처럼 북측에서는 언어 학자들에 의해 ‘문화어 운동’의 일환으로 새로운 단어로 발굴된

것은『조선말대사전』(1992)에 새로운 단어로 추가되어있다. 이 사전은 풀어 쓰기 어와 한문을 문화어로 고친 말, 그리고 북측에서 사용하는 정치 용어와 각 지방에서 쓰는 방언 등을 모아서 디지털 전자서체로 출판되었는데, 총 40만여 어휘로 알려졌다.

2006-2007 『조선말대사전(증보판)』을 보면, 이 사전은 『조선말대사전』(전 2권, 표제어는 약 33만 개)의 증보판이며, 약 40만 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전 3권으로 구성된 사전이다. 2006년 11월에 1권, 2007년 7월에 2권, 2007년 9월에 3권이 출간되었다. 이 증보판은 신어뿐만 아니라 『조선말대사전』(1992)의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 가필한 것이다. 2017년 『조선말대사전(2번째 증보판)』 최신판이 출간되었다.

6. 대표 국어사전의 타이포그래피의 특징

6.1. 『조선어소사전』(1956)

6.1.1. 조판의 특징

『조선어소사전』(1956)은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에서 편찬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1955년 8월에 편찬이 완성되어, 1956년 2월 15일에 평양 로동신문출판인쇄소에서 발행하였다. 조판은 가로 2단조합, 판형은 205×145mm, 판면은 상(26mm), 하(12mm), 좌(9mm), 우(10mm), 총 709페이지이다.

본문 구성은 조선어 자모의 순서에 따라 어휘를 가로 2단으로 배열하고 있다. 어휘의 배열방법은 자음자 19개(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ㅊ, ㅌ, ㅍ, ㅈ, ㅊ, ㅋ, ㅌ, ㅍ, ㅈ)와 모음자 21개(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ㅖ, ㅙ, ㅚ, ㅜ, ㅠ, ㅡ, ㅣ, ㅖ, ㅙ, ㅚ)의 결합에 따른 배열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판면의 정보량은 1단 45행에 1행 26자로 총 1,170자가 한글(한자)-품사-어휘의미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특히 이 사전을 편찬함에 있어 어휘 선택, 어휘의 형태론적 특성 표시, 어원 표시, 어휘의 의미 주석과 그 발음 표시, 맞춤법과 외래어 표기법 용례

등에서 우리나라의 사전 편찬의 민족적 전통의 우수한 점을 계승하면서도 현대 고급 언어 과학의 경험을 많이 도입하는데도 노력했다(사전연구실 1958: 32). 따라서 사실상 이 사전은 1960년부터 1962년에 걸쳐서 간행된 『조선말사전』이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대용물로 사용된 성격이 짙다.

6.1.2. 서체의 특징

머리말에 사용된 서체는 명조체 5호(3.1626 mm, 미국식 9포인트), 범례에는 명조체 6호(2.75mm), 본문에는 천리마체(고딕체), 명조체는 6호(2.59mm)가 사용되었다. 고딕체의 자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의 자음자 ‘ㄱ’의 빠침이 길고 끝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시’의 자음자 ‘ㅅ’의 돌기의 굽게 하여 시작부분을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의 경우는 고딕체는 ‘ㅈ’의 자음자가 3획이나, 명조체는 2획으로 표기하고 있다. 명조체의 경우는 모든 자형이 세로쓰기의 활자체에서 가로쓰기에도 그대로 적용 되어있다. 예를 들면 ‘하고’의 ‘하’와 ‘고’을 글자 높이를 비교해보면 ‘고’가 ‘하’의 절반 정도의 크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크기의 차이는 ‘그, 조, 고, 도, 보, 소, 또’ 등에 나타나고 있다.

6.2. 『조선말사전』(1960-1962)

6.2.1. 조판의 특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에서 발행하였다. 조판은 가로 2단조합, 판형은 223×158mm, 판면은 상(35mm), 하(20mm), 좌(14mm), 우(14mm), 전 6권으로 총 어휘 187,137개이다. 머리말에서는 현대 조선어의 기본적인 어휘만을 실은 『조선어소사전』보다 규모가 크고 상세한 주석사전의 필요성과 사회적요구에 따라 출판하였다.

편찬자들은 이 사전의 규범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어의 의미론적 및 문법론적 특성을 규정함에 있어서 더욱 상세한 주석사전이 사회적 요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특수사전이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백과사전식으로 편찬하였

가¹【명】 풀이 가파와 있는 곳, 또는 복판으로
부러 밀려 떨어진 곳. [바다'~, 밭~].
가²(加)【명】 ① 보탬. ② →가'법. ~-함다
①【타】.
가³(可)【명】 ① 올음. ② 회의에서 표적된
안건을 결정할 때의 찬성. ~-함다【명】.
~-히【부】 마땅지, 또는 넉넉히.
가-(假-)【부】 ① 정식이 아니라는 뜻. [~건

〈그림 1〉 『조선어 소사전』[1956] (원치수 100%)

| 고수 | 276 |
|--|----------|
| 담가서 만든 집지; 호유저. | 고스락【명】 우 |
| 고수(固守)【명】 (가져거나 차지하거나 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 하고 단단히 지킴; 견 수②. | 고스락이【명】 |
| 고수(即首)【명】 (남) 고두 ² . | 고스란:하다【 |
| 고수(鼓手)【명】 ① 북 치는 일을 맡은 사 람. 광장에서는 어린 ~들이 놀며 서서 작은 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② 북을 잡 | 지 아니 하 |
| | 고스란히【부】 |
| | 그 대로 온전 |
| | 은 남편의 수 |
| | 저의 원근으 |

〈그림 2〉 『조선말 사전』[1960-1962] (원치수 100%)

다. 이사전의 특징은 광범위한 자료 수집과 올림말의 체계성, 마르크스-레닌주의 언어이론에 의거한 의미주석, 문체론적 특성의 표시등이 있다.

김수경(1963.4)은 이사전의 서평에서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이중천리마 사전연구실에서 1957년 10월부터 편찬을 시작하여, 조선 노동당 제4차 대회 1960년 8·15기념으로 8월 10일1권을 출간, 1961년 7월 10일 2권 같은 해 9월 10일 3권, 1962년말 과학원창립 10주년기념으로 9월 10일 4권, 같은 해 10월 10일5권, 11월 10일 6권을 동시에 발행하였다. 이사전의 6권에 나타난 조판의 특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선어 사전』(1960-1962)의 출간 년, 자모배열, 자모 수

| 년월일 | 권수 | 자모 배열 | 자모 수(개) |
|---------------|----|------------------------|------------------|
| 1960년 8월 10일 | 1권 | ㄱ, ㄴ | 31,050 |
| 1961년 7월 10일 | 2권 | ㄷ, ㄹ, ㅁ | 27,998 |
| 1961년 9월 10일 | 3권 | ㅂ, ㅅ | 36,682 |
| 1962년 9월 10일 | 4권 | ㅈ, ㅊ | 32,917 |
| 1960년 10월 10일 | 5권 | ㅋ, ㅌ, ㅍ, ㅎ, ㅊ, ㅍ, ㅈ, ㅈ | 31,070 |
| 1960년 11월 10일 | 6권 | 모음 | 27,420 총 187,137 |

6.2.2. 서체의 특징

머리말에 사용된 서체는 명조체 미국식 10포인트 (3.5140 mm), 일러두기의 제목용에는 고딕체 미국식 11포인트(3.8654mm)와 미국식 10포인트 (3.5140mm), 명조체 미국식 7포인트75(2.7234mm), 본문에는 명조체 미국식 7포인트75(2.7234mm)와 고딕체는 미국식 10포인트(3.5140mm)가 사용되었다. 고딕체의 자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가’의 자음자 ‘ㄱ’의 빼침이 길고 마지막 끝부분을 길게 강조하고 있다. 또한 ‘나, 다, 라, 마, 바, 사’ 등의 초성의 자음자의 크기가 자면에 짝 차게 크게 디자인하여 의식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고’의 경우는 고딕체는 ‘ㄱ’의 자음자를 크게, 모음자 ‘ㅛ’의 ‘ㅣ’ 수직선 보를 길게 표기하고 있다. 명조체의 경우는 모든 자형이 세로쓰기의 활자체에서 가로쓰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 가로쓰기 전용 서체로 개발되지 않았음을 파악할 수가 있다. 특히 이 사전에는 한자의 어원인 경우는 ‘()’에 한자를 명조체로 표기하고 있다.

6. 『현대조선말사전』(1968)

6.3.1. 조판의 특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하고 1968년 9월 9일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판형은 가로(140mm)×세로(205mm)로 판면은 상(18mm), 하(16mm), 좌(11mm), 우(12mm)로 가로2단 구성으

로 총 1,350페이지로 총 어휘수는 5만이다.

『현대조선말사전』(1968)은 규범사전으로 1966년에 제정된 『조선말규범집』의 조항을 적용한 첫 사전이다. 이 사전에는 ‘고유어와 이중 체계를 이루는 한자말’, ‘새로 다듬어진 한자말’ 등의 한자어가 표제어에서 대폭 제외되었으며, 새로 선정한 문화어 어휘 3,300개가 수록되었다. 박의성(1966)에 천명되었듯이 주체성, 당성, 현대성, 과학성 및 규범성의 4원칙에 충실 하려는 의도를 띠었다. 또 사회정치적 성격을 띤 올림말에 ‘*’ 표시를 하고 김일성 주석 교시를 굵은 활자로 곁들였다. 64, 66년의 교시와 66년의 『조선말규범집』에 따라 새 원칙 밑에 만든 문화어 주석사전이다(이상억 1992: 607).

『현대조선말사전(제2판)』(1981)은 김일성 주석 탄생 70주년을 기념하는 충성의 선물로 마련된 것으로서 문화어를 중심으로 13만 6천의 항을 수록한 중사전으로서 민족어를 주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당의 요구로부터 나온 것이라 한다. 리기원(1982)은 이 사전의 특징으로 ①정치·과학기술용어 등 문화어 어휘를 확충(주체 농법, 사상전), ②한문·고어·방언 등에서도 자주 쓰이는 말의 등재, ③하다, 되다가 동명사 뒤에 붙는 파생은 명사항으로, 어근 적 단어 뒤에 붙는 경우는 독립항으로 등록하였다.

6.3.2. 서체의 특징

『현대조선말사전』(1968)의 간행에 있어 전면적으로 활자가 개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본문의 어휘에 사용된 고딕체 미국식 7포인트75(2.7234mm)의 자형 중에 ‘가’의 ‘ㄱ’자의 끝부분이 기존의 곡선처리에서 직선처리로 보다 간결한 자형으로 개량되었다. 특히 ‘글, 들, 등, 물, 불, 술’ 등의 자형은 균일한 크기의 3등분으로 자모의 크기가 조정되었다. ‘ㅍ’자의 ‘ㅍ’의 앞쪽 ‘ㄱ’이 반 정도 작게 처리되어 있고, ‘ㅈ’는 3획으로 처리되는 등 전면적으로 가로쓰기 전용으로 개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ㅎ’의 ‘ㅇ’이 기존의 정원에서 장방형으로 길고 크게 표현 되어있어 전체적으로 자형이 개량된 것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다.

어휘의 해설에는 명조체 6호(2.51mm)가 사용되었으며, 어휘 설명의 예문

에는 신명조체(광명체)의 미국식 7포인트75(2.7234mm)가 사용되었다. 명조체의 경우는 모든 자형이 세로쓰기의 활자체에서 가로쓰기로 개량되었으나 조판의 판면이 고르지 못한 것은 소형활자 조판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가로쓰기 자형으로 개량에 있어 무엇보다도 자면이 작게 적용되어 글자와 글자의 간격이 넓게 표현되어 보다 판독성과 변별력이 개선되었음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부, 뿔, 뽕, 뜯, 앉, 없’ 등의 획수가 많은 글자 높이와 ‘그, 조, 고, 도, 보, 소’ 등의 획수가 적은 글자와 비교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로쓰기의 흐름에 맞게 글자 높이가 일정하게 조정되어 있어 읽기 편하게 개량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본문체에서 소형활자는 자면이 적을수록 글자 간의 넓이가 일정하게 보장되어 보기 쉽고 읽기 쉬운 조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6.4. 『조선문화어사전』(1973)

6.4.1. 조판의 특징

『조선문화어사전』(1973)은 『현대조선말사전』(1968)을 보완한 중사전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하고 1968년 9월 9일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판형은 가로(140mm)×세로(205mm)로 판면은 상(18mm)·하(16mm)·좌(11mm)·우(12mm)로 가로2단 구성으로 총 1,350페이지로 총 어휘 수는 67,480개의 표제어를 수록한 규범사전이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대대적으로 시행한 어휘정리사업의 결과를 폭넓게 반영한 사전이다. ‘어휘정리사업’은 사회과학원에서 김일성의 두 담화문, 즉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 가지 문제」(1964)와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기 살려나갈데 대하여」(1966)를 발표한 이후에 김일성 1차 교시 10주년을 기념으로 간행되었다. 고유어 위에 방언적 표준어의 성격을 띤 문화어를 확충하려는 목적에서 정치용어, 과학기술용어 등을 보태고 한자어나 외래어를 버리고 ‘→’표시 다음에 ‘다듬은 새말’을 제시하였다.

『조선문화어사전』은 『현대조선말사전』을 더 보충하여 문화어의 폭을 넓

혀 주체성·당성·로통계급성·규범성·과학성 등의 사상적 배경을 살리려 한 사전이다. 이 사전을 계기로 1976년까지 한자어의 고유어화, 신어(천리마 등) 도입 등으로 문화어운동에 박차를 가하였다(홍사만1973: 3-8).

6.4.2. 서체의 특징

『조선문화어사전』(1973)의 간행에 있어 전면적으로 두 번째 활자가 개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머리말의 어휘에 사용된 천리마체(고딕체)는 미국식 8포인트(2.8112mm)의 자형 중에 ‘가’의 ‘ㄱ’자의 끝부분이 완만한 곡선 처리로 보다 부드러운 자형으로 개량되었다. 자형의 가장 큰 변화는 전체적으로 ‘—’ 가로획이 ‘|’ 세로획보다 가늘게 디자인되어 있어 글자에 따라 표정이 확실하게 나타난다.

특히 ‘조’의 ‘ㅈ’, ‘우’의 ‘ㅇ’, ‘고’의 ‘ㄱ’, ‘하’의 ‘ㅎ’ 등의 자형은 초성의 자음자의 크기가 기존 것보다 크게 조정되었다. ‘켜’자의 ‘ㅋ’의 가운데의 ‘—’이 15도 정도 각도로 처리되어 있고, ‘ㅈ’는 3획으로 처리되는 등 전면적으로 가로쓰기 전용으로 개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하’자의 ‘ㅎ’의 ‘ㅇ’이 장방형으로 길고 크게 표현 되어있고, 그 외 ‘위, 회, 있, 의’ 등에 오는 ‘ㅇ’는 정원으로 표현함으로 자형에 따라 표현방식을 구분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자형이 개량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또한 머리말의 어휘에 사용된 청봉체(붓글체)는 미국식 8포인트(2.8112mm)로 천리마체와 동일한 크기의 활자가 사용되고 있다. 이 서체는 가로쓰기를 의식해 많은 자형이 수정되었으나 ‘과’, ‘에’, ‘인’ 등에는 여전히 세로쓰기용으로 제작된 상하의 높이 조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글자가 작게 보인다. 전체적으로 글자 간의 간격이 고르고 전체적으로 획수가 많은 글자는 착시조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본문에 어휘에 사용된 천리마체와 설명에 사용된 천리마체, 그리고 어휘 설명의 예문에는 신명조체(광명체)의 3서체 모두가 미국식 7포인트 반(2.6355mm)을 사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판면이 고르게 이루어졌다. 특히 자면의 크기로 비교해볼 때, 천리마체, 광명체, 청봉체순으로 본문용으로 같

수록 자면 비율이 작아진 만큼, 시인성과 판독성이 높이도록 궁리 되어있다.

가락꼬치 [명] = 가락¹ ①.
 가락엿 [명] 가래엿을 기름 하게
 라놓은 엿.
 가락웃 [명] 물레가락에 실을 자이
 가락의 아래몸에 입히는 지푸라.
 가랑가랑¹ [부] ① = 가르랑가르
 이 거의 질듯 질듯 하면서 숨결이
 아있는 모양, 또는 그 소리. [참고

가가표 [명] 우리 글자를 배워익
 와 모음자를 결합시킨 받침없는
 어놓은 일람표.
 가격 [명] 상품의 가치를 돈으로
 《먼저 가격을 정할 때에 상품에
 에 정확히 의거하여야 합니다. 그
 지출에 기초하여 정하지 않는다면
 지할수 없고 사회주의적분배를
 산의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사회주의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그림 3〉 『현대조선말사전(제1판)』(1968) (원치수 100%)

〈그림 4〉 『조선문화어사전』(1973) (원치수 100%)

진 행방으로 된 삼십여간 가가가 보이는데
 으로 이었다. (《조선고전문학선집》 2) 〔假家
 가가대소 [명] ㊄ 정떨거리며 소리를 내며 크
 가가대 [명] 천난애, 각 집안에 따라 서로 다
 날 제사 지내는 절차도 집마다 가가대로 서
 가가문전 [명] 매 집의 문앞. || ~ 찾아다니
 가가방 [명] [명] →가세방.
 가가호호 [명] 집집마다 또는 세대마다. | 이
 해간만에 말동무라도 만난듯이 마을의 력사의
 기해나가는것이였다. (장전소설 《금천강》) [『
 가가이 [부] 집집이. | ...추석이라 가가이
 집》 3) [假家-]

〈그림 5〉 『조선말대사전』(1992) (원치수 100%)

6.5. 『조선말대사전』(1992)

6.5.1. 조판의 특징

1992년의 『조선말대사전』은 김일성 주석 80회 생일과 김정일 총서기 50회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간행한다고 머리말에 명시되어 있는데 1987년의 ‘새 규범집’을 반영하여 2권으로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발행하였다. 이는 1962년 이후 최초의 대사전이라 할 만하다.

첫째, 104만 7,376개의 단어를 가진 여러 분야(문학 예술, 사회 정치, 과학 기술, 신문 보도 등 180여 개 분과와 과목)의 본문을 분석 조사하여 얻은 어휘 빈도수 목록 가운데에서 절대 빈도수 46,612(하다)에서 102(포탄)까지에 이르는 빈도수 크기 차례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특기할 만하다. 이 사

『조선말대사전』의 자모 배열 순서는 북측 국어사정위원회가 1988년 2월 16일에 간행한 『조선말 규범집』에 따라 조선어자모의 차례가 다음의 〈표 2〉와 같이 배열하고 있다.

| | |
|---------|--|
| 자음(19자)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ㅇ) ㅊ ㅋ ㆁ ㄷ ㅌ ㅍ ㅎ ㆁ ㅍ ㅈ ㅊ |
| 모음(21자) |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ㅖ ㅗ ㅛ ㅜ ㅠ ㅡ ㅣ ㅖ ㅗ ㅛ ㅜ ㅠ ㅡ ㅣ ㅖ |
| 받침(27자)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ㄷ ㅌ ㅍ ㅎ ㆁ ㅍ ㅈ ㅊ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ㅖ ㅗ ㅛ ㅜ ㅠ ㅡ ㅣ ㅖ |

6.5.2. 서체의 특징

특히 청봉체에서 착시조정이 이루어진 글자는 ‘늘’, ‘활’, ‘잘’, ‘예’, ‘를’ 등의 자형은 전체적으로 자형의 가로 폭이 기존 것보다 좁게 조정되어 가로쓰기 전용으로 개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특히 ‘원’자의 ‘ㄱ’, ‘귀’자의 ‘ㄱ’, ‘편’자의 ‘ㄹ’, ‘넙’자의 ‘ㄴ’ 등의 마지막 처리가 붓글씨의 운필을 의식적으로 강조

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그외 ‘위, 회, 있, 의, 오, 우, 이, 하’ 등에 오는 ‘ㅇ’은 정원으로 처리함으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증시한 자형으로 개량된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

본문의 어휘에 사용된 천리마체와 설명에 사용된 청봉체, 그리고 어휘 설명의 예문에는 신명조체(광명체)의 3종류 서체 모두가 미국식 6포인트(2.12mm)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판면이 고르게 이루어졌다. 청봉체는 자면 비율이 작아진 만큼, 시인성과 판독성이 높이도록 궁리 되어있다. 어휘에 사용된 천리마체에 있어 가장 자형이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자모는 ‘ㅅ’에 나타나고 있다.

이후 『조선말대사전(증보판)』(2006-2007)은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에서 편찬하여 사회과학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조선록일오편집사는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돐을 맞으며 『현대조선말사전』의 31만여 개 올림말들과 그 내용들을 수록하여 인터넷환경에 맞게 전자화한 『조선말대사전』을 제작하였으며 그것을 「우리 민족끼리」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고 있다. 『조선말대사전』에는 올림말의 구성, 뜻풀이의 기본원칙, 조선말의 어음구조, 조선말의 어휘구성, 조선말의 문법구조가 소개되어 있다.

7. 맺음말

7.1. 국어사전의 편찬과 그 의미

광복 후 북측에서 행해진 언어 정책 과정에서 “문맹 퇴치 → 한자 폐지 → 맞춤법 정비 → 규범 문법과 사전 편찬 → 문화어 확립”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물론 북측의 언어 정책은 하나 하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것 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서로 겹치면서 일정 부분은 하나의 정책의 완결이 다른 정책을 불러 일으켰다는 점에서 규범문법과 사전편찬사업과 서로 깊은 관련 속에서 추진된 것을 다음과 같이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해방직후 북측에서는 사전 편찬에 힘을 기울였던 것은 무엇보다

도 민족 공통어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해방직후부터 6·25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된 “반제, 봉건적 혁명”과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언어적 노력이었다.

둘째로, 6·25전쟁의 휴전 후, 북측의 모든 정책은 전후의 복구건설정책과 함께 언어 정책도 대중들을 복구 건설에 동참하도록 설득, 동원,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언어 규범 안에 편입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북측의 ‘어휘 정리 사업’과 ‘문화어’는 6·25전쟁 이후 시작된 ‘언어 정화 사업’을 계승하고, 또한 1960년대 후반과 1970년 초반에 발간된 『현대 조선어 사전』(제1판)과 『조선어 문화어 사전』도 1962년에 간행된 『조선어 사전』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시도의 하나였다 것 등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80년대 이후 북측에서 발간된 사전들에서 계승의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로 그 중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다.

7.2. 조선어활자 개발과 그 의미

북측의 국어사전 편찬을 언어 정책과 활자인쇄사와 직접 관련시키면서 논의하는 연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세로쓰기 자형에서 가로쓰기 자형으로 소형활자의 개발과 개량은 활자에 대한 관심과 그 나라의 기술력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각 시대별로 발간된 대표 국어사전을 중심으로 출간에 사용된 본문용 소형활자의 분석을 통해서 조선어 활자의 개발과 개량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4가지 대표 서체로 정리할 수가 있다.

첫째로, ‘천리마체(고딕체)’는 도안에 따라 그려진 글자체를 뜻하며 그린 글자체라고 부른다. 북측에서는 5개년 인민경제계획 천리마운동(1957~61), 1961년 말 다듬기 운동을 통해 고딕체에서 천리마체로 개명됐다. 자형의 특징은 수평 수직이며 굵기가 균일하다. 자형의 가장 큰 변화는 전체적으로 ‘—’ 가로획과 ‘|’ 세로획이 같은 두께로 통일감을 중시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 천리마체에 있어 가장 자형이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 자모는 ‘ㅅ’에 나

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활자에서 전자 서체까지 3번의 개량이 이루어진 사실을 밝혔다. 이서체는 인쇄물에서는 타이틀, 표제, 강조, 장소 등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멀리서 시인하기 쉬운 선전 포스터와 상표 인쇄, 각종 인쇄물, 실내 안내나 야외 간판 등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둘째로 ‘명조체’는 전통적인 해서체 붓글씨 자형에서 출발하였다. 북측 정부수립 후 가장 널리 본문체에 사용된 서체이다. 이 시기에 제작된 활자 중 완성도가 높고, 글자의 공간 구성이 균일하다. 특히 세로조합과 가로조합에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로선과 가로선의 굵기가 균일하다. 세로조합 디자인에서는 오른쪽 세로기둥에 기준선이 오도록 한 노력을 알 수 있다. 초성의 자음자 ‘ㄱ’자가 개성이 강하고 이중자음자(각자병서)는 원래 자음자의 절반 정도 크기로 디자인되었다. 획수가 많은 글자와 획수가 적은 활자간의 공간 안배가 잘 이루어져 있다. 중성의 세로 모음자는 ‘ㅏ, ㅑ’의 가로 획 ‘一’을 의도적으로 길게(―) 하였다. 또한 가로 모음자 ‘ㅓ, ㅕ’는 ‘ㅣ’의 자소를 길게 디자인하였다. 이 서체는 가로 모음자 ‘一’의 가로 획을 옆으로 길게 한 점이 일반적인 서체와 차별화된 특징이다.

셋째로, ‘광명체(신명조체)’는 3.1일간체라고도 부른다. 이서체는 가로 획이 굵고, 세로 획이 가는 한자의 명조체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모든 자형이 세로쓰기의 활자체에서 가로쓰기로 개량되었으나 조판의 판면이 고르지 못한 것은 소형활자 조판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가로쓰기 자형으로 개량에 있어 무엇보다도 자면 비율이 작게 적용되어 글자와 글자의 간격이 넓게 표현되어 보다 판독성과 변별력이 개선되었다. 특히 ‘부, 뵈, 뵘, 띄, 았, 없’ 등의 획수가 많은 글자 높이와 ‘그, 조, 고, 도, 보, 소’ 등의 획수가 적은 글자와 비교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가로쓰기의 흐름에 맞게 글자 높이가 일정하게 조정되어 있어 읽기 편하게 개량되었다.

넷째로, ‘청봉체’는 오늘날 조선어 붓글씨 서체의 정통을 계승하면서 발전되어 온 서체이다. 청봉체는 활자체에서 디지털 전자 서체로 이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자면 비율이 작아진 만큼, 시인성과 판독성을 높이도록 궁리되어 있다. 이 서체는 가로쓰기를 의식해 많은 자형이 수정되었다. 특히, 문자의

공간 구성이 균일하고 자형의 완성도가 매우 높아 가로세로 조판에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세로선과 가로선의 굵기가 균일하다. 전체적으로 글자 간의 간격이 고르고 전체적으로 획수가 많은 글자는 착시조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서체의 특징은 글자의 오른쪽 세로선에 기준이 있으며 점획의 방향, 위치, 그리고 글씨를 쓸 때의 점과 획이 서로 겹치는 점필 상태 등의 변화가 일정하다. 청봉체는 북측에서 형성된 과거에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 것 같은 기시감(既視感)과 서체를 사용해보면서 익숙해진 친밀감(親密感)의 아름다운 서풍을 겸비한 대표 서체로서 서예 교육과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신문, 잡지 등의 본문체로서 생활의 미감에 맞추어 풍부한 형상적 표현성을 가지면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북측의 디지털 본문체에 사용되는 소형활자는 글자면이 좁을수록 글자 간의 넓이가 일정하게 보장되어 보기 쉽고, 읽기 쉬운 가독성이 높은 조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남측에서 1990년 이후 홍수처럼 대량으로 개발된 대부분의 디지털 본문체는 사각 틀에 딱 차도록 글자면이 넓게 디자인되어 글자와 글자사이의 간격이 좁아 정보량은 높으나 가독성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또한 우리 글 서예 교육의 부재와 경시로 전통적인 붓글씨 자형에서 점점 이탈되는 경향도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발전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광복이후 북측 정부수립과 함께 시작된 국어사전의 역사적 변천을 수반하면서 조선어활자가 꾸준히 개발 개량되어오면서 완성도 높은 양질의 디지털 전자 서체로 계승 발전되어온 역사적 사실을 밝혀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양질의 본문체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오면서 지속적으로 다듬어져 완성도 높은 서체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참고문헌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 사전연구실(1960~1962) 『조선말사전』, 평양: 과학원출판사, 4-8.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1961) 「조선말사전에 대한 의견」, 『조선어학』 1호, 평양: 과학원출판사, 59.
- 김경신(1949) 「조선 어문 연구회 1 년간의 업적」, 『조선어연구』 1권 7호, 조선 어문 연구회, 12-13.
- 김병제(1949) 「조선어사전 편찬의 문화적 의의」, 『조선어연구』 1권 3호, 조선 어문 연구회, 11-12.
- 김수경(1965) 「새로운 조선말사전 편찬을 위한 몇 가지 문제」, 『조선어학』 4호,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0.
- 김정숙(1989) 「남/북한 어휘 비교」, 『북한의 어학혁명: 민족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 백의, 225-239.
- 류현국(2015) 『한글 활자의 탄생: 1820~1945』, 서울: 홍시, 469-490.
- 류현국(2017) 『한글 활자의 은하계: 1945~2010』, 서울: 윤디자인그룹, 43-71.
- 류현국(2019) 「북한 정치선전 포스터 디자인의 역사적 변천으로 형성된 북한 스타일」, 『DESIGN WORKS 2』(vol.2/no.1), 서울: 한국디자인학회, 26-39.
- 류현국(2019) 「북한『국어』인민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타이포그래픽 디자인:『우리글』유치원용 및『국어』인민학교 1학년부터 4학년 교과서 분석」, 『DESIGN WORKS 3』(vol.2/no.2), 서울: 한국디자인학회, 30-42.
- 류현국(202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산업미술의 역사적 변천: 공업미술의 경공업·중공업제품 형태도안의 발전사」, 『코리아스터디스』 제8호,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 47-67.
- 류현국(2020) 「조선어 서체의 원형과 원류(1909-2019): 청봉체, 천리마체, 명조체, 맷힘체의 기본 서체를 중심으로」, 『국제고려학』 18, 국제고려학회, 349-380.
- 리기원(1982) 「우리 생활과 언어: 현대조선말사전을 내면서」, 『문화어학습』 제3호,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4-15.
- 리기원(1984) 「조선어사전 편찬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 『문화어학습(제1호)』,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2-13.
- 리호경(2005) 「조선문화어건설이론」, 『조선어학전서』 2,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4-13.
- 박금자(1989) 「북한의 국어 사전 평설」, 『북한의 말과 글』, 서울: 을유문화사, 173-196.
- 박금자(1989) 「북한의 말과 글」, 『북한의 국어사전 평설(評說)』, 서울: 을유문화사, 184-196.
- 박승희(1957) 「사전 주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조선어소사전’을 중심으로」, 『조선어문』 6호, 평양: 언어문학연구소, 7-8.

- 박의성(1966) 「현대조선말사전 편찬과 조선어의 발달 문제」, 『어문 연구』 2호,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8-12.
- 박홍준(1958) 「사전의 종류」, 『말과 글』 4호, 30-33.
- 사전연구실(1958) 「공화국 창건 10 주년을 맞이하는 조선어사전 편찬 사업의 전망」, 『조선어문』 5호, 평양: 언어문학연구소, 110.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49) 『조선중앙년감』,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138.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68) 『현대조선말사전』, 평양: 사회과학원출판사, 6-10.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73) 『조선문화어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4-10.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81) 『현대조선말사전』 제2판,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4-8.
- 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1992)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4-6.
- 신구현(1956) 「서평: 조선어소사전」, 『조선어문』 3호, 평양: 언어문학연구소, 7 · 32 · 110.
- 와다 다카히로(1989) 『북한의 국어사전』, 북한언어연구회편, 120-128.
- 이상억(1992) 「북한의 어휘연구/사전편찬-남한과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기초 연구」, 『어학연구』 28,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599-619.
- 정순기 · 리기원(1984) 『사전편찬리론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6-12 · 59.
-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1956) 『조선어 소사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학원, 3-14.
-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1956) 『조선어 철자법 사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과학원, 1-10.
- 차재은(1991) 「북한의 사전편찬사」, 『북한의 조선어 연구사 1945-1990』, 서울: 녹진, 188-215.
- 최호철(1989) 「북한의 어휘 정리」, 『북한의 어학혁명: 민족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울: 백의, 195-223.

지명 「비서갑」을 통하여 본 고조선과 고구려, 고려의 역사적호상관계에 대하여

Historic Relations between Ancient Korea, Koguryo Dynasty and
Koryo Proved by the Place Name “Bisogab”

리성호*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역사적사실들을 바로 평가하여 우리의 새 세대들에게 옳은 인식을 주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삼국유사」를 비롯한 역사문헌들에 인용된 단군관계의 옛 도서들에서 지명 「비서갑」은 고조선시조 단군과 부여왕 부루, 고구려시조 고주몽이 혈연적으로 연결되는데서 중요한 고리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는것은 『삼국유사』·『제왕운기』와 같은 고려시기의 중요문헌들에서 우리 나라 역대 국가들의 성립과정과 그 군왕들의 계보를 한줄기로 연결시키게 된 역사적근거들을 해명하며 고려는 바로 고조선의 뒤를 이은 고구려를 계승한 유구한 문화국이라고 자부한 이 시기의 역사의식형성의 중요전제들을 해명하는데 가치있는 자료들을 제공해줄수 있다고 본다.

「비서갑」이라는 지명은 고려시대에 간행된『제왕운기』(1287년)와 조선봉건왕조초기에 간행된『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인용되어있는 「단군본기」,

* Ri Song Ho(Researcher of Institute of Linguistics,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단군고기」에 기록되어있다.

“「단군본기」(檀君本紀)에 이르기를 ‘단군은 비서잡(非西岬) 하백(河伯)의 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은 부루(夫妻)이다.’고 하였다.”(『제왕운기』 하권 동국군왕세계년대)

“「단군고기」(檀君古記)에 이르기를 ‘... 단웅천왕(檀雄天王)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단군(檀君)이라고 하였다. 나라를 세우고 조선(朝鮮)이라 불렀는데 시라(尸羅·고례(高禮)·남옥저·북옥저(南北沃沮)·동부여·북부여(東北扶餘)·예(穢)와 맥(狊)을 모두 단군이 다스리었다. 단군은 비서잡(非西岬) 하백의 딸을 취하여 아들 부루(夫妻)를 낳았는데 이가 동부여왕이었다. ...’고 하였다.”(『세종실록지리지』 154권 평양부)

『제왕운기』보다 약간 앞서서 간행된 『삼국유사』(1285년)에도 「단군기」라는 옛 도서가 인용되어있다.

“「단군기」(檀君記)에서는 ‘단군은 서하(西河) 하백(河伯)의 딸을 가까이 하여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夫妻)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이제 이 기록에 근거하여 보면 해모수는 바로 하백의 딸을 가까이한 뒤에 주몽(朱蒙)을 낳았다. 「단군기」에서 아들을 낳아 이름을 부루라고 하였다」고 하였으니 부루와 주몽은 이모형제이다.”(『삼국유사』 기이 고구려)

「단군본기」, 「단군고기」, 「단군기」를 보면 서로 같은 내용을 담고있는데 차이나는 점은 「단군본기」와 「단군고기」에서 「비서잡」이라고 기록한 지명을 「단군기」에서는 「서하」라고 기록한것이다.

「서하」가 「비서잡」을 한문표기관습에 따라 생략하여 쓴 지명이라는데 대하여는 홍기문선생이 「조선신화연구」에서 해명하였다.

“「비서잡」의 「서」자 하나만 따서 「서하」라고 하는것은 한문관습상 가능한 일이라 「서하」는 곧 「비서잡」이라고 보아야 한다.

어느한 문헌에서도 후대의 지명과 대조해놓지 않고있다. 어디라는것은 알길이 없

다.”(홍기문 『조선신화연구』 제2장 단군신화 제2절 단군신화에 대한 몇가지 문제)

지명 「비서갑」을 고대조선어로 해독하고 「비서갑」과 고구려지명 「조리비서」의 호상관계를 해명하는데 기초하여 그의 위치를 고증한것은 신채호선생이다. 그는 『조선사연구초』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아사는 아홉이요 달은 月이니 九月의 뜻이라고 하는데 아사는 앓/엿/웃/웃 혹은 아쓰/오쓰/우쓰 등으로 읽을수 있으나 아홉으로 읽을수 없으며 달의 음은 대니 대는 신령의 뜻이니 아사달을 구월산으로 위증하여 단군의 후예가 구월산으로 이도한 사실을 위조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 북부여의 고명이 조리비서요 할빈의 옛이름이 비서갑이다. 속어에 8월 추석을 가우절이라 하고 「삼국사기」에 가배절(嘉俳節)이라 하였으니 비(非), 배(俳) 등 자의 고음이 우임이 명백하다. 비서와 아사가 음이 서로 상근할뿐더러 단군후예인 해부루는 할빈에서 동천하여 동부여가 되며 해모수는 할빈에서 굴기하여 북부여가 되었은즉 아사달(阿斯達)은 곧 비서갑(非西岬)이니 지금 할빈의 완달산(完達山)이 그 유지가 된다. ...”(신채호 『조선사연구초』)

「조리비서」는 『삼국사기 지리지』 유명미상지분(有名未詳地分)에 올라있는 고구려-당전쟁시기 압록강이북의 「미항11성」(未降11城-항복하지 않은 11개성)들중의 하나이다.

“압록강이북의 미항11성은 본래 조리비서(助利非西)인 북부여성주(北扶餘城州) ...이다.”(『삼국사기』 권 37 잡지 제6 지리)

『삼국사기 지리지』에 기록되어있는 고구려지명 「북부여성」의 본래이름 「조리비서」의 「비서」는 「단군고기」 등에 기록되어있는 고조선지명 「비서갑」의 「비서」와 표기상에서 일치한다.

이것은 「비서갑」은 곧 「조리비서」라고 한 『조선사연구초』의 연구가 실제의 역사기록자료들에 근거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따라서 「조리비서」의 유래와 그와 관련한 역사적사실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것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적관계를 해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

료들을 발굴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부여성」이라는 고장의 본래 이름 「조리비서」는 『삼국사기』를 제외한 다른 역사문헌들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북부여」는 『광개토왕릉비』와 『삼국사기』·『삼국유사』 등 고대 금석문들과 역사문헌들에서 고구려의 건국시조 동명왕과 관련하여 널리 소개되고 알려져있다.

414년에 건립된 광개토왕릉비에 「북부여」(北扶餘)라는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있으므로 「조리비서」를 「북부여」라고 부른것은 광개토왕이전시기라는 것이 확실하다.

『삼국사기』·『삼국유사』 등을 살펴보면 「북부여」는 부여왕 해부루가 동쪽으로 옮겨가 동부여라는 새 나라를 건국한 이후에 생겨난 이름으로서 해부루왕이 떠나가고 해모수가 와서 도읍하였다는 부여의 옛도읍(舊都)이 바로 「북부여」로 불리운 고장이다.(『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1 시조 동명성왕)

그런데 리치적으로 따져보면 「북부여」와 「동부여」의 「북」과 「동」은 서로 상대되는 말이 아니다. 말하자면 해부루왕이 세운 새 부여가 옛부여의 동쪽에 있으므로 나라이름을 「동부여」라고 불렀다는것은 리치에 맞지만 그 본래의 도읍지를 「동부여」에 상대하여 「북부여」라고 부르는것은 리치에 닿지 않는다.

「북」은 「남」에 상대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북부여」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었다는것은 그와 상대되는 남쪽에도 역시 원부여에서 갈라져나간 또 하나의 새로운 부여인거주집단, 또는 나라가 있었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추정밑에 부여-고구려관계력사기록들을 살펴보면 「졸본부여」라는 것이 발견되며 더 나아가서 「남부여」라는것도 나타난다.

「졸본부여」는 「북부여」의 남쪽에 위치했던 일명 「부여별종」(扶餘別種)이라고도 불리우던 나라로서 후날에는 「고구려」(高句麗)라는 새로운 국호를 가지고 력사무대에 등장하는 세력집단이였다.

이에 관한 『광개토왕릉비』와 『삼국사기』·『삼국유사』의 기사는 다음과 같다.

“회고하건대 시조 추모왕(鄒牟王)이 그 기업을 열었다. 북부여(北扶餘)로부터 나왔는데 천제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었다. … 수레를 메워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지났다. … 비류곡(沸流谷)에 있는 흘본의 서쪽 성산(忽本西城山)에 올라 도읍을 세웠다. …”(『광개토왕릉비』)

“시조 동명왕(東明王)은 성이 고(高)씨요 이름은 주몽(朱蒙)인데 추모(鄒牟) 혹은 중모(仲牟)라고도 하였다. … 주몽이 오이(烏伊)·마리(馬里)·협부(夾父) 등 세 사람과 벗을 삼고 가다가 졸본천(卒本川)에 이르러 ‘산천이 험고한것을 보고 도읍하려고 하였는데 미처 궁실을 짓지 못하고 단지 비류수(沸流水)웃쪽에 갈로 막을 짓고 거처하였다. 국호를 고구려(高句麗)라 하고 고(高)로써 성을 삼았다. 또는 이르기를 주몽이 졸본부여(卒本扶餘)에 이르렀는데 왕은 아들이 없었는지라 주몽을 보고 보통사람이 아니라는것을 알고는 자기의 딸로 안해를 삼게 하였다. 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제1 시조 동명성왕)

“[통전]에 의하면 ‘주몽이 북부여로부터 … 흘승골성(紇升骨城)에 이르러 자리잡고 나라이름을 구려(句麗)라 하였다’고 하였고 「고기」에서는 ‘주몽이 부여로부터 난을 피하여 졸본(卒本)에 이르렀다’고 하였으니 흘승골성과 졸본은 같은 곳인듯하다.”(『삼국사기』 권37)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卒本扶餘)이다. 혹 이르기를 지금의 화주(和州) 또는 성천(成川) 등이라고 하는데 다 틀린다. 졸본주는 룡동(遼東)의 경계에 있다. … 「주립전(珠琳傳) 제21권에는 ‘옛날 녕품리왕(寧稟離王)의 시비가 임신하여 … 아들을 낳았는데 … 드디어 부여왕으로 되었다’는 기록이 실려있다. 즉 이것은 동명제(東明帝)가 졸본부여왕으로 된것을 말한것이다. 이 졸본부여 역시 북부여의 별도(別都)이기때문에 부여왕이라고 이른것이다. 녕품리는 부루왕(夫婁王)의 이칭이다.”(『삼국유사』 권1 기이 고구려)

고구려시조 동명왕이 북부여를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 이르렀다는 이 「졸본부여」야말로 바로 「북부여」의 남쪽에 위치한 또하나의 부여국으로서 북쪽에 있는 자기 본래의 옛고장 「조리비서」를 「북부여」라고 부를수 있는 부여인거주집단이며 「북부여」라는 이름은 남쪽의 「졸본부여」에 상대해서만이 그렇게 불리울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것이다.

『광개토왕릉비』·『중원고구려비』를 비롯한 고구려시기의 금석문들과 『삼국사기』·『삼국유사』를 비롯한 역사기록들에서는 고구려는 본래 북부여에서 나왔다고 일치하게 기록하였는데 이 역사기록자료들은 고구려의 기원과 발전은 북부여의 중심지이름 「조리비서」 구체적으로 「비서갑」과 뗄수 없는 관계를 맺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부여의 도움지이름이 「조리비서」로서 「단군고기」에 기록된 지명 「비서갑」과 통하며 고구려의 성립이 「조리비서」와 깊은 련관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안 조건에서는 “동명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인데 단군의 아들이다”·“고주몽은 단군의 아들 부루와 배다른 형제이다”고 한 『삼국유사』의 기록은 결코 허황한것이 아니라는것이 명백해진다.

북부여의 도움지이름이 「조리비서」 즉 「비서갑」인데 그 기원에서 북부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고구려의 첫도움지이름 「줄본」은 고조선지명 「비서갑」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고구려의 발상지이자 첫도움지인 「줄본」이라는 지명을 이러한 시점에서 「조리비서」와 대비하여 따져보면 두 지명이 어음상에 있어서 상당한 류사점을 가지고있다는것을 곧 발견할수 있다. 즉 「조리비서」의 「조리」와 「줄본」의 「줄」이 어음상에서 매우 류사한것인데 「조리」나 「줄」은 표기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말을 나타내고있는 리두표기라고 말할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므로 일단 「조리」와 「줄」이 같은 말을 표기하고있는 서로 다른 표기일수 있다고 가정한데 기초하여 「조리비서」에서 분파되여나간 기타의 부여 세력집단(나라)들의 이름을 이와 대비하여 보면 그와 같은 가정을 지지하는 일련의 근거들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남부여」(南扶餘)라고도 부른 백제의 고지명 「소부리」(所夫里)를 들 수 있다.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지리지』에서는 백제의 기원과 도움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백제시조 온조왕(溫祚王)은 아버지가 추모(鄒牟) 혹은 주몽(朱蒙)이라고 한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난을 피하여 졸본부여(卒本扶餘)에 이르렀더니 부여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3형제가 있었는데 주몽을 보니 보통사람이 아님을 알고 둘째딸로 안해를 삼게 하였다. 얼마 안있어 부여왕이 죽자 주몽이 왕위를 이었다. 주몽은 아들 2명을 낳았는데 맏이는 비류(沸流), 둘째는 온조(溫祚)였다. 주몽이 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가 넘려되어 드디어 오간(烏干)·마려(馬) 등 19명의 신하를 데리고 남쪽지방으로 떠나니 백성들중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리하여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岳岳)에 올라 살만한 곳을 살폈다. 온조는 강의 남쪽 위례성(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이름을 십제(十濟)라고 하였다. … 그후 나라이름을 백제(百濟)라고 고쳤다.

그의 집안계보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으므로 부여(扶餘)로써 성을 삼았다.”(『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

“16년 봄에 사비(泗比, 일명 소부리·所夫里라고도 한다)에 도읍을 옮기고 국호를 남부여(南扶餘)라고 하였다.”(『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 성왕)

“그 땅이름은 소부리(所夫里)이고 사비(泗比)는 지금의 고성진(古省津)이다. 소부리는 부여의 별호이다.”(『삼국유사』 권2 전백제)

“부여현(扶餘縣)은 본래 백제의 소부리군(所夫里郡, 사비·泗比라고도 한다)인데 백제의 성왕이 웅천(熊川)으로부터 와서 도읍하고 이름을 남부여(南扶餘)라고 하였다.”(『고려사』 지리지 권56 부여군)

기록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그 기원에서 졸본부여와 깊은 련계가 있고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부여별종」(『구당서』 백제전)이라고도 불리우던 백제가 국호를 「남부여」로 부르고 도읍한 「소부리」를 “부여의 별호”(즉 부여의 다른 이름)라고 한 『삼국유사』의 기사내용은 반드시 연구해명하여야 할 중요한 력사자료이다.

고대의 리두표기에서 초성 「ㅈ」와 「ㅅ」은 서로 구별없이 쓰인 경우가 많다. 또 『삼국사기』의 리두지명들에서 「수리/소리」·「술/술」 등의 어음구조를 가진 단어들을 표기할 때 첫번째 음절뒤에 있는 음절의 초성 「ㄹ」이나

중성 「리」은 보통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하여 추정하면 「소부리」의 첫 음절 「소」는 「소리」 또는 「술」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이며 또 「소리」·「술」은 「조리」 또는 「줄」과 호상 통용되고있었다고 볼수 있다.

결국 「줄본」과 「소부리」는 서로 같은 말을 적고있는 표기라고 할수 있는 근거와 조건이 성립된다.

이와 같이 당시의 우리 말 단어의 일반적인 어음구조와 리두표기관습에 근거할 때 「삼국유사」에서 무엇을 넘두에 두고 “소부리는 부여의 별호이다”라고 하였는지 리해할수 있으며 또 「소부리」에 도읍한 백제가 자기의 국호를 왜 「남부여」라고 하였는지, 「소부리」라는 지명을 후기신라시기에 와서 왜 「부여」라고 개칭하였는지에 대하여서도 납득할수 있는것이다.

따라서 「줄본」을 도읍지로 정하고 일떠선 고구려가 「부여별중」·「줄본부여」라고 불리웠던것과 마찬가지로 「소부리」에 도읍한 백제도 역시 「부여별중」·「남부여」라고 불리운것은 그럴만한 확실한 역사적인 근거가 있었기때문이라는것이 명백해진다.

「조리비서」의 「조리」와 「줄본」의 「줄」과 같은 말로 볼수 있는 근거자료로서 이밖에 「술빈」의 「술」을 들수 있다.

「당서」에는 발해행정구역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술빈(率賓)의 옛땅을 술빈부(率賓府)라 하니 화(華)·익(益)·건(建)의 3개 주(州)를 통솔한다.”(『구당서』 발해전)

발해 행정구역의 하나인 「술빈부」의 「술빈」(率賓)을 다산 정약용은 「줄본」(卒本)의 다른 표기라고 인정하고 「성경지」(盛京誌)에 기록되어있는 금나라의 「속빈」(速賓)·「소빈」(蘇賓) 등도 다 「줄본」의 표기변종이라고 보았다.

이 주장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자들은 나아가서 「성경지」에 나오는 「홀품로」(恤品路)의 「홀품」까지도 그러한 표기변종이라고 주장하고있다.(정약용 『아방강역고』 줄본고, 김석형 『광개토왕릉비』, 류렬 『언어학론문집』 11권 207.)

따져보면 「술빈」이 「줄본」과 어음-의미상에서 서로 통하는 지명이며 「속빈」, 「소빈」 등이 「술빈」의 표기변종이라고 본것은 옳다고 할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술빈」을 곧 「줄본」과 동일한 고장으로 보는데는 문제가 있다.

연구자료에 의하면 고주몽이 세운 고구려의 첫수도 「줄본」은 압록강의 지류인 동가강(혼강)류역의 환인현일대인데 발해의 「술빈부」 즉 후날 금나라의 「속빈로」(速賓路)지역은 금나라의 도읍지 안출호(오늘의 할빈일대)의 동남방인 목단강(牡丹江)과 우쭈리강(烏蘇里江)의 상류, 두만강(豆滿江)의 이북지대이다.

이 일대에는 고대에 북옥저(北沃沮)가 있었고 예로부터 부여에 예속되어 있던 지역으로서 이곳을 『광개토왕릉비』에 나오는 「동부여」의 위치로 보는 것은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다.(손영중 『고구려사』 1. 「청구학총」 16호 “동부여의 위치와 고구려의 개국전설”)

이로부터 「술빈의 옛땅」(率賓故地)은 동부여가 있던 고장이라는것을 알수 있는바 이 일대가 동쪽으로 바다를 가까이 하고있어 동부여의 개국전설에 등장하는 “동해기슭에 있는 땅”(東海之濱有地)이라는 말에도 합치된다는 사실은 이와 같은 견해를 안받침하는 근거로 된다.

이와 같이 동부여가 도읍한 고장의 옛 이름인 「술빈」의 「술」도 역시 북부여의 옛 이름인 「조리비서」의 「조리」, 고구려가 도읍한 「줄본부여」의 「줄」, 백제(남부여)가 도읍한 「소부리」의 「소」와 어음상에 있어서 공통점을 가진다.

동족의 나라들인 부여와 동부여, 고구려와 백제의 기원의 공통성을 고려할 때 이 나라들의 도읍지이름들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언어적공통성은 결코 우연적인 현상으로 볼수 없으며 그 원인에 대하여 연구해명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 고구려와 동족인 나라들의 도읍지이름들에 붙어있는 「조리」(助利)·「줄」(卒)·「소」(所)·「술」(率) 등은 고대 고조선계통주민집단의 이름들인 「발조선」(發朝鮮)·「발속신」(發肅愼)·「불내예」(不耐穢)·「불도휴」(不屠休)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발」(發·渤)·「불」(不·弗)·「부리」(夫里) 등이 고

조선계통주민집단을 가리키던 상징적인 말을 표기하고있었던것과 마찬가지로 고대 부여계통주민집단을 가리키던 상징적인 말을 표기한것이였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조리」·「줄」·「소」·「술」등으로 표기된 이 상징적인 말의 구체적인 어음구조와 어휘적의미에 대하여서는 현재 단정할수 없다.

그러나 한가지 말할수 있는것은 고대로부터 부여, 고구려와 접촉이 잦았던 북방이민족들이 고구려의 계승국인 고려를 가리켜 부른 이름들을 놓고 이에 대하여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것이다.

고려시기에 녀진인들은「고려」를 「솔호」(Solho)라고 불렀고 몽골인들은 솔롱고(Solongs) 또는 「솔고」(Solgo)라고 불렀다.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고려」를 몽골어로 「朮朮」이라고 부른다고 하였고 『원사』(元史) 순제본기에서는 「고려씨」(高麗氏)를 「肅良合氏」로, 충의렬전에서는 「고려사람」을 「肅良合台人」이라고 기록하였는데 이것은 「솔롱고」를 표기한것이다.

이상 「조리비서」와 「줄본」의 호상관계를 분석하는 과정에 북부여에 기원을 둔 고구려의 발상지이자 첫 도읍지이름인 「줄본」의 「줄」은 같은 동족의 나라들이고 역시 그 기원을 같이하고있는 동부여와 남부여의 도읍지이름들과 마찬가지로 「조리비서」의 「조리」와 밀접한 공통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문제로 되는것은 「줄본」을 『광개토왕릉비』에서는 「홀본」(忽本)이라 하였고 『삼국유사』에서는 일명 「홀본」(訖本)이라고도 하였으며 『위서』에서는 「홀승골성」(紇升骨城)이라고 한것인데 「홀본」·「홀본」·「홀승골」은 「줄본」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것이다.

이에 관하여 견해를 발표한 연구자들은 일치하게 「홀본」과 「줄본」을 동일시하였고(손영중 「고구려사」) 또 「홀승골」은 「홀본골」을 잘못쓴것이라고 해석하였다.(류렬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

「홀본」과 「홀승」을 대비해보면 「홀」(忽)과 「訖」(訖)은 어음이 서로 근사하므로 호상 통용될수 있다고 볼수 있고 「본」(本)과 「승」(升)은 어음이 완전

히 다르지만 자형상에서 서로 비슷하므로 「升」은 「本」을 잘못쓴데로부터 생겨난 오자라고 해석하는데는 일리가 있다고 본다.

한편 「홀본」·「홀본」과 「줄본」은 첫 음절이 서로 다르지만 어음 「ㅎ」과 「ㅅ」은 조선어에서 서로 넘나드는 현상이 있고 또 어음 「ㅅ」은 「ㅈ」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홀본」과 「줄본」이 하나의 이름에 대한 서로 다른 표기라고도 볼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데로부터 『삼국사기』에서는 「홀승골성」과 「줄본」은 같은곳인듯 하다고 해석하였고 「아방강역고」의 「줄본고」(卒本考)에서는 나아가서 『구당서』의 발해전에 나오는 발해행정구역의 하나인 「솔빈부」(率賓府)의 「솔빈」이나 『성경지』에 나오는 금나라의 「속빈로」(速賓路) 또는 「소빈로」(蘇賓路)의 「속빈」·「소빈」 등도 다 「줄본」과 관계되는 이름들이라고 지적한것이다.

『조선말력사』에서는 「紇本骨/訖本骨」에서의 「骨」은 삼국시기 고장이름들의 표기에서 흔히 볼수 있는 「忽」과 마찬가지로 「성」(城)을 뜻하는 옛날말인 「고로/구루」에 대한 소리웁김으로 되고 「紇本」과 「訖本」은 「卒本」으로 표기된 「수루부루/서러버러」의 옛 형태인 「구루부루/가라바라」에 대한 소리웁김으로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卒本」으로 표기된 「수루부루/서러버러」는 「구루부루/가라바라→후루부루/하라바라→수루부루/사라바라」의 변천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紇本」·「訖本」·「卒本」등 여러가지로 표기되었다고 보았다.

「홀」(忽)자는 고구려지명에서 흔히 볼수 있는 글자이다.

『삼국사기지리지』에 수록되어있는 고구려지명들에서 「忽」자는 모두 지명의 제일 마지막위치에 반복사용되고있는데 후날 한자로 모두 「성」(城)으로 의역표기되었다. 이것은 당시에 「忽」자가 지명의 단위어로 고착되어있었고 그 음가도 고정되어 특정한 한 대상을 가리키는 말로 널리 쓰이고있었던 사실을 말해주고있다.

력사문헌을 보면 고구려에서 「성」을 「구루」라고 불렀다고 기록되어있다. 고구려지명에서 단위어로 쓰인 「홀」(忽)은 「성」(城)으로 의역표기되었으

므로 이에 근거하여 보면 「忽」은 바로 「구루」라는 말을 나타내고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구려시기에 「홀」이 「성」을 의미하는 「구루」라는 말을 표기하는 글자로서 그 사용이 보편화되어있었다는 사실은 5세기초에 건립된 「광개토왕릉비」에 기록된 「홀본」(忽本)의 첫음절 「홀」자의 음가를 「줄본」이나 「술빈」의 첫음절 「줄」, 「술」의 음가와 동일시하는데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줄본」과 「홀본」은 위에서 소개한 연구자들의 주장을 따른다면 서로 같은 말을 나타내고있는 표기로 볼수도 있겠지만 「홀」(忽)이 고구려지명에서 「성」(城)을 가리키는 「구루」라는 말을 나타내는데 보편적으로 쓰인 사실에 비추어 「줄」과 「홀」(忽)의 호상관계를 역사언어학적으로 보다 신중하게 따져서 해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음으로 해명할것은 「줄본」·「홀본」·「술빈」의 「본」·「빈」은 무엇을 나타내는 말인가 하는것이다.

「줄본」·「술빈」의 「본」·「빈」은 「세나라시기의 리두에 대한 연구」와 「조선말력사」에서 이미 해독한것처럼 「부리」 또는 「비리」나 그와 유사한 어음을 가진 말을 표기하고있다고 할수 있는데 「남부여」라고 불리운 백제의 고지명 「소부」의 「부리」를 증거로 들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전해오는 우리 말 지명에서 「벼랑」을 의미하는 「벼루」·「베루」·「비낭」·「비리」 등의 단어들을 흔히 한자 「빈」(濱)자로 표기하여왔고 또 「別午」·「別于」·「別隅」라고도 표기하였는데 이것은 리두로 「빈」을 「비리」나 그와 유사한 음으로 읽었던 사실을 말해주고있다.

고려시기 「술」(酒)을 가리키던 단어 「수불/수불」을 「계림류사」에서는 「酥亭」로 표기하였으나 「조선관역어」에서는 「數本」으로 표기하였다는 사실도 역시 「本」자를 옛날에 「불」·「부루」 또는 그와 유사한 음으로 읽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자료로 된다.

「본」(本)·「빈」(濱)으로 표기된 「부루」·「비리」·「벌」·「불」 등의 단어들은 우리 나라 고대지명들에서 흔히 나타나는것들로서 후에 「국」(國)·「평」(平)·「원」(原)·「강」(岡)·「화」(火) 등의 글자들로 의역되거나 「夫里」·「不」·

「弗」·「伐」·「非離」 등으로 음역되었고 고구려·백제·신라시기는 물론이고 그 이후시기에 우리 나라 지명의 조성요소로 광범하게 쓰이였다.

이상 고조선지명 「비서갑」과 고구려지명 「조리비서」, 고구려의 첫도읍지 이름 「졸본」을 호상 대비연구하는 과정에 이 두 지명이 어음상에 있어서나 그에 깃든 역사적인 사건, 사실상에 있어서 깊은 련관이 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

주목되는것은 『삼국유사』에 실린 「졸본」에 대한 주석에서 언급된 내용으로서 「졸본부여」는 「북부여의 별도」였고 「부여별종」인 고구려는 본래 「졸본부여」였다는 기사이다.

옛 기록들에서는 「졸본부여」에서 발상한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이라고 일치하게 말하고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삼국지』에 실린 고구려관계기사를 들수 있다.

“동쪽사람들(東夷)의 옛이야기(舊語)에 고구려는 부여의 별종(別種)이라고 한다. 언어 등 많은 면에서 부여와 같다. 그러나 고구려인의 성질(性氣)과 의복은 부여와 차이가 있다.”(『삼국지』 고구려전)

「졸본부여」가 북부여의 「별도」(別都)였다면 「졸본부여」라는 이름이 그의 본거지이름 《조리비서》를 그대로 따랐거나 또는 그에서 파생된 이름이라고 보는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은 우리 나라 력대구가들에서 나라의 도읍지 이외에 별도(부수도)를 두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이였고 그 별도의 이름은 흔히 수도의 이름을 그대로 따르거나 그에서 파생된 이름으로 불리웠기때문이다.

실례로 고조선시기 수도 평양을 왕검성이라고 불렀는데 고조선의 서북쪽령토인 룡동에도 역시 동일한 지명으로 불리우는 고장이 있어 력사에 “만의 구도”(만의 옛 도읍)라고 기록되었고 또 고구려시기에는 수도 평양의 북쪽과 남쪽에도 역시 별도가 있어 각각 「북평양」, 「남평양」 또는 그저 「평양」이라고 불리웠다.(『사기』 조선렬전, 『한서』 지리지, 『북사』 고구려전, 『주서』 고구려전)

이러한 역사적관습에 비추어 고조선지명 「비서갑」과 고구려지명 「조리비서」, 고구려의 발상지이름 「졸본」의 관계를 분석하면 그 이름들이 결국 하나의 동일한 연원에서 발생 또는 파생되었다고 말할수 있다.

따라서 『제왕운기』, 『삼국유사』 등 고려시기의 역사문헌들에서 고조선과 부여와의 관계, 부여와 고구려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고구려시조 동명왕과 부여왕 해부루는 모두 단군의 아들이고 시라·고례·남옥저·북옥저·동부여·북부여·예와 맥은 모두 단군이 다스리던 곳이었다고 언명할수 있었던 기본근거의 하나는 단군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비서갑」이라는 지명이 다른 아닌 「조리비서」를 가리키는 이름이었기때문이어이기도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단군고기」와 「제왕운기」에서는 이러한 연고관계를 근거로 하여 부여를 통합하고 고조선의 옛 강토를 수복하였으며 고조선의 발상지이며 수도였던 평양에 천도한 고구려를 고조선의 계승국이라고 언명하였고 고구려를 계승한 고려의 역사적정통성에 대하여 당당하게 자랑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글자의 형태음운론적처리에 대하여

Handling of Morphologic Phonology of Korean Letters

리승길*

조선사회과학원 언어학연구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 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어 글자를 이루고 글자가 결합되어 하나의 단어를 이룬다. 우리 나라 글자는 결합방식이 과학적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한 발음도 다 표기할수 있다.》

우리 글자는 개개의 글자가 하나의 음운을 나타내는 자모글자이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소리마디단위로 모아쓰게 되어있는 네모글자이기도 하다. 우리 글자는 자모자들의 결합방식이 과학적으로 짜여있어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한 발음이라도 다 표기할수 있는 훌륭한 글자이다. 자모글자이면서도 소리마디단위의 글자로 표현된다는데 우리 글자의 고유한 특징이 있다.

일반적으로 조선글자라고 하면 소리마디단위로 자모들을 모아쓴 네모글자를 념두에 둔다. 이러한 글자들은 최소의 어음론적발음단위인 소리마디(음절)에 거의 일치하므로 소리마디글자 또는 음절자라고 부른다.

조선어정보처리에서는 음절자들이 독자적인 부호화의 대상으로 되어 글자연산처리의 기본단위로 다루어지는데 조선어형태단어의 올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형태단어를 구성하는 음절자들에 대한 다양한 음절자분리 및 재구성 조작을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군 한다.

* Ri Sung Gil(Professor, Section Chief of Institute of Linguistics,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례를 들어 《가는》이라는 형태단어의 경우에 그 해석후보로 적어도 《가+는》, 《가(다)+는》, 《갈(다)+는》, 《가늘(다)+ㄴ》의 네가지가 있을 수 있다. 여기서 알수 있듯이 형태단어의 구조해석을 위해서는 음절자들의 자모구성을 여러가지로 변화시켜보아야 하는 조작이 필요하다. 즉 《가는》에서의 음절자 《가》는 《갈》로 될수도 있고 《는》은 《늘》과 《ㄴ》으로 분해될수도 있다.

조선어형태단어의 해석처리에서 제기되는 조선글자의 이러한 분리 및 재조합조작은 조선어형태단어조성시에 나타나는 형태음운론적원리에 근거하여 진행할 때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다.

조선어는 교착어로서 단어들의 형태갯춤이 형태음운론적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짜인 문법적특성을 가지고있다. 형태단어가 이루어질 때의 짜인 형태음운론적규칙성은 우리 글의 표기원리에 따른 음절자들의 음운구성에도 반영되며 그것을 리용하여 형태단어해석을 위한 음절자들의 분해와 재조합을 원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론문에서는 조선어형태단어가 이루어질 때 어떤 형태음운론적규칙이 작용하며 그것이 음절자들에 어떻게 반영되며 그에 기초하여 형태단어해석에서 제기되는 형태음운론적제약 및 변화현상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할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1. 조선어 형태단어표기에서 나타나는 형태음운론적규칙

형태단어는 일정한 문법적형태를 취한 문장속의 단어를 말한다.

조선어에서 단어의 문법적형태는 기본적으로 말줄기에 토들이 들어붙(교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단어말줄기에 토들이 들어붙을 때 형태부들의 음운구성조건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음운론적제약 및 변화현상이 일어나며 그것은 그 표기형태에도 반영된다.

1.1. 형태음운론적현상과 형태단어의 표기

형태음운론(morphonology)은 형태부들의 음운론적규칙성을 연구하는 음운론과 형태론의 경계분야이다. 형태음운론에서는 형태부들의 형태들과 문법적 및 의미적범주들과의 대응관계와 한 형태부를 이루는 매개 이형태들의 호상관계, 형태부들이 어울릴 때의 형태변화를 음운론적으로 설명하는것을 기본과제로 한다. (沈家煊译 2000, 亀井孝編 1996)

우리 말 단어들의 형태갖춤과정에는 말줄기에 문법적형태부 즉 토들이 들어붙을 때 일련의 켜인 음운론적규칙이 적용된다.

례를 들어 《해가 뜬다》에서의 《-가》, 《달이 뜬다》에서의 《-이》는 모두 주격의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데 각각 어떤 말줄기뒤에 붙는가에 따라 선택되는 한 형태부의 서로 다른 형태들이다. 즉 《-가》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줄기뒤에, 《-이》는 자음으로 끝나는 말줄기뒤에 선택되어 쓰이는 형태부 [-가/이]의 변종형태들이다. (여기서는 대괄호 ()는 형태부를 나타낸것임)

다른 례로 《보아서》와 《주어서》, 《기여서》에서의 《-아서》와 《-어서》, 《-여서》도 역시 같은 문법적의미를 나타내는데 용언말줄기의 음운구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선택되는 문법적형태부인 [-아서/어서/여서]의 서로 다른 변종형태들이다. 특히 동사 《하다》의 말줄기에는 《-여서》가 선택되어 《하여서》로 되며 《해서》의 형태로 줄어드는데 이것은 다른 용언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특수한 형태음운론적현상이다.

이렇게 형태부들의 음운구성조건에 따라 그에 결합하는 형태부들의 변종 형태들이 선택되거나 또는 특수한 형태부에 한하여 특정한 단어형태의 음운구조가 달라지는 현상들은 모두 형태부실현에 관계되는 음운론적규칙에 따른 형태음운론적현상이다. (리승길 2012)

형태음운론적현상은 단어의 문법적형태갖춤에서뿐 아니라 단어들의 발음과정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례를 들어 《앞에》는 [아페]로 발음하지만 《앞언덕》은 [아번덕]으로 발음하는데 이때 《앞》의 음운 /ㅍ/가 각각 [포]와 [비]로 달리 발음되는것은

뒤에 오는 모음이 어떤 형태부의 것인가에 따른 것이다. 즉 뒤에 토인 형태부가 오면 자기 소리값대로 이어나지만 자립적인 형태부가 잇달리면 단어끝에서처럼 끊어나면서 다른 말소리로 바뀌어간다.

또 다른 레로 《앞이 환하다》의 《앞이》는 [아피]로 발음하지만 《앞이가 부러지다》의 《앞이》는 [암니]라고 발음하는데 이것도 역시 어떤 음운구성의 형태부들이 어울렸는가에 따르는 형태음운론적인 발음현상이다.

단어의 형태부구성에 따라 형태부들사이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음운실현의 규칙성에 대한 설명도 궁극에는 형태음운론적인 것으로 된다.

단어들의 형태갇춤과정에 일어나는 음운구성상의 제약이나 변화현상들은 형태론적질서의 것으로 취급되면서 맞춤법상으로 고착되며 단어의 형태부구성에 따르는 음운변화현상들은 음운론적문제로서 발음법에서 설명하고 단어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로부터 형태단어표기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형태음운론적문제는 단어들의 형태조성과정에 나타나는 형태음운론적제약 및 변화현상에 국한시켜볼수 있다.

우리 글은 단어들의 형태를 밝혀주는 형태주의원칙에 따라 씌여지며 그에 따라 형태조성과정에 이루어지는 형태음운론적제약과 변화들도 음절자표기에 짚이게 반영된다. 그러므로 형태단어를 나타내는 음절자들에 반영된 형태음운론적특성을 잘 파악하면 단어의 형태부구성을 쉽게 파악할수 있다.

1.2. 단어형태조성과정에 이루어지는 형태음운론적제약

무엇보다먼저 단어의 문법적형태조성과정에는 말줄기나 토들의 음운구성조건에 따라 변종의 형태가 선택되어 쓰이는 형태음운론적제약현상들이 있다.

여기에서는 말줄기끝의 음운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 토들의 변종형태가 결정되는 현상과 어떤 부류의 토들이 오는가에 따라 말줄기끝의 음운구성이 변하는 현상의 두가지를 크게 갈라볼수 있다.

1.2.1. 토교착에서의 형태음운론적제약과 그에 따른 토들의 갈래

우선 말줄기끝소리마디의 음운구성에 따라 토들의 변종형태가 결정되는 형태음운론적현상이 있다.

이런 현상에는 말줄기가 받침글자로 끝났는가 아닌가에 따르는 변종들이 선택되는 현상(짜토현상)과 말줄기끝의 모음의 성질에 따라 그에 어울리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토변종들이 선택되는 현상(모음조화현상)이 포함된다. 또한 일부 류형의 토들은 말줄기의 음운구성조건에 따라 결합모음 <으>가 끼일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김용구 1989, 정순기 2005, 리승길 2005)

이러한 형태음운론적제약을 기준으로 토들을 부류지어보면 다음의 여섯 가지 부류로 갈라볼수 있다.

첫째로, 말줄기의 끝음절자의 종성자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변종형태가 결정되는 짜토제약부류이다. 이러한 짜토제약부류들에는 {가/이}, {를/을}, {와/과}, {는/은}, {야/아}와 같은 대상토들과 <오/소>계렬, <ㄴ/는>계렬, <ㅂ/습>계렬의 용언토들이 있다. <오/소>계렬의 용언토들에는 {오/소}, {오이까/소이까}, {웨다/웨다}와 같은것들이 속하며 <ㄴ/는>계렬의 용언토들에는 {ㄴ다/는다}, {ㄴ대/는다}와 같은것이 있다. <ㅂ/습>계렬의 용언토들로는 {ㅂ니다/습니다}, {ㅂ니까/습니까}, {ㅂ지요/습지요}와 같이 <ㅂ/습>의 짝을 이루며 시작되는 용언토들을 들수 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맷음토 <-오>를 내세울수 있을것이다.

둘째로, 용언말줄기의 모음에 어울리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토가 선택되는 모음조화제약부류이다. 이 부류의 토들은 앞의 말줄기의 모음이 뒤모음계렬의 밝은모음이면 <아>로, 앞모음계렬의 모음으로 끝나면 <여>로, 그밖의 경우에는 <어>로 시작되는 변종형태들로 실현된다. 그런데로부터 이 부류의 토들은 흔히 <아/어/여>로 시작되는 토라고 부른다. 레를 들어 {아/어/여}, {아서/어서/여서}, {아도/어도/여도}, {아야/어야/여야}, {왔/왔/였}와 같은것들이 이 부류에 속한다.

대표적인 형태로 이음토 <-아>를 내세울수 있을것이다.

셋째로, 결합모음을 요구하는 용언토의 한 부류로서 받침토계렬과 <ㅅ>

계렬의 토, 《ㄴ》계렬의 일부 이음토들을 포함하는 부류가 있다. 이 부류의 토들을 결합모음제약1부류라고 부를수 있을것이다.

반침토계렬의 용언토들이란 반침자 《ㄴ, ㄹ, ㅁ, ㅂ》로 시작되는 용언토들로서 {-(-)니}, {-(-)ㄴ가}, {-(-)리}, {-(-)ㄹ가}, {-(-)마}, {-(-)ㅁ세}, {-(-)ㅂ시다}와 같은 토들을 말한다. 《ㅅ》계렬의 용언토들로는 {-(-)시}, {-(-)세}, {-(-)십시오}, {-(-)소서}와 같은 토들을 들수 있다. 그리고 이 부류에 속하는 《ㄴ》계렬의 일부 이음토들로는 {-(-)니}, {-(-)나}, {-(-)니까}와 같은것들이 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가니, 앓으니》 등에서의 《-니》를 취할수 있다.

넷째로, 결합모음을 요구하는 용언토의 다른 한 부류로서 《ㄹ》계렬과 《ㅁ》계렬의 토들을 포함하는 부류가 있다. 이 부류의 토들을 결합모음제약2부류라고 부를수 있다.

《ㄹ》계렬의 용언토들에는 {-(-)라}, {-(-)레}, {-(-)려고}, {-(-)리}와 같은것들이 속하며 《ㅁ》계렬의 용언토들로는 {-(-)며}, {-(-)면}, {-(-)마}, {-(-)면서}, {-(-)므로}와 같은 토들을 레로 들수 있다.

이 류형의 토들은 《ㄹ》로 끝나는 용언말줄기뒤에 들어붙을 때 결합모음을 요구하지 않는다는데서 결합모음제약1부류의 용언토들과 구별된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가며, 앓으며》에서의 《-며》를 취할수 있다.

다섯째로, 결합모음을 요구하지 않는 《ㄴ》계렬의 용언토부류가 있다. 《ㄴ》로 시작되는 용언토들인 {-(-)는}, {-(-)는가}, {-(-)느냐}, {-(-)느냐} 등과 《ㄴ》로 시작되는 맺음토들인 {-(-)나}, {-(-)냐}, {-(-)네}, {-(-)노라}, {-(-)누나} 등이 이 부류에 포함된다.

이 부류의 용언토들은 짝토제약부류의 용언토들처럼 《ㄹ-0》변격현상이 나타나게 한다. 즉 말줄기가 《ㄹ》로 끝나는 용언에 붙어쓰이는 경우 말줄기끝의 《ㄹ》은 탈락된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가냐, 앓냐》에서의 《-냐》를 들수 있다.

여섯째로, 위의 다섯가지 류형에 속하지 않는 류형의 토들이 있다. 짝토를 이루지 않는 대상토들, 《ㄱ, ㄷ, ㅈ》등으로 시작되는 용언토부류들 등이

이에 속한다. 아무런 형태음운론적제약도 하지 않고 그대로 말줄기에 들어붙으므로 무제약형이라고 부를수 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가고, 앉고》에서의 <-고>를 취할수 있을 것이다.

1.2.2. 형태음운론적제약에 따른 말줄기변화와 그 갈래

또한 뒤에 어떤 부류의 토들이 오는가에 따라 말줄기의 음운구성이 달리 이루어지는 형태음운론적현상이 있다.

이런 형태음운론적현상들로는 《걷다-걸어》, 《곱다-고와》, 《말다-마니》, 《있다-이으니》, 《파랗다-파라나-파래》, 《다르다-달라》, 《푸르다-푸르러》, 《푸다-퍼》, 《크다-커》와 같은 변격용언들의 변격현상들이 있다. (김용구 1989, 정순기 2005, 리승길 2015)

우리 말 용언들의 형태갓춤도 말줄기들에 토들이 기계적으로 들어붙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다는것을 고려할 때 일부 용언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말줄기뒤부분의 음운구성변화는 기본형식에서 벗어난 변격적인것이라 할수 있다. 변격현상에 의해 생겨나는 일부 용언말줄기들의 변화형태는 특정한 용언토부류들의 교착과 더불어 선택되는 변종표기형태로 볼수 있다. 변격현상은 특정한 음운구성을 가진 특정한 용언말줄기들이 특정한 부류의 용언토부류들과 어울릴 때 말줄기뒤부분의 음운들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형태음운론적현상이다.

변격현상은 특정한 형태부들의 결합에 한하여 일어난다는 점에서는 변격적인것이지만 말줄기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형태음운론적특성에 있어서는 짝여있다. 이러한 짝인 형태음운론적특성은 그대로 이 단어형태들의 음절자구성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지 않을수 없다.

변종형태의 말줄기가 선택되는 형태론적조건을 기준으로 변격현상을 다음의 세가지 유형으로 갈라볼수 있다.

첫째로, 모음조화제약부류(<-아>부류), 결합모음제약부류(<-(-으)니>부류와 <-(-으)며>부류)의 용언토가 들어붙을 때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ㄷ-ㄹ>변격현상, <ㅂ-ㅌ>변격현상, <ㅅ-ㅇ>변격현상,

《ㅎ-0》변격현상들이 속한다.

《ㅁ-ㅌ》변격, 《ㅎ-0》변격들은 말줄기끝이 폐음절로부터 개음절로 바뀌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토들의 교착시에 일어나는 음운론적제약 및 변화는 이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례: 김다-기워, 기우세, 기우라, 노랳다-노래, 노라니, 노라며)

《ㅅ-0》변격은 말줄기가 폐음절에서 개음절로 바뀌는 형식으로 변종형태가 이루어지지만 토교착시의 형태음운론적제약 및 변화에서는 폐음절과 같이 취급된다. (례: 잇다 - 이어, 이으니, 이으며, 잣다 - 자아, 자으니, 자으며)

《ㄷ-ㄹ》변격현상은 말줄기끝의 받침자(중성자)만이 바뀔뿐이며 이때의 《ㄹ》은 토교착시의 형태음운론적제약때에 마치 《ㄷ》처럼 취급된다. (례: 걷다-걸어, 걸으니, 걸으며 : 걷다-걸어, 거니, 걸며)

둘째로, 짝토제약부류(《-오》부류), 결합모음제약1부류(《-니》부류)의 용언토가 들어붙을 때 나타나는 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ㄹ-0》변격현상들이 속한다.

《ㄹ-0》변격은 말줄기끝의 《ㄹ》이 빠져 개음절로 변하며 토교착시의 형태음운론적제약과 변화는 이에 준하여 이루어진다. (례: 길다-기오, 기니)

셋째로, 모음조화제약부류(《-아》부류)의 용언토가 오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변화유형이다.

이 유형에는 《ㄹ-ㄹㄹ》변격현상, 《ㄹ-ㄹㄹ》변격현상, 《—0》변격현상, 《ㅌ-0》변격현상이 속한다.

《ㄹ-ㄹㄹ》변격현상은 《ㄹ》의 모음 [—]가 빠지면서 뒤김소리가 혀옆소리로 바뀌어 앞음절자가 개음절로부터 《ㄹ》받침을 가진 음절자로 바뀌고 《아》형의 토와의 경계에 놓이는 음절자의 초성자는 《ㄹ》로 된다. (례: 가르다-갈라, 거르다-걸리, 기르다-길러)

《ㄹ-ㄹㄹ》변격현상은 앞음절자가 《ㄹ》이며 경계음절자의 초성자는 《ㄹ》, 중성자는 《ㅣ》로 된다.

《—0》변격현상과 《ㅌ-0》변격현상은 말줄기끝음절자의 초성자가 《아》형의 토의 첫글자와 합쳐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이때 모음조화제약은

그 앞음절의 모음이 밝은모음이면 <ㅏ>로, 기타의 경우는 <ㅑ>로 선택 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ㅏ-ㅑ>변격은 동사 <푸다>에 한해서만 일어난다. (례: 담그다-담가, 따르다-따라, 고프다-고파, 건느다-건너, 슬프다-슬퍼, 크다-커, 푸다-퍼)

1.3. 단어의 형태조성과정에 이루어지는 형태음운론적변화

단어의 문법적형태조성과정에는 말줄기에 토들이 들어붙을 때 형태부들의 경계에 놓인 음운들의 융합과 축약에 의해 음절자의 구성이 달라지는 형태음운론적변화현상도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말줄기뒤에 토들이 들어붙을 때 형태부들사이의 경계는 음절자들사이에 놓인다. 그러나 모음으로 끝나는 말줄기인 경우에는 어떤 부류의 토가 오는가에 따라 말줄기끝의 음절에 토의 앞부분에 놓이는 음운들이 녹아들거나 합쳐지면서 형태부경계가 한 음절자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1.3.1. 받침토들이 붙는 경우

받침으로 시작되는 토들은 모음으로 끝나는 말줄기와 어울려 하나의 소리마디를 이룬다. 이 경우에 형태부들의 경계는 음절자의 중성자와 종성자사이에 오게 된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받침토들에는 받침자 <ㄴ, ㄹ, ㅁ, ㅂ>로 시작되는 토들이 속한다. 받침토들이 자음으로 끝난 말줄기뒤에 오는 경우에는 그 사이에 결합모음이 끼여난다. 이때에는 형태부경계가 음절자들사이에 온다.

받침토들가운데서 바꿈토 <-(으)ㅁ>은 특수하게 <ㄹ>로 끝나는 용언 말줄기에 붙기도 하는데 이때에는 받침이 들받침자 <ㄹ>로 된다.

례: 하다 - 한다, 할가, 함으로써, 합니다

례: 만들다 - 만든다, 만들가, 만듦으로써, 만듭니다

1.3.2. 모음조화선택을 하는 토들이 붙는 경우

모음조화제약부류의 토들이 모음으로 끝나는 말줄기와 어울릴 때 앞의 모음의 어음적성질에 따라 융합이나 축약과 같은 음운변화가 일어날수 있다.

앞의 모음이 <ㅏ, ㅑ, ㅓ>로서 뒤에 오는 토의 모음과 같은 경우 그리고 앞모음 <ㅗ, ㅛ>인 경우에는 뒤에 오는 토의 시작모음이 앞의 모음에 녹아들어(융합되어)버린다. (례: 가다-가서, 서다-서서, 피다-피서, 깨다-개서, 데다-데서) 다만 동사 <하다>의 경우에는 제외여서 이러한 융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앞의 모음이 앞모음 <ㅣ>인 경우에는 그것이 뒤에 오는 겹모음 <ㅓ>에 녹아들어 <ㅓ>로 융합되어 나타날수 있다. (례: 반기다-반기여서<반겨서>)

앞의 모음이 둥근모음 <ㅜ>나 <ㅡ>인 경우에는 뒤에 오게 되는 모음 <ㅣ>나 <ㅏ>와 합쳐져 겹모음인 <ㅜ>나 <ㅓ>로 줄어든다. (례: 주다-주어서<쥬서, 보다-보아서<봐서>)

앞의 모음이 둥근 앞모음인 <ㅓ>나 <ㅕ>인 경우에는 뒤에 오는 모음과 합쳐져 겹모음인 <ㅓ>나 <ㅕ>로 줄어든다. (례: 되다-되여서<돼서, 쥐다-쥬여서<쥬서>)

용언 <하다>인 경우에는 모음조화선택이나 줄임형에서 특수한 형태변화가 일어난다. 이 용언의 말줄기 <하>에는 <-여>로 시작되는 토들이 선택되어 쓰이며 이때 두 모음은 합쳐져서 <ㅏ>로 줄어들수 있다. (례: 하다-하여서<해서>) 이것은 모음조화나 소리줄이기의 어음법칙에는 위반되는것으로서 특정한 형태부에 한하여 일어나는 음운론적제약 및 변화현상이라고밖에 달리 설명할수 없다.

앞의 모음이 <ㅎ-0>변격현상에 따른 변종형태의 말줄기의 경우에는 말줄기끝의 모음이 뒤의 모음과 합쳐져 앞모음화되어 홀모음들은 <ㅗ>로, 겹모음들은 <ㅓ>로 줄어든다. (례: 노랗다-노래서, 그렇다-그래서, 하얗다-하에서, 뿌옇다-뿌에서) <ㅎ-0>변격용언에서 모음조화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ㅏ>나 <ㅓ>가 모두 <ㅓ>로 앞모음화되고 <ㅓ>나 <ㅕ>가 <ㅓ>로 앞모음화되는것도 역시 <하다>의 형태변화와 연관시켜 설명할수 있다.

《ㅎ-0》변격용언의 《ㅎ》는 《하다》에서 온 것이며 《하다》는 《-아》형의 토와 어울릴 때 앞모음화되어 《해》로 줄어든다.

모음조화제약부류의 토들이 모음으로 끝나는 말줄기와 어울려 융합되거나 축약되는 경우에 형태부경계는 한 음절자의 모음에 겹쳐놓이게 된다.

1.3.3. 특정한 형태부의 음운이 빠지면서 축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단어의 형태조성과정에는 특정형태부에 한하여 음운탈락이나 축약현상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동사 《하다》는 《-아》형의 토와 어울릴 때 특수한 변종선택 및 축약의 모습을 보일뿐 아니라 다른 단어나 형태부들의 뒤에 어울려쓰일 때에도 특수한 음운론적변화를 보인다.

우선 《하다》가 붙어 만들어진 용언말줄기에 순환소리자음으로 시작되는 토들이 들어붙을 때 말줄기끝의 모음 《ㅏ》가 빠지고 자음줄이기가 일어난 것이 맞춤법적으로 고착되는 경우가 있다. (례: 용서하지 않다 - 용서치 않다, 튼튼하게 - 튼튼케, 무궁하다 - 무궁타) 이 경우에는 자음축약이 일어난 음절자의 초성자위치에 형태부경계가 놓인다고 볼수 있다.

다음으로 일부 맺음형태나 이음형태뒤에서 《하다》의 《하》가 빠지면서 토접침현상이 일어날 때 받침자축약과 모음축약이 규칙성을 띠고 일어난다. (례: 하려 한다 ← 하련다, 한다 해서 ← 한대서, 하라 했다 ← 하랬다) 받침자축약의 경우에는 중성자와 종성자사이에, 모음축약의 경우에는 중성자에 형태부경계가 놓인다고 볼수 있다.

2. 조선어형태단어해석을 위한 음절자의 형태음운론적처리

조선어형태단어해석은 본문에서 출현하는 형태단어표기로부터 그것을 이루는 형태부들의 렬을 갈라내는 언어공학적처리를 말한다.

형태단어해석을 위해서는 단어표기에 쓰인 음절자표기렬안에서 가능한 형태부후보들을 모두 찾아내어 그 결합가능성을 따져보고 가장 적중한 형태

부렬을 걸러내야 한다.

형태단어표기렬안에서 형태부후보들의 찾기는 사전대조를 통해 이루어지며 형태부후보들사이의 결합가능성은 미리 짜여진 규칙기지의 참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형태부후보검출을 위한 사전대조와 결합판정을 얼마나 빠르게, 정확히 하는가에 따라 형태단어해석의 전반적인 효율이 결정된다. (리승길 2015)

조선어의 음절자표기에 반영되는 형태음운론적특징을 잘 리용하여 형태부후보의 검출과 결합판정에 편리하게 사전정보를 구성하고 결합규칙기지를 잘 준비하여 리용하면 해석의 속도와 질을 높일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음절글자들과 관련하여 형태단어해석시에 어떤 형태음운론적처리가 요구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효율적인 사전대조 및 결합판정을 위한 언어공학적처리방법을 생각해보기로 한다.

2.1. 조선음절자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형태음운론적처리

단어의 형태갓춤과 관련한 형태음운론적특성으로 하여 형태단어해석시에 제기되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형태부후보들을 정확히 찾기 위하여 음절자들에 대한 다음의 형태음운론적처리가 요구된다.

첫째로, 매개 음절자들에 대하여 그것이 형태부경계글자로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하며 그에 해당하는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형태부경계글자란 두 형태부의 경계면에 놓이면서 음절자의 구성상특성으로부터 하나로 합쳐져 표기된 음절자를 말한다. 즉 앞형태부의 뒤부분과 뒤형태부의 앞부분이 서로 합쳐서 하나의 음절자로 된 경우이다.

이런 형태부경계글자에 대해서는 글자분리조작이 필요하다. 다시말하여 앞형태부의 뒤글자로 될 음절자와 뒤형태부의 첫글자로 될 음절자 또는 받침자를 분리해내야 한다. 이 글자들을 각각 분리앞글자, 분리뒤글자라고 부른다.

글자분리가 이루어지는 경우 분리앞글자는 언제나 앞형태부의 끝글자로 되며 분리뒤글자는 뒤형태부의 첫 글자로만 된다. 경계글자가 바로 형태부들의 연결부위에 존재하는 음절자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해당 음절자가 변격용언현상에 의한 형태음운론적변종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고 기본형태로 환원할수 있어야 한다.

변격용언은 특정한 용언토부류와 어울릴 때 말줄기끝에 놓인 음운들이 바뀌거나 빠지는 형식으로 또는 없던 음운들이 첨가되는 형식으로 말줄기의 모양이 변한다.

조선어형태단어해석에서는 이러한 변격용언의 말줄기변종들에 대해서 그 기본변종 즉 사전적형태의 말줄기표기로 음운구성을 환원시켜야 한다. 즉 《들어서》는 《들+어서》, 《고우니》는 《곱+(으)니》, 《이으니》는 《잇+(으)니》, 《노래서》는 《노랑+아서》, 《날라서》는 《나르+아서》, 《푸르러서》는 《푸르+아서》로 해석이 되어야 한다.

셋째로, 해당 음절자가 해당하는 형태음운론적제약을 만족하는가를 쉽게 판정할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의 형태음운론적제약은 문법적형태부들이 말줄기들에 들어붙을 때 말줄기의 음운구성조건에 따라 그에 알맞는 변종형태들이 선택되게 하는 형태론적 및 음운론적인 조건을 가리킨다. 앞서 언급한것처럼 우리 말의 형태음운론적제약현상으로는 짝도현상, 모음조화현상, 결합모음현상을 들수 있다.

음절자에 대한 형태음운론적제약의 판정문제는 결국 형태단어표기렬안의 부분글자렬이 어떤 문법적형태부로 가정될 때 그앞에 놓이는 음절자가 그에 맞는 음운구성조건을 갖추고있는가를 판정하는 일로 된다.

조선어형태단어해석과정에 요구되는 음절자에 대한 형태음운론적처리의 내용을 이상의 세가지로 묶어볼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형태음운론적처리를 실현하기 위해 음절자들에 대하여 어떤 처리조작을 할수 있을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론하려고 한다. 설명의 편의상 형태음운론적제약조건의 판정, 음절자의 분리조작, 말줄기변종의 판정 및 환원문제의 순서로 보기로 한다.

2.2. 형태음운론적 제약조건의 판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단어의 형태조성과정에 작용하는 형태음운론적 제약의 내용들로는 짝도선택과 모음조화선택, 결합모음선택의 제약들이 있다.

2.2.1. 짝도선택제약의 판정

짝도선택제약의 판정은 짝도로 인정되는 토들이 발견되는 경우 그앞의 음절 자구성이 짝도가 요구하는 음운구성조건을 만족하는가를 확인하는 일이다.

우리 말의 짝도들로는 격토들인 {-가/이}, {-를/을}, {-로/으로}, {-와/과}, {-야/아}, 도움토인 {-는/은}, 용언토인 {-오/소}, {-ㄴ다/는다}, {-ㅂ니다/습니다}와 같은것들을 들수 있다.

이러한 짝도들의 선택에서는 앞음절자에 대하여 세가지 음운구성조건에 대한 확인 즉 모음으로 끝난것인가, 자음으로 끝난것인가, 자음 /ㄹ/로 끝난것인가를 확인하는 조작이 필요하다.

격토 {-가/이}, {-를/을}, {-와/과}, {-야/아}, 도움토 {-는/은} 등은 단순히 앞음절자가 받침자가 없는가 있는가에 따른 선택을 하지만 격토 {-로/으로}, 용언토들인 {-오/소}, {-ㄴ다/는다}, {-ㅂ니다/습니다}와 같은것들은 앞음절자가 모음 또는 /ㄹ/로 끝난 경우인가 아니면 /ㄹ/이외의 자음자로 끝나는것인가에 따른 선택제약을 한다.

결국 짝도선택제약조건의 판정은 해당 음절자에 종성자가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ㄹ>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것으로 해결될수 있다.

2.2.2. 모음조화선택제약의 판정

모음조화선택제약의 판정은 음절자 <아, 앓>, <어, 었>, <여, 였>이 출현하였을 때 그것들이 앞에 놓이는 음절자들과의 관계에서 모음조화제약을 만족하는것들인지를 확인하는 조작이다.

모음조화선택제약에 의해 <아>로 시작되는 변종형태들은 말줄기의 모음이 밝은모음계렬의 뒤모음인 경우에, <여>로 시작되는 변종형태들은 말

줄기가 앞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 선택되며 기타의 경우는 《어》로 시작되는 변종형태들이 선택된다.

이로부터 모음조화선택제약의 판정조작은 앞음절자의 중성자와 종성자를 분석하여 중성자가 밝은모음계렬의 뒤모음인 《ㅏ, ㅑ》인가, 아니면 앞모음계렬의 《ㅓ, ㅕ, ㅖ, ㅗ, ㅛ》인가, 그리고 받침이 있는가를 확인하는것만으로 모음조화여부를 판단할수 있다.

《아/어/여》로 시작되는 토들이 말줄기에 융합되거나 축약되어 한음절자에 형태부경계가 조성되는 경우의 처리는 아래의 음절자분리조작에 의해 진행된다.

만일 모음조화여부가 확인된것이라면 변종형태의 첫글자들을 대표적인 어떤 한 글자로 레컨대 《아》로 통일시켜 사전대조를 해볼수도 있을 것이다.

2.2.3. 결합모음선택제약의 판정

결합모음선택제약판정은 본문에 출현하는 《으》로 시작되는 음절자가 결합모음을 나타내는 음절자로 될수 있는가 없는가를 앞뒤글자들의 음운구성을 따져서 확인하는 일이다.

앞서 형태음운론적제약에 따른 토들의 갈래에서 설명한것처럼 결합모음을 요구하는 토들은 음운구성에서 《ㄴ, ㄷ, ㄹ, ㅂ》로 시작되는 받침토이거나 혹은 첫음절자가 《ㄴ, ㄷ, ㄹ, ㅂ》로 시작되는것들이라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본문속의 음절자 《으》가 결합모음인가 하는것은 그앞의 음절자가 폐음절자이고 뒤음절자의 초성자가 《ㄴ, ㄷ, ㄹ, ㅂ》인가를 확인하여 추정할수 있으며 《으》로 시작되는 음절자가 결합모음을 포함한 받침토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은 그 음절자의 받침이 《ㄴ, ㄷ, ㄹ, ㅂ》이면서 앞음절자가 폐음절자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판단할수 있다.

2.3. 형태음운론적규칙에 따른 음절자의 분리조작

음절자의 분리조작은 해당 음절자가 형태부경계글자일 경우 앞형부의 뒤

글자로 될 부분과 뒤형태부의 앞글자로 될 부분을 갈라내는 조작이다.

경계글자들에서 형태부경계는 많은 경우 중성자와 중성자사이 또는 중성자에 놓이며 드물게는 초성자와 중성자에 놓이기도 한다.

2.3.1. 중성자와 중성자사이에 형태부경계가 놓이는 경우

이 경우는 모음으로 끝나는 말줄기에 받침토가 들어붙은 경우에 해당된다. 받침토들의 받침자가 <ㄴ, ㄹ, ㅁ, ㅂ>로 한정되므로 이 받침자를 가지는 음절자들에 한하여 초성자와 중성자로 구성되는 개음절자를 분리앞글자로, 중성자만으로 된 받침자를 분리뒤글자로 갈라내는것으로 음절자분리를 진행한다. (례: 한←하+ㄴ, 갈←가+ㄹ, 음←오+ㅁ, 봄←보+ㅂ)

결합모음뒤에 받침토가 붙은것은 그전체를 하나의 토처럼 처리하면 되므로 결합모음을 포함한것으로 판단되는 음절자는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결합모음의 분리는 단어의 형태부구성을 해석하는데서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2.3.2. 중성자에 형태부경계가 놓이는 경우

이 경우는 주로 모음조화제약부류의 토 즉 <아/어/여>계렬의 토들의 융합 또는 축약으로 하여 생긴다. 이러한 융합이나 축약이 이루어진 음절자들은 중성자가 없거나 혹은 <ㅁ>이며 중성자는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인 음절자들이다.

중성자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인 경우는 <아/어/여>로 시작되는 토들이 말줄기에 융합되어버린것일수 있다. 그리고 중성자가 <ㅓ, ㅕ, ㅗ, ㅛ, ㅜ, ㅠ>인 경우는 <아/어/여>로 시작되는 토들이 말줄기끝의 모음과 합쳐져 축약된것일수 있다. 이때 중성자가 <ㅕ>인 경우는 초성자가 언제나 <ㅇ>으로 제한된다.

융합의 경우에는 원음절자의 초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지는 음절자를 분리앞글자로 하며 초성자를 <ㅇ>, 중성자를 <ㅏ>나 <ㅑ>, <ㅓ>로 하

고 종성자를 원음절자의 종성자로 하는 음절자를 분리뒤글자로 한다. (례: 가 ← 가+아, 뵈 ← 뵈+엿, 섰 ← 서+엿, 데 ← 데+여)

축약의 경우에는 원음절자의 초성자에 각각 <ㄹ, ㄴ, ㄷ, ㄱ, ㅌ, ㄷ, ㄷ, ㄱ>를 종성자로 하는 음절자를 분리앞글자로 하며 초성자를 <ㅇ>, 중성자를 <ㅏ>나 <ㅑ>, <ㅓ>로 하고 종성자를 원음절자의 종성자로 하는 음절자를 분리뒤글자로 한다. (례: 뵈 ← 뵈+여, (하)애 ← 야+아, (히)애 ← 여+어, 뵈 ← 보+아, 뵈 ← 주+어, 뵈 ← 되+여, 뵈 ← 뵈+여)

축약의 특수한 형태로 <해>와 <했>이 있는데 이때에는 분리앞글자가 <하>로 된다. (례: 해 ← 하+여, 했 ← 하+엿)

축약의 다른 특수한 형태로 종성자가 <ㄴ>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입말체에서 흔히 쓰이는 물음의 맺음형표현 <-았니/었니/였니>가 줄어든 형태인 <-안/엔/연>을 들수 있다. 이 줄임형태는 물음문장의 마지막음절에서만 나타난다는 제약이 있다.

2.3.3. 초성자에 형태부경계가 놓이는 경우

이 경우는 흔히 음절자가 <치, 케, 타, 토>인 때 이루어진다. 이때에는 분리앞글자를 <하>로 하고 해당음절자의 초성자를 <ㅈ, ㅊ, ㅌ>로 바꾼 것을 분리뒤글자로 한다. (례: 치 ← 하+지, 케 ← 하+게, 타 ← 하+다, 토 ← 하+도)

2.3.4. 종성자에 형태부경계가 놓이는 경우

이 경우는 음절자의 받침자가 들받침 <ㄹ>인 때 이루어진다. 이때에는 <ㄹ>자만이 분리뒤글자로, 나머지부분이 분리앞글자로 갈라진다. (례: 들 ← 들+ㄹ, 앞 ← 앞+ㄹ)

2.4. 형태음운론적규칙에 따른 말줄기변종의 판정

조선어형태단어해석에서는 변격용언들의 말줄기변종형태를 판단하여 그

의 사전적표기형태와 결부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다시말해서 말줄기 부분으로 될 글자렬들에 대하여 가능한 변격용언의 변종형태들을 찾아내고 그의 사전적표기형태를 환원해내야 한다.

변격용언의 변종형태는 주로 모음조화제약부류, 결합모음제약부류, 짝토 제약부류의 토들이 교착될 때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형태음운론적 제약관계를 고려하여 변격용언의 변종형태로 될수 있는 음절자들을 추정하고 해당한 사전적표기형태의 음절자후보들을 얻어낼수 있다.

2.4.1. 모음조화제약부류의 용언토가 뒤에 놓이는 경우

이 경우는 크게 음절자가 분리글자로 되는 경우와 분리글자가 아닌 경우로 갈라볼수 있다. 분리글자가 아닌 경우는 음절자가 <아, 어>이거나 <았, 었>인 경우이다.

대상글자가 분리글자가 아닌 경우의 변격형태는 두가지로 나타날수 있다.

그 하나는 대상글자가 모음조화제약을 충족시키고 앞음절자의 종성자가 <ㄹ>인 경우에는 앞음절자부터 그 앞부분이 <ㄷ-ㄹ>변격의 변종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에는 앞음절자의 종성자를 <ㄷ>로 바꾼것이 사전적표기형태로 될수 있다. (례: 걸어←걷+어, 다달아←다닫+아)

다른 하나는 대상글자앞의 음절자가 개음절인 경우인데 이때에는 <ㅅ-0>변격의 변종형태일수 있다. 이때에는 앞음절자에 종성자 <ㅅ>를 덧붙인것이 사전적표기형태로 될수 있다. (례: 자아-жат+아, 이어←잇+어, 부어←붓+어)

대상글자가 분리글자인 경우는 분리앞글자를 포함한 앞부분글자렬이 변격의 변종형태로 될수 있다.

우선 대상글자가 모음 <과, 거>를 가진 분리글자이고 그앞의 음절자가 개음절이면 <ㅁ-ㅌ>변격의 변종형태로 판단할수 있다. (례: 고와←곱+아, 미워←밉+어)

또한 대상글자가 모음 <ㅐ> 또는 <ㅑ>인 분리글자이고 그앞에 음절자가 더 있는 경우에는 <ㅎ-0>변격의 변종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에는 분리앞글자를 앞음절자의 모음성격에 따라 <ㅓ>나 <ㅕ> 또는 <ㅗ>나 <ㅛ>로

하고 종성자를 <ㅎ>로 하는 음절자로 하여 사전적표기형태를 환원해볼수 있다. (례: 노래←노랑+아, 누래←누렁+어, 하애←하얗+아, 허애←허엿+어)

또한 대상글자의 분리앞글자가 <리>인 경우에는 <르-르>변격 또는 <르-르>변격의 변종형태일수 있다. 이때에는 앞음절자가 <르>이면 그 앞음절자부터 앞부분을, 앞음절자의 종성자가 <르>이면 종성자를 떼버리고 분리앞글자를 <르>로 바꾼 표기형태를 사전적표기형태로 가정해볼수 있다. (례: 푸르러←푸르+어, 발라←바르+아, 일러←이르+어)

또한 대상글자가 <ㅌ, ㅎ>를 종성자로 가지는 분리글자인 경우 <ㅌ-0>변격 또는 <ㅌ-0>변격의 변종형태일 가능성도 있다. <ㅌ-0>변격형은 동사 <푸다>에 한해서 나타나므로 분리앞글자가 <퍼>인 경우에만 <푸>를 사전적표기형태로 가정할수 있다. 분리앞글자의 종성자가 <ㅌ>인 경우는 그 앞의 음절자의 종성자가 밝은모음계렬의것인지를 확인하고 분리앞글자의 종성자를 <ㅌ>로 바꾸어 사전적표기형태로 할수 있다. (례: 마사←마스+아, 따라←따르+아, 잠가←잠그+아) 분리앞글자의 종성자가 <ㅎ>인 경우는 앞음절자가 없거나 혹은 앞음절자의 종성자가 밝은모음계렬의것이 아닌 조건에서 분리앞글자의 종성자를 <ㅌ>로 바꾸어 사전적표기형태를 정할수 있다. (례: 커←크+어, 슬퍼←슬프+어, 기뻐←기쁘+어)

2.4.2. 결합모음제약부류의 용언토가 뒤에 놓이는 경우

이 경우의 변격현상은 결합모음이 끼이는 경우와 끼이지 않는 경우의 두가지로 크게 갈라 처리할수 있다. 결합모음이 끼인것으로 될수 있는 음절자들로는 <으, 은, 을, 음, 읊>의 다섯개가 있다.

결합모음 <으>가 나타나는 경우는 <ㄷ-르>변격과 <ㅅ-0>변격의 두가지 변종형태가 있을수 있다.

우선 결합모음이 들어간 음절자앞에 있는 음절자의 종성자가 <르>이면 <ㄷ-르>변격이라고 보고 그 앞음절자의 종성자를 <ㄷ>로 하여 사전적표기형태를 가정해볼수 있다. (례: 걸은←걸+(으)ㄴ, 들으며←들+(으)며)

또한 결합모음이 들어간 음절자의 앞음절자가 개음절로서 결합모음제약

에 위반되는것이라면 <ㅅ-0>변격형으로 판단하고 앞음절자의 종성자를 <ㅅ>으로 하여 사전적표기형태로 할수 있다. (례: 이으니←잇+으)니, 저은←젓+으)ㄴ)

결합모음 <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말줄기가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이다. 이 경우의 변격현상들로는 <ㅂ-ㅌ>변격, <ㅎ-0>변격, <ㄹ-0>변격이 있다.

말줄기부분의 끝음절자가 <우>이고 그앞의 음절자가 개음절이면 <ㅂ-ㅌ>변격으로 보고 그 앞음절자의 종성자를 <ㅂ>로 바꾸고 그 음절자까지를 사전적표기형태로 할수 있다. (례: 고우니←곱+(으)니, 미울←땀+(으)ㄴ)

말줄기부분의 끝음절자가 <야, 여>이거나 혹은 중성자가 <ㅏ, ㅑ>인 경우는 <ㅎ-0>변격일수 있다. 이 경우에는 끝음절자의 종성자를 <ㅎ>로 하여 사전적표기형태로 설정할수 있다. (례: 빨간←빨강+으)ㄴ, 그러며←그렇+으)며)

말줄기의 끝음절자가 개음절이고 결합모음제약1부류의 토들이 뒤에 놓이는 경우 <ㄹ-0>변격에 의한 변종형태가 있을수 있다. 이때에는 말줄기끝음절자의 종성자를 <ㄹ>로 하여 사전적표기형태를 만들수 있다. (례: 긴가←길+으)ㄴ가, 도시오←돌+으)시오)

2.4.3. 짝토제약부류의 용언토가 뒤에 놓이는 경우

말줄기끝의 음절자가 개음절이고 뒤에 짝토제약을 하는 용언토들이 이어지는 경우 그 말줄기는 <ㄹ-0>변격의 변종형태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에는 말줄기끝의 음절자를 종성자를 <ㄹ>로 하는 음절자로 바꾸어 사전적표기형태로 할수 있다. (례: 만다←말+ㄴ다, 도오←돌+오, 땀니다←땀+ㅂ니다)

3. 결론

이상에서 조선어단어의 문법적형태조성과정에 나타나는 형태음운론적특성과 그것이 음절글자표기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조선어형태단어해석에서 제기되는 형태음운론적제약 및 변화현상들에 대한 처리를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음절글자처리방안을 서술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글자에 반영되는 단어의 문법적형태조성과 관련한 형태음운론적특성에 대한 설명과 그에 토대한 음절글자처리문제를 기본으로 다루었으며 형태단어해석을 위한 사전탐색 및 해석순차와 같은 문제들은 론외로 하였다.

형태음운론적으로 볼 때 우리 말은 단어들의 문법적형태조성이 껀인 형태론적 및 음운론적규칙성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로 하여 본문에 출현하는 음절자들의 표기에도 일정하게 형태음운론적특징들이 반영된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단어들의 문법적형태조성과정에 작용하는 형태음운론적특성에 대하여 분석정리하였다.

- ① 토들의 교착에서 째토선택, 모음조화선택, 결합모음선택과 관련한 제약이 규칙적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제약특성을 표식으로 하여 째토제약부류, 모음조화제약부류, 결합모음제약부류, 결합모음을 요구하지 않는 <ㄴ>계렬의 토부류, 기타의 부류 여섯가지로 갈라보았다.
- ② 토들이 교착할 때 일부 말줄기들의 음운구성이 변하는 변격현상들도 일어나는데 어떤 형태론적조건에서 일어나는 음운변화인가에 따라 세가지 류형을 갈라보았다.
- ③ 단어의 문법적형태조성과정에 린접하는 형태부들사이에 말소리융합 및 축약이 일어나며 그로 하여 한 음절자안에 형태부경계가 놓이는 특이한 현상들이 있게 되는데 그 경계가 중성자와 중성자사이에 놓이거나 또는 중성자에 겹쳐놓이는 경우가 기본이며 드물게 초성자와 중성자에 겹쳐놓이는 경우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으로 형태단어해석시에 요구되는 음절자들에 대한 형태음운론적처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형태단어조성시에 제기되는 음절자에 대한 형태음운론적처리의 내용으로서 음절자들의 음운구성에 대한 확인과 음운구성변화의 해석을 위한 음절자의 분리 및 복원조작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강조하고 그 구체적인 처리방

법으로서 짝토제약이나 모음조화제약, 결합모음제약 등 형태음운론적제약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음절글자의 음운구성평가방법, 형태음운론적변화에 따른 음절글자의 분리조작방법, 음절자들의 음운구성과 형태부결합조건에 따른 변격의 변종형태들을 찾아내고 기본형태를 복원하는 방법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기한 조선음절자들에 반영되는 형태음운론적특성과 음절자들의 형태음운론적처리방법들은 형태단어해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할뿐 아니라 조선어단어형태의 표기와 관련한 이론적문제들의 해명에서도 일정한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참고문헌

- 김용구(1989) 『조선어문법』,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정순기(2005) 『조선어형태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김성근(2005) 『조선어음운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리승길(2015) 『조선어단어해석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리승길(2012) 「조선어의 형태음운론적규칙성에 대한 고찰」, 『사회과학원학보』 2012.4,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沈家煊(译)(2000) 『现代语言学词典』, 商务印书馆.
亀井孝(編)(1996) 『言語学大辞典』 第六卷 術語編, 三省堂.

「검무」(1934)로 보는 최승희 무용의 ‘전통성’

The ‘Traditionality’ of Choi Seung-hee’s Dance as Seen in
“Sword Dance”(1934)

朴景蘭*

お茶の水女子大学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최승희(崔承喜, 1911-1969)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조선풍의 무용(高嶋雄三朗・鄭炳浩 1994: 166)”¹ 혹은 조선무용을 창작했다. 그런데 일본에서 최승희가 창작한 조선무용(백향주 2005: 4)²(당시의 조선반도의 무용을 일컬으며 조선무용과 한국무용의 구별을 하지 않았다)에 대한 평론을 보면, 그 평가는 양면적이며, 다양하게 형용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조선무용을 살려 민족성이 충분히 드러나는 작품을 창작했다”(高橋佳子 2015: 40)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그녀의 스승인 이시이 바쿠³(石井漠, 1886-1962)는 “조선무용의 부활이라니 그것은 그녀의 취미에 불과했다. (중

* Park Kyoung Ran(Ochanomizu University Doctoral Course)

E-mail: linecroserkran@gmail.com

1 이시이바쿠는 「崔承喜論」을 「현대」(現代)에 전재(轉載).

2 해방 이후 고유명사화 된 남측의 무용을 ‘한국무용’이라 하고, 북측의 무용을 ‘조선무용’이라고 한다.

3 일본 현대 무용의 선구자이며, 최승희의 스승.

략) 그녀의 조선무용은 단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에는 효과적이었다”(高嶋雄三朗・鄭炳浩 1994: 166)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당시 조선에서도 최승희가 창작 조선무용을 발표하자 그 무용의 예술성에 대하여 냉엄하게 비판하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녀의 조선무용은 조선무용에는 미치지 못하고 조선무용과는 크게 다르다(金贊汀 2002: 129)는 평과, 특히, 「검무」 등은 민족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金贊汀 2002: 173), 혹은, 조선인의 특징과 혈맥이 보이지 않는(金贊汀 2002: 73) 등 조선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 선행연구에서 박명숙(1993: 52)이 지적하였듯이 최승희는 “한국 춤을 추고자 했던 바가 없고”, 전수자계열의 춤이 갖는 고전성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이렇게 최승희의 작품이 비판적인 평을 받은 이유를 찾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조선무용 중에서도 그 역사가 깊은 「검무」(1934)에 주목을 하였다. 「검무」는 신라시대에 유래를 두고 있고, 조선 시대에도 추어졌으며, 현재도 검무는 상연되고 있다.

최승희는 1946년 북측으로 건너가 집필한 『조선민족무용기본』(1958)에 「검무」의 기본동작을 무보로서 기록하고 있다. 이 교본은 최승희 무용에서 볼 수 있는 ‘전통성’을 재고(再考)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최승희는 그보다 훨씬 빠른 1934년에 일본청년관(日本靑年館)에서 제1회 무용발표회를 열었을 때, 「검무」(1934)를 이미 창작하여 상연하였던 것을 당시 프로그램을 통해 알 수 있다(高嶋雄三朗 1981: 46). 최승희는 1926년부터 1929년의 3년간, 일본에서 이시이 바쿠 밑에서 무용을 배웠다. 그 후 조선으로 돌아와 조선에서 무용 활동을 계속하다가, 1933년 다시 일본의 이시이 바쿠에게 돌아와, 1934년에 제1회 무용 발표를 열었다.

최승희 「검무」(1934)의 영상 기록물은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다행히, 최승희의 「검무」(1934)의 사진 기록과 1942년의 장기 독무공연(長期獨舞公演)의 프로그램에 개략적이지만, 「검무」의 유래와 「검무」의 원형성과 자신의 창작

4 이시이바쿠는 「崔承喜論」을 「현대」(現代)에 전재(轉載).

의도를 밝히고 있다(高嶋雄三朗 1981: 115). 이상을 근거로 「검무」(1934)를 만든 최승희의 의도와 그것에 수반된 그녀의 발언, 그리고 사진기록 등에 기초하여 동작을 분석함으로써, 「검무」(1934)를 통한 최승희의 조선무용에 대한 생각과, 최승희의 무용이 ‘조선무용의 정신이 부재’라 불렸던 이유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최승희의 「검무」(1934)를 바탕으로, 1942년의 상연 팸플릿에 게재된 「검무」(초연·1934)에 대한 내용의 고찰과 더불어, 한국민속무용의 구조와 비교하여 최승희의 신체기법을 해석하고, 최승희에게 있어서 예전부터 지켜 전해 내려온 ‘전통성’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검무」(1934) 동작에 있어서 ‘전통성’은 실제로 어떻게 체현 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1.2. 선행연구

한국에서는 최승희(1911-1969)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수 산견 된다. 그 중에는 최승희의 무용의 경향과 형태에 대해 무용 공연의 타이틀만을 참조하거나, 혹은 그녀의 언설이나 의도에 합치되는 부분을 기술하여 최승희 무용의 장르를 분류하거나 구분 짓는 논고와 그녀의 스승, 이시이 바쿠에서 받은 영향과 관계를 살피는 논문이 주를 이룬다. 그 원인으로는 당시 최승희의 활동에 관한 영상기록이나 자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박명숙(1993) 「최승희 예술이 한국 현대무용에 미친 영향」에서 당시 한국 사회에서 있어서의 최승희 무용이 갖는 자리매김을 다루었다. 최승희의 공연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작품 제목과 비평들을 들어 최승희의 무용을 특성화하고, 한국의 ‘신무용’을 열어낸 업적을 높이 샀다. 그러나 박명숙(1993)은 최승희의 무용에는 전통무용의 원형성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전수자 계열의 춤이 갖는 고전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고, 최승희는 “한국 춤을 추고자 했던 바가 없다”(박명숙 1993: 52)라 하였지만, 한국 현대무용가로서의 영향력이 컸음을 시사했다.

박난영(2011) 「최승희와 이시이 바쿠의 작품에 나타나는 안무체계 비교 연구」에서 최승희의 활동시기를 구분하여 최승희와 이시이 바쿠의 안무체계에 대해 분석을 하였다. 특징의 작품을 들어 ‘안무의 의도’와 ‘무용수의 몸’, ‘무용수의 관심대상’ 등으로 나누어 안무체계를 조사하여 논하였다. 특히, 박(2011)은 최승희의 활동시기를 구분하여 1933년부터 1945까지, 즉 최승희가 일본에서 「검무」(1934)를 창작하는 시기를 ‘조선무용이 양식화’하는 시기임을 밝혔고, 작품의 타이틀과 소재는 조선무용에 토대를 두고 창작의 표현 형식이나 구성은 서양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박난영 2011: 42)고 주장하였다.

또, 백향주(2005)는 「최승희 『조선민족무용기본』의 형성과 변화」 중에서 최승희의 「검무」(1934)의 구조에 대하여 “전통적 기법에 서구 근대 무용이 기법이 가미되었다”고 하였는데, 그 해석의 근거는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백향주 2005: 19).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는 시야를 넓혀주고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주어 후학들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었으나, 최승희에 관한 자료가 제한적인 이유로 인하여 그녀의 작품명을 열거하거나, 언설을 망라하는 등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일본에서는, 조선학교를 비롯하여 프로단체인 가극단에서는 최승희의 무용을 전통무용으로, 혹은 민족무용으로 계승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도 최승희에 대한 연구는 범위를 좁혀, 미시적인 관점이 중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려 된다. 그녀의 무용에 관한 의도와 근간이 되는 움직임의 분석이 필요하고, 한국 춤의 원리와 대조되는 부분의 유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기에 그녀의 움직임의 기법과 전통성에 관한 논의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1.3. 연구과제 및 연구방법

연구 대상은 최승희의 「검무」를 대상으로 하지만 본격적인 선행연구는 발견할 수 없어, 중요한 정보원인 문헌과 당시의 팜플렛을 참고로 한다. 최승희의 조선무용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자서전』을 통하여 알아보고, 그리고

「검무」의 유래와 원형성, 자신의 창작의 방향성을 1942년 상연 프로그램에 게재한 문장내용을 조사한다.

더불어 최승희의 움직임의 실상을 분석하는 방법으로는 당시에 자신이 취한 포즈인 「검무」(1934)의 사진을 바탕으로 동작의 실체를 한국민속무용의 개념에 비추어 보고, 한국 무용가에 최승희와 같은 포즈를 취하게 하여 동작을 비교한다.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하의 항목을 들어 조사한다.

(1) 최승희 『자서전』(1936)에 자신이 기술한 조선 무용에 대한 생각을 검토한다. 1926년 이시이 바쿠의 밑에서 무용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조선무용에 대한 인식과 당시의 조선무용의 개선의 여지, 앞으로의 조선 무용 창작을 위한 다짐을 살펴본다.

(2) 1942년 상연 팜플렛에 게재한 「검무」(초연·동경·쇼와(昭和) 9년(1934))에 대한 내용을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하여 검토한다.

(3) 「검무」(1934) 사진의 포즈로부터 신체의 기법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지(下肢)와 상지(上肢), 체간, 호흡의 상태를 파악한다. 더불어 한국민속무용의 구조와 개념을 비교하여 보고, 한국 무용가가 최승희와 같은 포즈를 취하여 서로의 동작을 비추어 본다. 이러한 분석에 의해, 최승희가 움직임 속에 포함된 요소와 최승희의 무용의 기법을 확인하므로 최승희의 조선무용과 「검무」에 대하여 다양한 형용이 되어온 요인과, 최승희에게 있어서의 전통성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밝힐 수 있다고 사료된다.

2. 최승희의 조선무용에 대한 생각

최승희가 무용을 배우기 전, “조선에서 무용이라고 하면 술자리에 흥을 더하기 위해서 춤추는 것이고 춤추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것은 기생(妓生)뿐이었다. 따라서, 무용가가 된다는 것은 이성을 상대로 술을 파는 기생이 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崔承喜 1936: 47)”고 언급한 것에서 당시의 조선에서의 무용에 대한 인식을 잘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최승희 자신이

무용을 배우는 것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엄하였을 것이며, 게다가 그녀 자신도 “무용이라고 하는 것은 천한 것, 저속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서양 무용이라고 해도, 같은 종류의 것(崔承禧 1936: 21-24, 37-39)과 같이 무용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그 후, 1926년, 이시이 바쿠의 경성(京城)공연을 본 후, 무용을 배우려는 결심을 한 최승희는 “앞으로 일심으로 무용 예술의 완성을 목표로 공부하고, 무용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고 싶다(생략)(崔承禧 1936: 40)”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다.

1926년부터 1929년까지 일본으로 건너가 이시이의 밑에서 무용을 배우는 중에 ‘그리운 고향’을 생각하며 눈물짓는 모습이 자주 나타난다. “조선에서 태어난 그 누구도 무용에 뜻을 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조선을 대표하여, 우리 향토의 전통과 풍물을 살려 새로운 예술을 창조를 하고 싶다(崔承禧 1936: 58)”는 포부를 가지기 시작한다. 이시이에게 3년간 무용을 배운 후, 조선으로 돌아온 최승희(1936: 56, 72)는 “경성은 옛날 이야말로 자랑스러운 무용을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보기에는, (중략) 빛나는 과거의 유산조차도 유지하지 못하고, 고전 무용은 거의 사멸(死滅)한 것과 같고, 단지 술자리에 시중드는 ‘기생’에 의해서 약간 여파를 남기고 있을 뿐이었다, 향토에 새로운 무용을 꼭 건설하고 싶고, 무너져버린 고전 무용을 어떻게 부활시키고 싶다(중략)”라는 언급을 통해서 일관적으로 조선무용은 소멸되고, ‘기생’들에 전해지고 있는 현재의 실상에 대하여 우려하는 마음과 그로 인해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 가려는 강한 의지가 보인다.

3. 최승희가 상연 팜플렛에 게재한 「검무」에 관한 내용

3.1. 최승희의 발언 검토

1942년에 상연한 최승희 발표회의 프로그램에 검무(1934·초연)에 대하여 이하의 단편적인 문장을 게재하였다.

“조선 옛날의 검무는 신라 시대의 미장(美將) 황창(黃昌)의 영웅적 행위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에 기인하지만, 후세에 있어서 기생에 의해 계승되어 그 원형을 잃고, 검의 움직이는 방법을 주로 하는, 섬약(纖弱)한 움직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그것을 그 원형으로 되돌리기 위해 새롭게 창작한 춤이다(高嶋雄三郎 1981: 46).”(필자역)⁵

위의 문장을 통하여 「검무」의 유래를 신라시대에 두고, 신라시대의 춤을 최승희 자신이 목격했을 가능성은 없지만, 문헌을 통하여 「검무」의 역사를 짚어보고, 원형과 그 의미, 그리고, 원형성의 상실의 의미는 무엇이며, 동작의 변화는 어떻게 변용되었다고 주장한 것인지, 또 원형의 회복을 위하여 행한 행보를 더듬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을 통하여 최승희의 언어를 검토, 조사한다.

3.1.1. 황창「검무」의 원형

「검무」에 대한 문헌 기록은 『동경잡기(東京雜記)』(1845)의 「풍속조(風俗條)」, 『삼국사기(三國史記)』(1145),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1903-1908) 등에 기록되어 있다. 「검무」의 유래는 신라(BC 57-935)의 황창랑(黃倡郎)이 칼춤을 추며 백제의 왕을 죽이고 그들에게 붙잡혀 그도 죽었고, 신라의 사람들이 그것을 애석하게 여겨 그의 형상을 본떠서 그의 얼굴과 같은 가면을 쓰고, 칼춤을 춘 것에서 시작되었으며, 가면동자무(假面童子舞)의 형태를 취하였다. 고려시대(918-1392)에도 신라의 「검무」를 계승한 황창무로 불리는 가면희(假面戲)가 성행했고, 「처용무」와 함께 추어졌으며, 무무(武舞)적인 씩씩한 기상을 나타냈다(임수정 2006: 18-20).

이렇게 황창랑의 영웅적 행위를 기리기 위한 것으로 유래된 「검무」가 성립되는 초기에 있어서의 움직임은 황창랑을 애도하는 용감한 동작이나, 검을

5 高嶋雄三郎, 『崔承喜』. “朝鮮古来の劍舞は, 新羅時代的美將「黃昌」の英雄的行為を称えるために創られたことに起因するが, 後世において妓姓により継承され, その原型を失い, 劍の動かし方を主とする, 纖弱な動きに変わっていった。それをその原型に戻さんがために新しく創作した踊りである”(むくげ舎, 1981: 46)

가진 무술적인 요소와 적과 대치할 때의 공격적이고 방어적인 움직임이 포함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동도악부(東都樂府)』⁶(조선전기) 「황창랑」에서 “지금 그 춤을 보면 돌고 도는데 고개 돌리며 변하며 구르는 것이 순식간이다. 지금은 늠름하여 오히려 생기가 있고 또한 절도가 있다”. 이것은 김종직이 동도(東都) 즉 경주에서 황창검무를 본 감화를 쓴 것으로 기록을 통해 황창검무는 매우 절도가 있고 춤사위가 역동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박미향 2017: 4-5). 또, 성호이익(星湖李瀾, 1681-1763)의 『해동악부(海東樂府)』⁷(조선 후기)에 황창「검무」의 무술적 성격을 “(倒飛兮電光澈) 서리가 휘날리고 번개가 내리치듯, (劍氣衝兮天外倚) 검의 기세 뚫고 나가, 하늘 밖까지 뻗쳐 있네, (長兮輕雪回) 긴 회오리바람 불고 가벼운 눈발 도는 듯, (舞抽觀兮日中起) 춤추는 소매 높이 날아, 해 속까지 높이 일어나네, (五尺童兮三尺水) 오 척의 동자 삼 척의 시퍼런 칼 가졌으니 (생략)” 화려하게 서리처럼 검광을 뿌리며 번개같이 검을 휘두르는 황창랑의 무용(武勇)이 시로 묘사되어 있다(조혁상 2009: 238).

1429년부터 일본으로 공식적으로 파견된 통신사, 외교사절단에 1600년도 이후 통신사를 위한 연향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데, 통신사가 하향하는 길, 영남좌도⁸를 통과하던 길에 「검무」가 가장 많이 연향되었다고 한다(양지선, 강인숙 2019: 492, 495). 1711년 임수간(任守幹, 1665-1721)이 기록한 사행일록(使行日錄)에도 “청송(靑松)기생⁹ 두 사람의 칼춤이 볼 만했으니, 쌍검을 던

6 『동도악부』(東都樂府)는 조선 성종 때, 김종직(金宗直)이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의 사적을 읊은 악부시집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6350>, 2022.06.12)

7 『해동악부』(海東樂府)는 예전부터 가요나 민요 또는 악장(樂章) 등으로 불려 지던 노래들을 주된 소재로 하고, 역사를 읊되 악무(樂舞)를 매개로 한다. 전체 119편의 작품이 신라·고구려·백제·고려·조선 등 왕조의 정통성 및 역사적 시간의 순차에 따라 정연하게 구성된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yes24.com/Product/Goods/2969358>, 2022.06.10)

8 통신사의 하행길은 영남좌도, 교방(敎坊)이 있던 청송·군위·대구·경주·밀양·동래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9 당시 교방이 있었던 지역으로 보여짐.

졌다가 한 손으로 받는 그 솜씨가 참으로 뛰어난 기예였다(박미향 2017: 5)".

이와 같이 조선중기에도 교방을 비롯한 지방에서는 쌍검무를 추는 여기의 춤에도 무술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승희의 발언과 같이 본래의 황창「검무」는 기복(起伏)이 있고, 역동적이며, 무술적 경향과 다이나믹한 동작을 포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3.1.2. 조선후기에 보여지는 「검무」의 변화

숙종(肅宗, 1661) 때에 이르러 「검무」의 형태가 이전과 달라지는데, 가면을 쓰지 않은 기녀들에 의한 2인무의 여기(女妓)검무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문인들에 의해 평안도의 검무나 「호남검무」, 「진주검무」, 「밀양검무」 등 각 지역의 기녀가 검무를 추는 모습을 묘사한 시 등도 남아있다. 이렇게 여기(女妓)검무시가 남겨져 있는 것은 당시 궁중의 축연에 참가한 지방의 교방 기녀들은 궁중의 행사가 끝나면 지방의 교방으로 돌아가, 각 지역의 연회의 춤 종목이었던 「검무」를 추었기 때문이다(임수정 2006: 21).

정약용의 「무검편증미인(舞劍篇贈美人)」¹⁰(1780)에 진주 「검무」를 읊은 시에서 ‘풍악소리와 대비되는 좌중의 침묵을 통해 앞으로 시작될 검무에 대한 기대감과 정신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꽃과 같은 가진 여인이 책자에 청진모를 쓴 군복 갖추고 등장하여 종종걸음을 치다가 땅에 놓아둔 칼 쪽으로 가서 천천히 앉더니, 춤을 추다가 우선 한 루 검을 짚어들고 휘두르자 그 광채가 마치 푸른 뱀이 온 몸을 휘감는 듯하다. 자루 검을 다 집어들고 자신의 형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검을 놀리는 기녀는, 검무의 역동적인 동작이 끝나자 칼을 땅에 던지고 돌아서서 춤을 마친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이 시에서 다산은 진주검무를 황창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10 축석루에 올라 푸르게 출렁대는 남강 물과 강가의 버들잎을 바라보며 검무를 감상하던 다산(정약용)은,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 기녀에게 주게 된다. 이 시가 바로 ‘칼춤 시를 지어 미인에게 주다’라는 「무검편증미인(舞劍篇贈美人)」이다. 검무를 추는 기녀의 춤사위 동작을 섬세하고 세련되게 시어로 묘사하고 표현한 다산의 시.

(경남연합신문 <http://www.knyhnews.co.kr>, 2022.07.10)

있으며, 무술로서의 검무를 발현하고, 검기(劍技)의 기예를 찬미하고 있고, 기녀를 단순한 무용가로인 식하지 않고, 검술가로 간주하여 찬미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조혁상 2009: 246-247). 이렇게 정약용의 시를 통하여 진주 「검무」에 관한 묘사는 「검무」에 무술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과 형태를 갖춘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종 9년(1872) 진주에 목사로 부임한, 정현석이 간행한 『교방가요』¹¹에 진주「검무」의 특징은 “무(武)적인 성향의 황창「검무」와는 달리 여기(女妓)에 의한 예(藝)적 성향의 「검무」로 변화되고” 있다. 또, 조선후기, 순조(1929)때 「검무」는 「검기무(劍器舞)」라고도 불리고, 궁중계열의 궁중정재 형태로 재구성이 되어 궁중 연회 때 추어지다 임수정(2006: 19, 23)의 묘사와, 『정재무도홀기(呈才舞圖忽記)』(1893-1901)에 수록된 「검무」에 검무의 연행형태의 기록을 보면 “(전략) 서로 마주보기도 하며 앉아 춤을 춘다. 칼을 어르다 칼을 잡고 번뜩여 회오리바람처럼 소매를 어르며 칼을 휘둘린다. (생략) 연풍대¹² 한다. 무진무퇴¹³ 한다 (생략)”(임수정 2006: 40-41)고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검무」의 무예적인 움직임이 조선후기에 이르러 예(藝)적인 경향을 띠게 되며 변화함을 알 수 있다. 황창「검무」와 조선 시대의 「검무」는 ‘회오리바람’을 일으키듯 검을 휘두르는 동작이 공통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검무」는 여기(女妓)에 의해 여성적으로 표현되고, 2인무 이상의 대열을 이루며 추어졌으며, 구조적으로 순서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현존하는 「검무」의 양식과 동일한 동작, 예를 들면, 앉은 자세에서 검을 지면에 두고 어르는 ‘농검’, ‘연풍대’, ‘무진무퇴’ 등의 부분을 『정재무도홀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검무」는 검술을 지닌 무예적인 움직임으로 출발했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여기(女妓)의 검무로 정착하게 되면서 검무의 목적 또한, 무술

11 진주의 교방에서 연회되는 「진주검무」에 관한 내용.

12 허리를 뒤로 젖혀서 유연하게 도는 동작.

13 앞으로 전진하며, 뒤로 후진하는 동작.

적인 요소에서 공연무용으로 변화하고, 여기(女妓)에 의해 추어져 여성적으로 표현되는 궁중 검무(正才)의 하나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에 이르러 더 이상 「검무」는 무술자체가 아닌 무술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보여주는 무용으로 구조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3.1.3. 새로운 공간에서 추어지는 「검무」

조선 후기 숙종 때에 이르러 「검무」의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하여, 정조 때에는 궁중의 축연(祝宴)에서는 그 규모는 한층 더 확대되어, 경중(京中서울내)의 기녀들이 부족한 경우에는 각 지방의 교방청(敎坊庁)에 속한 여기(女妓)들을 보충했을 정도다. 이렇게 궁중에 보내진 지방의 기녀는 궁중의 연회가 끝나면 각 지역에 그 춤을 가지고 지방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방청에서 그 춤을 춤추게 되었다. 그러나 1909년에는 관기(官妓)제도와 함께 교방이 폐지되어 그 역할을 대신하여 기능한 것이 기생 조합의 형태인 ‘권번’(券番)이었다. ‘권번’은 조선 각지에 설치되어 궁중검무의 형식에 각 지방의 특색이 더하여 독특한 동작과 향제 음악을 사용해, 향제 여기검무로서 「진주검무」, 「통영검무」, 「평양검무」, 「해주검무」, 「경기검무」, 「호남검무」, 「궁중검무」, 「통영검무」가 정착하게 되었다. 그중에서 「검무」는 기생이 배우는 필수 과목이자 인기 과목이었다(임수정 2006: 27), (許娟姬 2008: 48).

현재 볼 수 있는 「궁중검무」는 김천흥(金千興, 1907-2007)이 한성준(韓成俊, 1875-1941)에게 정재무(呈才舞, 궁중무용)를 배우고,¹⁴ 「검무」는 ‘조선권번’에서 체득한 여기에게 검무를 배워 다시 재정리를 한 것이다. 그 동작 중에서 칼춤사위에 있어서는 “무무(武舞)적인 성격인 강한 「진주검무」에 비하여 「궁중검무」는 궁중정재의 성격이 포함되어 부드럽게 표현한다(임수정 2006: 202)”고 한 기록으로 보아 근대에 볼 수 있는 「궁중검무」가 조선왕조에서 추어진 여기검무와 유사한 지에 관한 구체적인 동작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검무」는 권번을 통하여 시시각각으로 변화를 계속하여 각 지방으

14 <https://kotobank.jp/word/%E9%87%91%E5%8D%83%E8%88%881525535>, 2022.07.12.

로 확대되고, 각 지방의 특색이 더하여, 본래 황창「검무」의 무술적인 동작보다, 보여지는 형태의 「검무」로 진화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경위에 다다른 「검무」는 「궁중무용」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동작이 기술되어 있지 않아 파악이 어렵지만, 근대의 「검무」는 ‘권번’을 통해 기생¹⁵(姓生)들에 의해 계승·확대되고, ‘권번’이라는 새로운 공간 속에서 그 공간에 맞추어 폭이 큰 움직임에서 축소되고, 잔존하게 된 동작과 소멸, 새로운 동작으로 재편성되어 현재의 「검무」가 계승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최승희(1936: 73)는 자서전에서도 언급하고 한 바와 같이 “조선무용이 기생에 의해 계승되어, 향토에 새로운 무용을 꼭 건설하고 무너진 고전무용을 어떻게든 부활시키고 싶다”고 밝혔듯이, 최승희가 「검무」의 원형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 배경에 따라 ‘권번’에서 「검무」가 새로운 공간에서 추워진 변화를 일컫는 것으로 사려된다.

3.1.4. 무구의 변화

「검무」는 검을 들고 추는 춤이며, 이러한 검무는 본디 살인을 위한 무술인 검술에서 출발하였으나, 조선 후기의 「검무」는 무술자체가 아닌 무술적인 요소를 간직한 춤으로 정형화되었다. 무구에 있어서도 조선시대 여기(女妓)의 검은 쌍검무를 사용하고 있음을 문헌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검무의 원형인 황창검무는 편수검(片手劍), 두 자루를 이용한 쌍검무(雙劍舞)이다. 현재까지 출토된 신라의 환두대도(環頭大刀)¹⁶ 유물이 거의 대부분 편수검이라는 점과 황창랑 검무가 쌍검 무였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삼국시대 신라에 편

15 기생은 전통사회에 있어서 춤을 추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일컫음. 그들의 신분은 국가(관청)에 속한 관비로서 노래와 무용 등의 풍류를 제공한다. 의술을 비롯하여 성을 제공하는 기생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술집과 매춘하는 기생도 있다.

<http://kjidai.com/kan007.html>, 2022.05.21.

16 환두대도(環頭大刀)는 금으로 된 칼의 손잡이 부분과 철로 된 칼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떨어져 있으나 원래 같이 붙어 있었다.

<https://ko.wikipedia.org/wiki/%ED%99%98%EB%91%90%EB%8C%80%EB%8F%84>, 2022.06.10.

수검 두 자루를 쌍검으로 사용하는 무술이 분명 존재했었고, 그러한 무술적 경향이 황창량 검무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조혁상 2009: 229-232)".

더욱이, 20세기 초엽에 이르러, 「검무」의 무구 형태는 검(劍)과 칼날과 칼자루가 일체형인 검에서, 칼날 목이 돌아가는 검으로 변화하면서 동작의 형태도 종전과는 차이가 나게 되었다. 무술적인 강인함이 드러나는 「검무」는 여러 검술 기법이 다소 퇴화된 면이 있다(조혁상 2009: 235-237). 칼날이 돌아가는 검의 형태는 무기인 칼과 구별되며, 무용의 무구로서 칼을 돌리고 율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무구의 형태 변화는 조선시대의 연희의 모습을 그린 풍속화, 18세기 후 김홍도(1745-?) 「평양감사환영도」(平壤監司歡迎圖)와, 신윤복(1758-?) 「쌍검대무」(雙劍對舞), 19세기, 김준근의 「쌍검무」(雙劍舞)에서 여기검무의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의 신윤복의 「쌍검대무」에는 ‘칼이 길고 끝은 직선’이고, 19세기의 김준근의 「쌍검무」에는 ‘칼의 길이가 짧고 끝이 약간 굽은 부드러운 느낌’이고, 『진찬의궤』¹⁷(進饌儀軌)에 의거하면, 칼은 목재를 재질로 하고 목을 고정시켜 돌아가지 않는 검을 사용하고 있었다. 현재는 각 지역별 검의 형태와 종류도 다양하다(임수정 2006: 23, 75).

이와 같이 칼의 형태가 변화됨을 알 수 있고, 이는 동작의 형태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3.1.5. 「검무」의 원형과 회복

최승희는 원형을 되찾기 위해서라고 기술하였지만, 어떻게 원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를 고찰하여 본다.

최승희는 「검무」를 비롯해 조선무용에 대한 관심과 뜻을 가지고 있었다. 1926년부터 3년간 일본에서 이시이 바쿠(石井漠)의 아래에서 무용을 배웠지만, 그 후, 조선으로 돌아가 1929년부터 1931년까지는 조선에서 활동한다.

17 『진찬의궤』(進饌儀軌), 1848년(헌종 14) 대왕대비인 순원왕후 김씨(純元王后金氏)의 육순을 축하하기 위하여 배운 진찬의절을 기록한 책.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4937>, 2022.06.01)

그 무렵, 최승희는 조선에서 한성준을 비롯한 조선전통무용의 계승자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조선무용에 대한 자극과 영향을 받았다(타카시마 유자부로·정병호 1994: 221)고 기술했다. 그중에도 한성준은 궁내를 오가며 노래와 조선의 악기를 연주하고, 조선에 전래된 전통을 정리하여 민속무용을 재정리한 한국의 신무용의 기수이며, 한국 전통무용의 개념에 근거하여 민속무용을 창조하고(김은경 1991: 49). 후에는 궁중무용과 민속무용 등을 망라하고 집대성하였으며, 지도자로서 ‘경성권번’에서 가르친 ‘우리 춤의 대가(조선일보 1938.05.02, 임학선 1997: 19)’에게 최승희는 조선무용의 원형성을 추구하기 위해 전통무용과 음악을 배운 것으로 추측한다.

더욱이 조선의 궁내를 오가며, 민속무용에도 상세한 한성준에게 「검무」의 유래와 궁중에서 추워진 「검무」에 대한 정보를 나누었을 가능성도 추찰해 본다.

최승희는 1933년에 다시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의 청년관에서 제1회 무용발표회에서 조선무용의 작품을 발표하기 위해 한성준의 지도를 받았다. 한성준은 자신의 저서, 『고수·50년』에 도쿄에 갔을 때 최승희가 나타나 조선무용을 14일간에 40개 정도의 춤을 가르쳤지만 기억력이 뛰어나고 잘 이해했다(金贊汀 2002: 115)고 게재했다. 그 이후에도 1937년에 최승희가 일본에 거점을 두면서 조선에서 공연을 하고 있을 무렵, 조선의 수원·사리원·개성 지역 등을 방문하고, 그 밖에도 조선의 여러 지역을 찾아 전통무용을 체득했다고 한다. 그렇게 각지를 방문한 사유를 “전통무용을 습득하고 그것을 자작의 창작작품에 도입하기 위한 것이며, 당시 조선 각지에서는 「승무」와 민중무용이 세분화되어 전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족적 정서가 강하고 민족감정에 맞는 춤을 예술로 완성시켜 새로운 ‘창작 조선무용’을 창작하고 싶다(金贊汀 2002: 115)”고 밝힌 것을 보면, 1942년에 상연 발표회에 「검무」의 유래 등을 조사하여 각 지역의 무용의 역사와 동작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에 기록하여 연원을 밝히며, 그에 바탕을 두고 창작작품에 향하려는 도전이 보인다. 또한, 「승무」와 민중무용이 세분화되어 전해진다고 기술한 내용은 당시의 조선무용의 계승자들에 의한 ‘파’, ‘류’가 형성되는 것을 언급한 것 같고,

최승희 자신도 원형성을 구축하고, 그것을 발판으로 새로운 창작을 시도하려 한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코바야시 나오키(小林尚弥)(2015: 45)가, 근대에 있어서의 「검무」는 ‘비교적 새로운 시대에 창작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같이, 「검무」는 20세기에 들어서 잔존하는 동작과 거기에 새로운 동작 등이 첨삭되어 근대에 있어서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며 현재의 「검무」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최승희가 어찌면 「검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시기는 근대에 들어서 일 것이며, 최승희 자신이 창작한 검무를 원형으로 만들어 가려고 했을 가능성도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성준은 “신무용가 최승희, 조택원도 짧은 기간이나마 춤을 배워갔다(국립문화재 연구소 1996: 64)”고 한 것과 같이 이상의 입수한 자료에서 조선무용을 습득한 기간은 짧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최승희가 기술한 「검무」의 내용은, 웅맹하고 웅장하며 역동적인 황창「검무」가 조선후기에 궁중에서 여기(女妓)에 의해 추어졌으며, 검을 지면에 두고 추는 동작과 대열의 형태를 가지고 추어지는 양식화된 검무로 추어지다가, ‘권번’이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추어졌으며, 무구의 변화 등을 일컬어 최승희는 「검무」 본래의 원형을 잃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4. 최승희「검무」(1934)의 포즈

4.1. 한국 민속무용의 구조

한국의 전통무용은 그 종류가 다방면이어서 분류하는 것이 어렵다. 정병호(1993: 16-25)는 한국의 춤은 총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예술학적, 사회과학적, 기능적, 직능(職能)적인 네 가지 관점에서 무용을 분류하고, 「검무」는 그중에서 기능상의 예능(芸能) 무용으로 분류했다. 한편 이병옥(2013: 29)은 정병호(1993)의 분류법에 근거하여 궁중무용과 민속무용으로 분류하고, 민속무용을 더욱 세밀하게 나누어, 「검무」는 예인(藝人)¹⁸ 춤 중에

서 기방(妓房)¹⁹춤이라 하였다. 즉, 「검무」는 민속무용이지만, 전문적·직업적인 예술무용으로서 계승되었다.

백봉선(2019: 1)은 검무는 원래 민간에서 가면무로 행해지던 것을 조선 정조(正祖, 1752) 때 궁중무용으로 채택하여 궁중에서 검기무(劍器舞)로 추어지며, 궁중의 연회에 참여한 지방 여기들은 행사가 끝나면 각 지역의 교방있는 지역으로 돌아가, 각 지역의 향토적인 요소와 궁중검무의 요소가 더하게 되고, 그 후 「검무」는 권번을 통해 계승되며, 현재는 예술무용으로 새롭게 창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때문에, 각 지역에 따라 「검무」의 대열의 구성이나 동작의 형태가 다르기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검무」 형태의 특징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최승희가 취한 「검무」의 동작과 한국 민속 무용이 가지는 동작의 구조와 호흡, 체간을 비교하여 그녀의 신체기법을 알아보고자 한다.

4.1.1 한국무용의 동작소와 호흡

정병호(1993: 199-211)는 한국의 춤사위(동작)에 대하여 춤은 ‘추다’를 의미하고, 사위는 움직임에 의한 기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민속 무용의 춤사위 요소를 ‘동작소’(動作素)와 ‘의미동작’으로 나누고, ‘동작소’란 움직임의 최소 단위로, 손목, 팔꿈치, 팔 전체를 움직이는 팔의 동작과 무릎 굴절, 발뒤꿈치와 발 전체의 움직임, 목의 움직임으로 구분되며, 감정 표현을 밖으로 나타내는 움직임과 내측에 넣는 동작 형태의 예를 들 수 있다. ‘의미 동작’의 형성에 있어 동작소는 4~5개, 10개 이상의 동작소가 군(群)을 이루고, 이 동작소는 무질서하게 배열되지 않고, 필연적으로 연쇄를 일으켜

18 예인은 전통사회에 있어서 춤을 추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이들을 뜻하며, 관청에 속한 관비가 있고, 노래와 춤을 제공한다(의술(醫術)과 성(性)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개인이 운영하는 술집과 매춘소에도 예인들이 있었다. 신분은 기생이다.

(<http://kjidai.com/kan007.html>, 2022.05.21)

19 기생방(妓生房)은 기생이 거주한 곳. 고려시대에는 기생이 교방(敎坊)에 속해 노래와 춤을 맡았지만, 조선시대에는 약방(藥房)에 속해 의녀(醫女)로서 일도 맡았음. 조선 후기에는 유흥공간을 일컬음.

(<http://kjidai.com/kan007.html>, 2022.05.21)

더 큰 표현 단위를 이룬다. 이러한 동작소가 의미동작이 되어 가는 과정은 호흡과 하반신, 다리의 무릎 굴절이 동반되므로 동작소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동작으로 연출된다.

정병호(1993: 213-214)는 민속무용의 동작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조합에는 동작소 3가지의 기본 패턴, ‘맺음’ 형태, ‘어르는’ 사위, ‘풀음’ 형태의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다.

한국민속무용은 하나의 동작을 형성할 때, 민속음악의 리듬에 몸을 맞추면서 신체기법으로는 ‘맺음’, ‘정’적인 상태에서 숨을 내쉬고(날숨 · 呼氣), 신체의 안쪽으로 에너지를 집약하고, ‘어름’, ‘중’에서 숨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 ‘풀음’, ‘동’적으로 숨을 마시는(들숨 · 吸氣) 호흡기법을 통하여, 외부로 에너지를 표출하기에 이른다. 즉, 각 동작소에 호흡이 가해짐에 따라 다른 신체 부위의 움직임이 연결되어 보다 큰 매끄러운 움직임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숨을 내쉬는, ‘맺음’ 형(型짜임새)은 춤의 진행에 있어서, 도입 부분과 종결부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정’(靜)적의 부분이며, 물리적으로는 음(陰)적이다. ‘맺음’동작은 팔을 올리는 동작, 여미는 동작, 여는 동작, 모으는 동작, 비켜든 동작, 팔을 내리는 동작이 있다. 숨을 마시는 ‘풀음’ 형은 긴장감을 푸는 것으로, 관절이 열려 시원스럽고, 감정을 발산시키는 움직임이 있어, 동작에는 뿌리는 동작, 좌우치기, 돌리는 동작, 점프 동작, 회전 동작을 가리킨다. ‘풀음’ 형의 표출적 요소는 양(陽)적, 물리적 요소는 ‘동’(動)적이다. 양자의 중간적인, 숨을 모으는 ‘어르는’ 동작은 맺을 때 일어나는 긴장상태를 부드럽게 풀어 조절하는 연계부이며,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것을 융합 · 교류하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진다. ‘어르는’ 동작으로는 팔을 구부리는 동작, 앉는 동작, 전진 동작, 후퇴 동작, 한쪽 다리를 올리는 동작, 부동의 동작, 멈추는 동작 등이 있다.

〈표 1〉 정병호(1993) 한국민속무용의 3가지 기본패턴(필자작성)

| | 기본 패턴과 호흡 | 물리적요소 | 동작소 |
|---|---------------|--------------|--|
| 1 | 맺음형 날숨(呼氣) | 정·음 (靜·陰) | 팔을 올리는 동작, 여미는 동작, 여는 동작, 모으는 동작, 비켜든 동작, 팔을 내리는 동작 |
| 2 | 어르는 숨을 모으는 | 중(中) | 팔을 구부리는 동작, 앉는 동작, 전진 동작, 후퇴 동작, 한쪽 다리를 올리는 동작, 부동의 동작, 멈추는 동작 |
| 3 | 풀음형 들숨(吸氣) | 동·양 (動·陽) | 동작에는 뿌리는 동작, 좌우치기, 돌리는 동작, 점프동작, 회전 동작 |

코바야시 나오야(小林尚弥)(2015: 47)가 지적한 것처럼, 팔을 펼쳐 감정을 밖으로 나타내는 개방적 동작에 있어서, 팔을 올리는 동작은 “신체, 양손, 양팔이 자연스럽게 오르고, 기본의 개시(開始) 자세가 된다. 그때 몸이 늘어나는 것과 같이 (신체의 중심이 위로 이동) 표현이 된다. 즉, 양(陽)·낮(昼)이 되며, 숨을 들어 마신 상태가 된다. 반대로 팔을 내리는 움직임은 신체, 양손, 양팔이 자연과 아래 방향으로 이동한다. 몸과 양 팔과 양 손은 밀으로 향한다. 그때 무릎이 굽어 있는 상태이며 음(陰)·밤(夜)이 되어 음과 양이 반복되어 끊기지 않고 곡선이 형성된다.”

이와 같이 한국민속무용에는 신체 및 사지가 안쪽이나 아래를 향하는 음적요소, 또는 외부나 위를 향하는 양적요소를 가지는 동작이 있고, 그 동작이 각각 동작의 개시나 종료의 기능도 가진다. 또한, 정지 동작, 방향 및 위치를 변경하는 동작, 점프 동작에는 감정을 표출하는 기능이 있다.

4.2. 최승희의 「검무」(1934) 동작 분석



〈사진 1〉 「검무」(1934)

하정웅 『최승희LEAP&EXTENSION』(2016)



〈사진 2〉 신금옥(辛錦玉)

필자촬영 : 2020.9.10

최승희는 일본에서의 제1회 무용발표회의의 팸플릿에 「검무」(1934)의 반주곡으로 ‘타악기’라 게재한 것을(高嶋雄三朗(타카시마 유자부로) 1981: 49)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 반주곡에 어떠한 종류의 장단과 리듬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고, 한국 무용의 개념에 따라, 〈사진 1〉에서 볼 수 있는 최승희의 포즈에서 「검무」의 동작 형태를 조사했다.

〈사진 1〉의 최승희의 포즈에서, 숨을 내쉬고 오른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려 왼팔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정병호(1993)가 제시한 ‘맺음’형의 ‘정’적인 음(陰)의 상태이며, 팔을 올려 감정을 표출하는 어떠한 동작의 개시를 의미한다. 한국의 동작소를 취한 동작이므로, 이 동작의 다음에는 숨을 모으는 중간적의 ‘어르느’형을 거쳐, ‘풀음’형으로 이어져 동작이 풀어져 가는 것을 예측 가능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굽힌 무릎, 하지(下肢)를 펴면서 무릎의 중심이 위를 향하여 검을 뿌리는 동작을 하거나, 점프동작이나 회전

동작이 올 수 있다.

단지, 최승희의 이 포즈는 사진을 찍기 위해 취한 포즈라고도 볼 수 있고, 일련의 동작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최승희의 포즈는 하지,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고 숨을 내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깨의 상승과 상지(上肢)의 경직도와 왼쪽 다리를 높이 올려 부자연스러운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하지는 굽힌 무릎의 중력에 따라, 즉 숨을 내쉬는(날숨)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상반신은 마치 숨을 마시고(들숨) 있는 것과 같이 어깨를 올려 양팔에 긴장감이 드러나 있다. 그로인하여, 양팔의 폭이 좁고, 손에 힘을 주어 손목이 돌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대로, 하지와 같이 호흡을 내쉬어 두 팔이 호흡과 함께 움직였다면 상지, 어깨의 힘을 빼고, 양팔의 간격의 폭이 벌어지게 되며 손에 들고 있는 검도 지면으로 늘어뜨려지게 된다. 위 <사진 1>과 같이 힘을 들여 검을 쥐지 않아도 되고 자연스럽게 검도 하향(下向)하여 보다 매끄러운 움직임으로 보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바로 호흡법이다. 한국무용에 있어서의 호흡은 양팔의 움직임과 무릎의 굴신, 사지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다리를 올리면서 뛰는 동작, 혹은 회전·방향을 전환하는 동작도, 다음의 동작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끊김없이 ‘마시고’(吸)에서 ‘내쉬고’(吐), 혹은 ‘내쉬고’에서 ‘마시고’로 이행하는 것이 연속적으로 요구된다. 이 호흡법과 각 동작이 연동함으로써 한국무용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국무용에 있어서는, 밸런스를 길게 유지하기 위한 기본이 호흡이며, 호흡은 한국무용의 미적 특성이 내재된 움직임을 형성하며, 한국적 움직임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이다(이혜경 2010: 22). 정귀인(2008: 3, 28)의 기술에서도 “호흡과 유기적 움직임의 발현과정에 있어서도 부드러운 동작, 매끄러운 동작은 호흡과 연동되어 있어, 무용수의 경험에 따라 호흡이 동작의 부드러움에 밀접한 관련이 있고” 장르별의 춤의 분위기가 각각 다른 것은, 동작뿐 만이 아니라 호흡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서양 발레와 비교하면, 발레는 가슴을 밀어내면서 팔이나 다리는 몸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몸도 영혼도 밖을 향하여 벌린다(蘆原英了(아시하라 에이료) 1986: 268). 발

레는 발의 동작이 다양하고 두 발이 동시에 지면에서 떨어지는 도약하고 상승하는 동작이 많아, 끌어올리는 호흡이 사용되고 신체의 중심이 상반신으로 향한다.

한국무용은 단전에 호흡의 중심을 두고, 하반신이 중심이 되어 회전이나 점프 동작, 상승 동작을 하게 되므로 발레와 중심점의 높이가 다르다. 그러므로, 한국무용은 사지(四肢)의 동작을 몸 전체의 힘과 조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억지로 힘을 주어서 무리하게 발을 높이 드는 동작을 하지 않는다(이혜경 2010: 37).

호흡은 장단의 조화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무용 숙련자와 비 숙련자의 복식호흡을 비교 실험을 했을 때 복식호흡이 체득된 한국무용 숙련자는 가속도의 변화, 즉 힘의 변화를 최소한으로 줄 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매끄럽고 부드러운 한국무용의 완성된 동작으로 이어진다(정귀인 2008: 28, 84).

4.3. 최승희의 포즈와 한국 무용가의 포즈 비교

검무의 무구는 종류가 몇 가지 있어, 「검무」의 ‘류’나 ‘파’에 따라 다르다. 검은 검의 본체와 검의 손잡이가 연결되어 스틱처럼 되어 있는 것과, 본체와 손잡이 사이에 쇠장식을 연결하여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검도 있다. 최승희의 경우는 검이 본체와 손잡이가 연결되어 검에 장식을 달았음을 엿볼 수 있다. 20세기 초엽에 이르러 「검무」의 무구 형태는 검(劍)과 칼날과 칼자루가 일체형인 검에서 칼날 목이 돌아가는 검을 사용하던 시기에 최승희는 본래의 검을 고집한 것을 볼 수 있다. 한국 무용가가 사용한 검은 360도 회전할 수 있는 검이다.

동작의 형태에 있어서는 최승희와 한국무용가도 호흡을 내 쉬고 ‘맺음’형의 ‘정’적인 상태의 ‘음’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의 오른쪽 다리의 무릎을 구부리고, 왼쪽 다리는 올리고 있으나, 최승희가 올린 다리의 각도는 90도 이상이고, 한국 무용가의 각도는 90도 이하의 각도를 유지하고 있다.

호흡에 있어서도, 양자 모두 숨을 내 쉬고 있어, 체간은 아래로 향하게 된

다. 그러나 최승희의 경우는 올린 다리와 체간 간격이 좁혀져 있으며, 상반신이 직선으로 곧게 서 있고 상승해 있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올린 왼팔은 머리 위에서 멈춰 있고, 그 반대편의 오른팔은 긴장하여 어깨와 양팔에 힘이 들어가 팔꿈치와 손목이 전체적으로 솟아 양팔의 간격이 매우 좁다. 이로 인해 숨을 마신(吸) 것과 같이 양손에 긴장감과 힘을 주고 겹을 쥐고 있어, 마치 흉곽 호흡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보인다. 그것에 반해 한국 무용가의 경우는 숨을 내쉬고 있기 때문에, 신체 전체가 지면을 향해 중력에 따라 내려가 있으며, 상지에 힘을 빼고, 체간이 다소 앞으로 숙여진 상태임을 볼 수 있다. 그와 함께 올린 왼팔을 두부(頭部) 옆으로 벌리며, 오른팔도 그와 비례하게 폭을 넓혀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호흡과 사지가 유기적으로 연동 되어 복식호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최승희의 포즈와 한국 무용가의 포즈 비교(필자작성)

| | 부위 | 최승희 포즈 | 한국 무용가 포즈 |
|---|---|---|--|
| | '맺음'형으로 '정'적인 상태에서 호흡은 숨을 내 쉰 상태의 동작 비교 | | |
| 1 | 하지: 다리(脚部) | 오른다리 : 무릎을 굴절 왼다리 : 90도 이상 | 오른다리 : 무릎 굴절 왼다리 : 90도 이하 |
| 2 | 상지: 팔 | 어깨 : 힘이 들어가 긴장 왼팔 : 머리 위 오른팔 : 직선 팔꿈치·손목 : 손목이 솟음 양 팔의 폭 : 좁음 팔 전체 : 호흡이 정지된 것 같은 긴장감 | 어깨 : 힘을 빼고 왼팔 : 머리에서 옆으로 오른팔 : 곡선 팔꿈치·손목 : 곡선 양 팔의 폭 : 넓음 팔 전체 : 호흡과 팔이 함께 연동 |
| 3 | 체간 | 직선 | 앞으로 숙임 |
| 4 | 호흡 | 흉곽호흡(상지 상승) | 복식호흡(신체가 중력에 따름) |

5. 고찰 및 결과

최승희는 1934년 일본의 청년관에서 제 1회 무용발표회를 개최한다. 그 공연의 프로그램 중에는 한국 전통무용 「검무」를 비롯하여 조선무용을 무대

에 올리게 되는데, 당시 그 공연을 관람한 비평 중에는 소노이케 킨나루(園池公功)와 같이 최승희를 민족무용가로서 평가하고, 「검무」는 민족적 측면이 충분히 나타났다(高嶋雄三朗·鄭炳浩 1994: 164)는 평가와, 그녀의 스승인 이시이 바쿠(石井漠)는 “조선무용의 부활이라니 그것은 그녀의 취미에 불과했다. (중략) 그녀의 조선무용은 단적으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에는 효과적이었다(高嶋雄三朗·鄭炳浩 1994: 166)”²⁰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당시 조선에서도 그녀의 조선무용은 조선무용에는 미치지 못하고 조선무용과는 크게 다르다(金贊汀 2002: 129)는 평가, 특히, 「검무」 등은 민족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金贊汀 2002: 129), 혹은, 조선인의 특성과 혈맥이 보이지 않는다(金贊汀 2002: 73) 등 조선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적인 평가를 받았다. 선행연구에서 박명숙(1993: 52)은 최승희의 춤은 전통무용의 원형성이 보존되어 있지 않고, 최승희는 ‘한국 춤을 추고자 했던 바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1942년 장기 독무공연(長期獨舞公演)의 프로그램에 개략적이지만, 「검무」(1934)에 관한 유래와 「검무」의 원형성, 그리고 자신의 창작의도를 밝히며(高嶋雄三朗 1981: 115), 당시의 「검무」에는 조선 본래의 전통적 요소는 이미 없다고 해석하고 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최승희 주장의 근거를 조사한 바 『동도악부』, 『해동악부』 등에 황창「검무」의 모습을 묘사한 자료들을 통하여 「검무」의 본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최승희는 어떠한 방법으로 「검무」의 유래와 역사 등의 연원을 파악했는지는 모르지만, 최승희는 조선무용의 이론적 배경을 탐구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황창「검무」는 본래 기복이 있고, 다이나믹하며, 무예적인 요소가 있는 움직임이었다. 그러나 본래 민간에서 추워지던(백봉선 2019: 1)²¹ 「검무」는 조선 후기에 무구의 변화와 함께 궁중에

20 이시이바쿠는 「崔承喜論」에 대하여 「현대」(現代)전재(轉載).

21 검무는 원래 민간에서 가면무로 행해지던 것을 조선 정조(正祖, 1752) 때 궁중무용으로 채택하여 오늘날까지 전승되는 춤으로서 검무는 민간에서 궁중으로 궁중에서 지방으로 전파되어 발전한 춤이라 할 수 있으며, 검무는 조선후기 각종 연회의 공연 종목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서 여기들에 의해 추어지며, 「검무」가 구조화되어 대열을 만들고, 예(藝)의 형태를 취하며, 무술자체가 아닌 무술적인 요소를 가지면서 보여주는 무용으로 양식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관기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새로운 공간, '권번'에서 「검무」가 추어지게 된다. 더욱이 권번은 각 지방에 분포되어 있어 각 지역의 향토적인 요소가 각기 어우러져 다양한 「검무」가 생겨나게 되므로, 최승희의 주장은, 「검무」는 황창「검무」의 본래의 원형성은 상실되어 시대의 변천과 함께, 또 무구의 변화로 인하여 기복이 있는 동작에서 보다 부드럽고, 연약한 움직임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 것이라고 고찰된다.

또, 최승희는 「검무」의 잃어버린 원형을 되찾으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일관되게 새로운 '전통을 습득하여 창작조선무용'을 창작하고 싶다는 의사와 포부를 지속해서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최승희가 말하는 '원형성'을 추구하기 위해 전통의 계승자인 한성준에게 사사하고 조선의 각지를 방문하여 조선의 전통을 습득하면서 전통과 원형의 실마리를 발견하려 했을 것으로 사려 된다. 최승희는 「검무」의 원형을 오히려 전통을 재생하려 하기 보다는 전통에 근거를 두고 새로운 창작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최승희가 「검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 시기는 근대에 들어서 일 것이고, 코바야시 나오키(小林尚弥)(2015: 45)가, 근대에 있어서의 「검무」는 '비교적 새로운 시대에 창작된 것'이라고 지적한 것과 같이, 「검무」는 20세기에 들어서 잔존하는 동작과 거기에 새로운 동작 등이 첨삭되어 근대에 있어서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며 현재의 「검무」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승희가 「검무」(1934)에서 현실적으로 표현한 신체의 기법에 있어서는, 융감하고 과감함을 드러내고는 있으나, 그녀가 무용을 처음으로 배워 뿌리내렸던 서양적인 요소에 의거하였기 때문에 한국무용의 핵이 되는

예술적으로 한층 다듬어지고 세련되어 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검무」가 민간에서 궁중으로 채택되었다 한다면 그것은 서민, 농민의 춤이었는지, 또, 어떠한 경위로 궁중으로 채택되었으며 당시 지역의 교방「검무」가 존재하였다면 어떠한 지역의 「검무」가 궁중으로 전승되었는지 또한 중요한 검토 영역으로 보고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호흡 법의 실현에 이르지 못하는 못했다고 사려 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최승희의 「검무」(1934)의 포즈에서 올린 다리 각도의 높이와, 상지의 상승으로 팔과 어깨의 경직과 양 팔의 폭은 좁고, 곡선을 이루지 못한 것은 호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춤추는 사람의 경험에 근거한 호흡이 동작의 매끄러움과 밀접하게 관련된다’(정귀인 2008: 28, 48)고 기술한 것처럼, 당시 최승희는 조선무용을 체득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바로 한국 무용 숙련자와 비경험자의 복식 호흡의 비교 실험을 실시했을 때, 한국 무용 숙련자는 가속도의 변화, 즉, 힘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길고, 부드러운 한국 무용의 동작의 완성도로 이어지지만, 최승희의 경우는 조선무용을 배우는데 더한 시간은 의외로 짧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동작소를 사용하여 구성한 「검무」의 작품은 조선 관계자들로부터 ‘조선의 정신이 없다’ 혹은 ‘민족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등의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박명숙(1993)의 지적처럼 최승희는 전통무용의 원형성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승희의 포즈는 황창「검무」가 지닌 본래의 무예적이고 강렬함과 다이내믹함을 표현하려는 의도가 보인다. 더불어, 최승희는 조선 전통무용의 이론적 인식을 추구하고 실천적 움직임의 조사하고 직접 지방을 찾는 등 조선무용에 대한 관심이 강하고 탐구의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부터, 최승희는 조선무용에 대한 생각이나 창작무용의 시도는 결코 어중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심우성(沈雨晟)(2001: 10)이 “전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 것을 답습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체적인 발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처럼, 최승희에게 있어서의 ‘전통성’은 「검무」의 전통적 동작을 이용하여 황창「검무」의 기복 있고 힘 있는 움직임의 원형으로 되돌리려고 하면서 전통의 재생이라고 보기보다 전통에 근거하여 새로운 창작을 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일본어문헌〉

- 蘆原英了(1986) 『舞踊と身体』, 新宿書房, 268.
- 石井漠(1947) 『舞踊さんまい』, 右文社, 62.
- 金賛汀(2002) 『炎は闇の彼方に－伝説の舞姫・崔承喜』, 日本: 日本放送出版協会, 73, 129, 173.
- 小林尚弥(2015) 「アジア舞踊表現における共通言語の発見I－日本舞踊と韓国伝統舞踊における研究基盤としてのまとめ－」, 日本大学校芸術学部紀要, 45.
- 崔承喜(1936) 『自叙伝』, 日本書莊, 21-58.
- 鄭炳浩(1993) 『韓国の民俗舞踊』, 白帝社, 21-22.
- 高嶋雄三朗・鄭炳浩(1994) 『世紀の美人舞踊家崔承喜』, エムティ出版, 166.
- 高嶋雄三朗(1981) 『崔承喜』, むくげ舎, 46, 115.
- 高橋佳子(2015) 「川端康成の舞踊観」, 日本女子体育大学紀要, 40.
- 許娟姬(2008) 「韓国券番(1908-1942)における妓姓(キセン)教育－妓姓教育の内容と舞踊教育」, 『舞踊学会』 2008巻 31号, 48.

〈한국어문헌〉

- 국립문화재연구소(1996), 「舞譜集 입춤·한량무·검무」,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64.
- 김온경(1991) 『한국민속무용』, 형설출판사, 256.
- 김찬정(2002) 『춤꾼 최승희』, 서울: 한국방송출판.
- 박난영(2011) 「최승희와 이시이바쿠의 작품에 나타나는 안무체계 비교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2, 72, 100-103.
- 박명숙(1994) 「최승희 예술이 한국현대무용에 끼친 영향」,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2.
- 박미향(2017) 「밀양검무 춤사위에 나타난 무예적 표현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 백봉선(2019) 「궁중검무와 진주검무의 비교분석」, 진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
- 백향주(2005) 「최승희 『조선민족무용기본』의 형성과 변화」,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19.
- 심우성(2001) 『한국전통예술개론』, 동문선, 10.
- 양지선·강인숙(2019) 「영남좌도 통신사 교방춤에 나타난 문화예술적 특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4호, 492, 495.
- 이병욱(2013) 「한국 전통춤의 분류와 양식적 특징－정병호의 분류법 검토를 중심으로」, 『공연문화연구』 27권, 29, 33.

- 이혜경(2010) 「한국무용 기교발현을 위한 호흡기법훈련 모형」,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2, 37.
- 임수정(2006) 「한국 여가검무의 예술적 형식과 지역적 특성연구」, 용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20, 40-41, 202.
- 임학선(1997) 「명무 한성준의 춤 구조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
- 정귀인(2008) 「호흡이 무용동작의 부드러움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8, 84.
- 조희상(2009) 「조선조 검무의 무술적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무용사학』 제10호, 235-237.

〈인터넷사이트〉

- 경남연합신문: <http://www.knyhnews.co.kr>, 2022.07.10.
- 김천홍: <https://kotobank.jp/word/%E9%87%91%E5%8D%83%E8%88-1525535>, 2022.07.12.
- 기생: <http://kjidai.com/kan007.html>, 2022.05.21.
- 『동도악부』·『진찬의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16198>, 2022.06.16.
- 예인·기방(韓国時代劇用語): <http://kjidai.com/kan007.html>, 2022.05.21.
- 『해동악부』: <http://www.yes24.com/Product/Goods/2969358>, 2022.06.10.

〈사진자료〉

- 可正雄(하정웅)(2016) 『崔承喜LEAP&EXTENSION』, 秀林分化財団.
- 재일한국무용가, 신금옥(辛錦玉, 1957~)의 동작, 필자촬영 : 2020.9.10, 촬영장소: 오차노미즈여자대학.

그룹 워크를 이용한 발음 학습효과에 대한 고찰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Consideration of Effects of Pronunciation Learning through Group Work

—Focusing on Online Classes—

朴恩珠*

奈良大学

1. 서론

2020년 초반부터 시작된 코로나 19 팬데믹에 의해 세계적으로 온라인 수업이¹ 장기화되면서,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참가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수법 모색과 관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2021년 10월) 수업 형태가 대면으로 정상화되고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짚든 길든 온라인 수업이 재개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수업 참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인터넷 교육 어플이나 교육 영상 서비스를 수업에 도입하는 경우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온라인 수업은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인터넷 환경은 학생들 개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사용 용량에 제한도 없고, 온라인 수업을 위한 도구(ICT기기)도

* Park Eun Joo(Lecturer, Nara University)

E-mail: gehimnis6525@gmail.com

1 일본 문부과학성이 2007년에 제시한 대학교육의 「메디아 수업고지」에 따라, 일본의 일부 대학은 코로나 19 발생 이전부터 온라인 수업을 실행하고 있었다. 본고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이 대면 수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실행되는 온라인 수업을 관찰 대상으로 한다.

복수로 갖추고 있는 학생들도 있는 반면, 온라인 수업을 위한 도구가 스마트폰뿐인 학생들도 있다². 이러한 학생들 중에는 인터넷사용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 중에, 교원이 제시하는 인터넷 교육 어플이나 교육 영상을 다운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³ 학생들의 인터넷 환경의 차이는 일본의 대학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문제로 대두되어, 교원들에게 학생들이 개인의 열악한 인터넷 환경으로 인해 수업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온라인 수업을 권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 환경에 크게 영향받지 않는 방법을 수업에 도입하여 학습 향상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대면 수업 때와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게 대처했을 때 대면 수업과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온라인 수업의 급격한 확장으로 아직은 시행과 개선을 반복하고 있는 단계라고 하겠다. 더욱이 액티브러닝 형태의 외국어 교육인 경우, 초급반 학생들이 90분 동안 한눈팔지 않고 온라인 수업에 집중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외국어 수업은 학생들의 발음과 표현을 직접적으로 듣고 확인한 후, 교원이 즉시 피드백을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더욱이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에 비해 상호작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을 매 수업에 일제히 참가시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의 수업이 반복될 경우, 학생들은 90분 간의 온라인 수업을 지루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 만약 학생들에게 수업이 지루하게 인식된다면 수업 집중도나 참가도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수업 집중도나 참가도의 저하는 학생들의 학습 향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음학습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그룹 워크를 실시

2 온라인 수업을 위한 일본 대학생들의 인터넷 환경에 대해서는 加納(2020) 참조.

3 각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지원으로, 학생들에게 용량이 한정된 루터(포켓 WiFi 포함)를 배부하거나 대학 내의 컴퓨터실을 제공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로 인해 대학 근처에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던 대다수의 타지방 학생들이 귀성하면서, 대학 내의 컴퓨터실 제공은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다. 발음은 말하기와도⁴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한국어 문자와 발음을 처음 배우는 초급반 학생들에게는 중요한 학습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관찰 대상은 한국어⁵ 초급반 3클래스로 한다. 그룹 워크의 테마는 인터넷 환경이 제한적인 학생들도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차질없이 실행이 가능한 것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수업에서 실행하는 그룹 워크가 발음학습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2. 그룹 워크의 도입 배경과 효과

2.1. 도입 배경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의 활동 범위가 한정되면서 대학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신입생인 경우, 온라인 수업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모든 동아리 활동이 중지되기 때문에 같은 학과의 친구나 선배들과의 교류 또한 제한된다. 따라서 대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수업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입생은 온라인상으로 [교과 선택-수업 참가-과제 제출]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대다수의 신입생들은 온라인 수업이 확장되면서 대학생활을 위한 조언을 듣거나 의논할 상대도 없이 대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본인의 과목 선택이 4년간의 대학생활을 위해 적절한 것이었는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상호작용 또한 쉽지 않은 온라인 수업에 참가하게 되는 것이다. 온라인상에서는 학생과 교원, 또는 참가 학생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립감을 느끼는 학생이 증가할 수 있다. 이러한 고립 상태가 장기적

4 발음 오류가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에 관해서는 朴恩珠(2021) 참조.

5 일본에서는 대학에 따라 한국어, 조선어, 코리아어라고 하는데, 본고에서는 편의상 한국어로 한다.

으로 지속되면 심리적인 불안을 형성하고, 그것은 고독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신입생들에게 있어 온라인을 통해서만 존재하는 익숙하지 않은 수업 형태는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 본인의 학습 방법이 적합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학생들의 막연한 불안은 VDT 이용시간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는데, 장시간의 VDT 이용은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平林(2020)는, 긍정적인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기대한다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영상 회의나 그룹 토론 등, 학생과 교원 간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고독감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内田・黒澤(2021)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장기화는 은둔형 외톨이(히키코모리)나 VDT증후군과 같이, 학생들의 정신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다.

온라인 수업인 경우, 수업 내용을 녹화해서 수시로 업데이트를 한다고 하더라도, 비실시간 방식의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그 횟수에 비례하는 학생들의 학습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⁶ 특히 아직 학습 방법이나 학습 포인트를 파악하지 못한 초급반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비실시간 방식의 온라인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진행 과정이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상호작용이 가능한 ZOOM이나 Teams를 이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인 수업 진행을 위해 그룹 워크를 도입하기로 한다.

아래의 ①-⑩은 오사카 대학에서⁷ 공개한 「수업을 온라인화 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⁸이다.

6 이보경(2020), 村上・浦田・根岸(2020)에서도 비실시간 온라인 수업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이 있었다.

7 정확히는 「大阪大学全学教育推進機構教育学習支援部」이다. 오사카 대학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온라인 수업 실천 가이드」로서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8 런던 대학, 하버드 대학, 맥길 대학, 콜롬비아 대학 등의 온라인 수업이 참고 되었다.

- 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
- ② 학습목표를 기준으로 하는 수업 계획
- ③ 콘텐츠의 세분화
- ④ 학생 끌어들이기
- ⑤ 수업 규칙의 공유
- ⑥ 모든 학생이 참가 할 수 있는 것
- ⑦ 연습하여 익히도록 한다
- ⑧ 대체 수단을 생각해 둔다
- ⑨ 심신 건강에 유의한다
- ⑩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본 연구는 위의 「수업을 온라인화 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를 참고하여, 학생들이 모두 참가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며,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실행을 계속할 수 있는 테마를 그룹 워크에 적용한다.

2.2. 관찰 방법과 대상 및 테마 선정

관찰 대상은 일본의 대학에서 주 1회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반⁹ 3클래스이며, 학생 수는 총 93명이다. 수업 형태는 실시간 방식의 온라인 수업이며, 발음 학습을 목적으로 그룹 워크를 도입한다. 그룹 인원은 각 클래스의 학생 수에 따라 4명 내지 5명으로 한다.

그룹 워크의 테마는 학생들의 한국어학습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케이팝으로 한다. 방법은 그룹 내에서 서로 의논하여 모든 그룹원이 원하는 곡을 발표곡으로 정한다. 그룹 워크의 테마를 케이팝으로 선정한 이유는, 최근 들어 일본의 학생들이 한국 젊은 층의 대중문화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2018년 5월~2021년 5월에 걸쳐 한국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선택한 일본의 대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9 일본의 대학에서 외국어 초급반은 신입생이 일반적이나, 대학에 따라 신입생이 아닌 경우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입생을 관찰 대상으로 한다.

서 설문 조사를 했다.

- ① 단위 취득을 위해서: 341명
- ② K-POP을 좋아해서: 325명
- ③ 한국 드라마(영화)를 좋아해서: 210명
- ④ 한국 여행(쇼핑)을 위해서: 95명
- ⑤ 한국 코스메틱(메이크업)에 관심이 있어서: 85명
- ⑥ 한국 요리(음식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79명
- ⑦ 기타: 65명

위의 ①은 학생들이 한국어를 선택하기 전에 입수한 한국어와 일본어가 통사적으로 유사하다는 언어적 정보를 통해, 다른 외국어보다 한국어 습득이 용이할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②-⑥을 보면 같은 분야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 ⑦기타는, [한국어 발음이 듣기 좋아서/ 한글 문자에 흥미가 있어서/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친구가 한국어를 이수해서/ 한국인 친구가 있어서/ 영어를 좋아하지 않아서] 등으로 나타났다.

위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케이팝을 도입한다면 학생들의 긍정적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룹 워크의 테마를 케이팝으로 선정했다¹⁰.

2.3. 그룹 워크 효과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에 비해 학생 간의 교류가 어렵고 교원과의 상호작용도 제한적이다. 가령 교원이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에서 모든 학생을 동시에 집중시키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자칫하면 90분 동안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은, 학생들의

10 대면 수업에서 케이팝을 테마로 한 그룹 워크를 실시한 적이 있으나, 온라인 수업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참가보다는 교원의 강의를 일방적으로 경청하는 수동적인 수업으로 전환되기 쉽다. 또한 실시간 방식의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도 마이크를 끈 상태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에 충실히 참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에 그룹 워크를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 발표곡을 그룹원이 함께 선택함으로써 각 멤버들이 주체적으로 그룹 워크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것은 수업 참가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 2) 목적이 있는 그룹 연습은 한국어의 발음법칙을 보다 실질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일조한다.
- 3) 각 그룹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해지고 친밀해지면 연대감이 형성된다.
- 4) 학생들 간에 연대감이 형성되면 아이스브레이킹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수업에 임할 수 있다.
- 5) 그룹 워크 참가와 더불어 학생들의 수업 참가도가 높아지면 수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
- 6) 그룹 연습과 발표를 통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온라인 수업 내에서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각자만의 공간에서 화면 앞에 앉아 긴장된 상태로 수업에 임하는 평소의 온라인 수업보다 대면에 근접한 능동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며, 또한 그룹 워크를 통해 학생들 간의 연대감 형성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케이팝을 매개체로 하여 학생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면, 학생 간의 상호작용도 활발해질 것이고, 발음학습 향상에도 유익하게 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룹 워크가 꾸준히 진행된다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 고립감을 느끼던 학생들에게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케이팝을 연습하는 과정은, 학습적으로는 발음학습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심리적으로는 학생들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친밀감을 형성하여 수업 참가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짐작된다.

3. 그룹 워크를 통한 발음 학습과 받아쓰기

3.1. 발음 학습

일본어의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음절문자이기 때문에 일본어 모어화자 한국어 학습자(이하, 일본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발음은 용이하지 않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자음에 관한 발음 학습과 종성 오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¹¹ 음절문자를 사용하는 일본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격음화, 농음화, 유음화, 연음화 등과 같이 자음이 본래의 소리에서 다른 소리로 변화되는 발음규칙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학습자가 정확한 발음을 하려면 발음규칙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정확히 발음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철자와 다르게 발음되는 사례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면서 한국어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가 한국어다운 발음을 구사하려면 지속적인 연습이 불가피한데, 발음 연습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학습자들과 함께 한다면, 혼자서 연습할 때보다 좀 더 지속할 수 있을 것이며, 연습의 질 또한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각 클래스의 발음 연습은 그룹 워크 시간을 통해 집중적으로 한다.¹²

일본의 대학은 한 학기를 15주로 정하고 있다. 각 대학의 교육과정이나 수업 횟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어 수업이 주 1회일 경우, 한국어 초급 학습자는 대개 4~6회에 걸쳐 한글과 발음규칙을 배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글학습 과정이 거의 끝나는 4회 수업 때 그룹을 형성하여, 5회 수업부터 그룹 워크를 시작한다.

11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자음의 평음, 격음, 농음의 구별에 관해서는 野間(2007), 油谷(2010) 참조. 일본인 학습자의 비음 종성발음에 대한 연구로는 황연신(2002), 정현숙(2013), 장선미(2015), 이수원(2016), 朴恩珠(2020) 등 참조.

12 대면 수업에서는 새도잉, 음성인식 어플, 그룹 워크를 도입하여 발음 연습을 한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습자들의 인터넷 환경을 고려하여 음성인식 어플을 이용한 발음 연습은 방법만 알려주고 개인적으로 연습하도록 하고, 수업에서는 새도잉과 그룹 워크를 중심으로 발음 연습을 한다.

각 그룹은 봄학기 동안 케이팝 3곡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3주에 1곡씩을 발표한다. 발표곡은 그룹 내에서 상의하여 원하는 곡을 선택한다. 케이팝이면 어떤 곡이든 발표가 가능하지만, 전체 가사의 3분의 1 이상이 영어로 표현된 노래는 발표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룹 워크를 실시하는 기간에는 수업은 60분간 진행하고, 그룹 워크는 30분간으로 한다. 그룹워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매회 진행한다.

- ① 각 그룹은 발표곡의 가사 노트를 각자 준비 → ② 그룹원이 함께 소리내어 가사 읽기연습 (서로 발음을 확인 하면서 5회 이상 반복) → ③ 가사 읽기가 끝난 그룹은 함께 노래연습.

발표 방법은 「녹음하기」와 「직접 부르기」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각 그룹에서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곡마다 반드시 그룹원 각각의 개별 파트와 그룹(전원) 파트로 구성해야 한다. 3번의 그룹 발표는 최종적으로 「구두 발표 20%, 그룹 워크(협력) 10%」로 성적평가에 반영된다. 발표 때 결석자가 있는 그룹은 「그룹 워크(협력) 10%」는 가산되지 않는다.¹³ 매 수업 시간에 그룹 워크가 시작되면, 학습자들은 각자 어려운 발음을 체크해서 교원에게 지도를 요청한다. 그룹별 연습 시간에는, 교원이 각 그룹을 방문하여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발음, 또는 잘못된 발음을 체크하여 잘못 된 발음을 수정하고, 학습자들이 발음을 바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초급 학습자가 수업시간에 30분 주어지는 연습 시간만으로 3주에 케이팝 1곡을 정확히 발음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각 그룹은 수업 시간 이외에 별도로 연습을 한다. 각 그룹원들은 이메일이나 라인(Line)으로 연락하는데,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라인을 이용한다. 라인은 그룹 채팅과 통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업 이외에 그룹 연습을 하게 하는 이유는, 발음 학습뿐만 아니라 모두가 신입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함이다.

13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룹 워크 10%」 감점 처리는 적용되지 않지만, 감점 처리가 되지 않으려면 결석자는 발표 전에 반드시 연락을 해야 한다.

3.2. 받아쓰기

한글의 자음과 모음 학습이 끝나는 6회 수업에서 받아쓰기 시험 1회를 실시한다. 받아쓰기 시험 2회는 8회 수업, 3회 받아쓰기 시험은 11회 수업, 4회 받아쓰기 시험은 14회 수업에서 실시한다. 따라서 봄학기에 받아쓰기 시험은 총 4회 실시된다. 아래 <표 1>은 관찰 대상자 93명의 받아쓰기 시험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점수 아래 기입된 숫자는 학습자 수이다.

<표 1> 받아쓰기 시험(2021년도 봄학기/ 학습자 수 93명)

| 점수 횟수 | 0-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1-90 | 91-100 |
|----------|------|-------|-------|-------|-------|-------|-------|-------|--------|
| 1회 | 60 | 15 | 10 | 8 | 0 | 0 | 0 | 0 | 0 |
| 2회 | 35 | 25 | 15 | 13 | 5 | 0 | 0 | 0 | 0 |
| 3회 | 18 | 20 | 10 | 19 | 15 | 6 | 5 | 0 | 0 |
| 4회 | 5 | 14 | 7 | 24 | 18 | 10 | 8 | 4 | 3 |

<표 1>을 보면, 1회 받아쓰기 시험에서 학습자 과반수가 0-20점수대에 머물렀다. 1회 받아쓰기 시험은 한글을 배운 직후에 보는 시험이라서 학습자들이 단어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학습자들이 한국어 발음규칙을 이론적으로는 배웠으나 6주 정도라는 짧은 한국어 학습기간과 사용기간만으로 일본어 발음규칙에는 없는, 철자와 다르게 발음되는 한국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예로 1회 받아쓰기 시험 답안을 보면, 학습자들이 철자와 발음을 혼합하여 쓰거나, 발음규칙에 지나치게 반응한 나머지 오히려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단어를 표기하는 경우가 눈에 띈다. 그러나 시험 횟수에 따라 점수가 점차적으로 나아지는데, 받아쓰기 시험 3회부터 0-40점대의 학습자 수가 감소되고, 41점대 이상의 학습자 수가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고찰

4.1. 받아쓰기 시험 결과 비교

아래의 <표 2>는 대면 수업에서 실시한 받아쓰기 시험 결과로, <표 1>과 동일한 수준의 초급반¹⁴으로 학습자 수는 90명이다.

<표 2> 받아쓰기 시험(2019년도 봄학기/ 학습자 수 90명)

| 점수 횟수 | 0-20 | 21-30 | 31-40 | 41-50 | 51-60 | 61-70 | 71-80 | 81-90 | 91-100 |
|----------|------|-------|-------|-------|-------|-------|-------|-------|--------|
| 1회 | 60 | 14 | 8 | 8 | 0 | 0 | 0 | 0 | 0 |
| 2회 | 36 | 24 | 14 | 13 | 3 | 0 | 0 | 0 | 0 |
| 3회 | 17 | 20 | 9 | 19 | 15 | 5 | 5 | 0 | 0 |
| 4회 | 6 | 14 | 6 | 24 | 18 | 9 | 8 | 3 | 2 |

대면 수업의 발음학습 형식은 새도잉과 음성인식 어플을 이용하여 발음 연습을 하고, 그룹 워크에서는 그룹원들이 서로의 발음을 확인하고 수정하면서 집중적으로 읽기 연습¹⁵을 한다. 특히 음성인식 어플을 이용한 발음 학습은, 매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복습과 더불어 새로운 단어의 발음 연습을 하는데, 발음하기 까다로운 단어에 대해서는, 학습자들이 발음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교원이 그 단어의 소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 발음법을 가르친다.¹⁶ 학습자들은 반복해서 연습한 후, 각자가 본인 발음의 정확도를 음성인식 어플을 통해 확인한다. 음성인식 어플을 이용한 발음 학습은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학습법으로, 특히 한국어를 처음 배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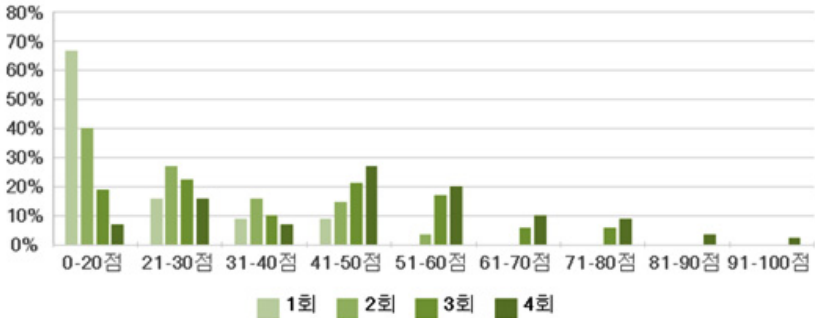
14 <표 1>과 <표 2>는 같은 대학의 한국어 초급반으로, 교육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거의 없으며, 교과서 또한 동일한 것을 사용했다.

15 케이팝을 테마로 그룹 워크를 실시한 경우는 [읽기-노래] 순으로 반복해서 연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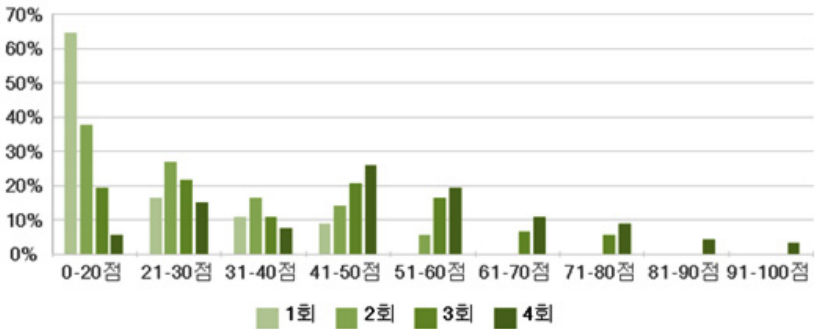
16 상술했듯이 온라인 수업에서는 [음성인식 어플을 이용한 발음 연습] 방법을 알려주고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도록 지시했다.

는 초급 학습자에게는 발음학습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¹⁷ <표 2>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음 학습을 한 경우이다.¹⁸ <표 2>와 <표 1>을 그래프로 비교한 것이 <그림 1>과 <그림 2>이다.¹⁹

<그림 1> 받아쓰기 시험 2019년 봄학기 (대면 수업)



<그림 2> 받아쓰기 시험 2021년 봄학기 (온라인 수업)



17 음성인식 어플을 이용한 한국어 발음학습 효과에 대해서는 朴恩珠(2020) 참고.

18 <표 2>는 <표 1>의 학습자와 동일하게 케이팝을 테마로 그룹 워크를 실시한 학습자 그룹이다.

19 <그림 1>의 학습자 수는 90명이고 <그림 2>의 학습자 수는 93명으로 학습자 수가 동일하지 않은 관계로, 각 점수에 해당하는 학습자 수를 [%]로 나타냈다.

대면 수업인 <그림 1>의 경우와 온라인 수업인 <그림 2>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두드러지는 차이는 아니지만, 굳이 차이를 말한다면 4회 받아쓰기 시험 결과에서 대면 수업보다 온라인 수업이 81점 이상 점수대의 학습자 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예측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 형태를 비교해 볼 때, 학습자와 교원의 상호작용이 대면 수업의 경우가 온라인 수업보다 자유롭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외국어 수업 초급반의 발음 학습은 발음 수정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의 현장 피드백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면 수업은 온라인 수업에 비해 학습자들의 발음 오류를 수업시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피드백을 매 수업에서 할 수 있지만,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와 교원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면 수업처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림 2>의 결과는 그룹 워크 시간에 실행된 발음법에 대한 교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꾸준히 연습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4.2. 수업 참가도

2021년에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고등학교에서 온라인 수업을 어느 정도 경험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2020년에 돌발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충분한 사전 계획없이 실시된 온라인 수업은 순조롭지 않았다. 따라서 경험 있다고 하더라도 온라인 수업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신입생들은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첫 학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대학은 고등학교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모든 것을 이행해야 한다. 대학에 입학하면 수강 신청, 단위 취득, 수업 참가와 과제 수행, 학기말 시험, 단위취득 확인, 새학기 시작, 이러한 생활이 반복된다. 졸업까지 각 학년에 취득해야 할 단위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단위는 각자가 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서는 먼저 대학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생들은 같은 학과의 친구나 선배들과의 교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4년 동안 이어지는 대학생활을 스트레스 없이 순조롭게 적응해 나아가야 하는데, 만족도가 높은 대학생활에 필요한 것이 단지 좋은 성적과 단위 취득만은 아니다. 교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또는 친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대학생활의 만족감이나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²⁰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형태라고 할 수 없는 온라인 수업은 신입생들에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수업 참가도가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에 참가하는 신입생들의 학습 향상을 도모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학습자들 간의 교류가 필요한 그룹 워크를 도입했다. 또한 그룹 워크가 한국어 학습이나 수업 참가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그룹 발표를 마친 그룹은, 그룹 워크에 대한 의견이나 느낀 점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했다. 아래의 <표 3>은 93명의 일본인 학습자들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그룹 워크에 관한 설문조사를²¹ 실시한 것이다.

<표 3> 그룹 워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021년 봄학기/ 학습자 수 93명)

| |
|--|
| <p>ㄱ. 좋았다. (93명) / ㄴ. 좋지 않았다. (0명) ↓</p>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룹 워크를 통해 수업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적으로 해소되었다. (80명) · 수업을 전체와 그룹으로 나누어서 90분 수업이 지루하지 않았다. (75명) · 매 수업에서 발음 체크를 받을 수 있어서 발음 학습이 효율적이었다. (72명) · 전체 수업시간이 길지 않아서 매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70명) · 한국어 발음 규칙을 이해하게 돼서 발음이 좋아졌다. (68명) |

20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Azmitia, Syed,&Radmacher(2013), 見館・永井・北澤・上野(2008)참조.

21 설문 조사는 복수선택 가능. <표3>의 항목에는 없지만, 보다 빠른 발음 습득을 위해 50분~60분 정도의 그룹 워크 시간을 원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그룹 워크가 학습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 그룹 워크가 재미있었다. (67명)
- 그룹 연습을 통해 모두가 친해졌다. (67명)
- 그룹 내에서 다른 과목이나 대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서 좋았다. (65명)
- 케이팝에 더욱 관심이 생겼다. (59명)
-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원어로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 (51명)

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룹 워크가 수업 참가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진다. 3클래스의 봄학기 출석률은 98% 이상을²² 유지했으며, 학습자들은 능동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했다. 실제로 그룹 워크를 시작한 이 후부터 학습자들의 수업 참가가 적극성을 띠기 시작하면서 수업 시간에 교원과 학습자 및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 점차적으로 원활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수업태도의 변화가 그룹 워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은 <표 3>으로 알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온라인 수업에서 그룹 워크가 발음학습 향상에 효과가 있는지를 관찰했다. 관찰 대상은 일본의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초급반 3클래스로 하고, 그룹 워크의 테마는 인터넷 환경이 제한적인 학습자들도 부담없이 참가할 수 있으며, 대면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차질없이 계속해서 실행이 가능한 케이팝으로 선정했다. 그룹 워크는 매주 수업 중에 실행되었는데, 각 그룹은 그 시간에 발음 학습에 중점을 두고 발표할 케이팝을 [읽기-노래] 순으로 반복해서 연습했다. 또한 3주에 한 곡씩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학습자들에게 수업 외에도 서로의 시간에 맞추어 그룹 연습을 하도록 지시했다. 학습자들의 이러한 지속적인 연습이 그들의 발음학습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외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다운 한국어를 구사하려면 발음규칙은 중요하다.

22 1~2%는 코로나 19 감염 또는 예방접종 부작용으로 인한 결석.

받아쓰기는 학습자가 발음규칙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습득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기 때문에, 봄학기에 받아쓰기 시험을 4회 실시했다. 온라인 수업의 1회~4회의 받아쓰기 시험 결과를, 같은 수준의 대면 수업 클래스와 비교해 본 결과, 점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예상 밖의 결과로, 그룹 워크가 발음학습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그룹 워크를 통해 학습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로워지고, 교원과의 상호작용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학습자들의 수업태도가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수업 태도는 높은 수업 집중도와 참가도로 이어졌다. 매주 그룹 워크를 통해 그룹원들 간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이 공감대 형성에 일조하면서 수업 만족도가 올라가고,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고립감은 감소되었다고 하겠다. 더욱이 신입생들의 친밀한 교우관계 형성은, 서로에게 학업 및 정서적 서포트 역할을 하여, (설령 온라인 수업이 지속된다 하더라도) 각 과목의 수업 참가와 더불어 앞으로의 대학생활을 순조롭고 원활하게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 한해서 언급하자면,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자의 발음 학습을 위한 그룹 워크의 도입은 발음학습 향상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수업 참가도를 높이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그림 2>와 <표 3>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규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이제 더이상 온라인 수업은 낯설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다 다양한 시도와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朴恩珠(2020) 「스마트폰을 이용한 한국어 발음학습-일본인 학습자의 철자오류 ‘ㄴ, ㅁ, ㅇ’을 중심으로-」, 『국제고려학』 18, 449-465.
- 朴恩珠(2021) 「日本人学習者の会話の停滞について-韓国語の会話事例を題材に一」, 『大阪女学院大学紀要』17, 35-53

- 이보영(2020)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4(4), 97-112.
- 이수원(2016)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종성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숙(2013) 「초급 일본어 모어화자의 한국어 종성비음 발음 오류연구-오류환경 및 절차 오류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선미(2015) 「한국어 학습자의 종성발음 분석 및 교육방안 연구-영어권과 일본어권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연신(2002) 「한국어 비음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内田・知広・黒澤 泰(2021) 「コロナ禍に入学した一年生オンライン授業一心身状態と引きこもり願望」, 『心理学研究』 92(5), 374-383.
- 加納・寛子(2020) 「コロナ禍における高等教育でのオンライン授業の可能性について－学生のオンライン授業のための通信環境とICT機器の所有状況に関する調査より－」, 『日本科学教育学会論文集』 44, 521-524.
- 野間秀樹(2007) 『韓国語教育論講座』, くろしお出版.
- 平林 信隆(2020) 「コロナ禍における大学のオンライン授業に対する新入生の認識についての探索的研究」, 『共栄大学研究論集』 19, 55-66.
- 見館 好隆・永井 正洋・北澤 武・上野 淳(2008) 「大学生の学習意欲, 大学生活満足度を規定する要因について」, 『日本教育工学会論文誌』 32, 189-196.
- 村上 正行・浦田 悠・根岸 千悠 (2020) 「大学におけるオンライン授業の設計・実践と今後の展望」, 『コンピュータ&エデュケーション』 49, 19-24.
- 油谷幸利(2010) 『日韓対照言語学入門』, 白帝社.
- Azmitia, M., Syed, M., & Radmacher, K. (2013) "Finding your niche: Identity and emotional support in emerging adults' adjustment to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3, 744-761.

The Succession of Ethnic Dance Education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Focusing on the Case of the Joseon School—

Suh Hee Young*

Ritsumeika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 Introduction

Joseon¹ schools for ethnic educ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ere established after colonial liberation in 1945. There are approximately 2 million Korean residents '*Chosen-jin*' in Japan, of which, 600,000 are descendants of those who came to Japan during colonization. Historically, however, there has been a division among Korean residents in Japan. The ethnic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s so diverse that there are those who do not fall under either the so-called '*Mindan-kei*' or the '*Chongryeon-kei*.'²

This research focuses on '*Chongryeon-kei*' schools which are categorized as 'vocational schools'³ under Japanese education law and are subject to

* 徐希寧(立命館大学大学院 国際関係研究科 博士課程)

E-mail: gr0394sp@ed.ritsumei.ac.jp

1 This article uses the term 'Joseon' meaning Korean in order to describe a uniqueness of Korean school that provides education to foster Korean identity for Korean children who mainly were born in Japan and brought up.

2 In Japan, ethnically Korean schools include '*Mindan-kei*' and '*Chongryeon-kei*' schools (there are approx. one hundred Joseon schools), and other Korean schools. The number of Joseon schools varies according to the researchers' data.

various forms of discriminatory treatment such as being excluded from free high school tuition and hate speech. The '*Chosen-Jin*' community has the need to overcome the forced 'de-Koreanization' during colonization.

Oh(2019) regards Joseon schools as educational institutions voluntarily operated by Korean residents in Japan to improve and resolve humanitarian issues caused by colonial rule. Ozawa(1973) and Kim(2004) studied the historical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es of ethnic education. Park (1980) and Park(1997, 2012) studied the educational process of ethnic education and school life in Joseon schools. Sonia(2005) studied the formation of identity through language education at Joseon schools. Han (2006) states that the '*Chima Jeogori*' is the uniform of the Joseon schools, to protect Korean identity. Itagaki(2018) points out the importance of geographical 'space' in terms of 'Joseon schools for local communities' and 'communities for Joseon school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actice of dance education in Joseon schools where 'ethnic dance' is regarded as an 'Extracurricular-Sojo activity'(Hereinafter referred to as Sojo).⁴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s in late 1945, Sojo activity have been considered extracurricular. Therefore, 'ethnic d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ethnic education.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ethnic dance education is significant in inheriting the identity of previous generations.

In South Korea, traditional performance arts such as drama, music, and traditional dance are considere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under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⁵ This law states its purpose as, "to pre-

3 In the 12th year of the Meiji era, the Ministry of Education, at the time, set schools as being "elementary, middle/junior high, university, normal, vocational, and various other schools".

(https://www.mext.go.jp/a_menu/shougai/senshuu/1280734.htm Date: August 28, 2021).

4 The North Korean Dictionary of the ROK Ministry of Unification defines Sojo group activities(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Joseon school) as "a kind of club activities for preparation, review, experiment, and practice for specific purposes(/subjects), conducted with teachers after school".

serve cultural heritages and inherit national culture, using them to promote the cultural improvement of the peopl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uman culture”.⁶ Since its enactment, many universities in Korea have established dance departments, focusing on nurturing talented people who inherit traditional dance.⁷ Ethnic forms of dance in North Korea are a combination of traditional dances brought to the Korean Peninsula in ancient times and dances constructed by Choi Seung-h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hoi), a representative Joseon dancer who was active in Korea and Japan during the colonial period. In South Korea, Choi’s dance, which combines modern Western dance with Korean ‘ethnic dance’, is classified as ‘new dance’.⁸

Choi’s dance has been inherited under the guidance of ethnic dance education in Japan. She succeeded in sublimating ‘ethnic dance’, which was transformed by incorporating elements of Korean culture and tradition into a form of dance with global human values. As a result, ‘ethnic dance’ had become an expression of ‘ethnic identity’ which is not limited to ethnic exclusivity, but also to other ethnic groups. Choi’s movements and works of ‘Ethnic Dance Fundamentals’ have been incorporated, affecting ethnicity and cultural succession. Ethnic dance education in Joseon schools has become a ‘space=place’ for instructors, and the awareness of ethnic groups cultivated through ‘ethnic dance’ has laid the foundation for living in and maintaining their identity in Japanese society.⁹

5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General Provisions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promulgated on January 10, 1962).

6 Note 3, Paragraph 1 of Article 2.

7 The number of universities in each region is about 100 in dance, sports, and social sports departments.

8 In other words, Choi’s ‘new dance’, which has roots in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had ‘identity’, was established. According to Choi, the introduction of Joseon’s ‘ethnic dance’ was encouraged by Ishii, and the integration of modern Western dance and traditional Korean dance was recognized as Joseon’s ‘ethnic dance’.

Discussions on ethnic identity in Japan have been conducted by Jeong (2018) on the concepts of 'ethnicity' and 'homeland.' Kim(2005) states that even if the national identity of a monolithic rock needs to be dismantled, Japanese society still has a system of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against Koreans living in Japan and Koreans in general, which must be dismantled. Jo, Song(2005) takes an overview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fter World War II and examines the identity of those who find the significance of being Joseon people and identify themselves in line with the ideology of identity. Lee(2016) discusses the diversity of oldcomers focusing on individual identity conflicts while being conscious of identity politics.

Kim(2003) states¹⁰, "Choi's dance was based on cultural, social, and historical realities and influenced the social and cultural circles by creating a new artistic tradition that combined national and foreign techniques." Park(2015) believes that Choi established the Pyongyang Dance Research Institute in 1946 to stage art and lay the foundation for Korean dance in South Korea. In addition, Park(2000) compares Choi's basic dance moves with his own, pointing out that the succession of dance moves in ethnic dance education has been affected by Japanese society. Song(2020) studied internalization of ethnic identity by interviewing Joseon traditional dancers who repatriated to South Korea from Japan.

Since 2018, the National Gugak Center has compiled and published 'Korean National Art' in various field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of culture and art in the Korean Peninsula. Choi's new dance is a homogeneous factor in the starting point of understanding national art between

9 SUH HEEYOUNG (2020), 'Th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of Ethnic Traditional Dances of Colonized Modern Korea', "Ritsumeikan Kokusaikankei Ronsyu: The Ritsumeik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19, 1-19; SUH HEEYOUNG (2022), 'The Succession and Significance of 'Ethnic Dance' with in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Korean Studies" No.10, 89-100.

10 Regarding Choi's birth through death, according to Kim(2003), it is 1911~1975 while Korean research says it is 1911-1969.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nd revolutionary and romantic works based on anti-Japanese struggle and mainstream ideology have been created. Han(2021) examines the dualization of ‘ethnic dance’ forms into Korean and Joseon dances among the Korean residents in Japan, based on statements by a wide range of dancers in Japan.

While discussions on the identity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empirical research on ‘ethnic dance’ in ethnic education¹¹ are considered important, no s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his article explores the inheritance of ethnic education and dance among Korean residents in Japan. It examines how basic dance and Choi’s work has been inherited from the perspective of ‘new dance’, focusing on ethnic dance Sojo activities in Area ‘A’ Joseon school. Several sources are utilized including previous studies, video data, and interviews with instructors,¹² and fieldwork.¹³ The roles of ‘ethnic dance’-Joseon dance¹⁴ are also examined through various events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2. Succession of Ethnic Dance Education in Joseon Schools : Sojo Activities

After World War II, students at Joseon schools have performed ‘ethnic dance’ at events, with the help of Korean residents, and the activity has been well received. It can be interpreted that common roots are widely accepted because of the significance of overseas Koreans. Choi made innovations on Joseon(traditional Korean) dance by incorporating the es-

11 ‘Chongryeon-kei’ school in Japan.

12 Conducted online from March to August 2021.

13 Conducted from September 2019 to February 2020, online and offline from January to March 2022.

14 ‘Ethnic dance’ instructors often refer to ‘ethnic dance’ as Joseon dance, and say that ‘ethnic dance’ and Joseon dance have the same concept.

sence of Western dances, such as ballet, and then combined it with the consciousness of Korean people. The ethnic dance has left a significant mark on the succession of Korean identity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Korean community in Japan. An example of this is the “Basic Dance of the Ethnic Dance.”¹⁵ Choi inherited and systematized ‘ethnic dance’ in 1958, which combines socialist with ethnic elements, and its characteristic movements are centered on ‘ethnic dance’ techniques. As Choi(1936: 28) described in her autobiography, she grew up watching her father’s rhythm of the ‘*Gutgeori*’ dance from an early age and developed a strong feeling for Joseon dance.¹⁶ Choi’s new dance became the starting point of modern dance. She has been praised for her exotic and successful performances in the West and has contributed to spreading the spiritual culture of the East.

In 1973, Choi created revolutionary dance works¹⁷, revolutionizing and classifying the people. In 1980, under the direction of Chairman Kim Jong-il, Choi’s disciples scientifically organized Joseon and ethnic mov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times; she maintained her ethnic consciousness and inherited the foundation of dance. In 1996, while Joseon dancers in Japan restored Choi’s dance from criticism of modernity and pursuit of technique, they promoted the restoration of ‘ethnical and cultural’ heritage.¹⁸

15 “Joseon Ethnic Dance Basics” was published in 1958 and republished in 1960 and 1962. In 1987, 1996, 2005 and 2011, the “Basic Movement of Joseon ethnic Dance”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by the Central Dance Department of the Japan Literature Artists Union.

16 In the history of Joseon dance, the period from 1900 to the 1970s is commonly referred to as the ‘New Dance Age.’ The development of the ‘New Dance Age’ was initiated by the transformation of colonial rule from ‘military rule’ to ‘cultural rule.’ In the name of this cultural governance policy, Western culture and other foreign cultures flowed in indiscriminately, confrontation between tradition and foreign culture widened, and modern dance and new dance developed. In addition, the new dance is seeking change and development through at least two crossroads.

17 Choi leaned toward Western thoughts and dance techniques, mainly creative modern dance.

18 Choi(1958), Park(2015: 154) Re-quoted.

Choi(1958) states, “The basics of dance to be presented here have been lost from the dance of ‘Uri’(Ours) while I have been dancing for more than 30 years”.

According to Park(2015:152), Choi’s basic movements have been inherited according to changes in the times, emotions, and dance styles. “Basic Dance of Joseon Ethnic Dance” describes two categories of movements which consist of systematic and dance training rules, from the basics of standing to the basic movements of props, as the core of traditional dance based on traditional techniques.¹⁹

Joseon schools have been operated by Joseon Gakuen, a locally established school corporation. In September 1945, Korean residents started ‘kokugo-Korea language classes’ for language education in various parts of Japan, and after the formation of the ‘*Choryeon*’,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in October 1945, they focused more on educational activities for the children to gain and maintain their Korean identity. In May 1955, the ‘*Choryeon*’ was re-established as ‘*Chongryon*’ ‘The General Associ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Many Joseon schools have been teaching ‘ethnic dance’ as an extra-curricular activity. Since ‘ethnic dance’ contains various elements such as music and language²⁰, learning it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ethnic education.

The purpose of ethnic education in Joseon schools is shown on the ‘*Chongryon*’ website²¹ as follows:

“The purpose of Joseon schools in the 21st century is giving Korean children born and raised in Japan a sense of ethnic independence and background as Koreans, correct historical awareness and modern scien-

19 “Joseon Ethnic Dance Basics” was published in 1958 and republished in 1960 and 1962. In 1987, 1996, 2005 and 2011, the “Basic Movement of Joseon ethnic Dance”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by the Central Dance Department of the Japan Literature Artists Union.

20 ‘*Choryeon*’ and ‘*Chongryon*’ are different organizations.

21 <http://www.chongryon.com/j/edu/index2.html>(accessed June 12, 2022).

tific knowledge, and to nurture true humanity and a healthy body.” The Fed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and Koreans in Japan have established more than 120 schools in various levels, from kindergartens to elementary, middle/junior high,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In other words, in accordance with the new century’s demand to form a harmonious, rich, and energetic Korean society based on ethnicity and brotherhood, the government will contribute to the construction and reconstruction of a Korean society as well as ethnic unity.

The purpose of ethnic education is to maintain ethnicity. As the terms ‘elementary school,’ ‘middle/junior high school,’ and ‘high school’ are used in Japanese education system, Joseon schools have the same 12-year education from elementary to high school. Joseon classes to learn about Korea are held almost every day and its curriculum includes Joseon grammar, society, geography and history, in addition to science, Japanese, English, and so on.

In school, the students are required to use Korean languages during all hours and extra-curricular activities except in English and Japanese classes. Daily conversation is basically in Korean, and most announcements posted in the schools are written in Joseon with handwritten slogans such as “Urimal; Our Language, 100% movement” to make people strengthen their ethnic identity.²²

After school activities are focused on ethnic culture such as ‘ethnic dance,’ ethnic-instruments, art, vocal music, and sports, and the Sojo members practice in ethnic costumes. Students also partake in activities on weekends and practice outside of class before presentations and competitions. Sojo instructors teach in Korean. Through ‘ethnic dance,’ they thoroughly practice ethnic education, and ‘our school’ has become the place for it. Most students engage in Sojo activities, and in particular, all dance Sojo members are female. Dance education strengthens Sojo activities as a means of enhancing ethnic pride, and is inherited through

22 The ‘*Chima Jeogori*’ was abolished from school in 1999.

competitions and presentations in and out of school.

In my observations of the participants, I found that students learned basic movements for one and a half to two hours during preliminary exercises, and they then practiced Choi's "Basic Dance of Joseon Ethnic Dance" and creative works five times a week. I felt empathy when I saw the dance moves I learned in high school. During breaks, I spent more time talking with the members every time I went. They were all polite, and it was a good opportunity for me to confirm my identity.

The Liberation Newspaper²³ ran an article that showed the excitement toward dance in Sojo activity at the 1957 entrance ceremony.

To show the progress of Sojo activities, 'ethnic dance' is performed at various events every year; the main performances being at the "Central Art Competition of Joseon Students in Japan." Among them, Choi's works and those inherited from the Joseon Peninsula are considered existing dances, and works created by Sojo instructors based on Choi's works are considered creative dances. Performances are manifested as results of Sojo activities of regional Joseon schools. After the performances, members say, "We love 'ethnic dance'," "Without 'ethnic dance', we cannot establish our identities," "We must have 'ethnic dance' to survive in Japanese society," and "'Ethnic dance' is absolutely necessary to maintain our ethnic consciousness".

The "Central Art Competition of Joseon Students in Japan" in 2019, which was also attended by students in Area 'A' Joseon Schools, was the 52nd.²⁴ About one hundred Joseon schools in Japan participated and competed in 'ethnic arts' in various categories. In the dance category, basic movements and solo dances were performed on day one, and group dancing on day two. Choi's works accounted for 30-50%.²⁵ Many of

23 The dance club is said to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preparing for the School Culture Festival in 1957("History of School History" 132: Itagaki 2018:30 re-quoted).

24 December 2019, A Joseon School Dance Presentation Event.

25 The percentage of ready-made works competing is different every year(대표작은 장고춤,

Choi's works from 1989 to 2019 were also performed. Among the established dances, "*Bara dance*",²⁶ "*Jaenggang dance*,"²⁷ were mainly performed. Creative dances included "*Hello Komawoyo*,"²⁸ "*A joyful harvest dance*".²⁹ Besides competitions, student activities are shown at dance competitions in various places. Korean resident societies hold festivals every year, and Joseon schools perform 'ethnic dance' as a form of multicultural exchange.³⁰

Choi's works have been performed many times at events attended by Joseon schools. They serve to awaken the consciousness of ethnic independence during imperialism. Students can improve their skills by competing in various places and feel a sense of solidarity and 'ethnic unity'.

검무, 수건춤, 사당춤, 손복춤 등).

26 "바리춤", An elegant dance derived from a Buddhist ritual dance characterized by the deep tone of a rose(The first performance was in the early 1940s).

27 "쟁강춤", In ancient times, "*miko*(a shamanic dance)" were said to have passed the gods to the secular people, and this work expresses the powerful posture of "*miko*" through dance(Original Mai of Miko: The first performance was in 1936).

28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Hello, Komawoyo*(Thank you)" and "The Importance of Greetings" are performed on the original song "*Komapsmunicka*" by Area 'A' Joseon Schools.

29 "풍년의 기쁨", A piece of work depicting the joy of farmers during the harvest season and their desire for a good harvest season.

30 Kyoto '*Higashi-Kujo Madan*' Festival. The ethnic dance Sojo of the Joseon school has been performing on stage since the realization of the inter-Korean summit in Pyongyang in 2000, and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performance, 'ethnic dance' is often seen reproducing Choi's works, and the creative dance seems to express the content wishing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3.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Interviews with Instructors in Ethnic Dance Education

3.1. Outline of the Interview Survey

This article analyzes interview results with five Sojo ‘ethnic dance’ instructors³¹ at Joseon schools. All of the instructors interviewed are women, and five of the instructors are displayed in Table 1 alphabetically. Their teaching experience is divided into five year blocks and other background information is also shown.

〈Table 1〉 Career and background of dance

| Instructor | Age of Introduction to Dance | Ethnic Generation | Age Group | Dance Sojo Activities | Years of Dance Instruction | Subject in charge of |
|------------|------------------------------|-------------------|-----------|-----------------------|----------------------------|----------------------|
| “B” | eight years old | fourth generation | 20’s | High school | 1~5 years | English |
| “C” | ten years old | third generation | 40’s | Middle/ junior high | 6~10 years | Korean |
| “D” | ten years old | third generation | 40’s | Middle/ junior high | 11~15 years | Korean |
| “E” | ten years old | third generation | 40’s | Elementary | 11~15 years | All subjects |
| “F” | ten years old | third generation | 40’s | Elementary | 1~5 years | All subjects |

31 Although “D” graduated from Joseon University, she teaches at a private dance class. Instructor “E” also graduated from Joseon schools, but community activities in region A continue. This is thought to have led not only to the school but also to the expansion of dance activities among the instructors. The five instructors go by ethnic names, and instructor’s “B” and “C” wore ‘*Chima Jeogori*’ in school. When coaching the dance sojo activity, they wear their own dance Sojo uniforms. Instructors “C”, “D”, “E”, and “F” have continued their activities through ‘ethnic dance’ since the beginning of the dance period.

3.2. Analysis and Consideration of Interviews

[How Choi's Dance is Incorporated into Ethnic Education]

“B”: Choi's basic dance movements are difficult for high Sojo members(fourth and fifth generation). To make them easier, basic movements are reorganized for instruction. The works presented at annual presentations and competitions are classified as ready-made and creative works. Those at competitions are often evaluated as the best works, and they are technically excellent. Many creative works are choreographed by the instructors of each local Joseon school.

“C”: The traditional ‘ethnic dance’ in Joseon schools is more sophisticated than Choi's. She teaches people to dance not only with technique but also with their hearts. There are many outstanding pieces of dance in my country, such as moving lines and beats. It is hard to choreograph creative works. The level of acceptance by Sojo members is different. In the past, it was like traditional Joseon dance, but the dance was easily choreographed by a instructor. Some Sojo members cannot digest difficulty in moving. There are many creative works at presentations, but Choi's dance works are often performed at competitions.

“D”: The basic movements produced for “Choi Seung-hee's 100th Anniversary” are very difficult, so I teach them with easy movements. When teaching, we express our patriotic sentiment by feeling them with our bodies rather than with words. Choi's masterpiece “The Daughter of the Pasture” is about ethnic consciousness and feelings of the Korean people. I like teaching it because it is a dance of life, characteristics, and folk life. The Sojo members also feel a sense of ethnicity. In addition, it is performed with passion and hope for the unification and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E”: I have been teaching children in the elementary Sojo. Choi's basic dance is very natural and easy, so it is easy to teach.

“F”: I taught mainly creative works in the elementary Sojo. The choreography of those creative works is often created by instructors as it fosters ethnicity and pride.

The instructors are conscious of raising ethnic awareness by devising choreography to reduce difficulty for members to learn because of Choi's high level of basic movements. Even if the choreography is slightly different, the basic movements are based on Choi's works. Choi's 'ethnic dance' is designed to make use of the overall movement by devising the composition of the work.

In South Korea, the basic laws of 'traditional dance' and 'Korean dance'³² are expressed from the three ideas of 'heaven,' 'ground,' and 'human.' In this way, the works choreographed by the instructors have many curved movements. Unlike linear movements in Western dance forms such as ballet and modern dance, this is a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dance.' This feature expresses the movement of the arms as 'heaven,' the feet as 'ground,' and breathing as 'human.' Curved beauty is created by connecting these three elements. Some features emphasize the depth of breathing and foot movements as if they were close to Choi's dance.

On the other hand, in Korea, Choi's 'ethnic dance' is regarded as a 'new dance' and shows aspects of 'creative dance' based on 'traditional dance,' while her foot movements as a 'ground' in the 'traditional dance' technique are weak.

In addition, there is the idea that 'ethnic dance' fosters ethnicity and pride by expressing dance and mind³³, so the instructor tries to inherit the ethnic sentiment and emotions of 'ethnic dance' itself. This is thought

32 fundamental law/mechanism.

33 Dance is indispensable...Group dance gains a sense of solidarity in a community... having many social functions and closely associated with customs and rituals...dance is the primary means of organizing for some ethnic groups(written by R. Lange and translated by Shigeo Ogura, 1981: 152).

to lead to the formation and construction of ‘ethnic unity’ among Sojo members.

[Meaning and Challenges of ‘Ethnic Dance’ for Instructors]

“B”: It is important to inherit ‘ethnic dance’ and music. This is the ‘space as a *Joseomsanram*’,³⁴ and one of the landing sites is the Joseon school where I can maintain my identity. It is important for Joseon schools to inherit and develop ethnic dances.

“C”: Speaking in Korean and teaching Joseon dance at Joseon schools are proof that I exist as ‘*Joseomsanram*’. I continue my language and dance, feeling it with bones and flesh. Our language and culture are truly expressive, and are tools to show the excellence of Joseon dance and to strengthen our pride. The Sojo members themselves say that ‘ethnic dance’ is the soul of the people. It must be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D”: During interactions with Japanese middle/junior high schools, I saw that they taught Joseon dance to the children. Japanese children performed ‘ethnic dance’ at cultural festivals, and the parents’ response was very good. I believe that performing ethnic dance in front of the Joseon community and the Japanese people and spreading its excellence play many roles as community exchange and maintains and nurtures the hearts of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 North Korea, the number of children entering Joseon schools is decreasing due to the influence of mass media and politics, and therefore, children’s ethnic consciousness is diminished.

“E”: ‘Ethnic dance’ is something that should not exist to oneself. I think the ethnic expression of emotions and breathing gained through Joseon dance are wonderful.

34 A Korean.

The instructors have inherited dance activities and say that the ‘space as a Korean’, and the place where they dance has meaning for development of ethnic awareness and living. On the other hand, in a situation where Joseon schools are not recognized in Japanese society, instructors want to have a sense of mission and connect with Japanese society. As the number of students³⁵ entering Joseon schools and members of ‘ethnic dance’ Sojo’s are decreasing, it was conveyed that they wanted to incorporate and express ‘ethnic dance’ to the members. This is the significance of ‘ethnic dance’ for instructors.

Instructors interviewed were mainly third, fourth, and fifth generation. Compared to second and third generation, opportunities to experience ethnic culture have diminished.³⁶

Among Koreans residents in Japan, there are children who go to international Korean schools to ‘acquire ethnic character’³⁷. Korean traditional dance and K-pop are introduced, many instructors are new arrivals to Japan, and they receive support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hus, Korean residents in Japan have diversified their awareness of ‘ethnic dance’ and culture.

[Succession of ‘Ethnic Dance’ – Education of Ethnic Dance Received by Instructors]

“B”: I studied children’s dance in elementary school and Choi’s basic dance in high school.

35 Sankei Newspaper on December 30, 2019, “Serious due to declining birthrate, naturalization, and international marriage”. 10 years ago, the number of students decreased by more than 3,000, and the number of students is certain to fall below 5,000 next year.

36 For example, the abolition of the ‘*Chima Jeogori*’ as a school uniform, etc. Han (2006) pointed out, “In Japanese society, where Koreans living in Japan are considered to be inferior to Japanese, the uniform has been regarded as a symbol of ethnic pride as it represents a resistant identity”.

37 Ethnic education.

“C”: I attended a Japanese school for three years, but since my parents went to a Joseon school, I transferred to one at their recommendation and started ethnic dance as part of my Sojo activities in the fourth grade. At that time, there were few dance centers. I vividly remember being moved by the colorful costumes. We practiced our language and dance twice as hard as others. And the many glories of dancing proudly on stage are still encouraging. Our words are very important, but Woori Joseon dance is really a means of expressing our feelings, and since I wanted to focus on training our juniors, I entered Joseon University and learned Choi’s basic dance and works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 Joseon dance Sojo. The instructor was Park Jeong-sun, a well-known teacher in Japan. I still dance at middle/junior high school, high school, university, morning blue, and ‘*Nyeomaeng*’ (Women’s Association of Koreans in Japan), and I am enthusiastic about teaching. Through ‘ethnic dance’, I learned the emotions, pride, and soul of the people and acquired the creative ability to express myself artistically with my mind and body along with artistic sense, patience, and solidarity.

“D”: When I was a student, I would dance without thinking, but thinking about it now, I have feelings for the teachers who gave me guidance, and I feel that I naturally express my feelings in the process of dancing. I did not feel like I was ‘studying’ because it was a Sojo activity for ‘Woori hakkyo (Our School).’ But I think that through ‘Woori dance (Our Dance)’, I gained a strong sense of ethnic emotion. Even though I was born and raised in Japan, I was taught to move forward with ethnic pride. I was also made to value everything around ‘Woori hakkyo’ and ‘Woori Friends (Our Friend).’

“F”: When I was a student, I studied the basics of ‘ethnic dance’, then practiced the work, and participated in art competitions and school performances.

Dance in ethnic education was inherited by the instructors lurking the ethnic sentiments and feelings of ‘Woori Hakkyo’ and ‘Woori Dance.’ For instructors, ‘ethnic dance’ is a means of maintaining ethnic consciousness

and expressing ethnicity, and they recognize that through ‘ethnic dance,’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succession of ethnic culture. It is essential for instructors to secure a ‘dancing ground’ called ‘ethnic dance activities’ in the practice of ethnic education, to further deepen and recognize ethnicity.

Since dancing increases ethnic consciousness and sense of solidarity, it is thought that ‘ethnic dance’ learned from the second generation will develop a strong feeling to maintain its roots.

[To Be an Instructor’s Succession to Ethnic Dance Education]

“B”: It’s not much different from when I learned, but modern tunes, not traditional folk songs, have become popular. I have started to dance to modern songs. I want to continue dancing while making use of the Joseon dance that has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C”: What we are learning has been passed down to us. I think that the importance and role of dance education are increasing because of inheritance. I was born and raised in Japan as a third-generation. I sincerely hope that Joseon dance will convey the greatness, ethnic sentiment, and pride of art while loving our country and people and responding to demands of a new era.

“D”: To feel the joy of ‘ethnic dance,’ it is important to express our thoughts and wishes through repeated practice, rather than just expressing ‘*nukim*’ (feeling), and ‘Woori dance’. For this, daily effort, consciousness, and practice are important. It’s wonderful that the younger generation is dancing ‘ethnic dance’, so I hope they can express their feelings directly through it. ‘Ethnic dance’ can express anything by moving. Students can express their student life. It is also wonderful that the lines from movement to movement, ‘*karak*’ (rhythm), ‘pine’ and ‘*motsu*’(taste), and everything, are deeply ingrained in the roots of the Korean Peninsula.

“F”: In the past, I only taught Joseon dance, but after I became a teacher, I incorporated the basics of ballet. Dance seems to be changing from the past, but it must be continued and inherited. It is important to dance because I like it. It is fun.

The instructors are trying to change Joseon dance to meet the demands of the new age and deliver ‘love of the people,’ ‘patriotic sentiment,’ ‘ethnic pride,’ and “greatness of the ethnic art” taught by the second generation, to future generations. It is not only limited to ‘ethnic dance,’ but also related to all aspects of life, and from there, people’s consciousness is deepened. This enhances the artistic quality of ‘ethnic dance’ and leads to its development. Despite discrimination in Japanese society, ‘ethnic danc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for Korean residents, and it has become a means of maintaining ethnic consciousness and expressing ethnicity for instructors. In the *Choson Shinbo*, Park Jeong-sun said, “Dance education plays a role in fostering talented people and true Koreans who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ir motherland and ethnicity and can also be active in Japan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e also suggests the importance of ‘ethnic dance’ in ethnic education, saying that Korean residents in Japan have a stronger attachment to ‘ethnic dance’ than in their homeland.³⁸

Building an identity in the educational practice of ‘ethnic dance’ is also set out in the educational goal of Joseon schools. One instructor said, “Even though I am discriminated against in Japanese society, I feel that I am particularly living through dance education.”

Instructors “B” and “C” provide guidance that puts their ethnicity and ethnic consciousness ahead of them from the viewpoint of being minorities. They have a sense of mission to raise ethnic consciousness and to pass it to future generations through instructing the ‘ethnic dance’ that they

38 “The Importance of Dance Education” in the *Choson Shinbo* on January 30, 2021, <https://Chosonsinbo.com>(accessed September 25, 2021).

inherited. They believe that the power of 'ethnic dance' has led to the maintenance of pride in their guidance and the succession of the ethnic culture cultivated by their predecessors and compatriots.

Instructor "D" suggested that, while having ethnicity, their acceptance in Japanese society will lead to further deepening of ethnic consciousness. Instructors "B" and "C" guide the next generation with a sense of mission to what they have inherited. Through her years of teaching experience, instructor "D" has expanded her base to the community from the educational field and has developed 'ethnic dance' which is a 'minority culture' beyond her own boundaries. This could be a sign that the 'ethnic dance' of which the instructors have inherited will serve as a guide to promoting multicultural education in Japan.

In the Joseon Middle/junior high and High School Dance Recital pamphlet, instructors say "Students have cultivated their pride in their people and Joseon dance and practiced hard against strong winds in foreign countries. I will continue to work hard with thanks to everyone who has created an environment where I can dance to my heart's content," "Dancing is a place, a skill-enhancing instruction" ("B") and "I will take in Choi's works as much as possible and be guided by her depth" ("D"). These are thought to be linked to a desire to pass on the dance's strong attachment to the next generation. Their love for dance lies their stories, such as in 'space,' 'place,' 'bone and meat,' and dance is life. In national culture, dance is something that one's body learns, and once it is learned, it permeates the body. For this reason, it is important for instructors to incorporate dance into the body from an early age like the instructor who conducted the interview, and even the 'soul of dance' will surely lead to ethnicity of blood and bones. From the interactions with Japanese schools that instructor "D" mentioned, it is thought that the bashing in Japanese society still has an impact, as many people did not know Joseon dance at the cultural festival. Acceptance and recognition of 'ethnic dance' in Japan will lead to its succession to the next generation, but this is not the case in Japan today.

“No matter what happens, Joseon dance is my identity, and this will be my strength to live in Japan,” a member said enthusiastically at the dance recital held at Joseon Middle/junior high and High School. While minorities in Japan, the instructors proudly express their roots, and they are responsible for the succession of ‘ethnic dance’ and ‘ethnic culture’ through ethnic education.

Choi’s ethnic dance contributed greatly to the succession of Korean residents ‘ethnic dance’ education, and her ethnic artistic activities were outstanding, as Choi has given ethnic colors to Koreans. On the other hand, some say that Choi’s artistic activities are pro-Japanese and lack traditionality and philosophy. However, it is undeniable that Choi created a new Joseon dance based on the dance techniques she learned from Ishii³⁹ and Han⁴⁰, combining Joseon and Western dance, leaving a big mark on the dance culture of today’s South Korean, North Korean, and Korean resident communities in Japan. While Choi was keenly interested in ‘new dance’, she revived the ethnic elements deeply rooted in Joseon’s ‘ethnic dance’ and succeeded in transferring them to ethnic dance education in a new way.

4. Conclusion

This article discussed how, after World War II, Korean residents in Japan inherited ‘ethnic dance’ through ethnic education. Considering ethnic dance education through the case of Joseon schools is of great significance in inheriting the identity of previous generations. Even in the strict restrictive conditions of Japanese society, ethnic dance education in Joseon schools has been passed down to this day. The article examined how Choi’s basic dance and works have been inherited through ‘new dance’, focusing on ‘ethnic dance’ Sojo activities. It examined the role of

39 Ishii Baku (1886~1962), A Japanese dancer(A pioneer in creative dance).

40 Han Seong-joon (1874~1942), A Korean traditional dancer.

Joseon 'ethnic dance' through various events in and out of school, to explore the roles of ethnic education and dance.

Data revealed that in the Sojo activities of Joseon schools, basic dance, training and dance movements and activities developed by Joseon dancer Choi were guided during Japanese rule. First, Joseon schools deal with many creative dance activities reflecting the trends of the times and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elements of traditional dance are fading. Second, ethnic dance education had a great influence on promoting ethnic identity and culture succession of overseas Koreans. The practice of ethnic dance education in Joseon schools in Japan has become the space for the dance. Interviews with instructors confirmed that they had laid the foundation for living while maintaining their heritage. Third, dance is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through education and cultural successions. Ethnic dance education has become a cornerstone of succession and a venue for educational practice to maintain and reinforce ethnic identity. In this sense, 'ethnic dance' is an independent ethnic culture created by Koreans in Japan while inheriting the old culture from the Korean Peninsula. 'Ethnic dance' is an important tool for awareness of one's roots while protecting the legitimacy of ethnic culture.

As such, tasks of ethnic dance education to be inherited by the next gener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fact that ethnic dance education in Joseon schools has promoted the establishment of identity is important for the status and role of dance education to be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Discussing the identity of Koreans as ethnic Koreans in Japan through ethnic dance education needs to be re-evaluated to understand the socio-cultural changes of ethnic dance education. Seco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on ways to form ethnic identity and maintain ethnic culture through dance education. Dance education is based on the artistic abilities of groups or individuals, and it is expected to play a role in promoting and developing social and educational issues and cultural transformation.

Supplementary Note

Discussion in this article was based on the research notes “Korean Studies” No. 10, pp. 89-100 (2022).

참고문헌

〈한국·조선어 문헌〉

- 김종옥(2014) 『한국근대춤자료사1899-1950』, 서울: 도서출판 아라.
- 박정순(2000) 『재일조선학생들의민족성교양과민족무용교육』, 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 송기찬(2020) 「신체화되는 아이덴티티-조선학교의 조선무용에 관한 고찰」, 『국제고려학』 18, 국제고려학회, 507-542.
- 최승희(1958) 『조선민족무용기본』, 평양: 조선예술출판사.
- 최승희(1958) 『무용극대본집』, 평양: 조선예술출판사.
- 최승희(1963) 『조선아동무용기본』, 평양: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 국립국악원편찬(2018) 『한민족음악총서6 : 북한의 민속무용』, 서울: 국립국악원.
- 국립국악원편찬(2019) 『한민족음악총서8 : 재외동포 원로예술가 구술채록-일본편』, 서울: 국립국악원.
- 국립국악원편찬(2020) 『한민족음악총서9 : 북한 『조선예술』 총목록과 색인 1956-1969』, 한국: 국립국악원.
- 허영일(1999) 『민족무용학』, 서울: 시공사.
- 한영혜(2021) 『재일동포와 민족무용-냉전의 문화지형과 디아스포라정체성』, 서울: 한울아카데미.

〈日本語文献〉

- 板垣竜太ほか(2009) 「朝鮮学校の社会的研究-京都朝鮮第三初級学校を中心に」, 『同志社大学社会調査実習報告書』 17 (1).
- 板垣竜太ほか(2018) 「朝鮮学校と銀閣寺-京都朝鮮中高級学校と地域社会との関係をめぐって」, 『同志社大学社会調査実習報告書』 27 (5).
- 呉永鎬(2019) 『朝鮮学校の教育史:脱植民地化への闘争と創造』, 明石書店.
- 小沢有作(1973) 『在日朝鮮人教育論-歴史編』, 亜紀書房.
- 姜徹(2022) 『在日朝鮮韓国入史総合年表』, (株)雄山閣.
- 金徳龍(2004) 『朝鮮学校の戦後史1945-1972』, 社会評論社.
- 金恩漢(2003) 「崔承喜研究:北朝鮮での舞踊活動(1946-1967)を中心に」, お茶の水女子大学博士論文.

- 金泰泳(2005) 「在日韓国・朝鮮人の変貌-日本社会と在日アイデンティティの現在」, 梶田孝道編『新・国際社会学』, 名古屋大学出版会.
- 徐希寧(2020) 「植民地近代朝鮮における民族伝統舞踊の形成過程と変容」, 『国際関係論集』 19, 1-19(立命館大学国際関係学会2019年度). *각주 9참조
- 徐希寧(2022) 「在日コリアンにおける「民族舞踊」継承と意義-朝鮮学校の民族舞踊部指導者へのインタビューから」, 『コリアン・スタディーズ』, 10, 89-100. *각주 9참조
- ソニアリョン(2005) 『コリアン・ディアスポラ-在日朝鮮人とアイデンティティ』, 明石書店.
- 宋基燦(2012) 『「語られないもの」としての朝鮮学校:在日民族教育とアイデンティティ・ポリティクス』, 岩波書店.
- 鄭榮鎮(2018) 『在日朝鮮人アイデンティティの変容と揺らぎ「民族」の想像/創造』, 法律文化社.
- 城達也・宋安鐘(2005) 『アイデンティティと共同性の再構築』, 世界思想社.
- 野村雅一(1983) 『しぐさの世界-身体表現の民族学』, 日本放送出版協会.
- 韓東賢(2006) 『チマ・チョゴリ制服の民族誌-その誕生と朝鮮学校の女性たち』, 双風舎.
- 朴貞順(2000) 「民族舞踊教育の重要性についての考察-在日朝鮮学生の民族教育についての民族舞踊教育」, 『朝鮮大学校学報』 4, 96-105.
- 朴貞順(2013) 「在日朝鮮同胞の民族舞踊を考える」, 『朝鮮大学校学報』 23, 59-87.
- 朴貞順(2015) 「朝鮮民族舞踊基本動作」, (崔承喜)の特徴と変遷『アジア文化研究』 22, 150-115.
- 朴尚得(1980) 『在日朝鮮人の民族教育』, 岩波書店.
- 朴三石(1997) 『日本のなかの朝鮮学校-21世紀にははばたく』, 朝鮮青年社.
- 松下佳弘(2020) 『朝鮮人学校の子どもたち-戦後在日朝鮮人教育行政の展開』, 六花出版.
- 文京洙(2007) 『在日朝鮮人問題の起源』, クレイン.
- 李洪章(2016) 『在日朝鮮人という民族経験-個人に立脚した共同性の再考へ』, 生活書院.
- R・ランゲ著/小倉重夫訳(1981) 『舞踊の世界を探索』, 音楽之友社.

〈英語文献〉

La Meri(1977). *Total Education in Ethnic Dance*, New York; Marcel Dekker, Inc.

〈映像データ資料〉

在日本朝鮮文芸芸術家同盟中央舞踊部(2012)崔承喜の『朝鮮民族舞踊基本動作』DVD
在日朝鮮学生中央芸術競演大会(1989-2019) DVD

〈インターネットサイト〉

한국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https://www.uniedu.go.kr>

日本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a_menu/shougai/senshuu/1280734.html, 2022.4.27

在日本朝鮮文学芸術家同盟 <https://munedong.com/>, 2022.5.2

在日本朝鮮人總連合会 <http://www.chongryon.com/j/edu/index2.html>, 2022.5.2.

〈新聞〉

『学校沿革史』

『解放新聞』

『朝鮮新報』

〈辞典〉

国際高麗学会日本支部編集委員会(2010) 『在日コリアン辞典』, 明石書店.

민족의 성지 백두산을 노래한 해방전시문학에 대하여

Literature of Poetry Composed in Praise of Mt. Paekdu,
Sacred Place of the Korean Nation, before Liberation

심경섭*

조선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1. 서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은 우리 나라 조종의 산으로서 조선의 상징이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사의 발상지이다.》

반만년을 헤아리는 우리 민족의 역사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흘러왔다.

첫 고대국가인 고조선의 성립과 그 뒤를 이은 천년강국 고구려 그리고 해동성국 발해를 거쳐 첫 통일국가인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예로 이어진 우리 민족의 장구한 역사는 백두산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지리상으로 보아도 묘향산과 금강산, 태백산, 지리산, 한나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산들은 백두산에서 시작되어 온 강토에 뻗어나간 백두대산줄기에 근원을 두고 솟아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들은 오랜 옛적부터 백두산을 우리 나라 조종의 산, 조선의 상징, 민족사의 발상지로 간주해왔으며 그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백두산과 관련된 수많은 문화재부들을 창조하였다. 그 유산들에는 백두산과 더불어 세월의 풍파를 헤쳐온 우리 민족의 자취가 력력히 비껴있다.

* Sim Kyong Sop(Section Chief of Institute of Juche literature,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지금까지 전해지는 많은 역사 및 지리관계의 책들에서는 백두산을 우리 조국의 신성한령토로, 우리 민족의 장구한 역사가 깃든 고장으로, 삼천리강산의 지맥이 뻗어나간 뿌리로 기록하였다.

역사책 『동사강목』(안정복 1778년)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있다.

“『삼국사기』의 …글에 이르기를 ‘고구려의 유민들이 북쪽으로 태백산아래에 의거하여 나라의 이름을 발해라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곳은 지금의 백두산을 가리키며 우에서 이른바 <장백산>이라고 한것이 이것이니 곧 단군이 내린 땅이다.’고 하였다.”

이 기록은 우리 인민들이 백두산을 고조선의 건국자인 단군의 출생과 활동 그리고 고조선의 건국과 관련되는 산으로 여겨왔다는것을 말해준다.

물론 단군이 태어난 곳이 오늘의 평양임에도 불구하고 조선봉건왕조시기의 사가들이 단군이 「내린」 태백산을 당시의 백두산으로 해석한것은 단군조선의 강성기에 고조선이 오늘의 백두산일대를 차지하게 되면서 그 영역에서 제일 높고 신성한 산인 백두산을 단군의 출생 및 건국과 결부시켜 숭상하게 되었던데서 나온 견해인것이다.

고조선후에 성립된 역대봉건국가들의 건국과 역사도 백두산과 많이 결부되어 전해지고있다.

『삼국사기』(김부식 1145년)에서는 고주몽의 부모들의 활동지역과 그후 고주몽이 정착한곳을 백두산주변지역으로, 고구려가 성립초기 백두산일대의 소국들에 대한 통합사업을 다그쳐 백두산을 자기 영역의 중심에 확보한데 대하여 전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은 백두산일대가 고구려의 성립과 발전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삼국유사』(일연 13세기 말엽)에서는 고구려의 계승국인 발해가 고구려 유민들에 의하여 7세기말에 백두산근처에서 성립되었다는데 대하여 서술하였고 『제왕운기』(리승휴 1295-1296년)에서는 백두산이 고려의 건국자 왕건의 조상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는것을 밝히었으며 『태종실록』을 비롯한 조선 봉건왕조시기의 역사문헌들에서는 백두산을 자기 왕조의 발상지로 여기며

제사를 지내도록 할데 대한 논의가 있었던데 대하여 전하고있다.

백두산과 관련한 지리책들과 유적, 기행문 등에도 백두산을 신성시하여온 우리 인민들의 생활감정이 진실하게 반영되어있다.

1614년 리수광이 편찬한 지리책 『지봉류설』(권2 지리부 산조)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모든 산은 다 백두산에서 시작되었다. 마천령, 철령으로부터 남으로 뻗어내려 금강산과 오대산, 태백산이 되고 지리산에 이르러 끝났다. 남사고가 항상 말하기를 <백두산맥은 이에 이르러 끝난것이 아니다. 반드시 바다가운데로 스며들어가서 일본의 모든 섬들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그 설에 일리가 있다.”라고 기록되어있다.

이 자료는 우리 나라의 모든 산줄기가 백두산에서 시작되었고 그 기본줄기는 백두산 - 마천령 - 철령 - 금강산 - 오대산 - 태백산 - 지리산을 이루는 백두대산줄기라는것을 보여준다.

한편 지도첩『천하도』에 있는 지도 「조선도」의 백두산은 국내의 여러 산들인 묘향산, 백비산, 금강산, 송악산, 구월산, 감악산, 백산, 목멱산, 계룡산, 속리산, 금성산, 지리산들보다 2~3배나 크게 그려 우리 나라의 으뜸가는 명산이라는것을 뚜렷이 하고있다. 이러한 유산들을 남긴 우리 민족의 공통된 지향은 기행문 『백두산행기』(윤화수 1926년)에 썬여진 다음과 같은 글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천하의 명산이며 동방의령지인 백두산은 모든 산의 조종이며 근본이다. 아 백두산, 백두산이야말로 조선전체의 집약적인 표현이며 조선최고의 포괄적인 가치이며 조선독특의 절대적인 정화이다. 조선이 어디서 나왔느냐, 백두산에서가 아니냐, 조선에 무엇이 있느냐, 백두산이 아니냐, 백두산은 조선이라는 나무의 뿌리이며 조선이라는 형상의 거울이다. 조선을 위하여 하여도 백두산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하며 조선을 알려고 하여도 백두산에 비추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 백두산이 우리 나라 뜰 한복판에 있을 때에는그 주위를 돌아가면서 환희와 기쁨뿐이었다. ...백두산이 이처럼 조선의 운명...조선의 력사에 주도세밀하고 심오한 령계가 된것만큼 조선의 경모와 조선의 숭상을 받았을것이다.”

백두산을 노래한 해방전시들도 민족의 귀중한 정신문화적재부들로서 거기에 구현된 사상정서적내용에 대하여 잘 아는것은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각과 긍지, 자부심을 간직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2. 백두산을 노래한 시작품들의 창작정형

우리 선조들은 먼 옛날부터 사시장철 흰눈을 이고 거연히 솟아있는 백두산을 조종의 산, 민족의 상징, 마음의 기둥으로 삼고 깨끗한 마음과 슬기와 용맹을 키워왔으며 그 과정에 백두산이 간직한 민족사적의미와 장엄한 기상, 절승경개와 신기한 조화를 노래한 시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작품들에서 백두산은 여러가지 이름으로 표기되어 나타났는데 그것은 오래전부터 우리 인민들이 백두산을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러온것과 관련된다.

우리 나라에서 옛적부터 백두산을 가리켜 부른 이름은 매우 많은데 대표적으로 불함산·태백산·장백산·개마대산·도태산·삼신산·백산·풍산 등을 들수 있다. 시작품들에서 백두산은 이러한 여러가지 이름들로 표기되면서 조선의 으뜸가는 명산으로 다양하고 이채롭게 형상되었다.

백두산을 노래한 시들은 오래전부터 창작되었다.

중세시기에는 모두 한자시로 창작되었고 근대시기이후부터 국문을 기본으로 하여 창작되었다.

현재 문헌들의 기록에 남아 전해지는것들은 15세기이후에 창작된것들이다.

그 정형을 역사적순차에 따라 보면 제목이 없이 씌여진 김종서의 시조(1434 『청구영언』 1727)로부터 시작하여 「장백산을 바라보며」(김시습 15세기 『매월당시집』 1582), 「북으로 출정하며」(남이 15세기 『증보해동시선』 1917), 「옥련보에서 허미수의 시운을 따라」(김성일 16세기 『학봉선생문집』 1650), 「북평사 홍국경과 리별하여」(김수항 17세기 『문곡집』 17세기), 「류배살이를 하는 삼수군에서」(오시수 17세기 『수춘문집』 17세기말), 「북으로 가는 평사 려성제를 바래우면서」(박세당 17~18세기 『서계집』 18세기), 「백두산」(김기홍 17~18세기 『관곡집』 1895), 「북관지방으로 떠나며」(김창흡 17~18세

기 『삼연집』 18세기), 「백두산의 이야기를 들으며」(리재 17~18세기 『도암선생집』 18세기), 「백두산절정에 올라」(조영순 18세기 『퇴헌집』 1836), 「백두산」(서명웅 18세기 『보만재집』 1838), 「중성부사를 바래우며」(김정희 19세기 『완당선생전집』 1868), 「백산차에 대한 노래를 지어 박경로에게 사례하노라」(리상적 19세기 『은송당집』 1837), 「상백산에서」(강위 19세기 『고환당집』 1885), 「백두산」(리지용 19세기 『소송집』 1893), 「백두산에 제를 지내며」(김봉해 19세기~20세기초 『운당집』 20세기초), 「장백산에서 노닐며」(문룡기 19세기~20세기초 『산암유고』 20세기초) 등에 이르기까지 수십여편에 달한다. 물론 이것은 백두산을 노래한 중세시기의 시작품들 전부가 아니며 그 일부일 따름이다. 해방후 우리 나라에서 백두산전설을 수록한 작품집을 비롯하여 많은 도서들이 출판되었는데 그 도서들에서도 백두산을 노래한 중세문인들의 시작품들을 일정하게 소개하였다.

백두산을 노래한 시창작은 일제의 침략에 의하여 우리 나라가 식민지로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20세기초에 발행된 신문 『대한매일신보』에는 백두산에 대하여 읊은 시조들이 적지 않게 실리었는데 대표적인 작품들은 시조 「금출」(백두공 1909년 4월 27일부), 「단단국」(1909년 7월 27일부), 「누가 감히」(1909년 9월 17일부), 「영웅혈」(1910년 3월 29일부), 「백두산」(1910년 5월 11일부) 등이다.

그후에는 신체시 「태백산부」(1910년), 서정시 「새 아침」(신문 『동아일보』 1920년 4월 3일부), 서정시 「꽃이나 한포기」(작품집 『금무시집』 1929년), 예술가요가사 「조선찬가」(리은상 1931년), 신민요가사 「조선태령」(류도순 1934년경), 「백두산을 바라보고」(박영호 1930년대), 「팔도강산 구경가자」(1930년대), 산문시 「전선주」(김조규 1941년) 등에서 백두산에 대하여 노래하였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이밖에도 백두산을 노래한 시들이 적지 않게 창작되었을것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발굴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고 있다.

3. 백두산을 노래한 시작품들의 사상정서적내용

백두산을 노래한 시들의 사상정서적내용을 한마디로 특징지으면 백두산 이야말로 우리 나라는 물론 동방에서도 제일 으뜸가는 산이며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명산이라고 노래하였다는데 있다.

이러한 총체적인 사상정서적내용은 백두산을 대하는 창작자들의 개성적인 안목과 예술적기호, 시의 소재 등에 따라 여러가지 세분화된 내용들로써 밝혀졌다.

해방전 시들에서는 무엇보다도 백두산에서부터 우리의 민족사가 시작되고 백두산을 뿌리로 하여 삼천리강토가 뿔어나갔다는데 대하여 즉 백두산이 우리 나라의 조종의 산이라는데 대하여 노래하였다.

한자시 「백두산에 제를 지내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백두산의 흰 자태
강기슭에 비쳐들고
높다란 봉우리 마주하여
사당집이 솟았어라

여기서 신령이
이 나라에 내렸거늘
봄, 가을마다 제를 지내고
서울로 소식 띄운다오

시에서 ‘여기서 신령이/이 나라에 내렸’다고 한 구절은 신처럼 간주되어온 단군이 하늘로부터 백두산에 내려와 나라를 세웠으며 이때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볼수 있다.

시조 「단단국」에서는 ‘백두산 돌아드니/단군유업 이 아난가’라고 하였는데 이것 역시 우리 나라의 첫 고대국가를 세운 단군의 유업이 깃들어있는 민족사의 발상지가 바로 백두산이라는 의미를 밝힌것으로 된다.

한편 시조 「백두산」에서는 백두산을 ‘동방태조’라고 불러 백두산이 우리나라 조종의 산이고 동방에서도 으뜸가는 산이라는것을 강조하였다.

백두산은 민족사의 건지에서뿐 아니라 지형학적건지에서도 조종의 산으로 노래되었다.

예술가요가사 「조선찬가」의 1절은 다음과 같다.

백두산 뺨어내려 반도 삼천리
무궁화 이 동산에 력사만만년
대대로 예 사는 우리 이천만
복되도다 그 이름 조선이로세
광명한 아침날이 솟아오르면
기쁨에 겨워 북받쳐 노래하리라

가사에서 보는것처럼 우리 나라 ‘반도 삼천리’는 백두대산줄기가 ‘뺨어내려’ 생겨난것이다. 이것은 백두산이 지리적으로 보아도 조선을 대표하고 그 시원을 이룬다는것을 집약적으로 표현한것으로 된다.

신민요가사 「조선타령」 1절에서도 ‘아 백두산 솟아서 정기를 뺨치니/삼천리산야’라는 형상으로써 우리 나라의 강토가 백두산에 뿌리를 두고 이루어졌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우의 작품들의 사상정서적내용은 김진홍의 한자시 「백두산」에서 ‘조종의 산’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으로 밝혀지기도 하였다.

해방전 시들에서는 다음으로 백두산을 우리 겨레를 품에 안고 보살피며 키워주는 어버이와도 같은 산, 온 민족의 신뢰와 숭배심을 불러일으키는 친근한 산으로 노래하였다.

한자시 「백두산의 이야기를 들으며」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북쪽으로 대륙을 굽어보며
하늘땅사이에 우뚝 솟고
동쪽으로 천만산줄기 뺨어
자손들을 거느린듯 하네

시는 백두산이 대륙을 굽어보고 자손들을 거느린듯하다는 의인화된 표현을 통하여 백두산을 대하면서 언제나 친근감과 경모심을 간직하는 우리 민족의 공통된 심정을 잘 일반화하였다.

백두산에 대한 경모감은 서정시 「꽃이나 한포기」에서 보다 절절하게 드러난다.

작품은 ‘빛가운데 제일은/태양의 빛/양가운데 제일은/태평양/주가운데 제일은/아세아주’인것처럼 ‘산가운데 제일은/백두산’이라고 한데 이어 백두산을 대하는 심정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나를 낳아 나를 기른
나의 xx산
오 감사합니다
나의 어머니

고생하며 속썩이며
세인 그 머리
불 때마다 이내 가슴
터이립니다
그렇지만 위로의
말씀 한마디
비단의복 한벌도
못드리누나

꽃이나 한포기
심어드리려
슬픈 울음 멈추고
호미 듭니다

보는바와 같이 시에서 백두산은 아버지의 모습으로 안겨오기도 하고 나아가서는 조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게도 한다. 그리하여 백두산에 대한 신뢰와

송배심이 한껏 우리나라오게 한다.

한자시 「백두산에 제를 지내며」에서 백두산을 마주하고있는 사당집에서 백두산을 향하여 봄, 가을마다 제를 지낸다고 노래한것도 백두산을 정신적 기둥으로, 송배의 대상으로 간주하며 살아온 우리 민족의 생활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한것으로 된다.

해방전 시들에서는 또한 백두산을 열렬한 애국심과 정의감, 진취성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산으로 형상하였다.

우리 인민의 애국심을 백두산과 결부하여 노래한 시들이 적지 않다.

김중서의 시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장백산에 기를 꽃고 두만강에 말 씻기니
썩은 저 선비야 우리 아니 사나화나
어떻다 룡연각*상에 뉘 얼굴을 그릴고

*룡연각 : 옛날 봉건정부에서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신하들의 화상을 걸어놓은 집

이 시조에서 ‘장백산에 기를 꽃고 두만강에 말 씻기니’라는 구절에는 백두산에 의거하여 나라의 변방을 굳세게 지키려고 하는 애국적지향이 안반침되어있다. 그러한 지향을 안반침한데 기초하여 시조에서는 나라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허송세월하는 선비들을 질책하면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워야 떳떳하게 이름을 남길수 있다는 진리를 천명하고있는것이다.

한자시 「북으로 출정하며」에서는 ‘백두산의 돌은 칼 갈아 다 없애고/두만강의 물은 말 먹여 다 말리리/사나이 스무살에 나라 평정 못하면/후세에 그 누가 대장부라 일러주랴’라고 하였다.

백두산의 돌은 칼을 갈아 다 없앤다는 표현은 백두산에 올라 백두산의 억센 기상을 한몸에 받아안고 멸적의 검을 버리며 위기에 처한 나라의 평온과 안전을 보장할 일념에 불타는 장부의 크나큰 포부를 애국의 지향과 결부하여 일반화한것으로 된다.

한자시 「북으로 가는 평사 러성제를 바래우면서」에서 ‘장백산줄기 뻗어/

국경의 눈보라가/웃자락을 휩싸'는 정황을 제시한데 기초하여 '나라 위해 공세움은/남아로서 할 일이라'고 자각하는 심정을 터놓은것도 백두산의 엄혹한 추위가 나라 위해 한몸 바칠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혀준다고 보는 애국의 입장을 반영한것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정의감과 진취성을 백두산과 련관시켜 형상한 시들도 있다. 한자시 「북평사 홍국경과 리별하여」에서는 온갖 부귀영화를 바라지 않고 백두산을 거울로 삼아 깨끗한 님과 숨결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지향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마천령 저 너머에
백산이 안겨오고
동쪽 지경 굽어보니
만리 파도가 출렁이누나
그대 이곳에서
말 달리며 바라볼적엔
세상의 부귀영화
터럭마냥 여기게 되리

작품에서는 마천령너머로 바라보이는 백두산의 위용을 동해의 장쾌한 물결과 조화를 이루는것으로 형상하면서 그로부터 환기되는 생활감정을 토로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을 팔지 않고 정의롭고 대바르게 살아가려는 지향이다. 이러한 지향은 말을 타고 달리면서 백두산을 바라본데 기초한것이다. 말하자면 백두산은 안일과 영달을 추구하는 속된 마음을 버리고 청렴결백하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격려하는 신성한 산으로 노래된것이다.

한자시 「북관지방으로 떠나며」에서는 '언제나 바라던 소원'이 '백두산절정에 올라/북쪽의 산과 들을/한눈에 굽어보는것이였노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골방에 들어박혀 나라를 위하려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매하게 살아가는 생활은 '남아장부'로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생활이라고 보는 태도에 기초하

고있다. 이로써 작품은 세상에 태어나 후회가 없이 살려면 백두산을 알고 백두산에 찾아가 심신을 단련하여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었다.

서명웅의 한자시 「백두산」에서는 백두산을 가진것이야말로 ‘복이 많’은것으로 된다는 전제하에 ‘백두산의 심오함을 터득하고자’ 많이 노력하여온 지난날에 대하여 감회깊게 추억하는 심정을 토로하였다. 여기에는 복된 생활도, 생활의 심오한 뜻도 백두산과 련관시켜 찾아보는 관점과 립장, 정의롭고 진취적인 태도가 반영되어있다고 볼수 있다.

해방전시들에서 백두산은 또한 장엄한 기상과 위용을 떨치고 절승경개로 빛나는 명산으로 노래되었다.

백두산의 기상과 위용을 노래한 시들은 조선민족의 불굴의 기개와 용맹을 상징하고있는것으로 하여 가치가 있다.

한자시 「옥련보에서 허미수의 시운을 따라」에서 노래한 백두산은 다음과 같다.

말채찍 휘두르며 먼 길을 지나오니
이제 더는 근심거리 없어지누나
한몸은 깃털인양 가벼웁거니
그 누가 오래 살길 바라겠는가
백산에 의거하여 길이 노래 부르거니
장쾌한 그 기상 오랑캐땅 위압하네
추위마저 잊고서 옷자락 헤치는데
누구나 이곳은 엄혹한 기후의 고장이라누나

이 시는 말을 몰아 먼길을 달려 백두산근처에 이른 다음 백두산을 우러러 보면서 거기서 오랑캐를 전률케 하는 멸적의 기상을 가슴뿌듯하게 느끼는 감정을 잘 노래하고있다.

그리고 한자시 「백두산절정에 올라」에서 백두산이 ‘하늘땅 짓누르며/동북쪽에 높이 솟아/아득히 하늘과 바다에’ 서리찬 기운을 뿌린다고 한것도 천지를 진감하며 위풍있게 솟아있는 백두산을 대하면서 크나큰 힘과 용기로 충

만되는 상태를 반영한것으로 된다.

김기홍의 한자시 「백두산」에서는 흰눈을 머리에 이고 ‘남쪽으로 멀리 뻗어내’린 백두산은 ‘구름을 떠이고 하늘높이 솟아’있다고 노래하였으며 한자시 「혜산진에서 자며」에서는 백두산이 압록강 한끝에 솟아 두 나라의 지경을 가르며 ‘성벽마냥 지켜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진의 북쪽에는
웅장한 패궁정 자리잡았는데
료동의 북풍 불어치면
장검이 우르릉 소리치네

시에 나타나 있는것처럼 백두산의 기상과 위용은 조국방위의 큰 몫을 맡고있는 측면에서도 뜻깊게 형상되었다. ‘료동의 북풍 불어치면/장검이 우르릉 소리’친다는 형상은 오랑캐의 침략행위가 감행된다면 백두산은 노호하여 멸적의 칼을 휘둘러 침략자들을 단매에 쓸어버릴것이라는 의미를 담고있다. 다시말하여 백두산은 민족의 안녕을 지키는 믿음직한 수호자라는 관점이 반영되었던것이다.

한자시 「백두산의 이야기를 들으며」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그대들 들려주는 장엄한 광경
상쾌하기 그지없는 이야기라
백두산의 그 형세
곤륜(중국의 곤륜산)도 무색케 하누나

보는것처럼 서정적주인공은 백두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장엄한 광경과 형세에 대한 걱정을 금치 못하여 우리의 백두산은 다른 나라의 이름난 산도 따를수 없는 위상을 나타내는 자랑높은 산이라는 긍지감을 한껏 터뜨리고있다.

신체시 「태백산부」는 백두산을 세상에 이름높은 산으로 우뚝 솟아 독립과

자주의 기상을 떨치는 영광의 산, 아름다운 마음과 용맹을 지닌 우리 민족의
순결무구한 애국심과기개를 상징하는 산, 천지풍파에도 끄떡없고 그 어떤
광포한 침략자가 달려들어도 단매에 짓부셔버릴수 있는 무한한 담력과 힘을
지니고 사람들을 보살피며 그들이 나갈 길을 밝혀주는 성스러운 산으로 노
래하였다.

작품에서 특히 두드러지는것은 백두산의 장엄한 기상에 대한 형상이다.

지구의 산-산의 태백이냐?

태백의 산- 산의 지구냐?

...

우리님-태백이는 웃뚝!

...

영광의 침탑!

...

온갖 아름다운 용맹이 한데로 뭉치여 된 조선남아의 지정대순(극히 정하고 아주
순결함)의 큰 팔뚝!

천주는 부러지고 지축은 꺾어져도

까딱없다 이 침탑?

삼손(옛적 유태국 무사의 이름)이 처도 항우(중국의 옛 무사의 이름)가 달려도-구
정(아홉개의 가마솥)을 녹여서 뭉치를 만들어가지고 땡땡땡 따려도

까딱없다 이 팔뚝?

...

원문에서 밝혀진것처럼 백두산의 거대함과 무게, 억센 기상은 세계적인것
으로 노래되고있다. 즉 백두산은 지구를 대표하는 '지구의 산'으로 그려졌고
'조선남아'의장한 얼굴로 비쳐졌으며 그 어떤 세력의 침략도 물거품으로 만
들어버리는 철의 장벽처럼 부상되었다.

백두산의 아름다움을 찬양한 시들도 눈길을 끈다.

많은 시들에서 백두산의 아름다운 자태는 ‘압록강의 푸르른 물결/잇닿아’ 지며 ‘두 나라 경계되어 옥’같이 솟은 산(「장백산을 바라보며」), ‘한떨기의 런 꽃’같고 ‘옥을 다듬은듯 한 자태’를 드러내는 산(「류배살이를 하는 삼수군에서」), ‘하늘나라 신선궁전/머리돌려 바라보는’ 산(「종성부사를 바래우며」) 등으로 묘사되어 ‘조선의 최고절정’을 이룬 산(「상백산에서」)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아름다운 산이 바로 백두산이라는 관점에서 한자시「장백산에서 노닐며」에서는 백두산이 ‘속세’밖의 ‘심오한…세계’를 안고있다고 하였는바 이것은 한없이 순결무구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있는 백두산을 격에 맞고 무게 있게 형상한것으로 된다.

조선의 아름다운 경치를 찬양하고 노래한 신민요의 가사들은 여러개의 절로 되어있으면서 이름난 산과 강, 명승고적들을 열거하였는데 모두가 백두산을 첫 순서에 놓았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민족이 오랜 옛적부터 삼천리 강토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백두산을 먼저 생각하고 떠올리었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그를 보면 신민요가사 「팔도강산 구경가자」에서는 ‘우리 나라 팔도강산 방방곡곡에 구경가자/랑강도를 들어가니 명산은 백두산이요’라고 하였고 신민요가사 「백두산을 바라보고」에서는 첫 절에서 ‘백두산을 찾아가자 백두산을 찾아가자/울긋불긋 봉우리요 오롱조롱 금루메라/화구벽에 다달으니 처녀수가 좋을시구/이끼덮인 바위마다 태고꿈이 물었구나’라고 한 다음 2절에서 락동강, 3절에서 락화암을 노래하는 순서로 서정구조를 이루었다.

백두산의 아름다움, 절승경계에 대한 찬탄의 감정은 이처럼 아름다운 백두산이여서 백두산의 정가로우를 영양소로 하여 뿌리내리고 자라난 식물들은 천하의 으뜸이라는 이채로운 형상을 낳게 하였다.

그에 해당하는 한자시 「백산차에 대한 노래를 지어 박경로에게 사례하노라」에서는 백두산의 물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불함산의 첫째가는 산물

그대가 보내준데 감격하거늘
 엄동설한에도 약이 되려니와
 폐병에도 좋아 인삼과 맛먹으리
 이 땅에 이런 진품 있음을
 그 누가 알았으랴
 마치도 인재가
 멀리 시골에서 나듯이

보는바와 같이 백두산의 정기는 하도 맑고 청신하여 거기서 자라나는 식물들은 인삼과 맛먹는 훌륭한 약효를 가진 진품이라고 노래되었다. 이러한 형상에는 백두산이야말로 경치에 있어서도 으뜸일뿐 아니라 백두산일대의 자연부원들도 하나하나가 다 보물과도 같은 우리 나라의 값진 재부라고 여기는 긍지감이 반영되어있다.

백두산을 노래한 시들의 사상정서적내용은 일제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국권이 강탈당하고 조선인민의 머리위에 망국의 어두운 그림자가 비췄던 시기에 이르러 새로운 의미들을 포함하면서 확대발전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엄혹한 시대는 문학앞에 당시 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민감하고 진실하게 반영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19세기말—20세기전반기에 창작된 시작품들은 중세시기의 한자시들과 내용에서 공통성을 많이 가지면서도 변화된 현실에 맞는 새롭고 혁신적인 내용들을 반영하는데로 나가게 되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에 창작된 시들에서 백두산은 민족재생의 은인이 출현하고 반일독립의 기운이 움트고 자라며 조국광복의 기쁨이 마련되는 마음의 기둥, 희망의 등대로 새롭게 노래되었다.

시조 「백두산」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백두산을 바라보니 그 기상 웅장하다
 인걸은 지령*이요 시세는 조영웅*이라
 아마도 영웅출생키는 이날 이때

*지령=신령

*조영웅=시대의 영웅

작품은 백두산이 신령스러운 산이어서 민족을 구원할 결출한 위인을 낳을 것이라는 관점, 민족의 운명이 위기에 처한 바로 이때가 영웅이 출현하여야 할 때라고 간주하는 당시 인민들의 념원과 기대를 잘 짜인 서정토로를 통하여 뜻깊게 밝히었다고 볼수 있다.

시조 「금출」에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백두산 석굴중에 오십여년 은신터니
이 너 장검 뛰노는데 참아 어이 누엇으리
나의 년광 칠십이나 한번 나아

작품에서 서정적주인공은 70고령의 나이이지만 장검을 추켜들고 나서려 한다. 그가 나서려는 길은 이 작품의 창작년도가 1909년이라는것을 고려해 볼 때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싸움의 길이라고 볼수 있다. 그가 그러한 결심을 품게 된것은 백두산에서 살아온 때문이다. 다시말하여 백두산은 그에게 민족을 구원하려는 결심을 품게 하고 의지를 버려준 정신적원천이었다. 말하자면 백두산은 민족재생의 기운이 움트고 자라는 성스러운 산이라는 바로 이것이 이 작품의 사상적알맹이라고 볼수 있다.

시조 「단단국」에서는 백두산을 민족의 힘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중심적인 위치에 떠올리고 서정세계를 펼치였다.

백두산 돌아드니 단군족화 이 아닌가
잃은 강토 찾아내고 죽은 인민 살리라면
아마도 단군의 후예 일체단단

작품에서 '백두산 돌아드니 단군족화 이 아닌가'라는 첫 행(초장)은 백두산이 언제나 단군민족의 력사와 전통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는 조종의 산이라

는것을 나타낸다. 다시말하여 단군민족으로서의 자각은 백두산에 발을 붙인 데 기인되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그리하여 단군의 후예들이 ‘잃은 강토 찾아내고 죽은 인민 살리랴면’ 일심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조종의 산 백두산의 역사적의미와 결부되어 의의있게 밝혀지고있다.

시조 「누가 감히」는 ‘백두산 봉우리에’ 올라 사방을 둘러보니 ‘산림은 만첩이요 옥야는 3천리다’고 한데 이어 ‘두어라 4천여년 우리 강산 누가 감히’라고 하였다. 이것은 백두산이 품어안은 4천여년의 력사국인 우리 나라를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다는 립장을 드러낸것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조선을 강점한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민족적분노를 표시하고 일제와 강경히 맞서싸우려는 지향과 의지를 밝힌 형상이라고 볼수 있다.

시조 「영웅혈」인 경우에는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 피흘려 싸운 선조들의 넋이 백두산과 더불어 계승된다는 생활적의미를 ‘영웅의 흘린 피가 점점이 썩지 않고/황금산의 비가 되어 백두산의 구름 되어/원한을 채히 씻을 때까지 오락가락’이라는 시구들로 나타내었다. 이것은 선조들의 반침략투쟁정신을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굳건히 이어가야 한다는 사상을 구현한것으로 된다.

서정시 「새 아침」에서는 동해의 물결이 소리치며 설레이고 삼천리강산에 봄이 오게 된 까닭을 흰눈덮인 백두산에 아침해빛이 비쳐들었기때문이라는 관점에서 해명하하였다. 그리하여 빛을 잃어가던 우리 나라에 소생의 기운을 안겨주고 민족재생의 기틀을 마련해주는것이 바로 백두산이라는 의미를 잘 살려내게 되었다.

해방전시문학에서 백두산을 강도 일제를 쳐부시고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항일대전의 전구로 노래한 작품이 창작된 것은 문학사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백두산을 항일대전의 총성이 힘있게 울려퍼지는 혁명의 전구로 뜻깊게 노래한 대표적작품이 김조규의 산문시 「전선주」이다.

겨울이면 늙은 네 얼굴에 주름살이 더 깊어지고 눈내리는 날이면 너혼자 길거리

에 장승처럼 우뚝 서있다. 전선주, 너는 땅속에 묻혀 걸을수 없는 고정한 너의 로고 쓰(리성)를 슬퍼하이나? 아니면 세상 더럽고 추악한 모든것 휩쓸며 내닫는 바람을 부러워하이나? 한밤에도 너는 잠들지 않고 뽕뽕거리는 뜻모를 소리를 창문 덧문 굳게 빗장한 내 사색의 성채안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눈보라 기승치는 이런 밤이면 의례 밀림에선 총소리가 울리고 우등불이 타올랐으니 매맞아 죽은 아버지와 굶어죽은 어머니와 불타죽은 동생의 원한이 그 불길속에 황황 타고있음을 말없는 천년원시렵인들 어찌 모르랴? 거목들은 어깨를 비비며 불길을 일으키고 말라시들은 락엽은 그 몸을 불에 던지고 나무가지들은 하늘높이 불꽃을 내뿜는 그 소리 전선주, 너는 통신하며 밤새 뽕뽕거리는게 아니냐? 총을 멘 그의 아들딸들이 잃어버린 고향땅의 한줌 흙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상네 옛 기억을 찾아 선혈로 흰눈을 물들이며 백두산밀림속을 걸어가고있으니 전선주, 너는 그속 전하려 대륙을 바느질하며 강과 언덕 건너고 넘어 끝없이 뻗어가는것이구나.

이것이 시의 전문이다.

서정적주인공은 차디찬 겨울날 길거리에 말없이 서있는 전선주를 바라보며 그 전선주가 떠받치고있는 전선줄들에서 어떤 소식들이 오고가겠는가에 대한 생각에 잠긴다. 서정적주인공에게 있어서는 전선주가 ‘땅속에 묻혀 걸을수 없는’ 자기의 처지를 놓고 슬퍼하는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고 ‘세상 더럽고 추악한 모든것 휩쓸며 내닫는 바람을 부러워’하는것 같이 생각되기도 한다. 여기서 ‘더럽고 추악한 모든것’을 ‘휩쓸며 내닫는 바람’은 일제의 식민지적폭압과 그로 인하여 생겨나는 온갖 반동적인 행위들을 용납하지 않고 일어버리는 투쟁의 불길을 연상시킨다.

서정적주인공은 전선주가 그런 투쟁의 불길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는것이라고 간주하며 그 투쟁에 펼쳐나선 인민들의 목소리, 반일의 함성이 자기의 귀전에 들려온다고 확인한다.

계속하여 작품은 ‘눈보라 기승치는 이런 밤이면 의례 밀림에선 총소리가 울리고 우등불이 타올랐으니’ 그 까닭은 ‘매맞아 죽은 아버지와 굶어죽은 어머니와 불타죽은 동생의 원한’을 씻기 위함이라고 밝히었다. 이러한 형상으로써 작품이 창작되던 1941년 당시의 우리 나라 현실을 조선인민과 일제와

의 치열한 대결상황으로 진실하게 반영하였다.

시의 다음부분에 쓰여진 ‘거목들은 어깨를 비비며 불길을 일으키고 말라 시들은 락엽은 그 몸을 불에 던지고 나무가지들은 하늘높이 불꽃을 내뿜는 그 소리’라는 표현은 단순히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번지는 불길이 아니라 본질에 있어서는 반일투쟁의 거세찬 불길, 혁명의 불길을 의미한다. 그것은 ‘총을 쏘는 그의 아들딸들이 잃어버린 고향땅의 한줌 흙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조상네 옛 기억을 찾아 선혈로 흰눈을 물들이며 백두산밑림속을 걸어가고있’다고 노래한데서 명백히 나타난다.

보는것처럼 백두산은 반일투쟁이 거세차게 벌어지는 곳으로 비쳐졌다. 백두산은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투쟁에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인 무장투쟁의 무대로 펼쳐졌으며 민족재생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솟고 조국해방의 밝은 앞날이 기대되는 희망의 등대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형상은 백두산에서 항일의 충성을 높이 올리시며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이룩해가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전설적영웅이시며 민족재생의은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그이의 령도를 받는 항일애국투사들,민족의 장한 아들딸들의 위훈에 대한 진실한 반영으로, 무한한 신뢰와 칭송으로 된다.

이와 같은 작품이 창작된것은 해방전 우리 나라 진보적시문학의 발전에서 이룩된 특출한 성과로 된다.

백두산을 노래한 시문학창작은 해방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오늘도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영광스러운 이 나날에 우리 시문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위인상과 거룩한 업적을 백두산과 결부하여 진실하고 감명깊게 형상하였으며 백두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이어가는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과 투쟁정신, 밝은 미래를 잘 노래하였다.

백두산을 노래한 시문학은 우리 민족문학의 정신, 얼굴을 뚜렷이 나타내고 그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떨치며 세세년년 길이 전해질것이다.

4. 결론

조선사람이라면 웅당 백두산을 알아야 한다. 백두산을 안다는것은 곧 백두산을 조종의 산으로 하는 우리 민족의 혈통을 안다는것을 의미하며 백두산과 더불어 슬기와 용맹을 떨쳐온 궁지높은 민족사를 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나아가서 백두산과 떼어 수 없이 연결되어있는 단일민족, 조선민족의 공동의 리익을 위해 스스로 일감을 찾고 실행해나갈줄 안다는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견지에서 볼때 백두산을 노래한 시문학의 가치는 매우 큰것이다. 백두산은 앞으로도 시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문학의 영원한 형상대상이 되여 민족성원들 모두의 가슴속에 소중히 자리잡게 될것이다.

문예학자들은 선조들이 마련한 우수한 정신문화적재부들에 대한 발굴과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 하나의 피줄을 이은 우리 조선의 위상을 세계의 단상우에 더 높이 올려세우는데 이바지하는것으로써 민족앞에 지닌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원효사상의 거시적 접근과 현대적 의미

A Macroscopic Approach and Contemporary Meaning of Wonhyo Thought

이병욱*
고려대학교

1. 서론

이 글에서는 원효(元曉, 617-686)의 사상을 크게 3가지, 곧 화쟁사상(和靜思想), 무애행(無礙行), 정토사상으로 나누어서 접근하고, 현대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원효의 속성은 설(薛)씨이고, 육두품 출신이었다. 그는 총혜(聰慧)가 뛰어나서 스승을 모시지 않고 혼자서 힘으로 배워갔다. 의상(義湘, 625-702)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가다가 중간에 도를 깨닫고, 당나라에 유학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또한 원효는 요석공주와 결혼하여 설총을 낳고, 그 뒤로는 소성거사(小姓居士)라 하였다. 우연히 배우들이 춤추며 사용하는 큰 뒤옹박을 얻었는데, 그 모양이 이상하므로 그 형태대로 도구를 만들었다. 그런데 『화엄경』에서 “모든 무애인(無碍人)이 일도(一道)에서 생사로부터 벗어난다(一切無碍人 一道出生死)”라고 하였는데, 이것에 근거해서 ‘무애(無礙)’라고 이름하고, 노래를 만들어서 세상에 퍼지도록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천촌만락(千村萬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읊으며 불교에 귀의하도록 하였다. 가난한 집안의 사람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이 불타

* Lee Byung Wook(Lecturer, Department of philosophy, Korea University)
E-mail: lbw33@hanmail.net

(佛陀)의 이름을 알고, 나무(南無)의 칭호를 부르게 된 것도 원효의 교화 활동 때문이라고 한다. 그의 비문 「서당화상비」는 신라 애장왕(재위 800-809년) 때에 세워졌는데, 이 비문에서는 『십문화쟁론』이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원효의 저술은 100여 종류의 240여 권(券)이라고 한다.

2. 화쟁사상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핵심적 내용인 일심이문(一心二門)에 근거해서 모든 불교이론을 포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덧붙여서 원효는 언어에 집착하지 않고, 그 이면을 읽어낼 수 있으면 모든 불교 이론을 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원효의 화쟁사상의 기본은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一心二門)에 있다. 일심이문의 의미를 알아보면, 인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마음, 곧 일심(一心)은 2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진리의 입장인데, 이는 심진여문(心眞如門)이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현상계의 입장인데, 이는 심생멸문(心生滅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이 두 측면이 서로 섞여 있으므로, 이 두 입장으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대승기신론 소기회본』, 『한국불교전서』 1권, 740하-741상).

그래서 원효는 이러한 의미의 ‘일심이문’으로 모든 불교사상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원효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대승기신론』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은 비록 넓지만,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일심(一心)에서 이문(二門)을 열어서 『능가경』[摩羅百八의 가르침廣告]을 총괄하고, 모습이 번뇌에 물든 것에서 성품이 청정한 것을 보여서 『승만경』[踰闍十五]의 깊은 이치를 널리 모은다. 나아가 『열반경』[鵠林一味]의 가르침과 『범화경』[鷲山無二]의 가르침과 『금광명경』[金鼓經]과 『대승동성경』의 3신의 지극한 과보(極果)와 『화엄경』과 『보살영락경』의 수행의 4단계[四階]의 깊은 원인과 『대품반야경』과 『대방등대집경』의 넓고 확 트인 지극한 도(道)와 『대승대방등일장경』과 『대승대방등월장경』의 은밀하고 현묘한 문(門), 이러한 여러 경전에서 많은 경전의 핵심을 하나로

관통하는 것은 오직 『대승기신론』뿐이다(『대승기신론소기회본』 1권, 『한국불교전서』 1권, 733중-하).

그리고 원효는 일심이문(一心二門)으로 모든 불교사상을 포용할 수 있음을 다른 측면에서 말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승기신론』의 뜻을 펼치면, 무수히 많은 경전과 논서의 뜻과 통하고, 『대승기신론』의 뜻을 간추리면, ‘일심이문’이 그 핵심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승기신론』의 뜻을 무한정 펼쳐서 전개하여도 아주 많은 경전과 논서의 뜻이 ‘일심이문’의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으므로 번거롭지 않고, 여러 경전과 논서에서 『대승기신론』에만 주목해도 ‘일심이문’에는 이미 여러 깊은 뜻이 함축되어 있으므로 좁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대승기신론소기회본』, 『한국불교전서』 1권, 733하).

그런데 원효가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설화와 일정 부분 관련이 있다. 원효는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유학가다가 유심(唯心)의 이치를 깨닫고 중간에 돌아왔다. 그 내용 가운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존재가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실과 무덤이 둘이 아니다”라는 표현은 『대승기신론』의 문장(心生則 種種法生, 心滅則 種種法滅)을 조금 바꾼 것이다. 이처럼 원효 사상의 출발점부터 『대승기신론』의 영향이 강하다. 『송고승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상은 원효와 뜻을 같이하여 중국으로 유학하고자 하였다. 신라(本國) 바닷가(海門) 당주(唐州)지역에 이르러서 큰 배를 구하여 넓은 바다의 물결(滄波)을 넘고자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중도에서 고통스러운 빗줄기(苦雨)를 만나게 되었다. 이 두 사람은 마침내 길옆에 있는 토굴(土窟: 흙으로 만든 작은 공간) 사이로 몸을 숨겼는데, 이는 바람과 비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서로 바라보니 그곳은 고분(古墳) 속이었고 해골(骸骨)이 곁에 있었다. 다음 날도 하늘에는 가랑비가 내렸고(霖霖), 땅도 진흙탕 길(泥塗)이었다. 그래서 조금도(尺寸) 앞으로 나가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무덤에 머물고 길을 떠나지 못하였다. 무덤 통로와 벽(塋壁)에 다시 몸을 의지하였는데, 밤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귀물(鬼物)이 출현해서 괴이하게 생각되었다. 원효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전날에 머물고 있을 때는 토굴(土窟)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편안했는데, 오늘밤에 밤을 보내기 위해 귀신의 고향(鬼鄉: 무덤에) 의탁하니

마음속에 귀신을 숭배하는 것이 많이 생긴다. 따라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존재[法]가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감실(龕室: 신주를 모셔두는 작은 공간)과 무덤(墳)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다. 또한 삼계(三界)는 유심(唯心)이고 모든 존재萬法는 유식(唯識)이다. 마음 이외에 다른 존재[法]가 없는 것이니, 어찌 따로 다른 가르침을 구하겠는가? 나는 당나라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며, 여행가방[囊]을 들고서 신라로 돌아왔다(『송고승전』 4권 「당신라국의상전」, 『대정장』 50권, 729상).

그리고 원효의 깨달음에 관한 내용은 『임간록』에도 소개되어 있다. 여기서 밤에 무덤 사이에서 무언가를 움켜쥐고 마셨는데 그때는 아주 달고 시원한 물이었다가 다음 날 새벽에 그 움켜쥔 것이 해골임을 알고는 모두 토해내면서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한 것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여기서도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존재가 생기고 마음이 멸하면 해골과 시원한 물이 둘이 아니다”고 말한 것도 『대승기신론』의 문장(心生則 種種法生, 心滅則 種種法滅)을 조금 바꾼 것이다. 이 설화를 통해서도 원효가 『대승기신론』에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원효가 처음 배를 타고 도달해서 명산(名山)에서 도(道)를 묻고자 하였다. 원효가 홀로 황량한 비탈길[荒陬]을 가다가 밤에 무덤 사이에 머물렀는데 갈증이 매우 심하였다. 손을 뻗어 무덤에서 무언가를 움켜쥐어서 달고 시원한 물을 마셨다. 새벽이 되어서 그것을 바라보니 해골[髑髏]이었다. 원효는 매우 놀라서 모두 다 토해내고자 하였다. 그러다가 홀연히 맹렬한 깨달음이 생겨났다. 원효는 탄식하며 말하기를 “마음이 생기면 여러 가지 존재[法]가 생겨나고 마음이 멸하면 해골과 시원한 물이 둘이 아니구나(해골에 고인 물도 맛있다). 부처님이 삼계(三界)는 유심(唯心)이라고 한 것이 어찌 나를 속이는 말이겠는가?”라고 하고 다시 스승을 구하지 않고 그날로 신라로 돌아와서 『화엄경』에 주석을 달아서 원돈의 가르침(圓頓之教)을 크게 폈다.(『임간록』 上, 부록 21-22)

그리고 원효는 말에 집착하지 않을 때에 이러한 화쟁사상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원효의 화쟁사상의 또 다른 근거는 말(언어)에 집착하

지 않는 지혜에 있다는 것이다. 원효는 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말을 따르면 모두 옳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집착하지 않으면 대립되는 두 가지 주장이 다르지 않다.”(『법화종요』, 『한국불교전서』 1권, 491상)

나아가 원효는 이러한 화쟁의 정신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신의 견해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불도(佛道)는 넓고 커서 장애가 없고 한량이 없어서 근거한 대상이 영원토록 없지만, 그렇지만 불도(佛道)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없다. 그러므로 “모든 다른 교의(敎義)가 모두 불교의 의미이어서 백가(百家)의 가르침이 옳지 않음이 없고, 8만의 법문이 모두 이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저 조금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좁은 견해를 제멋대로 옳다고 생각해서, 자신과 견해를 같이 하는 사람은 옳다고 하고, 자신과 견해를 달리 하는 사람은 모두 진리에서 벗어나 잃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보살계본지범요기』, 『한국불교전서』 1권, 583상)

3. 무애행

무애행(無礙行)은 원효의 윤리사상이다. 이 무애행은 행위의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면의 세계가 의미 있다는 것이다. 원효보다 앞선 불교사상가로서 천태지의(天台智顗, 538-597)는 무애도(無礙道)를 말하였는데, 그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탐욕을 긍정하는 모습을 취하는 것이다(이병욱 2015: 44). 여기서 탐욕을 긍정하는 모습은 바로 계를 어기는 모습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계율을 어기면서라도 중생을 구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무애도’를 원효는 계율의 관점에서 더 진전시켰다. 그리고 원효의 무애행은 고려시대에까지 영향력이 있었다. 그 예로서 대각국사 의천(義天, 1055-1101)의 수제자 무애지(無礙智)국사 계옹(戒膺)이 원효의 ‘무애’를 제목으로 해서 시를 지은 사실을 거론할 수 있다(『보한집』 하권, 404).

원효는 자신이 겉으로 보기에는 계율에 어긋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율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위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원효는 계율을 이해하는 데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계율을

알게 이해하는 것으로, 이는 행위의 동기를 보지 않고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계율을 깊게 이해하는 것인데, 이는 행위의 겉모습에 구애되지 않고 동기를 따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원효는 무애행에 대해 『보살계본지범요기』에서 설명한다. 대승불교의 계율의 내용 전하는 『범망경』에서 10가지 중죄(重罪)에 속하는 바라이죄(교단에서 추방하는 죄)를 말하는데, 그 가운데 스스로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 내리는 일은 이 바라이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효는 이것을 새롭게 해석한다. 이 바라이죄를 이해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알게 이해하는 방법, 곧 알게 이해하고 계를 지키면 오히려 허물이 되는 것[淺識持犯過]이다. 다른 하나는 깊게 이해하는 방법, 곧 깊게 이해해서 계를 지키면 그것은 덕이 되는 것[深解持犯德]이다.

먼저, ‘알게 이해하는 것’부터 살펴본다. 계를 알게 이해하는 경우, 그 행위의 동기를 살피지 않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복에 해당한다, 죄에 해당한다고 이해하므로, 오히려 복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짓는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하사(下土)가 이 말을 듣고서 말과 같이 이해해서 자기는 낮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함(自毀讚他)은 반드시 복업(福業)이고,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낮춤(自讚毀他)은 결정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한결같이 말의 자취를 쫓아서 이해한다. 그러므로 그 복은 닦으려고 하지만 복행(福行)은 적고 죄업(罪業)은 많으며, 그 죄를 버리려고 하지만, 하나의 죄를 버리고는(곧 善行을 하고) 오히려 3개의 복을 버리는 꼴이 된다. 이것이 계를 지키고 범하는 것을 알게 아는 허물이다(『보살계본지범요기』, 『한국불교 전서』 1권, 584중).

그다음으로, 깊게 이해하는 것을 알아본다. 원효는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낮춤(自讚毀他)의 의미를 4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의 내면세계이고 행위의 표면적 측면에 주목하지 말라고 한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한 가지 경우만을 검토한다.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함[自毀讚他]이 죄에 해당하고, 스스로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낮춤[自讚毀他]이 복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여기서는 그 행위의 내면세계가 중요하다. 세상의 인심이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면 그 사람을 공경하고 칭찬해 줄 것을 알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이것은 표면에서는 복에 해당하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죄가 된다는 것이다. 그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올바른 확신이 선다면, 이때는 자신의 행위는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것이 복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에 대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그때 세간의 풍속과 배운 것이, 대개는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사람을 미워하고, 늘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선비를 공경한다는 말을 듣고, 또 내가 저 사람을 낮추면 저 사람이 반드시 나를 헐뜯을 것이고,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면 저 사람도 다시 나를 칭찬할 것을 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교묘하게 스스로 높이는 것을 구해서 스스로 낮추고 남을 칭찬함[自毀讚他]은 중죄이다. 다른 사람이 집착한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음을 알았다면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이해한 것이 도(道)인 줄 알았다면 닦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불법(佛法)을 건립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고자 하여,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낮춤[自讚毀他]은 큰 복에 해당한다.([보살계본지범요기], 『한국불교전서』 1권, 584중-하)

4. 정도사상

정도경전에서는 누구나 나무아미타불을 10번 염불하면 극락정도에 태어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내용을 원효는 2가지로 해석한다. 하나는 표면적인 의미[顯了義]다. 이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살려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듯이,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10번 염불하면 정도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깊은 의미[隱密義]다. 이는 10번의 의미를 횡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철학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내고, 아주 청정한 마음을 낸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원효는 정도를

4단계로 구분하고, ‘표면적인 뜻’으로 염불을 하면 4단계 가운데 4등급의 정토에 태어나며, ‘은밀한 뜻’으로 염불을 수용하면 4단계 가운데 3등급의 정토에 태어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원효의 정토사상은 고려시대에까지 영향력이 있었다. 그 사례로서 원묘국사 요세(了世, 1163-1245)의 비문에서 원효의 정토사상을 말하고 있는 『정성가(澄性歌)』를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례로서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의 『법집별행록 절요병입사기』에서도 원효의 『정성가』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되는 저술, 곧 『미타증성계(彌陀證性偈)』를 거론하고 있다는 점도 제시할 수 있다(김상현 2000: 192-193). 그러면 원효의 정토사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우선, 원효는 정토(淨土)를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첫째 단계는 부처의 경지이고, 둘째 단계는 보살의 10지 가운데 8지(八地) 이상의 경지이며, 셋째 단계는 보살의 10지 가운데 초지(初地)이상의 경지이고, 넷째 단계는 정정취(正定聚)의 경지이다.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다.

첫째 단계에서는 부처가 머무는 곳만이 정토이고, 그 아래에 있는 수행단계에 있는 보살이 머무는 곳은 정토라고 하지 못하고 과보토(果報土)라고 한다. 왜냐하면, 이 과보토에서는 걱정과 근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무량수경중요』, 『한국불교전서』 1권, 554중)

둘째 단계에서는 8지(八地) 이상의 보살이 머무는 곳이 정토이고, 그 아래에 있는 보살이 머무는 곳은 정토가 아니라고 한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8지 이상의 보살의 마음은 4가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청정하고[淨] 즐겁고[樂] 잃음이 없고[無失] 자재(自在)하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7지(七地) 이하의 보살은 그 마음속에 앞에서 말한 4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무량수경중요』, 『한국불교전서』 1권, 554중).

셋째 단계에서는 10지 가운데 초지(初地)의 보살이 머무는 곳은 정토(청정세계)라고 할 수 있고, 범부나 성문(聲聞)과 연각(緣覺)이 함께 머무는 곳은 정토(청정세계)라고 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초지(初地)의 보살이 머문 경지가 순수하고 청정하고, 범부나 성문과 연각의 경지는 순수하고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무량수경중요』, 『한국불교전서』 1권, 554중-하).

넷째 단계에서는 정정취(正定聚), 곧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된 사람이 머무는 곳이 정토이고, 정정취(正定聚)가 아닌 사람이 머무는 곳은 정토가 아니고 예토(穢土)라고 한다(『무량수경중요』, 『한국불교전서』 1권, 554하).

그다음으로, 『무량수경』에서 법장비구의 48원(願)을 말하는데, 그 가운데 18원(願)에서 누구나 10번 염불하면 정토에 태어날 것을 서원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원효는 2가지로 해석한다. 그것은 표면적인 의미(顯了義)와 깊은 의미(隱密義)이다.

‘깊은 의미’에서 10번 염불하는 것은 초지 이상의 보살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앞에서 밝힌 셋째 단계의 정토에 태어남을 말한다. 원효는 『미륵발문경』에 의거해서 10념(十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어떤 것이 열 가지인가? 첫째, 모든 중생에 대해서 항상 자심(慈心)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의 행위를 회방하지 않는다. 만약 그 행위를 회방하면 끝내 정토에 왕생하지 못한다. 둘째, 모든 중생에 대해서 깊이 비심(悲心)을 일으켜서 중생을 해치려는 마음을 제거한다. 셋째, 불법[法]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몸과 목숨[身命]을 아끼지 않고 모든 가르침에 대해 비방을 하지 않는다. 넷째, 인욕을 하는 것에 대해 결정된 마음[決定心]을 일으킨다(반드시 인욕을 완성하겠다는 마음을 일으킨다). 다섯째, 깊은 마음이 청정해서 이익과 공양받는 것[利養]에 물들지 않는다. 여섯째, 모든 지혜로운 마음을 일으켜서 날마다 항상 생각하여 잊지 않는다. 일곱째, 모든 중생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래서 아만(我慢)의 마음을 없애고 말을 겸손하게 한다. 여덟째, 세상에 관한 이야기에 빠져들어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아홉째, 깨달음의 의미[覺意]에 가까워지도록 해서 여러 가지 선근(善根)의 인연을 깊이 일으키고, 시끄럽고 산란한 마음에서 멀리 벗어난다. 열째, 바른 생각으로 부처를 관조하여 모든 잡된 생각을 제거한다. 이 10념에 대해 해설하여 말한다. 이와 같은 10념은 이미 범부의 경지가 아니다. 초지 이상의 보살이라야 10념을 구족해서 셋째 단계의 순정토(純淨土)에 태어날 수 있는 하근기[下輩]의 인(因)이 된다. 이것이 깊은 의미[隱密義]의 10념이다(『무량수경중요』, 『한국불교전서』 1권, 558하-559상).

그리고 ‘표면적 의미’에서 10번 염불하는 것은 앞에서 밝힌 넷째 단계의

정도에 태어남을 말한다. 표면적인 뜻에서 주장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열 번 염불한다는 것이다. 원효는 구마라집의 설명에 의지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제시한다.

어떤 것이 10념(十念)이 이어지는 것인가? 구마라집(什叢)이 말하였다.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넓은 들판에서 나쁜 도적을 만났는데, 그 도적이 창을 휘두르고 검을 뽑아들고 곧장 와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 그 사람이 부지런히 도망갔다. 그러다가 건너야 할 하나의 강이 눈에 들어왔다. 만약 강을 건너지 못하면 목숨을 온전히 하기 어려웠다. 그때 그 사람은 다만 강을 건널 방편만을 생각하였다. 내가 강의 기슭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옷을 입고 건너야 할까? 옷을 벗고 건너야 할까? 만약 옷을 입고 건넌다면 강을 건너지 못할까 두렵다. 옷을 벗고 건너자니 그럴 겨를이 없을까 두렵다. 다만 이러한 생각만이 있고, 다시 다른 생각은 없었다. 강을 건널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일념이다. 이와 같이 해서 10념을 할 동안에 다른 생각이 섞이지 않는다. 수행자도 그와 같다. 부처의 이름을 생각하거나 부처의 모습을 생각하거나 해서, 계속 염불해서 10념을 채운다. 이와 같이 지극한 마음을 10념이라 한다.” 이것이 표면적 의미(顯了義)의 10념의 모습이다(『무량수경종요』, 『한국불교전서』 1권, 559상).

5. 결론: 현대적 의미

원효의 화쟁사상은 『대승기신론』의 ‘일심이문’에 근거해서 출발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말에 집착하지 않는 점도 강조한다. 화쟁사상이 가능한 또 다른 이유는 말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불교이론을 화쟁(和諍)함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정치의 영역에서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가 대립할 때, 말(언어)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대립되는 이데올로기 속에서 공통분모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왜냐하면, 정치 이데올로기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것은 말(언어)에 집착해서, 말(언어) 그대로 실제 대상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말(언어)에 집착하지 않고 말에 휘둘리지 않고 사유할 수 있다면, 대립되는 이데올로기 속에도 공통지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남북

한의 이데올로기 대립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종교 이데올로기에도 적용된다. 종교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대립보다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개별 종교인은 각자의 종교 성전에 근거해서 성전의 말(언어)에 근거해서 사물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전의 말(언어)에 집착하지 않고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다면 종교 간의 대립도 완화되고, 종교 간의 대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원효의 무애행은 행위의 외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도덕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동기가 도덕적인 것이라면 그 행위는 도덕적인 것이라는 것이, 원효가 말하는 무애행이다. 널리 알려진 예를 들자면, 나치가 유대인이 숨어있는 곳을 묻었을 때,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도덕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실제로 유대인의 생명을 살리는 행위이므로, 그때에는 거짓말하는 것이 도덕적인 행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사실 어떠한 도덕적인 규정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담아낼 수는 없다. 그래서 외형적인 행위규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자신의 도덕적 동기에 충실해지길 요구하는 것이 원효의 무애행이다. 이런 관점에서 원효의 무애행을 본다면 도덕적 행위의 극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무애행을 강조할 경우에는 행위의 동기를 중시할 만큼 자신이 도덕적으로 훈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대개의 경우, 일반적 사람은 무애행을 실천할 수 있을 만큼 도덕적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 점에서 무애행의 한계도 존재한다.

그리고 원효의 무애행은 인생관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현재적 위상 등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않고, 내면의 세계관 또는 실질적 행위에 의해 그 사람을 평가하라는 주장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부귀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삶의 실제에서 보자면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형은 화려할지라도, 내면의 세계와 실질적 행위는 빈곤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삶을 바라볼 수 있다면, 삶의 외형적 측면에 몰두하여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삶의 실질적 측면과 가치에 의미를 부여하는 안목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한다.

원효는 정토사상을 통해서 대중을 불교의 세계로 이끌고자 하였고, 그 결과 신라 사회에 불교가 널리 퍼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원효는 정도도 4등급으로 나누고, 열 번 염불하면 극락정토에 태어난다는 내용도 두 가지 각도, ‘깊은 의미’와 ‘표면적인 의미’로 접근한다. 이렇게 나누어서 접근하면, 정토사상이 불교사상의 보편적 흐름과 떨어지지 않으면서도 대중적 신앙이라는 특징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불교의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원효는 ‘방편’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도 ‘방편의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려운 내용을 강조하면 대중성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원효가 정토사상에서 ‘표면적 의미’와 ‘깊은 의미’로 나눈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깊은 의미’를 통해서는 진리의 흐름과 같이 하면서도, ‘표면적 의미’를 통해서 대중과 함께 하려는 자세는 오늘날에는 특히 더욱 요청된다. 만약 한국사회에서 일반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데 그것이 철학적 의미가 강해서 어려운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때에 ‘표면적 의미’와 ‘깊은 의미’를 나누어서 접근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표면적 의미’를 통해서 대중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또 다른 측면에서 ‘깊은 의미’를 통해서 원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온전한 의미를 제시한다. 이러한 방식이 대중성을 추구하면서도 그 대중적 내용에 진리성을 부여하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대승기신론소기회본』(『한국불교전서』 1권).

- 『무량수경종요』(『한국불교전서』 1권).
- 『법화종요』(『한국불교전서』 1권).
- 『보살계본지법요기』(『한국불교전서』 1권).
- 『송고승전』(『대정장』 50권).
- 『임간록』 上(1993), 경남: 장경각.
- 최자, 박성규 역(1984) 『보한집』,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
- 고익진(1989) 『한국고대불교사상사』, 서울: 동국대출판부.
- 김상현(1994) 『역사로 읽는 원효』, 서울: 고려원.
- 김상현(2000) 『원효연구』, 서울: 민족사.
- 남동신(1999) 『원효』, 서울: 새누리.
- 이병욱(2001) 「원효 무애행의 이론적 근거 -『보살계본지법요기』를 중심으로」, 『원효학연구』 6집, 원효학연구원.
- 이병욱(2015) 「천태사상과 원효사상의 공통적 요소」, 『불교학연구』 42호, 불교학연구회.
- 최유진(1998) 『원효사상연구 -화쟁을 중심으로』, 경남: 경남대 출판부.

하브루타 기법을 활용한 소설 텍스트 읽기 교육 지도안*

—이청준의 단편소설 『눈길』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Teaching of Novel Text Reading Using
Havruta Method

—Focus on Lee Chung-joon's *Novel Snowy Road*—

易超**

广东外语外贸大学

裴允卿***

广东外语外贸大学

1. 들어가면서

문학작품은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 당대 정치, 사회, 문화 등을 재현해 내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된다. 하지만 외국인 학습자들이 한국 문학작품에 담겨있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물론 사회적 맥락과 한국인들의

* 이 연구는 2022년도 광둥성 고등교육개혁프로젝트 “课程思政背景下基础韩国语课程群混合式教学模式创新与实践”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이다.

** Yi Chao(Lecture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af995400@126.com

*** Bae Yun kyung(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uukeai@126.com

심층적 내면 또는 정서까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습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문학작품을 활용한 교육이 보다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문학 텍스트 교수·학습을 위한 다양한 제안과 시도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교사 중심의 지식 설명 위주의 강의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교수법을 모색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최근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질문중심 하브루타 읽기 수업 지도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유대인들의 교수·학습 방법인 하브루타는 질문을 강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교육 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실제 읽기 수업에 적용하면 학습자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서로 답변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텍스트의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주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하브루타 수업의 원리와 토론 학습, 특히 학습 단계별 서로 다른 질문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질문중심 하브루타 읽기 수업 모형을 정한 후 이청준의 단편소설 『눈길』을 실례로 실제 읽기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설 텍스트 읽기 교수·학습 지도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하브루타 교수·학습원리 및 수업모형

하브루타의 뜻은 하베르(짜)라는 어원에서 나온 것이며 그 의미는 함께 토론하다(talking about) 즉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discussion)하고, 논쟁(debate)하는 것을 의미한다(하브루타교육협의회, 2015).

전성수(2012, 2014)에서는 ‘하브루타(habruta)’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베르 즉 ‘친구’를 뜻하는데, 2명의 친구가 서로 짝을 지어 질문하고, 대화하며 토론하고 논쟁하는 것을 의미하여 배움과 가르침이 교사중심 수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브루타의 기본 원리는 친구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학생들이 사물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하고, 새로운 내용을 더 알아가는 것으로 친구에게서

배우는가 하면 친구를 가르치기도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하브루타를 활용할 때의 단계와 수업의 모형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는데 우선 하브루타는 다음과 같은 다섯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고 밝혔다.

첫째, 도입 하브루타로 생각의 문을 열어주는 과정이며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는 단계이다.

둘째, 내용 하브루타로 수업할 내용의 텍스트를 읽고 사실적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며 사실 하브루타라고도 한다. 본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제대로 이해하는 과정으로 정답이 있는 질문들이 주로 이루어진다.

셋째, 심화 하브루타로 상상을 자극하는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껏 상상하여 질문을 하는 과정이며 상상 하브루타라고도 한다.

넷째, 적용 하브루타로 본문의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직접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기 위한 하브루타이며 실천 하브루타라고도 한다.

다섯째, 메타 하브루타로 지금까지 나눈 것을 바탕으로 종합하고 정리하는 종합 하브루타이며, 학습자가 선생님이 되어 정리해 가르치거나 사고가 확장되는 단계이다.

그리고 하브루타 수업의 모형은 질문중심 하브루타 수업, 논쟁중심 하브루타 수업, 비교중심 하브루타 수업, 친구 가르치기 하브루타 수업, 문제 만들기 하브루타 수업 등 다섯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에서도 질문중심 하브루타 수업단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질문중심의 하브루타 수업 단계

| 과정 | 단계별 내용 |
|--------|------------------------------|
| 질문 만들기 | 교재 읽고 질문 만들기 |
| | 질문 유형별로 구분하기 |
| 짝 토론 | 둘씩 짝을 지어 먼저 토론(질문, 대답, 반문)하기 |
| | 짝과의 질문에서 가장 좋은 질문 선택하기 |

1 쉬우르(shiur)란, 랍비가 토라(Torah)의 내용에 대해 해석하고 깊이 있게 가르치는 뜻으로, 하브루타 수업 모형에서는 교사가 학생 전체와 질문 중심으로 하브루타를 하는 활동을 의미

| | |
|-------|---------------------------|
| 모둠 토론 | 짝 활동을 통해 선택된 질문으로 자유 토론하기 |
| | 가장 좋은 질문 선택하기 |
| | 가장 좋은 질문으로 토론하기 |
| 발표 | 모둠 토론 내용 정리하기 |
| | 각 모둠 토론 내용 발표하기 |
| 쉬우르! | 수업시간 내용을 가지고 교사가 종합 정리하기 |
| | 사고 확장하기 |

김난예(2015)에서는 학습 상황에서 대화 짝과, 다른 학습자와 짝을 지어 질문을 주고받으며 대화하고, 토론과 논쟁하며 함께 공부해 나가는 모든 행위를 ‘하브루타’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화 짝이 된 두 사람이 텍스트를 함께 읽고 텍스트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누고, 질문하고 답하는 과정에서 대답은 다시 질문으로 연결되고 그 대답에 또 질문하는 가운데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 탐구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러한 하브루타 과정이 전문화된 토론이 되고 더욱 깊은 논쟁이 되기 때문에 학습자의 사고력 확장과 능력을 길러주게 되며, 또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으므로 수많은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장영숙(2015)에서는 수업에서 새로운 개념 혹은 이전에 배운 개념을 학습자가 스스로 재구성하여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고 사고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여 진정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브루타라고 하면서 하브루타 토론 수업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김보경 2016: 108).

하브루타 토론 수업 과정

| 과정 | 내용 |
|--------------|---------------------------|
| 주제 확인하기 | 동기유발 |
| | 학습문제 확인 |
| | 교사가 제공한 자료 및 주제 확인 |
| 논쟁하기 | 주제에 대한 교사와 학습자들이 토론하기 |
| | 학습자 간 토론하기 |
| | 이 과정을 반복하기 |
| 점검하기 | 토론을 통해 알게 된 것에 대해 집중 토론하기 |
| | 교사의 강의와 학습자끼리 이해한 것 점검하기 |
| 정리 및 평가하기 | 토의토론 결과 정리 |
| | 토의토론 평가하기 |

신호철(2017)에서는 문답형 토의 - 토론식 문법 수업 방안을 설계하는 데에 있어서 소크라테스 문답법을 보완할 방법으로 하브루타 교육을 제시하였다. 소크라테스 문답법에서는 교수자의 수업 발화 점유 비율 축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축소된 비율만큼 학습자의 수업 대화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브루타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교수자와 학생 간의 대화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 간의 대화가 확대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1(교수자)대 N(학습자)의 대화에서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소외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이 연구에서는 하브루타 교육은 학습자가 소외되지 않으면서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수업 방식으로 기능하고 있다.

김수동·서금택(2018)에서는 하브루타 수업 원리, 토론 학습의 6가지 수업방법을 3단계로 적용하여 대학의 교직과목 수업모형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하브루타는 학습자중심 교수법으로 대학 수업에서 학생 간의 질문을 강화하고, 대화를 유발시키며, 토론이 중심이 되는 교수·학습 방법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실제 토론 수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학습자가 하브루타 토론을 할 때 깊게 사고하고, 창의성을 가지고 질문을 통해 지식을 얻게 된

다는 것을 증명했다. 즉 이 연구는 하브루타 기법을 활용해서 학습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해 가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위에서도 보다시피 하브루타는 학습자들이 짝 혹은 그룹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습 참여를 촉진하고, 협력적이며 상호 의존적인 토론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브루타 교수·학습법은 전통적인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에서 벗어나 주로 토론을 중심으로 한 학생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으로서 학생들이 원하는 지식을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외에도 학습하는 방법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능동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질문중심 하브루타 수업은 학생들의 사고의 확장을 돕는 내용 생성의 한 전략으로서 읽기 수행에 비중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더불어 질문중심 하브루타 수업은 텍스트에 대한 인지적 사고능력을 촉진시키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질문중심 하브루타 읽기 수업모형의 핵심은 바로 질문 생성 전략이다. 따라서 논의의 편의를 위해 먼저 질문중심 하브루타 읽기 수업모형에 적용되는 단계별 질문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박영숙(2017)에서는 블룸(B.S.Bloom)의 인지 영역 사고 수준 분류에 의거한 하브루타 질문 생성 전략에 대해 주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질문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질문중심 하브루타 수업 단계별 질문유형

| 단계별 질문 | 질문유형 |
|--------------------------------|--|
| 지식단계 질문 (what, who: 개념, 관계) | “무엇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무슨 뜻인가?”, “의미 차이는 무엇인가?” 등 |
| 이해단계 질문 (why: 이유, 원인) | “왜 ~하지?”,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 등 |
| 적용단계 질문 (if: 가정, 상상) | “만약~한다면 어떻게 될까?”, “만약~해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만약 ~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 등 |

| | |
|---------------------------|---|
| 분석단계 질문 (how: 과정, 추론) | “어떻게 그렇게 되지?”, “다음에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지?” 등 |
| 평가단계 질문 (but: 반론, 비판) | “하지만 ~한 것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그렇지만 ~한것은 어떻게 ~게 된 것인지요?”, “그렇게 해결하는 것은 가치있는 것인가요?”, “~한 것에 대해 나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등 |
| 창의단계 질문 (idea: 창조, 결합) | “~의 교훈은 무엇인가?”, “~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를 비유해보면?”, “~을 한마디로 정의 내려보면?” 등 |

본고에서는 주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하브루타 수업의 원리와 토론 학습, 특히 단계별 부동한 유형의 질문 전략을 적극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실제 읽기 수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질문중심 하브루타 읽기 수업 모형을 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소설 텍스트 읽기 교수·학습 지도안을 모색해 보았다.

질문중심 하브루타 읽기 수업 모형

| 대상 | | 한국어과 2학년 학생 | 교과명 | 한국어 읽기 |
|------------------------------|--|--|-----|--------|
| 교수·학습 방법 | | 하브루타 기법을 활용한 학생중심 질문 수업 | | |
| 학습목표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설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다. - 인물의 심리변화와 갈등, 그리고 상호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 | | |
| 주요 단계 및 중심 대상 | 주요 방식 | 주요 내용 | | 과정 |
| ○읽기 전 단계 - 도입 교사중심 | 교사질문 ↓ 학생답변 ↓ 교사 정리, 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림, 사진을 제시하면서 동기 유발하기 - 주제어 ‘눈길’, ‘어머니’를 제시하여 문장을 만든 후 자기 경험과 결합하여 말하기 - 학습목표와 배울 내용에 대해 설명하기 | | 생각 열기 |

| | | | |
|--------------------|--------------------------------|--|--|
| | | - 학습활동 순서 정하기: 질문 만들기, 짝 토론하기, 모둠 토론하기, 발표 하기 | |
| ○읽기 본 단계 -전개 | 학생 질문 만들기 ↓ 짝 토론 ↓ | - 학생 개별 질문 만들기 - 짝 구성 - 둘씩 짝을 지어 의논하면서 질문 만 들기 - 짝과의 질문에서 가장 좋은 질문 선 택하기 - 모둠 구성(6명) | 질문 만들고 토론하기: |
| 학생 중심 | 모둠 토론 ↓ | - 짝 활동을 통해 선택된 질문으로 모 둠별로 자유 토론하기 - 모둠별로 토론하면서 다양한 질문 만들기 · 내용(사실) 질문 만들기 · 상상(심화) 질문 만들기 · 적용(실천) 질문 만들기 - 가장 좋은 질문 선정하기 - 가장 좋은 질문으로 토론하기 - 모둠 토론 내용 정리하기 | - 의문점이나 잘 이 해되지 않는 점을 바탕으로 종류별로 다양한 질문을 만 들도록 유도하기 - 학습 내용에 대해 정확 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결해 가는지 확 인하기 |
| | 발표하기 | - 각 모둠 토론 결과를 정리하여 발표 하기 | - 토론 과정에서 서 로 협력하며 의견 을 잘 교환하는지 확인하기 |
| ○읽은 후단계 -정리, 종합 | 쉬우르 | - 교사가 모둠 토론을 종합, 정리하기 - 학생 경험과 결합시켜 새로 알게 된 점이나 느낀 점을 발표하기 | 정리 및 마무리: - 토론 내용 정리 종합 - 사고 확장 - 실생활에 적용 |
| - 교사/학생 | | | |

위의 표에서도 보다시피 본고에서는 기존의 읽기 수업의 단계, 즉 읽기 전 단계 - 읽기 본 단계 - 읽은 후 단계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주로 읽기 본 단계에서 질문중심 하브루타를 적용하고자 하였다. 이 수업 모형의 특성은 읽기 수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읽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역할과 기능을 최대

화하고, 교사의 역할도 배제하지 않는 선에서 축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존의 읽기 수업이 대부분 교사중심의 강의식 수업으로 학생들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주제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주로 학생중심의 하브루타 읽기 교육 방식을 접목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를 확대시켜 적극적이면서도 능동적인 수업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3. 질문중심 하브루타 읽기 수업의 실제

하브루타 학습법은 유대인 교육법으로 불리며 하브루타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와 과목별 효과에 대한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실제 한국어 교육에 도입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선행연구, 특히 질문중심의 하브루타 교육 단계와 수업 모형을 바탕으로 이청준의 단편소설 『눈길』을 활용한 소설 텍스트 읽기 교수·학습 지도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눈길』은 가족 간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인간의 보편적인 삶과 정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질문중심 하브루타 학습법을 활용하면 학생들은 스스로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이를 깨달아 가는 주인공 ‘나’의 심리변화와 모습은 학생들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확장시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체험과 연결시키게 하며, 궁극적으로 자기 반성과 성찰의 효과까지 이룰 수 있게 한다.

논의에 앞서 한 가지 밝혀둘 것은 본고에서는 기존의 읽기 수업의 단계, 즉 읽기 전 단계-읽기 본 단계-읽은 후 단계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주로 읽기 본 단계에서 질문중심 하브루타를 적용하고자 한다.

3.1. 도입 단계: 생각 열기

첫 번째 단계인 도입은 소설 텍스트를 읽기 전에 학생들의 생각을 열어주

는 단계로 학습에 대한 동기나 흥미를 일으키는 단계이다. 학생들이 텍스트를 읽기 전에 교사가 미리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특수한 문화적 배경이나 상황, 어휘 그리고 작가 소개와 같은 사항들을 설명함으로써 학생들이 읽을 내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읽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 준다.

우선, 『눈길』의 시대적 배경이 1970년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생소한 단어들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따라서 소설 텍스트를 읽기 전에 먼저 교사는 먼저 ‘장죽’, ‘통일벼’, ‘개초’, ‘가대’, ‘전답’, ‘차부’, ‘면소’ 등 당시 시대적 배경과 관련된 단어나 ‘섭생’, ‘가치’, ‘기구’, ‘사세부득’과 같은 한자어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소설 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읽을 내용에 대한 이해를 예측하게 한다. 이는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보거나 혹은 그냥 지나치거나 또는 극단적으로는 작품 감상을 중지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읽기의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볼 때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 1970년대 한국의 시대적 상황 및 문화적 배경에 대해 간단히 소개한 후 작가 이청준의 창작 경향과 주요 작품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학생들의 사유를 소설 텍스트에 접근시킨다. 이를테면 1977년 『문예중앙』 창간호에 발표된 『눈길』은 산업화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1972년부터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던 농촌주택개량사업, 먹을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급되었던 통일벼 등을 소재로 하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제시한다. 그리고 작가 이청준의 창작 경향에 대해서는 산업 사회의 인간 소외 문제와 지식인의 존재 해명 그리고 전통적 정서의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간단히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제목이 작품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를 질문하면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서로 이야기하게 한다. 그러면서 주제어 ‘어머니’, ‘눈길’을 제시하여 문장을 만들게 한 후 ‘왜냐하면’,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러나’, ‘그래도’ 등을 사용하여 각각의 문장을 만들게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소설 텍스트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동기

와 흥미를 유발하면서 학생들이 소설 내용에 관심을 갖게 한 후 학습목표와 배울 내용 그리고 읽기 본 단계에서 질문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3.2. 전개하기: 질문 만들고 토론하기

읽기 본 단계에서 질문중심 하브루타를 적용하기 위해 먼저 본교 36명의 학생들을 6명씩 한 팀으로 나눈 후 단계별로 질문만들기, 짝 토론하기, 모둠별 토론하기, 발표하기, 정리하기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진행하였다.

3.2.1. 질문만들기

학생들로 하여금 먼저 소리 내어 소설 텍스트를 읽으면서 인물, 사건,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 1인당 3개의 질문을 만들게 하였다. 학생들이 소설 텍스트에 개괄적으로 접근하면서 혼자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 교사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다만 의문점이나 잘 이해되지 않는 점을 바탕으로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학습 내용에 필요한 질문인지를 확인한다.

교사의 개입이 없이 학생들 스스로 만든 1차적 질문을 확인해 보았는데 주로 소설 텍스트에 비교적 명확하게 밝혀져 있는 내용들, 이를테면 ‘어머니’와 ‘나’의 인물형상과 그 상호 관계, 사건의 줄거리와 갈등, 그리고 작품의 배경에 객관적으로 접근한 내용(사실)질문이 주를 이루었다. 아래 예문은 학생들이 스스로 소설 텍스트를 읽으면서 만든 일부 질문이다.

예문:

- ‘나’는 왜 갑자기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 소설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 ‘나’의 신분은 무엇인가?
- ‘어머니’의 소망은 무엇인가?
- 이 소설의 배경은 언제인가?

- 이 소설은 언제 썼는가?
- 이 소설의 주제는 무엇인가?
- ‘우리’ 집안은 왜 망하게 되었는가?
-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
- 이 소설은 왜 유명한가?
- ‘나’는 어떤 사람인가?
- ‘어머니’는 어떤 사람인가?
- ‘나’는 왜 ‘아내’를 두려워하는가?

위의 예문에서도 보드시피 학생들이 소설 텍스트를 읽고 1차적으로 만든 질문은 대부분 인물관계나 사건 전개에 드러난 비교적 단순한 질문이 주를 이루었고, 내용 상 중요하지 않거나 혹은 질문을 위한 질문을 만든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교사의 요구대로 인물관계, 사건 전개,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만들려고 시도하였다.

3.2.2. 짝 토론하기

학생들이 혼자 질문을 만든 후 하브루타의 핵심인 짝을 이루어 서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텍스트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도록 안내함과 동시에 자기가 만든 질문에 대해 평가하고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교사는 짝과의 토론 과정에서 학생들이 소설 텍스트의 기본 줄거리를 파악하고 인물관계와 갈등을 통해 텍스트의 기본 갈등 구조까지 어느 정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가장 좋은 질문을 2~3개 선택하여 모둠토론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리고 의문점이나 잘 이해되지 않는 점을 바탕으로 종류별로 질문을 만들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 서로 협력하면서 의견을 잘 교환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아래 예문은 학생들이 짝 토론을 통해 만든 질문 중 일부이다.

예문:

-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왜 ‘어머니’와 ‘나’는 사이가 안 좋은가?
-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가?
- 누가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 ‘나’는 왜 ‘어머니’를 싫어하는가?
- ‘나’는 왜 오랜만에 집에 와서 짜증을 내는가?
- ‘나’는 왜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를까?
- 과거 ‘어머니’는 왜 팔린 집에서 ‘나’와 하루밤을 잤을까?
- ‘나’는 왜 ‘어머니’의 체념에 짜증을 느낄까?
- ‘나’가 ‘어머니’와 주고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나’는 왜 ‘어머니’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하는가?
- 결말 부분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듣고 ‘나’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그 새벽의 눈길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 ‘나’의 마지막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 ‘어머니’는 왜 옛날이야기를 덮어두려고 하는가?
- 눈길을 혼자 걸어 돌아오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 제목 ‘눈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옷케’는 무엇을 의미할까?

위에서 보다시피 짝과의 토론을 통해 학생들은 하브루타(상호피드백)를 하면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변화, 그리고 인물들의 상호 관계, 그리고 사건 전개에 대해 의문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따라서 인물의 성격과 심리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사건, 배경, 소재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만들었다. 짝과의 토론을 통해 질문의 양과 질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질문을 만드는 속도도 빨라졌다.

3.2.3. 모둠 토론하기

짝과의 토론이 끝난 후 6명이 한 팀이 되어 짝 토론을 통해 선택된 질문으로 자유 토론을 하면서 보다 다양한 질문을 만들게 한다. 모둠별로 학생들 간의 피드백이 끝난 후 교사는 학습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결해 가는지를 확인한다. 이를테면 인물의 심리 변화와 갈등을

보다 깊이 이해함과 동시에 소재의 상징적 의미, 서술 상의 특성과 효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드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소설 텍스트의 이해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질문이 제기되지 않거나 혹은 필요하지 않은 질문이 있을 경우 교사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상상하게 하면서 학생들이 만든 질문이 소설 텍스트의 질문으로 적합한지,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질문에 흔히 사용되는 담화표지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눈길』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작품으로 작품의 서술자인 ‘나’에 대한 이해가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만든 질문도 주로 ‘나’의 심리변화에 관한 것이거나 또는 ‘나’와 갈등 구조를 이루며 이야기가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어머니’를 둘러싸고 만들어진 질문들이 대부분이었다. 사건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내’에 주목한 질문과 토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나 ‘어머니’에 비해 비중이 낮았다. 즉 읽기 중 활동에서 아내에 대한 학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아내’는 어머니의 숨겨둔 이야기를 이끌어 냄으로써 ‘나’와 ‘어머니’의 갈등을 해결하도록 돕는 중개자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작품 전개의 중요한 한 축을 맡고 있는 아내의 역할에 대한 질문과 토론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교사는 인물들 상호 관계와 사건 전개 과정, 그리고 갈등 해결에 주목하면서 질문을 만들고 토론하도록 유도하였다.

교사의 이러한 피드백에 따라 학생들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어머니’와 ‘나’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는, 즉 중개자 역할을 하는 아내의 형상에 주목하게 되었고 따라서 다양한 질문을 만들고 토론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때 쓰는 담화 형식도 습득하게 되었고 이와 동시에 읽기 활동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도 많이 상승하였다. 그리고 서로 같거나 비슷한 내용의 질문은 중복되지 않도록 교사가 미리 팀별로 확인하고 가운데서 조정함으로써 소설 텍스트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팀별 토론과 교사의 피드백을 토대로 각 팀은 모둠별 공통 의견을 수렴하

여 가장 좋은 좋은 질문을 2~3개 정도 선정하도록 하였다. 아래 예문은 모둠별 토론을 거쳐 선정된 질문 중 일부이다.

예문:

- 왜 ‘지붕’에 대해 여러 차례 썼을까? ‘지붕’은 무엇을 의미할까?
- ‘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주로 어떤 면에서 표현되는가?
- ‘어머니’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 소설에서는 왜 옷케에 대해 여러 차례 썼을까?
- ‘어머니’, ‘나’, ‘아내’에게 ‘옷케’는 각각 어떤 의미일까?
- ‘나’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었을까?
- 만약 자신이 주인공 ‘나’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 소설의 결말을 계속 이어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가?
- ‘나’를 계속 괴롭히는 불안과 짜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 ‘아내’가 옷케 이야기를 꺼낸 목적은 무엇일까?
- ‘나’와 ‘아내’는 왜 서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가?
-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 아내의 성격은 어떠한가?
- 소설에서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나’가 옷케를 볼 때마다 마음의 빚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 왜 제목을 ‘눈길’이라고 했을까?, ‘눈길’은 무엇을 의미할까?
- ‘어머니’에게 그날 밤 진짜 심경을 말하게 하는 ‘아내’의 의도는 무엇일까?

학생들은 모둠별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의 발표를 관찰하면서 소설 텍스트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증대되었고, 자기 견해를 발표할 기회도 많아졌다. 특히 모둠별 학생들 간의 피드백과 교사의 피드백을 거쳐 만들어진 질문은 텍스트에 분석적으로 접근한 것이 많았고 질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를테면 위의 예문에서도 보듯이 학생들이 소설 텍스트를 읽고 스스로 만든 질문에 비해 모둠별로 토론하면서 만든 질문들은 주로 인물 간의 갈등과 모순, 심리변화, 사건의 갈등과 전개 과정, 그리고 중심 소재의 상징적 의미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의문과 고민을 담은 보다 깊이 있는 심화(상상)질문이 많

았다. 특히 구성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건 갈등의 작은 선택까지 놓치지 않고 보다 많은 의문을 가지고 열심히 토론하면서 질문을 만들어냈다.

3.2.4. 발표하기

모둠토론을 통해 각 팀은 가장 좋은 질문, 이를테면 소설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줄거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질문, 소설 속에 담긴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 인물 간의 갈등과 역할을 이해할 수 있는 질문,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질문, 자기 반성과 성찰에 필요한 질문을 위주로 2~3개 정도 선정한 후 모둠 대표가 전체를 대상으로 발표하였다. 학생들은 소설 텍스트에 대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팀별로 선정된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하면서 토론을 진행함과 동시에 다른 팀의 질문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소설의 심층적 의미를 이해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자유 토론을 하면 소설 텍스트의 심층적 의미와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아 반성과 성찰의 효과까지 이룰 수 있다.

예문:

- ‘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주로 어떤 면에서 표현되는가?
- 농촌 집 구조, 지붕, 기와 등을 많이 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 ‘나’는 왜 어머니의 체념에 짜증을 느낄까?
- ‘나’를 계속 괴롭히는 불안과 짜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 ‘나’가 옷케를 볼 때마다 마음의 빔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 어머니, ‘나’, 아내에게 ‘옷케’는 각각 어떤 의미일까?
- 왜 제목을 ‘눈길’이라고 했을까? ‘눈길’은 무엇을 의미할까?
- ‘나’가 어머니와 주고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나’는 왜 오래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까?
- 어머니에게 그날 밤 진짜 심경을 말하게 하는 아내의 의도는 무엇일까?
- ‘나’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었을까?

- 만약 자신이 주인공 ‘나’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 소설의 결말을 계속 이어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가?

위의 예문에서도 보드시피 모둠토론을 통해 선정된 질문은 인물의 심리 변화, 모순과 갈등, 역할 그리고 중심 소재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이해에 치중함으로써 가족 간의 용서와 화해, 그리고 사랑이라는 소설의 주제와 작자의 창작의도 이해는 물론 1970년대 한국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한국인의 전통적인 효사상, 특히 개인적 체험의 확대와 심화를 통한 반성과 성찰에까지 이끄는 심화(상상)질문과 적용(실천)질문이 위주이다. 이러한 소설 텍스트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면 학생들은 소설의 심층적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팀 질문의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도 서로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 등장인물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유사한 경험을 나누면서 사고력과 상상력이 확장될 수 있다.

3.3. 쉬우르

‘쉬우르(shiur)’는 랍비가 토라(Torah)의 내용에 대해 해석하고 깊이 있게 가르친다는 뜻으로, 하브루타 수업 모형에서는 교사가 학생 전체와 질문중심으로 하브루타를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교사가 모둠 발표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는데 일반적으로 학습 활동 후 교사가 전체 학생과 함께 대화, 질문과 대답, 토론 등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활동 중에 빠트린 것이나 보충해야 할 점 그리고 강조해야 할 점 등을 언급하거나 학생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줄곧 이해하기 어려웠던 ‘어머니’에 대한 ‘나’의 이상한 태도와 심리변화를 교사가 다음과 같은 질문과 토론을 통해 정리하면 학생들은 소설 텍스트의 주제와 심층적 의미를 보다 쉽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예문:

- 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주로 어떤 면에서 표현되는가?
- 어머니에게 오랜만에 찾은 고향집을 하루 만에 떠나겠다고 말한다.
- 지붕 개량을 소원하는 어머니 때문에 심기가 불편해진다.
- 어머니에게 혹시 빛이 있거나 없을까 노심초사한다.
- ‘나’는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른다.
- ‘나’는 어머니에게 빛이 없다고 스스로를 위안한다.
- ‘나’는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었을까?
- 소설에서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 만약 자신이 주인공 ‘나’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 소설의 결말을 계속 이어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가?
- 중국문학, 혹은 외국문학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 있는가?

교사의 이러한 질문-토론-정리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소설 텍스트에 대한 이해는 물론 사고력이 확장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체험과의 연관성 속에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자아 반성과 성찰도 이룰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은 오랜 세월 동안 풀리지 않았던 ‘어머니’와 ‘나’의 미묘한 심리적 감정변화를 통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주인공 ‘나’의 삶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인간과 삶에 대한 이해와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주인공 ‘나’가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감정의 정화 과정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 그리고 뒤늦게 이를 깨닫고 어머니와 화해하는 아들의 이야기를 다룬 『눈길』과 같은 문학작품을 통해 학생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문학, 혹은 외국문학에서 『눈길』과 비슷한 내용의 작품을 소개하게 하면서 사고력과 상상력을 확장시킴과 동시에 학생들의 개별적인 경험과 느낌을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를 들면 『눈길』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주자청의 수필 『아버지의 뒷모습』

과의 비교를 통해 오로지 자식 걱정만 하는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한층 설득력 있게 이해시킴과 동시에 이를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켜 문학작품이 전달하는 가치를 깨닫게 했다. 그리고 텍스트와 텍스트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자신의 비슷한 경험을 글로 쓰게 하면서 소설의 심층적 의미를 한층 깊이 내면화시켰다.

4. 나오면서

본고는 한국어 읽기 교육의 전통 수업 방식인 교사중심의 강의법을 개선하고자 교사와 학생들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브루타를 적용한 한국어 읽기 수업 모형을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았다. 한국어 읽기 수업 개선의 주된 목적이 학습자의 참여 확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유대인의 가정 내 구성원 간의 토론 교육 방식인 하브루타를 활용한 질문중심 하브루타 수업 모형을 참고하여 이를 활용한 한국어 읽기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질문중심 하브루타 수업 모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수업에서는 학생 중심의 질문만들기, 짝 토론, 모둠 토론 및 발표 등 다양한 학습활동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소설 텍스트의 기본 내용을 이해하고 줄거리를 파악하며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들의 학습 활동이 끝난 후 교사가 모둠 토론과 발표 내용을 종합, 정리함과 동시에 학습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면서 수업을 마무리하였다.

실제 수업에서 적용한 결과 질문중심 하브루타 읽기 수업은 기존의 읽기 수업에 비해 다음과 같은 장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학생들이 소설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느낌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직접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사고력과 상상력이 확장되는 물론 언어 유창성도 향상된다.

둘째, 짝 토론과 모둠 토론 및 발표 과정에 서로 협력하면서 의견을 교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다.

셋째, 질문을 만들기 위해 전체 소설 텍스트의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기 때문에 맥락 속에서 새로운 단어를 쉽게 추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건 전개와 이야기 줄거리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넷째, 질문과 답변, 그리고 토론 과정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해졌고, 특히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문장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습득하게 된다.

다섯째, 소설 텍스트 이해에 있어서 필요한 질문과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알게 되었고, 특히 질문을 나타내는 다양한 담화표지를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본고를 마무리하면서 한 마디 남긴다면 어느 특정한 교육 이론도 복잡한 교수·학습 과정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지만 교사, 연구자들은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을 검토하고 적용해 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읽기 교수·학습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본고에서도 최근 학습자 중심의 패러다임에 맞추어 하브루타를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지만 아직까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이론이 아니기 때문에 읽기 수업에서의 하브루타의 효과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소설 텍스트를 실례로 질문 중심 하브루타 읽기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해 보았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브루타가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보다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난예(2015) 「질문 생성 전략과 하브루타 신앙공동체교육」, 『기독교교육논총』, 169-198.
김보경(2016) 「유대인 하브루타 학습의 이해와 정착을 위한 과제」, 『신앙과 학문』, 기독교학문연구회, 105-108.
김수동·서금택(2018) 「하브루타 토론학습의 교직과목 수업 적용 사례 연구」, 『예술인문

- 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67-277.
- 김향(2019) 「한국어 교육에서 하브루타 교수-학습법의 적용 가능성 모색」, 『漢城語文學(40집)』, 139-154.
- 김정현(2012) 「이청준 소설 『눈길』 지도모형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논문, 20-37.
- 박영숙(2017) 「질문중심 하브루타 쓰기 수업모형 개발 및 적용」, 서울교육대학교 석사논문, 11-50.
- 반지(2019) 「하브루타 기법을 활용한 한국어 토론 수업 모형 개발」,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12-44.
- 민형덕(2017) 「학습자중심 질문수업이 비판적 사고 성향」, 목포대학교 박사논문, 16-51.
- 신호철(2017) 「문답형 토의-토론식 문법 수업 방안 연구」, 『문법 교육(제31호)』, 한국문법교육학회, 249-256.
- 이윤희(2011) 「이청준 『눈길』의 교육적 의의와 교과서 수록 양상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6-55.
- 이정연(2019) 「외국인 유학생들의 토론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 방안 연구」, 『외국어교육연구(제33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82-88.
- 이정연(2018) 「하브루타(Havruta)를 활용한 토론 수업의 효과 연구」, 『언어과학연구』(86), 279-301.
- 장영숙(2015) 「하브루타 소집단 주제 토론 과학 수업이 과학탐구능력 및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교육대학교 석사논문, 7-35.
- 전성수(2012)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 서울: 예담프렌드.
- 전성수(2014) 『최고의 공부법-유대인 하브루타의 비밀』, 서울: 경향BP.
- 전성수·하브루타교육협회(2014)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 교육의 기적」, 한국교원연구원
- 최연정(2014) 「학습자 활동 중심의 소설 교육 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논문, 21-49.

부록

학생들이 만든 종류별 질문

| 종류별 질문 | 질문 내용 |
|--------------|---|
| 내용(사실) 질문 | ‘나’는 왜 갑자기 서울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
| |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
| |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어떠한가? |
| | ‘어머니’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주로 어떤 면에서 표현되는가? |
| | 주인공 ‘나’는 어떤 사람인가? |
| | ‘나’는 왜 ‘어머니’를 피하려고 하는가? |
| | ‘우리’ 집안은 왜 망하게 되었는가? |
| | ‘나’는 왜 어머니의 말을 중단시키려고 하는가? |
| |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
| | 결말 부분에서 어머니와 아내의 대화를 듣고 나의 심경은 어떠했는가? |
| | 어머니의 소망은 무엇인가? |
| | 어머니는 왜 집을 더 크게 짓고 싶어하는가? |
| | 어머니와 ‘나’ 사이에는 과거 어떤 일이 있었는가? |
| | 과거 어머니는 왜 새벽에 ‘나’를 보냈을까? |
| | ‘나’는 왜 어머니와 주고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
| | 눈길을 혼자 걸어 돌아오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
| | 어머니, ‘나’, 아내 3자의 관계는 어떠한가? |
| 심화(상상) 질문 | 누가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
| | ‘나’를 계속 괴롭히는 불안과 짜증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
| | ‘나’는 왜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르는가? |
| | 아내가 옷케 이야기를 꺼낸 목적은 무엇일까? |
| | ‘나’가 옷케를 볼 때마다 마음의 빛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
| | 어머니, ‘나’, 아내에게 ‘옷케’는 각각 어떤 의미일까? |
| | 농촌 집 구조, 지붕, 기와 등을 많이 말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
| | 왜 ‘지붕’에 대해 여러 차례 썼을까? ‘지붕’은 무엇을 의미할까? |
| | 어머니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
| | 과거 어머니는 왜 팔린 집에서 나와 하루밤을 잤을까? |
| | 『눈길』의 주제는 무엇일까? |
| | 왜 제목을 ‘눈길’이라고 했을까? ‘눈길’은 무엇을 의미할까? |
| | ‘나’는 왜 어머니의 체념에 짜증을 느낄까? |

| | |
|--------------|---|
| | '나'는 왜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부를까? |
| | '나'가 어머니와 주고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 | '빛이 없음'을 반복, 강조하는 데서 '나'의 어떤 내적 갈등을 알 수 있는가? |
| | '나'가 눈길의 기억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
| | '나'는 왜 오래 동안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을까? |
| | 어머니는 왜 지금까지 그 새벽의 눈길에 대해 말하지 않았을까? |
| | '나'가 옷케를 볼 때마다 마음의 빛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
| | 어머니는 왜 옛날이야기를 덮어두려고 하는가? |
| | 어머니에게 그날 밤 진짜 심경을 말하게 하는 아내의 의도는 무엇일까? |
| | '나'의 마지막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
| | 아들은 어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었을까? |
| | 『눈길』에 형상화된 정서나 사상은 당대 사회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
| 적용(실천) 질문 | 어머니는 왜 아들의 요구를 모두 받아줄까? '나'의 어머니는 어떠한가? |
| | 만약 자신이 주인공 '나'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
| | 짐을 떠나 멀리 있는 고등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가? 혹시 있다면 자신과 작중 인물의 어떤 점을 비교할 수 있는가? |
| | 현재에도 온 가족이 단칸방에 모여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자신이 그런 경우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
| | 주인공 '나'에게 편지를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쓰겠는가? |
| | 『눈길』의 결말을 계속 이어 쓴다면, 어떤 내용으로 쓸 것인가? |
| | 만약 장래 부모님이 '나'에게 '무리'한 부탁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은가? |
| | 중국문학, 혹은 외국문학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작품이 있는가? |
| |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진 '빛'이 있는가? 이 '빛'과 관련된 경험을 말해 보자. |
| | 어머니가 자신의 소망을 표현하는 방법에 주목하면서 자신은 어떤 방법으로 소망을 표현하는지 말해보자. |
| | 이 소설과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는가? 만약 자신이 주인공이라면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어떻게 행동했을까? |
| | 이 소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

한국어 조사의 품사성에 대한 고찰

A Study on Grammatical Attributes of Particles in Korean Part of Speech System

全永根*

廣東外語外貿大學

黃文偉**

廣東外語外貿大學

1. 서론

본고는 단어의 정립 기준을 제시하면서 한국어 조사의 특성이 단어 정립 기준에 부합되는지 살펴보고, 조사의 품사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대 한국어 학교 문법에서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의미를 더해 주는 의존 형태소로 기술하고 있다(박영목 외 2012: 261). 주지하다시피 한국어 조사는 품사 분류 체계에서 품사 중의 하나로 정의되어 있다. 즉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는 Bloomfield(1933: 177-178)의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는 단어의 정의와 모순이 되기 때문에 수긍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립성이라는 개념은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 Quan Yong Gen(Professor,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quanyonggen71@126.com

** Huang Wen Wei(Professor, Guangd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E-mail: hwangmunwi97@163.com

조사는 의존적이고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현재 학계에서 조사의 품사성 즉 단어로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져 왔다. 또한 한국에서는 ‘조사’라는 품사에 넣어 처리하고 있고 조선에서는 ‘토’라는 문법형태로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는 한국어 교수와 학습에 불편함과 어려움을 가져온다. 따라서 더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사의 품사성에 대해 재검토하여 혼동의 여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료 분석법을 통해 단어의 정립 기준에 따라 조사가 그 기준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한국어 조사의 품사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한국어 조사의 품사성과 관련된 연구는 한국어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주제이다. 조사의 본질과 특성에 대한 문제는 한국어학자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다. 선행연구에서 형식적인 조사를 독립적인 품사로 인정할지의 여부에 대해 학자들은 주로 세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고 있으며 조사의 품사적 성격에 관하여 어미와 함께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에서 분석적 체계, 준종합적 체계, 종합적 체계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¹

1 단어의 개념에 관하여 전통문법에서 현대의 문법에 이르기까지 단어의 분류 방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 볼 수 있으며 본고에서는 김기혁(1995: 84-89)의 분류와 그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다. 명칭과 관련하여 김기혁(1995)은 아래와 같이 제기한다.

- ①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보는 견해(분석적 체계)
- ② 조사를 단어로 보고 어미를 단어로 보지 않는 견해(준종합적 체계)
- ③ 조사와 어미를 단어로 보지 않는 견해(종합적 체계)

학자에 따라 이를 분석체계, 절충체계, 종합체계(서정수 2006: 132), 또는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김민수, 1971)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다.

2.1. 조사 품사성에 대한 검토

2.1.1. 분석적 체계

분석적 체계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는 체계로 주시경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주시경(1910: 28)에서 품사분류의 기준은 의미와 직능(職能)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의미를 기준으로 한 것은 ‘임(명사), 엇(형용사), 움(동사), 언(관형사), 겻(조사), 억(부사), 놀(감탄사), 잇(접속사²)’이 있고, 직능을 기준으로 한 것은 ‘끗(종지사³)’이 있다. 이상춘(1925: 35)에서는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감탄사, 토 6 품사 체계를 주장하며 이 중 ‘토’를 ‘자격토, 접속토, 종지토’ 셋으로 하위 분류하여 한 부류로 설정하였다. 김윤경(1948:18)에서는 9품사 체계로 나누었는데, ‘임씨(명사), 언씨(형용사), 움씨(동사), 겻씨(조사), 잇씨(접속사), 맺씨(종지사), 언씨(관형사), 억씨(부사), 늑씨(감탄사)’ 등이 그것이다. 김윤경(1948)의 품사 체계는 대체로 주시경(1910)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조사와 어미는 모두 품사 즉 단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분석적 체계에 나타난 단어는 형태소 단위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류 방식은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교착적 성격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다. 『조선어문법』(김수경, 1954: 112)과 『조선어문법』(김병제, 1959: 89)에서는 품사를 보조적 품사와 자립적 품사로 나누며 ‘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토를 품사의 일종인 보조적 품사로 보고 있다. 김민수(1989: 67-70)에서는 문절을 이루는 실사와 허사(조사와 어미)를 다 낱말이라 일컫는다. 최형용(2010)에서는 단어를 형

2 주시경(1910: 28)에 따르면 ‘잇’은 이와 같이 정의하며 현대 한국어의 연결어미와 대응된다고 확인할 수 있다.

잇: 한 말이 한 말에 이어지게 함을 이르는 여러 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

(본) 와, 과, 고, 먼, 으면, 이면, 나, 으나, 이나, 다가, 는데……

3 주시경(1910: 28)에 따르면 ‘끗’은 이와 같이 정의하며 현대 한국어의 종결어미와 대응된다고 확인할 수 있다.

끗: 한 말은 다 맞게 함을 이르는 여러 가지 기를 다 이름이라.

(본) 다, 이다, 나, 아나, 아라, 어라, 오, 소……

태론적 대상, 통사 원자, 음운론적 단어 등으로 나누고 있음을 논의하면서 조사와 어미를 모두 문법적 단어로 본다. 최호철(2014: 327)에서는 실질적 의미 단위나 형식적 의미 단위에 해당되는 것을 단어라 하고 동일한 기능을 갖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처리하며 단어 통합형의 기능적 분류를 역설하였다.

이관규(1999: 97-98)는 분석적 체계의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의존적이고 형식적인 조사와 어미를 과연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지금까지 단어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단어의 특징으로 자립성을 계속 강조해 왔으므로 이러한 견해들을 수용한다면 단어에 대한 정의는 전면 수정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단어는 기본적으로 자립성이라는 특징을 띠지만, 비자립적인 조사와 어미도 단어로 인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따로 설정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형태소와 단어는 같은 개념이 되어 버린다.

2.1.2. 준종합적 체계

준종합적 체계란 현행 학교 문법에서처럼 조사의 품사성만 인정하고 어미의 품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체계이다. 절충적 체계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최현배(1930), 박상준(1932), 이희승(1955), 남기심·고영근(1987) 등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준종합적 체계는 최현배(1930)부터 시작되었다. 최현배(1930, 1937)의 언급을 종합하면 단어는 말의 단위이므로, 따로따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말함과 글월을 이루는 직접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라고 단어의 개념을 밝혔다. 또한 조사는 독립성과 분리성이 있지만 어미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고 어미는 단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상준(1932: 70)에서는 조사(토씨)를 7격(주어격, 객어격, 칭호격, 표준격, 병렬격, 소유격, 보충형 전용격)으로 구분한다. 즉 현재 한국어 문법에서 말하는 격조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를 단어로 인정한다. 그러나 어미를 용언의 활용이라 하고 연체형, 연용형, 접속사형, 부사형, 종지형으로 구

분 설명하고 있다. 이희승(1955: 200-206)에서는 조사를 품사 분류에서 다루고 있으나, 용언에 붙는 문법적 형태는 ‘어미’란 용어로 하고 있으며 품사 분류에서 제외한다. 이는 이희승(1955)이 어미를 품사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무방하다. 한국국어교육연구회(1964)에서도 조사와 어미를 다른 문법법주로 처리하고 조사만을 품사의 일종으로 인정한다. 남기심·고영근(1987: 57)에서는 조사를 낱말의 일종으로 보지만 어미를 활용어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다.

준종합적 체계로 봤을 때 조사를 단어로 규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형태 면에서 조사는 이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단어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가/이’, ‘는/은’, ‘과/와’와 같은 조사는 음운론적 이형태가 있으나 단어들은 이러한 이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조사는 문장에서 단어에 붙어 쓰이는 종속적인 단위이지만 단어는 독립적으로 쓰이는 단위이다. 단어에도 의존 명사와 같은 비자립적인 단어가 있으며 종속적으로 쓰이지만 모든 조사는 비자립적이다. 셋째, 조사는 선행하는 단어 의미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도 않고, 오로지 문장에서 단어들 사이의 문법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보충적 의미 등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낸다. 즉, 조사가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다른 단어들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단어임을 보장받는다. 또한 이관규(1999: 98)는 최현배의 견해, 즉 준종합적 체계가 193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학교 문법의 단어관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최현배라고 하는 학자의 영향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이론의 설명적 타당성 때문이라기보다는 최현배의 학문적(또는 학계적) 및 정치적 힘⁴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따라서 준종합적 체계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조사의 품사성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4 이관규(1999: 98)는 “최현배가 1930년대 한글 맞춤법 통일안 제정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 1942년 조선어 학회 사건을 계기로 해방 이후 민족적 영웅으로 떠오른 점, 또 실제로도 해방 이후 문교부 편수국장으로서 한글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을 지적하며 현행 문법 교육의 많은 내용이 그의 문법관에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1.3. 종합적 체계

종합적 체계란 조사와 어미 모두 단어로 보지 않는 견해이다. 이 체계의 이론은 정렬모(1946)에 의해 가장 일찍 나타나게 된다.

정렬모(1946: 12)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지 않으며 조사나 어미 모두 다 같이 단어에 소속된 것으로 보았다. 정렬모(1946)에서는 품사를 명사, 동사, 관형사, 부사, 감동사 이 다섯 개로 한정한다. 또한 명사에는 토가 있을 때는 그것까지 포함하여 대명사를 명사로 본다. 예를 들어 ‘사과’와 ‘사과가’ 모두 명사로 보며 동사는 어간에 접미사를 합하여 보는 종합성을 띤다. 이에 따르면 명사는 항상 같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사가 붙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용언의 활용과 같은 개념으로 곧 곡용(曲用)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인모(1959: 111)에서는 품사를 6가지로 나누고 정렬모(1946)와 마찬가지로 조사와 어미에 단어의 자격을 주지 않았다. 조선은 오래 전부터 조사와 어미를 모두 문법적 형태중 하나인 ‘토’라는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 체계와 같은 이론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조선어문법 I』(1960: 124)에서 조사와 어미를 묶어서 ‘토’로 설정하고 있다. 토는 어근, 접두사, 접미사와 함께 의미가 있는 최소의 단위인 형태부로 구분할 수 있다. 김원경·고창수(2016: 85)에서는 품사 분류 체계에서 조사를 제외시켰고 조사가 발화 중 독립적으로 쓰이거나 독립된 어절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단어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김영환(2015: 34)에서는 토를 조사와 어미를 다른 범주로 갈라보는 이론적인 견해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들을 적지 않게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조사와 어미를 통틀어 단어에서 제외시켜 다른 단어에 붙임으로써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 처리하는 것은 분석적 체계와 동일한 맥락이다. 아울러 이 체계에서는 문장 어절의 개수와 단어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단어의 수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관규(1999: 99)는 종합적 체계가 근본적으로는 단어가 최소 자립 단위라는 정의에 가장 부합되는 견해라고 주장한다.

기존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어 조사의 품사성에 대한 견해는 불일치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크게 품사의 자격 유무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품사의 자격을 인정하든 아니 하든 조사의 품사성을 결정하는 데 있어 먼저 논의해야 할 내용은 품사의 정립 기준, 즉 단어의 정립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의 품사성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단어의 정립 기준으로부터 출발하여 조사가 단어인가 아닌가를 검토한 연구는 근년에 이창우(2003), 한정환(2009), 신미화(2020) 등이 있다.⁵

단어에 대한 연구들은 자립성을 단어의 특징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국어는 교착어이기 때문에 조사와 어미가 서구의 굴절 개념과는 다르다. 분석적 체계에서처럼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비경제적이고 부담스럽게 인식될 여지가 높다. 조사와 어미는 앞말이 자립형식과 비자립형식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조사와 어미의 차이점은 공통점에 비하면 사소하거나 수의적인 것이다.⁶ 조사와 어미는 그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크고 중요하므로 준종합적 체계에서 조사와 어미를 다른 범주로 처리하는 것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이런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면서 본고에서는 자료 분석법을 통해 단어의 정립 기준을 밝힌 후 비교를 통해 조사의 품사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고자 한다.

2.2. 단어 정립 기준에 대한 검토

최형용·유원영(2015: 118-119)의 해석에 따르면 영어 문법에서는 단어를 나누는 갈래를 지칭할 때 보통 ‘parts of speech’ 혹은 ‘word class’라는 말을

5 그러나 이창우(2003)에서는 조사가 단어가 아니라면 조사의 문법 범주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한정환(2009)에서는 조사와 어미를 모두 단어로 보며 단어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가장 일반화되고 상식화된 단어는 바로 어휘적 단어라고 하나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립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다. 신미화(2020)는 주로 통시적인 시각으로 토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사적인 고찰을 바탕으로 오늘날의 토에 정확한 문법범주를 논의하였고 공시적인 관점은 다소 결여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6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서태용(2006) 참조.

사용한다. 그리고 한국에서 현재 ‘품사’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다며, ‘품(品)’은 ‘종류’, ‘갈래’를 뜻하며 ‘사(詞)’는 ‘말’인데 ‘동사(動詞)’, ‘형용사(形容詞)’에서 쓰인 ‘사’와 같이 ‘단어’를 가리킨다고 언급한다. 즉 품사는 ‘단어의 종류’이고 문장의 구문요소들을 일정한 문법적 범주에 따라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단어와 품사는 동일한 크기의 언어단위이다. 이들의 차이는 단어가 정적인 상태의 언어구성 단위라면 품사는 동적인 상태, 즉 행동언어를 전제하여 이루어지는 언어 단위라는 점이다. 두 개념의 분류 목적은 문법적 의미를 밝히려는 데에 있다. 이희승(1955: 197-199)은 품사라 하는 것은 모든 단어 즉 어휘가 문법적 성질이나 기능에 의하여 분류되는 통사론적 범주에 관한 술어라고 한다. 그러나 이희승(1955)에서 단어라는 것은 문법적 의미보다는 주로 음운에 의거한 의의를 기준으로 분절하려는 의도의 술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단어에 대한 정의와 함께 어떤 대상이 단어인지만 판단된다면 품사 분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품사는 단어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 단위가 품사의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단어여야만 한다. 언어 연구자들은 단어의 개념을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단어와 관련된 논의도 매우 다양하다.

먼저 서양 언어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이광정 1997: 64-65, 재인용).

가. 단어는 궁극적으로 독립된 의미단위다. (Henry Sweet 1891: 20)

나. 단어는 취소의 자립형식이다. (L. Bloomfield 1933: 178)

다. 단어는 형태의 앞뒤에 휴지가 있고, 그 형태의 중간에 휴지가 올 수 없는 문장의 일부다. (C.F. Hockett 1958: 167)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Sweet(1898)는 단어를 정의할 때 독립성을 표준적인 기준으로 삼는다. Bloomfield(1933)는 자립성, Hockett(1958)는 다른

단위의 삽입 가능 여부에 따라 단어 개념을 정의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대부분 서양 언어학자들은 단어를 독립된 의미단위로 보고 있고 자립성이라는 단어의 자립기준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⁷ 다음은 한국과 조선 학자들의 단어에 대한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다.

최현배(1937: 138-142)에서 낱말(단어)은 더 쪼갤 수 없는 말의 단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따로 떨어져서 말함과 글월을 이루는 직접적인 재료가 된다고 정의한다. 다시 말하면 단어는 소리의 단위나 생각의 단위가 아니고 월을 분석해 놓은 단위이다. 또한 단어는 말의 단위로서 분립성, 즉 독립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이회승(1955: 196-200)에서는 음운에 의거한 의의 방면의 한 단위를 단어라고 간단히 말하였으나, 단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고 서술한다. 이강로(1955: 3-12)에서는 우리말에서 단어가 될 수 있는 말은 주어, 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의 한 성분으로 쓰이며 독립한 뜻이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다. 또한 술어의 활용어에 대하여는 더 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체언에 첨가되는 모든 말은 단어가 될 수 없다고 한다. 정인승(1959: 52-53)에서는 소리마디가 하나든지, 또는 둘 이상으로 결합되어 있거나, 하나의 뜻을 가진 말을 낱말이라 한다. 김민수(1989: 67-70)에서는 문절을 이루는 실사와 허사를 다 낱말(단어)이라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문절을 분해해서 처음 얻는 것이 낱말이기 때문에 낱말은 글월을 언어의 행동면에서 생각하면 최하위의 단위일 것이다. 『조선어리론문법』(고신숙, 1991: 36-42)에서는 ‘형태론적 특성’, ‘문장론적 특성’, ‘어휘 - 의미적 표식’, ‘단어 조성적 특성’ 등 네 가지로 나누어 기준을 제시하였다.⁸ 이익섭 · 채완(1999: 56-59)에서는 최소의 자립형식이 단어라는 단어 정

7 단어는 전위 전위(轉位) 가능한 최소기호단위다. (L. Hjelmaslev 1928)

단어는 문장에서 전위(轉位) 가능한 의미단위로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최소 자립어를 말한다. (Hans Marchand 1969)

단어는 형태적 단어, 어휘적 단어, 의미적 단어로 나뉜다. (S. M. Lamb 1969)

10 ‘형태론적 특성’이란 단어가 토와 결합할 수 있는지의 특성, 그리고 어떤 토와 결합할 수 있는지의 특성을 가리킨다. ‘문장론적 특성’이란 문장에서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과 결합되는지, 그리고 어떤 문장성분의 기능을 하는지의 특성이다. ‘어휘·의미적 표식’은 단어가 가지고 있

의가 문제점을 품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휴지’와 ‘분리성’이 단어를 구별하는 기준이라고 주장한다. 고영근·구본관(2008: 33)에서도 단어의 정의를 내리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자리이동’이나 ‘휴지’, ‘분리 가능성’ 등이 단어를 정의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표준국어문법론』(남기심·고영근, 2019)에서 ‘자립성, 분리성, 보편성’을 기준으로 어미에 단어 자격을 부여하지 않지만 조사를 단어로 인정한다.

위의 언급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최현배(1937), 이강로(1955), 이익섭·채완(1999), 남기심·고영근(2019)은 자립성을 단어의 정립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희승(1955), 정인승(1959)은 뜻을 가진 말이라고 단어를 정의한다. 고신숙(1991)은 한국어 품사 분류 기준인 의미, 기능, 형태 이 세가지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익섭·채완(1999)과 고영근·구본관(2008)에서는 내부에 휴지를 둘 수 있는지 여부를 단어 식별기준으로 제기한다. 김민수(1989: 77-78)는 다른 학자와 달리 실사는 물론 허사인 조사와 어미도 단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정리한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단어를 정의하는 데 무엇보다 ‘자립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미화(2020: 232)에서 자립성이란 단어는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고 자립적으로 문장의 한 성분이 되거나 문장의 맨 첫 자리에도 놓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앞 성분이 자립성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뒤에 오는 교착성분인 조사도 자립적인 단어가 된다. 하지만 선행어의 자립성은 그 뒤에 접속하는 문법적 요소인 조사가 단어임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기 힘들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조사와 어미의 자립성 여부가 아니라 그 앞에 오는 요소인 체언과 용언의 자립성 여부에 기인하는 것이다. 즉 체언은 조사의 도움 없이도 성립이 가능한 자립형태소인 반면 용언은 어미의 도움 없이는 성립이 불가능한 의존형태소이다. 이것을 확대 해석하여 조사와 어미의 형질적 차이처럼 해석하면서 조사는 단어로 취급하고 어미는 단어로 취급하지 않는 것은 그릇된 판단이다.

는 어휘적 의미를 가리킨다. ‘단어 조성적 특성’이란 새단어를 구성하는 특성이다.

3. 한국어 조사의 품사성에 대한 고찰

3.1. 조사의 자립성에 대한 검토

박철우(2018: 330)는 문법 기술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의는 최소자립형식이며, 단어를 정의하는 관점은 언어학자들이 바라보는 목적이나 직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 이유는 문법 기술에서는 이보다 유용한 정의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문법을 기술하는 것은 문장이라는 언어 형식을 최대 단위로 볼 때, 그것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여 문장을 이루는지를 관찰하여 정리하는 일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이유로 문법적 시각에서 단어를 정의하는 일은 단어가 문장 속에 있는 통합의 기본 단위라고 하는 형식 중심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최현배(1937), 이강로(1955), 이익섭·채완(1999), 박철우(2018), 남기심·고영근(2019) 등 학자의 관점에 따르면 자립성이라는 정의는 문법을 기술할 때 가장 적절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유예(2008: 15)에서 ‘자립성’이란 단어는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고 그 앞뒤에 휴지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최소자립형식’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Bloomfield(1933: 178)에서는 실제 발화에서 단독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박철우(2018: 336)에서 문장에서의 자립성이라는 개념은 적어도 문장 속에서 문법관계를 확보한 단위, 즉 문장성분으로 기능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조사는 자립성을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

아래 예문에서 보여주듯이 통사적 형태에서 조사와 어미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일이 없으며, 통사론적 자립성은 언어 단위를 인식할 때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예문:

ㄱ. 철수 키 크다.

ㄴ. *가 는 에서 요

ㄷ. *가 그 에 학교 간다.

절충적 체계에서 어미와 달리 조사만을 단어로 처리하는 것은 체언을 자립 형태소로 규정할 때 중요하다. 체언은 개체나 사물을 독립적으로 이르기나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용언과 달리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다.⁹⁾ 예문 ㄱ에서 ‘철수’, ‘키’, ‘크다’ 홀로 있을 때는 한 단어이며 뒤에 조사를 붙이지 않아도 한 문장이 성립되는 것을 보면 조사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실 생략이 가능한 것이지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이익섭·채완(2000: 58)에서 ‘때로 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이 조사를 단어로 보는 근거로 언급되고 있다. 즉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 형태는 생략할 수 없는데, 예문 ㄱ과 같은 ‘의, 가’ 등 조사가 생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어미와 달리 조사도 자립성이 있다고 보아 단어로 처리한다. 최은지(2017: 4)에서는 한국어 체언이 어순만으로도 주어, 목적어, 서술어와 같은 문장성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쉽게 생략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한다. 예문 ㄱ에서 조사가 없이도 특정 문법 기능이 실현될 수 있는 이유는 문장 의미가 통사 구조와 맥락에 의해 예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철수’, ‘키’, ‘크다’ 이 세 단어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의미 상 연계를 가지므로 한 문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문법 형태가 단어 여부와 상관없는 문제이다.

또한 조사와 어미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고 문장 속에서 자립할 수 없으므로 예문 ㄴ에서 아무리 문법적 형태들을 어떤 순서로 나열해도 비문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조사와 어미는 형태상으로 의존적인 단위로 자립 가능한 단위라는 ‘단어’의 정의에 위배된다. 그리고 예문 ㄷ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사는 문장의 맨 첫 자리에 올 수 없고 오로지 체언 뒤에 붙는다. 즉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는 데에는 일정한 순서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11 “나 아침 사과 먹었다.”에서 체언인 ‘나, 아침, 사과’는 자립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먹었다’는 어미 없이 홀로 사용되지 않는다.

문장에서 홀로 쓰이지 못하고, 자립성으로 문장의 한 성분으로 되지도 못하므로 조사는 어미와 같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자립성이 없음을 부인할 수 없다.

3.2.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본 조사

조사의 품사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품사 분류의 기준을 살펴보자. 『국어문법론 I』(1995), 『국어문법론강의』(2002), 『우리말 문법론』(2018), 『개정판 표준 국어문법론』(2019)은 모두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으로 형태¹⁰, 기능, 의미를 들고 있다.¹¹ 대부분의 문법서에서 품사 분류의 기준을 ‘의미’, ‘기능’, ‘형태’로 보고 있다.

3.2.1. 의미에 대한 검토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의 ‘의미’는 개별 단어의 어휘적 의미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품사 부류 전체의 의미이다(남기심 외 1985; 고영근·구본관 2008; 박영목 외 2012; 이도영 외 2014). 단어들은 모두가 구체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그 의미는 일정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공통성을 기준으로 단어의 품사를 나누게 된다. ‘의미’는 품사 분류 기준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품사 유형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람, 사과, 학교’ 등 단어들과 ‘가다, 뛰다, 웃다’ 등 단어들은 각기 자신의 구체적

12 ‘형태’는 ‘형식’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구본관 외(2015:162)에서는 ‘형태’를, 남기심 외(2019: 28)에서는 ‘형식’이라는 술어를 사용하고 있다. ‘형태’와 ‘형식’은 동일한 의미이지만 본고에서는 ‘형태가 변한다’가 ‘형식이 변한다’보다 더 현상을 정확하게 드러낸다는 점에서 ‘형태’를 사용하기로 한다.

13 하지만 각각의 기준의 중요도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견해를 보인다. 『개정판 표준 국어 문법론』에서는 세 기준에 대해 중요도의 차이를 언급하지 않고 있는 반면(실제 분류에서는 기능을 중시하고 있음), 『우리말 문법론』과 『국어문법론강의』에서는 ‘의미’를 부수적인 기준으로 언급하고 있고, 『국어문법론 I』에서는 ‘의미’를 오히려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 구본관(2010: 182) 재인용.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공통성과 사람, 사물, 사건 등에 대한 행위, 동작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공통성에 따라 각기 명사와 동사로 나뉘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조사는 주로 체언 뒤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의미를 더해 주는 의존 형태소이다. 즉 조사는 단어와 달리 주로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광균(2003: 17)에서는 의미론적으로 조사를 분석할 때 조사의 공통성에 따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조사의 구체적 의미의 특성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는 문법적 의미만 나타내는 조사와 어휘적 의미를 지닌 단어들과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임홍빈(2001: 714-717)에서 한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의미 범주, 형태 변화, 문법 기능, 단어 형성과 체계의 동질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가운데 ‘의미 범주’는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의미’와 비슷한 것이다. 그러나 임홍빈(2001)에서 제시된 ‘의미 범주’는 품사 분류 시의 첫 번째 기준이 되며 단어들의 일정한 집합에 공통되는 어휘적 의미의 특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문법적 의미만 나타내는 조사는 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고 독립적인 품사로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조사는 조사라는 이 집합의 공통된, 통일된 의미를 나타낸다고 말하기 힘들고 조사마다 각자의 사용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엄격히 말하면 그 의미는 문법적 의미에 해당된다.

3.2.2. 기능에 대한 검토

‘기능’이란 한 단어가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맺는 문법적 관계를 말한다. 남기심 외(1985: 27-29)에서 기능은 한 단어가 문장 가운데서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가리킨다고 정리한다. 고영근·구본관(2008: 45)에서 ‘기능’이란 주로 통사적인 성질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떤 단어가 주어, 서술어 등으로 쓰이는 양상과 체언이나 용언을 수식하는 등의 수식 관계 내지 분포 관계를 포함한다. 그들의 관점을 중

합해 보면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기능은 문장 속에서 단어가 담당하는 기능을 가리키며 단어가 문장 내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이나에 따라 품사를 나누는 것이다. 단어들은 통사론적 면에서도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데 단어를 분류할 때 단어가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맺는 문법적 관계의 공통성과 문장 성분 기능성의 공통성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통사론적 측면에서 보면 명사, 대명사, 수사가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주기능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모두 체언으로 본다. 그러나 조사는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고 주로 조사가 붙는 단어와 함께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문장성분이 된다. 이러한 조사는 격조사라고도 말하며 격조사는 조사의 앞에 오는 체언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관형어 등 문장성분으로서의 자격을 하도록 해 준다. 조사가 없으면 단어는 문장에서 문장성분으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는 단어와 다른 문법적 범주로 봐야 한다. 또한 조사 중에는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기보다는 ‘만, 도, 까지’와 같은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휘적 의미가 아니라 문법적 의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는 단어들과 달리 문장 속에서 독립적으로 문장성분이 될 수 없고 오로지 다른 말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조사는 문법적 의미만 나타내고 단어에 붙어서 그 단어의 문장성분으로서의 기능을 실현하게 해준다. 그러나 문장 안에서 단독적으로 문장성분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조사는 단어와 다른 층위의 문법적 범주이다.

3.2.3. 형태에 대한 검토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는 단어의 형태적 특징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장에서 단어의 모습이 변화하는가를 가리킨다(남기심 외 1985: 27-29). ‘형태’에 대해서 구본관(2010: 183)에서는 ‘형태’가 단어의 형태적인 특성으로 조사와의 결합 여부, 어미와의 결합 여부 등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규호(2010: 116)는 형태가 일정한 단어를 불변어라고 하고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단어를 가변어라고 한다. 불변어는 ‘사과’처럼 문장에서 모습을 바꾸지 않는 단어이다. ‘오다’처럼 ‘오고’, ‘오니까’, ‘오면’과 같이 그 모습을 변화할 수 있는 단어를 ‘가변어’라고 한다. ‘사과가, 사과를, 사과까지’와 같은 체언과 조사의 결합형은 체언과 조사를 모두 단어로 인정함으로써 한 단어의 변화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체언과 조사의 결합과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서로 다르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어간+어미’ 결합형은 ‘단어+단어’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단어로 인식할 때 형태가 변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지수(2021: 312)는 영어와 달리 한국어에서 가변어는 어간과 어미의 결합형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또한 교착어에서 ‘어간+어미’ 결합형은 하나의 단어가 변한다기보다는 고정된 형태소에 새로운 형태소가 결합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구분관(2010: 183)에서는 ‘명사+조사’는 명사와 조사가 각각 단어이기 때문에 명사 뒤에 조사를 붙이는 것은 형태적인 특성이라고 하기 매우 어렵다고 주장한다.

조사와 어미 가운데 조사만을 단어로 인정하는 근거에 관해서 대개의 경우 자립성이 있는 체언과 결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고 그렇지 못한 용언의 어간과 결합한다는 점에서 어미는 단어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보편적이다. 조사를 품사로 인정한 것은 조사와 결합하는 체언이 용언의 어간과 달리 음운론적 자립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조사의 음운론적 자립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처리는 품사 분류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최형용(2012: 256)에서 조사와 어미의 의존성은 큰 차이가 없으며, 선행 요소의 자립성이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립성이나 의존성은 품사 분류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만약 자립성과 의존성이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면 ‘의존 명사’, ‘보조 용언’ 등도 ‘명사’, ‘용언’과 다른 별도의 품사 지위를 가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의미’와 ‘기능’의 공통성으로 ‘명사’와 ‘용언’에 포함되어 있다.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는 가변어와 불변어를 구분한다. 형태에 따

라서 한국어의 품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와 ‘동사, 형용사’로 양분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에서 서술격 조사 ‘이다’는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 조사의 하위 분류에 속하면서도 다른 조사와 달리 형태 변화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격 조사는 동사와 형용사와 같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변어에 속한다고 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형태’라는 기준 적용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품사 분류 기준로서의 형식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단순히 형태 면에서 보면 조사만이 이형태를 가지고 있고 다른 단어는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가/이’, ‘는/은’, ‘과/와’와 같은 조사는 음운론적 이형태가 있으나 단어들은 이러한 이형태가 없다.

지금까지 품사 분류 기준인 형태로 조사의 품사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어에서 가변어와 불변어의 구분은 형태를 통해서 실현된다. 동사와 형용사는 활용이 가능하므로 가변어로 처리하며 활용하지 못하는 체언은 불변어이다. 현행 문법 체계에서는 체언과 조사의 결합, 그리고 용언 어간과 어미의 결합을 서로 다르게 다루고 있다. 이렇게 처리한 이유는 조사와 어미가 붙는 앞말의 자립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언의 자립성이 강하다고 해서 조사까지 자립성이 확보되어 단어로 인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 또한 서술격 조사 ‘이다’는 조사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 이는 ‘형태’라는 기준 적용의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어 조사의 품사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조사와 어미만이 음운론적 이형태가 있기 때문에 조사 역시 어미와 같이 다른 단어와 구분하여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3. 조사와 어미를 같은 문법적 층위로 보는 견해

현행 한국 문법체계에서 체언의 경우와 용언의 경우를 구별하여 조사와 어미로 나누고 있으며 이러한 이원론적 해석은 『중등조선말본』(최현배 1934)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그러나 서태용(2006)에서는 조사와 어미는

앞말이 자립형식과 비자립형식이라는 차이가 있으나 자립성, 문법적 의미, 음운론적 이형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보인다고 한다. 사소하고 수의적인 차이점에 비해 한국어 조사와 어미의 공통점은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의 관점에 따르면 조사와 어미를 같은 범주로 묶어서 함께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양자의 공통점에 있다고 한다. 이어서 위에서 조사의 품사성을 고찰하는 데 적용한 기준들로 다시 어미를 다루면서 조사와 어미의 공통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조사와 어미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지 못하며 문장에서 선행하는 말에 붙어 그 말과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조사는 ‘선행어+조사’의 형식으로 선행어 뒤에 접속하여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의 문장성분으로서의 자격을 표시해 준다. 어미는 ‘선행어+어미’의 형식으로 선행어 뒤에 접속하여 문장에서 관형어, 부사어 등 여러 가지 성분을 담당한다. 조사와 어미는 예외없이 선행하는 어휘의 의미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도 않고, 오로지 고유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어미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고유의 어휘적 의미를 나타낼 수 없고 추상적인 문법적 의미만을 나타낸다. 조사와 어미는 접사와 달리 선행하는 단어를 새로운 단어로 만들게 하는 조어적 기능이 없고, 선행어와 함께 문장에서 한 문장 성분을 나타내는 것뿐이다. 그리고 형태 면에서 어미도 조사와 마찬가지로 음운론적 이형태가 있으며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격 조사 ‘가/이’나 목적격조사 ‘을/를’, 과거시제선행어말어미 ‘-았/었/였’ 등은 선행하는 단어의 철자가 모음이냐 자음이냐 등 음운론적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행 문법 체계에서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가진 조사와 어미를 다른 문법 범주로 처리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으며 종합적 체계처럼 조사와 어미는 함께 문법적 형태 ‘토’로 보는 관점이 더 합리적이다.

위에서 살펴본 조사와 어미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조사와 어미의 특성

| 기준 | 조사 | 어미 |
|-----------------|----|----|
| 자립성 | - | - |
| 어휘적 의미 | - | - |
| 문법적 의미 | + | + |
| 음운론적 이형태 | + | + |
|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 | + | + |

이 장에서 다루고자 한 것은 조사의 품사성, 즉 조사를 단어로 규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먼저 문법 연구에 가장 유용한 단어의 정의에 따르면 조사는 최소자립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단어로 보기 어렵다. 체언이 용언에 비해 대상을 지시하는 기능을 지니기 때문에 문장 속에서 자립성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체언 뒤에 덧붙는 조사까지도 자립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문장 내에서 체언과 서술어의 관계 및 체언과 다른 문장성분 간의 관계는 조사에 의해 결정되며, 문장 내에서 체언만으로 그 관계가 명확할 때 조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따라서 조사가 생략된다는 그 자체가 단어가 아니라는 것이 더 강하게 증명된다. 왜냐하면 문장을 이루려면 단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언어 유형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한 가지 보충할 점은, 조사가 서구적 굴절소와 다른 특징을 가진 교착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어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진호(1994)에서는 교착소를 단어로 처리할 것이면 조사만이 아니라 어미까지도 단어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실제로 교착소라도 굴절소와 마찬가지로 자립형식이 아니다. 박철우(2018: 336-343)에서 조사와 어미는 그것이 부가되는 어간의 통사적 자격을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그것들이 통사 핵이 되어 그 작용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사 단위들을 일일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자립 단위 중심의 통사 형태를 더욱 편리하게 기술하기 위하여 교착소를 단어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조사의 품사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사는 다른 품사와 여러 방면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품

사로 인정하는 것은 다소 합리적이지 못하다. 또한 조사와 어미의 여러 가지 공통점으로부터 보면 조사와 어미는 같은 문법 범주에 귀속시키는 것이 더 합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4. 결론

본고에서는 그동안 ‘단어’로 볼 것인가에 대한 쟁점적인 논의가 이어졌던 한국어 조사에 대해 재검토하여 조사가 단어가 아니고 어미와 같은 문법적 형태 ‘토’로 보는 관점을 주장하였다.

먼저 조사와 어미 범주 설정의 세 가지 체계를 제시한 다음 단어의 개념과 정립 기준에 대한 기존의 견해를 검토하여 단어의 정립 기준을 재확립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재검토하여 ‘자립성’은 단어 여부를 결정하는 데 매우 높은 가중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의 품사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사는 자립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단어로 보기 어렵다. 절충적 체계에 따르면 체언이 용언에 비해 자립성이 강하므로 체언 뒤에 덧붙는 조사까지도 자립성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선행 요소인 체언의 자립성 및 의미적 독립성을 근거로 조사의 단어 여부를 결정한 그릇된 판단이라고 보았다. 또한 조사가 생략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단어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교착소인 조사가 서구적 굴절소와 다른 특징을 가지더라도 굳이 단어로 볼 필요가 없는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품사 정립 기준으로 조사를 살펴보았다. 조사는 품사 정립 기준으로서의 의미, 형태, 기능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른 품사와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 독립적 품사로 설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어 조사는 단어로 규정하기가 어렵고 종합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여러 방면에서 공통점을 가진 어미와 함께 문법적 형태 ‘토’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와 어미를 묶어서 토로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자립성이 없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단어=품사=어절=띄어쓰기’의 단위와 일치하다는 등식의 성립으로 하여 언어단위와 현실과의 실용

성에 또한 도움이 되며, 나아가 실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적잖은 편리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문법적 형태로 처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논의하였으나, 토가 실제 교수 학습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에 대해 다룬 바 없다. 이는 후속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고신숙(1991) 『조선어리론문법』, 대제각, 36-42.
- 고영근(1993) 「재일동포의 모국어 교육 : 남북언어 이질화의 극복 ; 한반도 우리말 연구의 통합을 위한 테제」, 『이중언어학』 10(0), 이중언어학회, 129-146.
- 고영근·구본관(2018)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32-35.
- 과학원 언어문학연구소(1960) 『조선어문법 I』, 학우서방, 118-131.
- 구본관(2010)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2(2), 형태론, 179-199.
- 김건희(2013) 「품사의 분류 기준과 분류 체계-언어유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글』 (300), 한글학회, 75-118.
- 김건희(2014) 「단어, 품사, 문장성분의 분류에 대한 일고찰-상호 연관성과 변별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1(1), 인문학연구회, 279-316.
- 김기혁(1995) 『국어문법연구 : 형태·통어론』, 서울: 박이정, 84-89.
- 김민수(1960) 『국어문법론연구』, 서울: 통문관, 74-79.
- 김민수(1989) 『국어문법론』, 일조각, 67-70.
- 김병제(1959) 『조선어문법』, 학우서방, 89.
- 김수경(1954) 『조선어문법』, 교육도서출판사, 112.
- 김영황(2015) 『현대국어문법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34.
- 김원경·고창수(2016) 『꼭 알아야 하는 한국어 문법』, 한국문화사, 85.
- 김윤경(1948) 『중등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탑출판사, 18.
- 남기심·고영근 외(1985/2019) 『표준국어문법론』, 한국문화사, 55-57.
- 박상준(1932) 『조선어법』, 역대한국문법대계 탑출판사, 70.
- 박영목 외(2012) 『독서와 문법 I』,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62-271.
- 박진호(1994) 「통사적 결합 관계와 논항구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진호(1999) 「형태론의 제자리 찾기」 『형태론』 1(2), 형태론, 319-340.
- 박철우(2015) 「조사가 단어가 아니라면」, 『한국언어학회 학술대회지』 2015(7), 한국언어학회, 45-54.

- 박철우(2018) 「종합적 단어관의 전개 가능성 검토」, 『한글』 (320), 한글학회, 327-368.
- 서정수(1993) 「서평 : 고영근 지음 우리말의 총체적 서술과 문법 체계」, 『한국학보』 19(3), 일지사, 3286-3291.
- 서정수(2006) 『국어문법』, 서울: 한세본, 162.
- 서태용(2006) 「국어 조사와 어미의 관련성」, 『국어학』 0(47), 국어학회, 65-90.
- 신미화(2020) 「문법적 형태 ‘토’의 연구에 대한 사적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71(71), 한민족문화학회, 213-247.
- 안병희(1997) 「언어 연구의 회고와 전망」, 『인문논총』 38(0), 인문학연구회, 1-86.
- 이강로(1955) 「단어의 기준」, 『한글』 113호, 한글학회, 3-12.
- 이관규(1998) 「국사 인권환(印權煥) 의암 이기서(李起墅) 교수 화갑기념호 : 국어학; 학교 문법의 성격과 역사」, 『어문논집』 37(0), 민족어문학회, 385-410.
- 이관규(1999) 「언어교육: 북한 학교 문법의 체계와 내용」, 『화법연구』 1(0), 한국화법학회, 371-438.
- 이관규(2010) 「문법 교육: 학교 문법과 한국어 문법의 성격과 내용 체계」, 『문법교육』 13(0), 한국문법교육학회, 29-56.
- 이광정(1997) 「학교문법에서의 품사분류」, 『국어교육』 (94), 한국어교육학회, 41-76.
- 이광정(2001) 「국어 어휘의 품사별 의미 구조」,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 의미학』 8(-), 1-81.
- 이도영 외(2014) 『독서와 문법』, 창비, 80-194.
- 이상춘(1925) 『조선어문전』, 역대한국문법대계 답출판사, 35.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56-59.
- 이인모(1959) 『국문법연구』, 동화문화사, 111.
- 이지수(2021)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에 대한 국어교육적 고찰」, 『언어사실과 관점』 52(-),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307-325.
- 이창우(2003) 「중학교 조사(助詞) 교육 연구 : 조사(助詞)를 단어로 인정하는 교육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희승(1955) 『국어학개설』, 서울: 민중서관, 197-206.
- 유예(2007) 「남·북한 문법서의 품사분류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학위논문.
- 임홍빈(2001) 「국어 품사 분류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국어연구의 이론과실제』, 서울: 태학사, 705-761.
- 임홍빈(1997) 「국어 굴절의 원리적 성격과 재구조화 -‘교착소’와 ‘교착법’의 설정을 제안하며」, 『관악어문연구』 22(0),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93-163.
- 장광군(2003) 「어휘교육에서의 약어 교육- 한자어 약어를 중심으로」, 『한국(조선)어교육연구』 (1),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393-407.

- 정렬모(1946) 『신편 고등국어 문법』, 한글문화사, 12-15.
- 정인승(1959) 『고등말본』, 신구문화사, 52-53.
- 주시경(1910) 『국어문법』, 박문서관, 25-30.
- 최은지(2017) 「중국어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관형격조사 오류—첨가 오류와 누락 오류를 중심으로」, 『언어학』 0(77), 한국언어학회, 3-24.
- 최현배(1930, 1937) 『우리말본』, 역대한국문법대계 탑출판사, 138-142.
- 최형용(2010) 「품사의 경계」, 『한국어학』 47(-), 한국언어학회, 61-92.
- 최형용(2015) 「학교 문법 교과서의 품사 분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어와 정보 사회』 26(-),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507-548.
- 최형용·유완영(2015) 「韓·中·日 品詞 對照를 위한 品詞 分類 基準 設定」, 『어문연구』 43(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17-149.
- 최호철(2014) 「현대 국어 조사,어미의 분류 재고」, 『언어와 정보 사회』 23(-),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295-329.
- 하치근(2008) 「남북한 토씨의 비교 연구」, 『한말연구』 (22), 한말연구학회, 349-390.
- 한국국어교육연구회(1964), 『고등 국문법』, 역대한국문법대계, 탑출판사, 1-23.
- 한정환(2009) 「단어를 다시 정의해야 하는 시급한 이유들」, 『언어』 34(3), 한국언어학회, 761-788.

Bloomfield, L. (1933) *Languag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LTD, 177-178.

C.F. Hockett (1958) *A Course in Modern Linguistics*, Prentice Hall College Div, 167.

Henry Sweet (1891) *A New English Grammar*, Oxford: Clarendon Press, 20.

최근 평양시 대성구역에서 새로 발굴된 림흥동 1호우물유적에 대하여

Rimhungdong Relics of Well No.1
Newly Unearthed in Daesong District, Pyongyang City

정봉찬*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민족유산연구소, 고고학연구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유적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부입니다.》

력사유적과 유물은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민족의 재보이며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발전된 문화를 전해주는 귀중한 유산이다.

최근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에서는 평양시 대성구역 림흥동에서 우리 선조들의 뛰어난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2기의 우물유적을 새로 조사발굴하였다.

주체106(2017)년 6월초부터 10월말 사이에 조사발굴된 우물유적들은 림흥동소재지에서 남쪽으로 약 2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그림:1)

2기의 우물유적은 95m정도 사이를 두고있는데 조사발굴된 순서에 따라 림흥동1호우물, 림흥동2호우물로 부른다.

이 글에서는 림흥동1호우물의 구조형식과 우물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통하여 이 유적이 고구려시기의 우물유적이라는것을 밝히고 우물유적의 축조시

* Jong Pong Chan(Associate Professor, Instructor of the Office of Archeology under Institute of National Legacies, Faculty of History, Kim Il Sung University, DRPK)

기와 존재시기, 우물유적발굴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1. 림흥동1호우물유적의 구조형식과 발견된 유물

1.1. 림흥동1호우물유적의 구조형식

림흥동1호우물은 발굴당시 외부시설과 우물벽의 윗부분 일부가 파괴되어 없어진 상태이고 남아있는 우물벽도 일부가 부분적으로 로출되어있었다.(그림:2)

발굴을 진행한데 의하면 이 우물은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서 바닥을 마련하고 나무방틀을 설치한 다음 그 우에 돌로 벽체를 올려쌓는 방법으로 축조되었다.(그림:3)

바닥은 25~30cm정도의 두께로 강자갈과 모래, 진흙을 섞어서 다지였고 방틀은 두께가 5cm인 나무판자들로 한변의 길이 98cm, 높이 56cm되게 사개물림하여 평면이 4각형을 이루게 하였다.

방틀우에는 가공한 돌들을 어긋물림하여 벽체를 올려쌓았는데 남아있는 우물벽은 모두 27돌기이다.

제일 밑의 두돌기는 평면이 8각형이고 직경 102cm, 높이 0.61m이다. 여기에 리용된 돌들은 대체로 앞면이 46×31cm정도되게 가공한 사암이다.

그 위의 16돌기는 평면이 원형이며 높이가 약 2.43m이다. 벽체는 위로 올라가면서 넓어졌는데 직경이 밑부분은 102~103cm, 가운데부분은 106cm, 윗부분은 120cm이다. 여기에 리용된 돌들은 대부분 앞면을 네모나게 가공한 사암들이고 일부 화강암과 강돌도 쓰여졌다.

그 윗부분은 벽체의 일부가 파괴된 상태에서 9돌기 남아있었다. 이 구간의 우물벽평면은 역시 원형이고 그 직경은 128cm, 높이는 2.2m이다.

우물주변에는 윗부분의 벽체축조에 리용되었던 돌들이 널려져있었다. 재료는 사암과 화강암이며 대부분이 4각추모양으로 가공되었다.

우물벽의 뒤면에는 작은 돌이나 쪼각돌들을 끼워 맞추고 모래와 자갈, 진흙을 섞어 다짐하였다.

발굴된 우물벽의 높이는 5.8m이다.

파괴되어 없어진 우물벽윗부분의 지층과 문화층관계, 우물주변에 널려져있는 돌들과 연관시켜보면 우물벽의 본래 높이는 약 10m로 인정된다.(그림:4)

1.2. 림흥동1호우물유적에서 발견된 유물

발굴과정에 우물안에서는 질그릇조각, 기와조각, 쇠가마조각, 수레굴통쇠조각, 바둑판조각, 나무조각 등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질그릇조각들가운데서 3개체분이 복원가능한데 하나는 아구리끝이 밖으로 제껴지고 짧은 목이 달렸으며 몸체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완만하게 좁아져 밑창과 이어졌다. 바탕흙은 진흙에 굵은 모래를 섞어서 리용하였고 색깔은 회색을 띤다. 크기는 높이가 25cm, 아구리직경 6cm, 몸체의 최대직경 24cm, 밑창직경 10cm이다.(그림: 5-1)

다른 하나는 그릇의 윗부분이 깨진것인데 몸체가 가운데부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사선으로 좁아졌으며 밑창중심에《田》(밭 전)자가 돌을새김되어 있다. 바탕흙은 진흙에 가는 모래를 섞어서 리용하였고 색깔은 회색이다. 크기는 몸체직경 20cm, 밑창의 직경 10.5cm이다.(그림: 5-2)

또 다른 하나는 아구리끝이 밖으로 제껴지고 몸체의 가운데부분이 불룩하게 나왔으며 아래로 내려가면서 둥그스름하게 좁아져 밑창과 이어졌다. 바탕흙은 진흙에 가는 모래를 섞어서 리용하였고 색깔은 검은색을 띠는데 그릇겉면에 돌림판을 리용하면서 생긴 흔적이 나타나있다. 크기는 그릇높이 13cm, 아구리직경 8.5cm, 몸체직경 15cm, 밑창직경 9.5cm이다.(그림: 5-3)

기와조각은 100여점이 나왔다. 암기와와 수기와조각들이며 모두 진흙에 가는 모래를 섞어서 만들었고 색깔은 붉은색을 띤다.

암기와조각들은 안쪽면에 배천자리가 있으며 등면에 새겨진 무늬에 따라 격자무늬암기와, 전나무잎무늬암기와, ㄱ모양 부호가 새겨진 암기와, 노끈무늬암기와 등으로 구분된다. (그림: 6-1, 2, 3, 4, 5, 6)

격자무늬암기와조각들은 등면에 새겨진 무늬가 다시 굵은 무늬와 가는무

니로 구분되며(그림: 6-1, 2) ㄱ모양 부호가 새겨진 쪼각들도 등면에 각이한 크기의 모양 부호를 단독으로 새긴 쪼각들과 그것을 격자무늬, 전나무잎무늬와 함께 새긴 쪼각들로 구분된다. (그림: 6-4, 5)

노끈무늬암기와쪼각은 우물바닥 다짐층에서 1점이 나왔는데 그 두께는 2.5cm이다.(그림: 6-6)

수기와쪼각들은 모두 앞부분이 넓고 뒤로 가면서 점차 좁아진 형태들이다. 기와의 안쪽면에는 베천자리가 있고 등면에는 대부분 무늬가 없으며 그 두께는 1cm정도이다.(그림: 6-7, 8)

쇠가마쪼각은 2개체분이 깨여진 상태로 알려졌다. 한개체분은 두께가 얇고 몸체에 좁은 테가 있다. 아구리끝은 안쪽으로 꺾이였으며 아구리에서 아래로 6cm내려와서 테가 가로 한줄 돌려져있다. 쇠가마의 아구리직경이 43cm, 두께 0.5cm이며 테의 너비 1cm, 두께 1.1cm이다.(그림: 7-1)

다른 한개체분은 가마의 두께가 두텁고 몸체에 넓은 테가 있다. 몸체의 대부분과 아구리, 밑창부분은 깨여져나가 없어진 상태이므로 생김새와 크기를 잘 알수 없다. 남아있는 쇠가마두께는 1.4cm이고 테의 너비 4cm, 테의 두께 1.8cm이다.(그림: 7-2)

수레굴통쇠쪼각은 3점 알려졌다. 그가운데서 1점은 겉면에 4cm사이의 간격을 두고 높이 0.4cm, 너비 0.5cm되는 턱이 두줄로 돌출되어있다.이 쪼각의 두께는 두터운 부분이 1cm, 얇은 부분이 0.5cm이다.(그림: 8-1) 이 쪼각을 나머지 2점의 쪼각들과 서로 연결하면 평면이 6각형이고 안쪽은 원형을 이룬다.

바둑판쪼각은 모두 12점이 나왔는데 고령석을 넘적하게 가공하여 만든 돌판우에 가로세로 선을 긋고 사킴점들에 작은 원을 새기였다, 그가운데서 가장 큰 쪼각은 윗면에 가로 6줄, 세로 9줄의 선들이 있으며 작은 원으로 나타낸 화점(경기를 시작할 때 바둑알을 놓는 점)은 우에서부터 4번째 가로선과 왼쪽으로부터 3번째 세로선의 사킴점에 1개 있고 오른쪽으로 3번째 사킴점에 또 1개가 있다. 이 쪼각의 양옆에는 작은 쪼각 2점이 연결되며 왼쪽으로 연결되는 쪼각에는 화점이 하나 더 있다. 그러므로 3개의 화점들이 한선우

에 배치되어있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 화점들의 좌우, 상하에 세로선과 가로선이 2줄씩 있고 그 다음에도 공간이 있다.

돌판위에 가로선과 세로선이 사귀면서 생긴 네모칸 한개의 크기는 가로 3.7cm, 세로 3.9cm이며 화점의 직경은 1.1cm이다.(그림: 9)

이밖에도 우물안에서는 용도를 알수 없는 쇠조각, 가공한 나무조각들을 비롯하여 많은 유물들이 나왔다.

림흥동1호우물은 그 구조형식과 축조방식, 우물안에서 나온 유물로 보아 고구려시기의 우물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림흥동1호우물은 바닥과 나무방틀, 돌로 축조된 우물벽으로 이루어졌으며 우물벽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평면이 4각형, 8각형, 원형을 이루게 쌓고 그 직경도 구간마다 서로 다르게 한데서 이미 알려진 고구려의 고산동 우물, 정릉사우물과 공통성을 가진다.

그리고 우물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아도 등면에 노끈무늬와 전나무잎무늬가 새겨진 붉은색기와들은 고구려의 정릉사터와 정릉사우물, 평양성(장안성), 서산성(적두산성) 등에서 알려졌고 짧은 목이 달린 질그릇도 정릉사우물에서 나왔으며 등면에 ㄱ모양의 부호가 새겨진 기와는 서산성에서 이미 알려졌다.¹

이것은 림흥동1호우물이 명백히 고구려시기의 우물이라는것을 말해준다.

2. 림흥동1호우물유적의 축조시기와 존재시기

2.1. 우물벽축조재료를 통하여 본 축조시기

림흥동1호우물의 축조시기는 우물벽축조재료를 가지고 추정할수 있다.

림흥동1호우물의 우물벽축조재료를 보면 기본이 사암이 리용되었지만 우물벽윗부분에는 일정한 량의 화강석도 포함되어있었다. 그러나 고산동우물

1 리광성(2020) 「림흥동1호우물발굴보고」,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편) 『조선고고연구』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1-24.

이나 정릉사우물의 우물벽축조에는 기본적으로 대성산일대에 흔한 사암이 쓰이었다.

또한 립흥동1호우물의 우물벽축조에 리용된 돌들은 고산동우물이나 정릉사우물의 돌들에 비하여 얼마간 크며 전반적으로 보다 정교하게 가공되었다. 립흥동1호우물의 우물벽축조에 쓰인 돌들가운데서 26개를 선택하여 앞면의 높이와 너비의 비를 통계학적으로 분석한데 의하면1:1.6정도이다.

고구려에서는 건축재료로 돌이 많이 리용되었는데 5세기초 평양으로 수도를 옮길 당시와 그 이후시기의 건축용석재를 보면 재료와 형태 등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었다.

5세기초에 고구려의 수도방위성으로 리용된 대성산성축조에는 대부분 사각추모양으로 가공한 사암이 쓰이었다면 평양성(장안성, 586~668년)의 성벽축조에는 사암과 함께 화강암도 리용되었다.

성돌들의 형태를 보아도 대성산성축조에 쓰인 성돌들의 앞면 높이와 너비의 비는 대체로 1:1.226이고 평양성성돌들의 비는 1:1.5~1.6정도로서 대성산성의 성돌들에 비하여 그후에 건설된 평양성의 성돌앞면이 상대적으로 더 길어졌다.²

대성산성과 평양성(장안성)의 성벽축조에 쓰인 돌들과 립흥동1호우물, 고산동우물, 정릉사우물의 우물벽축조에 쓰인 돌들을 비교하여 보면 그 재료와 형태에서 고산동우물과 정릉사우물은 안학궁과 대성산성을 건설하던 시기에 가깝고 립흥동 1호우물은 평양성(장안성)을 건설하던 시기에 더 가깝다는것을 알수 있다.

고구려에서 평양성(장안성)건설은 55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따라서 립흥동 1호우물은 평양성(장안성)을 건설하던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축조되었다고 할수 있다.

2.2. 유물을 통하여 본 축조시기

2 리광희, 박준호(2013) 「고구려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방법」,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편) 『조선고고연구』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42-46.

림흥동1호우물의 축조시기는 우물안에서 나온 유물들을 통해서도 해명할 수 있다.

이미 앞에서 본바와 같이 림흥동1호우물의 발굴과정에 유물들이 적지않게 알려졌는데 그가운데서 우물의 축조년대와 존재시기를 잘 알수 있게 하는 유물은 기와조각들이다.

림흥동1호우물에서 나온 기와들은 모두 진흙에 가는 모래를 섞어서 만든 붉은색기와들이다.

고구려시기 집안에 수도를 정하고있던 4세기말~5세기초까지는 붉은색기와가 거의나 쓰이지 않았다.³

고구려에서 붉은색기와는 안학궁과 대성산일대에 수도를 정하고있던 시기에 많이 리용되였다. 그것은 대성산성에서 나온 고구려기와들의 절대다수가 붉은색기와들이라는 사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⁴

그런데 림흥동1호우물에서 나온 기와들가운데는 색깔과 재질뿐아니라 등면에 새겨진 무늬에서 대성산성과 서산성(적두산성)에서 알려진 기와들과 같은것들이 있다.

림흥동1호우물의 바닥다짐층에서는 등면에 노끈무늬가 새겨진 붉은색암기와조각이 나왔는데 노끈무늬기와는 대성산성과 서산성(적두산성)에서도 알려졌다.

대성산성의 남문터와 성안의 건축터들에서 나온 붉은색암기와조각들의 등면에는 노끈무늬가 장식되여있는것이 보이며 남문터에서 발견된 온전한 붉은색수기와의 등면에도 노끈무늬가 새겨져있었다.⁵

만경대구역 서산에 위치하고 있는 서산성(적두산성)의 성안과 성벽에서도

3 리광성(2020) 「림흥동, 청호동일대에서 새로 발굴, 수집한 고구려유적유물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고고학강좌(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16.

4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및 민속학강좌(1973) 「대성산성에서 나온 유물」, 『대성산의 고구려 유적』,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81-93.

5 김일성종합대학 고고학 및 민속학강좌(1973) 「대성산성에서 나온 유물」, 『대성산의 고구려 유적』,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81-94.

고구려시기의 붉은색기와들이 많이 발견되었으며 그가운데도 노끈무늬기와들이 있었다.

대성산성은 5세기초이후에 사용되었고 서산성(적두산성)은 성의 위치와 자연지세, 성벽축조방법, 성벽과 성안에서 발견된 유물들로 보아 고구려의 평양성(장안성)과 거의 같은 시기 또는 그 이후시기인 6세기 중말엽경에 수도방위성으로 쌓았다고 보고있다.⁶

그러므로 붉은색노끈무늬기와는 5세기초부터 6세기 중말엽경까지의 시기에 쓰인것으로 편년되고있다.

또한 립흥동1호우물에서 알려진 등면에 ㄱ모양의 부호가 새겨진 붉은색기와가 서산성(적두산성)에서 발견되었고 등면에 격자무늬가 새겨진 붉은색기와는 고구려가 평양성(장안성)에 수도를 정하였던 시기에 많이 사용되었다.⁷

이것은 립흥동1호우물에서 알려진 기와들이 모두 5세기초 이후에 쓰인 기와들이며 등면에 ㄱ모양부호와 격자무늬가 새겨진 기와들이 적지않은것으로 보아 서산성(적두산성)과 평양성(장안성)의 기와들과 더 공통된다는것을 말해준다.

2.3. 14C년대측정자료를 통하여 본 축조시기

립흥동1호우물의 축조년대는 우물안의 나무방틀시료에 대한 14C년대측정자료를 통하여 보다 명백히 알수 있다.

우물유적의 절대년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무방틀조각을 선택하였다. 그것은 나무방틀이 우물의 제일 밑에 설치되어있고 우물축조당시의 본래상태

6 차달만(2012) 「적두산성에 대하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편) 『조선고고연구』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44-46.

남일룡(2013) 「새로 발굴된 서산성(적두산성)의 축조시기」,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편) 『조선고고연구』 1,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3-15.

7 리광성(2020) 「립흥동, 청호동일대에서 새로 발굴, 수집한 고구려유적유물에 대한 연구」,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고고학강좌(편),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16.

를 그대로 보존하고있기때문에 우물의 년대를 밝히는데서 중요한 자료로되기때문이다.

나무방틀시료를 14C년대측정법(가속기질량분석-AMS)으로 측정한데 의하면 상한이 5세기초(428년)이고 하한이 7세기초(605년)로서 그 년대는 6세기 초중엽경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림흥동1호우물의 축조시기는 6세기 중엽경으로 보게 된다.

2.4. 림흥동1호우물유적의 존재시기

림흥동1호우물은 6세기중엽경에 축조되어 고구려말기인 7세기중엽~말엽까지 존재하면서 쓰이였다.

림흥동1호우물의 존재시기는 우물안에서 나온 질그릇과 기와조각들을 통하여 알수 있다.

림흥동1호우물에서 알려진 질그릇조각들가운데는 좁고 낮은 목이 달린 단지를 비롯하여 아구리형태와 직경, 두께, 재질이 정릉사우물에서 나온 질그릇들과 매우 비슷한것들이 있다.

정릉사와 정릉사우물은 5세기초에 건설되어 고구려가 자기의 존재를 끝마칠 때까지 리용되였다.

그리고 림흥동1호우물에서 나온 등면에 격자무늬, 전나무잎무늬가 새겨진 기와조각들은 7세기 중엽~말엽경까지 리용된 고구려의 평양성(장안성)과 서산성(적두산성)에서 이미 많이 알려졌다.

그러므로 림흥동1호우물이 쓰인 시기를 정릉사우물의 폐기년대와 같이 고구려말기인 7세기 중엽~말엽까지로 보게 된다.

이와 같이 림흥동1호우물은 그 구조형식과 우물벽축조방식, 축조재료, 우물에서 나온 유물, 절대년대측정자료 등으로 보아 평양성(장안성)건설과 같은 시기인 6세기 중엽경에 축조되어 고구려말기인 7세기 중엽~말엽까지 쓰이였다.

3. 립흥동1호우물유적발굴이 가지는 의의

립흥동1호우물유적발굴이 가지는 의의는 6~7세기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하여온 고구려의 역사를 새롭게 해명할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마련되었는데 있다.

고구려는 수도를 평양성(장안성)으로 옮겨간 이후에도 안학궁, 대성산성과 가까운 립흥동일대를 계속 중시하였고 이 지역에 적지 않은 사람들을 남겨 생활하게 하였다.

고구려가 6~7세기에도 립흥동일대를 계속 중시한것은 고구려의 역사에서 오랜 기간 이 일대가 중요한 지위에 있었기때문이라고 볼수 있다.

고구려는 벌써 1세기에 평양일대에 진출하여 락랑국을 멸망시키고 그자리에 조선후국을 세웠으며 립흥동일대를 거점으로 삼고 발전된 문화를 창조하면서 각 방면에서 기반을 확고히 다져나갔다. 그리하여 247년에는 립흥동일대와 가까운 지역에 평양성(청암동토성)을 쌓고 립시로 수도를 정할수 있게 되었다.⁸

343년에는 고구려의 고국원왕이 평양의 동황성에 옮겨앉았다는 기록이 전해지고있는데 그 동황성을 바로 립흥동일대로 보는 견해가 있다.⁹

이것은 립흥동일대가 고구려의 평양진출과 립시천도를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는것을 보여준다.

고구려는 그후 립흥동일대의 이러한 지위를 더욱 확대하여 대성산성과 안학궁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수도를 건설하고 427년에 평양천도를 진행하였다.

고구려는 6세기 중엽이후에 수도를 새로 평양성(장안성)으로 옮기면서 많

8 손영종(2006) 「락랑국의 통합 및 조선소국의 성립, 살수이남에서 락랑국·후기락랑국의 재건」, 『조선단대사』 “고구려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42-144.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1991) 「평양성으로의 립시천도」, 『조선전사』 3 “중세편·고구려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65-66.

9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1991) 「남평양의 건설과 후방의 강화」, 『조선전사』 3 “중세편·고구려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70-73.

은 주민들을 이주시켰지만 림흥동일대에 대성산성과 고방산성 등을 관리하고 전시에 지킬수 있는 사람들을 남겼으며 이 일대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하였던것이다.

새로 조사발굴된 림흥동1호우물유적과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은 바로 이러한 력사적사실들을 보여주는 고고학적자료로 된다.

림흥동1호우물유적발굴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6~7세기에 높이 발전한 고구려의 우수한 문화수준을 잘 알수 있게 한다는데 있다.

림흥동1호물의 구조형식을 보면 고구려사람들이 우수한 물정제기술을 창안도입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수질이 좋은 음료수를 리용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물은 깊이가 약 10m정도이며 바닥에 나무방틀을 놓고 그우에 돌도 우물벽을 축조하였는데 우물벽뒤면은 진흙과 돌을 섞어 잘 다져 밀착시켰다. 그러므로 땅겉면의 비물과 오염된 물은 우물벽을 통하여 안으로 직접 들어오지 못하며 10m정도의 지층을 거쳐 1차적으로 려과되면서 지하수층에 이르게 된다.

이런 깊은 곳의 지하수는 음료수로 리용할수 있는 기준에 부합되는데 고구려사람들은 이런 지하수를 다시 려과하는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다.

우물바닥은 강자갈과 모래, 진흙을 섞어서 20cm이상의 두께로 잘 다진 상태이고 그 우에 나무방틀을 설치하였기때문에 지하수는 이 다짐층과 방틀을 거쳐 다시 려과되어야만 우물안에 스며들게 되었다.

림흥동1호우물의 나무방틀은 고구려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우물에 대한 정상관리도 깨끗하게 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나무방틀은 물을 려과하는것과 함께 우물을 청소할 때 바닥에 쌓인 감탕을 씻어내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구조물로도 볼수 있다.

우물을 일정한 기간 사용하면 바닥부분에 감탕이 형성되므로 그것을 가져내기 위한 작업을 하게 된다. 이때 밑바닥부분에 깔린 감탕을 깨끗이 제거하자면 울퉁불퉁한 돌보다 나무로 만든 매끈한 벽이 훨씬 더 편리하였다고 볼수 있다.

이처럼 우물의 구조형식은 고구려사람들이 우수한 물정제기술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우물의 정상관리도 항상 깨끗하게 진행하였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우물에서 발견된 돌바둑판도 고구려사람들의 높은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의 하나이다.

고구려사람들이 바둑을 잘하였다는 문헌기록은 있지만 고구려시기의 바둑판은 지금까지 실물로 알려지지 않았다. 립흥동1호우물에서 처음으로 19줄짜리 돌바둑판이 알려지고 그것이 세계적으로도 제일 이른 시기에 속하며 고려에 이어 조선봉건왕조시기에로 이어졌다는것이 새롭게 밝혀지게 되었다.

이것은 고구려문화의 독자성과 우수성, 중세 우리 나라 력사발전에서 고구려문화가 논 결정적역할을 잘 알수 있게 한다.

이밖에도 립흥동1호우물에서 나온 대형쇠가마조각, 조립식수레굴통쇠조각, 나무단지조각 등의 유물들도 금속주조기술을 비롯하여 당시 고구려문화의 높은 발전수준을 잘 보여준다.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립흥동1호우물유적과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은 6~7세기 평양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한 고구려의 력사와 문화, 고구려인민들의 창조적지혜와 문명수준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의 하나로 된다.

【부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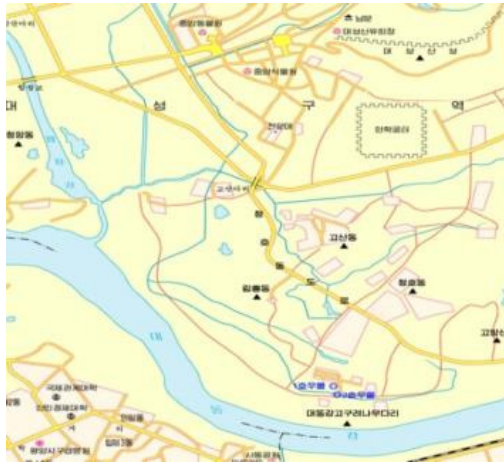


그림 1: 림홍동의 지리적위치



그림 2: 시굴당시의 1호우물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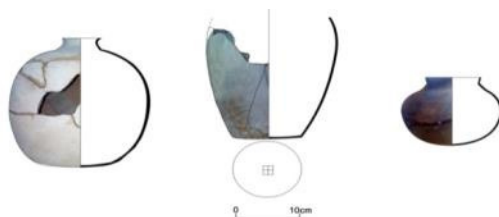


그림 5: 질그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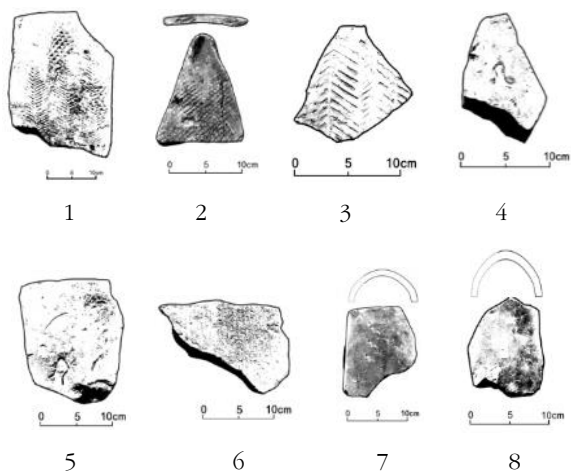


그림 6: 기와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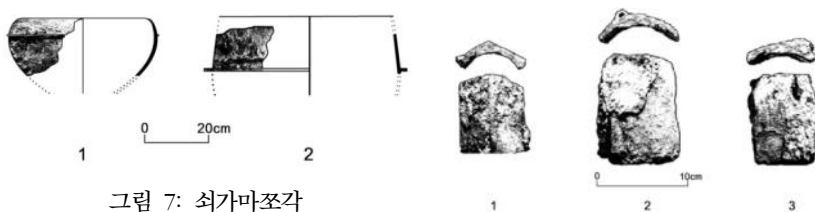


그림 7: 쇠가마조각

그림 8: 수레굴통쇠조각

그림: 복원된 쇠가마조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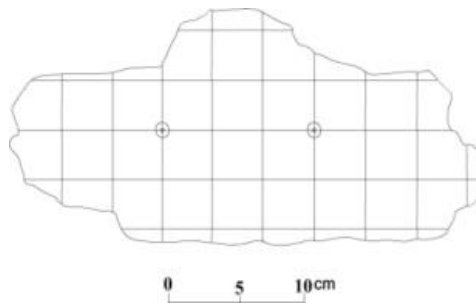


그림 9: 바둑판조각



그림 10: 나무조각

일본 법륭사에 전해오는 옥충주자의 국적에 대하여

The Nationality of 옥충주자(玉虫廚子, Tamamusino zuji)
in Bobryung Temple in Japan

조희승*

조선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의 발전된 문화는 일찍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졌으며 주변나라들의 문화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가 고대일본의 문화발전에 준 영향은 대단히 큼니다.》

일본의 나라현 법륭사에 있는 옥충주자(玉虫廚子)는 아스까문화를 대표하는 일본의 국보급유물의 하나로서 예로부터 건축양식과 조각, 회화 그리고 장식무늬가 독특한것으로 하여 미술사가들의 눈길을 모아온 세계적인 걸작품이다.

그러므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옥충주자의 제작자가 누구이며 국적이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밝히려고 한다.

1. 아스까문화의 조선적 성격

옥충주자가 아스까문화를 상징하는 공예품의 하나인것만큼 아스까문화의

* Jo Hui Sung(Professor, Researcher of Institute of History,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성격문제, 말하자면 아스까문화가 일본의 력사발전단계의 체내에서 창조된 문화인가, 아니면 외래문화의 영향에 의해서 발생발전한 문화인가 하는 문제부터 규명되어야 한다.

일본에서 아스까(飛鳥)문화라고 할 때 나라 야마토분지에 꽃핀 문화를 가리킨다.

아스까문화에 대한 일본학계의 견해를 반영한 『일본사사전』(가도카와서점 1982: 22)에는 “아스까문화의 특질을 종합적으로 볼 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조선삼국의 문화와 중국 육조(六朝)문화의 영향이 농후한것, 불교문화라는것, 아스까를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것이였다는것 등을 들수 있다.”고 하였는데 비교적 정확하게 서술하였다고 본다. 다만 “중국 육조의 영향”이라는 것만은 사족(蛇足)이다.

아스까문화시기라는것은 고분시대(4세기~7세기중엽)의 말기에 해당되는 6세기 중엽부터 7세기중엽까지의 한세기동안의 미술사적시기구분을 말한다. 교토 광릉사의 미륵반가사유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스까문화의 중요유적유물들이 나라 야마토분지의 남부 아스까일대에 집결되어있다. 때문에 국지적(局地的)이라고 말하는것이다. 대표적인 유적으로서는 다카마쓰즈카고분, 기또라고분, 이시부타이고분, 법릉사금당 등이 있으며 조각상으로는 법릉사 금당 석가삼존상, 안거원(본래 법흥사)의 석가상(일명 아스까대불—장륙불), 법릉사 몽전 구세관음상, 백제관음상 등이 있으며 공예품으로는 법릉사의 옥충주자, 중궁사의 천수국만다라수장 등이 있다.

이 일련의 문화유적유물이 조선적성격을 띠는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사람들이 현지에서 만들어준것이거나 조선에서 직접 보내준것이기때문이다. 『일본서기』를 비롯한 고문헌의 기록들에 그에 대하여 밝혀져있다. 가령 지금은 상부구조가 없어지고말았으나 일본최초최대의 대규모사찰(절)이라고 하는 법흥사(아스까사)는 백제에서 사원건축가 등을 직접 보내서 완공하였고 거기에 안치할 현존하는 석가상(아스까대불) 역시 백제사람 구라쓰꾸리노도리(鞍作鳥上利)가 만들었다. 이 동상에 도금할 금(300량)은 고구려가 직접 보내주었다. 천수국수장도 고구려사람 고마노가서이(高麗加西湊), 백제사

람 아마또노아야노맛겐(東漢末賢), 가야사람(후손) 아야노누가까고(漢奴加己利)가 바탕그림을 그리고 신라사람 구라베노하따노꾸마(椽部秦久麻)의 감독 하에 완성하였다고 한다.

그에 대하여서는 천수국수장의 명문에 밝혀져있다. 6세기에 축조된 다가마쓰즈까고분과 7세기초의 기또라고분 역시 고구려무덤벽화를 방불케 하는 고구려고분이다.

또한 나라 법릉사에 보관된 백제관음상을 비롯한 일련의 나무조각품(교또광릉사 역시 조선제가 분명하다. 7세기 중엽 조선에서 삼국시기가 종결되고 고구려, 백제의 일본열도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적영향이 없어지고 하꾸호(白鳳)문화, 텐뵘(天平)문화가 지배적인것으로 되면서 “이국적정서”가 점차 사라지고 일본의 “토착적색채”가 짙어지게 되는것이다. 요컨대 아스까문화는 조선적색채가 아주 강하고 농후한 문화로 특징지어진다. 그렇다고 하여 일본학자들은 아스까문화의 일련의 유적유물을 “조선제”라고 찍어말하기 싫어하며 막연하게 “대륙”과 “대륙문화”의 전래 또는 그 영향이라고만 하면서 조선적색채가 농후한 아스까문화의 조선적성격을 얼버무리려 한다.

2. 옥충주자를 구성하는 제부분

옥충주자는 크게 궁전모양의불감과 그것을 받치고있는 수미좌부(수미단)로 구성되어있다. 불감과 수미좌부에는 붉은색, 누른색, 푸른색의 칠(漆)감으로 그림을 그렸으며 불감안에는 천불상이 배열되어있다. 천불상은 4468체(體)라고 한다. 이 옥충주자를 넘두에 둔 기록으로는 『성덕태자전사기』(일명 『고금목록초』)가 있다. 13세기 전반기에 편찬된것으로서 현진(顯眞 1131~1192 겐신)이 썼다.

『성덕태자전사기』(聖德太子傳私記)에 의하면 옥충주자에 안치한 부처는 “1만3천불”이라고 한다. 아마도 많다는 뜻으로 형상적으로 쓰인 표현일것이다. 이 돌을새김을 한 천불상도 우수한 장식미로 하여 높이 평가되고있다.

불감의 정면과 랑측면에는 각각 두개의 문이 달려있으며 매 문짝에는 한

명의 중이 그려져있다. 정면문에는 무인상 두상이 서로 마주 서있고 광측면의 문에는 각각 두상의 보살상이 좌우대칭으로 그려져있다.

수미좌부의 배경면에는 수미산을 둘러싼 공간에 세발까마귀(삼족오)와 섬여 등으로 상징되는 해와 달 그리고 선인, 천마 등의 그림이 그려져있다.

옥충주자에서 특별히 이목을 끄는것이 옥충(딱장벌레 혹은 길정충, Chrysochroafulgidissima)의 날개로 독특한 장식적효과를 낸 기법이다. 불감의 네 모서리기둥과 도리(楣), 문의 안쪽테두리와 계단의 측면, 수미좌부의 측면 테두리 등에 딱장벌레의 나래를 덮었다. 그리고 그 위에 금동뿔음장식판을 대었다. 이런데로부터 이 주자의 이름을 말그대로 옥충주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문제는 이 옥충주자의 제작자가 누구이며 국적이 어디인가 하는데 있다. 적지 않은 일본학자들은 이 세계적인 공예품을 일본국보라고 말하면서도 딱히 찍어서 “일본제”라고 자신있게 단언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조선제”라고도 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가운데는 기법상 조선제일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또 “조선제”라고도 하지 않는다.

옥충주자가 어느 나라의것인가를 아주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그 근거에는 옥충주자를 비롯한 아스카문화의 유적유물들이 “야마토조정에 의한 ‘임나일본부’의 설치로 조선에서 장공인들과 노예들을 끌어온 결과” 생긴것처럼 말하는 “귀화인사관”·“조선반도교량론”과 같은 제국주의식민지사관이 깔려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이 세계적인 걸작품의 제작자와 국적을 밝히는것은 미술사적견지에서 보나 “초기조일문화관계사”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3. 옥충주자의 제작자와 국적문제

옥충주자의 제작자는 고구려사람(장공인)이며 그 국적도 조선(고구려)이다. 물론 일본의 건축사가들인 이또 쥬따(伊東忠太)와 세끼노 따다수(關野貞)는 백제제작설을 주장하였으나 대부분의 일본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난색을 표시하곤 하였다. 이또 쥬따는 1898년에 발표한 “법륜사건축론”에서 옥충

주자의 제작은 “백제인의 손에 의한것이며 순전한 백제미술”이라고 단언하였다.

일본의 이름난 건축사가였던 무라타 지로(村田治郎)는 자기의 글 「옥충주자는 어디서 만들어졌는가」(『불교예술』 1948년 12호)에서 “법륜사의 옥충주자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하는 문제는 일본의 미술사의 첫시기에 있어서의 대난관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미술사에서는 마치도 일본제로 규정하고 문제는 상정시키지 않고 그 제작자와 국적문제는 피해가면서 이여의 문제만을 논의하고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외국제라고 한다면 소위 아스까시대에 큰 구멍이 나서 회화사나 공예사측면에서는 당장 조직에 곤난을 가져올것이 분명하다.”라고 적어 말하였다. “조직에 곤난을 가져온다”는것은 이제까지 “일본의 국산제”라고 하던 옥충주자의 제작자, 국적문제에 대한 인식체계, 인식조직이 허물어진다는 뜻이다. “큰 구멍이 난다”는것은 아스까문화가 일본 “야마토조정”이 창조한 고유한 문화라고 하는 일제시기 구축한 인식조직에 큰 파열구가 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옥충주자의 제작자와 국적문제는 오래전부터 중요한 문제로 거론되어왔다.

“황국사관”이 대두하기전까지만 해도 일본학계에서는 이또나 세끼노처럼 백제제작설이 널리 퍼졌으나 파쑈통치가 강화되고 “황국사관”이 강하게 지배하게 되면서부터 “조선제”주장은 날아나고 말았다. 그대신 “일본야마토제”일색화가 강요되었다. 그만큼 옥충주자의 제작자와 국적문제는 중요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옥충주자는 미술사적견지에서나 공예사적견지에서 아스까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면서도 아스까문화의 성격을 규정짓는 중요한 징표로 될수 있기때문이다.

필자는 옥충주자가 조선적성격이 강한 공예품이며 그렇다고 하여 세기노따다스와 같이 백제에 계보가 이어지는것이 아니라 그 제작기법으로 보아 고구려에 연원과 계보가 이어지는 고구려적색채, 고구려적성격의 공예품이라고 주장한다. 다시말하여 옥충주자의 건축양식, 회화, 공예의 장식효과 등 모든것이 고구려의 독특한 공예기법을 적용되어있다. 요컨대 고구려문화를 함축하고있는것이 바로 옥충주자라는 사실이다.

4. 옥충주자의 제작자를 고구려로 보는 근거

옥충주자를 고구려적색채가 강하고 고구려적성격의 공예품으로 보는 근거는 첫째로, 옥충주자가 이 주자의 이름이 붙은 옥충 즉 딱장벌레의 나래를 갈아서 장식효과를 돋구는 고구려적기법을 쓰고있기때문이다. 딱장벌레의 나래로 장식하는 기법은 고구려의 고유한 기법이며 이러한 독특하고 우수한 기법이 남쪽나라들인 신라, 가야에도 전달되고 일본열도에도 전파보급되었다.

그러한 장식기법으로 만들어진 금동해모양뿔음무늬장식품이 평양시 력포 구역 진파리7호무덤에서 나왔다. 이 유물은 복숭아를 절반 갈라서 한쪽으로 기울인 모양인데중심에는 도간도간 구슬을 박은 두점의 동그라미테두리속에 해를 상징하는 세발까마귀가 형상되어있다. 그 두리에는 불꽃구름(流雲)무늬가 새겨져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되는것은 금동관뒤에 딱장벌레의 아룡진 나래를 갈아 금록색을 배경으로 하여 금동관이 눈부실정도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게 한 그 찬란하고 놀라운 독특한 기법이다.

고구려에서 창조된 이와 같은 우수한 공예기법은 남쪽 나라들인 신라에도 전해졌다. 신라의 황남대총(경주 98호무덤) 북쪽무덤에서는 딱장벌레로 장식한 넝쿨뿔음새김말안장쇠붙이가 드러났고 경주 금관무덤에서 드러난 말안장과 등자(쌍)행엽에는 장식으로 딱장벌레의 나래를 도금한 금동뿔음새김쇠붙이아래에 쭉 깔아놓았다.(「경주 금관무덤과 그 보물」 고적조사 특별보고 제3책, 조선총독부, 1924년)

4~5세기 당시 신라는 소국으로서 고구려의 속국적지위에 있었다. 고구려 군단이 경주에 주둔해있었고 신라 매금(임금)이 광개토왕의 보호를 받기 위하여 애쓰면서 평양에 오고감으로써 고구려문물을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고구려문물이 신라에 수많은 류입되었다. 금관무덤(금관총), 봉황무덤, 호우무덤 등에서 드러난 여러 문물들은 적지 않게 고구려문물들이었다. 특히 광개토왕과 관계된 유물이 호우무덤에서 드러났다.(1946년) 당시의 고구려-신라관계를 반영한 사실은 『삼국사기』(신라본기)와 광개토왕릉비, 중원고구려비 그리고 여러 신라무덤출토유물들이 잘 보여주고있다. 금관무덤을 비롯한

여러 무덤의 마구류에서 보는 뚫음무늬새김판아래에 깔아놓은 딱장벌레의 나래장식 역시 그러한 고구려—신라관계의 맥락에서 고찰되어야 할 중요한 장식기법이다.

알다시피 딱장벌레는 몸길이가 3~4cm밖에 안되는 곤충의 일종으로서 조선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 . 날개는 아름다운 금록색을 띠고있는데 특히 두 줄의 자홍색무늬가 질게 나타나있는것으로 하여 특이한 색감을 안겨오게 한다. 장식품의 테두리뒤부분에 돌아가면서 딱장벌레의 나래를 깔아놓았는데 나래딱지는 윤택있는 금록색 및 진록색바탕중심에 세로 자홍색의 가는 두줄이 나타나있다. 이러한 나래장식은 뚫음무늬금속공예장식품을 더 화려하게 돋구기 위한 장공인들의 독특하고 기발한 창상으로서 고심끝에 생긴 장식효과이며 창의창발품이다. 딱장벌레의 나래를 사용하는 이와 같은 독특한 장식효과를 노린 공예품은 세계공예사에서도 매우 보기 드물다. 다시말하여 이와 같은 장식기법은 고구려에 고유하고도 독특한 창작적기법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바로 그러한 장식효과가 옥충주자에 도입되어있다.

일본곤충학의 연구에 의하면 옥충주자에 리용된 딱장벌레는 나라현에 서식하는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고구려장공인들이 직접 나라 야마또에 살면서 당지 현장에서 딱장벌레를 잡아 나래를채취하여 주자장식에 리용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둘째로, 옥충주자의 고구려적색채와 고구려적성격은 옥충주자에 그려져있는 해와 달, 천마, 선인 등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옥충주자의 수미좌부(단)의 배경그림에는 해를 상징하는 삼족오(三足鳥—세발까마귀)와 섬여(蟾蜍—두꺼비), 그리고 날아다니는 선인(仙人)과 천마(天馬) 등이 그려져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선인사상, 신선사상을 직접 반영한것으로서 고구려무덤벽화를 보는듯 하다. 해와 달을 그리면서 해에는 세발까마귀를 그리고 달에는 토끼(또는 두꺼비)를 그린 고구려무덤들로서는 4세기말의 씨름무덤(각저총), 5세기말의 룡강 쌍기둥무덤, 6세기의 대동군 덕화리1호, 2호무덤, 5세기말~ 6세기초의 호남리 사신무덤, 6세기의 통구사신무덤, 집안 다섯무덤의 4호무덤 등 무수한 고구려무덤의 벽화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집안다섯무덤(오회분)에는 안칸 동쪽천정고임벽화에 날아가는 남녀모습을 한 선인같은것이 각각 두손으로 해와 달을 받들었는데 해에는 삼족오가 그려져있고 달에는 두꺼비가 그려져있다. 무덤칸이 꺾이는 모서리에도 각각 해와 달을 그리고 그안에 각각 세발까마귀와 두꺼비를 그렸다. 날아다니는 선인과 천마 역시 고구려무덤벽화들에서 흔하게 찾아볼수 있다.

집안 다섯무덤의 4호무덤벽화에는 안칸천장에 장고치는 비천과 현금을 타는 신선,련꽃대우에 앉은 천인(天人)과 련꽃대우에 앉은 신선,련꽃대(蓮台)우에 선 신선, 룡을 타고 가야금을 타는 신선, 장고치는 비천, 룡을 타고 비파를 타는 신선과 피리부는 신선 등 여러가지 신선을 그렸다.

집안 사신무덤에서도 창을 쥐고 학에 탄 신선을 그렸고 4세기말 5세기초의 집안 춤무덤(무용총)에는 뿔나팔부는 선인을 그렸다. 7세기의 강서 큰무덤에도 벽화에 여러 비천도와 함께 봉황, 기린, 봉황을 탄 신선을 그렸고 기린 비슷한 천마도 그렸다. 춤무덤에는 기린인지 천마인지 가려보기 힘든 날아다니는 동물을 룡, 봉황과 함께 그렸다. 또한 강서큰무덤 역시 날아다니는 말을 그렸다. 말은 기린이나 봉황으로도 볼수 있으나 천마로 보아 틀리지 않을것이다. 5세기중엽의 평안남도 순천시 천왕지신무덤에도 해(삼족오)와 달을 그리는 한편 날아다니는 봉황과 함께 봉황을 탄 신선이 기발같은것을 들고있는것을 그렸다. 그 선인우에 “天王”이라는 목서가 씌여져있다. 4세기말의 안악군의 안악1호무덤에서는 날아다니는 봉황과 함께 물고기와 사슴(말)에도 날개가 달려서 하늘을 나는 그림을 그렸다. 물론 해와 달도 그렸다. 안칸서쪽과 안칸 남쪽의 천정에는 각기 사슴 비슷한 말 즉 천마를 그렸다. 408년에 축조된 강서 덕흥리벽화무덤에도 해와 달, 천마, 선인, 날아다니는 물고기를 그렸다.

이와 같은 고구려무덤벽화에서 보이는 천마와 날아다니는 선인그림들에는 고구려사람들의 선인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특히 학이나 봉황을 탄 선인이 기발을 들고 하늘을 나는것은 고구려특유의 신선사상이 담겨진 그림들이다. 바로 이러한 고구려적사상이 옥충주자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있

다. 옥충주자의 수미좌배경그림에 봉황에 걸터앉아 기발을 세워서 하늘을 나는 한쌍의 선인이 그것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결해 말한다면 옥충주자 불감의 정면문에는 무인상 한쌍이 두쌍의 문에 서로 마주서있다. 이것 역시 고구려에 연원이 있다.

4세기말 5세기초의 강서 약수리벽화무덤에는 해(삼족오)와 달과 함께 무덤입구에 해당되는 앞칸 남쪽부분에 몸통만한 다리를 가진 통통한 문지기 무사가 칼을 빼여들고 우에 추켜들고 당장이라도 칠 태세를 갖춘 모습으로 그려져있다. 장천1호무덤(5세기중엽) 역시 해(삼족오)와 달과 함께 앞칸 안쪽벽 입구 좌우켠에 문지기를 그렸고 5세기후반기의 강서 수산리무덤벽화에도 입구에 칼과 창을 든 문지기 장수를 그렸다. 5세기말 6세기초의 안악2호무덤 역시 비천도와 함께 안칸 남벽동쪽과 서쪽에 각각 한명씩의 문지기 장수를 그렸고 집안(통구)사신무덤에서도 창을 가진 문지기를 그렸다.

6세기의 진파리1호무덤의 무덤안길 동서랑벽에는 각기 쌍가닥창을 쥐고 서있는 문지기장수를 그렸다. 흥미있는것은 두 문지기장수의 머리뒤부분에 둥근원을 그린것이다. 모름지기 보살을 상징한 원으로 보아진다. 다시말하여 금강력사격의 문지기장수라는것을 뜻하는듯 하다.

우에서 간단히 해와 달, 날아다니는 선인과 천마와 함께 옥충주자 정면의 문입구에 그려진 문지기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해에 세발까마귀를 그리고 달에 토끼나 두꺼비를 그리는것은 고구려무덤벽화의 독특한 소재이다. 물론 그와 같은 전설이나 사상이 이웃한 나라에 없었던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료적으로 고구려만큼 뚜렷하게 해와 달에 대칭되게 세발까마귀와 토끼와 두꺼비를 그려놓은 나라는 없다. 선인과 천마 역시 마찬가지이다. 고구려무덤벽화에는 학이나 봉황의 잔등에 올라타고 하늘을 나는 선인들을 수많이 그려놓았다. 이로써 고구려 사람들의 선인사상의 일부분을 엿볼수 있다. 신선사상, 천마사상은 고구려 특유의 사상이었다. 말을 귀중히 여기고 생활과 조국방위를 비롯한 전투에서 전마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던 고구려에서는 말도 봉황과 함께 하늘을 나는 동물로 보았다. 그것은 7세기전반기의 벽화인 강서큰무덤에서 뚜렷이

엿볼수 있다. 1973년에 드러난 신라의 천마무덤(천마총)의 천마 역시 고구려의 이와 같은 천마사상의 영향으로 보아진다. 신기(神氣)를 토해내면서 하늘을 나는 백마가 생생하게 표현된 천마그림은 말안장의 장니(障泥)에 그려져 있다.

산악그림은 고구려무덤벽화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고구려무덤벽화에 산악을 중요하게 그리고 거기에 소나무로 보아지는 그림을 그려놓은것은 산악숭배사상과 직접 관계된다.

실례로 강서큰무덤벽화에는 봉황을 탄 신선앞에 산악을 그렸는데 산악은 크게 세 봉우리를 그렸다. 거기에 푸른 나무를 받쳐그려놓았다. 이것은 고구려에서 날아다니는 신선과 함께 산악을 귀중히 여기고 치산치수에 힘을 넣은 고구려사람들의 생활풍습을 반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단순히 불교적인 수미산만을 표현한것이라고만 볼수 없다. 불교적인 수미산숭배사상은 생활적인 치산치수사상과 밀접히 결부되어있었던것이라고 보아진다.

강서중무덤의 북벽에 현무가 수많은 산악우에 그려져있는것 역시 이와 같은 사정과 관계된것이라고 보아진다. 바로 옥충주자에 수미산이 형상되어있고 그 수미산을 둘러싼 중간에 우에서 본 날아다니는 선인과 천마, 해와 달 등을 그려놓은것이다.

요컨대 옥충주자는 고구려무덤벽화의 내용과 소재가 그대로 함축된것으로서 고구려무덤벽화의 축소판이라고 말할수 있다. 겹하여 더 말하면 일본 학자들은 옥충주자의 그림들을 불교세계를 반영하였다고만 강조할뿐 고구려적인 해와 달을 그려놓은 사실들과 신선사상들을 피하군 하였다.

셋째로, 옥충주자의 고구려적색채, 고구려적성격은 각종 장식무늬를 통해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일부 학자들가운데에는 옥충주자의 룡무늬의 연원을 부여군 금암면에서 나온 벽돌무늬 등에서 찾기도 하고 또 녕쿨무늬의 계보를 룡산리무덤에서 나온 왕관장식품의 금동뿔음새김무늬에서 찾기도 한다. 물론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견해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룡무늬나 녕쿨무늬의 연원과 계보를 고구려에서 찾는것이 보다 더 합당하다고 보아진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룡무늬

나 넝쿨무늬가 동쪽의 남쪽나라들인 백제와 가야, 신라에도 전파보급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룡무늬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고구려에서는 부여 금암면 출토벽돌무늬보다 시기적으로 보다 이른 5세기 초의 태왕무덤의 마구류에서 룡뿔음무늬를 찾아볼수 있다. 집안 태왕릉에서 드러난 마구류의 하나인 안교장식판(40여점)에는 범이나 룡을 도안화한 무늬가 새겨져있고 집안 만보정78호무덤에서 나온 안교장식판에도 이러한 룡무늬가 화려하게 뿔어새겨져있다. 태왕릉의 등자(발디디개)에서도 룡무늬를 찾아볼수 있다. 태왕릉의 등자는 나무에 동판을 씌우고 금도금을 하였다. 무늬를 새긴 동판의 두 끝은 이미 끊어졌는데 좌우가 대칭으로 사신을 형상하였다. 두개의 룡대가리는 서로 마주 향해있고 아래부분에는 웅크린 범모양을 형상하였다. 룡의 대가리와 꼬리는 서로 붙어있다. 아래쪽부분 안쪽 등근부분의 띠를 붙인 곳에는 서로 목을 교차하여 사귀는 주작을 새겼다. 현무는 자루부분에 새겼다. 룡은 한개의 뿔이 있다. 룡과 범, 주작의 몸체는 두줄의 음각선으로 룡곽을 가늘게 쳤고 둥글고 굽은 선들로 덧장식을 하였다.

이 등자와 같이 나무우에 금동판을 씌운 등자는 집안 칠성산무덤때의 96호무덤, 만보정78호무덤에서도 드러났다. 칠성산96호무덤에서는 말안장에도 금동뿔음새김무늬로 룡무늬를 도안화하였다. 자료적으로 볼 때 룡무늬를 형상한 금동뿔음새김무늬는 제일 오래고 태왕릉을 전후한 시기의것으로는 칠성산96호, 만보정78호무덤 등이다. 룡무늬는 아니지만 태왕릉에서는 마구류의 하나로서의 행엽에 범을 형상한 금동뿔음새김무늬가 새겨져있다. 태왕릉에서는 룡무늬장식을 한 허리띠도 드러났다. 고구려에서는 5세기초의 태왕릉의 룡무늬계보를 잇는 6세기의 금동뿔음새김무늬도 드러났다. 앞에서 본바 있는 해모양뿔음무늬금동장식품이 바로 그것이다.

진파리7호에서 드러난 해모양뿔음무늬장식품은 장식판중심에 구슬무늬를 박은 두줄로 된 동그라미와 그 속에 날개를 편 해를 형상한 세발까마귀가 뿔음새겨져있다. 동그라미우에는 봉황이 서있고 동그라미랑옆에는 꿈틀거리는 도식화된 룡수무늬가 새겨져있다. 세발까마귀와 봉황, 룡수무늬주위에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같은 화염무늬, 날아가는 듯한 류운무늬가 형상되어있다. 이처럼 고구려에서는 5세기초에는 확고히 룡무늬·범무늬·봉황무늬 등의 각종 동물무늬들이 말안장과 등자, 행엽 등의 마구류들에 구현되어있었다.

고구려의 이러한 도안화된 범무늬, 봉황무늬는 백제와 신라, 가야에도 보급되었다. 전라북도 정읍군 운학리C호무덤에서 드러난 띠고리의 룡무늬, 경상북도 고령에서 드러난 가야띠고리의 룡무늬 등이 일본 나라현 니이자와센즈카(新澤千塚) 126호무덤의 방형판, 고쵸 네코즈카고분(五條猫塚古墳)에서 드러난 룡무늬띠고리, 가와찌 마루야마(丸山)고분에서 드러난 룡무늬안장금동판, 가와찌 시찌간야마(七観山)고분에서 드러난 룡무늬띠고리 등은 고구려의 직접적인 문화적영향을 받았다는것을 보여준다.

백제의 부여 규암면에서 나온 벽돌에 새겨진 룡무늬도 백제가 사비성(부여)에 수도를 옮긴(538년) 이후에 제작된것으로서 시기적으로 고구려보다 뒤진다.

물론 일본열도에 전해진 룡무늬가 도안화된 금동띠고리나 장식판과 같은 공예품들은 일반적으로 백제와 가야이주민집단이 일본열도에 전래한것이지만 범룡사에 전해오는 옥충주자의 룡무늬금동뿔음새김띠판은 고구려에서 직송된것이라고 보아진다.

옥충주자의 넝쿨무늬도 고구려에 계보가 이어진다.

알다시피 옥충주자의. 불감의 도리에는 꽃뿔음모양의 넝쿨무늬가, 수미좌부의 아래우 띠꽃부리에는 선모양의 넝쿨무늬가 장식되어있다.

옥충주자의 넝쿨무늬는 변화무쌍한것으로 특징지어지지만 개괄적으로 볼 때 고구려무덤벽화에서 직접 그 계보와 연원을 찾을수 있다. 실례로 강서 삼묘리 중무덤의 띠속물결모양의 넝쿨무늬를 들수가 있을것이다.

강서중무덤의 천정부위에 날아가는 봉황과 함께 그 아래단에 띠속물결모양의 넝쿨무늬를 그렸는데 옥충주자의 넝쿨무늬를 방불케 한다. 물론 옥충주자에 그려진 넝쿨무늬의 연원을 아는데 참고가 될 넝쿨무늬는 룡산리(진파리)1호무덤, 4호무덤, 덕화리1호무덤, 룡강 쌍기둥무덤 등 여러가지이다. 추

세적으로 볼 때 4~5세기경의 고구려무덤벽화에서 보는 넝쿨무늬는 원초(原初)적인것으로서 얼마간 거친 감이 나지만 7세기에 축조된 강서 삼묘리의 중무덤, 큰무덤의 넝쿨무늬는 완성된감을 주며 아주 세련되고 우아한것이 특징이다. 채색이 선명하고 화려하다. 바로 이와 같은 고구려넝쿨무늬가 직접적으로 옥충주자에 반영되었다고 보아진다. 물론 일본학자들이 말하는것처럼 고대 에짚트나 그리스의 당초무늬에 계보가 이어지는것은 아니다.

옥충주자의 고구려적채색, 고구려적성격은 넷째로, 옥충주자가 조선건축양상을 그대로 재현한듯한 불감과 고구려의 독특한 대다리를 가지고있다는 사실이다.

먼저 불감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옥충주자의 불감은 기와를 얹은 지붕과 치미가 있다. 그리고 지붕을 받친 몇개의 제공을 포함한 두공이 있다. 두공아래에 도리와 기둥이 있다. 지붕아래곡선은 중국식의 일직선이 아니라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있는 전통적인 조선건축양식이다.

고구려의 수많은 건축물가운데서 오늘날 건축물로서 하부구조의 토대가 남아있을뿐 상부구조는 남아전하는것이 없다. 다만 유적지들에서 기와류들이 드러난것이 있다. 실례로 대성산 안학궁터에서 드러난 치미와 암기와 수기와, 귀면 등의 기와류들이 그것이고 동명왕릉앞벌의 정릉사터에서 “릉사”, “정릉”이라는 글자새긴 기와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기와장들이 드러난것이 있다. 고구려무덤벽화들인 고국원왕릉(안악3호무덤), 집안 춤무덤, 강서 약수리무덤, 집안 세칸무덤 등의 벽화들에 건축물이 그려진것이 있다. 그리고 고구려무덤칸 자체가 기둥과 주두, 두공들이 그려져있어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이고 방안이다. 고구려무덤벽화의 자료들은 고구려건축물의 일단을 엿볼수 있게 한다. 바로 옥충주자의 궁전부는 이와 같은 고구려식의 전통적건축양식을 방불케 한다. 삼국시기의 건축물은 별반 남아전하는것은 없어도 고려와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건축물들에 계승되어있어 조선건축양식을 아는데 참고가 된다. 바로 옥충주자의 궁전부는 이와 같은 전통적 조선건축양식을 방불케 한다. 물론 옥충주자가 오래전부터 법릉사에 전해옴으로써 법릉

사의 축소판이라는 평가를 받아오기도 한다. 조선풍토의 강수량에 맞게 설계된 법륜사 금당지붕의 완만한 곡선과 두공 등을 갖춘 법륜사는 말그대로 조선건축물을 그대로 방불케 한다.

옥충주자의 원형을 법륜사의 금당 등에서 찾으려 하는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왜냐하면 법륜사(금당포함)가 7세기초에 완성(607년)되고 소실(670년)되었다고 한 『일본서기』의 기록에 관계없이 법륜사는 금당과 오중탑, 중문과 회랑의 대부분이 아스카문화시대의 전형적인 건축양식을 그대로 보존해있기 때문이다. 아스카문화시대의 건축양식이란 곧 조선식의 전통건축양식을 의미한다. 겸해 말하면 일본학계에서는 한때 법륜사전소(全燒)설이니 재건설이니 하면서 대론쟁이 일어난것이 있지만 현재의 법륜사는 그에 관계없이 조선의 삼국시기의 건축양식을 그대로 보존하고있다는 사실이다. 극히 일부가 불탄것을 가지고 몽땅 불타버린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일본서기』 권27 천지 9년 4월 임신—30일) 『성덕태자전보궐기』는 “4월 30일 야반에 이까루가사(법륜사)에 화재가 났다.”고만 썼다. 『일본서기』에 “4월 30일 야반에 법륜사에 화재가 있었다.”, “한채도 남기지 않고 불탔다.”고 한 “한채도 남기지 않고……”라는것은 『일본서기』편찬자의 윤색이라고 보아진다. 아무튼 현재까지 보존되어 전해오는 나라 법륜사는 세계적인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서 예로부터 동양3대미술의 걸작품으로 인정받고있다. 1993년에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것은 너무나도 응당한 일이다. 중요한것은 법륜사의 건축양식을 비롯한 모든 설계와 양상이 조선식이라는데 있다.

계속하여 옥충주자의 대다리에 대하여 보기로 하자.

옥충주자에서 대다리에 대하여 주목하는 학자는 없었던것 같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주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옥충주자의 대다리가 특이하고 고구려적색채가 강하게 풍겨오기때문이다.

고구려의 유물로서 상다리가 발견된것은 태왕릉이다. 10점가량 드러났다. 태왕릉의 상다리는 청동(4점)으로 주조한것으로서 금도금하였다. 상다리의 형태는 한마디로 말하여 말발굽형으로서 발쪽과 발목륜곽이 뚜렷한것이 특징이다. 상다리를 말발굽모양으로 한것은 말을 귀중히 여기고 말을 많이 리

용한 고구려사람들의 생활속성과 연관되어있는것으로 보아진다. 고구려무덤 벽화에서 상다리가 보이는것은 방안생활에 쓰인 평상다리와 음식그릇들을 올려놓은 고가 높은 탁자다리이다.

탁자다리로서 대표적인것은 집안 춤무덤과 씨름무덤의 벽화에 보이며 평상다리로서 대표적인것은 안악 고국원왕릉, 강서 덕흥리무덤, 집안 춤무덤, 강서 태성리1호무덤, 약수리무덤, 남포 사냥무덤, 감신무덤 등이다. 탁자다리로서 두드러진것은 집안 춤무덤과 씨름무덤에서 볼수 있다. 4세기 말의 씨름무덤에서 안칸 안쪽벽벽화에서 주인공(피장자)의 비첩인듯한 비교적신분이 높은 녀인 두 명과 담화를 하는데 매 각자에게는 서로마다 탁자가 있어 탁자 우에는 각각 세개씩의 작은 음식그릇이 놓여있다. 차그릇인듯하다. 안칸 안쪽벽에는 모두 대여섯개의 탁자가 있는데 그 모든 탁자의 다리는 발목부위인 아래쪽다리가 말발목형으로 형성되어있다. 주전자같은것을 놓아둔 주인공의 탁자는 바깥쪽으로 해바라진 세개다리로서 삼각형으로 퍼졌으나 이것 역시 발목부위가 잘록하여 말발목을 형성하였다. 주인공이 앉은 의자같은 대의 다리 역시 다리목부위가 말발목처럼 잘록해졌다.(사진과 그림 참고)

4세기말 5세기초의 춤무덤의 탁자 역시 거의 같은 시기인 씨름무덤과 마찬가지로 탁자가 있다. 주인공(피장자)이 중인듯한 복두(모자)를 쓰지 않은 민머리손님 두명과 담소를 하는데 작은 탁에는 차잔인듯한 작은 잔이 네댓개가 놓여있고 그 옆에는 과일인듯한 음식그릇을 얹은 탁자가 네개정도 놓여있다. 두 개는 탁자다리가 네개이고 두 개는 씨름무덤에서 보는것과 똑같은 세다리로서 삼각형으로 바깥쪽으로 벌어져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탁자의 다리목이 모두 잘록해진데다가 그것은 말발목을 형성한 대다리라는데 있다. 춤무덤에서 주인공과 손님인 중이 앉은 의자의 다리 역시 발목부위가 잘록하게 오목한 말발목형이다. 이와 같은 무덤벽화의 탁자다리는 태왕릉에서 드러난 상다리유물과 꼭 맞는것으로서 유적유물이 일치하다.

평상다리로 대표적인 강서 덕흥리무덤에서는 앞칸 북면에 그려진 유주자사 진(주인공)이 앉은 평상과 앞칸 남벽에 앉은 두 명의 귀족이 앉은 평상, 안칸 북벽에 그려진 주인공(피장자 진)이 앉은 평상을 들수 있다. 그밖에 감

신무덤, 고국원왕릉 주인공이 앉은 평상, 태성리1호무덤의 평상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강서 약수리무덤의 평상다리는 말발목을 형상한것이 뚜렷이 안겨 오는 그림이다.

강서 약수리무덤벽화의 주인공이 앉은 평상다리는 탁자다리처럼 발목부위의 좌우편이 다같이 오목하게 잘록해진것이 아니라 안쪽만이 잘록해졌다. 그러나 큰 선에서 보면 말발목을 도안화하였다는것이 알린다. 덕흥리무덤벽화의 주인공과 그 신하가 앉은 평상다리 역시 약수리무덤벽화주인공이 앉은 평상다리와 마찬가지로 안쪽이 오목한 말발목다리이다. 다시말하여 평상다리는 바깥쪽이 곧은 직선이고 안쪽부위가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원을 그리었다. 벽화를 그린 화가는 탁자다리나 평상다리를 섬세하게 그리지 않고 대충 그리었으나 누구의 눈에도 말발목을 형상한것임을 알수 있게 그리었다. 춤무덤 안칸 오른쪽벽벽화의 제일 웃단에 그려진 두 개의 평상은 안쪽다리가 오목하게 패이였다는것을 형상적으로 그렸고 춤무덤의 안칸안쪽의 탁자다리와 주인공이 앉은 의자(대)의 다리는 바깥쪽으로 잘록하게 그려놓았다. 그것은 단지 탁자나 의자(대), 평상의 발목부위가 잘록한 다리를 가졌다는것을 형상적으로 알리게 한데 불과하다. 요컨대 고구려에서는 여러가지 대(평상, 탁자, 의자 등)의 다리는 장식용으로 말발목을 형상하였다는것, 점차적으로 안쪽다리부위만이 잘록하게 도안화되었다는것 등으로 요약할수 있다. 실제로 그러한 대다리의 유물이 현물로 드러난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탑모양뿔 음무늬금동작식품(평양시 평천구역출토, 길이 15.4cm 『조선유적유물도감』 1990년 제4권 274페이지 사진 470)이다. 현물로 드러난 이 유물은 대다리가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해바라져있고 다리는 대를 받치고있으면서도 안쪽이 잘록하게 오목해졌다. 이것은 위에서 본 고구려무덤벽화의 여러가지 평상다리를 방불케 하는 유물로서 귀중하다. 고구려에서는 평상이건 탁자이건 대이건 무엇을 받치는 다리가 대개 말발목을 형상한것으로 보아진다. 문제는 고구려의 이와 같은 말발목모양의 대다리가 그대로 옥충주자의 대다리에 재현되어있다는 사실이다.(사진참고) 겹하여 말하면 같은 법륜사에 전해오는 “다찌바나부인념지불주자(橋夫人念持仏廚子)”는 비록 지붕을 얹은 모양

의 궁전은 아니지만 옥충주자의 구도와 생김새가 비슷하다. 그러나 대다리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르다. 하꾸호문화시기의 이 불감은 옥충주자의 흉내를 낸 불감이지만 대다리와 대다리를 판자로 잇는 등으로 얼마간 후세의것이다. 대다리 역시 옥충주자형식을 계승하였을뿐 새로운것은 아니다.

이상 몇가지 론거를 들어 일본 나라 법륭사에 전해오는 세계적인 공예품 유물인 옥충주자의 고구려적색채, 고구려적성격을 고찰함으로써 그 제작자와 국적에 대하여 밝혀보았다. 옥충주자의 특징을 몇가지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해(삼죽오)와 달, 하늘을 나는 말(천마), 기발을 들고 날아다니는 선인, 산악과 인물, 당초무늬, 봉황과 룡, 비어 등 말그대로 고구려무덤벽화를 방불케 한다는것, 고구려에 연원을 둔 룡무늬와 넝쿨무늬, 흐르는 구름무늬, 불꽃무늬 등 각종 동물무늬의 모형화와 그것을 구현한 금동뿔음무늬쇠붙이의 제작과 그것으로 옥충주자전체를 장식하였다는것, 금동뿔음무늬쇠붙이아래의 나무판우에 딱장벌레의 나래를 갈아놓는 독특한 장식기법을 적용함으로써 옥충주자를 보다 더 호화로운 주자로 완성하였다는것, 조선의 전통적인 건축양식을 구현한 궁전부와 독특한 고구려식대다리의 형상 등은 옥충주자의 제작자가 고구려사람(장공인)이며 국적이 고구려라는것을 명실공히 일목요연하게 알수 있다는것 그밖에도 옥충주자는 회화기법에서 치밀하고 섬세하며 동시에 색채의 밝기 등에서 고구려무덤벽화를 방불케 하는 높은 수준의 필치를 펼쳐보이고있다는것 등으로 요약할수 있다.

이처럼 일본의 국보급유물로 전해오는 옥충주자는 고구려장공인에 의해 제작된 고구려적성격을 띤 걸작품이다. 제작년대는 주자에 그려져있는 넝쿨무늬의 형상과 딱장벌레의 나래를 금동뿔음무늬쇠붙이아래에 편 가공술의 수준, 안쪽으로 오목하게 패인 말발목을 형상한 대다리의 세련된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볼 때 대체로 6세기경에 제작된 공예품으로 보아진다. 그러한 우수한 고구려장공인들과 화공들에 의하여 옥충주자가 제작되고 그림이 그려졌다. 나라 야마또지방에 서식하는 딱장벌레가 무수히 채집되고 그것이 옥충주자를 보다 아름답게 돋구어주는 장식효과로 쓰이게 되었다. 바

로 그 시기가 다까마쯔즈까고분과 동시대인 6세기경이었다고 보아진다.

6세기는 고구려사람들이 일본열도에 수많이 진출할 때이다. 실제로 나라 야마또에는 고구려사람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았는데 6세기 중엽에는 야마또 다께찌고을에 “고마비또노오무사노미야께”(高麗人小身狹屯倉)가 설치되었다(『일본서기』 권19 흙명 17년 10월—556년). 미야께(둔창)는 개별적사람 몇몇이 아니라 해당 사람들의 집단을 가리켰다.

또한 나라 야마또정권의 중추부를 이룬 권력자 소가씨에는 소가노고마(蘇我高麗)라는 소가이나메의 아버지별 인물이 있었다. 그는 소가우마꼬의 할아버지였다. [『소가이시가와랑씨계도』(蘇我石川兩氏系圖) 소가노이나메(蘇我稻目 506?—570)가 6세기 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소가노고마 역시 6세기 사람이다.

나라 야마또의 다께찌군에는 고구려기와막새가 나오는 오후야마 구메사(奥山久米寺)가 있으며 고고학적으로 볼 때에도 고구려적색채가 강한 “오니 소이와”로 불리우는 고구려횡혈식석실봉토분 등이 있다. 6세기의 축조로 보아지는 나라 야마또 아스까의 다까마쯔즈까고분(高松塚古墳)과 7세기 초로 보아지는 기또라(鬼虎)고분도 고구려고분들이다. 천수국수장 역시 고마노가 세이를 비롯한 조선계통인물들이 제작하였다. 이렇게 놓고볼 때 나라 야마또에는 백제사람과 함께 고구려사람들도 수 많은 집단을 이루고 살았으며 그러한 속에는 고구려의 우수한 장공인들도 많았다고 보아진다.(조희승 2020, 『고구려—왜(일본)관계』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27-166)

일본 아스까문화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공예품인 옥충주자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높은 경지에 오른 우수하고 발전된 고구려문화의 수준을 엿볼수 있으며 동시에 일본고대문화에 준 고구려의 거대한 역할과 영향을 간취할수 있는 것이다.

18세기의 책판목록 『루판고』

『Rupango』, List of Wood Blocks in the 18th Century

탁룡범*

조선사회과학원 민족고전연구소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로 빛나는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과학적 창조와 발명으로써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데 크게 기여한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습니다.»

조선인민이 인류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과학적창조와 발명의 공적가운데는 일찍부터 발전하여온 출판인쇄기술도 빛나는 한자리를 차지하고있다. 지혜롭고 근면한 우리 인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목판인쇄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이에 토대하여 11세기말~12세기초에는 세계최초의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수많은 도서들을 출판하였다.

출판인쇄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량의 도서들이 출판되는데 맞게 책판들을 등록보관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되게 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에 18세기에는 『루판고』와 같은 책판목록이 편찬되게 되었다.

1796년 서유구에 의하여 편찬된 『루판고』는 책판들의 파손과 류실을 방지하고 대대로 전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판도에서 수집되어 작성된 책판목록이다.

일반적으로 책판목록이라고 할 때 그것은 책을 찍어내는데 리용된 판들을 일정한 체계밑에 차례로 분류하여 기록한것을 말한다.

* Tak Ryong Bom(Section Chief of Institute of National Classics, the Academy of Social Sciences, DPRK)

이 글에서는 『루판고』의 편찬과 그의 구성상특징에 대해서 밝혀보려고 한다.

1. 『루판고』의 편찬

책판목록으로서 『루판고』의 편찬은 당시에 조성된 일련의 사회력사적조건의 요구로부터 진행되었다.

그가운데서도 도서목록작성과 책판등록사업이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었던 것과 관련된다.

15세기 우리 나라에서는 금속활자에 의한 인쇄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도서들이 대량적으로 출판되는데 따라 그것들을 잘 보관리용하기 위한 도서목록작성이 절실한 문제로 나서게 되었다.

그래서 조선봉건왕조시기에 홍문관과 춘추관의 사고들을 비롯한 중앙관청들에서는 도서들의 목록작성을 진행하여왔다.

한편 최고교육기관인 성균관의 존경각을 비롯하여 전국 각 고을들의 향교들과 사설교육기관인 서원들에서도 제각기 보관하고있던 도서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리용하였다.

이러한 교육기관들의 장서목록에서 큰 몫을 차지한것은 존경각의 장서목록이었다. 그것은 15세기 70년대에 존경각의 장서가 수만권이나 되었다는¹ 사실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이와 함께 도서리용률이 높아지는것으로 하여 유실되거나 파손 혹은 마멸되어가는 도서들을 보충하기 위해 책판들을 보존하고 복구하려는 목적에서 책판들을 등록하거나 그 목록을 작성하는 사업도 필요로 하게 되었다.

18~19세기 금속활자에 의한 출판인쇄가 기본이었던 조건에서도 목판인쇄는 의연히 병행되었다.

그 원인은 한번 새겨놓으면 여러번 반복하여 사용할수 있는 목판인쇄의 우수성에 있었다. 목판인쇄는 판각당시에는 많은 로력과 자재가 소비되지만

1 『증보문헌비고』 권203 학교 대학 성종 6년.

일단 책판을 만들어놓으면 필요에 따라 짧은 시일내에 여러번 반복하여 인쇄할수 있는 우점을 가지고있었다. 하지만 활판인쇄인 경우에는 빈번히 새로 조판하는것과 같은 여러 공정들을 거치면서 일정한 시일이 걸려야 하였던것이다.

이러한 우점으로 하여 목판인쇄는 금속활자가 출현하여 널리 쓰인이후에도 여전히 리용되게 되었다.

책판목록의 작성은 더우기 책판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없어지는것을 방지할뿐아니라 그 자체를 보존하거나 복구하기 위해서도 절실하게 제기되었다.

활자나 책판들은 인쇄가 자주 진행되는 과정에 마모되거나 파손되어 못쓰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그래서 1428년 봉건정부는 도서들의 인쇄가 끝나면 활자와 책판들을 잘 씻어서 다락집안에 그것들을 차례로 분류하여 보관하였다가 도서들이 헐어져서 글자가 흐려지거나 파손되면 즉시 재출판하도록 하며 지방관들이 교체될 때에는 사무인계문서에서 책판관계를 반드시 밝히게 하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다.²

조선봉건정부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책판들에 대한 보관사업과 목록작성 사업에 큰 의의를 부여하면서 이 사업에 국가적인 관심을 돌렸다.

도서인쇄를 담당한 교서관에서는 이미전부터 『예각책도록』을 작성하여왔다. 『예각책도록』은 교서관에 비치된 도서들과 책판들의 종류와 그 수량을 밝힌 목록책이었다.

이렇게 진행되어오던 도서목록과 책판목록 작성사업은 18세기중엽이후 규장각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벌어지게 되었다.

중앙도서관으로서의 규장각설치문제는 15세기에 제기되었으나 1694년에 와서야 그것이 정식으로 설치되었으며 규장각이 완전한 직제를 갖추고 자기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것은 1776년이였다.³

봉건국가의 중앙도서관으로 설치된 규장각에서는 당시까지 우리 나라에

2 『세종실록』 권39 10년 정월 기유.

3 『정조실록』 권2 즉위년 9월 기사.

서 수집할수 있었던 온갖 도서들을 경, 사, 자, 집의 4부류로 나누어 보관하고 목록들을 모두 작성하였으며 1781년에는 총목록으로 『규장총목』을 편찬하였다.⁴

도서목록작성사업과 함께 책판들의 목록작성사업도 진행되어 1759년(영조 35년)에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3개 도의 각 고을들의 책판들을 조사등록한 『삼남책판목록』이 작성되었다.(『조선도서해제』 일문 1931년판 299페이지)

『루판고』는 바로 이러한 도서목록과 책판목록들을 작성하는 과정에 수집된 자료들과 경험들에 기초하여 편찬되었던 것이다.

『루판고』는 18세기에 활동한 실학자 서유구(1764-1845)에 의하여 편찬되었다.

『루판고』법례에 의하면 1778년 봉건정부에서는 국가기관들과 개인들이 보관하고있는 도서들과 책판들을 장악등록하여 정부에 바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규장각의 제학, 직제학 등의 학자들로 하여금 중앙과 지방의 장관부(보관하고있는 책판들을 등록한 장부-필자주)에 등록된 책판들을 부문별로 분류하여 하나의 책판목록을 편찬하게 하였다.

서유구는 선행시기에 이룩된 『삼남책판목록』과 자기 할아버지인 서명응이 중심이 되어 편찬한 『규장총목』 등의 분류체계와 해당 내용의 항목들을 참작하면서 『루판고』편찬에 착수하여 1796년에 완성하였다.

2. 『루판고』의 구성상특징

전7권으로 편찬된 『루판고』는 6개의 편목과 27개의 조목으로 분류하여 중앙과 지방에 소장되어있는 600여점의 책판들을 등록하고 해당한 책판의 저자와 권수, 간단한 내용, 소장처, 인쇄에 소요되는 종이의 분량들을 기록하였다.

4 『정조실록』 권11 신축년 6월 경자.

1권은 「어찬」과 「어정」이라는 편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어찬」은 국왕이 직접 편찬한 책들을 찍는데 리용된 책판들이 등록되어있는 편목으로서 여기에는 20점의 책판들이 수록되어있다.

「어정」은 국왕의 지시에 따라 편찬된 도서들을 출판하는데 리용된 책판들을 등록한 편목으로서 여기에는 50여점의 책판들이 올라있다.

2권은 「정부」라는 편목으로 구성되어있다. 「정부」는 유교경전과 관련한 책판들의 편목으로서 총경류, 역류, 서류, 시류, 례류, 춘추류, 사서류, 소학류 등 8개 류의 조목에 50여점의 책판들을 등록하였다.

3권은 력사관계도서들의 책판들을 수록한 「사부」라는 편목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통서류, 잡서류, 전기류, 장고류, 사평류 등 5개 류의 조목에 70여점의 책판들이 기재되어있다.

4권과 5권에는 제가들의 저서들과 각 부문별 도서들의 책판들을 수록한 「자부」(상, 하) 편목과 유가류, 병가류, 의가류, 천문주법류, 술수류, 잡찬류, 설가류, 류서류, 역어류, 도가류, 석가류 등 11개류의 조목안에 110여점의 책판들이 등록되어있다.

6권과 7권은 각각 「집부」(상, 하) 편목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여기에는 개인문집들의 책판 300여점이 총집류, 별집류, 초사류 3개류의 조목에 실려있다.

『루판고』의 구성상특징은 크게 책판의 분류체계와 포괄범위, 내용구성에서 찾아볼수 있다.

『루판고』는 저자인 서유구가 당대의 대표적인 실학자의 한사람이었던것으로 하여 여기에는 그의 실학적인 견해와 립장들이 반영되어있다.

실학은 그 내용에서 볼 때 쓸모있는 학문(실용지학)을 의미하였고 그 방법에서는 실지 사물을 통하여 진리를 탐구(실사구시)하는 학문을 의미하였다.

이로부터 『루판고』에는 그 분류체계에 있어서나 책판들에 대한 취급에서 저자의 실학적립장이 두드러지게 반영되어있다.

『루판고』는 무엇보다도 분류체계에서 경, 사, 자, 집 등 종래의 4분류체계 이외에 어찬, 어정이라는 체계가 새로 도입되어있는 특징을 보여주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선행시기의 『규장총목』분류체계와 대비해보면 잘 알수 있다.

『규장총목』에서는 크게 「경부」, 「사부」, 「자부」, 「집부」 즉 4분류체계를 적용하였다. 「경부」에서는 총경류, 역류, 서류, 시류, 춘추류, 례류, 악류, 사서류, 소학류 등 9개류, 「사부」에서는 정사류, 편류, 별사류, 장고류, 지리류, 초사류, 보계류, 총목류 등 8개류, 「자부」에서는 유가류, 천문류, 력상류, 농가류, 의가류, 병가류, 형법류, 도가류, 석가류, 잡가류, 설가류, 예완류, 류선류, 총서류 등 15개류, 「집부」에서는 총집류, 별집류 등 2개류 총 4개부 33개류로 구분하여 도서들을 해당한 부와 류에 배열하여 목록을 구성하였다.

『루판고』에는 종래의 「경부」, 「사부」, 「자부」, 「집부」 등 4분류체계의 편목이외에 「어찬」과 「어정」이라는 편목이 새로 도입되어있다.

「어찬」이라는 편목에 올라있는 책판들은 대부분 과학문화적인 가치가 없다는 저자의 입장을 보여주는것들이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어정」에 등록되어있는 책판들에 대하여서는 상세하고도 구체적인 과학기술적내용과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주고있다. 이것은 「어정」체계에 수록된 책판들의 실천적인 과학기술적가치를 옳게 인식한 저자의 입장을 표현한것이다.

대표적인것만 보더라도 천문기상학과 력법을 취급한 『제가력상집』, 『삼국사기』와 『고려사』에서 전쟁기사들을 뽑아서 편찬한 『동국병감』, 음악리론과 무용, 악기 등을 해설한 『악학궤범』, 의학관계의 『동의보감』, 16세기에 최세진이 한자들의 음과 뜻의 변천을 일일이 밝힌 언어학책인 『사성통해』, 조선봉건왕조시기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과 5위군의 진법을 취급한 『병장도설』 등을 들수 있다. 이러한 책판들은 국왕의 지시에 따라 편찬되었던만큼 그 대부분이 중앙과 지방의 국가기관들에 보관되어있었다.

책판들의 분류체계에 「어찬」, 「어정」이라는 새로운 편목이 첨부되게 된것은 편찬자 서유구의 봉건적인 『존왕』관념에서 출발한것이기는 하지만 종래 다른 나라의 유교경전들을 도서분류의 첫자리에 놓던것을 배제하고 자기의 것을 소중히 여기는 실학자로서의 진보적인 견해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루판고』의 「어찬」, 「어정」 편목을 제외한 나머지 책판들은 종래의 4분류체계에 따라 「경부」, 「사부」, 「자부」, 「집부」 등의 편목으로 분류되어있다.

『루판고』는 다음으로 책판들의 포괄범위와 내용구성에서 일련의 특징을 나타내고있다.

우선 『루판고』에 등록되어있는 책판들의 대다수가 우리 나라의 책판들이며 다른 나라의 책판들은 극히 보잘것없는 비중을 차지하고있는것이 특징적이다.

종전의 도서목록들에서는 다른 나라의 유교관계책들이 많이 취급되어왔으나 『루판고』에서는 그것이 대폭 줄어들었다. 그리하여 유교경전들을 취급하고있는 「경부」 편목에서도 국내에서 저작, 편찬한 도서들은 50여점이나 되는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 저작, 편찬된 책은 겨우 10여점에 지나지 않는다.

「사부」 편목에서도 국내에서 편찬된 도서가 40여점이였다면 다른 나라에서 편찬된 책들은 역시 10여점에 불과하다.

그밖에 「자부」 편목과 「집부」 편목은 전적으로 국내에서 저작, 편찬된 책판들로 이루어져있다. 특히 「집부」 편목에는 근 300점의 책판들이 등록되어있으나 다른 나라의것은 20여점에 불과하다.

이러한 형편은 『루판고』가 단순히 우리 나라자체의 책판목록이라는데로 부터 오는 필연적인것이라고만 볼수 없다. 그것은 자기의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실학자들의 진보적인 사상을 반영한것이였다.

더우기 『규장총목』을 편찬할 당시에 다른 나라에서 『도서집성』 5 000여권을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⁵ 이 도서들을 도외시하고 국내의 책판들을 위주로 한것은 그러한 형편을 잘 말해주고있다.

또한 중앙관청의 책판들뿐아니라 전국 각지에 소장되어있는 책판들을 널리 포괄하고있는것도 특징적이다.

서유구는 책판들의 보관상태를 최대한으로 조사장악하기 위하여 중앙관청들에 보관되어있는 책판들과 함께 주로는 지방관청들과 향교들의 책판보관상태들도 조사장악하였다. 이와 함께 각 지방의 서원들과 절간들에 소장되어있는 책판들 그리고 지난시기 해당 지방들에서 명망있는 사람들을 제사

5 『정조실록』 권11 신축년 6월 경자.

지내던 사당인 향현사와 《정의》를 위하여 의롭게 싸워 공을 세운 애국적인 사람들을 제사지내는 사당인 의렬사들에 보관되어있는 책판들의 실태까지도 조사장악하였다.

지어는 민간에서 개인들이 소유하고있던 책판들까지도 자세히 분류하여 보관상태를 구체적으로 조사장악하여 등록하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앙관청의 책판은 60여점, 향교에 보관된 책판은 140여점, 서원들에 보관되어있는 책판은 150여점, 사원들에 보관되어있는 책판은 120여점, 향현사에 보관되어있는 책판은 수점, 의렬사들에 보관되어있는 책판은 10여점, 개인이 소유하고있는 책판은 20여점이다.

보는바와 같이 관청에 보관되어있는 책판들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으나 중앙관청에 보관되어있는 책판본은 60여점에 불과하며 지방관청들에 보관되어있는 책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있다.

가장 많은 책판본들을 가지고있던 곳은 서원들이였다.

당시 서원들에서 소유하고있던 책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것은 서원의 급증과 관련된다고도 볼수 있다. 16세기중엽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서원은 그후 전국각지에 서원들이 널리 설립되면서 18세기말 정조통치년간에는 전국의 서원들의 총수가 650여개소나 되었다. 이로부터 각 서원들에는 적지 않은 책판들이 보관되게 되었던것이다.

뿐만아니라 절간들에서도 많은 책판들을 보유하고있었는데 그것은 절간들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오던 출판의 경험과 지리상의 유리한 조건에 토대하여 불경책들을 찍어내는데 리용된 책판들뿐만아니라 기타 일반도서들도 비치되어있었던것과 관련되었다.

개인들이 가지고있던 책판들도 적지 않은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당시에는 출판인쇄문화가 전반적으로 발전하고있던 환경에서 학자들이 개인장서를 마련하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어있었다. 그러므로 『루판고』의 저자는 개인들의 장서들에까지도 주목을 돌려 수집하였던것이다.

『루판고』에 등록된 개인책판목록들로는 『별동집』, 『경암일고』, 『옥봉집』, 『수운집』, 『청하집』, 『대계집』, 『고송집』, 『매헌집』, 『목재집』, 『동암유고』,

『농수유교』, 『간옹집』, 『차은호산집』, 『백암집』, 『농포집』 등 20여점을 들 수 있다.

그가운데는 김정서(김응서)장군이 임진조국전쟁때에 이룩한 공로와 1619년 후금과의 전투에서 적에게 포로되어서도 민족적지조와 애국적인 절개를 끝까지 지키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친 력사적사실을 기록한 책판이 18세기말까지 그의 고향 평안도 룡강군 김씨일가에 보관되어있었다.

『별동집』은 14세기말~15세기 전반기 기간에 활동한 이름난 유학자이며 교육자였던 윤상의 문집으로서 저자의 고향인 경상도 레천의 윤씨가문에 보관되어있었다. 『루판고』에 의하면 윤상의 제자들가운데는 이름있는 선비들이 많았으며 그의 글은 비록 소박하고 쉬운것 같으나 그 뜻을 새겨볼수록 의미가 더욱 깊어진다고 하면서 귀중히 보관하여야 할 가치있는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렇듯 『루판고』에서는 개인들의 장서라 하더라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서들이라면 그 책판들을 장악등록하였던것이다.

『루판고』에서 실학자들과 불경책들의 책판들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있는것은 내용구성에서 특징적이라고 보게 된다.

레천대 대표적인 실학저서의 하나인 『반계수록』에 대하여 그 서술체계와 내용을 비교적 자세히 분석하면서 그 과학적내용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있다.

17세기의 이름난 실학자였던 류형원(1622-1673)은 『반계수록』에서봉건사회내부의 토지문제를 기본으로 하여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분야에 조성된 모순을 조절하기 위하여 당시로서는 진보적인 견해를 제기하였다. 때문에 『루판고』의 저자 서유구는 『반계수록』의 서술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그 어느 책보다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던것이다.

『루판고』에는 일반도서들뿐아니라 우리 나라의 국보적인 문화유산의 하나인 『팔만대장경』과 일부 불경들의 책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봉건유교사상에 기초하고있으면서 불교를 배척하던 당시의 사회력사적환경속에서 방대한 량에 달하는 불경들의 책판들을 구체적으로 서술한것은 이

례적이라고 볼수 있다.

『루판고』에는 『팔만대장경』의 유래와 판본형태, 보관상태가 서술되어있으며 1,539종의 각종 불경들이 망라되어있다는데 대해서와 매개 불경들이 번역된 시기와 번역자들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⁶

1,539종이나 되는 각종 불경들의 명칭은 이 부문에 대한 연구에서 적지 않은 가치를 가진다.

불경과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해야 할것은 우리 나라 명산의 하나인 묘향산 보현사에 보관되어있는 불경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는것이다.

그에 의하면 18세기말에 보현사에는 11종의 불경들이 보관되어있어 국내의 대표적인 큰 절간의 하나로서의 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보현사에서 보유하고있던 각종 불경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불경이름 | 권수 | 인쇄에 소요된 종이량 |
|----------|----|-------------|
| 묘법련화경 | 7 | 12첩 8장 |
| 금강반야파라밀경 | 2 | 6첩 |
| 원각료의경 | 6 | 16첩 12장 |
| 만행수릉엄경 | 10 | 12첩 |
| 화엄경 | 60 | 126첩 10장 |
| 기신론 | 2 | 3첩 19장 |
| 선원제전집도서 | 1 | 1첩 16장 |
| 경덕전등록 | 30 | 20첩 12장 |
| 대혜보각선사서 | 1 | 2첩 16장 |
| 고봉선요 | 1 | 1첩 7장 |
| 선문점송설화 | 30 | 13첩 |

* 1첩은 20장임

『루판고』는 이 11종의 책판들가운데서 「선문점송설화」는 고려의 중 혜침의 저작으로서 불경들에 나오는 주요한 글귀들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

6 『루판고』 권5 자부 하 서가류 대장경.

를 널리 인용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불경들가운데서 가장 우수한 책이라고 서술하였다.

불경은 불교의 교리를 전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것이기는 하지만 그것들은 인민들의 창조적인 지혜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열매인것으로 하여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된다.

특히 송나라에서 5,048권에 불과한 불경이 만들어지고있을 때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6,588권에 달하는 『팔만대장경』이 판각되어 출판되었다는 사실은⁷ 당시 고려의 인쇄기술이 높은 수준에 이르고있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그러므로 『루판고』에도 «당시 우리 나라에 들어온 불교서적들을 전국적으로 빠짐없이 건어들여» 대장경을 만들었다고 긍지높이 서술되어있는것이다.⁸

『루판고』는 우리 나라의 민족고전들가운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귀중한 문헌의 하나이다.

저자는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판도에 소장되어있는 책판들을 수집하여 작성한 책판목록인 『루판고』를 편찬함으로써 귀중한 문화유산들에 대한 자료들이 오늘까지도 대대로 전해질수 있게 하였다.

하여 『루판고』는 우리 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가 깃들어있는 고전도서들을 연구하는데 많은 자료들을 제공하여주는 귀중한 민족고전문헌으로 되고 있다.

7 우와 같음.

8 우와 같음.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와 제한성

Study on the History of Koguryo Dynasty
in the Latter Half of Koryo and Its Limitation

허명철*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학분야에서도 아직 해명하여야 할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난 시기 력사학분야에서는 고구려사연구에서 적지 않은 성과들이 이룩되었지만 아직도 해명하여야 할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다.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와 그 제한성을 해명하는것도 그러한 문제들중의 하나이다.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와 그 제한성을 밝히는것은 우리 민족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의 력사가 력사적으로 어떻게 연구되어왔는가 하는것을 통하여 우리 민족사학의 합법칙적인 발전과정을 옳바로 정립체계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나선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고려후반기에 고구려사가 어떻게 연구되었으며 그 과정에 이룩된 성과와 제한성에 대하여 밝히려고 한다.

1.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와 성과

1.1.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정형

고려전반기인 10~12세기에 이어 고려후반기인 13~14세기에도 고구려사

* Ho Myong Chol(Graduate student, Faculty of History, Kim Il Sung University, DPRK)

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었다.

이 시기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는 봉건국가의 주관밑에 진행된 고려전반기와는 달리 개별적인 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그것은 고려후반기에 조성된 대내외정세와 관련하여 국가적인 범위에서 민족사를 편찬하고 연구할수 없었기때문이었다.

13세기이후 왕권에 대립하는 대봉건세력들의 진출이 강화되어 봉건왕권은 심히 위축되었고 제반 통치제도가 문란되어 국가의 중앙집권력은 더욱 약화되었다. 한편 봉건몽골과 왜구의 끊임없는 침략은 고려의 자주권을 엄중히 위협하였다. 이런 복잡한 정세속에서 고려봉건국가는 고구려를 비롯한 선행한 왕조들의 력사연구에 국가적인 관심을 돌릴만한 여유를 가질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 시기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는 국가의 주관밑에서가 아니라 개별적인 학자들 자체의 결심과 노력에 의하여 진행되게 되었다.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에 힘을 넣은 대표적인 학자들은 일연(1206-1289)과 리승휴(1224-1300)였다.

승려이면서도 학자로서 국존(최고의 승려벼슬)의 지위에까지 올랐던 일연은 봉건몽골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에 고무되어 우리 나라의 력사와 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 일연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수정보충할것이 많다고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구『삼국사』와 『삼국사기』·『고기』·『단군기』·『신지비사』 등 정사체·야사체 력사책들, 여러 절간의 기록들·금석문·민간전승기록들을 비롯한 각종 국내자료들과 『한서』·『구당서』·『신당서』 등의 외국자료들을 광범히 수집하고 분석한데 기초하여 13세기말엽에 『삼국유사』를 집필하였다.

일연은 자기가 쓴 책의 제목을 삼국시기의 력사적사실들중에서 『삼국사기』에 빠진것과 잘못 기록된것들을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삼국유사』라고 달았다. 그러나 일연이 본래 독실한 승려였기때문에 『삼국유사』에 보충한것들의 대부분은 이 시기의 불교관계사실들이었다.

『삼국유사』에는 그것이 정사인 『삼국사기』가 대상으로 삼지 않은 자료들을 추려 모은 야사라는 사정과 또한 기이의 서두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허망

한 이야기라도 그것이 역사적전설이라면 다 기록한다는 저자의 다방면적인 자료취급태도로 하여 『삼국사기』에 없는 세나라관계자료들은 물론 고대국가들에 대한 자료들도 담겨져있다. 따라서 『삼국유사』는 우리 나라의 고대 및 삼국시기 역사연구에서 귀중한 문헌으로 된다.

『삼국유사』를 집필하는 과정에 일연은 고구려사를 연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를 『삼국유사』의 왕력과 기이·홍범·탐상·의해 등에 반영하였다.

일연뿐만아니라 리승휴도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리승휴는 13세기후반기의 학자로서 봉건정부에서 높은 벼슬을 지내다가 생애의 말년에는 주로 두타산 구동(경상북도 성주)에서 은거생활을 하면서 학문연구에 전심하였다. 이 시기 그는 역대 제왕들의 흥망사를 통하여 당시 문란해진 봉건통치체제를 공고화하려고 하였다. 그는 많은 서적들을 탐구하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호상 비교한데 기초하여 요점들을 종합하였으며¹ 특히 우리 나라 역사에 대하여서는 『삼국사기』와 각종 본기·수이전·경서 등을 참고하여 흥망의 년대를 밝히려고 하였다.²

그리하여 1287년에 역대 왕들의 흥망의 역사를 담은 『제왕운기』가 완성되었다.

『제왕운기』는 상·하 두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우리 나라의 역사는 하권에서 취급되었다.

하권 앞부분의 『동국군왕개국년대』에서는 단군조선시기로부터 발해 및 후기신라시기까지의 역사적사실을 7언시형식으로, 뒤부분의 『본조(고려)군왕세계년대』에서는 고려태조로부터 25대 경효왕(충렬왕)시기까지의 역사적사실을 5언시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제왕운기』는 우리 나라 고대 및 삼국시기역사와 관련하여 『삼국사기』·『삼국유사』 등과 다른 새로운 사료들을 담고있기때문에 문학작품으로뿐아니라 역사문헌으로도 평가되고있다.

1 『제왕운기』 진정인표, 하권 동국군왕개국년대 병서.

2 『제왕운기』 진정인표, 하권 동국군왕개국년대 병서.

리승휴는 『제왕운기』를 쓰면서 역대 왕조들의 력사와 함께 고구려의 력사도 연구한데 기초하여 그와 관련한 내용들을 고구려기와 백제기에 실었다.

이처럼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는 일연과 리승휴에 의하여 진행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 일정한 성과가 이룩되었다.

1.2.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에서 이룩된 성과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에서 이룩된 성과는 무엇보다먼저 고구려사연구를 위한 자료적토대를 마련하는데 이바지한것이다.

그것은 고려전반기에 편찬된 력사책들에 없는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내고 보충한것을 통하여 잘 알수 있다.

고려후반기 이전에도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그와 관련한 많은 력사책들이 나왔지만 현재 남아있는것은 『삼국사기』뿐이다. 때문에 『삼국사기』에 없는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내어 보충한것은 이 시기 고구려사연구에서 이룩한 중요한 성과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일연과 리승휴가 고구려사와 관련하여 새롭게 찾아내고 보충한 자료들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 1: “동명왕은 … 추몽이라고도 하는데 단군의 아들이다.”³

자료 2: “시라(신라) · 고례(고구려) · 남북옥저 · 동북부여 · 예 · 맥이 모두 단군이 다스리던 지역이다.”⁴

자료 3: “주립전(불교서적인 법원주립의 략칭) 제21권에 기록되어있기를 ‘옛날 념품리왕의 몸종이 태기가 있어 … 그가 아들을 낳자 상서롭지 못하다 하여 돼지우리에 버리니 돼지가 입김을 불어 덥히고 마구간에 버리니 말이 젖을 먹여서 죽지 않았다. 마침내 부여왕이 되었다.’고 하였다.”⁵

3 『삼국유사』 권1 왕력.

4 『제왕운기』 하권 동국군왕개국년대.

5 『삼국유사』 권1 기이 고구려, 제2대 남해왕, 제3대 노례왕, 진흥왕, 제18대 실성왕, 나물왕과 김제상.

자료 4: “천봉 5년 무인(18년)에는 고구려에 예속되었던 7개 나라가 항복해왔다.”⁶

자료 5: “건무 18년(42년) … 이해에 고구려군사가 와서 침범하였다.”⁷

자료 6: “승성 3년(554년) 9월에 백제군사가 와서 진성을 침노하여 남녀 3만 9천 명과 말 8천필을 로략해가지고갔다. 이보다 앞서 백제가 신라와 군사를 합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하였던바 진흥왕이 말하기를 ‘나라가 흥하고 망 하는것은 하늘에 달려있는것이다. 만약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감히 성공을 바랄것인가?’라고 하였더니 바로 이 말이 고구려로 전달되어 고구려가 이 말에 감복하고 신라와 우호를 맺었다. 그러나 백제는 신라를 원망하였으므로 이렇게 침범한것이다.”⁸

자료 7: “제2대 유리왕…한편 루리라고도 하고 또 유류라고도 하는데 …성은 해씨이다.”, “제3대 대무신왕 이름은 무홀이니 미류라고도 하며 성은 해씨이다.”, “제4대 민중왕 이름은 색주이고 성은 해씨이니 대무(대무신왕)의 아들이다.”, “제5대 모본왕 민중(왕)의 형이다. 이름은 애류이니 우라고도 한다.”⁹

자료 8: “제7대 차대왕 …을사에 국조왕(태조대왕)의 나이가 119살이었는데 형제 두 왕이 함께 새 왕에게 피살되었다.”¹⁰

자료 9: “(실성)왕이 전 임금의 태자 놀지가 덕망이 있음을 꺼려서 장차 그를 죽이려 하여 고구려군사를 청하고 거짓 놀지를 맞는체 하니 고구려사람들이 놀지를 만나 그의 행실이 착함을 보고 곧 창끝을 되돌려 왕을 죽이고 놀지를 올려세워 왕을 삼아놓고 가버렸다.”¹¹

자료 10: “놀지왕 즉위 3년 기미에 … 왕이 … 두 나라가 화친하여 통래함을 다행

6 『삼국유사』 권1 기이 고구려, 제2대 남해왕, 제3대 노례왕, 진흥왕, 제18대 실성왕, 나물왕과 김제상.

7 『삼국유사』 권1 기이 고구려, 제2대 남해왕, 제3대 노례왕, 진흥왕, 제18대 실성왕, 나물왕과 김제상.

8 『삼국유사』 권1 기이 고구려, 제2대 남해왕, 제3대 노례왕, 진흥왕, 제18대 실성왕, 나물왕과 김제상.

9 『삼국유사』 권1 왕력.

10 『삼국유사』 권1 왕력.

11 『삼국유사』 권1 기이 고구려, 제2대 남해왕, 제3대 노례왕, 진흥왕, 제18대 실성왕, 나물왕과 김제상.

이 여겨 그 동생 보해를 시켜 고구려로 가게 하면서 내신 김무알을 보좌로 삼아 보냈더니 장수왕도 또 억류하고 보내지 않았다. 10년 을축에 이르러 왕이...여러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고구려가 친구를 맺자는 말이 있어 나는 그 말을 믿고 나의 친동생을 고구려에 사절로 보냈더니 고구려 역시 붙들어두고 보내지 않는다. ...’라고 하였다. ...제상이 임금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고 ... 고구려로 들어갔다. 보해의 처소로 가서 함께 빠져 나갈 약속을 하고 ... 보해는 병을 청탈하고 며칠이나 조회참가를 하지 않다가 밤중에 도망쳐 나와 고성의 해변에 가서 이르렀다. 고구려 왕이 이것을 알고 수십명의 사람을 시켜 이를 추격하여 고성까지 와서야 따라 잡았다. 그러나 ... 군사들이 매우 동정하여 모두가 활촉을 빼어버리고 활을 쏘았기때문에 마침내 무사히 빠져서 돌아왔다.”¹²

우에서 제시한 자료들은 크게 두가지 부류로 나누어볼수 있다. 하나는 『삼국사기』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것이고 다른 하나는 『삼국사기』에서 해당한 문제들에 대하여 언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차이나는것들이다. 즉 자료 1~6은 첫번째 부류에 속하고 자료 7~10은 두번째 부류에 속한다.

자료 1, 2는 고조선과 고구려의 계승관계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뒤에서 구체적으로 보기로 한다.

자료 3은 고구려건국전설과 관련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부여건국전설처럼 보이지만 실제상 고구려건국전설이다. 그것은 일연이 이에 대하여 “이것은 동명제가 졸본부여의 왕이 된것을 말함이다. 이 졸본부여는 역시 북부여의 별개 도읍지이므로 부여왕이라한것이다. 녕품리는 부루왕의 다른 칭호이다.”라고 주석을 달아놓은것을 통하여 알수 있다. 이 전설은 『삼국사기』에 실린 고구려건국전설보다는 소략하지만 고구려건국전설의 형성과정을 밝히는데서 일정한 의의가 있다고 볼수 있다. 특히 이 전설에 대한 주석에서 일연이 동명왕을 동명제(帝)라고 한것은 13세기에도 고려사람들이 고구려의 시조왕인 동명왕을 황제로 생각하고있었다는것을 보

12 『삼국유사』 권1 기이 고구려, 제2대 남해왕, 제3대 노례왕, 진흥왕, 제18대 실성왕, 나물왕과 김제상.

여준다.

자료 4와 5는 A.D. 1세기초엽에 고구려가 오늘의 강원도 북부지방에까지 진출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로 된다. 18년에 고구려에 속해있던 7개 나라(비속 7국)가 신라(당시 진한)에 투항하고 42년에 고구려가 신라를 공격한 사실은 당시 진한의 북변이 기껏해서 강릉지방이었고 신라는 진한의 령역안에서 방금 세워졌다는것을 고려해볼 때 이 시기 고구려가 오늘의 강원도 북부지방에까지 자기의 령역을 확대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¹³

이와 함께 자료 5는 『삼국사기』에 기초하여 고구려와 신라의 직접적인 접촉년대를 245년으로 보는 견해¹⁴보다 약 200년이나 앞선 42년으로 볼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고있다.

자료 6은 550년대중엽 복잡하였던 고구려, 백제, 신라 세나라들의 관계를 파악하는데서 의의를 가진다.

자료 7은 고구려 초기 왕들의 성과 이름, 향렬관계와 관련한 자료이다. 일연은 우선 류리왕, 대무신왕, 민중왕, 모본왕의 이름만 혹은 성과 이름을 다 합쳐 이름이라고 기록한 김부식과는 달리 그들의 이름과 함께 성이 ‘해’씨라는것을 명백히 밝힘으로써 그들이 모두 해모수의 후손이었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일연은 또한 민중왕과 모본왕의 향렬관계를 김부식과는 달리 전하였다. 일연은 민중왕과 모본왕의 향렬관계를 대무신왕의 아들들사이관계(동생-형관계)로 기록하였으나 김부식은 대무신왕의 동생과 맏아들사이관계(삼촌-조카관계)로 서술하였다. 여기에서 민중왕과 모본왕의 계보는 김부식이 전한 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대무신왕이 죽은 다음 형(모본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생(민중왕)이 왕위에 올랐다는 일연의 견해보다는 대무신왕이 죽은 다음 태자가 어려서 정사를 할수 없어 대무신왕의 동생(민중왕)이 왕위에 올랐으며 4년후 민중왕이 죽자 본래의 태자가 왕위에

13 손영종(2006) 『조선단대사』(고구려사 1),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34.

14 강세권(2011) 『조선단대사』(신라사 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43.

올랐다는것이 더 합리적이기때문이다.

자료 8은 165년 국조왕(태조대왕)과 차대왕의 죽음과 관련한 자료이다.

일연은 165년에 국조왕(태조대왕)과 차대왕이 함께 새 왕(신대왕)에 의하여 살해된것으로 썼지만 김부식은 이해 3월에 태조대왕이 먼저 죽고 10월에 명림답부의 정변이 일어나 차대왕이 죽은것으로 썼다. 일연과 김부식의 기록중에서 어느것이 진실이겠는가 하는것은 앞으로 연구를 더 심화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자료 9, 10은 신라 눌지왕의 즉위와 그의 동생 보해(복호)의 송환을 통하여 고구려-신라관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들이다.

이 자료들은 『삼국사기』와 내용적으로나 년대적으로 일정한 차이가 있으므로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보해(복호)의 송환문제에 대하여서는 당시 고구려-신라관계가 우호적이였다는것을 넘두에 둘 때 고구려에서 그를 몰래 빼내갔다는 『삼국유사』의 기록보다도 외교적교섭으로 데려갔다는 『삼국사기』의 기록이 더 신빙성있다고 볼수 있다.

우에서 본바와 같이 일연과 리승휴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서 새롭게 보충한 고구려사관계자료들중에는 실제적인 역사적사실과 차이나는것도 있고 그 진실성 여부를 더 검토해보아야 하는것도 있지만 그것은 『삼국사기』의 기사들으로써 밝힐수 없는 일련의 문제점들을 해명하는데서 귀중한 자료로 된다.

일연과 리승휴가 『삼국유사』와 『제왕운기』에 고구려사와 관련한 적지 않은 자료들을 새롭게 보충한것은 그들이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킨 결과였다.

이처럼 일연과 리승휴가 『삼국사기』에 없는 새로운 고구려사관계자료들을 보충함으로써 그후 고구려사연구에 필요한 자료축성에 기여한것은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에서 이룩한 성과였다.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에서 이룩된 성과는 다음으로 고구려와 고조선의 계승관계를 밝힌것이다.

고구려와 고조선의 계승관계는 일연에 의하여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종래에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우리 나라의 고대사를 외면하다나니 고구려와 선행한 고대국가들과의 관계를 옳바로 밝히지 못하였다. 다만 그는 부여에서 탈출한 주몽세력이 졸본부여(구려)에서 고구려를 세웠다고 함으로써 고구려와 부여, 고구려와의 관계만을 일정하게 밝히었으며 고조선과의 관계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연은 『삼국유사』의 왕력에서 동명왕은 단군의 아들이라고 함으로써 고조선과 고구려와의 계승관계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물론 일연도 고조선의 시조왕인 단군과 고구려의 시조왕인 동명왕사이에 시간적으로 엄연한 차이가 있다는것을 모를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명왕을 단군의 아들이라고 한것은 고구려와 고조선의 계승관계를 밝히기 위한 시도의 결과였다고 보아진다.

고구려와 고조선의 계승관계는 그후 리승휴에 의하여 일정하게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었다.

리승휴는 『제왕운기』의 단군에 대한 부분에 “시라(신라) · 고례(고구려) · 남북옥저 · 동북부여 · 예 · 맥이 · 모두 단군이 다스리던 지역이다.”¹⁵라는 어떤 책의 『본기』 내용을 주석으로 인용하였다. 또한 부여와 비류국에 대한 주석을 뒤이어 본문에서 “다음은 신라와 고구려 · 남북옥저 · 예 · 맥이 있었나니 이 나라 임금들 누구의 후손이던가. 그 혈통 단군에서 뻗어내렸다네.”¹⁶라고 함으로써 앞에서 주석으로 인용한 내용을 강조하였다.

고구려가 고조선의 영역에 속해있었고 그 왕도 단군의 후손이라고 한것은 고구려와 고구려의 계승관계를 밝히는데서 일연이보다 한걸음 더 전진하여 과학적으로 론증한것이였다. 리승휴가 영역상으로 고구려와 고조선의 계승관계를 론한것은 일연이 제기하지 못하였던 문제였다. 그리고 고구려의 왕을 단군의 후손, 단군의 혈통이라고 한것은 동명왕을 단군의 아들이라고 한 일연의 론거가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약점을 극복한것이였다.

15 『제왕운기』 하권 동국군왕개국년대.

16 『제왕운기』 하권 동국군왕개국년대.

실제로 고구려는 단군조선시기 단군조선의 후국으로 존재하고있다가 후 조선으로 교체되던 시기에 분리되어 독자적인 국가로 등장한 고대 고구려국의 령토에서 세워진 봉건국가로서 그의 령토는 단군조선의 령역에 속해있었다.

이처럼 일연과 리승휴에 의하여 력사적사실에 부합되게 고구려와 고조선의 계승관계가 제기되고 일정하게 밝혀지게 된것은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에서 이룩된 성과였다.

2.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의 제한성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에서는 여러가지 제한성들도 나타났다.

제한성은 무엇보다먼저 마한-고구려설을 『정설』로 더욱 굳혀놓은것이였다.

마한-고구려설은 우리 나라 고대에 존재하였던 진국의 삼한 즉 마한·변한·진한이 각각 그후에 고구려·백제·신라로 되었다고 보는 삼한-삼국설의 한부분으로서 고구려의 초기령역을 조선반도안으로 국한시켜 보는 그릇된 설이다.

마한-고구려설은 후기신라의 봉건관료이며 문인이였던 최치원(857-?)이 당나라의 태사시중에게 보낸 편지에서 “삼가 듣건대 동해밖에 세 나라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마한과 변한·진한이었습니다. 마한은 고려(고구려)이고 변한은 백제이며 진한은 신라입니다.”¹⁷라고 함으로써 발단되였다.

그후 마한-고구려설은 김부식에 의하여 답습되였고 고려후반기에 들어와 일연이 여기에 몇가지 『근거』까지 안받침함으로써 『정설』로 고착되였다.

일연은 『삼국유사』의 마한조에서 “마한은 고구려이고 진한은 신라이다.”라고 한 최치원의 말을 인용한 다음 “본기에 의하면 즉 신라가 먼저 갑자년에 일어나고 고구려가 그후 갑신년에 일어났다고 하였는데 이렇게 말하는것

17 『삼국사기』 권46 렬전 최치원.

은 조선왕 준을 두고 말한것이다. 이로써 동명왕이 일어난것은 이미 마한을 병합했기때문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리하여 고구려를 일컬어 마한이라고 하는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혹 옛 기록에 백제가 금마산에서 나라를 세웠다는 글이 있는것을 보고 마한을 백제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잘못이다. 고구려땅에는 원래 마읍산이라는 산이 있기때문에 고구려를 마한이라고 하는것이다.”라고 주석을 달아놓음으로써 마한-고구려설을 정당화하였다. 그리고 같은 책의 변한 백제조에서는 “변한은 백제이다.”라고 한 최치원의 말을 서술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룡산의 별명이 변나산이라고도 하기때문에 고구려를 변한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잘못이다. 마땅히 옛 현자(최치원-인용자)의 말을 옳다고 해야 할것이다.”라고 함으로써 변한-고구려설을 부정하고 변한-백제설을 주장하였다.

우에서 본것처럼 일연은 크게 두가지 근거로 최치원의 마한-고구려설을 긍정하였다. 그 근거의 하나는 동명왕이 마한을 병합한 다음 고구려를 세웠기때문이라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구려땅에 마읍산이 있기때문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 근거는 모두 역사적사실과 논리에 잘 맞지 않는다.

첫번째 근거는 마한이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에 의하여 멸망한 사실, 그리고 일연 자신이 인용한 고구려건국전설에 동명왕이 고구려를 세우기전에 마한을 병합하였다는 자료는 물론 마한과의 그 어떠한 관계자료도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명백히 잘못되었다.

두번째 근거도 역시 논리적으로 불충분하다.

일연은 고구려에 마읍산이라는 산이 있기때문에 마한이라고 한다고 하면서도 변나산이 있기때문에 변한이라고 한다는것은 무턱대고 부정하였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납득되기 어려운 근거아닌 근거인것이다. 즉 고구려땅에 마읍산이 있기때문에 마한이라고 한다면 변나산이 있기때문에 변한이라고 부를수도 있기때문이다. 원래 마한이라는 이름은 그 나라안에 마읍산이나 금마산과 같이 『마』자가 들어간 산이름때문에 붙은것이 아니라 진국에서 마한이 차지하고있던 지위와 역할과 관련하여 『큰 한』의 뜻으로 불리워진것이였다.¹⁸

이처럼 일연은 그릇된 논거를 가지고 마한-고구려설을 『정설』로 고착시켰다. 그후 마한-고구려설은 리승휴에 의하여 계속 답습되었다.

리승휴는 마한-고구려설에 기초하여 고주몽이 “마한 왕검성에서 나라를 세웠어라”¹⁹라고까지 하였다.

이처럼 고려후반기에 마한-고구려설은 『정설』로 고착되었다.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에서의 제한성은 다음으로 봉건왕조사관과 불교관념론, 유교사상과 사대주의사상, 신라중심주의에 기초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분석평가하고 소략하게 서술한것이다.

일연과 리승휴는 우선 봉건왕조사관과 불교관념론, 유교사상과 사대주의사상에 기초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분석평가하고 서술하였다.

일연은 『삼국유사』를 집필하면서 다른 역사책들의 년표에 해당한것도 『왕력』이라는 표제를 달았으며 기이 고구려조에서도 고구려의 전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동명왕의 사적만을 취급하였다. 그리고 고구려가 멸망하게 된 것은 도교에 혹하여 불교를 믿지 않았기때문이라고 보고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인용하였다.²⁰

리승휴는 그의 저서인 『제왕운기』의 책이름 자체가 뚜렷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지난날의 역사를 왕조중심의 역사로 인식한것으로 하여 고구려를 비롯한 력대국가들의 역사를 제왕들의 흥망의 역사로 보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연개소문이 왕을 죽인 『역적』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그를 아침으로 권력을 잡고 국권을 희롱한 『간신』으로, 『어질고 대바른』사람들을 죽이고 권세를 부리면서 날마다 제멋대로 지독한 짓을 함부로 함으로써 나라의 기초를 기울게 한 『폭군』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당나라의 고구려침략과 그와 야합한 신라통치배들의 반민족적행위를 응당한것으로 보았다.²¹

18 오희복(1987) 『고전문헌들에 반영된 진국의 삼한관계자료에 대한 연구』,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22-124.

19 『제왕운기』 하권 동국군왕개국년대.

20 『삼국유사』 권3 흥법3 보장봉로 보덕이암.

21 『제왕운기』 하권 동국군왕개국년대.

일연과 리승휴는 또한 신라중심주의에 기초하여 고구려의 역사를 소략하게 서술하였다.

일연이 『삼국유사』의 왕력에서 신라다음에 고구려를 서술한것, 기이편에 서만도 신라의 혁거세를 비롯한 14명의 왕과 김유신을 비롯한 7명의 인물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항목(7명의 인물은 합쳐서 4개의 항목으로 서술)을 설정하고 서술한 반면에 동명왕을 고구려조에서 취급한것을 제외하고 고구려사람들에 대한 항목은 하나도 없는것 그리고 그와 리승휴가 다같이 고구려의 건국년대를 B.C. 37년으로 서술한것 등은 고구려의 역사를 소략하게 서술한 대표적인 실례들이다.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에서 이상의 제한성들이 나타나게 된것은 당시 역사가들의 사상적 및 계급적제한성, 당시 력사학의 시대적제한성, 고구려사와 관련한 외국된 견해들이 널리 류포되고있은것 등과 관련되었다.

이처럼 고려후반기 고구려사연구에서는 일정한 제한성이 있었지만 당시의 어렵고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킨것은 우리의 민족사학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였다.

우리는 지난 시기의 고구려사연구에 대한 분석평가를 더욱 심화시켜 고구려사연구의 발전과정을 밝히고 고구려사와 관련한 온갖 그릇된 견해들의 력사적근원을 옳바로 해명함으로써 조선민족의 강대국이었던 고구려의 역사를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 것이다.

중국 연변조선어 어간말 비음 ‘ŋ’의 탈락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고찰

An Experimental Phonetic Study on the Deletion of Stem-Final ‘ŋ’
in the Chinese Yanbian Korean

許秦*

東京大学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문제의식

중국 조선어¹는 중국 동북삼성²이라고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중국 소수민족의 일부인 조선족에 의해 사용된다. 조선족의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중국 조선어를 여러 종류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들 대다수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연변조선어는 중국의 조선어 중 매우 중요한 지위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연변조선어에 대한 연구는 조선어 방언 연구의 일환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현재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변조선어의 음운론적 연구에 관해

* Xu Qin(Doctoral Course, the University of Tokyo)

E-mail: xuqin8181@gmail.com

1 한국의 ‘한국어’와 같은 언어를 가리키나 나라와 지역에 따라 부동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조선어’라 부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용어를 모두 ‘조선어’로 통일한다.

2 동북삼성은 중국의 동북 쪽에 위치해 있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을 가리킨다.

서는 악센트 연구가 비교적 많다. 함경도 방언을 기반으로 하는 연변조선어는 현재의 서울 방언에서 소실된 악센트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악센트 연구가 연변조선어 음운 연구의 주된 대상으로 되어 왔다.³ 그러나 연변조선어 악센트 이외의 음운적 특징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는 아직 불충분하다. 특히 정밀하고 과학적인 음향분석을 수반하는 실험음성학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변조선어의 음운체계를 가시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음성학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연변조선어는 표준어 및 다른 방언에 비해 음운 탈락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 음운 탈락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나, 연변조선어 화자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어간말 비음의 ‘ŋ’의 탈락이 꼽힌다. 채옥자(2003)에 따르면 연변조선어에서 어간말 비음 ‘ŋ’ 뒤에 주격 조사 ‘이’, 또는 ‘이’계열의 조사가 오는 경우 (예: ‘사랑-이’, ‘행동-이’), 그 어간말의 비음 ‘ŋ’이 탈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saraŋ-i/ → /sarai/; /hɛŋdon-i / → /hɛndoi/). 다만 이 비음이 완전히 탈락하는지, 아니면 후행 모음을 비음화 시킨 형태로 남아 있는지는 음성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 또한 현재 연변조선어는 한국 표준어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지도 모른다. 본고에서는 실험음성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음향음성학적인 고찰을 거쳐 어간말 비음 ‘ŋ’의 탈락 양상을 관찰하고 이 현상의 세대차에 대해서도 논의하도록 한다. 또 선행연구에서는 주격 조사 및 ‘이’계 조사 앞에서 어간말 비음 ‘ŋ’이 탈락된다고 보고되었는데, ‘이’ 이외의 모음을 지닌 조사 앞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어간말 비음 ‘ŋ’이 ‘이’ 이외의 모음을 지닌 조사 앞에서 탈락하는지도 함께 검토하도록 한다.

3 연변 지역어 악센트는 Ramsey(1978), 車香春(2000), 河須崎英之(2010)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변 지역어는 악센트가 오는 위치가 높은 피치로 발음되며 한 단어와 조사가 결합된 어절에서 악센트는 하나밖에 없다. 즉, 하나의 어절에 높은 피치가 1개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1.2. 선행연구

연변조선어의 음운탈락에 관하여 채옥자(2003)에서는 반모음 탈락, 모음 ‘u’의 탈락, 모음 ‘a/ɔ’의 탈락, 비음 ‘n’의 탈락, 비음 ‘ŋ’의 탈락, 자음 ‘h’의 탈락 등 여섯 가지 탈락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중 어간말 비음 ‘ŋ’의 탈락 현상은 연변 지역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어간말의 ‘ŋ’뒤의 ‘이’를 음성적으로 비모음화한 뒤 그 비모음이 약화되어 비음이 완전히 탈락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비음이 완전히 탈락되는지, 아니면 후행 모음을 비모음 ɪ로 변화시킨 형태로 남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음성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았다.

또한 전학석(1996)에서는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중성의 ‘ŋ’이 탈락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다(영웅 → 여웅; ionɯŋ → ionɯ). 이는 연변조선어에서 어간말의 ‘ŋ’뿐만 아니라 단어 내부에서 음절 말의 ‘ŋ’도 탈락할 수 있으며, 비음 ‘ŋ’ 뒤에 오는 모음도 ‘i’에 국한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즉 연변조선어에서 비음 ‘ŋ’의 탈락은 매우 넓은 범위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어간말의 비음 ‘ŋ’의 탈락만 검토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

필자는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 출신인 피험자를 찾아 녹음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피험자는 20대의 젊은 세대의 화자 6명, 60대 이상의 노년세대 화자 6명으로 하였으며, 두 세대의 피험자에서 남녀 각각 3명으로 하였다. 그중 20대인 피험자는 일본에서 찾았으며,⁴ 60대 이상의 피험자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에서 찾았다. 녹음은 OLYMPUS 멀티트랙 리니어 PCM 레코더(LS-100)로 진행하였다. 연변조선어의 실태를 가급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을 연변조선족자치주 내에서 받았고,

4 6명 모두 일본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이다.

장기간 연변조선족자치주에 거주하고 있는 화자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다만 중국에서 한국 방송을 시청하기가 쉬워지고 조선족의 한국 진출이 쉬워진 현재 상황에서 필자가 선정한 피험자 중에서 한국 프로그램을 전혀 시청하지 않고 한국에 간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⁵

녹음 방법으로, 피험자에게 어간말 비음이 ‘ŋ’인 단어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를 넣어 발화하도록 한 뒤, 그것을 녹음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택할 수 있지만, 격식을 차리는 자리에서 피험자가 표준 발음을 의식한 나머지 평소와 같은 발화가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필자는 연변조선어 화자가 모두 중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부분이 포함된 틀문장을 만들어 그것을 중국어로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피험자에게 이러한 중국어로 된 틀문장을 보여주고 그것을 연변조선어로 번역하되, 자연스럽게 발화할 것을 청하여 그 발화를 녹음하였다. 이 방법을 이용하면, 피험자가 조선어 단어를 의식하여 발음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고, 피험자의 보다 자연스러운 발화를 녹음할 수 있다. 다만, 피험자에 의한 조선어 번역이 녹음하고자 하는 단어와 일치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으로 일상 회화에서도 자주 사용할 법한 문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틀문장을 상정하였다.⁶

①

중국어：行动快

조선어：행동이 빠르다

이상적인 번역형：행도이 빠르다

5 이창혁 외(2001)에서는 1997년 7월 1일 KBS 위성시험방송이 시작된 이래로 중국 조선족들 사이에서 한국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으며, 1999년 한국 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연변 지역에서 한국 방송을 보기 위해 설치된 위성방송 수신기 수는 약 3만 개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

6 고찰하고자 하는 부분을 굵은 글씨로 표기하였다.

②

중국어: 注意举止

조선어: 행동~~을~~ 조심해라

이상적인 번역형: 행동- 조심해라⁷

③

중국어: 用行动展示

조선어: 행동~~으로~~ 보여주다

이상적인 번역형: 행동-로 보여준다⁸

④

중국어: 举止上有问题

조선어: 행동~~에~~ 문제가 있다

이상적인 번역형: 행동에 문제 있다

⑤

중국어: 什么是爱

조선어: 사랑~~이~~ 무엇인가

이상적인 번역형: 사랑이 뭐이야

⑥

중국어: 给予爱

조선어: 사랑~~을~~ 주다

이상적인 번역형: 사랑- 주다

⑦

중국어: 用爱偿还

7 연변조선어에서 목적격 조사 ‘-을/를’에서 중성의 ‘ㄹ’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은데, 선행하는 음절이 개음절인 경우 모음 ‘-’도 탈락하면서 앞의 모음을 장음화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곳에서 ‘-’는 앞의 모음이 장음으로 실현됨을 나타낸다.

8 부사격 조사 ‘-(으)로’의 모음 ‘-’ 또한 연변조선어에서 탈락하기 쉽다. 이곳에서 ‘-’는 앞의 모음이 장음으로 실현됨을 나타낸다.

조선어 : 사랑으로 값다
이상적인 번역형 : 사라-로 값다

⑧

중국어 : 陷入愛河
조선어 : 사랑에 빠지다
이상적인 번역형 : 사라에 빠지다

이상 틀문장을 실험에서 사용하였으나, 실제 녹음을 진행하는 당시, 모든 화자가 이상적인 번역형을 발화한 것은 아니었다. 중국어로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어형으로 대답한 화자도 있었다. 이런 경우 필자는 이상적인 번역형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그것과 비슷하게 자연스러운 방언으로 발화할 것을 부탁하였다. 그럼에도 60대 이상의 노년 화자에서 ‘이’가 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절한 방언형을 얻지 못하였다.⁹ 때문에 어간말 비음 ‘ŋ’에 후행 모음이 ‘이’ 이외의 경우에 대한 고찰은 젊은 세대에 한정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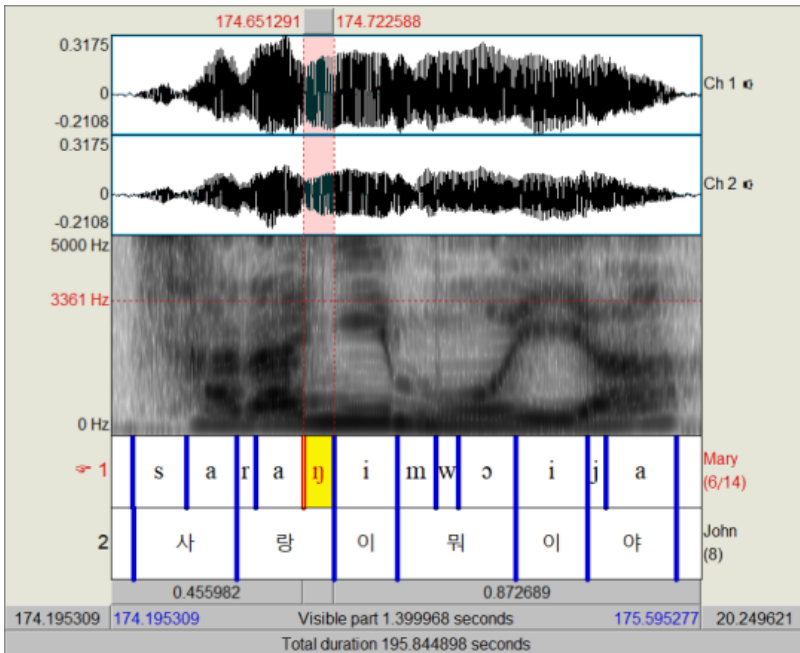
상술 방법으로 얻은 음성 데이터의 음향 스펙트럼을 음향 분석 전용 소프트웨어 Praat(6.1.41)로 관찰하여, 어간말 비음의 탈락 여부와 모음 ‘이’의 비모음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성철재(1996: 12)는 반공명 Zero가 공명주파수의 스펙트럼이나 공명주파수 근처의 스펙트럼을 강화시키는 대신 선택적으로 소리를 흡수하며, 그 결과로 인해 반공명 주파수 근처에 있는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를 강하게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즉 비음이 실현될 경우 스펙트럼에서 포먼트의 감소가 확인될 것이다. 성철재(1996: 12)를 참고하여 본고에서는 어간말 비음이 탈락되었는지, 비음에 후행하는 모음 ‘이’에 비모음화가 일어났는지를 고찰하도록 한다.

9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 정부의 해외 입국자에 대한 엄격한 통제로, 중국 입국이 어려워지게 되어 필자가 직접 현지에서 녹음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인에게 부탁하여 원격으로 녹음을 진행하였으나, 피험자와의 의사소통이 제한되어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이’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후행하는 경우의 녹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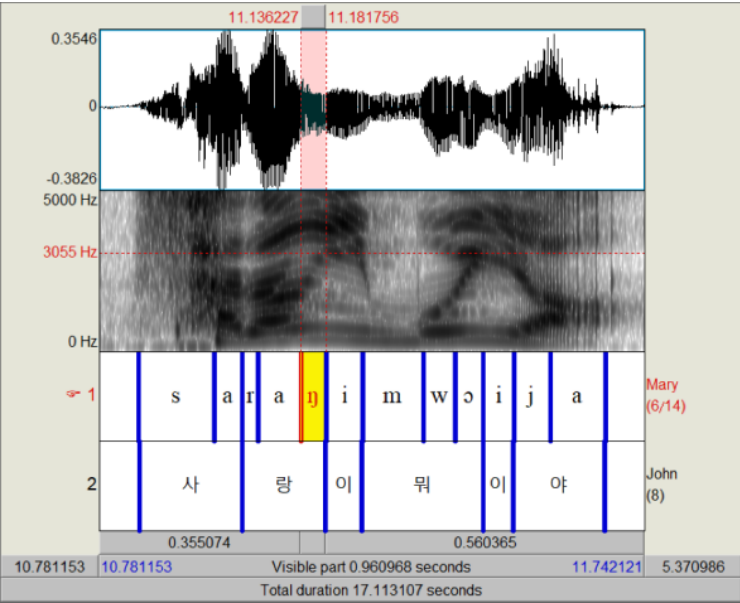
3. 결과 및 고찰

3.1. 어간말 비음의 탈락 및 비모음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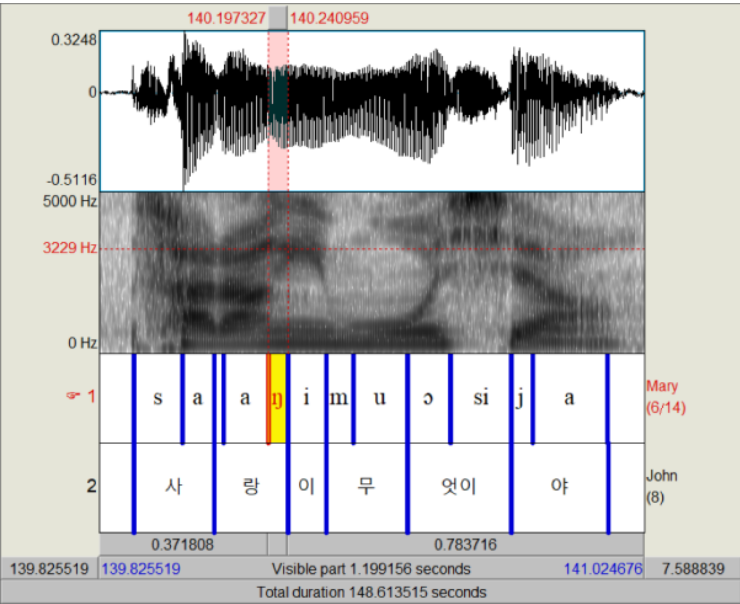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행동이 빠르다”의 경우 12명의 모든 화자에게서, 비음이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랑이 무엇인가”의 경우, 노년 세대의 화자 중 여성 한 명과, 젊은 세대 화자 중 여성 두 명이 비음을 탈락 시키지 않고 ‘ㄷ’을 그대로 발음하였다. 청각적으로도 확인되는 바, 음향 스펙트럼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아래에 이상 세 명의 “사랑이 무엇인가” 부분의 음향 스펙트럼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림 3-1〉 노년 세대 여성 화자에서 얻은 녹음 데이터의 스펙트럼



〈그림 3-2〉 젊은 세대 여성 화자에서 얻은 녹음 데이터의 스펙트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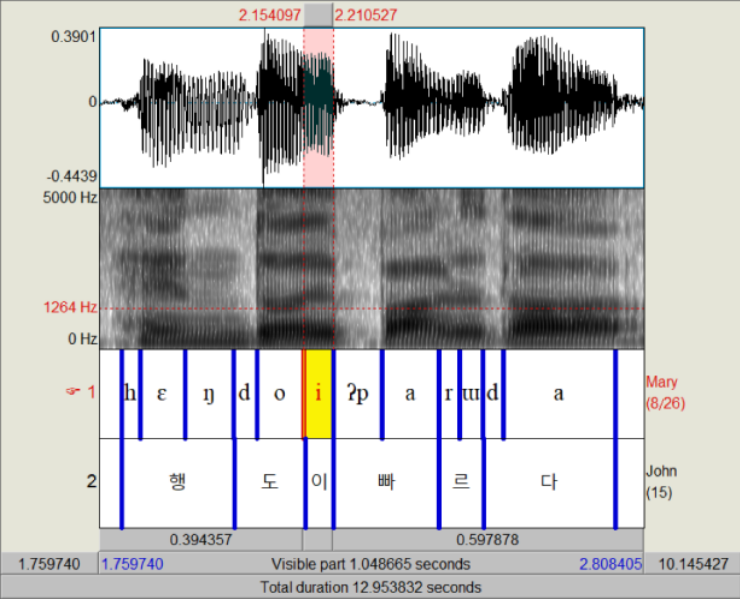


〈그림 3-3〉 젊은 세대 여성 화자에서 얻은 녹음 데이터의 스펙트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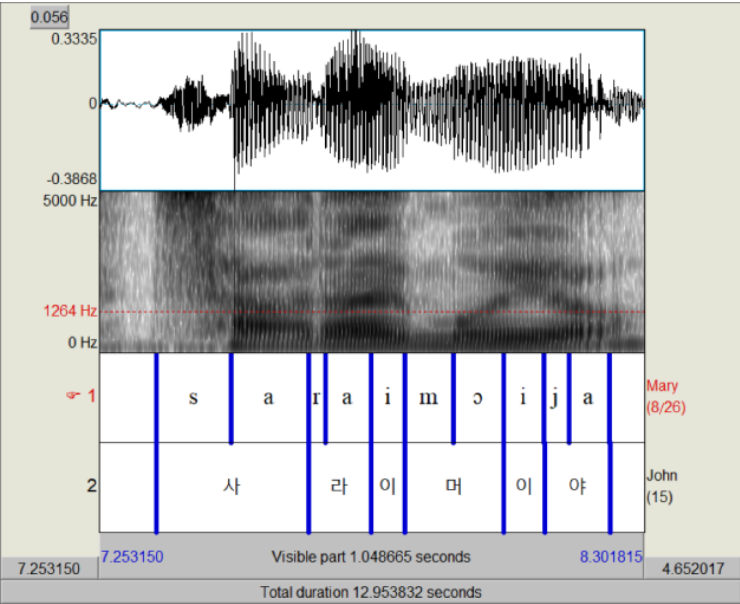
〈그림 3-1, 3-2, 3-3〉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ŋ’ 스펙트럼의 F2, F3¹⁰부근에서 음성적 약화가 확인된다. 즉 비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젊은 세대의 여성 화자의 경우, 어간말 비음 ‘ŋ’에 후행하는 모음 ‘이’에서도 음성적 약화가 보이는데, 이것은 비음 ‘ŋ’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비모음화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상의 세 명의 화자에서만 “사랑이 무엇인가”에서 조사 ‘이’ 앞의 어간말 비음의 탈락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모두 여성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의 경우, “행동이 빠르다”를 비롯하여 “사랑이 무엇인가”에서도 모두 조사 ‘이’ 앞의 어간말 비음의 탈락이 확인되고 있다. 〈그림 3-4〉와 〈그림 3-5〉는 한 젊은 세대의 남성 화자가 발화한 “행동이 빠르다”와 “사랑이 무엇인가”의 음향 스펙트럼인데, 보이는 것과 같이 원래 비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음성적 약화가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이는 비음이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전해영(2004: 36)에서 남녀의 발음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는데, 그중 여성이 남성보다 표준 발음을 더 선호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연변조선어의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본다. 즉 여성이 보다 표준형으로 발화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조사 ‘이’ 앞에서 어간말 비음이 탈락되지 않는 경우는 여성에서만 확인되고 있다.

10 포먼트 주파수를 가리킨다. 성도의 공명을 포먼트 주파수라고 일컫는데 모음의 음가를 결정 짓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제1 포먼트(F1)는 인두강의 면적, 입의 개방 정도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제2 포먼트(F2)는 구강의 길이와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모음의 개구도가 크면 클수록 F1의 값은 커지고, 모음의 조음 위치가 혀의 앞쪽에 있을수록 F2의 값이 커진다. 이 외에도 제3 포먼트(F3), 제4 포먼트(F4)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F1과 F2값에 주목하여 고찰을 진행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포먼트 값은 실제 모음의 조음 위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원순성이 가미되면 포먼트 값이 작아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먼트 값과 모음의 조음 위치 사이에는 확실한 대응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포먼트 값은 어디까지나 청각적인 모음의 상대 위치를 반영하며, 조음적인 상대 위치는 반영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용어인 개구도와 전설성은 조음적인 측면에서 정의한 것이 아니라 포먼트 값에 의한 청각적인 상대 위치에 근거한 용어라는 것을 사전에 밝히는 바이다. 모음의 음가와 포먼트의 관계는 Gloria J. Borden의(1994: 108-126)를 참조할 수 있다.



〈그림 3-4〉 젊은 세대 남성 화자에서 얻은 녹음 데이터의 스펙트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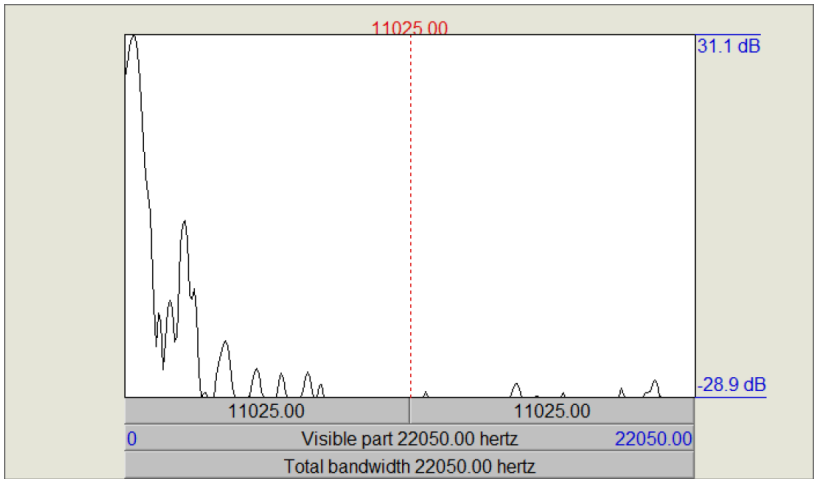
〈그림 3-5〉 젊은 세대 남성 화자에서 얻은 녹음 데이터의 스펙트럼(2)

다음으로 세대 차에 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조사 ‘이’ 앞에서의 어간말 비음의 탈락 양상은 노년 세대 화자와 젊은 세대 화자 간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선 남성의 경우는 세대와 관계없이 모든 화자에게서 조사 ‘이’ 앞의 어간말 비음의 탈락이 확인되었다. 여성의 경우, “행동이 빠르다”를 발화할 시, 모든 화자에게서 조사 ‘이’ 앞의 어간말 비음 ‘ㄷ’의 탈락이 확인되지만 “사랑이 무엇인가”를 발화할 시에는 세 명의 화자에게서 조사 ‘이’ 앞의 어간말 비음의 탈락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그 중 한 명이 노년 세대 화자, 두 명이 젊은 세대 화자라는 점으로 보아, 노년 세대 화자가 발화에서 더 방언형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논리적으로 노년 세대의 화자가 발음에 있어서 보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노년 세대에서 조사 ‘이’ 앞의 어간말 비음 ‘ㄷ’의 탈락이 보다 쉽게 나타난다고 결론 지을 수도 있으나, 다만 피험자의 수가 적고, 조사 ‘이’ 앞의 어간말 비음이 탈락하지 않는 화자가 젊은 세대에서 노년 세대보다 한 명 밖에 더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아직 세대 차이를 확실히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앞으로 피험자 수를 늘려, 조사 ‘이’ 앞에서의 어간말 비음 ‘ㄷ’의 탈락이 연변조선어 화자 중에서 어떤 비율로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 사회언어학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조사 ‘이’ 앞의 어간말 비음이 탈락하는 경우, 조사 ‘이’ 부분이 비모음화 되는지에 관해 고찰하도록 한다. 우선 모든 화자의 음향 스펙트럼에서의 조사 ‘이’ 부분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시각적으로는 비모음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나, 단지 시각적인 판단으로는 비모음화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때문에 Praat의 view spectral slice 기능을 이용하여 모음 개시 부분과 모음이 안정된 부분에서 비음의 반공명에 의한 진폭의 뚜렷한 감쇄가 존재하는지 검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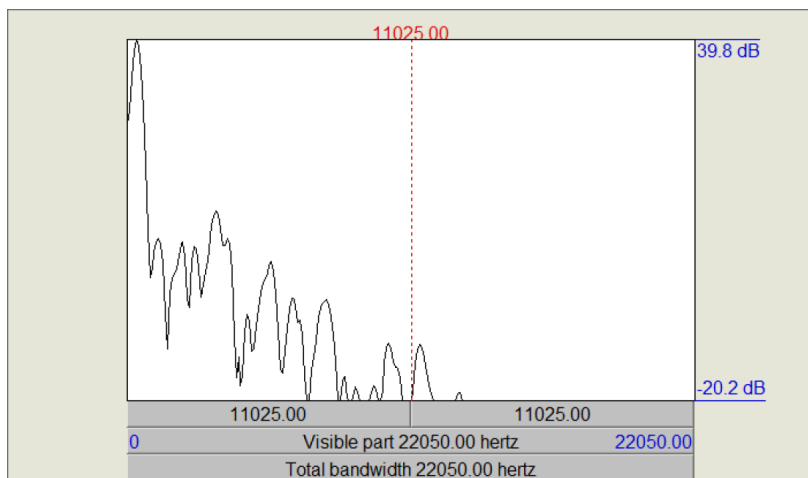
그 결과 남성 화자 한 명을 제외하고 모든 화자에게서 조사 ‘이’ 앞의 어간말 비음 ‘ㄷ’이 탈락하는 경우, 모음 ‘이’의 시작 부분이나 안정된 부분에서 모두 진폭의 뚜렷한 감쇄가 확인되지 않았다. 노년 세대의 남성 화자 한 명에게서 조사 ‘이’가 시작되는 부분의 진폭의 감쇄, 즉 반공명으로 판단되는 부분

이 확인되었으나, 뚜렷하지는 않았고 거의 비모음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림 3-6>은 이 노년 세대 남성 화자의 비음 부분¹¹의 스펙트럼이고 <그림 3-7>은 동일한 화자의 모음 ‘이’가 개시하는 부분의 스펙트럼이며, <그림 3-8>은 모음 ‘이’가 안정된 부분의 스펙트럼이다. 이 세 개의 스펙트럼은 모두 view spectral slice 기능을 이용하여 얻은 것이다. <그림 3-6>에서는 F3 부근의 진폭이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비음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7>에서는 <그림 3-6>에서만만큼 진폭의 감쇄가 확인되지 않으나, <그림 3-8>과 비교하면 F2, F3 부근의 진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음 ‘이’가 개시 부근에서 아주 짧게 비모음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이 화자에 있어서 어간말 비음은 탈락되었으나 그 영향은 조사 ‘이’의 개시 부분을 약간 비모음화 시키는 것으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완전한 비모음이라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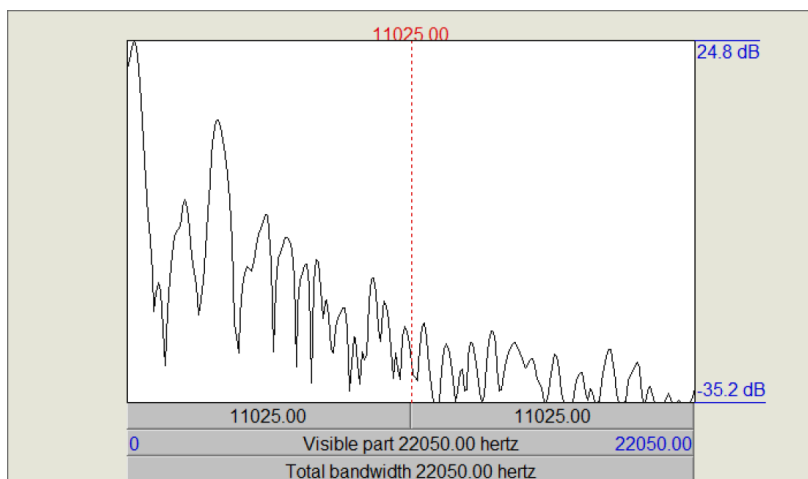


<그림 3-6> 노년 세대 남성 화자의 비음 ‘ŋ’의 스펙트럼

11 이 부분은 “행동이 빠르다”에서 비음 ‘ŋ’가 탈락되지 않는 ‘행’의 종성의 ‘ㅇ’ 부분의 스펙트럼이다.



〈그림 3-7〉 노년 세대 남성 화자의 모음 ‘이’가 시작되는 부분의 스펙트럼



〈그림 3-8〉 노년 세대 남성 화자의 모음 ‘이’가 안정된 부분의 스펙트럼

상술 사실로부터 연변조선어 화자는 조사 ‘이’ 앞에서 어간말 비음 ‘ㄴ’을 탈락시킬 경우, 그 비음이 후행 모음을 비모음화 시키는 형태로도 남아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특기 사항으로, 이번 실험에서 선정한 단어 “행동”과 “사랑”은 모두 어간말에 비음 ‘ㄴ’을 갖고 있으며 그 뒤에 ‘이’와 같은 ‘i’계 조사가 올 경우 모두 탈락되는 것이 예상되었으나, 실제 실험에서 “사랑이 무엇인가”의 어간말 비음 ‘ㄴ’을 탈락시키지 않고 발화한 화자가 세 명 있었다. 이 사실은 ‘ㄴ’이 탈락하기 쉬운 조건과, 탈락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하에서 ‘i’계 조사가 오면 그 단어의 어간말 비음 ‘ㄴ’이 보다 쉽게 탈락되는지, 반대로 보다 탈락이 일어나기 어려운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험자 수를 늘리는 동시에 조사 항목의 수도 늘려야만 하나, 본 연구에서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앞으로의 과제의 하나로 제시해 두도록 한다.

3.2. ‘i’계 조사 이외의 조사가 후행하는 경우의 어간말 비음 ‘ㄴ’의 탈락 양상

본 절에서는 어간말 비음 ‘ㄴ’을 지닌 단어에 ‘i’계 이외의 조사가 후행하는 경우, ‘i’계 조사가 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비음 ‘ㄴ’이 탈락되는지를 고찰하도록 한다. 목적격 조사 ‘을’, 부사격 조사 ‘으로’와 ‘에’가 후행하는 경우를 고찰 대상으로 하였고, 따라서 실험에서 사용한 틀문장은 제 2절의 실험 방법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그러나 노년 세대 화자의 녹음은 원격으로 진행한 것으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석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녹음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고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젊은 세대 6명의 화자에게서 얻은 녹음 데이터를 관찰한 결과, 화자에 따라 그 실험 양상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우선 여성 화자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어간말 비음 ‘ㄴ’의 탈락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 여성 화자가 “행동을 조심해라”를 발화할 때, 목적격 조사 ‘을’의 종성 ‘ㄴ’이 탈락되지만 ‘행동’의 어간말 비음 ‘ㄴ’은 탈락되지 않았다. 이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본 화자는 표준형으로 발화하였다. 또한 이 화자를 제외한 기타 두 여성 화자는 모든 경우에서 표준형으로 발화하였다.

그러나 남성 화자에 있어서 ‘행동’에 조사가 후행할 경우, 거의 어간말 비음 ‘ㄴ’이 탈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행동’에 목적격 조사 ‘을’이 후행하는 경우, 두 명의 남성 화자는 어간말 비음 ‘ㄴ’을 탈락시키는 동시에 조사 ‘을’도 탈락시켰으며, 조사 ‘을’을 보완하기 위해 어간말 비음 ‘ㄴ’에 선행하는 모음 ‘ㄱ’을 장모음으로 실현하였다. 나머지 한 남성 화자는 목적격 조사 ‘을’이 후행할 때 ‘행동’의 어간말 자음이 탈락되나, 모음 ‘이’가 목적격 조사 앞에 삽입되어, 목적격 조사가 자동적으로 ‘를’로 되는 동시에 종성 ‘ㄹ’이 탈락되는 형식으로 나타났다. 즉 ‘행도이르 조심해라’라는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여기서 ‘이’를 주격 조사로 본다면 명사 주격형이 또 하나의 명사로 고착되어 그 뒤에 또 주격 조사가 추가되는 형식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명사 또는 어간 등에 붙어 사람 또는 사물의 뜻을 더하고 명사로 만드는 접미사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행동’의 어간말 비음 ‘ㄴ’은 목적격 조사 앞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탈락한 것이 된다. ‘행동’에 부사격 조사 ‘으로’가 후행하는 경우도 남성 화자 세명 모두 어간말 비음 ‘ㄴ’을 탈락시켰으나, 한 화자는 목적격 조사가 후행할 때와 ‘으로’가 후행할 때 ‘이’를 삽입하여 발화하였다. 결국 이 경우도 조사 ‘으로’ 앞에서 어간말 비음 ‘ㄴ’이 탈락된 것이 아니라 ‘이’ 앞에서 탈락된 것이 된다. 기타 두 화자는 ‘이’를 삽입시키지 않고도 어간말 비음 ‘ㄴ’을 탈락시켰으나, 대신 ‘ㄹ’이 첨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행돌리¹² 보여줘라’와 비슷한 형식으로 실현되었다. 이는 ‘행동’의 어간말 비음 ‘ㄴ’, 즉 종성이 탈락됨에 따라 후행하는 조사의 초성의 영향을 받아 ‘ㄹ’이 첨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행동’ 뒤에 부사격 조사 ‘에’가 후행하는 경우 두 남성 화자에게서 어간말 비음 ‘ㄴ’의 탈락이 확인되었고 남은 한 화자에서는 어간말 비음 ‘ㄴ’의 탈락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단어 ‘사랑’ 뒤에 각종 조사가 후행하는 경우를 보도록 한다. 그 결과 우선 목적격 조사 ‘을’이 후행하는 경우, 두 남성 화자에서 어간말 비음 ‘ㄴ’의 탈락이 확인되는데 그 중 한 화자에서는 ‘행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2 모음 ‘ㄱ’도 비원순화로 인해 ‘ㄴ’로 실현되었다.

로 ‘이’의 삽입이 확인된다. 또 다른 한 화자는 조사 ‘을’도 탈락시키고 어간말 비음 ‘ㄴ’에 선행하는 모음 ‘ㅏ’를 장모음화 시킨다. 다음으로 부사격 조사 ‘으로’가 후행할 경우, ‘이’를 자주 삽입하는 화자에서만 어간말 비음 ‘ㄴ’의 탈락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부사격 조사 ‘에’가 후행할 경우는 남성 세 명 화자 중 두 명에게서 어간말 비음 ‘ㄴ’의 탈락이 확인되었다. 아래에 그 실현형을 도표에 정리하여 나타내도록 한다.

〈표 3-1〉 각 조사가 후행하는 경우의 화자에 따른 실현형¹³

| 표준형 | 행동을 | 행동으로 | 행동에 | 사랑을 | 사랑으로 | 사랑에 |
|-----|------|------|-----|------|------|-----|
| 남성1 | 행도이르 | 행도이로 | 행도에 | 사라이르 | 사라이로 | 사라에 |
| 남성2 | 행도- | 행돌러 | 행동에 | 사라- | 사랑올러 | 사라에 |
| 남성3 | 행도- | 행돌러 | 행동에 | 사랑으 | 사랑올러 | 사랑에 |
| 여성1 | 행동 | 행동으로 | 행동에 | 사랑으 | 사랑으로 | 사랑에 |
| 여성2 | 행동으 | 행동으로 | 행동에 | 사랑을 | 사랑으로 | 사랑에 |
| 여성3 | 행동으 | 행동으로 | 행동에 | 사랑을 | 사랑으로 | 사랑에 |

상술 결과로부터 볼 때 남성 화자에서 어간말 비음 ‘ㄴ’이 보다 쉽게 탈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여성 화자가 표준 발음을 더 선호한다고 제시한 바와 같이 연변조선어 여성 화자 또한 표준 발음을 더욱더 의식하고 있어 이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간말 비음 ‘ㄴ’이 탈락이 전체적으로 ‘행동’에서 더 쉽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어간말 비음 ‘ㄴ’의 탈락의 난이도에도 모종의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끝으로 어간말 비음 ‘ㄴ’을 탈락시킴과 동시에 부가적으로 기타 음운 변화도 함께 일어나는데 그 실현 양상이 화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간말 비음 ‘ㄴ’의 탈락은 화자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어간말 비음 ‘ㄴ’의 탈락을 적절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대체적으로 ‘ㄴ’계 조사 앞에서 탈락하기 쉬우며 기타 모음을 지닌 조사 앞에서도 탈

13 ‘-’는 장음으로 실현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락할 수 있지만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3 연변조선어 어간말 비음 ‘ŋ’의 탈락의 원인에 관한 분석

지금까지 연변조선어의 어간말 비음 ‘ŋ’의 탈락 양상을 확인하였는데 상술 결과가 나온 원인에 관해 간단히 분석해 보도록 한다. 우선, 연변조선어에 있어서 어간말 비음의 탈락은 ‘ŋ’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채옥자(2003)에 따르면 연변조선어에서는 어간말의 비음 ‘ŋ’ 이외에도 비음 ‘n’도 탈락할 수 있다. 이 또한 ‘i’계 조사 앞에서 탈락한다고 지적하였는데, 그 탈락은 ‘ŋ’이 경우처럼 거의 필수적이라는 할 수 없으나 자주 일어나는 현상임은 틀림없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어간말 비음의 탈락은 연변조선어 비음 자체의 비음적 특징이 약한 것에 기인할 가능성을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河野(1955: 370)에서 조선어 비음 ‘m’와 ‘n’가 어두 환경에서 ‘b’와 ‘d’, 즉 파열음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조선어 비음 자체의 비음적 특징이 약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관해 山崎(2015)에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山崎(2015: 35)는 서울 방언을 대상으로 어두 환경의 비음 ‘m’와 ‘n’의 음향 특징에 대해 상세히 논하였는데, 비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비음 에너지가, 피험자가 발음한 일부 데이터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하며, 후행 모음이 ‘i’ 또는 ‘u’인 경우에서 보다 많이 확인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점을 참고할 때 연변조선어의 비음도 서울 방언과 마찬가지로 비음 에너지가 약하고 후행 모음이 ‘i’ 또는 ‘u’ 일 경우 비음 에너지가 보다 약화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연변조선어에서 유독 ‘i’계 조사 앞에서 비음 탈락이 자주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변조선어에서 비음 ‘m’가 어간말 환경에서 탈락하는 현상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점, 어두 환경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해석의 정확성에는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다.

다음으로 연변조선어에서 ‘i’계 조사 앞의 어간말 비음 ‘n’와 ‘ŋ’은 모두 탈락될 수 있으나, ‘ŋ’의 탈락이 더 활발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원인에 관해

아직 확정 지을 수는 없으나, 조선어에 있어서, 어두에 연구개 비음이 올 수 없는 제약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어간말 비음이 'n' 인 경우는 다음 음절의 모음 '이'와 재구조화되어 'ni'로 될 수 있으나, 비음 'ŋ'은 모음 '이'와 재구조되어 'ŋi'로 될 수 없다. 그러므로 'ŋ'의 탈락이 'n'의 탈락보다 더 쉽게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아직 가정에 불과하며, 또한 이번 연구의 피험자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화자에 따라 비음 탈락 양상이 다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앞으로 제보자 수를 늘려 특화된 실험을 통해 재차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하나 가능한 원인으로 비음과 그것에 후행하는 모음의 조음 위치가 서로 많이 떨어져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연구개 비음인 'ŋ'과 전설 모음인 '이'의 조음 위치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 발화 중 충분한 비강 조음이 힘들어 지고, 따라서 발화의 경제성을 위해 비음을 탈락시킨 것이 아닌지 고려해 볼 수 있다. 반대로 치경 비음인 'n'은 후행하는 모음 '이'와 조음 위치가 비슷함으로 상대적으로 탈락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 즉 화자들의 발화의 경제성의 확보에 인해 치경 비음 'n'보다는 연구개 비음 'ŋ'가 더 쉽게 탈락되며, 또한 유독 'i'계 조사 앞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또한 가설에 불구하고 이 해석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차후의 연구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으로 연변조선어에서 어간말 비음 'ŋ'가 탈락하는 양상에 대한 상응한 원인을 분석하였는데, 이직 확정 지을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으로, 아직 가설 단계라고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러한 가정을 입증하기 위해 특정한 실험을 통한 연구를 진행하여야만 하나, 어간말 비음 'ŋ'의 탈락하는 양상이 어느 한 원인에 인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원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4. 결론

본 연구는 현재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변조선어의 어간말 비음 'ŋ'의 탈락에 관해 실험음성학적인 고찰을 진행한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연변조선어에서 어간말 비음이 ‘i’계 조사 앞에서 탈락함과 동시에 후행하는 모음이 음성학적으로 비모음으로 실현되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i’계 조사 앞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하였는데, ‘i’ 이외의 모음을 지닌 조사 앞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지도 본 연구의 또 하나의 검토 대상이다.

그 결과 세대를 불문하고 모음 ‘이’ 앞에서 어간말 비음 ‘ŋ’의 탈락이 확인되나, 모음 ‘이’의 비모음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연변조선어 화자의 어간말 비음 ‘ŋ’이 탈락될 때 비음의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이’ 이외의 모음을 지닌 조사 앞에서 어간말 비음 ‘ŋ’의 탈락 여부에 관해 고찰하였는데, 화자에 따라 실현 양상이 달랐다. 여성의 경우 모든 제보자에서 어간말 비음 ‘ŋ’들의 탈락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남성의 경우 모음 ‘ㅡ’와 ‘ㅐ’ 앞에서 모두 비음 ‘ŋ’의 탈락이 관찰되었으나 필수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남성 제보자 중, 모음 ‘ㅡ’ 앞의 비음 ‘ŋ’이 탈락됨과 동시에, 선행모음의 약간의 장음화가 동반되는 경우가 있었으며, 심지어 비음 ‘ŋ’과 조사 사이에 모음 ‘이’를 첨가하여 비음을 탈락시키는 제보자도 있었다.

끝으로 어간말 비음 ‘ŋ’들이 ‘i’계 조사 앞에서 탈락이 심한 원인에 관해 논하고,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인을 제시하였다.

첫째, 연변조선어의 비음 자체가 비음적 특징이 약하다.

둘째, 조선어에서 어두에 비음 ‘ŋ’이 올 수 없으므로 후행 모음과 재구조되어 하나의 독립적인 음절을 이루기 힘들기 때문이다.

셋째, 전설 모음인 ‘이’와 연구개 비음 ‘ŋ’의 조음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 연속 발화 중 충분한 비강 조음이 힘들기에, 발화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음 ‘ŋ’을 탈락시켰다.

다만 상술 세 가지 원인 중 하나만 작용했다고 하기보다, 상술한 세 가지 원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가능한 한 피험자의 일상생활에 가까운 자연스러운 발화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노년 세대 화자에서 ‘i’계 조사 이외의 조사가 후행하는 경우의 적절한 녹음 데이터를 얻지 못하였다. 그 결과 노년 세대에 대

한 고찰이 빠지게 되어 ‘i’계 조사 이외의 조사 앞에서의 어간말 비음 ‘ŋ’의 탈락에 관해, 세대 차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비모음화가 진행되었는지를 스펙트럼 상의 반공명의 존재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단지 음향 신호에 근거한 판단은 한계가 존재함으로, 비강 기류를 확인하는 전문적인 설비를 도입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끝으로 어간말 비음 ‘ŋ’의 탈락에 관한 원인을 분석하였으나 모두 가설 단계에 불과함으로 그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험적 연구에 불과하며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차후의 연구를 통해 하나씩 해결되어 가길 바라며 이로써 논의를 마치도록 한다.

참고문헌

- 성철재(1996) 「한국어 비음의 음향적 특성에 관한 실험음성학적 연구」, 『말소리』 31-32, 대한음성학회, 9-22.
- 이창혁 · 윤태진 · 손승혜 (2001) 「발제3 : 연변 교민들의 한국 문화수용에 있어서의 방송의 역할」,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105-136.
- 전혜영(2004) 「남자와 여자의 언어, 어떻게 다른가」, 『새국어생활』 14, 국립국어원, 25-43.
- 전학석(1996) 『조선어 방언학』,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 채옥자(2003) 「중국 연변 지역어의 음운탈락에 대하여」, 『한국(조선)어 연구』 1,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549-562.
- Gloria J. Borden & Katherine S. Harris & Lawrence J. Raphael (1994) *Speech Science Primer*, Williams & Wilkins
- Ramsey, S.R (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 *A society of Korean linguistics series* 9.
- 河須崎英之(2010) 「中国で話されている朝鮮語のアクセント比較」, 『東京大学言語学論集』 29, 東京大学大学院人文社会系研究科 言語学研究室, 103-138.
- 河野六郎(1955) 「朝鮮語」, 『世界言語概説 下巻』, 東京: 研究社.
- 車香春(2000) 「朝鮮語延辺地区龍井方言のアクセント体系」, 東京大学人文社会系研究科 修士論文.
- 山崎亜希子(2015) 「ソウル方言における語頭鼻音の音響特徴—非鼻音化現象を中心に—」, 『朝鮮語研究』 6, 朝鮮語研究会, 7-39.

제15차 코리아학국제 학술토론회

심포지엄 「재일코리안 표상의 변천」

The 15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Symposium “Evolving Representations of Zainichi Koreans”

[패널리스트 Panelist]

DAVID S. ROH (데이빗 노), University of Utah (유타대학교)

「재일코리안과 한국계 미국인의 문학대화를 풀어읽다」

“Articulating the Zainichi and Korean American Literary Conversation”

「在日コリアンと韓国系アメリカ人の文学対話を読み解く」

김보현 (Kim Bohyun), 충남대학교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일본 영화 속 재일코리안과 북측 표상(1994~2011)」

“Representations of resident Koreans in Japan and North Korea in Japanese films (1994~2011)”

「日本映画の中の在日コリアンと北の表象(1994~2011)」

김태식 (Kim Thaesik), 와세다대학 (Waseda University)

「‘총련계’ 재일조선인 표상의 정치학」

“Politics of the representations of ‘Chongryon-affiliated’ Koreans in Japan”

「‘総連系’在日朝鮮人表象の政治学」

[토론자 Commentator]

오카자키 료코 (Okazaki Ryoko), 리쓰메이칸대학 (Ritsumeikan University)

함충범 (Ham Chungbeom), 한국영상대학교 (Korea University of Media Arts)

현무암 (Hyun Mooam), 홋카이도대학 (Hokkaido University)

특집 : 제15차 코리아학국제학술포럼 심포지엄

「재일코리안 표상의 변천」

The 15th ISKS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n Studies Symposium
“Evolving Representations of Zainichi Koreans”

姜民護

同志社大学

‘재일(在日)’이란 무엇인가? ‘재일코리안’이란 누구이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재일코리안은 그들이 태어난 곳에서 주어진 삶을 그저 묵묵히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려 하고 있을 뿐인데 그들의 삶은 시대와 시각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비춰져 왔다. 그리고 때로는 주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그들의 삶이 조명되기도 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재일코리안 스스로가 그들의 삶과 정체성에 ‘의문’을 던지게 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들은 그들의 삶과 진지하게 마주해 왔을까? ‘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용어가 더 이상 새롭지 않은 것처럼, 많은 연구자들이 재일코리안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들의 삶에 귀 기울여 왔다. 그렇다면 그들의 삶이 사회에 어떻게 비춰져 왔고 어떻게 조명되어 왔는지는 어떠한가?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방영된 OTT(over-the-top) 드라마 ‘파친코(PACHINKO)’가 전세계를 강타했다. 세계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재일코리안의 삶을 그린 ‘파친코’에 열광했고, 후속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파친코’ 속의 재일코리안들의 삶은 온전히 그들의 삶이라 할 수 있는

* Kang Min Ho(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shisha University)

가? 아니면 사회에 비취진 모습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주변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조명된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 기획된 제15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심포지엄은 ‘재일코리안 표상의 변천’을 주제로 연구·문학·미디어 등에 초점을 맞춰 ‘재일코리안’을 학술적으로 탐구하는 기회로써 개최되었다. 구체적으로 패널리스트로 DAVID S. ROH 박사(University of Utah), 김보현 박사(충남대학교), 김태식 박사(와세대대학)가 각각 ‘Articulating the Zaninichi and Korean American Literary Conversation’, ‘일본 영화 속 재일코리안과 북측 표상(1994~2011)’, ‘총련계재일조선인 표상의 정치학’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오카자키 료코 연구원(리쓰메이칸대학), 함충범 박사(한국영상대학), 현무함 박사(호카이도대학)가 토론자로 나섰고, 사회는 오사카공립대학교의 이지치 노리코 박사가 맡았다.¹

이번 호의 특집으로 김태식 박사와 오카자키 료코 연구원에게 특별히 집필을 의뢰한 원고를 게재하게 되었다. 바쁜 가운데 원고 집필 의뢰를 수락해주신 두 분에게 감사 말씀을 올린다.

1 토론회 영상은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0j1v3RsmBoc>)에서 시청할 수 있다.

‘총련계’재일조선인 표상의 정치학*

The politics of Koreans in ‘Chongryon’ representation

金泰植**

早稲田大学地域・地域間研究機構

1. 들어가며

본 논문은 ‘총련계’재일조선인 표상의 정치학에 대하여 양영희 감독의 〈스푸와 이데올로기(スプーとイデオロギー)〉(2021)를 통해 고찰한다. 〈스푸와 이데올로기〉는 〈디어 평양(ディア・ピョンヤン)〉(2006), 〈굿바이, 평양 愛しのソナ〉(2011)에 이어서 나온 양영희 감독이 자기 가족을 그린 세번째 다큐 영화이며¹ 제주도 출신인 자기 어머니의 4·3이야기와 감독의 결혼 이야기를 주로 그리고 있다.

본 논문은 영화 〈스푸와 이데올로기〉가 어머니와 제주4·3이야기를 회복시키려 하고 있는 한편에, 양영희 감독의 의도가 어떻게 ‘총련계’재일조선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그저 ‘악’으로 그려 일본사회와 한국사회의 책임을 ‘은폐’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그를 위해 우선 1970년대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반공영화 〈엑스포(EXPO)70 동경작전〉(1970)과 〈돌아온 팔도강산〉(1976)에 대해 살펴본다. 이 두 반공영화는 영화 〈스푸와 이데올로기〉와 만들어진 목적도 형식도 다르며 무엇보다도 만든 주체가 다르지만, 쟁점 표

* 본 논문은 제15차 코리아학 국제학술토론회에서 한 기조보고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 Kim Thae Sik(Organization for Regional and Inter-regional Studies, Waseda University)
E-mail: ktaesik@gmail.com

1 양영희 감독은 〈가족의 나라 家族の国〉(2013)라는 극영화도 만들었다.

상과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총련계’재일조선인 표상에 비슷한 점이 있다. 물론 이들의 비교 자체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본고는 이들의 비교를 통해 ‘총련계’ 재일조선인 표상을 둘러싼 문화정치의 한 단면을 그려보려고 한다. 〈엑스포(EXPO)70 동경작전〉(1970)와 〈돌아온 팔도강산〉(1976)과 관련해서는 이미 쓴 논문이 있기에(김태식 2014) 본 논문에서는 젠더 표상과 관련된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히만 소개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재일조선인’을 “일본의 식민지시기와 해방 후의 혼란기에 일본에 건너온 조선인과 그 자손”이라 규정한다. 재일조선인은 식민지 과거와 분단 조국을 가진 존재이며 해방 후에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남쪽에 두면 서도 이복을 지지했다. 그러니 재일조선인 표상은 식민지 과거와 분단을 둘러싼 ‘기억의 터(Realms of Memory)’이며 여러 역학이 충돌하는 ‘문화적인 장’으로 기능한다. 그 어떤 재일조선인표상도 이 문화정치로부터 결코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그리고 ‘총련계’ 재일조선인이라는 말을 쓰지만 재일조선인의 생활세계는 쉽게 남과 북으로 나누지 못한다. 본 논문이 다루는 것은 어디까지나 “총련계’재일조선인’이라는 표상이다.

본 논문에서 영화의 젠더 표상 또한 중요한 분석 대상으로 다루어진다. 사카이 나오키(酒井直樹)는 “국제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는, ‘지배자=남성’ 대 ‘피지배자=여성’이라는 구도를 유지하면서 연애관계의 비유로 가장 집약적인 표현을 얻는다”고 지적했다(酒井(최정옥 역)2007=2008:42-43)². 다시 이야기하면, 서구의 남성이 원주민 남성으로부터 원주민 여성을 구한다는 구도이며, 서구의 남성과 원주민 여성이 연애관계로 맺어짐으로써 양자 사이에 있는 관계의 폭력성이 비가시화(非可視化)된다는 것이다. 리상란(李香蘭)을 하나의 예로 들 수가 있고 이 구도는 재일조선인이 등장하는 반공영화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사카이의 지적은 일본인 남성과 재일동포 여성의 결혼이 그러지는 〈스푸와 이데올로기〉를 고찰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2 본문 인용문의 괄호는 인용자가 추가한 것이다

본 논문 속에는 남과 북, 입장의 차이들로 인해 서로 다르게 부르는 역사적 사건이나 호칭이 나온다. 예를 들어 반공영화에 관한 서술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북한’이라고 쓰고 있는데, ‘북조선’이란 말도 등장한다. 문맥에 따라 여러 호칭을 쓰고 있음을 알려 드린다.

2. 반공영화 속의 ‘총련계’재일조선인 표상

영화 〈엑스포(EXPO)70 동경작전〉(1970)와 〈돌아온 팔도강산〉(1976)은 재일조선인 표상을 통해 박정희 정권이 해계모니를 구축하는데 중요했던 반공주의와 민족주의를 연결시키려고 한 영화이다. 두 영화속에서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가 바로 ‘가족’이며 젠더 구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총련계’ 재일조선인이 일본화 된 모습으로 그려지거나 총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민족적인 것’들과 대치되는 존재로 그려지는 점도 흥미롭다.³

1970년에 최인현 감독에 의해 만들어진 〈엑스포(EXPO) 70 동경작전〉은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보러 온 한국인 관광객을 ‘조총련’의 공작부대가 포섭하려 하지만, 결국 남한의 정보원에 의해 조총련의 본거지가 습격당한다는 내용의 반공 스파이 영화다. 주인공인 동근은 당시 유명한 액션 배우였던 박노식이 맡았으며, 여주인공 미라는 당대 트로이카의 한 사람이었던 윤미라가 맡았다. 이산가족과 스파이라는 소재가 결합된 것은 반공영화의 전형적인 플롯이다.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총련의 간부 허달의 딸인 시즈코(静子)의 뒷에 빠진 한국인 정보원 승구가 전기의자에 앉혀지고 그 스위치를 시즈코가 켜 채 시즈코와 승구 두 사람만이 남게 되는 장면이다. 승구의 필사적인 설득에 시즈코가 동요하고 그 사이에 한국인 정보원 동근이 승구를 구출한다. 여기서 시즈코의 동요와 죽음은 매우 중요하다. 공작 때문에 승구에게 접근한 시즈코지만 두 사람의 데이트 장면이나 결혼 프로포즈의 장면을 통해 두 사람이 연애편계임을 알 수 있다. ‘연애’는 두 사람 간 합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

3 구체적으로는 위에 김태식(2014) 참조.

하며, 이는 일방적인 폭력의 행사인 강간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이 연애에는 사카이가 지적하는 “구성적인 모순(constitutive contradiction)”이 존재한다. 반공영화이기에 시즈코가 전향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승구가 전향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결국, 동근에 의해 시즈코가 전기의자에 앉혀지지만, 승구가 앉아 있다고 생각한 허달이 스위치를 눌러 버려 시즈코는 아버지의 손에 의해 죽게 된다. 딸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어쩔 줄 모르는 허달에게 동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동근: 네가 아버지 노릇을 하는 걸 보고싶다. 자유와 우정이 있는 조국의 하늘 밑에 시즈코를 묻고 싶지 않다. 속죄를 하는 뜻으로 말이다.

허달:

동근: 평양은 과업에 실패한 너를 기다려주지 않는다.시즈코의 명복을 빌어주는 곳으로 가자. 서울로 말이다. 자유대한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심희대본, 〈엑스포(EXPO) 70 동경작전〉, 1970:29-30.)

자기 손으로 딸을 죽인 허달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동근의 요청을 받아들여 전향한다. 이른바 ‘거세’된 허달은 지배자인 한국인에 의해 전향하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히로인인 미라는 구체되는 인물이다. 조총련은 미라를 북에 데려가기 위해 미라의 어머니를 원산으로부터 데리고 와서 이용하지만 결국 동근과 승구의 방해에 의해 공작은 실패한다. 영화 속에서 미라는 울면서 동근에게 도움을 바란다. 여기에서는 한국인 남성이 한국인 여성(미라와 원산에서 온 미라의 어머니)을 재일조선인 남성으로부터 구한다는 알기 쉬운 구도를 간과할 수 있다. 영화는 동근, 승구, 미라와 그녀의 어머니가 엑스포를 즐기는 것으로 끝난다.

〈엑스포(EXPO)70 동경작전〉이 액션영화인 것에 비해 〈돌아온 팔도강산〉은 ‘총련계’ 재일조선인들의 모국방문 사업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더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영화이다.

〈돌아온 팔도강산〉은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에 걸쳐서 국민적 인

기를 얻은 국책 프로파간다 영화 <팔도강산>(5부작)의 형식을 차용한 반공 영화로서 정소영 감독의 <돌아온 팔도강산>은 제15회 대중상 우수반공영화상(1976)을 수상한 영화이기도 하다. 이 영화의 여주인공은 유골을 고향에 묻어 달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에 온 조선대학교 학생 선영이다. 또한 『팔도강산』에 출연한 황정순이 창호의 어머니 역할로 출연했다. 영화는 모국방문단의 구성원이 출발 전에 조총련에서 꺾었던 가혹한 처사와 고향에서 친족과 감동적으로 상봉하는 모습이 교대로 비추어지면서 스토리가 전개되며, 마지막으로 참가자 모두가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선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화에서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가족’이다. 되풀이 되는 이산가족들의 상봉은 반공영화임을 알면서도 보는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한편 감동적인 재회와 대립되는 것으로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 조총련이라는 표상이 이루어진다.

영화 속에 나오는 “난 가야 해. 어머니를 만나야 해. 어머니! 어머니!”, “도대체 왜 못 간다는 거요. 30여 년간씩 내 부모와 떨어져 살아온 생각을 하면 막 소름이 끼쳐요. 사람의 자식이 그래 어떻게 30년간씩이나.”, “저한테 있는 건 고향에 살고 있는 늙은 어머니와 동생뿐입니다. 이제 늙어서 그런지 밤에 잠자리에만 들면 어머님 얼굴이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보고 싶어 못 견디겠습시다. 제발 눈감아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게 어디다 대고 하는 소리고. 조상님들 산소에 성묘하는 길인가. 자식을 찾아가는 길인가. 이게 무신 죄고”와 같은 대사들은 가족을 그리는 재일조선인들의 대사이며 총련은 이 순수한 행위를 방해하는 나쁜 사람들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되풀이되는 감동적인 재회 속에서 ‘이산가족에 대한 감정’이 ‘대한민국에 대한 감정’으로 교묘하게 바뀐다. 부모 앞에서 자신의 불효를 울면서 사과하는 기원은 어느새 대한민국 앞에서 사죄하는 구도로 전이되어 결국에는 부모가 아닌 조카 용수의 말에 의해 용서를 비는 존재가 되고 만다.

징용으로 구식이 일본에 끌려가기 직전에 결혼했던 순희는 아들 기문과 함께 구식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일본에서 구식과 결혼한 말숙 앞에서 순순

히 자신이 물려서줬다고 나선다. “설혹 가슴이 아파오는 날이 있더라도 타국에서 외롭게 살아온 내 동포 한 분의 불행을 막는 일이 된다면 전 그걸로 견뎌낼 수 있어요”라고 하는 순희의 말에 말숙은 감동을 받아 자신이 총련의 스파이로 한국에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편지만을 남기고 한밤중에 사라진다. 그 편지에는 “제게 부담은 갖지 마세요. 전 한 여자로서 남편을 잃었으나 그보다도 더 큰 조국, 조국 대한민국을 찾았다는 벅찬 보람을 안고 돌아갑니다”고 적혀있다.

조선대학교 학생인 선영은 감동적인 재회를 보면서 동요하게 된다. 같은 고향 사람인 동진이 선영에게 북송사업으로 북한에 가는 것을 그만두도록 설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쓰러져 우는 여성과 납득시키는 남성이란 구도를 살펴볼 수 있다.

단순히 남자가 여자를 구한다는 구도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화 속에서 재일조선인은 자기의 과오를 뉘우쳐야만 고향인 팔도강산에 돌아갈 수 있고 가족과 다시 만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포섭될 수 있다. 그리고 영화 속에 총련은 가족을 못 만나게 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으로만 그려진다.

이렇게 반공영화 속에 총련계 재일조선인과 북한은 비인간적인 모습으로만 그려지고 한국사회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구한다는 구도나 전향을 하는 것은 언제나 재일조선인이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

3. 〈스푸와 이데올로기〉의 ‘총련계’재일조선인 표상

〈스푸와 이데올로기〉는 양영희 감독이 제주 4·3을 경험한 어머니를 찍은 다큐 영화이다. 제주 4·3을 다룬 영화이기도 하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 개호(介護), 결혼과 관련된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고 ‘총련계’재일조선인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는 여러 주제들이 담겨진 영화이다.

앞선 두 반공영화와 크게 다른 점의 하나는 당사자가 재일조선인을 그렸다는 점이다. 반공영화가 당국의 검열과 강한 통제 속에서 정권의 의도에 맞

게 재일조선인을 그린 것에 비해, 양영희 감독은 총련 활동가 가족에서 자란 자신이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를 찍고 있다. 특히 귀국사업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건너간 친오빠의 경험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총련에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영화들을 찍고 왔다고 할 수 있다.⁴

둘째로 〈스푸와 이데올로기〉속에는 두 영화와 같은 단순한 젠더 구도는 보지 못한다. 반공영화 속에 여성 표상은 약하고 한국인 남성에게 의해 구체되는 타자화된 존재였지만, 〈스푸와 이데올로기〉에 등장하는 여성인 양영희 감독의 어머니와 양영희 감독은 그렇지 않다. 어머니가 그때까지 못해왔던 4·3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은 한 측면에서는 총련 활동가인 남편과 결혼하고 가부장적인 동포사회 속에서 못해왔던 이야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양영희 감독이 약혼자를 대하는 모습도 사이가 좋으면서 적극적으로 남성을 리드하는 강한 여성의 모습이기도 한다.

이렇게 〈스푸와 이데올로기〉는 앞서 본 두 반공영화와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 ‘총련계’재일조선인 표상이라고 할 때 비슷한 점이 많다. 그리고 현재 ‘총련계’재일조선인을 둘러싼 담론들을 생각하면, 결코 무시하지 못한다. 이하 구체적으로 영화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다큐 영화를 분석하지만 여기서 언급하는 등장인물들은 실지 살아있는 인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영화 속 등장인물들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점을 양해 바란다. 예를 들어 본 논문 속에서 언급하는 ‘카오루’는 실지 양영희 감독의 약혼자인 카오루가 아니라 영화 속에 비친 허구의 ‘카오루’라는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한다.

영화 〈스푸와 이데올로기〉는 주로 어머니의 4·3이야기와 일본인 남편 카오루의 이야기로 진행된다. 나이 드신 어머니가 그때까지 말을 안 해왔던 제주 4·3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오사카에서 있는 4·3연구소의 인터뷰 때에는 자세하게 자기가 가슴 속에 품고 온 경험담을 이야기한다. 품고 있던 이야기 속에는 제주에서 만난 약혼자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인터뷰를

4 다만 양영희 감독이 가장 먼저 찍은 영화 〈디어 평양〉은 총련애국 활동에 분투해 온 아버지 모습을 유머있게 그리면서 단순한 비판이 아닌 아버지가 활동하는 의미를 이해하려는 영화 처럼 보인다.

계기로 어머니의 치매는 급적으로 악화된다. 다음해 4·3위령제에 참가하러 제주에 갔을 때에는 제주 4·3에 대해 거의 이야기를 못하게 돼 있었다. 양영희 감독이 어머니를 모시고 예고 없이 4·3연구소를 찾아갔을 때에도 어머니는 거의 이야기를 못했고 연구소 소장은 억지로 말 시키는 것 같다고 가슴을 아파한다. 제주4·3의 처참한 역사에 대해 배우게 된 양영희 감독은 어머니가 이북에 충성을 바치게 된 이유를 알게 되고 어머니를 닮지 못하게 되었다고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제주 4·3이라는 국가 폭력을 경험했기에 대한민국을 못 믿게 돼서 북을 지지하게 된 어머니와 그 딸의 모습이 영화에는 그려져 있다.⁵

한편 영화의 또 다른 한 명의 주인공인 아라이 카오루는 양영희 감독과 결혼하게 된 12살 연하인 일본인이다. 영화 속에서 카오루는 감독과 어머니에게 헌신하는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남성으로 그려져 있다. 더운 날씨 속에서도 정장을 입고 땀을 흘리며 인사를 올리러 온 카오루는 어머님이 만들어 주신 수프를 맛있게 먹고 자기가 만들어 보기도 한다. 장의식장에 전화를 하면서 화를 내는 카오루의 모습은 정말로 어머니와 양영희 감독을 소중히 생각하는 믿음직한 사위의 모습이기도 한다. 일본인과의 결혼은 안된다고 한 어머니의 모습은 더 이상 없다. 카오루가 바지저고리를 입고 결혼사진을 찍는 모습도 상징적이다.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 자리를 채울 것 같은 존재로 그려진다.

자상한 카오루와 대조적으로 그려지는 것이 총련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영화 속에서 어머니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영화 속에서 몇 번이나 등장하는 ‘세뇌’이다. 그리고 ‘세뇌’를 가능하게 한 이유가 4·3체험 이라고 설명된다. 4·3체험 때문에 어머니는 북을 지지하는 조총련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아들을 조국에 보내고 빚을 만들어서라도 돈을 보냈다고 그려진다. 이 표상은 <디어 평양>과 사뭇 다르다.

5 양영희 감독은 김석범과의 대담에서 어머니가 북을 지지하는 이유를 제주 4·3에 환원하는 일본 평론가들에게 일본의 책임도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반대로 영화 속에서 그렇게 표상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

〈디어 평양〉은 아버지 모습을 통해 다면적인 ‘총련계’재일조선인의 모습이 그려졌지만, 영화 〈스푸와 이데올로기〉는 그렇지 못한다. 말하자면 어머니 뿐 아니라 아버지도 그렇고 ‘총련계’재일조선인의 자주성을 ‘세뇌’라는 말로 박탈하고 거기에 제주4·3이라는 이유를 더한 것처럼 표상된 것이 이 영화이다. 결과 ‘총련계’재일동포들의 많은 경험, 자율적인 선택, 일본사회 및 한국사회와의 관계성은 안 보이게 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악’으로 고정된다. 이런 시각은 제주4·3을 탄압하는 측과 공범관계에 있지 않을까.

카오루 표상도 사카이 나오키의 지적과 식민지 과거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카오루가 조선반찬을 먹고 바지저고리를 입는 일은 있어도, 또한 무례한 장의사에게 화를 내는 일은 있어도, 과거의 식민지 지배나 오늘날의 ‘북조선’혐오, 재일조선인차별에 대해 이야기 하는 일은 없다. 여기서도 반공영화에서 볼 수 있던 구성적 모순이 있다. 더군다나 자상하고 사랑스럽고 가족을 잘 챙기고 바지저고리를 입는 카오루와 대비되는 존재로, ‘인간선물’로 가족을 이북에 보내고 가족을 만나러 가려는 양영희 감독을 입국 금지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으로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그려진다. 마치 〈돌아온 팔도강산〉이 고향에 안 왔다고 재일조선인을 탓하면서 한국정부의 기민정책이나 고향에 유학 온 재일동포들을 간첩으로 만든 사실을 안 그리는 듯이, 〈스푸와 이데올로기〉는 만경봉호의 입항금지도 경제재제도 조선학교의 고교무상화로부터의 제외도 재일조선인에 대한 탄압도 안 그린다.

카오루가 감독과 어머니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은 열렬한 총련 활동가였던 아버지 자리에 일본인이 대신 앉게 되는 과정이기도 한다. 특히 양영희 감독과 카오루가 함께 김일성의 초상화를 내리는 장면은 주목할 만하다. 이 장면을 극찬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머니가 입원 중으로 집에 안 계시는 사이에, 일본인과 함께 미소를 지으면서 초상화를 내리는 장면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초상화를 내린다는 상징적인 행위는 아버지의 부권을 박탈하고 어머니의 집을 탈취하는 행위로도 해석된다. 당연히 아버지의 ‘부권’이 꼭 중요한 것도 아니며 가부장제 또한 문제가 많다. ‘초상화’ 또한 가부장제의 정점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그려져 있는 것은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일본인 남성에게 의한 재일조선인의 부권의 박탈이다. 카오루는 영화 속에서 자상하게 그려져 있지만 결코 일본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한다. 그런 카오루가 항일 투사이던 김일성의 초상화를 열렬한 총련활동가의 집에서 그들의 딸과 함께 내린다는 행위는 정치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많은 재일조선인들이 김일성을 지지한 이유로서 항일 투쟁 경력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이는 양영희 감독이 말하는 ‘자기들 세대는 자유롭게 말을 한다’는 의사표시으로써만 작용하지는 않는다. 이는 오늘날 ‘총련계’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상황 속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최실이 쓴 『지니의 퍼즐』(2016) 속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온다. 개인적으로 『지니의 퍼즐』은 식민자의 담론을 내면화 해버리는 피식민자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졌다는 점을 높이 살 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조선학교를 나온 작가가 조선학교와 ‘총련계’ 재일조선인사회를 비판하기에 높이 평가하는 것 같다.⁶

4. 〈스푸와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담론

〈스푸와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김석범이나 김시중 등의 재일지식인 뿐만 아니라 일본인이거나 한국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지식인, 문화인들이 감독과 대담을 하거나 언급을 하고 있고 SNS등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와 있다.

영화 『스푸와 이데올로기』를 선호하는 입장은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제주 4·3에 대해 더 알리고 싶은 입장이다. 일본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제주 4·3에 대해서 알리는 이 영화에는 큰 의미가 있다. 둘째로 총련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비판적인 특히 재일조선인들의 입장이다. 양영희 감독도 그렇고 김석범 등을 들 수 있고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로 그냥 재일조선인이거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싫어하는 입장이다. 반공영화는 총련과 ‘북한’을 비판하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을 그리고 자신의 헤게모니를 구축하려고 했지만, 양영희 작품

6 한국에서 번역 출판된 『지니의 퍼즐』의 단행본에 수록된 문경수의 해설 등.

은 재일조선인 스스로가 총련과 ‘북한’을 비판하기에 이용되기 쉽다. 넷째로 일본의 소위 ‘리버럴’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입장이다. 그들은 일본의 식민지 과거에 비판적이면서도 ‘북조선’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일본의 우경화나 보수화를 비판할 때 ‘북조선과 같은 나라가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또한 일본인인 자신이 직접 ‘북조선’이나 총련을 비판하기가 그래서 이를 비판하는 재일조선인을 환영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비판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영화 〈스푸와 이데올로기〉에 비판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영화를 통해 일본의 식민지 책임이 안보이게 되고 ‘북조선’협오가 강화되기를 우려하는 사람들이다. 둘째로는 굳이 말하자면 “총련계”재일조선인’들이다. 자신들을 ‘세뇌’된 사람들로 그리며 영화를 좋아할 리가 없다. 그들은 그저 ‘세뇌’된 자주성이 없는 존재일까?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입장은 소위 ‘리버럴’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태도이다. 그들은 결과적으로 악마와 같은 ‘북조선’표상과 공범관계에 빠질 수 있으며 ‘리버럴’의 입장을 취하는 스스로를 용서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특히 〈스푸와 이데올로기〉의 경우 카오루가 재일조선인 여성과 결혼하고 좋은 남편, 좋은 사위로 바지저고리도 입고 조선 반찬도 만들고 먹고 나서 미소를 지으면서 초상화를 재일조선인과 함께 내리는 모습은, 일본 ‘리버럴’이 보고 싶은 모습일 수 있다. 또한 초상화를 내리는 재일조선인의 모습은 많은 한국인들이 보고 싶은 모습이기도 한다. 어느 면에서 일본과 한국사회가 보고 싶은 재일조선인의 표상이 이 영화에는 나타나 있다. 그러기에 〈스푸와 이데올로기〉를 단순히 아나키스트를 자칭하는 양영희 감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이어 대한민국의 국가폭력을 비판한 영화로 보는 것도 어렵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서양의 『Covering Islam』에서 이슬람 보도에 대해 말했듯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나 ‘총련계’재일조선인 사회에 문제나 폭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서양’에서 ‘이슬람’이 그렇게 보도되는 것처럼 나쁜 것은 모두 ‘북조선/북한’이며 문제는 언제나 ‘북조선/북한’이 일으키고 왜

나하면 ‘북조선/북한’은 그러한 존재니까라고 표상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있다. 결과 이슬람에 대한 서양의 책임이 안보이게(Covering) 되는 것처럼 일본의 식민지 책임, 일본과 한국의 공범관계는 안 보이게 된다. 양영희 감독이 총련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비판하는 영화를 만들 수는 있지만 보는 사람이 그냥 ‘북한/북조선’을 비판하는 영화로만 본다면, 또 그렇게 보이는 표상만이 이루어진다면 영화가 가지는 의미는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경향은 <디어 평양>, <굿바이! 평양>, <가족의 나라>, 그리고 <스푸와 이데올로기>로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5. 나가며

여기까지 영화 <스푸와 이데올로기>에 대해 <엑스포(EXPO)70 동경작전>, <돌아온 팔도강산>과 비교를 하면서 고찰했다. 시기도 형식도 다른 영화들이지만 비슷한 점도 많다. 젠더 표상과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총련계’재일조선인이 ‘세뇌’된 존재로 그려지는 점은 비슷하다. 분명히 차이점도 있다. 반공영화가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의 헤게모니 구축을 위해 국가의 강한 통제 속에서 만들어진 것에 비해 <스푸와 이데올로기>는 양영희 감독의 가족이 겪은 이야기를 통해 가진 비판의식이 담겨진 영화이다. 또한 영화를 떠나 대담 등에서는 양영희 감독이 일본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있다. 반공영화에서 그려지는 ‘여성’이 약하고 한국인 남성에게 구제되는 존재인 것에 비교하면 영화 속의 양영희 감독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강한’ 여성이기도 하고 어머니가 가부장제 속에서 말 못해왔던 제주4·3 이야기를 회복시키는 영화이기도 한다. 그러나 ‘총련계’ 재일조선인인 아버지의 부권을 박탈하고 그 자리에 일본인 남성을 놓는 구도로도 볼 수 있다.

강조 하고 싶은 점은 정치적이지 않은 표상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조선학교를 ‘긍정적으로’ 그린 <우리 학교>(2007), <60만번의 트라이>(2013), <울보 권투부>(2014), <하늘색 심포니>(2016)등은 양영희 감독의 작품과는 반대되는 ‘총련계’재일조선인 표상이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는데, 각각 보

여주는 면이 있는가 하면 안 보이게 하는 면도 있다. 매력적으로 그린다고 ‘타자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⁷ 다만 긍정적인 ‘총련계’재일조선인 표상이 ‘북조선’협오가 휘몰아치는 일본사회에서, 또 반공주의 시각이 강했던 한국사회에 안겨준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 어떤 표상은 작품을 둘러싼 담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특히 재일조선인 표상은 어떻게 그렸다고 해도 식민지 과거와 분단을 둘러싼 기억의 정치, 문화정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 드라마 『파친코』가 일본에서 잘 나가지 않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만 한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 담론이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일본사회에서 요즘에는 ‘협한’도 심하지만 여전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표상은 악마와 같은 표상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관련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용서되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므로 조선학교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마저도 제도적으로 차별을 받게 된다. 말하자면 한국의 김수영 시인이 『김일성 만세』를 쓴 1960년과 비슷한 상황이 일본에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일조선인을 표상하고 논할 수 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영화 〈스푸와 이테올로지〉는 조선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작품의 의미는 열려 있다. 보고 싶은 모습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작품이 보여 주는 것과 안 보이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사회의 ‘약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작품들을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하지 않을까. ‘표상’도 중요하지만 ‘수용’ 또한 중요하다. 본고를 계기로 더 많은 논의가 벌어졌으면 한다.

7 이와 관련해 창비 주간논평에 짧은 글을 쓴 적도 있다(김태식, 「남북관계의 전진과 조선학교」).

참고문헌

김태식(2014) 「누가 디아스포라를 필요로 하는가 : 영화 〈엑스포70 동경작전〉과 〈돌아온 팔도강산〉에 나타난 재일조선인 표상」, 『일본비평』 Vol.4, 그린비, 224-247.

심의대본 〈엑스포(EXPO) 70 동경작전〉(1970)

심의대본 〈돌아온 팔도강산〉(1974)

酒井直樹(최정옥)(2008) 『일본, 영상, 미국』, 그린비, 42-43.

김태식 「남북관계의 전진과 조선학교」

(https://magazine.changbi.com/180725/?cat=477&fbclid=IwAR11O7zuoQJvzaFDDat hMpkI-VwKss32MHu7eXmR2g_jAD-LCYye98RJLGc, 2022.8.10)

家族の日常から歴史が見える-映画『スーブとイデオロギー』が描く「済州島四・三事件」
をめぐって1 【対談】 金石範×ヤン ヨンヒ

(<https://imidas.jp/jijikaitai/f-40-232-22-06-g886?fbclid=IwAR0XwcWlglLYinLR0ziFe G0xcwo8JTnyJ2CtYzqF5b9khto1nXkrwiCSY0>, 2022.8.10)

심포지엄 「재일코리안 표상의 변천」에 대한 토론문

A Reaction Paper on Symposium “Evolving Representations of Zanichi Koreans”

岡崎享子*

立命館大学

이번 심포지엄에 앞서 2021년 5월30일에는 국제고려학회 일본지부의 학술심포지엄 「여자가 쓰다, 여자를 쓰다 - 문학 속의 재일조선인 여성」이 개최되었다. 그곳에서는 문학에서 재일조선인 여성의 표상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거기서 논의 된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즉 식민주의의 연장선으로 재일조선인 표상을 고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일조선인 표상을 통해 표상을 하는 주체가 어떤 젠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또한, 다른 사람의 ‘표상’을 생각할 때는 ‘언제’, ‘누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누구를’, 혹은 ‘누구를 통해’ 그리는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관점은 이번 제15차 코리아학국제학술토론회 심포지엄 「재일코리안 표상의 변천」에서도 유효했다고 생각된다. 이번에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이하 총련) 소속의 재일조선인과 조선학교의 고정관념화된 표상의 문제, 표상하는 주체의 다양화, 재일조선인 문학과 코리안 아메리칸 문학의 교차성 등, 다양한 문제제기와 제안이 이뤄졌다. 각 논고의 연구 대상은 공통적으로

* Ryoko Okazaki(Phd student, Department of Letters, Ritsumeikan University)

영화와 문학작품이었지만, 제작된 시기와 장소, 사용언어, 표상의 주체와 객체도 다양하고 다루어지는 주체도 조금씩 겹치면서도 달랐다. 이 점만 봐도 재일조선인 표상에 관한 연구가 다양한 언어와 장소 혹은 학문영역에서 진행되고 알 수 있다.

이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각 논고에 대한 의견과 의문점을 포함한 토론문을 정리한다.

1. 김태식 발표자의 「총련계 재일조선인 표상의 정치학」

먼저 김태식 발표자의 논고를 살펴본다. 본고는 1970년대에 발표된 한국 영화 〈엑스포70 동경전선〉(1970)(이하 엑스포)와 〈돌아온 팔도강산〉(1976), 그리고 2021년에 발표된 재일조선인 2세 양영희 감독의 작품 〈수프와 이데올로기〉(2021)를 통해 총련계 재일조선인의 표상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엑스포〉와 〈돌아온 팔도강산〉에서 총련계 재일조선인이 ‘공산주의자’, 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공화국)’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편견을 유도하는 표상을 통하여, 그것이 총련=공화국=악의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해 지적한다.

그러나 이 두 작품과 〈수프와 이데올로기〉의 비교분석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수프와 이데올로기〉는 다큐멘터리이고 감독 개인의 가족사가 그려진 작품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큐멘터리라고 해도 제작자의 의도나 조작이 들어 있는 하나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전자의 두 작품과 큰 의미에서 같은 범주에 포함될 여지는 있지만, 후자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가족의 기록이라는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픽션과 다큐멘터리라는 성격이 다른 작품을 비교 대상으로 다루는 것에 관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수프와 이데올로기〉의 등장인물 카오루는 허구의 인물이라고 언급하였는데, 다큐멘터리 작품에서 어디까지를 표상의 문제로 파악할 수 있는지 대상과 객체의 관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 연구 대상인 작품들에서 젠더가 그려지는 방식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작품을 분석하였던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이다. 특히 〈수프와 이데올로기〉에 그려지는 양영희 감독과 그의 일본인 파트너 카오루의 관계에 대해, 식민지 지배자 측의 남성과 피지배자 측의 여성의 연애 관계가 양자 사이에 있는 폭력성을 비가시화한다고 본고가 지적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더 나아가 식민주의의 책임을 직시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하고 있다고 작품을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 관해서는 의문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것은 재일조선인이 제작한 작품이라고 해서 반드시 일본인 등장인물들에게 식민주의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양영희 감독의 어머니의 집에 걸려있던 공화국에 관련된 초상화를 카오루가 같이 떼어낸 것에 대해, 아버지의 부권을 박탈하고 어머니의 집을 탈취하는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과연 본 작품으로부터 이론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카오루에게 초상화를 떼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 장면을 양영희 감독이 찍었는지 등의 그 장면이 대상화된 배경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재일조선인 2세 여성으로서의 양영희 감독의 젠더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본고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카오루가 초상화를 내리는 행위가 양영희 감독 가족의 부권을 수탈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양영희 감독이 왜 그와 관련된 장면과 대화를 잘라냈는지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이 영화를 다각적인 면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2. 김보현 발표자의 「일본 영화 속 재일코리안과 복측 표상 (1994-2011)」

다음으로 김보현 발표자의 논고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발표된 일본영화 〈GO〉(2001)와 〈박치기(パッチギ)〉(2005)에서 그려지는 재일조선인들이 ‘한국’과 ‘공화국’이라는 이분법적으로 표상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재

일조선인'이 전부 '조선적'인 것처럼 묘사하는 동시에 지역 혹은 기호로서의 '조선'을 나타내는 '조선적'이 '공화국'의 국적인 것처럼 묘사함으로써 잘못된 이미지를 퍼뜨렸으며, 그 결과 당시 일본사회에서의 공화국에 대한 차별구조를 재생산시켰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GO〉과 〈박치기〉에서 조선학교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공화국화된 대상으로 그려지는지에 대해 논한다. 이 때 2006년 한국에서 제작된 홋카이도(北海道) 조선학교에 관한 다큐멘터리 〈우리학교〉(2006)와의 차이점을 강조함으로써 조선학교 묘사가 얼마나 왜곡되었는지 설명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김태식 발표자의 논고에 대해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다큐멘터리 영화와 상업영화를 비교할 때의 조건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각 작품들의 시대 설정이나 배경을 살펴보면, 〈GO〉는 2000년에 발간된 카네시로 카즈키(金城一紀)의 자전적 소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GO〉의 배경은 본고에서 언급된 2002년 조선학교의 방향 전환 이전인 1980년대로 설정되어 있다. 또한 〈박치기〉는 2004년에 발매되었는데, 시대 설정은 공화국으로의 귀국 사업이 한창이던 1960년대 후반이다. 한편, 〈우리학교〉는 2006년에 발매되어 조선학교의 방향 전환 이후의 조선학교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이러한 비교 대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2000년대 초반의 작품 〈GO〉와 〈박치기〉는 재일조선인에 대한 특정 이미지를 만들어내어 차별을 재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중요한 지적이다.

김태식 발표자와 김보현 발표자의 논고에서 떠오르는 것은 2020년에 방송된 NIKE의 광고다. 광고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ありのままの自分)'이라는 주제 하에 재일조선인 소녀가 등장한다. 일본에서 한복을 입고 조선식 이름으로 조선학교에 다녔던 소녀가, 일본 학교로 옮긴 후에 느꼈던 소수자로서의 소외감을 스포츠로 극복하여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는 스토리가 그려져 있다.

여기서는 소수자 커뮤니티→재일조선인→조선학교→한복 입은 소녀라는 제작자 측의 재일조선인 표상 구도가 보인다. 이러한 광고가 글로벌 기업에

서 제작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 김태식 발표자와 김보현 발표자가 언급하였듯이 조선학교나 총련계 재일조선인 표상의 고정관념화가 세계에도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재일조선인 표상의 주체와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그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지가 경직되어 현실에 존재하는 재일조선인의 모습과 괴리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김태식 발표자와 김보현 발표자에게 차별이나 편견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작품을 만드는 것, 혹은 재일조선인을 표상하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재일조선인, 혹은 조선학교를 그럴 때는 개별 이야기마다 특수성, 정치성을 띠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여러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업영화나 상업광고를 통해 재일동포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된 사람도 있다는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작품을 감상하는 주체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는가에 의해 좌우되는 부분도 크다고 생각된다.

3. David S. Roh 발표자의 「Articulating the Zainichi and Korean-American Literary Conversation」

3.1 “디아스포릭 마이너리티(Diasporic Minority)”라는 방법론

마지막으로 David S. Roh 발표자의 논고에 대해 생각해본다. David S. Roh 발표자는 2021년에 『마이너 트랜스퍼시픽: 미국, 일본, 코리아의 삼각관계(Minor transpacific: triangulating American, Japanese, and Korean fictions)』을 간행한 바 있다(본 코멘트에서는 영어 ‘Korea’를 한반도라는 뜻으로 ‘코리아’라고 부른다). David S. Roh 선생님은 저서의 목적으로 코리아계 미국인 문학이나 아시아계 미국인 문학이 미국과 코리아, 또는 재일조선인 문학이 일본과 코리아라는 두 공간만을 연구영역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국, 일본, 코리아의 삼각관계에서 문학작품을 읽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을 “마이너 트랜스퍼시픽(minor

transpacific)”으로 명명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제3의 국가공간에서 마이너(minor) 문학들이 어떻게 협상하고 대화하는지를 밝힐 수 있는 이론적 틀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

본고는 『마이너 트랜스퍼시픽』의 제5장에 해당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재일조선인 문학과 코리안 아메리칸 문학에 공통된 이론적 틀, 학문적 틀이 불 명확한 점을 문제로 제기한다. 양자는 어느 영역에도 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예를 들어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 Min Jin Lee가 영어로 재일조선인에 대해 쓴 소설 『파친코(Pachinko)』(2017)는 아시아 문학, 코리안 아메리칸 문학의 범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 또한 마찬가지로 재일조선인 작가 김마스미(金真須美)가 일본어로 미국의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과 이를 둘러싼 재일조선인과 코리안 아메리칸에 대해 쓴 소설 『불타는 초가(燃える草家)』(1997)는 일본문학, 재일조선인 문학의 범주만으로 파악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어느 범주에도 속하지 않는 두 작품이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이야기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파친코』(2017)를 『불타는 초가』(1997)에 대한 20년 후의 응답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본고에서는 두 작품을 “diasporic 마이너리티(Diasporic minority)”의 관점에서 읽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diasporic 마이너리티”의 관점이란 작품을 코라아를 기원으로 하는 diaspora로 보는 것이 아니라 코리아가 일본과 미국을 매개, 협상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동시에 이 제안은 인종본질주의에서 벗어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영어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아시안 아메리칸 문학의 작품 내용을 다른 소수자 커뮤니티의 그것과 비교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재일조선인 문학을 읽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재일조선인 중에서도 3세 이후의 세대가 늘어나면서 더 이상 조선반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해도 재일조선인임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나 믹스루츠(mixed roots)를 가진 사람도 늘어나고 있으며, 본질주의나 혈통주의로는 재일조선인 사회를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지적했듯이, 유사한 둘 이상의 작품들을 유동적으로 서로 관여하면서 대화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작품들을 교차시키며 읽는다면 새로운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3.2. 『파친코(Pachinko)』(2017)와 『불타는 초가(燃える草家)』(1997)의 작품 분석

Davi S. Rho 발표자의 논고는 Min Jin Lee의 『파친코』를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하나는 등장인물인 재일조선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이미지에 대한 묘사다. 다른 하나는 등장인물인 코리안 아메리칸이 가지고 있는 심정 묘사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그 둘이 만나고 문화 충돌을 일으키는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일조선인 2세 모자스와 노아는 크리스천 일가에서 태어났으며, 노아는 대학에서 영문과를 다니고 노아의 연인 유미는 영어를 동경하며 미국을 낙원으로 여긴다. 모자스는 파친코를 운영하면서 아들 솔로몬을 인터내셔널 학교에 보내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한다. 이처럼 본 논고에서는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재일조선인 박 씨 일가와 그 주변 사람들이 영어와 미국을 동경하거나, 생활 속에서 미국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미국 지향이 재일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이 점은 David S. Rho 발표자의 독자적인 시각이고, 『파친코』를 새로 읽을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다음으로 본 논고에서는 재일조선인과 코리안 아메리칸의 교섭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춘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모자스의 아들인 재일조선인 3세 솔로몬의 애인인 코리안 아메리칸 피비에 대한 묘사다. 피비가 일본 안에서 생활하는 재일조선인과 만날 때 그동안 당연하게 보이지 않던 코리안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된다. 그 파비의 심정은, 솔로몬의 할머니 순자에게 자신은 철저히 미국인이며 자신의 가족은 코리안에 구애되지 않고 다른 인종을 받아들이는 유연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나타난다. 피비가 다른 장소나 다른 문화 출신의 코리안을 만났을 때의 흔들리는 심정을 묘사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Min Jin Lee만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솔로몬과 피비는 서로의 역사관과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다른 길을 걷게 된다. 작가 Min Jin Lee는 다른 문화를 접한 재일조선인과 코리안 아메리칸이 대화, 협상하면서도 같은 길을 걷지는 못하는 이야기를 그렸던 것이다.

이어 본고에서는 재일조선인과 코리안 아메리칸의 대화가 그려진 첫 작품으로 1997년 발표된 김마스미의 『불타는 초가』를 꼽는다. 이 작품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와중에 벌어진 두 여성의 이야기다. 등장인물의 두 여성 중 한 명은 주인공인 로스앤젤레스에 17년간 사는 재일조선인2세 료코이고, 다른 한 명은 료코의 친구인 코리안 아메리칸 1세 미령이다. 폭동 와중에 임신 중인 료코가 복통을 겪으면서도 미령과 미령의 가족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초가’로 향하던 중에 벌어지는 두 사람의 대화와 행동이 이 작품의 축을 이루고 있다.

료코는 국적을 일본으로 바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미령과 미령의 큰아버지는 반대한다. 여기서는 료코가 코리안이라고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고,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과 만나면서도 재일조선인으로서 자아를 모색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한편 코리안 아메리칸인 미령은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후,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가족이 운영하는 초가에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미령과 함께 초가를 경영하고 있는 인물이 미령의 어머니의 친오빠인 김이다. 미령과 김은 제주도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왔고, 김의 아내는 이민 후에 미국 생활이 맞지 않아 제주도로 돌아갔다는 것으로 적혀 있다.

이런 인물 설정을 고려하면, 재일조선인 료코와 코리안 아메리칸 미령의 결정적인 심리적 장벽이 그려지는 두 장면이 있다. 하나는 발표자도 언급하고 있듯이 둘이 코리안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인 아메리칸에게 골목으로 끌려갔을 때 미령이 료코를 가리키며 “아임, 리얼, 코리안, 바트, 씨, 이즈, 재패니즈(I am real Korean, but she is Japanese)”라고 말하며 료코를 위기에서 구하려는 장면이다.

다른 하나는 초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료코가 복통에 시달려 뱃속의 아이

를 걱정하고 있을 때 미령이 료코를 향해 “차라리 흘러가면 돼! 넌 아직 준비가 안 된 걸”이라고 외치는 장면이다. 그 후 료코는 유산했음을 확신한다. 본 논고에서는 이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지만, 이 장면이 두 사람의 관계성을 결정짓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미국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싱글맘으로 사는 미령의 삶의 어려움과 재일조선인으로서 일본과 미국에서 정체성을 계속 모색하는 료코의 고뇌의 차이, 두 사람이 추구하는 대상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결국 남편을 잃은 미령과 아내로부터 도망친 김에게 제2의 고향이자 생계를 이어가는 삶의 터전인 초가가 불타오른다. 그리고 료코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는 죽고 만다. 따라서 료코도 미령도 김도 각자의 믿음과 근거를 잃어버리는 결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불타는 초가의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정리한 후, David S. Roh 발표자가 본 작품에서 료코와 미령, 또는 료코와 김의 대화를 묘사한 방법, 그리고 각 등장인물의 심리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

이상과 같이 David S. Roh 발표자의 논고를 정리하면, 『파친코』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서의 Min Jin Lee가 재일조선인과 만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이며, 『불타는 초가』는 재일조선인 김마스미가 코리안 아메리칸과 만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다. 더욱이 본 논고에서 지적했듯이 Min Jin Lee가 『불타는 초가』에 응답하는 형태로 『파친코』를 썼으며 양자 사이에 관계가 있다면, “마이너 트랜스퍼시픽”의 교차성이 증폭되어 작품을 보다 다각도로 읽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특히 두 작품 모두 여성 작가의 저작이라는 점에서, 여성 등장인물 묘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해석은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약간 덧붙인다면, 『파친코』에도 『불타는 초가』에도 코리안 이외의 소수민족 커뮤니티가 그려지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작품의 무대인 오사카의 이카이노도 로스앤젤레스도 코리안 이외의 소수 커뮤니티의 밀집 지역이다. 하지만 다른 마이너 커뮤니티와의 대화나 협상은 그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마이너 트랜스퍼시픽”의 관점에서 작품을 볼 때, 향후

의 논점으로서 무엇이 그러지고 그러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도 고찰한다면, 작품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읽기와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국제고려학』 투고규정

1. 원고작성

Microsoft Office Word로 작성하여 논문의 분량은 그림과 도표를 포함하여 3만자 (A4로 16매)를 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4로 작성하고 여백은 25mm(위, 아래, 왼, 오른쪽), 한글 폰트는 Batang, 크기는 10pt, 1줄 40자, 1페이지 45줄로 한다.

2. 언어

논문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된 원고를 받는다.

3. 본문

본문의 장, 절, 항은 아라비아숫자를 이용하여 장은 1., 절은 1.1., 항은 1.1.1.로 표기한다.

4. 주석

주석의 경우 참조주는 될 수 있는 대로 내각주로 처리하고 내용주만 외각주로 처리한다. 논저를 인용할 경우에는 저자명과 출판년도, 쪽수를 밝혀, 홍길동(2007: 123-125)와 같이 표시한다. 내각주일 경우에는 (홍길동 2007: 123-125)로 한다.

5. 예문 및 인용문

예문이나 인용문은 위아래로 본문과 한 줄을 띄운다. 예문이 하나 이상일 때에는 붙인다.

6. 참고문헌

논문 서지 표기는 다음과 같은 표기 순서와 원칙을 지킨다(✓는 띄어쓰기를 표시함).

1) 한국어일 경우:

저자명(역자명)(년도) ✓ 「글명(논문명)」, ✓ 편자명, ✓ 『서적명』, 출판지 ✓ 출판사명, ✓ 쪽수.

예) 홍길동(2006) 「지식인의 역할」, 『국제고려학』 1, 국제고려학회, 100-111.

예) 홍길동(1997) 「욕망과 쾌락」, 서울사회과학연구소(편) 『탈주의 공간을 위하여』, 서울: 푸른숲, 100-111.

2) 일본어, 중국어 논문의 경우에는 한국어 서지 작성 원칙에 준한다.

3) 서양논문일 경우:

저자명(역자명) ∨ (년도) ∨ ‘글명(논문명),’ ∨ in ∨ 편자명(ed.) ∨ 서적명(이탈릭), ∨ 출판지: ∨ 출판사명, ∨ 쪽수.

예) Chomsky, Noam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1, 1-46.

예) Comrie, Bernard (1995) ‘Form and function in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in Brian Butterworth et al. (ed.) *Explanations for Language Universals*, Berlin: Mouton, 87-104.

4)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에는 논문 제목과 인터넷 주소, 검색일자를 병기한다. 인용 부분을 가능한 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웹 주소는 html까지 그 페이지 주소창에 뜨는 부분을 모두 적어 준다.

예) Allen, Jonathan, ‘Balancing Justice and Social Unity: Political Theory and the Idea of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www.utpjournals.com/utlj/493_allen.html, 2006.5.25)

7.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1) “ ” : 인용
- 2)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 3) 『 』 : 서적명, 총서명, 원전, 단행본, 신문명, 음반 등
- 4) 「 」 : 논문명, 기사명, 글명, 작품명, 편명, 조명
- 5) · : 동일사항의 나열 예) 백두산 · 한라산 · 지리산

8. 기타

이 원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Papers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1. The paper must be submitted as a Microsoft Word file attachment, and must be written in double-spaced Times Roman 10.5 point font.
2. The page format should be set for A4 size with left-hand justification only. Margin should be set 25mm each on all sides.
3. The body of the manuscript must be 5,000 words or less in length. Endnotes, bibliography, and other additional material are excluded from this word count.
4. Chapter, Section and Subsection Headings; follow the example below
 1. Chapter Headings
 - 1.1 Section Heading
 - 1.1.1 Sub Subsection Heading

5. Quotations and Citations

Block quotations, extracts or excerpts should be set off from the text, without quotation marks. They should be set in type that is one point smaller than the text.

Full citations of literature should be placed in the references section at the end of the chapter or manuscript. Within the text, only brief author-date citations should be made, giving the authors' surname, year of publication, and page number(s) where relevant. Such brief citations should be given in the body of the text, not in footnotes.

6. Reference: Follow the examples below

1) Korean, Japanese and Chinese

예) 홍길동(2006) 「지식인의역할」, 『국제고려학』1, 국제고려학회, 100-111.

예) 홍길동(1997) 「육망과쾌락」, 서울사회과학연구소(편)『탈주의공간을위하여』, 서울: 푸른숲, 100-111.

2) Western

1) Chomsky, Noam (1980) 'On binding,' Linguistic Inquiry 11.1, 1-46.

- 2) Comrie, Bernard (1995) 'Form and function in explaining language universals,' in Brian Butterworth et al. (ed.) *Explanations for Language Universals*, Berlin: Mouton, 87-104.
- 3) Quotations from the documents on the Internet; follow the example below.
Allen, Jonathan, 'Balancing Justice and Social Unity: Political Theory and the Idea of a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http://www.utpjournals.com/utlj/493_allen.html, 2006.5.25.)

7. Symbols.

- 1) “ ” : Quotations and Citations
- 2) ‘ ’ : Emphasis
- 3) 『 』 : Title of Book
- 4) 「 」 : Title of paper

〒530-0047 日本 大阪府大阪市北区西天満4丁目5-5-506
国際高麗学会 『국제고려학』 편집위원회
The Edi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Studies,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4-5-5-506, Nishitenma, Kita-ku, Osaka, 530-0047, Japan
Email: info@isks.org

편집위원회는 교정쇄를 필자에게 송부하며 필자는 교정쇄를 받으면 조속히 점검 및 교정을 하여 편집위원회에 반송해야 한다.

논문모집

『국제고려학』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보내 주신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선정 작업을 거쳐 본지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넓고 다양한 주제를 통하여 본지가 코리아학 연구자들의 학문적 교류의 마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제고려학회 임원

| | |
|-------|---|
| 회장 | 宋南先 (일본 大阪經濟法科大学) |
| 부회장 | 徐永彬 (아시아분회 회장, 중국 对外经济贸易大学) 김성민 (서울지부 회장, 한국 건국대학교) Changzoo Song (대양주지부 회장, 뉴질랜드 University of Auckland) 송현원 (평양지부 회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사회과학원) Sang-Hyop Lee (북미지부 회장, 미국 University of Auckland) Vladimir Tikhonov (유럽지부 회장, 노르웨이 University of Oslo) 伊地知紀子 (일본지부 회장, 일본 大阪公立大学) |
| 편집위원장 | 鄭雅英 (일본 立命館大学) |
| 편집간사 | 姜民護 (일본 同志社大学) |
| 사무총장 | 裴光雄 (일본 大阪教育大学) |
| 사무차장 | 伊地知紀子 (일본 大阪公立大学) |

국제고려학 제19호

발행일 2023년 3월 31일
발행인 국제고려학회 회장 宋南先

편집인 국제고려학회 편집위원장 鄭雅英
발행처 국제고려학회/國際高麗學會
大阪府大阪市北区西天満 4丁目 5-5-506
TEL: +81-6-7660-8045 / FAX: +81-6-7660-7980
Email: info@isks.org / HP: http://www.isks.org
만든곳 도서출판 선인
TEL: +82-2-718-6252

ISSN 1347-7307

2023

International Society for Korean Studies

2023 • No.19 국제고려학

CONTENTS

Articles

| | |
|--|--|
| Contents of Major Economy-related Laws Newly Adopted and Amended in the Republic | Kim Sin Ho |
| A Study on the Structure and Significance of Non-hostile Conflict in Korean Peasant Novels in the 1950s -Focus on Cheon Seborg's Novel A New Spring in Suckgaeul- | Jun Ying Ji Lee Sun |
| The Great Efforts into Solving the Rural Problems in Our Country | Kim Ung Ho |
| Myongrungdong Mural Tomb Newly Unearthed in Haeson-ri, Kaesong City | Kim In Chol |
| Documentary Study on Kimchi in the Period of Feudal Joseon Dynasty | Kim Ji Won |
| Inquiry into the New Depiction of Character in Short Stories in the Middle Ages after the 17th century | Kim Jin Guk |
| The Influence of The Non-Church Movement Found in Japanese Citizens' Support for Korean A-bomb Victims | Yuko Takahashi |
| The Study of Station Study Method in Korean Grammar Class -Regarding the Beginners of Japanese Language- | Ryu Mi Sun |
| Change of Typography in the North Korea with Historical Transitions of Korean Dictionary Compilation (1945-2007) | Ryu Hyun Guk |
| Historic Relations between Ancient Korea, Koguryo Dynasty and Koryo Proved by the Place Name "Bisogab" | Ri Song Ho |
| Handling of Morphologic Phonology of Korean Letters | Ri Sung Gil |
| The 'Traditionality' of Choi Seung-hee's Dance as Seen in "Sword Dance" | Park Kyoung Ran |
| Consideration of Effects of Pronunciation Learning through Group Work -Focusing on Online Classes- | Park Eun Joo |
| The Succession of Ethnic Dance Education for Korean Residents in Japan -Focusing on the Case of the Joseon School- | Suh Hee Young |
| Literature of Poetry Composed in Praise of Mt. Paekdu, Sacred Place of the Korean Nation, before Liberation | Sim Kyong Sop |
| A Macroscopic Approach and Contemporary Meaning of Wonhyo Thought | Lee Byung Wook |
| A Study on the Teaching of Novel Text Reading Using Havruta Method -Focus on Lee Chung-joon's Novel Snowy Road- | Yi Chao Bae Yun Kyung |
| A Study on Grammatical Attributes of Particles in Korean Part of Speech System | Quan Yong Gen Huang Wen Wei Jong Pong Chan |
| Rimhungdong Relics of Well No.1 Newly Unearthed in Daesong District, Pyongyang City | Jo Hui Sung |
| The Nationality of 옥충주자(玉忠厨子, Tamamusino zuji) in Bobryung Temple in Japan | Tak Ryong Bom |
| 『Rupango』, List of Wood Blocks in the 18th Century | Ho Myong Chol |
| Study on the History of Koguryo Dynasty in the Latter Half of Koryo and Its Limitation | Xu Qin |
| An Experimental Phonetic Study on the Deletion of Stem-final 'ŋ' in the Chinese Yanbian Korean | |

Symposium

"Evolving Representations of Zainichi Koreans"

| | |
|--|---------------|
| Evolving Representations of Zainichi Koreans | Kang Min Ho |
| The Politics of Koreans in 'Chongryon' Representation | Kim Thae Sik |
| A Reaction Paper on Symposium "Evolving Representations of Zainichi Koreans" | Ryoko Okazaki |